랜슬롯 경과 그의 동료들

The Story of Sir Launcelot and His Companions

하워드 파일 (Howard Pyle) (1853–1911)

1907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3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하워드 파일 (Howard Pyle), "The Story of Sir Launcelot and His Companions" (Charles Scribner's Sons 1907)

저자

하워드 파일 (Howard Pyle) (1853–1911)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33702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Qwen3.6-35B-A3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3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샤론 베루그스트라테, 수잔 셸, 그리고 온라인 분산 교정 팀 (https://www.pgdp.net)이 이를 제작하였더라.

[일러스트레이션: 아름다운 엘레인 공녀.]

[그림]

하워드 파일

뉴욕: 도버 출판사

캐나다에서는 제너럴 퍼블리싱 컴퍼니, 리미티드(General Publishing Company, Ltd.)에서 출판되었으니, 그 주소는 온타리오 주 토론토 돈밀스(Don Mills) 레스밀 로드 30번지더라.

영국에서는 콘스터블 앤 컴퍼니 리미티드(Constable and Company, Ltd.)에서 발행하였으니, 그 주소는 런던 W6 9ER, 풀햄 팰리스 로드(Fulham Palace Road) 162-164번지, 더 란체스터스 (The Lanchesters)라.

이 도버 판은 1991년에 처음 간행되었으며, 1907년 뉴욕의 찰스 스크리브너스 선즈(Charles Scribner's Sons)에서 초판 발행된 원작의 전편을 그대로 재간한 것이다.

미국에서 제조됨. 도버 출판사, Inc., 31번지 이스트 2nd 스트리트, 미니올라, N. Y. 11501

미국 의회도서관 출판물 데이터 분류

호워드 파일(Howard Pyle, 1853-1911)

페이지, 판형.

재판. 초판 발행: 뉴욕: 스크리브너, 1907년.

원탁의 기사 랜슬롯 경은 구이니비어 왕비를 구출하고, 아스토라트에서 열린 시합에 참가하며, 그 밖의 여러 모험을 추구하는 여정이 이어지더라.

ISBN 0-486-26701-6

1. 랜슬롯 (전설적 인물) -- 로맨스. 2. 아서왕 로맨스. [1. 랜슬롯 (전설적 인물) 2. 기사와 기사도 -- 민속. 3. 아서, 왕. 4. 민속 -- 영국.] 1. 제목.

PZ8.1.P994Sr 1991 843'.1--dc20 [398.2] 90-22326 CIP AC

[그림]

서문

이로써 내가 브리튼의 아서왕과 그의 궁정 및 원탁에 속했던 그 막강한 기사들의 역사에 관해 집필하고자 스스로에게 부과한 세 권의 책 중 세 번째 책이 시작되노라.

이전에 간행된 책에서, 독자들은 매우 고귀하고 존경할 만한 기사, 호수의 랜슬롯 경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노라. 그는 호수의 부인 니무

에의 마법 같은 거처였던 마법의 호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원탁의 동료였으나 이후 호수의 영주가 된 온유한 기사 펠리아스 경에게서 기사의 모든 훌륭한 예술들을 어떻게 연마했는지 서술되어 있노라. 또한 그가 호수에서 나와 이후 아서왕의 원탁에서 가장 으뜸가는 기사가 된 사연도 거기에 기록되었노라. 이 모든 이야기와, 전장에서는 물론 궁정에서도 매우 고귀하고 뛰어난 기사들이었던 원탁의 동료들인 랜슬롯 경과 여러 위인들에 관한 다른 많은 일들이 그 책에 담겨 있노라.

이에 호수의 랜슬롯 경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와, 그 시기에 그가 수행한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모험들의 기록을 이어가노라.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여기서 서술될 바를 읽기를 기뻐하시거든, 랜슬롯 경이 어떻게 코르빈의 거대한 용을 죽였는지, 그리고 그 뒤에 그에게 닥친 광기의 일을, 또한 가장 고결하고 온유하며 아름다운 부인, 곧 미인 엘레인 부인이 그에게 극심한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원조와 구원을 베풀어 다시 건강으로 돌아오게 했는지 들으리라. 또한 여기서 랜슬롯 경이 어떻게 그 고결하고 아름다운 부인과 결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에 관하여, 멀린(이 책에서 완전히 서술된 기적적인 방식으로)이 그가 살아온 자들 중 가장 완벽한 기사가 될 것이며 그가 성배를 땅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음을 발견하리라.

그 아이는 곧 갤러해드였으니, 세상이 모든 기사도의 꽃이라 아는 자라. 그는 두려움이나 어떤 비난도 없는 완전한 기사였으나, 동시에 살아온 자들 중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기사 용사였노라.

그러므로 이 일들을 읽으시어 기쁨을 얻으시려거든, 이어지는 바를 읽으시기를 청하노라. 이 책에는 이 모든 것과 여러 다른 역사들이 온전히 기록되었음이니라.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목차=

제1부

수레의 기사

제1장

데니스가 랜슬롯 경을 어떻게 발견하였는가, 그리고 랜슬롯 경이 어떻게 멜레그란스의 성에서 구이니비어 여왕을 구하기 위해 말을 타고 나섰는가, 그리고 그 모험을 시험하는 동안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1

제2장

랜슬롯 경이 구이니비어 여왕을 구하기 위해 수레를 타고 달려갔으며, 그로 인해 어떻게 멜레그란스 경의 성에 이르렀는지에 관한 이야기

제삼장

랜슬롯 경이 구덩이에서 구출되고, 멜레그란스 경을 물리쳐 구이니비어 여왕과 그 궁중들을 억압에서 해방시킨 이야기 29

제이부

오크니의 가레스 경의 이야기

제1장

오크니의 가레스가 아서왕이 궁정을 열던 킨켄돈 성에 어떻게 이르렀으며, 그곳에서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39

제2장

가레스 경이 린넷이라는 젊은 낭자와 함께 모험을 떠난 일과, 그가 케이 경과 싸웠으며 랜슬롯 경이 그를 기사로 임명하였던 일. 또한 이때 가레스, 일명 보우먼스가 겪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되니라.

제삼장

_어떻게 가레스 경과 린넷이 그들의 여정을 계속하여 멀리까지 나아갔는가; 어떻게 가레스 경이 두 명의 강인한 기사들과의 강가 고개 싸

움에서 승리했으며, 또한 어떻게 그가 흑지대의 흑기사에게 승리했는가. 또한 그가 여섯 명의 강도들에게 억압당하던 선량하고 가치 있는 한 기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_ 63

제4장

how Sir Gareth Met Sir Percevant of Hind, and How He Came to Castle Dangerous and Had Speech with the Lady Layonnesse. Also How the Lady Layonnesse Accepted Him for Her Champion

가레스 경이 힌드의 퍼시벌 경을 만나고, 위험한 성으로 나아가 레이오네스 부인과 담소를 나눈 일. 또한 레이오네스 부인이 그를 자신의 대리로 받아들이게 된 일

이때 가레스 경은 그 길을 따라 계속 나아가, 마침내 한 고개를 넘어서는 곳에 이르렀더라. 그곳은 험준하고 가파른 길이라, 많은 이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가레스 경은 담대히 그 길을 따라 올라가니라.

그가 고개 정상에 올라서자, 바로 아래 계곡에 한 성이 서 있는 것이 보였더라. 그 성은 매우 위엄 있어 보였으며, 주변은 높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노라. 가레스 경은 그 성을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위험한 성(Castle Dangerous)'이라 생각하였더라.

그가 성을 향해 내려가려 할 때, 갑자기 한 기사가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나타나니라. 그 기사는 온몸을 갑옷으로 두르고 있으며, 방패에는 검은 독수리가 그려져 있었더라. 가레스 경은 그 기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그의 태도가 매우 엄숙하고 위엄 있어 보였노라.

"어디로 가느냐?" 그 기사가 물었노라.

"나는 위험한 성으로 가려 하노라." 가레스 경이 대답하였노라.

"위험한 성으로 가려는 자는 모두 위험에 처하느니라." 그 기사가 말하였노라. "나는 힌의 퍼시벌 경이라 하노라. 너는 누구냐?"

"나는 가레스 경이라 하노라." 가레스 경이 대답하였노라.

"가레스 경이시여, 당신은 매우 용감하오." 퍼시벌 경이 말하였노라. "그러나 위험한 성은 매우 위험한 곳이오. 그곳의 부인은 모든 기사를 시험하느니라. 만약 당신이 그 부인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곳에서 죽을 것이오."

가레스 경은 퍼시벌 경의 말을 듣고도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오히려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성으로 향하였노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노라." 가레스 경이 말하였노라. "나는 이미 많은 위험을 겪었노라. 이번에도 나의 운명을 믿겠노라."

퍼시벌 경은 가레스 경의 용기를 보고 감탄하였노라. 그는 가레스 경에게 길을 열어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노라.

"가레스 경이시여, 당신은 진정한 기사라 하오. 나는 당신의 용기를 존경하오. 그러나 기억하시오. 위험한 성의 부인은 매우 교활하오. 그녀는 당신의 마음을 시험할 것이오. 당신은 그녀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오."

가레스 경은 퍼시벌 경의 충고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성으로 향하는 길을 계속 나아갔노라.

그가 성 문 앞에 이르자, 성문은 열려 있었노라. 가레스 경은 성 안으로 들어갔고, 성 안은 매우 넓고 화려하였노라. 그는 성의 중앙에 있는 큰 홀로 향하였노라.

홀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며, 그 중앙에는 한 부인이 앉아 있었노라. 그 부인은 매우 아름다웠으며, 그 얼굴에는 슬픔과 고통이 서려 있었노라. 가레스 경은 그 부인이 바로 레이오네스 부인임을 알았노라.

레이오네스 부인은 가레스 경을 보고 일어서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노라.

"당신은 누구냐? 그리고 왜 이곳에 왔느냐?"

"나는 가레스 경이라 하노라." 가레스 경이 대답하였노라. "나는 당신의 고통을 나누고자 왔노라. 당신이 원하는 바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싸우겠노라."

레이오네스 부인은 가레스 경의 말을 듣고 놀랐노라. 그녀는 가레스 경을 자세히 살펴보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노라.

"가레스 경이시여, 당신은 매우 용감하오. 그러나 나의 고통은 매우 깊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소.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다시 찾고자 하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소."

"그럼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해 드리겠노라." 가레스 경이 말하였노라. "당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오.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싸우겠노라."

레이오네스 부인은 가레스 경의 용기에 감동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노라.

"가레스 경이시여, 당신은 나의 대리가 되어 주겠소? 나는 당신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주고,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오."

"그럼 내가 당신의 대리가 되겠노라." 가레스 경이 대답하였노라.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나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겠노라."

레이오네스 부인은 가레스 경의 대답에 기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노라.

"가레스 경이시여, 당신은 진정한 기사라 하오. 나는 당신이 나의 대리가 되어 주기를 감사히 여기오. 이제 당신은 나의 대리가 되었소. 당신의 모든 행동은 나의 이름을 위해 이루어질 것이오."

가레스 경은 레이오네스 부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았노라. 그는 레이오네스 부인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하고, 성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노라.

제5장

붉은 땅의 붉은 기사와 싸운 가레스 경의 이야기, 그리고 그 전투에서의 결말. 또한 그의 난쟁이가 납치된 일, 그리고 그의 이름과 신분이 밝혀져 세상에 드러난 일

제삼부

랜슬롯 경과 아름다운 엘레인의 이야기

제1장

랜슬롯 경이 방랑의 길을 떠남과 코르빈의 벌레를 처치하는 모험을 스스로 떠맡게 된 일

제2장

어떻게 랜슬롯 경이 코르빈의 벌레를 죽였으며, 어떻게 그가 이후 코르빈 성으로, 펠레스 왕과 아름다운 엘레인 부인에게로 실려갔는가 117

제삼장

아서왕이 아스트롤라트에서 대회를 선포하신 일과, 코르빈의 왕 펠레스가 그의 궁정을 이끌고 그곳으로 가신 일. 또한 그 길에서 랜슬롯 경과 라베인 경이 두 명의 기사와 조우하신 일

네 번째 장

아스트롤라에서 열린 시합에서 랜슬롯 경과 라베인 경이 싸우던 일. 그 일로 인해 랜슬롯 경이 부상을 입었고, 라베인 경이 그를 안전한 곳으로 모셔갔던 일

다섯 번째 장

어떻게 랜슬롯 경이 상처 입은 채 숲으로 탈출하였고, 어떻게 가웨인 경이 펠레스 왕의 궁정에 마르발리에(Malfait, 악의 기사)가 누구인지 알렸는가

이때 랜슬롯 경은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으나, 그의 기개가 꺾이지 아니하고 그는 말에서 내려 숲속으로 도망쳤노라. 그러나 그의 몸은 너무도 약하여 더 이상 달릴 힘이 없었으므로, 그는 한 그루의 큰 나무 아래로 기어 들어가 숨었노라. 그의 피가 많이 흘러나와 땅을 적셨고,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노라.

그런데 가웨인 경은 그의 동료를 찾아 헤매고 있었더라. 그는 숲을 두루 누비며 랜슬롯의 발자국을 찾았노라. 마침내 그는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랜슬롯을 발견하였노라. 가웨인 경은 크게 놀라 뛰어가 그를 일으켜 안았노라. 그러나 랜슬롯은 여전히 의식을 잃고 있었노라.

가웨인 경은 그의 갑옷을 벗겨 상처를 살펴보고는 크게 근심하였노라. 그는 랜슬롯을 그의 말에 태워 캐멀롯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근처의 성으로 향하였노라. 그 성은 펠레스 왕의 소유였노라.

펠레스 왕은 가웨인 경을 맞이하여 그의 상처 입은 동료를 돌보게 하였노라. 왕은 의술에 밝았으므로 랜슬롯의 상처를 치료하였노라. 며칠 후, 랜슬롯은 의식을 되찾았노라. 그는 가웨인 경을 보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노라.

이때 가웨인 경은 펠레스 왕에게 말하였노라. "폐하, 저는 마르발리에(Malfait)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저를 해치려 했던 악한 기사였사옵니다. 그는 제 동료를 해쳤사오며, 이제 저는 그 정체를 밝히리이다."

펠레스 왕은 이를 듣고 크게 기뻐하였노라. 그는 가웨인 경의 용기를 칭찬하며 그를 존경하였노라. 랜슬롯 경이 회복되자, 그는 펠레스 왕과 가웨인 경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다시 여행을 떠났노라.

여섯째 장

엘레인 공주가 랜슬롯 경을 찾아 나선 일과, 이후 랜슬롯 경이 아서 왕의 궁정으로 돌아온 일 159

제사부

랜슬롯 경의 광기

제1장

숲의 광인이 된 랜슬롯 경과 그가 블라이언트 경의 성으로 인도되기에 이르기까지 171

제2장

랜슬롯 경이 블라이언트 경의 목숨을 구한 일과, 그가 블라이언트 경의 성에서 탈출한 일, 그리고 리스테네스의 거대한 멧돼지를 죽여 그의 주군인 아서 왕의 목숨을 구한 일

제삼장

랜슬롯 경이 다시 코르빈으로 돌아온 일과, 아름다운 엘레인 부인이 그를 보살펴 건강을 회복시킨 일. 그리고 랜슬롯 경과 엘레인 부인이 기쁨의 섬으로 물러간 일

제5부

에와인 경과 분수의 부인의 이야기

제1장

에웨인 경과 퍼시벌 경이 랜슬롯 경을 찾아 함께 떠난 일과, 그들이 어느 모험에서 실패한 사그모어 경을 만난 일. 또한 사그모어 경이 그 모험에 관해 이야기한 바를 전하노라 201

제2장

에웨인 경이 사그모어 경이 실패한 그 모험을 맡게 된 일과, 이후 그에게 닥친 일들

제삼장

분수의 레슬리 부인의 시중을 들던, 일명 엘로즈라 불린 처녀가 포로가 된 에웨인 경을 구원한 이야기 223

제4장

<각주: 237> <그림: 에웨인 경이 아서왕의 궁정으로 돌아오는 것과, 그가 레슬리 부인과 분수대에 대한 그의 의무를 잊어버리는 일>

제5장

에웨인 경이 어떤 고귀한 부인에 의해 구원받아 다시 생명을 얻게 된 일과, 그 부인이 큰 곤경에 처했을 때 그녀를 돕게 된 일,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분수의 레슬리 부인에게로 돌아간 일을 전하니라

제육부

랜슬롯 경의 귀환

제1장

퍼시벌이 그의 형제를 만나고, 두 사람이 어머니가 거처하는 수도원으로 함께 여행하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263

제2장

<각주: 퍼시벌 경과 에커 드 마리스 경이 호수 한가운데 있는 성이 있는 매우 신비로운 곳으로 도착한 일> 279

제삼장

〈랜슬롯 경과 퍼시벌 경과 에커 경과 엘레인 부인이 아서왕의 궁궐로 향하는 길과, 그 여정에서 그들에게 닥친 매우 좋은 모험〉 293

제칠편

갤러해드의 탄생

제1장

어찌하여 보르스 드 가니스 경과 가웨인 경이 랜슬롯 경을 찾아 나섰으며, 그들이 어떻게 길을 갈랐고 그 후 가웨인 경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제2장

〈본문: 325〉 보르스 경과 가웨인 경이 숲 속의 수도원에 이르러, 그곳에서 갤러해드가 태어나던 일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목록

아름다운 엘레인 공녀

표지

페이지

머리 그림--목차 v

말미 장식 — 목차 x

〈삽화 목록〉 xi

〈삽화 목록〉 xii

[Illustration: Sir Mellegrans interrupts the sport of the Queen]

그때 호수의 부인이 시종들을 거느리고 그 곳으로 오시니, 왕비께서 그녀를 보시고는 기쁨에 넘치셨다. 왕비께서 이르시되, “호수의 부인이시여, 오소서. 여기 우리와 함께 놀아 주시오.” 하시니라. 이에 호수의 부인이 시종들을 거느리고 왕비 곁으로 가시니, 왕비께서 그녀를 매우 기쁘게 맞이하시니라.

그때 호수의 부인이 왕비 곁에 앉으시자, 왕비께서 이르시되, “호수의 부인이시여, 당신은 우리와 함께 놀아 주시겠소?” 하시니라. 이에 호수의 부인이 이르시되, “폐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이까?” 하시

니라. 왕비께서 이르시되, “호수의 부인이시여, 당신은 우리와 함께 놀아 주시오. 여기 우리와 함께 놀아 주시오.” 하시니라.

그때 호수의 부인이 왕비 곁에 앉으시자, 왕비께서 이르시되, “호수의 부인이시여, 당신은 우리와 함께 놀아 주시겠소?” 하시니라. 이에 호수의 부인이 이르시되, “폐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이까?” 하시니라. 왕비께서 이르시되, “호수의 부인이시여, 당신은 우리와 함께 놀아 주시오. 여기 우리와 함께 놀아 주시오.” 하시니라.

머리 그림--서문 3

꼬리 그림--서문 8

[그림: 데네이스와 은수사가 랜슬롯 경의 갑옷을 입혀주는 모습]

데네이스와 은수사가 랜슬롯 경을 도와 갑옷을 입히니라.

머리 그림 11

어떻게 랜슬롯 경이 수레를 타고 방랑 기사로서 길을 갔는가 18

미인 엘루이즈 처녀가 랜슬롯 경을 구하다 28

오크니의 가레스 경 38

머리 그림 39

처녀 린넷

〈각주: 랜슬롯 경과 그의 동료들, 62장〉

강가의 기사가 된 기사와의 싸움

그때 랜슬롯 경이 물러나자, 강가의 기사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모든 기사들을 물리치며 전진해 갔다. 그는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힘센 기사였으나, 그는 아직 자신의 진정한 실력을 드러내지 못한 채였으니, 그는 마치 거대한 바람개비처럼 회전하며 칼을 휘둘렀고, 그 칼날은 빛나며 모든 것을 베어내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다. 그는 피로와 상처로 인해 점점 약해져 갔다. 이때 랜슬롯 경이 다시 나타나 강가의 기사와 맞섰다. 두 기사는 서로를 향해 돌진했고, 그들의 칼이 부딪히며火花가 튀었다.

강가의 기사는 랜슬롯 경의 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랜슬롯 경이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빠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힘을 모아 랜슬롯 경에게 돌진했고, 두 기사는 다시 한번 격렬하게 싸웠다.

결국 랜슬롯 경이 승리했다. 그는 강가의 기사를 쓰러뜨리고 그의 갑옷을 벗겨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강가의 기사가 누구인지 물었다.

강가의 기사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이 "강가의 기사"라고만 말했다. 랜슬롯 경은 그의 용기에 감동하여 그를 풀어주었고, 강가의 기사는 사라져 버렸다.

이후 랜슬롯 경은 그 사건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는 강가의 기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지 궁금해했다. 그러나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랜슬롯 경은 다시 여행을 계속했다. 그는 새로운 모험과 도전을 기다리며, 그의 말과 함께 길을 떠났다.

레이요네스 부인 76

레이요네스 여사가 가레스 경의 파빌리온에 이르러

_끝 그림_ 104

랜슬롯 경이 유쾌한 악사들과 나눈 대화

머리 그림 107

〈각주: 랜슬롯 경, 코르빈의 벌레를 죽이다〉 116

미인 엘레인이 랜슬롯 경의 방패를 맡다 124

랜슬롯 경과 라베인 경은 아스톨라트의 들판을 내려다보더라

가웨인 경은 랜슬롯 경의 방패를 알아차렸노라

랜슬롯 경이 창문에서 뛰어내리더라 158

_끝 그림_ 168

숲속의 광인, 곧 랜슬롯 경

머리 그림 171

〈삽화: 숲의 광인이 아서왕의 생명을 구하다〉 180

말미 장식 188

아름다운 엘레인 낭자가 랜슬롯 경을 아노라

<각주: 샘의 기사 가웨인>

머리 그림 201

에웨인 경이 돌판 위에 물을 부으니라

처녀 엘로즈가 에웨인 경에게 반지를 주니라

《분수의 부인》 236

한 처녀가 에웨인 경을 구원하러 오니라

〈각주: 262〉

라모락 경과 퍼시벌 경이 어머니의 축복을 받다

머리 그림 263

퍼시벌 경과 에커 경이 기쁨의 섬을 바라보더라

펠레스의 아들 라베인 경 292

구름 안개 속에서 멀린이 예언하시니라 310

머리 그림 311

_끝 그림_ 322

선량한 간니스의 보르스 경

죽은 자의 배 334

[일러스트레이션]

<각주: 이 문장은 원문의 제목 일부로 보이나, 문맥상 완전한 문장이 아니므로 원문의 형식을 유지하여 번역합니다.>

『이야기』

경

랜슬롯

그와 그의

동료들이라

[일러스트레이션: 멜레그란스 경, 왕비의 유희를 방해하다.]

[그림]

서문

5월의 매우 기쁜 시절에 구이니비어 왕후는 그 시기에 사람들이 그러하듯 고요한 유희를 즐기려 마음먹었더라. 이에 어느 날 그녀는 캐멀롯의 연회장에서 명하여, 이튿날 아침 궁정의 몇몇 기사들과 부인들이 자신과 함께 숲과 들판으로 꽃을 꺾으러 갈 것이며, 강가에서 무성하게 피어난 꽃들과 꽃송이들 사이에서 즐기리라 정하였노라.

〈각주: 구이니비어 부인이 오월 나들이를 가시던 일.〉

이 메이 파티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기사도 사적(史蹟)에 여러 차례 기록되기를, 그녀가 택한 기사들은 모두 열 명이었고, 그들 모두는 원탁의 기사들이었으니, 곧 다음과 같더라: 시나셜(시종장)인 케이 경과, 아그라베인 경과, 브랜딜레스 경과, 갈망하는 자 사그모어 경과, 도디나스 경과, 오산나 경과, 야생의 숲의 라디나스 경과, 인도의 퍼세반트 경과, 아이언사이드 경, 그리고 웨일즈의 퍼시벌 경의 사촌인 퍼시데스 경이었더라. 이 열 명(앞서 말한 사적들이 그러하듯)이 바로 구이니비어 부인이 앞서 말한 아침의 밝고 이른 시간에 그녀와 함께 메이 여행을 떠나기 위해 부른 자들이었더라.

그리고 여왕은 더 나아가, 이 기사들 각자가 그날을 위해 한 명의 부인을 선택하도록 명하셨노라. 또 각 부인은 기사가 타는 말 뒤에 앉아 타도록 명하셨노라. 그리고 여왕은 그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기사들과 부인들, 그리고 그 일행에 속하는 모든 시종들이 그 달콤한 축제의 분위기에 맞게 온전히 녹색 옷으로 치장하도록 명하셨노라.

이것이 왕비가 내린 명령이었노라. 그 명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행운을 깨닫자 크게 기뻐하였으니, 그들은 모두 이 봄나들이에서 큰 즐거움이 있을 줄 알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다음 날 아침이 밝자, 이슬로 적신 봄날의 상쾌한 기운을 머금고 그들은 모두 말을 타고 나섰다. 그때 각처의 수풀과 작은 숲에서는 새들이 기쁨에 겨워 노래하였으니, 그 노래는 참으로 기쁘고도 기쁘도다. 부드러운 바람이 하늘의 천장을 천천히 흐르는 큰 흰 구름들을 불어다 옮기니, 각 구름은 부드럽고도 어스런 그림자를 내려보냈고, 그 그림자는 빛나는 푸른 하늘을 가로지르며 언덕과 구릉지를 스쳐 지나갔더라. 이때 모든 나무와 울타리에는 향기롭고 이슬로 젖은 꽃들이 만개하여, 이슬로 빛나는 들판과 초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의 놀라운 카펫이 깔려 있었으니, 그 매력은 눈을 기쁘게 하고, 매끄럽고 푸른 초원을 불어가는 바람에 향기를 더하였더라.

실로 그 시절에는 세상이 아직 젊고 경쾌하였으니, 이는 해가 밝게 비추고 만물이 자라나던 때 바깥으로 나든 어린아이들의 세상과 같았으며, 그 속에 거하던 사람들은 그 신선한 기쁨에 아직 지친 바 아니었더라. 그러므로 그 아름다운 왕후와 그녀의 궁정은 그들 앞을 펼쳐진 세상의 모든 즐거운 일들을 크게 즐겼으니, 그들은 두 명씩 짝을 지어 말을 타고 달렸고, 각기 기사와 그의 부인이 함께 오가며 오월의 꽃들을 꺾었으며, 즐거운 새들처럼 수다스럽게 수군거렸고, 때로는 살아있는 것의 순수한 기쁨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터져 나오기도 하였더라.

〈각주: 그들이 매우 기쁘게 연회를 즐겼다.〉

그들은 그 아침 내내 꽃들 사이에서 신나게 놀다가, 정오가 되자 고요히 흐르는 강가에서 약 삼 마일 떨어진 곳에 펼쳐진 아름다운 초원에 자리를 잡고 쉬었다. 그들이 앉은 곳에서는 유리처럼 고요한 강물을 내려다보며, 저 멀리 아스라한 하늘 아래 빛나던 캐멀롯의 지붕과 첨탑들이 희미하고 따뜻한 공기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들이 모두 풀밭에 앉아 있으니, 여러 하인들이 나타나 흰색의 아름다운 식탁보를 펴고, 그들의 피로를 풀어줄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 놓았다. 사슴 고기 파이가 담긴 차가운 페이스트리, 구운 닭고기, 하얀 빵, 그리고 금빛 포도주와 적포도주가 담긴 잔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이 음식을 보고 큰 기쁨을 느꼈다. 놀이로 인해 배가 고팠기 때문이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몇몇 궁정 음악가들은 노래를 불렀고, 다른 이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읽어주었다. 한편, 각기 아름다운 부인들은 풀과 꽃으로 화관을 만들어 자신의 기사를 장식해주었다. 결국 모든 귀중한 기사들은 꽃으로 완전히 장식되었고, 이는 큰 즐거움과 즐거운 농담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이 구이니비어 왕후는 오월 나들이를 가시니, 그 사연이 어떠했는지 너는 이제 다 들었노라.

〈각주: 숲에서 한 기사가 나타나니라.〉

이때 여왕과 그 일행은 풀밭 위에서 어린아이들처럼 신나게 놀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그들이 앉아 있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숲에서 피리 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졌다. 그들은 누가 숲 속에서 그 피리를 불고

있는지 놀란 눈으로 둘러보았다. 그러자 숲 가장자리에서 갑옷을 두른 기사가 나타났다. 햇빛이 그 기사에게 쏟아져 내려, 그는 나무 그림자 가장자리에서 놀라울 정도로 빛나고 있었다. 그 기사 뒤로는 곧장 무장한 병사들이 줄지어 따라왔는데, 모두 여든 명이 넘었다. 이 병사들도 또한 전투를 준비한 듯 온몸에 갑옷을 두르고 있었다.

이 기사와 그와 함께한 자들은 숲 가장자리에서 잠시 멈춰 서서 멀리서 그 5월 잔치를 바라보았더라. 잠시 후, 그들은 초원을 가로질러 나아가 왕비와 그녀의 궁정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곳으로 다가갔더라.

이때 구이니비어 왕비와 그녀와 함께 있던 이들은 그 기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무장한 부하들을 거느리고 충분히 가까이 다가오자, 그가 바로 바데마구스 왕의 아들인 멜레그란스 경임을 깨달았노라. 그리고 그의 방문이 그들에게 그리 좋은 일이 될 것 같지 않음을 알았더라.

멜레그란스 경은 그의 부친과 사뭇 달랐으니, 부친은 이미 『아서왕의 책』과 『원탁의 기사들 이야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선량하고 존경할 만한 왕이며 아서왕의 벗이었기 때문이라. 반면 멜레그란스 경은 불만 가득했고, 아서왕에게 심한 원한을 품고 있었으니, 그 이유는 다음과 같더라.

멜레그란스 경의 영지 일부는 웨일스의 국경과 접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때 멜레그란스 경과 북웨일스 왕 사이에 한 줄기의 숲 땅 소유권을 두고 큰 다툼이 일어난 바 있노라. 이 다툼은 아서왕에게 심판

에 부쳐졌고, 왕은 멜레그란스 경에 반대하여 북웨일스 왕의 편을 들어 판결하였노라. 그로 인해 멜레그란스 경은 아서왕을 깊이 미워하게 되었고,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맹세하였노라. 그러므로 구이니비어 부인이 이렇게 온전한 갑주를 두른 채 자신을 찾아온 자가 멜레그란스 경임을 보았을 때, 그녀는 마음이 편치 못하였고, 이 방문이 자신과 고결한 5월의 궁정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님을 직감하였노라.

〈각주: 멜레그란스 경이 5월의 무리에 맞서다.〉

이때 멜레그란스 경과 그의 무장한 일행은 풀밭 위에 앉아 있는 왕비와 그 일행이 있는 곳으로 매우 가까이까지 말을 몰고 올라갔다. 그가 매우 가까이 다다르자 말의 고삐를 당겨 멈추고, 그 화려한 무리를 향하여 신랄한 눈초리와 경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노라. 비록 그 순간 그는 그 왕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그는 잠시 후 이렇게 말하였노라.

“너희는 어떤 광대들의 무리인가, 그리고 너희가 저지르는 이 어리석은 유희란 무엇인가?”

그때에 시니셜 케이 경이 매우 엄격하게 일어나 이르되, "경의 경어는 더욱 공손해야 마땅하오. 당신이 누구를 향하여 서서 말하고 있는지 아시오? 이는 여왕과 그 궁중이오."

그때 멜레그란스는 왕비를 알아보고는 오직 무장하지 않은 기사들만 거느린 그녀를 발견한 데서 큰 승리의 감격에 사로잡혔노라. 그러므로 그가 큰 소리로 외치되, “하! 부인이여, 이제 내가 너를 알노라! 이

것이 바로 내가 너와 너의 궁정을 발견한 방식이냐? 이제 하늘이 정녕 너희를 내 손에 넘겨주셨음이 드러나노라!”

이때 퍼시데스 경이 매우 격렬한 어조로 대답하더라. "무슨 뜻이오이까, 기사여, 그 말씀은? 왕비께 위협을 가할 용기가 있소이까?"

멜레그란스 경이 이르되, “나는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로되, 다만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손에 이같이 내려진 이 좋은 운명을 내가 버릴 뜻이 없노라. 보라, 너희가 모두 무방비로 내 권세 아래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즉시 사로잡아 내 성으로 데려가, 아서왕이 내가 이전에 당한 큰 잘못을 바로잡고, 아서왕이 나에게서 빼앗아 다른 이에게 준 그 숲 땅들을 나에게 돌려줄 때까지, 인질로 그곳에 가두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평온히 나와 함께 가거든 너희에게 이로울 것이요, 만일 평온히 가지 아니하거든 너희에게 해로울 것이니라.”

그때 왕후의 궁궐에 있던 모든 부인들은 큰 공포에 사로잡혔으니, 멜레그란스 경의 목소리와 그의 얼굴 빛이 지극히 사나우며 흉악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구이니비어 왕후는 비록 얼굴이 하얗게 질려갈 지경이었으나, 큰 용기와 깊은 노여움을 담아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네 주군께 배반하는 자이겠느냐, 기사여? 아서왕의 성채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자리에서, 나와 그 궁궐에 있는 자들에게 폭력을 가할 담력이 있느냐?”

“부인,” 멜레그란스 경이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바야말로 내가 행하고자 하는 바로다.”

이때 퍼시데스 경은 검을 빼들며 이르되, “기사여, 결코 그러하지 못하리라! 내 몸에 생명이 있는 한, 너는 이 일에 뜻을 이루지 못하리라!”

이에 다른 모든 신사들도 또한 검을 뽑아 들고, 한결같이 같은 뜻을 담아 이르되, “퍼시데스 경이 말하였사오니, 우리가 여왕께 대한 이 모욕을 용납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리다.”

“좋소,” 멜레그란스가 매우 날카롭게 말하였다. “너희가 벗은 몸으로 무장한 우리와 싸우려 한다면, 너희가 선택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막아낼 수 있거든 이 부인을 내게서 지켜내라. 내가 지금 너희 모두를 사로잡으려 하노니, 너희가 무엇을 하든 나는 멈추지 아니하리라.”

그때 왕비의 열 명의 무장하지 않은 기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부하들이 전투 준비를 갖추었다. 그리고 멜레그란스 경이 그들의 의도를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병사들에게도 전투 준비를 갖추라고 명령하였고, 그들은 이에 따랐다.

그 순간, 그윽하던 메이 축제의 평온은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소란으로 변했다. 기사들이 그들을 지키려 싸우는 한가운데서, 여왕과 그 부인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 지르며 서로를 안고 떨었다.

〈각주: 멜레그란스의 무리와의 전투에 대하여.〉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무장하지 않은 그 열 명의 기사는 무장한 적들과 일 대 십의 싸움을 벌였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전투가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열 명의 기사들은 사방에서 적들을 말에서 떨

어뜨려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잠시 동안 승리는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장하지 않았기에 적들의 타격을 막아낼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그들은 곧 여러 곳에서 상처를 입었다. 피를 잃고, 휴식 없이 소수로 다수를 상대한 격렬한 싸움으로 인해, 그들은 점차 힘이 빠지고 기운이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내 케이 경이 땅에 쓰러졌고, 이어 사그모어 경이 쓰러졌으며, 그 다음에는 아그라베인 경과 도디나스 경이 쓰러졌다. 이어 라디나스 경과 오사나 경, 그리고 퍼세반 경이 쓰러졌으므로, 결국 서 있는 채로 남아 있는 기사는 브랜딜레스 경과 아이언사이드 경, 그리고 퍼시데스 경뿐이었다.

그러나 세 사람은 여전히 서로 등을 맞대고 서서 그 비참한 싸움을 계속하더라. 그들의 검이 사방을 휘두르는 기세가 너무나 맹렬하여, 이 전투의 공포가 적들에게 두려움을 안기기에 이르렀으니, 그들 근처에 있던 자들은 그들이 내려치는 무서운 타격을 피하고자 얼마 후 물러나기 시작하더라.

이에 전투는 잠시 멈추고 모든 이가 쉬었노라. 그사이 땅 위에는 사방에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신음하더라. 그 전투에서 원탁의 십 명 무장하지 않은 기사들이 적 삼십 명을 쓰러뜨렸기 때문이라.

그때 세 사람은 잠시 동안 서로 등을 맞대고 서서 싸움의 피로를 털고 숨을 고르니라. 그들의 화려한 녹색 의복은 보라, 수많은 고통스럽고 혹독한 상처에서 흐르는 붉은 피로 온통 물들었노라. 그리고 그들을

수식하던 화려한 꽃들은 모두 사라지고, 대신 그들 주변에는 치명적인 전투의 두려움과 공포가 드리워졌더라.

이때 구이니비어 왕비가 자신의 기사들이 수많은 상처로 피를 흘리며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의 마음은 연민으로 가득 차고 큰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쳐 이르되, "멜레그란스 경이여, 자비를 베푸소서! 나의 고귀한 기사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다만 그들을 용서하시오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사옵니다. 오직 이 한 가지 약속을 맺사오니, 저의 궁정에서 이 신하들과 부인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모든 이들이 저와 함께 포로가 되어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에 멜레그란스 경이 이르되 "부인이여, 그대의 뜻대로 하리다. 당신의 기사들이 사내의 싸움이 아니라 악마의 싸움을 벌이므로, 나는 모든 이를 위해 이 전투를 종결하게 되어 기쁘게 여기노라. 그러므로 당신의 기사들에게 칼을 거두라 명하시오. 나도 내 병사들에게 똑같이 명하겠사오니, 그리하면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을 것이오."

〈각주: 여왕이 전투의 종결을 알리다.〉

이에 멜레그란스 경의 청을 받아들인 구이니비어 부인은, 그 세 기사가 검을 거두어들일 것을 명하셨노라. 비록 세 기사 모두 그녀에게 자기를 위해 조금 더 싸우게 허락해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그녀는 이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은 명에 따라 부득이 검을 칼집에 넣을 수밖에 없었노라.

그 후 세 기사는 쓰러진 동료들에게로 달려가, 비록 크게 다쳤으나 모두 살아 있음을 확인하였노라. 그들은 땅에 누운 채로 상처를 살피고, 가능한 한 가장 나은 방법으로 치료하여 주었노라. 그 뒤 그들은 상처 입은 기사들을 말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을 도와주었으니, 그들이 상처로 인한 기절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극히 조심하며 부축하였노라.

이렇게 그들은 모두 그 곳을 떠났노라. 슬픈 무리였노라.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즐거움이 넘치던 초원이 아니라, 피투성이의 전투와 죽음의 광경이 남은 장소가 되었노라.

* * * * *

이제 이 역사가 시작되노라.

이제 너희는 많은 기사도 서적들에 수록된 바와 같이, 이 이야기의 한 편, 곧 '수레의 기사 이야기(The Story of the Knight of the Cart)'라 불리는 부분을 듣게 되리라.

그 후의 이야기에서는 호수의 랜슬롯 경과, 그가 어떻게 구이니비어 왕비를 구출해냈는지에 대해 다루게 되니, 그 왕비는 수레에 실려 그곳으로 끌려왔던 것이다.

[일러스트레이션]

제1부

수레의 기사

이제 호수의 랜슬롯 경의 이야기를 전하노라. 그가 어떻게, 구이니비어 왕비가 멜레그란스 경의 성에서 처한 위기로부터 그녀를 구하기 위해 나섰는지. 또한 그가 뜻밖의 불운한 사건을 만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마차를 타고 모험의 여정에 올랐던 일도 함께 전하노라.

[그림: 데니스와 은수자가 랜슬롯 경에게 갑옷을 입혀드리는 모습.]

[일러스트레이션]

제1장

데니스가 랜슬롯 경을 어떻게 찾았으며, 랜슬롯 경이 어떻게 멜레그란스 경의 성에서 구이니비어 왕비를 구하기 위해 나섰고, 그 모험을 시도하는 동안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구이니비어 왕비를 모신 슬픔과 애도의 무리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멜레그란스 경에게 포로로 끌려가자, 그들은 그 날 내내 길을 재촉하며 나아갔다. 밤이 깊어 어둠이 내리앉은 뒤에도 그들은 마차를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고, 그 때쯤 그들은 깊은 어둠 속의 숲을 지나고 있었다.

그 숲을 벗어난 자정 무렵, 그들은 벌판에 드러난 바위투성이의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멀리 높은 절벽 위에 우뚝 선 한 성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빛나는 하늘을 배경으로, 그 성은 음울하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다. 성 뒤쪽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고, 여러 개의 등불이 밝게 빛나고 있었으며, 마을에서는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 마을과 성이 바로 멜레그란스 경의 소유지였다.

〈각주: 데니스가 어떻게 탈출했는가.〉

이때 왕비는 그 슬픈 여정 내내 젊은 시종 데니스를 곁에 두시고 함께 가시더라. 그들이 길을 따라 나아가던 중, 왕비는 한 곳에서 기회를 틈타 데니스에게 속삭이셨노라. “데니스여, 만일 탈출할 틈을 찾을 수 있거든 그 길을 택하고, 우리들의 곤궁한 사정을 어딘가 구원해 줄 이에게 전하라.”

그리하여 일이 이루어지되, 그들이 마침내 그 돌멩이 많은 곳으로 나와, 성채로 이어지는 가파른 길에 도달했을 때의 혼란스러운 틈을 타 데니스는 말의 고삐를 조금 옆으로 당기더라. 그가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함을 보고, 그는 곧장 말에 박차를 가하여 그 돌멩이 많은 길을 따라, 그들이 모두 왔던 숲 속으로 힘차게 달아났노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막을 생각을 하기 전에 그는 이미 사라져 버렸더라.

그때 멜레그란스 경은 크게 노하여 왕비께로 달려가 이르되, “부인, 당신은 나를 배반하려 하였도다! 그러나 그것은 상관없노라. 당신의 시종은 이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치지 못하리라. 내가 그를 쫓아 화살로 죽이라고 명령하는 자들을 보내리라.”

이에 멜레그란스 경이 말한 바를 행하니, 그는 여러 무리의 무장한 자들을 보내어 숲에서 시종 데니스를 수색하게 하였으나, 데니스는 그들을 모두 피하여 밤의 장막 속으로 무사히 도망쳤더라.

그 후 그는 어둡고 음울한 숲속을 헤매었으니,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한 줄기 빛조차 없었기 때문이라. 더욱이 그 어둠

은 기묘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으니, 그의 사방에서 밤의 짐승들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라. 그가 그것들이 크거나 작은지, 혹은 그들 중 어떤 것이 그에게 해를 끼칠지 해를 끼치지 않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

〈각주: 데니스가 숲을 가로질러 달리는 일.〉

그러나 그는 끝내 멈추지 않고 전진하여, 마침내 그날의 새벽이 나무 꼭대기 사이로 희미하고 어렴풋이 비쳐 올 때에 이르렀더라. 그리하여 잠시 후, 조금 더 지나자 그는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영혼들처럼, 매우 희미하게 자신의 주변 사물들을 보기 시작하였노라.

그때 작은 새들이 깨어났고, 처음에는 한 마리가 지저귀더니 이어서 또 다른 새가 합세하매, 수없이 많은 작은 날개 달린 생명들이 사방에서 노래하기 시작하여 숲의 고요함이 그들의 다채로운 합창으로 가득 찼노라. 그리고 그 내내 빛은 점점 더 강해지고 또렷해져, 마침내 위대하고 장엄한 해가 하늘로 솟구쳐 떨리는 나뭇잎 사이로 황금빛 화살을 비스듬히 쏘아 올렸노라. 그리하여 모든 기쁜 세상이 다시 깨어나, 새로 태어난 아침의 신선하고 이슬 맺힌 기적을 맞이하였더라.

이때 숲속에서 새벽이 밝아오니라. 데니스는 이 모든 것을 목격하였으나, 그가 본 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는 못하였노라. 당시 그의 마음에는 오직 자신이 갇힌 줄 알던 숲의 복잡한 미로를 벗어나는 일만이 가득했기 때문이라. 또한 그는 피로와 기아로 인해 힘이 빠진 상태였고, 아침 식사를 어디서 할 수 있을지, 잠시 머물며 쉬어갈 곳은 어디인지 알 수 없었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린 데니스를 돌보시어 그에게 양식을 구하셨으니, 곧 그가 숲 속에서 곧게 뚫린 한 벌판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그곳에는 소치기의 오두막이 있었는데, 그 곳은 참으로 유쾌한 곳이더라.

여기에는 수정처럼 맑은 시내가 숲에서 우렁차게 흘러나와, 빛나는 푸른 풀이 우거진 평평한 초원 위를 고요히 흐르더라. 그리고 울타리가 서 있고 몇몇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울타리와 사과나무들은 모두 향기로운 꽃망울로 가득 차 피어 있더라. 소치기의 초가지붕 오두막은 숲 가장자리에 있는 두 그루의 큰 도토리나무 그늘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햇살이 집 안팎 모든 곳에 금빛 반점들을 드리우고 놀고 있더라.

〈각주: 데니스가 어떻게 양식을 구하였는가.〉

이때 왕비의 시종이던 데니스는 오두막을 보고는 빵을 구걸하고자 말을 몰아 앞으로 나아갔노라. 그가 다가오자 숲의 어여쁜 여인 한 명이 문간에 나타나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노라. 데니스는 그 여인에게 자신이 숲에서 길을 잃었고 배가 고픈 사정들을 말하였노라. 그가 말하고 있는 동안, 또 다른 야생적인 모습의 가냘픈 갈색 머리 소녀가 나타나 여인 뒤에 서서 그의 말을 경청하였노라. 이 여인과 소녀는 데니스를 불쌍히 여겨, 여인은 소녀에게 신선한 우유 한 잔을 주라 명하였고, 처녀는 큰 나무 그릇에 담아 그에게 가져다주었노라. 한편, 여인 자신은 금빛처럼 노란 버터를 발라 놓은 달콤한 갈색 빵을 가져왔노라. 데니스는 그것을 받아 두 사람에게 끝없는 감사를 표하였노라. 그리하여 그는 큰 식욕으로 먹고 마시니, 그 동안 두 명의 이방인들은 그의 아

름다운 젊은 얼굴과 금빛 머리카락에 놀라 그를 응시하며 바라보았노라.

그 후, 데니스는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까지 종일 길을 떠났다. 해가 지고, 낮의 빛은 황혼의 고요 속으로 스며들었으며, 황혼은 점점 더 짙고 깊은 어둠으로 변해갔다. 결국 데니스는 밤의 검은 안개에 다시금 휩싸이게 되었다.

그때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구원하시니, 밤이 깊어 어둠이 내려앉을 때에, 그는 작은 방울 소리가 짙어가는 밤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노라. 그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그의 말을 돌려, 그리로 나아가니,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더라. 그가 그 빛에 충분히 가까이 다다랐을 때, 그가 숲에 사는 은수자의 예배당에 이른 것과, 그가 본 그 빛이 은수자의 거처 안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았더라.

데니스가 예배당과 오두막에 가까이 다다를 무렵, 근처의 초가에서 한 마리의 큰 말이 울렸다. 이에 그는 다른 행인도 그곳에 있음을 알아차렸고, 곧 동행을 얻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 그 생각에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노라.

〈각주: 데니스가 은자의 예배당으로 오니라.〉

그가 오두막 문 앞에 다다라 문을 두드리니, 그 소리에 한 사람이 나타나 문을 열어주었으니, 그이는 눈처럼 하얀 긴 수염을 기른 지극히

경건한 은수사였으며, 얼굴은 매우 평온하고 온화하여 주름이 가득한 고귀한 노인의 모습이었더라.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이야기들에서 앞서 여러 차례 언급된 숲의 은수사였다.)

은수사가 그 젊은 소년을 보았을 때, 그는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여행과 굶주림으로 인해 병들고 쇠약한 채로 서 있었다. 은수사는 큰 연민을 느끼며 그에게 달려가 그를 안아 올렸고, 말에서 내려 그를 안고 은수사의 거처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벤치에 그를 앉혔다.

데니스가 이르되, "나로 하여금 먹게 하고 마시게 하소서, 내가 죽음에 이를 정도로 기운이 없사오니이다." 하니 은수사가 이르되, "너는 곧 식량을 얻으리라," 하고 그를 가져오러 갔더라.

그때 데니스는 무거운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자신 말고도 초막 안에 또 다른 이가 있음을 깨달았노라. 이때 그가 한 목소리가 자신의 이름을 지극히 놀란 어조로 부르는 것을 들었으니, 이르되, "데니스, 정말 네가 이 때에 여기로 온 것이냐?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보라, 내가 처음 너의 출입을 보았을 때 나는 너를 알아차리지 못하였노라."

그때 데니스가 눈을 들어 보니, 그 은수자의 오두막에서 그와 말하던 이는 호수의 랜슬롯 경이로다.

〈각주: 데니스가 랜슬롯 경을 발견하더라.〉

이때 그 목소리를 듣고 화자가 누구인지 알아본 데니스는 벌떡 일어나 랜슬롯 경에게 달려가 그 앞 무릎을 꿇었다. 그는 이미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난으로 인해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흐느끼며, 랜슬롯 경의 무릎을 꼭 안았다.

랜슬롯 경이 이르되 "데니스여, 어찌된 일인가? 여왕은 어디 계시며, 어찌하여 이 시간 이 장소에 이르렀는가? 어찌 그리 황망한 얼굴을 하고 있으며, 어찌하여 피로 물들었는가?"

그때 데니스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랜슬롯 경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구이니비어 부인이 이 숲 한가운데 어딘가에 있는 멜레그란스 경의 성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을 모두 아뢰었더라.

〈각주: _랜슬롯 경이 여왕을 구하기 위해 말을 타고 나섰다._〉

그러나 랜슬롯 경이 데네이가 한 말을 듣자, 그는 매우 급히 일어나 외쳤노라. "어찌 된 일이오! 어찌 된 일이오!" 하고 그는 다시금 격렬하게 외쳤노라. "내 갑옷을 가져다주고, 내가 여기서 떠나가게 하시오!" (랜슬롯 경이 은수자의 오두막에서 쉬고 있을 때 갑옷을 벗어놓았기 때문이더라).

그때에 은수자가 들어와 데네이가 먹을 양식을 가져왔고, 그가 랜슬롯 경이 한 말을 듣자, 그에게 내일 날이 밝아 길을 볼 때까지 머물기를 권하였다. 그러나 랜슬롯 경은 자신을 멈추게 할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노라. 이에 데네이와 은수자가 그의 갑옷을 입히도록 도왔고, 그 후 랜슬롯 경은 전마에 올라 밤의 어두움 속으로 떠나가니라.

* * * * *

이때 랜슬롯 경은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을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달렸노라. 그는 밤새도록 말을 몰았고, 새벽이 밝아오자 얼마 지나지 않아 급류의 소리를 듣게 되었더라.

그가 이 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걸어가며 조금 더 나아가자, 그는 돌투성이이고 거친 넓은 공간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큰 폭포수가 언덕에서 거세게 내려와, 거품이 크림처럼 덮인 혼탁하고 격렬한 물줄기를 이루고 있음을 보았다. 또한 그는 이 폭포수를 가로지르는 돌다리가 있으며, 다리의 반대편에는 완전한 갑주를 입은 많은 무장들이 모여 있음을 보았다. 그는 이 무장들이 적어도 스물다섯 명은 되었으며, 그들 중 우두머리가 푸른 갑주를 입은 한 사내임을 보았다.

그때 랜슬롯 경은 다리를 건너 나아가 무장한 자들을 향해 부르짖었노라. “너희는 이 길이 멜레그란스 경의 성으로 이어지는지 아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누구시요, 기사여?"

“나는 바로,” 랜슬롯 경이 이르되, “멜레그란스 경의 성을 찾는 자라. 그 기사는 구니비어 부인과 그녀의 궁정 일행 중 몇몇을 강제로 납치하여, 이제 그들을 억류하고 고통에 빠뜨렸노라. 나는 그 부인과 그녀의 일행을 그들의 곤경과 근심에서 구원하러 온 자라.”

이때 그 무리의 수장인 녹색 기사가 랜슬롯 경에게 조금 더 다가가 이르되, “경이시여, 경이 호수의 랜슬롯 경이시냐?” 하니,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그렇노라, 나로다.” 하니, 녹색 기사가 이르되, “그러면 경

은 이 고개를 더 이상 지나갈 수 없나이다. 경은 우리들이 바로 멜레그란스 경의 백성들이며, 경이나 경의 동료들이 이 길로 더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여기에 서 있는 줄 알지니라."

그때 랜슬롯 경은 웃으며 이르되, "영주여, 어찌하여 나를 원치 않는데도 막으려 하시오?"

그 녹색 기사(그린 나이트)가 대답하되, "우리 수효의 힘으로 당신을 막으리이다."

"좋소," 랜슬롯 경이 이르되, "그런 일이라면, 나는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적보다 훨씬 더 많은 상대를 물리치고 길을 열어 왔소. 그러니 나를 막으려 한다면, 그 위험은 전적으로 당신의 스스로의 계책에서 비롯될 것이오."

〈각주: 랜슬롯 경이 그의 적들을 습격함.〉

그때 랜슬롯 경은 창을 던져 버리고 검을 뽑아 말에 박차를 가하여 그들을 향해 돌진하였노라. 그는 거친 기세로 그들 한가운데로 곧장 들어가, 검을 좌우로 휘두르며 내리쳤다. 그의 한 번 내리치는 때마다 한 사람씩 안장에서 떨어졌노라. 랜슬롯 경이 내려치는 타격은 그토록 사나우며 두려워, 그의 분노의 기운이 그들을 덮쳤으므로, 잠시 후 그들은 그의 앞을 비켜서며 그를 길 한가운데 홀로 남겨두고 물러났노라.

〈각주: _랜슬롯 경의 말이 죽다._〉

이때 멜레그란스 경의 궁수들이 몇 명 그 고개의 양쪽 바위 틈에 숨어 있더라. 그들이 그 전투의 양상을 보아 랜슬롯 경이 자신들의 동료를 물리쳤음을 알자, 곧바로 활시위에 화살을 메기고 랜슬롯 경의 말에게 쏘기 시작하였노라. 랜슬롯 경은 이 궁수들로부터 자신의 말을 어찌하여도 보호할 수 없었으므로, 그 말은 곧 크게 다쳐 고통에 발길질을 하며 코를 헐떡이기 시작하여 랜슬롯 경이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노라. 그리고 궁수들은 화살을 계속 쏘아대어, 마침내 말의 생명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라. 잠시 후 그 좋은 말은 무릎을 꿇고 쓰러져 먼지에 굴렀으니, 이는 그가 너무 크게 다쳐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노라.

그러나 랜슬롯 경은 쓰러지지 아니하고, 큰 기교와 재주로 안장을 벗어났노라. 이로써 그는 발을 땅에 붙이고 서 있었으므로, 적들은 그가 쓰러져 땅에 누운 기사에게 그러하려 한 것과 같은 불리한 기회를 그에게서 얻지 못하였더라.

이때 랜슬롯 경은 다리의 끝자락, 길 한복판에 서서 그의 앞을 향해 검을 좌우로 휘두르니, 그들 중 그 누구도 그에게 다가설 엄두를 내지 못하였더라. 그들 모두는 여전히 그의 위풍에 눌려 있었고, 방금 그와 벌인 전투에서 그가 가했던 타격의 공포가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랜슬롯 경을 멀리서 바라보며 다가가지 못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섰더라. 녹색 기사가 그들에게 싸우라고 명령하였으나, 그들은 더 이상 랜슬롯 경과 싸우기를 거부하였으므로, 녹색 기사는 그 전투를

멈추고 그 곳을 떠나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노라. 그들이 그 명령을 따르자, 랜슬롯 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셨더라.

이와 같이 랜슬롯 경은 그의 한 팔로, 내가 전한 바와 같이, 수많은 적군에 맞서 승리를 거두었노라.

그러나 랜슬롯 경이 이렇게 그 길을 돌파하며 큰 명성과 영광을 얻었으나, 그의 형편은 여전히 매우 비참하였으니, 그는 홀로 수많은 적과 싸웠기 때문이라. 그는 온몸에 갑옷을 두른 채 서 있었으나, 그 갑옷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리그(league)만큼 걷는 것조차 기대하기 어려웠거늘, 하물며 걸어서 멜레그란스 경의 성에 이를 수 있으랴. 그는 이 극한의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으니, 그 빽빽한 숲 속에서 어디에서 말을 구할 수 있으랴. 그곳에는 사람이나 짐승 하나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비록 그가 승리를 거두었으나, 그의 마음에는 어느 곳도 안식이나 만족이 없었더라.

* * * * *

이와 같이 랜슬롯 경은 그 모험에 임하였노라. 이제 그 뒤로 그에게 일이 어떻게 되어 갔는지를 너희에게 들려주리라. 만약 이어지는 글을 읽기를 기뻐하거든.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랜슬롯 경이 수레를 타고 방랑 기사로 나서는 모습.]

[일러스트레이션]

제2장

랜슬롯 경이 구니비어 왕비를 구하기 위해 수레를 타고 갔으며, 그와 같은 방법으로 멜레그란스 경의 성에 도착하게 된 이야기

이제 랜슬롯 경은 원수들에게 이같이 버림받아, 앞서 이야기된 바와 같이 홀로 길목에 서 있게 되니, 그는 잠시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그 곳을 벗어나야 할지 알지 못하더라.

그가 이 초췌한 처지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이며 서 있을 때, 얼마 뒤 숲 깊은 곳에서 한쪽 방향으로 도끼 자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고 그는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구원이 가까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 이에 그는 어깨에 방패를 메고 손에 창을 쥐고, 그 도끼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발걸음을 향하였노라. 극한의 위기에 처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만나리라 바랐기 때문이었노라.

그리하여 잠시 후, 그는 숲속의 작은 벌판으로 나와, 한 나무꾼이 장작을 패고 있는 것을 보았노라. 그 나무꾼은 숲에서 나뭇짐을 운반하기 위해 수레와 말 한 필을 함께 두고 있었더라.

그러나 나무꾼이 이렇게 무장한 기사가 마치 빛나는 환상처럼 숲에서 나타나, 발로 걸으며 방패를 어깨에 메고 창을 손에 든 채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이 광경을 어찌 생각해야 할지 알지 못해, 놀람에 입을 벌린 채 그저 멍하니 서서 경이로워하였다.

랜슬롯 경이 그에게 이르되, “좋은 친구여, 그것이 네 수레인가?”

나무꾼이 이르되, “예, 경.”

“내가 네게 이 수레로 한 가지 청을 하려노라,” 랜슬롯 경이 이르되, “그 수레로 나를 저편으로 실어 나를지니, 내가 탈 말을 구할 만한 곳으로 나를 데려다주게.”

나무꾼이 묻되, “무슨 청이오리까, 경?”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내가 바라는 바는 이것이니, 네가 나를 저 수레에 태워 나를 데려다주어 내가 탈 말을 구하게 하라. 나의 말이 방금 전투에서 죽었노라. 내가 맡은 의무(모험)를 계속해 나아가지 못하리니, 다른 말을 얻지 않는 한 어찌할 수 없노라.”

이제 너희는 알지니, 그 시절에는 랜슬롯 경이 말한 바와 같이, 신분이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그런 수레를 타고 다니는 것을 치욕으로 여겨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노라. 죄수를 교수대에 묶어 끌고 갈 때에 쓰던 바로 그런 수레가, 랜슬롯 경이 타기를 청한 바로 그 수레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가난한 나무꾼은 랜슬롯 경이 자신으로 하여금 그 수레를 타게 하라고 명령하시자,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당황하였노라. “영주여,” 그가 이르되, “이 수레는 영주님의 높은 신분에 합당하지 않사옵니다. 청컨대, 저로 하여금 다른 방법으로나마 영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이에 랜슬롯 경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더라. “너는 알라, 고귀한 목적을 위하여 수레를 타는 데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나, 부당하게 그 안에 타면 큰 치욕이 있느니라. 그와 반대로, 말 등 위에 앉아 있다고 하여

곧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명성은 그의 행실에 달려 있지, 그가 어떤 수단을 타고 가느냐에 달려 있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목적이 고귀할진대, 내가 그 목적을 성취하지 아니하면 실로 나는 부끄러운 자가 되리라. 비록 너의 초라한 수레를 타고 가더라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명하는 바를 행하고 네 수레를 준비하라. 만일 내가 새 말을 얻으러 갈 수 있는 곳까지 나를 태워 보내거든, 내가 너의 봉사에 대하여 다섯 닢의 금화를 주리라."

이때 장작 묶는 자는 랜슬롯 경이 다섯 닢의 금화 이야기를 하므로 크게 기뻐하여, 즉시 수레를 준비하러 달려갔노라. 수레가 준비되매, 랜슬롯 경은 방패와 창을 들고 그 안에 올랐더라.

〈각주: 랜슬롯 경이 수레를 타고 가니라.〉

이와 같이 호수의 랜슬롯 경은 수레를 타고 방랑 기사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후 오랫동안 그는 '수레의 기사'라 불렸다. 이 일화를 다룬 수많은 발라드와 노래들이 지어졌고, 기사도 정신이 넘치던 여러 궁정에서는 궁정 시인들과 행인 시인들이 이를 노래하였노라. 이러한 이야기들과 발라드들은 먼 옛날부터 이어져 오늘날 우리 앞에 이르고 있노라.

그 사이 랜슬롯 경은 느린 걸음으로 먼 길을 가노라. 그러므로 마침내, 수레를 타고 가던 그들이 숲을 벗어나 문득 한 작은 비옥한 계곡으로 들어섰으니, 그 한가운데에는 작은 마을과 일곱 개의 탑을 갖춘 아름다운 성채가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더라. 이 계곡은 참으로 아름다웠으니, 마을과 성채의 사방에는 푸르고 무성한 곡식밭이 펼쳐져 있었

고, 많은 울타리와 꽃망울을 터뜨린 과일나무 과수원이 있었더라. 수탉의 울음소리가 계곡을 타고 올라오는 부드러운 바람에 실려 랜슬롯 경의 귀에 닿았고, 같은 바람에는 사과꽃의 향기가 실려 왔으므로, 랜슬롯 경에게는 이 계곡이 주위의 거친 숲으로 둘러싸인 하늘의 아름다운 보석과도 같이 여겨졌노라.

그리하여 장작 묶는 자는 랜슬롯 경을 수레에 태워 성으로 향하는 그 골짜기 아래로 몰고 갔더라. 그들이 성에 가까워지자, 랜슬롯 경은 성벽 아래 펼쳐진 매끄러운 초록빛 초원에서 유희하는 귀족들과 부인들의 무리를 보게 되었노라. 그들 중 일부는 공을 서로 주고받으며 놀았고, 다른 이들은 보리수 그늘에 누워 공 놀이를 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더라. 이때 랜슬롯 경은 이러한 고결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기서 새로운 말을 얻어 자신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노라. 이에 그는 장작 묶는 자에게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수레를 몰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나 랜슬롯 경이 장작더미 수송 수레를 타고 그 성의 백성들 곁으로 다가가자, 그들은 놀이를 멈추고 서서 그를 바라보며 큰 놀람에 잠겼다. 이는 그들이 무장한 기사가 그런 식으로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 잠시 후, 그들은 모두 한없이 웃음을 터뜨렸고, 이에 랜슬롯 경은 부끄러움에 크게 당황하더라.

그때 그 성의 영주가 랜슬롯 경을 맞으러 나아왔더라. 그는 위엄 있는 풍채의 사나이로,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모피로 가장자리를 수놓은

벨벳 옷을 입고 있었더라. 랜슬롯 경이 있는 곳 가까이 다다르자, 그는 큰 분노를 담아 이렇게 이르되,

"기사여, 어찌하여 너는 죄인을 교수대에 이르는 자처럼 수레를 타고 이렇게 달리는고?"

“경,”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타는 것은 내 말이 배신으로 인해 죽었기 때문이라. 내가 수행할 임무가 있으며,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 길 외에는 갈 길이 없노라.”

〈각주: 성의 영주가 랜슬롯경을 꾸짖더라.〉

이때 그 말을 들은 모든 이들은 큰 즐거움으로 다시금 웃음을 터뜨렸다. 다만 성의 노령한 영주만이 웃지 않고, 여전히 분개하는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경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짓이로다, 기사여. 네가 장난감처럼 수레를 타고 다니며 놀림감이 되는 것은 마땅치 않느니라. 그러므로 내려오라. 만일 네가 마땅한 자임을 증명하리라 한다면, 내가 직접 너를 위한 말을 준비해주리라.”

이때 랜슬롯 경은 자신을 조롱하며 웃던 자들의 웃음에 크게 분함을 느꼈고, 더구나 성주가 자신을 수레를 타고 왔다는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여기는 것에도 깊은 모욕감을 느끼었다. 이에 그가 이르되,

“영주여, 자랑하려는 뜻은 없사오나, 내가 여기 근처의 그 누구보다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믿사오니, 또한 당신들 중 그 누구도 자

신의 지위에서 나만큼 값진 일을 해낸 바가 없다고 여기나이다. 비록 이렇게 타는 것으로 인해 내가 어떤 경멸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수행하려 하는 이 모험은 그 자체로 지극히 값진 것이니, 그 모험을 수행하는 자라면 그 누구라도, 그가 어떻게 그 모험을 향해 가든 간에, 그를 값진 자로 만들어 줄 것이오.

나는 당신에게서 새로운 말을 빌리려 하였사오나, 당신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당신이 이렇게 무례하게 책망하시니,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청하지 않겠소. 그러므로 기사로서의 가치란 기사가 어떻게 타느냐에 달려 있지 않음을 당신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는 지금 서원하노라. 내가 이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 말 위에 오르지 않을 것이며, 내가 이 모험을 향해 갈 때에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가난한 수레 외의 다른 수단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오."

이때 랜슬롯 경은 성채의 무리들로부터 벗어나 수레를 타고 떠나갔노라. 그는 그 수레를 타고 계곡으로 내려가, 계곡에 있는 마을을 지나갔으니, 그를 본 자들은 모두 그를 보고 웃으며 조롱하였더라. 그가 길가에서 지나갈 때, 많은 이들이 집 창문에서 내려다보며 그를 바라보았고, 다른 이들은 수레 옆을 달려가며 그를 보고 웃고 비웃었노라. 이는 그가 처형당하듯 수레를 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나 랜슬롯 경은 이러한 모든 것을 큰 태평으로 견뎌냈으니, 이는 그의 자존심 때문이요, 또한 그가 서원한 서원 때문이었노라. 그러므로 그는 그 수레를 타고 계속 나아갔으니, 비록 그는 성주에게서 새로운 말을 구할 수 있었을지라도 말일진대.

* * * * *

이제 우리는 멜레그란스 경의 성으로 시선을 돌리노라. 그곳에서 구이니비어 왕비와 그녀의 궁중 사람들이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이니라.

먼저 너희는 알지니, 그녀와 그녀의 궁정이 머물던 성의 그 부분이 성문으로 이르는 길을 내려다보고 있었노라. 이러므로 여왕이 감금된 방의 창문 너머를 내다보던 여왕의 한 처녀가, 한 기사가 온전히 무장을 갖추고 수레를 타고 그곳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노라. 이 광경을 목격한 그녀가 웃음을 터뜨리자, 여왕이 물으시되, "무엇을 보고 웃느냐?" 여종이 소리쳐 외치되, "폐하, 폐하, 보소서, 보소서!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로소이다. 저기 한 기사가 수레를 타고 가니, 마치 처형장으로 향하는 자와 같사옵니다."

〈각주: 왕후가 랜슬롯 경이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을 바라보시더라.〉

그때 구이니비어 여왕이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고, 여러 사람들도 함께 창가에 모여 바라보았노라. 처음에는 그 수레를 타고 오는 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나, 수레가 조금 더 가까이 다다르자 여왕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노라. 멀리서도 방패에 새겨진 문장을 보시고는, 그 기사가 바로 랜슬롯 경임을 아셨기 때문이었노라.

그리하여 여왕은 낭자에게 돌아서 이르시되, "너는 무엇 때문에 웃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웃고 있구나. 저곳의 그 분은 결코 웃음거리가

될 수 없노라. 그는 황금 박차를 단 기사 중 가장 위대한 분임에 틀림없노라."

〈각주: 퍼시데스 경은 랜슬롯 경에게 불쾌함을 느끼니라.〉

그때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던 이들 중에는 퍼시데스 경과 브랜딜레스 경, 아이언사이드 경이 있었으니, 얼마 후 퍼시데스 경은 랜슬롯 경의 문장을 보았고, 이에 그 수레를 타고 오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노라. 그러나 퍼시데스 경이 그 기사가 랜슬롯 경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원탁의 최고 기사인 자가 그러한 방식으로 수레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 크게 분개하였노라. 이에 퍼시데스 경은 여왕께 아뢰었노라. "폐하, 제가 보기에 저 기사는 호수의 랜슬롯 경 외에는 아무도 아니로소이다." 구이니비어 여왕께서 이르시되, "그가 틀림없도다." 퍼시데스 경이 아뢰되, "그렇사온데, 원탁의 최고 기사가 강도나 법을 어긴 자마냥 수레를 타고 다니는 것은 큰 치욕이라 사뢰나이다. 세상은 이 일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며, 모든 기사도의 궁정에서 이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오. 또한 그의 동료이자 원탁의 형제인 우리 역시 그와 함께 조롱과 웃음거리가 될 것이오."

이때 퍼시데스 경이 이같이 말하매, 함께 있던 다른 기사들과 모든 부인들도 이에 동의하여, 랜슬롯 경이 수레에 올라타 왕비를 구하러 오는 것은 큰 치욕이라 하더라.

그러자 왕비께서 이르시되, "경들과 부인들아, 랜슬롯 경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나는 걱정하지 아니하노라. 그가 우리를 이 포로된 몸에서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노라. 만일 그가 그 사명에서 성공한다면, 그가

그와 같은 고귀한 기사도의 업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로써 그들은 모두 여왕의 말씀에 침묵하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곳에 있던 기사들은 서로 간에 다음과 같이 여겼다. 즉, 존귀하고 명성 높은 기사의 체면에 어울리게 먼저 말을 얻어 타지 않고, 그저 수레를 타고 여왕을 구하러 온 것은 랜슬롯 경에게 있어 큰 치욕이 되는 일이라 하였노라.

* * * * *

이제 너희는 알지니,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강가의 다리에 서서 랜슬롯 경에게 맞서려던 무리의 우두머리인 녹색 기사라 하는 자가, 랜슬롯 경의 말이 총상을 입은 것을 보고는 동료들과 함께 전장을 떠나 달아났노라. 그는 멈춤도 머묾도 없이, 오직 멜레그란스 경의 성에 이르러야만 그 길을 멈추었더라.

그곳에 도착한 녹색 기사는 곧장 멜레그란스 경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다리의 급류 앞에서 랜슬롯 경이 홀로 그들을 모두 물리친 모든 일을 보고하였노라. 그리고 그는 멜레그란스 경에게 이르되, 비록 그의 말이 죽임을 당하여 다소 지체를 겪었으나, 랜슬롯 경은 그리 오래지 않아 반드시 이 곳으로 올 것이라 하였노라.

〈각주: 멜그란스 경은 랜슬롯 경을 두려워하더라.〉

그때서서 멜레그란스 경은 큰 근심에 빠지니, 이는 그 역시 랜슬롯 경이 그리 오래지 않아 그 곳에 도착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요, 또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자신에게 큰 시련이 닥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이에 그는 랜슬롯 경을 제거할 방도를 구상하며 머리를 싸매고 골몰하더라. 마침내 그는 한 가지 계책을 떠올렸으나, 그 계책은 한 기사로서, 또 한 신사로서 마땅히 취할 만한 것이 못 되었노라.

이때 랜슬롯 경이 성문 앞에 수레를 타고 서 있다는 소문이 멜레그란스 경의 귀에 들어갔다. 멜레그란스 경은 성의 바르비칸으로 내려가 창문 너머로 내다보았으니, 성문 앞 수레 위에 선 랜슬롯 경의 모습을 목격하였더라. 이에 멜레그란스 경이 이르되, "랜슬롯 경이여, 그대가 수레 위에 있소이까?"

랜슬롯 경이 대답하되 "정녕 그러하노라, 배반한 기사여. 바로 나다. 내가 네게 고하노니, 너는 이제든 장차든 나의 복수를 피하지 못하리라. 오직 왕비와 그 모든 궁중 사람들을 석방하고, 그들과 나에 대해 너희가 행한 모든 해악에 대해 합당한 배상을 하라."

〈각주: 멜그란스 경이 랜슬롯 경에게 말하더라.〉

이때 멜레그란스 경이 매우 부드럽고 겸손한 어조로 말하되 이르되, "영주여, 나는 깊이 사색하여 이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깊이 후회하나이다. 비록 나의 격분이 컸다 할지라도, 일어난 모든 일에서 나는 지극히 악하게 행하였사오니, 내가 행한 바를 배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파멸을 초래하지 않고는 어떻게 배상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겠나이다. 만약 당신이 이 일로 인해 여왕께 나를 위해 중재해 주신다면, 나는 당신을 이 성으로 들여보내며, 그녀가 계신 곳으로 직접 모시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용서를 받으면, 당신 모두는 자유롭게 가실 수 있겠

사오니, 나는 스스로 아서왕의 자비에 맡기고 그에게 모든 의무를 다할 것이나이다."

이때 멜레그란스 경의 회개에 랜슬롯 경은 지극히 놀랐노라. 그러나 그는 그 기사의 참된 신념을 의심하여, 이르되 "기사여, 내가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진실인지 어찌 알리오?"

"자, 말하노니," 멜레그란스 경이 이르되, "내 말을 의심하는 것이 놀랄 일도 아니라 하노라. 그러나 내가 내 신의를 네게 증명하리라. 내가 지금과 같이 무장하지 않은 채로 네게로 오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성채로 들이고, 너를 여왕께로 인도하겠노라. 네가 무장하고 나는 무장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를 배신하려는 기미를 보인다면 너는 나를 쉽게 죽일 수 있느니라."

그러나 랜슬롯 경은 여전히 심중이 어지러워, 멜레그란스 경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노라. 그러나 잠시 후,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가 이르되, "만일 네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이 참이라면, 기사여, 내려오시오. 내가 성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오. 네가 약속한 대로 말이오. 나는 네 신의에 의지하여 이 위험을 감수하겠소. 그러나 네가 나를 속이려 한다는 기미를 보인다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네가 나를 죽일 권리를 주었으니, 나도 또한 너를 죽일 수 있노라." 하고 말하니, 멜레그란스 경이 이르되, "나는 이에 동의하노라." 하였더라.

〈각주: 멜그란스 경이 랜슬롯 앞에 무릎을 꿇더라.〉

이에 멜그랜스 경은 자신이 있던 곳으로부터 내려가 성문의 개방을 명하더라. 성문이 열리자 그는 랜슬롯 경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니라. 랜슬롯 경은 장작 운반 수레에서 내려왔고, 멜그랜스 경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이르되, “랜슬롯 경이시여, 제가 행한 일에 대해 사죄하나이다.”

랜슬롯 경이 이르되 “경이 다시는 어떠한 간사한 꾀를 부리지 않겠다면,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또한 내가 왕비께 너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리라. 그러니 곧장 그녀를 모셔오라. 내가 내 눈으로 그녀를 뵙기 전까지는, 경의 참회심이 진실인지 전적으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니라.”

이에 멜레그란스 경이 일어나 이르되 “자, 함께 가오리다. 내가 경을 그녀께 모셔가겠노라.”

이에 멜레그란스 경이 성채 안으로 앞장섰고, 랜슬롯 경이 그의 뒤를 따랐다. 랜슬롯은 손에 칼을 빼든 채로 행진하며, 만약 멜레그란스 경이 배신적인 기미를 보일 경우 즉시 그를 베어 죽일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멜레그란스 경은 성채 깊숙한 곳으로, 여러 복도를 지나 계속 앞장섰고, 랜슬롯 경은 여전히 그 뒤를 따랐다.

〈각주: 랜슬롯 경이 함정에 빠지니라.〉

이 성채의 한 구석, 긴 복도 한가운데에는 바닥을 뚫어 그 아래로 이어지는 함정이 있었다. 이 함정은 깊은 어둠의 구덩이로 통하고 있었으며, 그 문은 신비한 잠금쇠로 조절되었는데, 이 비밀은 멜그란스 경만

이 알고 있었다. 멜그란스 경이 손가락으로 잠금쇠를 만지면, 함정은 즉시 열려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때 멜그란스 경이 그 곳으로 길을 안내하고, 랜슬롯 경이 뒤를 따랐다. 멜그란스 경은 함정 위를 무사히 지나쳤으나, 랜슬롯 경이 함정 위에 발을 디디자, 멜그란스 경은 손가락으로 잠금쇠의 고리를 건드렸다. 그러자 함정은 랜슬롯 경의 발 아래로 즉시 열렸고, 랜슬롯 경은 깊은 구덩이 속으로 떨어졌다.

그 구덩이는 참으로 깊었고 바닥은 돌로 되어 있었으므로, 랜슬롯 경이 떨어질 때 돌 바닥에 강하게 부딪혀 의식을 완전히 잃고, 마치 죽은 자처럼 그 구덩이 안에 누워 있었다.

그때 멜레그란스 경이 다시 뚜껑문이 열린 자리로 돌아와 아래 구덩이를 내려다보았더니, 거기서 랜슬롯 경이 누워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멜레그란스 경은 웃으며 소리쳐 부르되, "랜슬롯 경이여, 지금 기운은 어떠뇨?" 하였으나 랜슬롯 경은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멜그란스 경은 다시 한번 웃으며, 함정을 닫고서 떠났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야 비로소 내 손에 인질이 있으니, 아서왕은 반드시 그가 과거에 내게 저지른 이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다. 내가 지금 그의 왕비뿐만 아니라 원탁의 으뜸 기사까지도 내게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서왕은 반드시 내게 찾아와 내가 정할 조건으로 화의를 맺으리라."

* * * * *

구이니비어 여왕은 랜슬롯 경의 소식을 오랫동안 기다렸노라. 그녀가 아노니, 이제 랜슬롯 경이 그 성에 머물러 있음이 분명하니, 언젠가는 반드시 그의 소식을 듣게 되리라. 그러나 아무 소식도 오지 아니하더라. 시간이 흐를수록 소식 없는 것이 여왕을 크게 괴롭혔노라. 그녀가 이르되, "슬프다, 이 성의 배신자 영주의 손에 그 선량한 기사에게 불행이 닥쳤다면!"

그러나 그녀가 알지 못하던 바가 있으니, 바로 그 시점에 랜슬롯 경이 어떤 큰 재앙에 빠졌는지와, 그가 이미 통로 바닥 아래의 구덩이에서 죽은 자와 같이 누워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아름다운 낭자 엘루이즈가 랜슬롯 경을 구원하다]

[일러스트레이션]

제삼장

랜슬롯 경이 구덩이에서 구출되고, 멜그란스 경을 격파하여 왕비와 그 신하들을 억압에서 해방시킨 이야기

이때 랜슬롯 경이 그 깊은 구덩이로 격렬하게 떨어졌을 때에 이르러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그 졸도에서 깨어나니, 그는 매우 슬프고 비참한 형편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더라. 그는 바닥의 딱딱한 돌 위에 누워 있었고, 그 주변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 그 어둠 속으로 들어오는 빛의 빛줄기 하나도 없었노라.

〈각주: 랜슬롯 경이 구덩이 안에 누워 있더라.〉

이때 랜슬롯 경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잠시 동안 알지 못하였으나, 곧 자신이 멜레그란스의 성에 있음을 기억해 내었고,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을 회상하였노라. 그리하여 자신이 이 처참한 형편으로 감금된 포로임을 깨달으니, 그는 마음과 몸이 모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차에, 슬픔과 절망으로 신음하였노라.

그리고 그는 매우 애절한 목소리로 외쳤노라.

"이런 배신자, 이 기사가 처음부터 보여준 자와 같은 자를 내가 어찌 믿었는가! 슬프도다! 지금 나는 이 음울한 감옥에 가두어졌으니, 이 순간 나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노라."

이때 랜슬롯 경은 스스로를 불쌍히 여겨 통곡하고 애도하였으나,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 그는 그 비참한 지하실에서 오직 혼자였기 때문이라. 그 곳에는 빛의 빛줄기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어둠이 가득 차 있었더라.

그때 랜슬롯 경은 그 곳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생각하려 마음을 기울였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처한 불행한 상황을 어떻게든 호전시킬 방도를 찾아내지 못하므로, 그는 온전히 절망에 빠져버렸노라. 그리고 그 때쯤 되어 밤은 이미 한창 깊숙이 들었더라.

이때 랜슬롯 경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영혼이 깊은 절망에 잠겨 누워 있더니, 어느 한 곳에서 빛의 자락이 비치는 것을 문득 깨달았노

라. 그 빛은 날로 더 밝아져 가고, 랜슬롯 경은 그 빛이 문틈으로 들어오는 것임을 보았노라. 그리고 잠시 후, 밖에서 열쇠 소리가 들려오더니 곧이어 문이 열리며, 손에 켜진 등불을 든 한 처녀가 그 곳으로 들어왔노라.

〈각주: 엘루이즈 부인이 랜슬롯 경을 발견하더라.〉

처음에 랜슬롯 경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이내 그녀를 알아보고 보니, 그 낭자는 바로 아름다운 엘루이즈 부인이었노라. 그녀는 바게마구스 왕의 딸이요, 멜레그란스 경의 자매였으니, 그녀야말로 앞서 이 역사의 다른 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가 모르가나 레페이 여왕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를 구원해 주었던 바로 그 이였노라.

이에 엘루이즈 부인이 그 음울한 곳에 이르러 등불을 들고 들어왔으니, 랜슬롯 경은 그녀의 눈이 눈물로 붉어졌음을 보았더라. 이때 랜슬롯 경이 그녀가 이같이 울었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부인, 무엇으로 인해 괴로우십니까? 제가 당신을 위로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말씀하시오.” 이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랜슬롯 경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더라. 잠시 후 그녀가 이르되, “슬프도다, 랜슬롯 경이 이같이 계심을 보니! 그리고 슬프도다, 내 친형제가 당신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음이여!”

랜슬롯 경은 그녀가 이처럼 슬퍼하는 모습을 보자 크게 감동하여 이르되, “부인, 마음을 진정하십시오. 만일 멜레그란스 경이 저에게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부인에게 어떠한 책망이나

비난이 미칠 수 없나이다. 이는 내가 한때 부인이 저를 매우 가혹한 포로 상태에서 구해 주셨던 일을 결코 잊지 않기 때문이니이다."

엘루이즈 부인이 이르되 "랜슬롯이여, 너와 같이 고결한 기사가 이처럼 억압 가운데 누워 계심을 보기가 견딜 수 없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노라. 이제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여 주리니, 너도 나의 청을 들어 내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겠느냐?"

"부인," 랜슬롯 경이 이르되, "이는 내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구려. 내가 당신을 위해 많은 일을 하려 함이오. 그러나 내가 악인을 징벌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내 소임을 다하려 함을 아시기를 바라오. 그러므로 이 기사가 나의 왕비께 배신했사오니, 내가 이곳에서 벗어나는 날에는 반드시 그를 징벌하려 하오. 그러나 내가 탈출할 수 있게 된다면, 당신을 위해 이 정도 자비는 베풀겠소. 내가 그를 정정당당한 싸움터에서, 한 기사가 다른 기사에게 마땅히 마주하는 방식으로 대할 것이오. 또한 전투의 때에 한 기사가 다른 기사에게 보여야 할 예의를 다할 것이오. 내가 당신의 오라버니에게 베풀 자비는 이것뿐이오. 그리고 이는 내가 마땅히 요구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오."

그때 아름다운 엘루이즈가 다시금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슬프도다, 랜슬롯 경! 내가 두렵사오니, 만일 당신과 제 형제 간에 전투가 벌어지게 된다면, 제 형제가 당신의 손에 죽게 될까 하오. 어찌하여 내가 제 형제가 그러한 방식으로, 그것도 당신의 손에 죽는 것을 견딜 수 있겠나이까?"

"부인," 랜슬롯 경이 이르되, "전투의 운명은 언제나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나이다. 싸움에 임하는 자는 누구에게나 죽음이 닥칠 수 있사오니, 그러한 운명은 당신의 형제에게만 닥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닥칠 수 있나이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가지소서. 내가 멜레그란스 경과의 전투를 피할 수 있으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으나, 오히려 그에게 행운이 따라 그가 살게 되고 제가 죽게 될지도 모르나이다."

"슬프도다, 랜슬롯," 아리따운 엘루이즈가 이르되, "네가 내 친형제의 손에 죽는 것이 내게 위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는 이 비참한 자의 누이인 나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초라한 위안에 불과하노라. 그러나 어찌 될지라도, 나는 네가 이곳 어둡고 비참한 지하실에 누워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노라. 내가 도와주지 않는 한, 반드시 그 곳에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전에 모르가나 여왕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처럼, 다시 한번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왕의 딸이요, 참된 기사의 딸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하리라. 이후에 닥칠 일들에 관하여는,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 모든 일이 그분께서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노라."

〈각주: 엘루이즈 부인이 랜슬롯 경을 구덩이에서 건져내니라.〉

이렇게 말하며, 아름다운 엘루이즈 낭자는 랜슬롯 경에게 일어나 따르라 명했고, 그는 그 명을 따랐노라. 그녀가 그를 그 곳으로부터 이끌어 나가 긴 계단을 올라 성의 탑, 지붕 처마 밑에 있는 아름답고 넓은 방으로 데려갔노라. 랜슬롯 경이 바라보니, 그의 도착을 위해 모든 것

이 준비되어 있더라. 그곳에는 빵과 고기, 그리고 그의 피로를 풀 여러 양의 포도주가 담긴 여러 개의 항아리가 놓인 식탁이 있었노라. 또한 그곳에는 차갑고 맑은 물로 가득한 은제 주전자가 있었고, 은제 대야가 있었으며, 기사들이 손을 닦기 위해 준비된 것 같은 여러 장의 고급 린넨 수건이 있었노라. 이 모든 것이 그의 도착을 위해 미리 준비되어 있었으며, 그 광경을 본 그는 큰 만족감으로 마음이 높아졌노라.

이에 랜슬롯 경은 물로 얼굴과 손을 씻고, 수건으로 그것을 말리니라. 그리고 그는 식탁에 앉아 큰 식욕으로 먹고 마셨으며, 아름다운 엘로이즈 부인이 그를 시중들었노라. 그녀가 준비한 이 양식으로 인해, 랜슬롯 경은 몸과 영혼이 크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처럼 배부름을 채우신 랜슬롯 경에게, 엘루이즈 부인은 그를 또 다른 방으로 인도하여 불빛이 타오르는 듯한 색감의 린넨으로 덮인 부드러운 침상이 있는 곳을 보여 주시며 이르시되, “여기서 오늘 밤 편안히 쉬시라. 아침이 되면 내가 너의 검과 방패를 가지고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 그녀는 랜슬롯 경을 그분의 안식으로 남겨두고 물러났고, 그는 침대에 누워 큰 만족감 속에 잠들었더라.

그는 그 밤 내내,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될 때까지 깊이 잠들었더라. 이때에 엘루이즈 부인이 그에게로 와서, 그녀가 약속한 대로 그의 검과 방패를 가져다주었노라. 그녀가 그에게 건네며 이르되, “경이시여, 내가 하늘의 눈앞에서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적들에게서 자신을 방어할 도구를 갖추지 못한 채, 이

곳에 보호받지 못하는 채로 경을 남겨두는 것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없노라. 이는 곧 경의 확실한 죽음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각주: 랜슬롯 경이 다시 무기를 되찾다.〉

그때 랜슬롯 경은 자신의 무기를 되찾아 온전히 기쁨으로 가득 찼고, 엘루이즈 부인에게 끝없는 감사의 뜻을 표하더라. 그 후 그는 옆에 검을 걸고 어깨에 방패를 메었으니, 세상에 그가 두려워할 자가 없었더라. 비록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 후, 그가 금식을 깨고 나자, 랜슬롯 경은 그 밤을 묵었던 방에서 나와 성 안으로, 그리고 성의 뜰로 내려갔다. 그의 출현을 본 모든 이들은 크게 놀라움에 사로잡혔으니, 그들이 그를 아직 그 굴속에 갇혀 있는 죄수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각주: _랜슬롯 경이 성을 도발하다._〉

이들을 본 자들은 그가 온몸에 갑주를 두르고 손에 검을 쥐고 다가오는 것을 보자, 랜슬롯 경의 앞을 피해 도망쳤고, 그의 행로를 막으려 나서는 자는 아무도 없었더라. 이에 랜슬롯 경은 성채의 안마당에 다다랐고, 그곳에 이르러서는 뿔피리를 입에 대어 온 곳 전체에 끔찍할 정도로 크고 날카로운 소리를 울려 퍼뜨렸노라.

그 사이 성 안에서는 여기저기 바쁜 소동이 일어나고 많은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으며, 많은 이들이 창문으로 나와 안뜰을 내려다보았다. 거기서 그들은 랜슬롯 경이 온전한 갑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갑옷은 아침 햇살 아래서 매우 빛나고 있었다.

한편 여러 사자들이 달려가 멜레그란스 경에게 알리니, 랜슬롯 경이 그가 빠져들었던 구덩이에서 탈출하여 성의 마당에 갑옷을 갖춰 입고 서 있다고 전하였더라.

그때 멜레그란스 경은 놀라움에 휩싸였고, 큰 두려움이 그의 심장을 움켜쥐었다. 잠시 후 그 또한 어딘가로 가서, 그곳에서 안뜰을 내려다 볼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 역시 햇살에 빛나서 서 있는 랜슬롯 경을 보았더라.

그때 랜슬롯 경이 눈을 들어 보니, 그 곳 창가에 서 있던 바로 그 멜레그란스 경을 보았더라. 그는 즉시 멜레그란스 경을 알아보았노라. 이에 그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멜레그란스, 너 배신자 기사여! 내려와서 결투를 벌이라. 여기에서 너의 출전을 기다리노라."

그러나 멜레그란스 경이 이 말을 듣자, 그는 자신이 서 있던 창문 곁에서 매우 급히 물러났고, 홀로 있을 수 있는 한 방으로 달려가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가 도망친 감옥에서 벗어난 랜슬롯 경을 목격하고, 그분의 노여움을 피해 어떻게 도망쳐야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련한 놈이여, 내가 그 기사를 내 성으로 들인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노라. 내가 원한다면 밖으로 머물게 할 수 있었건만. 이제 나는 어떻게 그의 복수에서 벗어날 것인가?"

〈각주: 멜레그란스 경이 상의를 구하더라.〉

그리하여 잠시 후, 멜레그란스 경은 자신의 기사들을 몇 명 불러 모아, 이 엄중한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의논하더라. 그

들이 그에게 이르되, “영주여, 당신께서 자신의 계책을 성취하고자 저 기사를 이 곳으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하나님께서 아시거니와 그는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들어올 수 없었나이다. 이제 그가 여기에 있으니, 마땅히 당신께서 온몸을 철갑으로 무장하시고 마당으로 내려가서 그를 만나 싸우셔야 하나이다. 오직 그를 격파함으로만 그분의 분노를 피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멜레그란스 경은 온 마음으로 랜슬롯 경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에 이르되, “아니오, 나는 저 기사의 곁으로 내려가지 않겠나이다. 너희는 그가 현존하는 기사 중 가장 위대한 기사라는 것을 알라. 내가 그와 싸우러 간다면, 이는 확실히 내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나는 내려가지 않겠노라.”

그때 멜레그란스 경은 사자를 불러 이르되, "뜰에 있는 저 기사에게 가라. 내가 그와 결투하지 않겠다고 전하라."

그리하여 사자는 랜슬롯 경에게로 가서 그 뜻을 전하였노라. 그러나 사자가 멜레그란스 경의 말을 전하는 것을 들은 랜슬롯 경은 크게 비웃으며 조롱의 웃음을 터뜨렸노라.

그리하여 사자에게 이르시되, "이 성의 기사가 나를 만나기를 두려워하는가?"

사자가 아뢰되, "예, 그러하옵니다, 영주여."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그러면 그에게 이 말을 전하라. 내가 방패와 투구를 벗어 던지고, 몸의 왼쪽 절반을 모두 무장 해제할 것이라. 그리

하여 반쯤 벗은 채로, 그가 내려와 나와 싸우려 한다면 맞서 싸우리라."

이렇게 말한 후, 사신은 랜슬롯 경의 명을 따라 떠났고, 멜레그란스 경에게 이르러 랜슬롯 경이 전하라고 한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였다.

〈각주: 랜슬롯 경이 반갑옷 차림으로 멜레그란스 경과 결투를 제의하다.〉

이에 멜레그란스 경이 함께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려가 이 기사와 결투하리라. 그를 이길 절호의 기회는 지금이 아니면 다시 없을 것이라."

이러자 그는 그 사신을 돌아보며 이르되, "가라! 저 기사에게 서둘러 돌아가라. 그리고 그가 제시한 조건, 즉 그가 왼쪽 갑옷을 벗고 방패와 투구를 벗어던지기로 한 그 조건에 따라 내가 그와 결투할 것임을 전하라. 또한 그에게 이르되, 그가 그와 같이 준비를 마치기 전에 내가 내려가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의 보답을 하리라 하라."

이때 전령은 그 명령을 받아 떠나가고, 멜레그란스 경은 전투에 임하기 위해 무장을 하러 떠났더라.

그때 메신저가 멜레그란스 경이 전하라는 말을 전하자, 랜슬롯 경은 미리 약속한 대로 방패와 투구를 벗어 던졌고, 그의 갑옷을 왼쪽에서 벗겨냄으로써 그 쪽으로는 완전히 무장을 해제하였다.

잠시 후, 멜레그란스 경이 나타나니 그의 온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그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한 듯, 큰 자신감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나아갔다. 그리하여 그는 매우 당당하게 랜슬롯 경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고, 이르되 "보시오, 기사여, 당신이 원하시니 제가 봉공하러 왔나이다"라고 하였다.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러한 방식이든 다른 방식이든, 오직 너를 만날 수만 있다면 어찌하든 좋노라."

그 후 각 기사들은 전투에 대비하여 스스로를 장비하였고, 성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창문과 위쪽 발코니에 모여 아래로 내려다보며 두 기사를 지켜보았더라.

그때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다. 거의 맞닿을 듯한 순간, 랜슬롯 경은 자신의 무방비한 왼쪽 옆구리를 드러내어, 멜레그란스 경이 그 부위를 치도록 기회를 주었다. 멜레그란스 경이 이 틈을 보자마자, 그는 온 힘을 다해 랜슬롯 경의 무장하지 않은 옆구리를 향해 거대한 일격을 가하였다. 그리고 그 한 방으로 전투를 종결짓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말이다.

그러나 랜슬롯 경은 그 일격을 잘 대비하고 있었으므로, 그는 매우 손재주가 좋고도 신속하게 몸을 한쪽으로 돌려, 무장한 쪽으로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그의 검으로 그 일격의 일부를 막아냈으므로, 그 일격은 헛수고가 되고 말았더라.

〈각주: _랜슬롯 경이 멜레그란스를 죽이다._〉

그러나 그 타격이 너무 격렬하여, 그 자신이 몸이 앞으로 쏠려 균형을 잃고 말았다. 그가 제정신을 차리기 전에, 랜슬롯 경은 그를 향해 거친 일격을 날렸고, 그 타격은 멜레그란스 경의 투구에 정확히 명중하였다. 그리고 그가 땅에 쓰러지기 직전, 랜슬롯 경은 다시 한 번 그를 쳤으니, 이 검의 타격과 그 이전의 타격 모두 멜레그란스 경의 투구를 깊이 관통하여 두개골 속으로 파고들었다. 이로 인해 그는 땅에 쓰러져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누워 있었다.

그때 랜슬롯 경은 그 위에 서서, 가까이 있던 자들을 불러 자신의 주군을 살펴볼 것을 명하였다. 이에 여러 명이 달려왔다. 그들은 멜레그란스 경을 들어 올리고, 그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그의 투구를 벗겨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거늘, 보라! 그의 영혼은 이미 떠나가고 있었으니, 그는 다시는 해의 광채를 보기 위해 눈을 뜨지 못하였더라.

그때 성의 사람들이 보니, 멜레그란스가 이미 죽어 있는 것이었다. 이에 그들은 크게 통곡하며 소리 높여 울부짖었으니, 그 소리가 성 안 곳곳에 울려 퍼져 성 전체가 그들의 비명과 애곡으로 가득 찼더라.

그러나 랜슬롯 경이 크게 소리쳤다. “이 기사는 그가 저지른 배신 때문에 스스로 이 지경에 빠진 것이니, 그 책임은 오직 그에게 있노라.” 그 뒤 이어 말하였다. “이 성의 문지기는 어디 있느냐? 그를 데려오라!”

잠시 후 문지기가 이르러, 랜슬롯 경이 그에게 물었노라. "어디에 그 여왕과 그분의 궁중 사람들이 감금되어 있느냐? 나를 그들에게로 인도하라, 자네."

그때 문지기가 랜슬롯 경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이르되, "영주님, 제가 명하시는 대로 무엇이든 행하리이다,"라 하니 이는 그가 그날 보여준 랜슬롯 경의 노여움에 사로잡혀 심히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그리고 문지기가 다시 이르되, "영주님, 저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왕비께 모시리이다,"라 하더라.

〈각주: _랜슬롯 경이 왕비를 구원하다._〉

그리하여 문지기가 랜슬롯 경을 왕비가 계신 곳으로,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이들을 모신 곳으로 인도하였더라. 이때 모든 이들이 크게 기뻐하며 큰 함성으로, 랜슬롯 경이 그들을 포로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찬양하였더라.

왕비 구이니비어가 이르시되, “내가 잠시 전 너희에게 무엇이라 하였느냐? 랜슬롯 경이 어떻게 이곳에 왔든, 비록 수레를 타고 왔든 그것이 무엇이랴?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보라, 그가 비록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왔을지라도, 그는 놀라운 기사도의 용맹을 발휘하여 우리 모두를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켰노라.”

그 후, 랜슬롯 경은 필요한 말들을 준비하도록 명하였다. 또한, 왕비의 궁정에 속하여 부상을 입은 기사들을 위한 이송용 가마를 가져오라

고 명하였으니, 그의 명대로 모든 일이 치러지더라. 그 후, 그들은 모두 그 곳을 떠나 캐멀롯과 아서왕의 궁정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더라.

그러나 랜슬롯 경은 다시는 그 아름다운 엘루이즈 처녀를 보지 못하였노라. 그녀는 모든 일이 지나간 슬픔과 수치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방에 깊이 숨어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에 랜슬롯 경은 큰 슬픔을 겪었으니, 그에게 이렇게 친근하였던 자에게 어떠한 곤란을 안겨주게 되었음을 깊이 애달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가 행한 바와 달리 어찌할 수 있었으랴. 그녀를 위로할 방도를 그로서는 아무것도 생각해 내지 못하였노라.

* * * * *

이로써 수레의 기사가 겪은 이 모험은 막을 내리니, 다만 이 한 가지를 덧붙여 말하노니, 그 후부터 많은 이들이 랜슬롯 경이 수레를 타고 그 모험에 나섰다 하여 크게 분개하였더라. 내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해 많은 조소가 오갔으며, 아서왕의 궁중에는 이같이 하찮은 일이 일어났다 하여 크게 근심하고 슬퍼하는 자가 많았더라.

〈각주: 그의 친족들이 랜슬롯 경을 책망하더라.〉

특히 랜슬롯 경의 친족들은 그가 행한 일에 크게 분개하였더라. 이에 라이오넬 경과 에커 경이 랜슬롯 경에게 나아가 에커 경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수레를 타고 그 모험을 행한 것은 매우 나쁜 일이었노라. 이제 그대에게 묻노니, 원한다면 쉽게 새로운 말을 구하여 탈 수 있었건데 어찌 그러한 일을 행하였는가?”

이에 랜슬롯 경은 격한 어조로 이렇게 답하더라. “그대들이 어찌하여 이 일에 끼어들려 하는지 나는 모르겠노라. 내가 행한 바는 모두 나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요, 다른 이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더욱이 나는 내가 그 모험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노라. 다만 내가 내 목적을 기사다운 방식으로 성취했으면 족하리라. 진실로 내가 진정한 기사로서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적이 있음을 들어 말한 자는 아직 듣지 못하였노라.”

“그 일로 말하자면,” 에커 경이 이르되, “너의 기사도 자격은 이 일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일들에서도 충분히 입증되었노라. 그러나 우리 너와 피를 같이한 자들과, 그리고 너와 함께 무기를 든 동지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네가 매우 가치 있는 대업에 걸맞은 위엄을 갖추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운 방식으로 그것을 성취했다는 것이니라. 네가 지금 온 세상에 ‘수레의 기사’라 불리며, 이 모험에 관한 노래가 만들어지고 또 이에 대한 조롱이 오가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각주: _랜슬롯 경이 그의 방패를 덮는다._〉

그때 랜슬롯 경은 큰 분노에 사로잡혔고, 그는 여관으로 돌아가 방패를 가져와 그 표면에 가죽 한 장을 덮어 고정하였노라. 이후 그는 그 방패의 가죽 덮개를 순수한 흰색으로 칠하여, 거기에 새겨진 문장이 무엇인지, 혹은 그 방패를 든 기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하였노라. 이렇게 한 후 그는 스스로를 무장하고 말에 올라 홀로 모험의 길에 올랐으며,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말이 선택하는 대로 길을 따라 가도록 내버려 두었더라.

이때 랜슬롯 경은 노여움을 품고 아서왕의 궁정을 떠났노라. 그 후로, 단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그는 두 해 동안 다시는 왕의 궁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그 기간 동안 궁정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웠더라. 그는 더 이상 거기에 없었기 때문이라.

제이부

오크니의 가레스 경 이야기

이제 오크니의 가레스 경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노라. 그는 숙부 아서왕의 궁정에 정체를 숨긴 채 찾아왔으나, 시종장 케이 경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하더라. 그러나 그의 형제 가웨인 경이 그를 아끼고 도와주었으며, 이후 가레스 경은 리네트라는 이름의 처녀와 함께 모험의 길을 떠났고, 그와 함께 겪은 여러 가지 기이한 사건들은 이어서 자세히 서술하리라.

그러므로 그 젊은 기사의 운명이 어떠하였는지 알고자 한다면, 이때에 랜슬롯 경의 그 이후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멈추어야 하노라. 이제 이 젊은이의 다른 모험들을 읽어야 하리니, 그는 오크니의 로트 왕과 마르가이즈 왕비의 막내아들이었노라.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가 모두 끝나면, 비로소 랜슬롯 경의 모험에 대한 그 이후의 역사가 다시금 다루어지리라.

[일러스트레이션: 오크니의 가레스 경]

[그림]

제1장

오크니의 가레스 경이 아서왕이 법정을 열고 있는 킨켄돈 성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와, 그곳에서 그에게 닥친 일

〈각주: 오크니의 가레스에 대하여.〉

오크니의 왕 롯과 그의 왕비, 곧 아서왕의 자매인 마르가이즈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은 오크니의 가레스라 불리우는 청년이었노라. 이 젊고 고결하며 높은 혈통을 지닌 왕자 가레스는 그의 왕가 혈족 중 가장 아름다운 자였으니, 그가 지극히 키가 크고 건장하여 그의 아버지의 궁정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한 머리 정도는 더 컸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기사적 경기에서 가장 강인하고 민첩하며 능숙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과 대화할 때 온유한 어조와 지극히 정중한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은 지극히 아름다워 천국의 천사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자는 없다고 내가 믿을 정도였노라. 그의 머리카락은 빛나고 붉은빛을 띠어 순수한 금빛처럼 빛났으며, 그의 뺨은 붉었고 턱과 함께 부드러운 수염의 꽃망울이 피어 얼굴 위에 금가루를 뿌린 듯하였노라. 그의 눈은 푸르고 빛났으며, 그의 목덜미와 목은 백옥기둥처럼 둥글고 희었노라.

〈각주: _궁정의 사람들이 가레스를 칭찬하던 일._〉

이때 왕 로트와 마르가이즈 왕비는 다른 자녀들 중 어느 누구보다 가레스를 더 사랑하였더라. 그리하여 궁정에 사는 자들은 모두 가레스

를 칭찬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니, 그에게 직접 말하기도 하고, 그의 부모이신 왕과 왕비 앞에서 말하기도 하였더라.

그들은 때로 이렇게 이르되. "보라! 이 청년은 왕족의 아름다움과 은총과 위엄을 지닌 빛을 그의 몸에서 발산하느니라. 비록 그가 금실로 수놓은 옷이 아니라 거친 모직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온 세상은 그가 왕족의 혈통을 이었음을 알 것이요, 마치 그가 왕족의 청년에게 어울리는 왕가의 의복을 입은 것처럼 분명히 알 것이니라. 보라! 그의 왕족스러움은 그의 의복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왕족스러움은 그의 얼굴에서 빛나니라."

〈각주: 마르가이즈 여왕이 가레스를 부르시니라.〉

이때에 가레스가 스무 살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인 마르가이즈 여왕은 처녀들과 함께 있는 자신의 방으로 그를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앉아 있으라 명하시니, 그는 여왕의 명을 따라 그 때에 앉아 계셨던 자줏빛 천으로 덮이고 은빛 사자가 수놓아진 소파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하여 마르가이즈 여왕은 오랫동안 아름다운 아들을 바라보았노라. 그의 힘과 우아함을 생각하며, 어머니의 마음은 자부심과 영광으로 가득 차 그를 향해 끓어올랐노라.

그리고 잠시 후 여왕이 이르시되, "내 아들아, 이제 네 키와 체격이 다 자라고 장성한 몸이 되려니와, 네가 태어난 왕족의 혈통에 어울리는

영예로운 기사작위를 얻어내야 할 때라. 그러므로 네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은 왕족의 위엄에 걸맞은 업적을 세우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네가 오늘로부터 이레 뒤에 내 오라버니인 아서왕의 궁궐로 가서, 원탁의 기사들 중 그 놀랍고도 고결한 동료들과 함께 서기를 원하노라. 네 형제들은 은하수 가운데 빛나는 밝은 행성들처럼 빛나느니라.

네가 왕과 여왕의 아들이며, 이 온 땅의 최고 군주인 그 위대한 왕의 조카라는 지위에 걸맞은 장엄한 행렬과 치장을 갖추어, 이 궁정의 가장 고귀한 세 영주들의 호위를 받으며 오라버니 왕의 궁궐로 나아가기를 원하노라."

〈각주: 가레스가 아서왕의 궁정으로 떠나다.〉

이렇게 왕비 마르가이즈가 이르시니, 가레스는 그 때로부터 일주일 뒤를 기하여 아서왕의 궁정으로 떠났다. 왕비가 명하신 바와 같이, 그와 함께 세 분의 매우 고귀하고 거만한 궁정 귀족들이 함께 행진하였고, 그들과 함께 종자들과 시종들이 일흔네 명이나 따랐다. 그 무리 한가운데서 젊은 가레스는 크림빛 흰 말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가 타고 있는 말의 모든 마구와 장식품들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가 앉은 안장 또한 금박으로 찍혀 있으며 금 리벳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가레스 자신 또한 온몸을 금포로 입었으므로, 이러한 모든 것과 밝은 햇살 아래 그의 아름답고 고운 얼굴이 어우러져(그 날은 유난히 맑고 화창하였으므로), 왕자의 청년은 눈부신 광채를 발하여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특별한 영광의 별이 그의 몸속에 땅 위에 머무는 듯하였다.

이와 같이 젊은 가레스는 그의 삼촌이신 왕의 궁궐을 향해 길을 떠났더라.

그날 저녁, 그와 그의 일행은 숲 속의 한 빈터에서 밤을 쉬었으며, 이때 시종들은 그를 위해 자색 비단의 천막을 쳤노라. 이 천막 주변에는 그와 함께 여정에 동행한 세 영주와 그들의 시종들을 위한 다른 천막들이 세워졌더라.

그 밤, 가레스는 홀로 그의 천막에서 묵었노라. 다만 그의 난쟁이, 아락사탈레스가 문 곁에 누워 있을 뿐이었느니라. 그리고 일이 이렇게 일어났으니, 가레스는 그 밤 잠들지 못하여 어둠을 응시하며 많은 생각에 잠겨 있더라.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장엄하게 국왕의 궁정으로 나아가 그의 특별한 총애를 얻으려 하는가? 보라! 나는 이 왕가의 위용이 아닌, 다른 출생과 교양을 지닌 소년들과 같이 나아가는 것이 나으리라. 내가 만약, 사람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가치 있는 자라면, 나의 가치는 내가 행하는 일들로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이요, 내가 행차하는 위용 때문이 아니니라."

이때 가레스는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며 이르되, "나는 왕자로서 위엄을 떨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여행자로서 나의 숙부이신 아서왕의 궁정으로 가리라."

이때 아직 새벽이 밝기 전, 그는 매우 조용히 일어나 어둠 속에서 잠자던 난쟁이 곁으로 다가가, 아락사탈레스의 어깨를 툭 치며 이르되, "아락사탈레스, 깨어나라." 하매, 난쟁이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어스

름한 새벽빛에 주위를 두리번거렸으나, 아직 뇌리를 감돌던 잠결의 안개에 혼란스러워하더라.

이에 가레스가 여전히 속삭이듯 말하되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그러나 소음을 일으켜 우리 주변에 누워 있는 자들을 깨우지 말라" 하니 아락사탈레스가 이르되 "나리, 내가 듣겠사오니 침묵하리이다" 하였더라

그때 가레스가 이르되, "아락사탈레스여, 일어나 내게 평범한 녹색 천으로 된 옷가지를 가져다주라. 그리고 내가 그 옷을 입도록 도와주게. 그 후 너와 나는 수행원 하나 없이 홀로 아서왕의 궁전으로 나아가리라. 나는 왕의 앞에 공자의 후손으로서 태어난 운명에 기대어 그의 총애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 오직 평범한 차림으로 나아가고 싶기 때문이라. 내가 얻게 될 모든 행운이 태어난 운명이 아닌, 나의 스스로의 노력과 결단으로 얻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니라."

이에 아락사탈레스는 크게 근심하며 이르되, "나리, 행동을 삼가 깊이 생각하소서. 보소서, 모후이신 여왕께서 이미 이 호위대를 나리께 마련해 두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그녀가 정하신 이들을 버리고 떠나시려 하신다면, 여왕께서는 크게 노하실지 모릅니다."

"무관하노라," 가레스가 이르되, "그 일은 어찌 되든 상관없노라. 다만 내가 명하는 바를 행하고, 즉시, 매우 조용히 나아가 내 명령을 수행하라. 그리고 그대의 왕래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우리 둘이 이 곳을 비밀리에 떠나려 함이니, 우리들의 떠남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각주: 가레스 경이 동료들을 피하여 달아나니라.〉

이렇게 말한 가레스였으니, 아크사탈레스는 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음을 깨달았더라. 이에 난쟁이는 고요히 가레스의 명을 수행하러 나갔고, 곧이어 한 하인의 옷을 가지고 돌아왔으니, 그 옷은 평범한 녹색 천으로 만든 것이었더라. 가레스는 그 소박한 의복을 입고 몸을 가렸더라.

그리하여 가레스와 난쟁이는 천막을 나서 말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였더라. 그들은 두 마리의 말을 선택하여 안장을 얹고 고삐를 매었으니, 그 안장과 마구와 장식은 가장 하급의 하인들도 사용할 법한 평범한 가죽으로 된 것이었더라. 이 모든 과정에서 가레스를 모시던 이들 중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더라.

그리하여 가레스와 난쟁이는 그 곳을 떠나 말을 달렸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더라. 그들은 한참 동안이나 그 잠을 계속하였더라.

이때에 여섯 분의 영주들 중 셋이 가레스를 돌보던 자들이라. 그들이 잠에서 깨어 보니 가레스와 아크사탈레스가 자리에 없더라. 이에 그들은 큰 공포와 당혹감에 사로잡혔으니, 그가 어디로 갔는지, 어째서 떠났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특히 가레스의 어머니이신 왕후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였더라.

그때 그 영주들 중 수장이 이르되, “보라, 이 젊은 공자와 그의 난쟁이가 우리를 배신했도다. 그는 우리를 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으니,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크니의 궁정으로 돌아가려 하지 못하노라. 만약 그를 데리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가 떠나는 것을 방치한 죄로 반드시 우리를 벌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벌은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지 모를 일이라.”

이때 그 중 한 영주가 이르되, “영주여, 그 말씀이 지극히 참되니, 우리가 오크니의 궁정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빕니다. 차라리 왕과 왕후의 노여움이 미치지 못하리니, 다른 곳으로 피신합시다.”

그렇더라. 그 영주가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곧바로 그 곳을 떠나 오크니의 왕과 왕후도, 아서왕도 그들의 소식을 듣지 못할 왕국의 한 구석으로 향하였노라. 그곳에서 그들은 그 때와 그 후의 잠시 동안 머무르니라.

〈각주: 아서왕이 연회에 임하신 모습.〉

이때 아서왕은 킨케네톤 성에서 오순절 대축일을 기념하여 잔치를 열고 계셨다. 왕의 곁에는 왕실의 모든 고위 영주들과, 왕국 다른 곳으로 모험을 떠난 이들을 제외한 원탁의 기사들이 모두 앉아 있었다. 그들이 높은 상을 앞에 두고 앉아 있어, 홀은 악사들의 노래와 하프와 비올라의 선율에 섞인 큰 환성과 즐거운 소리로 가득 찼을 때, 한 사람이 왕이 계시는 곳으로 달려와 아뢰었다.

"폐하, 밖에 한 사내가 있사온데 폐하와 직접 마주하여 말씀 나누기를 원하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지 못하오니이다. 그 사내는 우리의 만류에 굴하지 않고, 오직 앞서 말한 그 요구만을 계속하고 있사옵니다."

이때 아서왕이 이르시되, "하! 그러하냐? 그는 과연 어떤 자인가? 그는 왕이요, 공이요, 고귀한 왕자이기에 그러한 요구를 하느냐?"

사신이 아뢰되, "폐하, 그는 그런 자가 아니라 다만 스무 살의 청년일 뿐이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장대하며 얼굴은 아름답고, 거만하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지니고 있사옵니다. 또한 그는 평범한 녹색 천으로 된 농부의 옷을 입고 있사오니, 그가 어찌하여 폐하와 면담을 요구하는지 저희는 도무지 알 수 없사옵니다."

아서왕이 물으시되, "그와 함께 수행하는 자는 있는가?"

사신이 아뢰되, "그와 함께한 수행자는 아무도 없사옵니다. 다만 한 명의 난쟁이가 뒤따를 뿐이옵니다."

왕이 이르시되 "선하도다. 이 오순절 잔치에 있어 내가 그 누구에게든 내게 말걸기를 금할 수 없노라. 그러니 그 자를 여기로 데려오라. 그가 어떠한 사내인지 보리라."

〈각주: 가레스가 왕 앞에 나아가니라.〉

이에 왕의 명을 받든 그 시종이 나가 곧 돌아와 가레스와 난쟁이 아크사탈레스를 데리고 왔더라. 가레스는 매우 당당하고 오만하게도 대

청을 걸어가니, 그를 바라보는 자들 모두 그의 키와 건장한 체격, 그리고 그 얼굴의 아름다움에 놀라워하며 탄식하였더라. 많은 이들이 이르되, “참으로 그는 초록빛 소박한 의복을 입었으나, 그 거동과 태도로 보아 결코 평범한 자가 아님을 알 수 있노라. 오히려 그는 어떤 귀공자의 아들이거나, 그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자로 보이느니라.”

그때 가레스 경은 모든 이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홀을 가로질러 걸어갔고, 마침내 아서왕 앞에 서서 그분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노라. 그는 두려움이나 경외감 없이 단호하게 왕을 응시하였으니, 이는 아서왕을 그렇게 직시할 수 있는 자가 드물었기 때문이라.

이때 집사장 케이 경이 왕좌 뒤에 서서, 젊은 가레스가 아서왕과 마주하여 당당히 서 있는 것을 보자, 그 젊은이의 태도에 크게 노하여 분을 참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대청에 앉아 있던 모든 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가레스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대왕의 앞에 이러한 당당함으로 서기를 감히 어찌하느냐? 너 같은 자는 이러한 위엄 앞에 서서 왕과 말을 나눌 자가 못되며, 오히려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숙여 그 엄숙한 임금의 앞을 경외해야 할 것이라.”

그때 가레스 경은 케이 경을 매우 차분히 바라보며 이르되, "너는 누구냐, 내게 이러한 말을 하느냐?" 하니, 그의 어조와 목소리에 담긴 오만함에 모두 놀라움에 잠겼다.

그때 아서왕은 또한 심히 놀라워하되, 한 청년이 평민처럼 차려입고서 어찌하여 왕실의 대귀족인 케이 경에게 이와 같이 담대히 말하리오. 그러므로 왕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알 수 없었노

라. 그 후 곧이어 왕이 이르시되, “아름다운 청년이여, 너는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 왕실의 대귀족인 케이 경에게, 나아가 우리 자신의 눈앞에서 이와 같이 담대히 말하는 너는 누구뇨?” 이에 가레스가 아뢰되, “폐하, 저는 먼 곳에서부터 이 곳까지 와서 폐하께 두 가지 청을 드리려 왔나이다.”

왕이 이르시되, "이때는 오순절 대축일이니, 내가 청하는 자에게 한 가지 청을 거절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만일 이 두 가지 청이 너의 신분에 합당하다면, 너희에게 주리라."

〈각주: 가레스가 자신의 청을 구하더라.〉

이에 가레스가 이르되 “폐하, 이것이 제가 청하는 첫 번째 은덕이니이다. 저는 기사 작위도, 궁정의 은총도 구하지 않나이다. 제가 청하는 바는 오직 폐하께서 저를 이 궁정에 일 년간 머무르게 허락하시고, 그 기간 동안 거처와 의복과 음식과 음료를 제공해 주시는 것뿐이니이다. 그러고 나서 일 년이 차면, 만약 제가 기다림에 인내심을 보였음을 증명한다면, 저는 두 번째 은덕을 청하리이다.”

이때 그 곳에 있던 많은 이들이 그 기이한 청년이 어떤 청을 올렸는지 듣게 되니, 그는 왕께 기사작위나 영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빵과 고기와 마실 것과 거처를 청할진대, 이에 여러 사람이 그 청의 성품에 대해 크게 웃었노라.

그러나 왕은 미소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고개를 아주 차분히 숙이며 이르시되, “아름다운 청년아, 이것이 지금 우리로부터 구할 네 청의 전

부라면, 너는 기꺼이 네 뜻대로 하리라." 하시며, "케이야, 이 청년이 이러한 일들에 있어 그의 소원을 이루게 하고, 이 날로부터 일 년 동안 거처와 의복과 음식과 마실 것을 갖추게 하라." 하시니라.

그때 케이 경은 가레스를 매우 경멸하는 눈초리로 내려다보며 이르되, "네 뜻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 동무여, 내가 너를 돼지 한 마리만큼이나 살찌울 때까지 먹이리라."

이에 케이 경이 이같이 말하거늘, 젊은 가레스가 그 말을 듣자 분노에 얼굴이 붉게 타올랐고 이마의 정맥은 줄기처럼 부르르 섰더라. 그러나 그는 자기의 노함을 다스려 평정심을 되찾고 곧이어 이르되, "영주여, 당신은 나의 말을 듣되 내 마음속에 품은 뜻을 알지 못하오. 그러므로 어찌하여 당신은 나의 뜻을 모른 채 나를 업신여기는가?"

이때 케이 경은 그 청년을 노려보며 이르되, "너는 네보다 나은 자들에게 지극히 무례하게 말하도다. 네 혀를 단속하지 않으면 네게 큰 화가 미치리라."

이때 케이 경이 이같이 말하였으나, 가레스는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오히려 그는 몸을 돌려 아서왕께 깊이 절하며, 마치 케이 경이 한 말을 듣지 못한 양 행하였노라.

그리하여 그는 왕의 곁을 떠나며, 난쟁이 아크사탈레스가 그 뒤를 바짝 따라오도록 하였다.

〈각주: 가웨인 경은 가레스를 사랑하였노라.〉

이때 가웨인 경은 왕의 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있었으므로, 일어난 모든 일을 모두 들었노라. 그는 가레스 경이 케이 경에게 보인 분개한 모습을 목격하였고, 가웨인 경의 마음은 그 고고하고 아름다운 청년에게로 강렬하게 끌려갔노라. 비록 그가 왜 그에게 사랑을 느끼는지 알지 못하였고, 또한 가레스가 자신의 친형제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에게로 향하였더라.

그리하여 가레스가 그러한 방식으로 왕의 앞에서 물러난 후, 가웨인 경은 일어나 그를 뒤따랐노라. 그가 가레스에게 다다라 그의 팔을 가볍게 두드리며 이르되, "아름다운 청년이여, 나와 함께 가라," 하니라. 가레스는 이에 따랐노라.

그리하여 가웨인 경은 가레스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였고, 그들이 그곳에 이르자 가웨인 경은 그에게 이르되, "아름다운 청년이여, 내가 묻노니, 당신은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찌하여 왕 폐하께 그러한 청을 올렸나이까?"

그때 가레스 경은 가웨인을 바라보았으며, 자신이 응시한 자가 자신의 형제임을 깨닫고 그를 지극히 사랑하게 되었노라. 그럼에도 그는 그 사랑을 억누르고 이르되, "영주여, 어찌하여 나를 그같이 묻소이까? 내가 입은 의복을 보시오. 내가 누구이며 나의 신분이 어떠한지 보지 못하시나이까? 내가 청한 은택에 관하여는 알라오. 내가 그것을 청한 것은 나를 가릴 지붕과, 내 생명을 유지할 양식과 음료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이에 가웨인 경은 그 청년의 대답에 담긴 자만과 거만함에 놀라, 이르되 "아름다운 청년이여,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알 수 없노라. 그러나 네가 왕께 그 은혜를 간구한 것이 음식과 음료, 그리고 숙소 때문만은 아니리라. 오히려 네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니라. 이제 내 마음은 너를 향하여 매우 특별한 사랑으로 기울어지나니, 내가 너를 내 은총에 받아 내 여관에서 가까이 머물게 하려 하노라" 하니, 가레스가 형에게 이르되 "형님, 저에게 지극히 자비로우시니이다" 하더라.

〈각주: 가웨인 경은 가레스에게 기사로서의 기량을 연마하게 하더라.〉

그 후 가웨인 경은 가레스를 자신의 총애하는 자로 삼아 그 청년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노라. 가레스는 가웨인 경의 곁에 머물며 무예를 익혔고, 가웨인 경은 그에게 무기의 다루는 법을 가르쳤노라. 가웨인 경은 늘 이 청년이 기사의 도리와 기사술을 이처럼 빠르고도 훌륭하게 습득하는 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노라. 가웨인 경은 알지 못하였으니, 가레스가 이미 이러한 것들의 많은 부분을 배우기도 하였고, 또한 그가 왕족과 기사의 피를 이어받았기에 자연스레 타고난 재능으로 그것들이 쉽게 그의 것이 되었음을 말이라.

〈각주: 케이 경은 가레스를 업신여기니라.〉

가웨인 경이 가레스에게 자애를 베풀 때마다, 케이 경은 그를 더 깊이 경멸하더라. 그러므로 일이 이렇게 되어, 케이 경이 가레스를 마주

칠 때마다 그는 그 자리에 있던 자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말을 던지곤 했노라.

"보라! 이 자를 보라! 그는 바로 우리 부엌의 하찮은 종놈이니라. 그는 그 어떤 더 높은 은총을 왕폐하께 청할 기개조차 없었노라. 다만 부엌에서 기름진 국물을 마실 수 있는 허락만 구했을 뿐이로다."

그리하여 케이 경은 가레스를 늘 '부엌의 하찮은 종놈'이라 불렀고, 그렇게 부르며 그는 또 말하곤 했노라.

"이놈아, 내 다른 쪽으로 물러서거라. 바람이 나를 향하여 불어오니, 너의 부엌 냄새가 심히 역겹도다."

또 케이 경은 가레스의 손이 부드럽고 매우 희다는 것을 눈치챈 후, 그 청년을 '보우먼스(Beaumains)'라 이름 지었노라. 이르되, "이 부엌의 하찮은 종놈을 보라. 그의 손이 얼마나 살찐지, 또 얼마나 흰지 보라. 이는 게으르고 한가로운 생활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니라."

이리하여 가레스는 왕의 궁정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보우먼스'라 불리며 알려졌노라.

그러나 케이 경의 이 말을 들은 가웨인 경은 퍼시벌 경이 한때 케이 경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욕을 당했던 일을 기억해 내었다. 이에 가웨인 경이 이르되, "형제여, 그치고 이 청년을 괴롭히지 말라.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불행이 닥칠지니라. 네가 한때 청년 시절의 퍼시벌을 천하게 여겼고, 그가 네게 일격을 가하여 목골이 거의 부러질 뻔했던 일을 기억하라."

이때 케이 경은 가웨인을 향하여 매우 찌푸린 얼굴로 이르되, “이 보우먼스는 젊은 시절의 퍼시벌 경과 같지 않도다.” 하니, 가웨인이 웃으며 이르되, “그러나 어찌하든 너는 제때에 경계하라.”

* * * * *

이렇게 가레스는 일 년 동안 아서왕의 궁전에서 지내며 게으름의 고기를 먹었노라. 많은 이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였으니, 그들이 그의 신분이 어떠하며 어떤 가문의 자손인지 알았더라면 그를 공경하고 존중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라. 그러나 가레스는 항상 인내로 자신을 다스리며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고, 자신이 어떻게 대우받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노라.

이제 젊은 가레스가 어떻게 그의 명예와 기사작위를 얻었는지 듣고자 한다면, 이어지는 글을 읽으라. 거기에는 그 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노라.

[일러스트레이션: 낭자 린넷]

[일러스트레이션]

제2장

가레스 경이 린넷이라는 한 처녀와 함께 모험에 나서던 일, 그가 케이 경과 싸우던 일, 그리고 랜슬롯 경이 그를 기사로 임명하던 일을 서술하노라. 또한 이 장에서는 ‘보우먼스’라 불리던 가레스가 이 무렵 겪은 여러 가지 사건들도 함께 전하노라.

이와 같이 예언된 대로 일 년이 흘러갔고, 가레스는 아서왕의 가문에 머물며 원하는 대로 음식과 음료를 얻어 먹었노라. 그러나 그 동안 가레스는 항상 별도의 작은 탁자에서 식사하였으니, 이는 케이 경이 그를 왕의 궁정에 있는 귀족들과 기사들, 그리고 부인들 같은 고귀한 이들과 같은 식탁에 앉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케이 경은 항상 "이 부엌의 하찮은 놈이 고귀한 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는 안 되며, 홀로 옆의 작은 탁자에서 먹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라. 이에 가레스는 홀로 있는 작은 탁자에서 식사를 하였고, 케이 경이 조롱 섞인 농담으로 가레스를 "보우먼스(Beaumains)"라 부르는 바람에 궁정의 모든 이들도 그를 "보우먼스"라 불렀노라.

〈각주: 아서왕이 다시 연회에 앉으시니라.〉

그해 말, 오순절 축제가 다시 찾아왔을 때, 아서왕은 카를레온어폰어스크에서 그의 궁정을 열고 계셨노라. 그 높은 오순절의 날, 왕의 식탁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궁정의 영주들과 부인들, 그리고 다른 모험을 위해 떠나지 않은 원탁의 모든 기사들이 앉아 있었더라.

〈각주: 한 낭자가 왕 앞에 나타나니라.〉

그들이 이렇게 앉아 먹고 마시던 차에, 홀 안으로 열여섯 살이 채 안 되어 보이는 가는 체구의 처녀 한 명이 들어왔노라. 그 처녀는 지극히 아름다웠으니, 그녀의 머리카락은 흑단처럼 까맣고, 부드럽고 빛나는 곱디고운 검은 실타래와 같았으며, 그 눈은 흑옥처럼 까맣고 매우 밝고 빛나며, 그 얼굴은 상아처럼 맑고 희며, 그 입술은 산호처럼 붉었노라.

그녀는 불꽃빛 새틴으로 된 옷을 모두 입었으며, 그 옷에는 금실이 수놓아졌고, 그녀의 이마에는 빛나는 금으로 만든 화려한 화관이 쓰여 있었노라. 그러므로 그녀의 불꽃빛 의복과 빛나는 금의 수놓음과 장식품이 어우러져, 그 처녀는 홀 안을 지나갈 때 마치 아름다움의 불꽃 같은 환상과도 같았노라. 이로 인해 모든 이들이 그녀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고, 더 잘 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서 있는 자들도 많았노라.

〈각주: 낭자가 기사를 청하더라.〉

이때 처녀가 대청을 올라와 잔치 머리맡에 앉으신 아서왕께 이르렀고, 그곳에 다다르자 그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손바닥을 맞대었다. 아서왕께서 그녀를 바라보시며 그 아름다움에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처녀야, 너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 처녀가 이르되, "폐하, 제 자매를 대신하여 옹호할 만한 폐하의 궁정의 기사가 한 명 필요하오니 그 분의 도움을 구하옵나이다." 아서왕께서 이르시되, "너의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처녀가 이르되, "주여, 제 자매가 매우 악한 성품의 기사에게 시달리고 있사오니, 그 기사가 그녀를 아내로 요구하나이다. 그러나 제 자매는 이 기사를 미워하며 그와 아무런 관계를 맺기를 원치 않나이다. 그러므로 그 기사는 그녀의 성문 앞에 항상 앉아 있다가 이곳을 지나는 자를 누구이든 가리지 않고 도전하며, 그의 허락이 없이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나 성 밖으로 나오는 자를 누구도 용납하지 않나이다. 이제 저는 제 자매를 대신하여 이곳에 왔사오니, 그녀를 이 억압에서 해방시켜 줄 기사를 구하러 왔나이다."

이때 왕이 이르시되 “너의 자매는 누구요, 또 그녀를 괴롭히는 이 기사는 누구냐?” 하시니, 처녀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의 자매의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사오니, 그녀는 지극히 교만하고 거만하여, 그 기사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매우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니이다. 다만 그녀를 괴롭히는 그 기사에 관하여는, 그가 ‘붉은 땅의 붉은 기사’라 불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사오니이다.”

이에 아서왕이 이르시되 “나는 그런 이름의 기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 근처에 그를 아는 자가 있는가?”

가웨인이 대답하되 “주군, 나는 그를 잘 아나이다. 한때 전투에서 그를 만나, 내가 그와 맞서 싸울 때 그토록 치열한 고난이 따랐기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보다 낫던지 그가 나보다 낫던지 정확히 알지 못하오이다.”

이에 아서왕이 이르시되 “아름다운 낭자여, 가웨인이 이와 같이 말하니 그 기사는 분명히 매우 강하고 힘센 자로다. 그러나 네 자매의 이 사건에 관하여, 네가 그 자매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명성을 떨치는 기사 중 그대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부인을 위해 싸우려 할 자가 있을 리 없지 않은가? 네가 네 자매의 이름을 말하고 그 신분을 밝힌다면, 이 궁정의 훌륭한 기사들 중 그대의 사정을 기꺼이 변호해 줄 자가 많을 것이라 의심치 않노라.”

이때 아서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처녀는 다만 고개를 저으며 이르되, "폐하, 저는 제 자매의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나이다. 금지되었사오니."

이에 왕께서 이르시되, “그것은 슬프도다. 그런 연고로 너는 그 경우에서 쉽게 대결자를 찾지 못할 것 같구나.” 하고 또 이르시되, “낭자여,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폐하, 제 이름은 린넷입니다.” 하니 왕께서 이르시되, “좋은 이름이로다. 너는 또한 얼굴이 매우 아름답구나.” 하시니라.

이때 왕께서 둘러보시며 이르시되, “이 공회에서 이 아름다운 부인을 위해 이 모험을 맡아줄 기사가 없느냐? 비록 그녀가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이다.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그는 나의 자유로운 뜻과 승인을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같이 왕께서 말씀하시되, 아무도 즉시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토록 강건한 기사와 다투려 하는 자가 없었음이라. 그 다툼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노라.

이때 모든 사람이 보우먼스라 부르던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 마련된 작은 식탁에 앉아, 일어나는 모든 일을 듣고 있었다. 또한 아무도 일어나 그 모험을 맡으려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심히 분개하였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낭자는 매우 아름다우며, 그녀의 자매의 사정은 매우 가혹하도다. 어찌하여 선량하고 명성이 높은 기사 중 아무도 이 모험을 맡으려 하지 않는지 의아하도다.”

그러나 아무도 그 알 수 없는 부인의 논쟁을 대신 맡으려 하지 않으니, 마침내 보우마인스 자신도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모두 앞에 나아가 아서왕 계신 곳으로 나아갔더라. 이때 그 낭자는 여전히 아서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더라.

〈각주: 가레스가 두 번째 청을 구하느니라.〉

이때 아서왕은 비오맨스가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며 이르시되, "비오맨스여, 너는 무엇을 구하는고?" 하니, 비오맨스가 아뢰되, "폐하, 제가 처음 이 궁궐에 왔을 때부터 이미 일 년이 지났사옵니다. 그때 제가 처음 폐하 앞에 섰을 때 두 가지 청을 올렸사오며, 그 중 하나는 폐하께서 이미 허락하시고 다른 하나는 허락하시리라 약속하셨사옵니다. 첫 번째 청에 따라, 저는 그 이후로 폐하의 지붕 아래서 거처하며, 폐하의 상에서 제가 원하는 만큼 음식과 음료를 받아왔사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다른 한 가지 청을 올릴 때가 되었나이다."

그때 아서왕은 매우 큰 의아함에 사로잡혔고, 이르시되 "말하라, 보먼스여. 네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 청은 반드시 관철되리라."

"폐하," 베아먼스가 이르되, "이것이 제가 청하고자 하는 호의입니다. 저는 그대의 허락을 구하오니, 제 이름조차 밝히지 않는 그 낭자를 대신하여 이 모험을 맡아 수행하게 하소서."

이때 왕의 곁에 앉아 있던 궁중 사람들이 부엌종이자 Beaumains라 불리우는 자가 왕에게 청한 호소가 무엇인지 듣자, 사방에서 큰 웃음소리가 일었다. 이는 Beaumains가 그 어떤 기사도 감당하려 하지 않는 그러한 과업을 스스로 맡으려 한다는 점이, 모든 이에게 지극히 유쾌한 농담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오직 아서왕만이 웃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위엄 있게 말씀하시되, "Beaumains, 너는 네가 무엇을 청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은 네 것이 되

리라. 네가 그 호소를 청하였고, 내가 나의 약속을 이미 내렸음으로, 내가 네가 청한 바를 거절할 수 없노라."

그때 케이 경이 앞으로 나서서 낭자에게 이르되, "아름다운 낭자여, 당신 댁의 자매를 옹호할 시합자를 자청하는 이 동무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니, 린넷이 이르되, "아니오, 알지 못하옵니다. 그러나 부디 그이가 누구인지 저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그리하겠사옵니다." 케이 경이 이르되, "이 자는 부엌 하인이라. 일년 전 그가 이 성으로 와서 왕께 한가지 청을 올렸노라. 곧 음식과 술, 그리고 거처를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노라. 그 후로 그는 내가 따로 마련해 둔 상에서 매일 풍족히 먹었노라. 그러므로 그는 살이 찌고 교만해졌으며, 마음은 높고 거만하여, 자신이 이제 그대가 청한 바와 같은 모험을 감당할 만한 명장(名將)이라 여기는 모양이로다."

〈각주: 처녀 린넷이 노여워하더라.〉

이때 케이 경이 이같이 말하거늘, 린넷이라는 낭자가 그의 말을 듣고는 얼굴이 불타오르듯 새빨갛게 익어, 아서왕을 향하여 돌아서며 이르되, "폐하, 폐하께서 저와 제 자매에게 이같이 치욕과 모욕을 안기시려 하옵니까? 저는 제 자매를 그 억압자로부터 구원해 줄 기사를 구하여 이리로 왔거늘, 대신에 기사가 아니라 부엌 하인을 그 임무에 보내시려 하나이까."

"부인," 아서왕이 매우 차분하게 이르시되, "이 보메인스가 내게 한 청원을 하였고, 나는 그 호의를 약속하였노라.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그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여야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일러두거니와, 나는 그가 겉으로 보이는 바와 매우 다를 것이라 믿노라. 그리고 내가 또 너에게 일러두거니와, 만약 그가 자신이 맡은 이 모험에서 실패한다면, 나는 너에게 더 기꺼이 받아들일 만한 다른 기사를 주리라."

그러나 린넷은 지극히 격분하여 아서왕의 말씀으로 달래어지지 아니하되, 왕의 위엄 앞에 그녀의 분함을 토로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 곳을 떠나되, 한쪽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쪽도 살피지 아니하며, 오직 정면을 응시한 채 그 홀을 나가니라.

그가 물러간 뒤, 가웨인 경이 나아가 왕 앞에 서서 이르되, "폐하, 이 모험으로 인해 이곳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사옵니다. 비메인은 케이 경이 공언하듯 그런 부엌지기 소년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는 전혀 다른 자이니이다. 케이 경 자신도 언젠가 이를 깨닫게 될지 모릅니다. 비메인은 일 년 동안 저와 함께 지내왔으며, 폐하께서 알지 못하는 많은 일을 저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간청하오니, 폐하께서 저로 하여금 이 임무에 적합한 갑옷을 준비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그가 언젠가 폐하와 저 모두에게 영광을 가져다줄 것이라 믿사옵니다. 폐하께는 이 은혜를 베푸심에, 저에게는 갑옷을 마련해 드림에 그리하리이다."

이에 아서왕이 가웨인 경에게 이르시되, "경이 말한 대로 하라."

〈각주: 가웨인 경이 보우먼스를 무장시키니라.〉

이에 가웨인 경은 베아먼스를 데리고 자신의 숙소로 향하여, 그 청년에게 갑옷을 갖추어 주었노라. 또한 방패와 검, 그리고 튼튼한 창을 마련해 주었으며, 훌륭한 말 한 필을 제공하였으니, 이는 방랑의 길을 떠나는 기사라면 누구나 타기를 원할 만한 말이었더라.

이렇게 모든 장비를 갖추게 된 베아먼스를 위해, 가웨인 경은 무사 안녕을 빌어주었고, 베아먼스는 말에 올라타 처녀 린넷을 따라 떠났노라. 또한 난쟁이 아크사탈레스는 그의 시종으로서 회색 노새를 타고 베아먼스와 함께 동행하였더라.

이 모든 일, 곧 보우마인의 갑옷을 입히고 말을 태우는 일이 다 끝났을 때, 린넷은 이미 그 길을 많이 달려서, 보우마인과 아크사탈레스가 그녀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두 리그 이상을 달려야만 했다.

〈각주: 리네트가 보먼스를 경멸하더라.〉

그들이 그녀를 따라잡았을 때, 그녀는 이미 일찍이 보았던 그 기형적인 난쟁이가 그녀의 임명된 시합자인 부엌 하인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고 전보다 더 격분하였다. 이에 보우메인스가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소리 질러 외쳤다. “너는 부엌 하인인 보우메인스냐?” 그러자 가레스가 대답하였다. “그렇소. 그들이 보우메인스라 부르는 자요.” 이에 그녀가 그에게 향하여 소리 질러 외쳤노라. “네가 온 곳으로 돌아가라. 나는 너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격분한 꾸지람에 베아먼스는 매우 온화하면서도 위엄 있는 어조로 응답하더라. “부인, 왕께서 저를 이 모험에 동행하도록 명하셨사오니, 그러므로 저와 함께 행해야 할 것은 제가 명을 받은 대로 할 수밖에 없나이다. 이미 이 일에 몸을 맡겼사오니, 비록 부인이 다른 명령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저는 반드시 봉공해야 하옵니다.”

“좋소,” 그녀가 이르되, “네가 내 명을 따르지 않겠다면, 이제 내가 일러두노니. 나는 곧장 너를 생각지도 못한 위험으로 이끌 길로 들어설 것이요, 거기서 네가 목숨을 부지하고 빠져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으리라.”

이에 Beaumains는 여전히 매우 평온하고 큰 예의를 갖추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더라. “부인, 이는 전적으로 부인이 정하시는 바에 따르리다. 내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부인이 나를 어떠한 위험에 처하게 하시든, 나는 반드시 부인을 무사히 데리고 나와 부인과 부인의 누이께 봉공할 수 있으리라 믿노라. 그러므로 부인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곳을 따라가겠나이다.”

그때 린넷은 자기가 이렇게 성내어 무례하게 굴고 있는데도 보아먼이 오히려 차분하고 정중하게 굴자 더욱 분하여, 그의 마음을 굳게 닫고 이르되, “너여, 내가 너를 물리칠 수 없거든, 길의 다른 쪽으로 가라. 너는 부엌에서 지내던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구나.”

이 말씀에 Beaumains는 위엄 있게 고개를 숙이며 이르되, “부인, 명하신 대로 하겠사옵니다.”라 하고는, 곧장 길 한쪽에서 그녀가 타고 있던 쪽의 반대편으로 말 고삐를 돌렸다. 이때 Lynette는 웃으며 이르

되, “나보다 조금 더 뒤에서 타오. 여전히 내게서 부엌 냄새가 나는 것 같구나.”라 하였다. 이에 Beaumains는 그녀의 명을 따랐고, 그녀로부터 더 멀리 물러나 타갔다.

* * * * *

〈각주: 케이 경은 비오먼스를 뒤따르니라.〉

이후 얼마 뒤, 앞서 전한 바와 같이 비우먼스가 리네트를 따라가던 차에, 케이 경은 자기 곁에 있던 이들에게 이르되, “나는 우리 부엌 하인을 따라가 그와 한판 붙어보려 하노라. 그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교훈을 일러주는 것이 매우 좋은 일이기 때문이니라.” 이에 케이 경은 그 말대로 행하여 여관에 돌아가 갑옷을 입었노라. 그는 튼튼하고 좋은 창을 하나 택하고, 말에 올라타 비우먼스를 뒤쫓아 갔으니, 그 뜻은 자신이 말한 바를 행하려 함이었더라.

그가 좋은 속도로 오랜 시간 달려가자, 이내 그가 멀리서 도로를 따라 가는 리네트와 비우먼스, 그리고 난쟁이를 보았노라. 이때 케이 경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서라, 비우먼스여. 너는 그곳으로 돌아서라. 내가 너를 쓰러뜨리러 왔고, 그 낭자를 너로부터 빼앗으려 함이니라.”

그때 린넷이 고개를 돌려 케이 경이 오시는 것을 보았고, 즉시 그를 가리키며 이르되 “보라, 네 부엌종놈아, 저기 너를 쫓아오는 참된 기사가 오노라. 이제 네가 해를 입기 전에 도망치는 것이 옳으리라.” 하니라.

그러나 이 호소에 베이먼스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말을 돌려 곧장 방어 태세를 갖추었노라. 그리고 케이 경이 가까이 다가가매, 베이먼스는 그의 방패에 새겨진 문장을 보고 그곳으로 향하는 그 기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며 멈추라고 부르짖는 자가 바로 케이 경임을 알았노라.

이때 비우마인스는 지난 일 년 동안 케이 경이 자신에게 자행한 수많은 모욕들을 모두 떠올렸고, 그로 인해 그의 분노는 치솟았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다. "참으로 잘 만났도다. 이제 나의 때가 왔다. 오늘이 바로 나의 원한을 풀 날이 되거나, 아니면 이 길가에 나의 시신을 누일 날이 될 것이다."

그때 케이 경이 가까이 다가와, 보우먼스가 자신을 준비한 것을 보고는 곧장 전투에 대비하였다. 이에 린넷은 그녀의 발리트를 길 한쪽 구석으로 돌려, 일어나게 될 모든 일을 지켜볼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셨더라.

〈각주: 케이 경이 보먼스와 결투함.〉

이에 베아먼스와 케이 경이 모든 준비를 갖추자, 둘 다 큰 소리를 지르며 맹렬히 돌진하여 공격을 개시하더라. 그들은 그 길목 한가운데서 서로 부딪쳤고, 그 충돌 속에서 케이 경의 창은 굳건히 버텼고, 베아먼스의 창은 조준이 그리 정확하지 않았던지라 여러 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났노라. 그리하여 그는 가웨인 경이 지난 일 년 동안 그에게 가르쳐 준 기마술의 기교가 아니었더라면 그대로 낙마하고 말았으리라.

그러나 린넷은 보아매인의 창이 그와 같이 부러지고, 그 격투에서 말에서 떨어질 뻔한 것을 보고, 매우 높고 날카롭게 웃었다. 그리고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다. “하! 너 부엌 종놈아, 만약 네가 그보다 더 나은 솜씨를 보이지 않는다면, 네가 감행한 이 모험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구나.”

이때 베아먼스는 린넷트의 높은 웃음소리와 그녀가 자신에게 내던진 말들을 듣자, 그 어느 때보다도 격분하였다. 이에 그는 이를 갈며 손에 쥐고 있던 창꼬챙이를 던져버리고, 칼을 뽑아 케이 경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려들었다. 그는 거친 기세로 케이 경의 방어를 물리치고, 등자에 몸을 일으켜 일격을 가하니, 그 타격은 번개처럼 케이 경의 투구에 떨어졌다. 이 한 방에 베아먼스는 일 년 동안 케이 경에게서 겪었던 모욕과 분노를 모두 쏟아냈고, 또한 자신을 모욕했던 처녀 린넷트에게 품었던 모든 노여움을 함께 발산하였다.

〈각주: 보우먼스가 케이 경을 쓰러뜨리니라.〉

그가 가한 일격은 그토록 사나우며 두려울 따름이라, 온 세상의 그 어느 기사가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으리라 믿기 어렵거니와, 하물며 케이 경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랴. 그 일격을 맞는 순간, 케이 경의 오감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의 시야에는 굉음과 함께 어둠이 덮쳤으며, 그는 말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쓰러져 마치 죽은 자처럼 누웠더라. 그때 비오메인스는 그 위에 서서 매우 냉혹하게 미소 짓더니, 이르되, "자, 케이 경이여, 부엌 종놈이 내린 이 일격은 어떠뇨?" 하였으나, 케

이 경은 짐작하거니와, 그에게 단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같이 말한 후, 보우먼스는 말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는 난쟁이 아크사탈레스를 불러 이르시되, “아크사탈레여, 너는 노새에서 내려서 저 수풀에 매어라. 그리고 이 기사의 말을 가져다가 그 위에 타라.” 이에 아크사탈레스는 그의 주군의 명을 따랐노라.

보우먼스는 여전히 기절하여 쓰러져 있던 케이 경에게 나아가 이르시되, “기사여, 내가 이제 내 창을 지니지 못하였사오니, 당신의 창을 빌려주시오.” 이에 그는 케이 경의 창을 손에 들었노라. 그리고 그는 케이 경의 방패를 가져다가, 아크사탈레스에게 준 케이 경의 말 안장의 고리에 걸어 매었노라. 그 후 보우먼스는 그의 말을 타서 그 자리를 떠나 가시니, 케이 경은 길 한복판에 그대로 누운 채로 남았노라.

린넷도 말을 몰아 떠났으나, 보메인스는 언제나 그 뒤를 침묵으로 따랐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때 말을 몰다가, 마침내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그 낭자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녀는 보메인스를 돌아보며 이르되, “너 이놈아, 너는 부엌의 하찮은 종놈이로다. 너는 스스로 자부함을 느끼느냐?” 하니 보메인스가 이르되, “아니오, 부인이여.” 하니 그녀가 이르되, “너는 스스로 자부함을 취하지 않도록 하라. 이는 너는 다만 네 젊음과 힘의 힘으로 그 기사를 물리쳤을 뿐이며, 그는 너의 창을 부수고 그의 더 큰 숙달함 때문에 너를 안장에서 거의 떨어뜨렸기 때문이라.”

이에 보우먼스는 머리를 숙이며 이르되, “부인, 그 말씀이 옳사옵니다.”

그때 린넷은 다시금 웃으며 이르되, “놈아, 너는 자신을 잊고 지나치게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제 나는 너에게 더 멀리 가라 명하노니, 그리하여 내가 부엌 냄새를 맡지 않도록 하라.”

보우먼스가 대답하되, “부인의 명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하고는 말의 고삐를 당겨 조금 더 먼 곳으로 물러나니라.

* * * * *

이때에 케이 경에 대하여 말하노라. 비우마인스가 떠난 지 얼마 후, 케이 경이 몸을 가다듬고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곧이어 그가 기억해 내니, 그는 부엌 종자 비우마인스의 손에 큰 수치와 굴욕을 당하였음을 알았노라. 그리고 그는 그 격투에서 자신의 방패와 창, 그리고 말을 모두 잃었음을 보았노라. 이제 그가 탈 것이란, 비우마인스의 난쟁이가 타고 있던 그 가련한 회색 노새 외에는 남아 있지 않더라.

〈각주: 케이 경은 부끄러움에 겨워 궁정으로 돌아왔노라.〉

그때 케이 경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다만 그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그 노새에 올라타야 할 뿐이었다. 이에 그는 그대로 행하여 왕의 궁정에 이르렀을 때, 그의 이 모험을 두고는 그러한 웃음과 농담이 끊이지 않아, 그 후 일주일 동안 그는 궁정에서 목소리를 높여 말하거나 얼굴을 들어 올리기조차 두려워하더라. 그러나 가웨인 경은 케

이 경이 겪은 이 불행에 대해 말도, 농담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매우 엄숙하게 미소하며 이르되, “경이여, 내가 경에게 하였던 말을 경이 잘 들었더라면 더 좋았으리라,” 하니, 케이 경은 평소라면 충분히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냈을지라도, 가웨인 경에게 대답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더라.

* * * * *

이제 우리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비우먼스와 리네트가 그들의 길을 계속하여 나아가는 그들을 다시 보게 되리라.

〈각주: _그들이 흰 갑옷을 입은 기사를 발견하다._〉

린넷의 마지막 말 이후, 그들은 침묵을 지키며 길을 계속했다. 린넷은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며, 이 곳에서 한 리 이내의 공간에 비메인스라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체했다. 그렇게 여행하여, 오후의 기울어짐에 가까워질 무렵, 그들은 숲 가장자리 근처에 다다랐다. 그곳은 숲의 나무들로 둘러싸인 한쪽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평하고 매끄러운 초원이었다.

그들 앞에 한 기사가 나타나는데, 그는 방금 숲에서 나와서였다. 그는 온몸을 흰 갑옷으로 두르고 있었고, 흰 말 위에 타고 있었다. 이때 해는 비스듬히 빛나고 있어, 그 빛은 순금과도 같이 매우 붉었다. 햇빛의 광선은 숲의 가장자리에 떨어졌고, 숲의 두꺼운 잎사귀들은 모두 그 황금빛에 적셔졌다. 같은 빛이 기사의 광택 나는 갑옷에 반사되어, 여기저기서 매우 영광스럽게 빛났다. 마치 하늘에서 특별한 광채를 지닌

여러 별들이 떨어져서, 그 외로운 기사에게 걸린 듯했다. 그는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말을 멈추고, 그들의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며 앉아 있었다.

그때 린넷이 베아먼스를 돌아보며 이르되, “이 부엌 종놈아, 잘 보라! 저기 너와 상대하기란 쉽지 않을 진정한 기사가 있노라. 지금이라도 되돌아가거라.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렇지 않으면 그의 손에 해를 입을지니라.”

이때 비움인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매우 차분히 전진하여, 거의 가까이 다다르자 그 홀로 선 기사를 향해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일렀노라.

“기사여, 내가 당신과 결투를 청하노라.”

이때 앞서 말한 그 기사는 심히 놀라 일러 가로되 “경이여, 내가 어찌 감히 경께 죄를 지었사오며, 경이 어찌 그리 단도직입적으로 내게 전투를 청구하시나이까? 기꺼이 경의 뜻대로 하려니와, 이 때에 한 기사가 다른 기사에게 마땅히 갖추어야 할 예의가 있음을 아시옵소서” 하더라.

이때 비아먼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의 말을 돌려 잠시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 그 곧 닥칠 싸움에 몸을 준비하였노라. 당시 그의 마음은 린넷의 조롱에 분노로 가득 차 있어 말로써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었으며, 진실로 나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라 믿노라.

그사이 백기사 또한 전열을 갖추어 전쟁에 임하였다.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자, 그들은 서로를 향해 곧장 돌진하였으니, 그 위세가 격렬하여 그들의 기마가 내리찍는 땅은 진동하고 흔들렸더라.

그때 두 사람은 경기장 한가운데서 거대한 굉음과 함께 충돌하더라. 그 격렬한 부딪힘에 비우마인의 창은 수많은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졌고, 그는 안장에서 튕겨져 나와 거친 힘으로 땅바닥에 던져졌노라. 그 낙하의 충격이 너무도 세어, 그는 잠시 동안 기절하다시피 하여 감각을 잃었더라.

그때 린넷이 너무 높고도 날카롭게 웃어대어, 비우스는 비록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음에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에 그의 기운이 다시 돌아오자, 그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디디고 검을 뽑아 들었다. 그리고 백마의 기사에게 외쳤다.

"기사여, 말에서 내려와 나와 도보로 싸우시오. 내가 당한 이 불행한 일이 결코 나를 만족시킬 수 없사오니."

그때 흰 갑옷을 입은 기사가 이르되, "영주여, 어찌 된 일이오? 당신과 저 사이에는 그러한 전장의 이유가 없소." 그러나 이에 더하여 보메인스는 큰 열정으로 외쳐 대꾸하되, "내리옵소서, 기사여, 내리사 저와 함께 도보로 싸우소서."

"좋소," 백마 탄 기사가 이르되, "네가 그리 원하거든, 그리 하리라."

〈각주: 보우먼스가 백기사와의 결투를 벌이다.〉

이에 그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검을 뽑아 들었고, 곧장 방패를 앞에 세우고는 비오마인을 공격하러 나아갔다. 그와 동시에 두 사람은 서로 격렬하게 내달리며 맞섰고, 이로써 격전이 시작되었노라.

그 싸움은 끝없이 계속되었는데, 각자는 여기저기로 기동하며 서로를 찌르고 베었다. 마치 격투를 벌이는 두 마리 사나운 황소와 같았으나, 끊임없이 서로에게 연거푸 일격을 퍼부었노라. 곧 두 사람의 갑옷에는 붉은 피가 여기저기 얼룩졌으니, 이는 각자가 이곳저곳에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오마인은 온 힘을 다해 싸웠으니, 그의 분노가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었노라. 그는 그 전투에서 항복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이었노라.

이들끼리 놀랄 만큼 맹렬하게 오랫동안 싸우다가, 마침내 백기사가 외쳤노라. “경이시여, 잠시 이 싸움을 멈추소서.” 이에 보우메인스는 내려치기를 그치고 검에 기대어 섰으며, 숨을 헐떡이며 서 있더라.

하얀 갑주의 용사 또한 그의 검에 기대어 숨을 헐떡이며, 곧이어 이르되 “경이시여, 내가 청하노니 당신의 이름을 내게 알려 주시오. 내가 당신에게 맹세하건대, 나는 오늘 당신이 치신 그 격렬한 싸움보다 더한 전투를 치른 기사는 결코 만나지 못하였노라. 비록 내가 이 왕국의 가장 뛰어난 기사들과도 여러 차례 맞서 싸웠음을 말하노라.”

“영주여,” 보우먼스가 이르되, “저는 지금 제 이름을 밝힐 수 없나이다. 그러지 아니할 여러 가지 좋은 까닭이 있사오며이다. 비록 제가 주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행할 수는 없사오나, 오히려 주께 간청하오니,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주의 이름과 신분을 저에게 밝히소서.”

"그렇구나," 하얀 갑주를 입은 기사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와 같은 예의를 거절한 적은 아직 없노라. 내가 호수의 랜슬롯 경이라 불린다는 것을 알라."

〈각주: 보먼스가 랜슬롯 경을 알아차리다.〉

이때 비오마인스는 백마 탄 기사가 한 말을 듣고, 자신이 그간 싸워 온 상대가 바로 랜슬롯 경임을 깨달았을 때, 큰 경외와 놀라움, 그리고 어딘지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혔노라. 이에 그는 곧장 검을 던져버리고 랜슬롯 경 앞에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모아 빌었노라.

"영주여, 제가 어찌 감히 당신과 싸웠나이까. 차라리 친형제와 싸웠을지언정 당신과는 싸우지 않았을 것이옵니다. 영주께서 제가 가장 공경하고 존경하는 사람임을 아옵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옵나니, 영주여, 제가 이 전투에서 영주님의 눈에 들었사오니, 제가 간절히 청하는 한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하지 않고 오직 영주님께만 구하는 바이오니이다."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네가 구하는 은혜는 무엇인가? 청하라. 내가 너에게 베풀기에 마땅하다 하거든, 진실로 그것은 네 것이 되리라. 네가 행한 그 전투에 관하여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너보다 강하고 더 가치 있는 기사를 만난 적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은혜를 베푸는 기쁨을 얻게 하려니와, 네 청을 들어라."

이에 보우먼스는 이르되, "경이시여, 이 일을 아시옵나이까. 저는 아직 기사로 임명되지 아니하고, 다만 무예의 신사일 뿐이오이다. 그러

므로 만약 경께서 저를 그 영예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거든, 청컨대 지금 당장 경께서 친히 그 손으로 저를 기사로 임명하여 주시옵소서."

"경,"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내가 경의 이름과 경의 신분과 덕망을 알기 전에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노라. 무릇 기사는 다른 이를 기사로 서임하기 전에, 그 이가 어떤 무공을 쌓았든 간에, 먼저 그 이의 신분과 지위를 확실히 파악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느니라. 그러나 경이 내게 경의 이름과 신분을 알려준다면, 나는 경을 기사로 서임하기를 기꺼이 받으리라."

이에 베아먼스가 이르되, "영주여, 제 이름과 신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나, 만약 허락하신다면 귓가에 속삭이며 아뢰고자 하옵니다."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마음대로 말씀하시오. 당신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하시오."

이에 베아먼스가 입술을 랜슬롯 경의 귀에 대고 그의 이름과 신분을 알렸다. 또한 그는 최근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랜슬롯 경에게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랜슬롯 경은 들은 모든 것에 대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워하였다.

그리하여 베아먼스가 이 모든 것을 다 말한 뒤,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영주여, 당신이 제게 행한 그 위대한 전투를 생각할 때, 당신의 혈맥에 흐르는 피와 당신이 태어난 왕족의 혈통을 알기에 더 이상 놀랄 것이 없소. 당신을 기사로 만들기를 기꺼이 원하오니, 시간이 흐르면

당신은 당신의 형제들보다 기사도의 영광에서 더 뛰어날 것이라 믿기 때문이오. 그리하여 당신이 기사가 되게 한 것은 나에게 큰 영광이 될 것이오."

〈각주: 랜슬롯 경이 가레스 경을 기사로 임명하더라.〉

이때 랜슬롯 경이 검을 손에 쥐고, 보우맨스가 무릎을 꿇었다. 랜슬롯 경이 검날을 보우맨스의 어깨 위에 얹고, 이같이 검으로 그의 어깨를 치며 그를 기사로 서임하셨다. 그리고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레스 경이여!" 하니 가레스 경이 일어나 서서 서니,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넘쳐 흐르어, 그의 한 몸이 열 명의 힘을 가진 자처럼 느껴졌다.

이때 처녀 린넷은 멀리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노라. 먼 거리였으므로 한 기사가 다른 기사에게 한 말은 하나도 들을 수 없었거늘, 그들이 행한 일들을 보며 그녀는 지극히 큰 경외와 혼란에 빠졌노라.

그때 랜슬롯 경과 가레스 경이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다다르니, 그들이 가까이 이르러 오자 린넷이 랜슬롯 경에게 이르되,

"경이시여, 이 사람께서 누구이신지 아시나이까?"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그렇구나, 처녀야. 나는 그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노라."

린넷이 이르되,

“경이 그를 알지 못하리라고 믿사오니이다. 내가 단단히 확신하건대, 그는 아서왕 궁정의 부엌 종자라 하옵니다. 그는 내 뜻에 거슬러 여기까지 나를 따라왔사오며, 그가 입은 갑옷은 그가 마땅히 입어야 할 것이 아니라고 믿사오니이다. 내가 그를 쫓아내려 해도 그가 나를 떠나지 않나이다.”

이에 랜슬롯 경은 웃으며 이르시되, “낭자여,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평정하라, 가라앉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 스스로에 치욕을 가져올 것이니라.”

그때 린넷이 랜슬롯 경을 잠시 동안 진지하게 바라보다가, 마침내 이르되 “경, 저를 이렇게 책망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니, 이에 랜슬롯 경은 다시금 웃으며 이르시되 “낭자여, 내가 누구인지 네게 말하지는 않겠노라. 다만 너와 함께 있는 이 신실한 신사의 이름을 묻거든, 그가 나의 정체를 알려주리라.”

〈각주: 랜슬롯 경이 가레스 경을 떠남.〉

이에 랜슬롯 경은 가레스 경을 돌아보며 이르시되, “형제여, 여기서는 당신을 떠나야 하노라. 나의 할 일이 나를 다른 곳으로 부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가시오. 만약 당신이 저쪽 길로 나아가 그 길을 따라가면, 곧 아름다운 숲속의 수도원에 이를 것이니, 당신과 낭자께서는 밤을 지낼 숙소를 그곳에서 얻으실 수 있겠노라.”

이에 랜슬롯 경은 가레스 경과 낭자 리네트에게 겸손히 인사를 드리고는 떠났다. 그는 가고자 하던 곳으로 길을 재촉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야에서 사라졌더라.

그때 린넷과 가레스 경, 그리고 난쟁이도 그 길을 떠났노라. 랜슬롯 경이 말한 수도원으로 이르는 그 길을 따라 말이오. 그곳에서 그들은 밤을 지낼 곳을 구하였으니, 낭자는 한 곳에서, 가레스 경은 다른 곳에서 각각 숙소를 얻었노라.

* * * * *

이제 만일 너희가 가레스 경과 린넷, 그리고 그들에게 닥친 일들에 대해 더 듣고자 한다면, 더 읽기를 청하노라. 이러한 일들은 너희의 즐거움을 위해 마땅히 기록되었음이니라.

[일러스트레이션: 가레스 경이 강 여울의 기사와 전투를 벌이다.]

[일러스트레이션]

제삼장

그리고 가레스 경과 린넷이 그 길을 계속해 나아간 일, 가레스 경이 두 명의 강한 기사들을 물리치고 강가의 고개를 통과한 일, 그리고 그가 흑지의 흑기사를 정복한 일. 또한 그가 여섯 명의 도적들에게 억압당하던 한 선량하고 가치 있는 기사를 구해낸 일.

이제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매, 이슬이 맺히고 맑고 투명하여 수정과도 같은 광채를 띠었다. 린넷이 일어나 그 밤 묵었던 숲속 수도원을 떠났으나, 가레스 경에게 자신이 떠난다는 소식을 전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때는 새들이 온갖 힘과 정성을 다해 노래하는 때라, 사방에서 지저귀는 소리가 울려 퍼졌노라. 온 세상에 오월의 꽃이 만개하여, 사과 과수원은 꽃향기로 가득 차 있었고, 들판과 초원은 다채로운 색채의 예쁜 들꽃으로 빽빽이 덮여 있어, 보는 이의 눈을 매우 즐겁게 하였더라.

이리하여 린네트는 이슬 젖은 아침을 통째로 홀로 달렸노라. 수도원의 소유인 아름다운 초원과 과수원 사이를 지나, 사방으로 둘러싸인 평평하고 푸른 들판을 에워싼 어둡고 그늘진 숲의 띠를 향해 길을 재촉하였더라. 그녀는 매우 교묘히 뒤를 돌아보았으나, 자신을 따르는 자는 즉시 보이지 아니하였노라.

사실 가레스 경이 안식처에서 일어나 그 낭자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더라. 그가 일어나 보니 그녀가 떠나간 사실에 대해 그는 측량할 수 없는 분통을 터뜨렸노라. 이에 그는 서둘러 갑주를 입고 가능한 한 빨리 그녀를 뒤쫓아 갔으며, 앞서 언급된 아름답고 꽃이 만발한 초원을 말발굽이 터질 듯이 세차게 달렸노라. 그 뒤로는 작은 악사탈레즈가 케이 경의 전마를 타고 바짝 따라오고 있었더라.

〈각주: 가레스 경은 다시 린네트를 뒤쫓았노라.〉

이에 가레스 경은 속도를 높여 달려가며, 곧 그 낭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렸으니, 그때 그녀는 마침 숲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한층 더 빠르게 몰아붙여 곧 그녀를 따라잡았고, 이때 인사하며 이르되, "평안하기를, 부인이여!"라 하니, 이 인사말에 린넷은 놀란 듯 돌아보며 이르되, "하, 네가 여기 있구나, 부엌의 하찮은 놈아?"라 하거늘, 가레스 경이 이르되, "네, 부인이여."라 하니, 린넷이 이르되, "어젯밤 그 백기사께서 너를 먼지 속으로 굴려 떨어뜨리고, 이어 공정한 싸움으로 너를 때렸을 때, 내 생각에 너는 어젯밤 모험을 충분히 겪었으리라 여겼노라."라 하거늘, 가레스 경이 이르되, "부인이여, 부인께서는 저에게 쓴소리를 하십니다!"라 하니, 린넷이 웃으며 이르되, "원, 이 하인 놈아. 내가 쓴말을 하여도 네가 나를 뒤쫓는 것을 멈추지 못하니, 보아하니 내가 원치 않더라도 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겠구나."라 하고, 이어서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를 조금 더 멀리서 따라오라. 지금도 너의 몸에서는 부엌 냄새가 진하게 풍기니, 그 냄새가 아침의 향긋함을 망치고 있구나."라 하였더라.

이렇게 린넷이 말하매, 이에 가레스 경은 고삐를 당겨 조금 더 앞서 나갔고, 그가 어제 그랬던 것처럼 그 뒤를 멀리서 따랐다.

〈각주: 리네트가 가레스 경에게 강도 기사들에 대하여 말하더라.〉

그 후 두 사람은 상당한 거리를 침묵 속에 나아갔다. 그러다 잠시 후 린넷이 고개를 돌려 가레스 경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 사람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느냐?"

가레스 경이 대답하였다. “아니오, 부인. 저는 알지 못합니다.”

“슬프도다, 너에게,” 린넷이 말했다. “내가 너에게 일러주마. 이 길은 강가의 한 나루터로 이어지는데, 그 나루터는 두 형제이자 강인하고 힘센 기사들이 지키고 있노라. 이 두 기사에 관하여, 나는 어제 밤 수도원에서 들었노라. 그들은 매우 사나운 도적들이며, 강 나루터를 지나려 하는 자들 중 일부는 죽이고, 다른 자들은 약탈하거나, 몸값을 받기 위해 포로로 삼는다고 하더구나. 이제 나는 이 두 기사가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으니, 그들이 너를 제거해 줄 것이라 믿노라. 그러니 아직 시간이 있으니 경계하라. 이 모험에서 물러나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너에게 매우 큰 해가 닥칠지 모르노라.”

“부인,” 가레스 경이 이르되, “그 여울에 두 명 대신 스무 명의 기사들이 있더라도, 그 스무 명이 각각 두 명보다 열 배는 더 강하다 할지라도, 나는 이 모험의 끝까지 당신을 따르리라. 아마도 이 악한 두 기사를 세상에서 몰아내는 것이 내 행운이 되리라.”

그때 린넷이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이르되, “슬프도다, 내가 보기에 이 부엌 소년을 내게서 떼어놓으리라는 것은 그의 몸에서 오만이 모두 두들겨 빠져나갈 때까지는 결코 없으리라.” 그 후 그들은 그 때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길을 따라 나아갔더라.

해가 이미 오전의 한가운데로 높이 솟았을 때, 그들은 숲을 빠져나와 넓은 평야로 나왔다. 이때 가레스 경은 평야 한가운데를 흐르는 넓고 고운 강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길이 강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자갈이 깔린 얕은 건널목으로 강을 건너는 것을 보았다. 그리

고 그는 강 건너편에 높은 곳에 우뚝 서서 건널목을 내려다보는 높고 음산하며 매우 위압적인 성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이것이 린넷이 말한 두 기사가 지키고 있는 건널목일 것임을 알았다.

그들이 나루터에 가까워지자, 가레스 경은 길가에서 하나의 돌기둥을 보았노라. 그리고 그는 그 기둥에 거대한 황동 나팔이 단단히 사슬로 묶여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때 린넷이 그 나팔을 가리키며 이르되, "요리 하인 경이여, 저 나팔을 보느냐? 그 나팔을 불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만일 네가 불게 되면 이 나루터를 지키는 두 기사가 깨어나, 성에서 나와서 네게로 올 것이요, 그리되면 네게는 분명히 큰 화가 미칠 것이라" 하니라.

〈각주: 가레스 경이 강도 기사들에게 도전하더라.〉

이때 가레스 경이 이르되 "이러하오리까, 부인?" 하더라.

그리하여 그는 곧장 쇠사슬에 매달린 나팔이 걸린 곳으로 달려가, 양손으로 그것을 단단히 쥐고 힘껏 불었으니, 그 소리가 너무도 강렬하여 놋쇠로 된 나팔이 터질 듯하였다. 그 울림은 멀리 퍼져 나갔고, 멀리 떨어진 성벽으로부터 메아리쳐 돌아왔으니, 마치 그 땅에 최후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린 듯하였다.

이윽고 잠시 후, 성의 쇠창살문이 들어 올려지고 도개교가 내려졌다. 그리고 두 명의 기사가 매우 장대하고 건장한 체격으로, 외모는 매우 위압적이어서 나왔더라. 이 두 기사는 건널목으로 내려가다가, 그

들이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두 사람 중 더 큰 자가 물가 가장자리로 달려가서 가레스 경에게 외쳤다.

"너는 누구뇨? 감히 우리 나팔을 그토록 크게 부느냐?"

이에 가레스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경이여, 저는 이 나팔을 불어 제가 여기 있음을 알리고, 신께서 제 노력에 함께하시리니, 세상에서 그대들을 없애러 왔음을 알리노라."

그때 다른 강가에서 기다리던 기사는 격분하여 창을 던져 버리고 검을 뽑아 곧장 나루터의 물속으로 돌진하니, 물결이 천둥소리처럼 요란하게 일었다. 가레스 경 또한 창을 던져 버리고 검을 뽑아 큰 기세로 물가로 뛰어들었더라.

〈각주: 가레스 경이 강가의 기사를 격파하더라.〉

그들이 강 한가운데서 마주쳤다. 나루터의 기사가 가레스 경에게 맹렬하고도 가혹한 일격을 날렸다. 이 일격을 가레스 경은 큰 기량으로 막아내어, 자신에게는 아무 해를 입히지 않게 하였다.

그때 가레스 경이 몸을 높이 일으켜, 기사에게 또 한 번의 처참하고도 무서운 일격을 가하니, 그 타격에 기마는 흔들렸고 기사 자신은 낙마하지 않으려 안장 앞머리를 붙잡았다. 가레스 경이 또 한 번 타격을 가하자, 기사는 의식을 잃고 어둠 속으로 쓰러져 안장에서 떨어져 강물로 떨어졌다. 그가 떨어진 강물은 매우 깊었으므로, 그가 물속에 가라앉자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였다. 가레스 경이 그가 다시 떠오르기를 잠시 기다렸으나,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였더라.

〈각주: 가레스 경이 두 번째 기사를 쓰러뜨리니라.〉

이때 가레스 경은 자신이 이 적을 물리쳤음을 깨닫고, 말에 채찍을 가하며 강을 매우 격렬하게 건너 반대편 기슭으로 달려갔다. 강 건너편에 있던 기사는 창을 받쳐 들고 가레스 경을 향해 돌진하여 그의 몸을 관통하려 하였다. 그러나 가레스 경은 그의 접근을 미리 알아차렸고, 강기사의 창끝이 자신에게 다다르자 큰 기량과 지략으로 방패로 창끝을 튕겨냈다.

그리하여 가레스 경은 창길이만큼 말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다가, 충분히 가까이 다다른 순간 안장에서 몸을 일으켜 강기사를 향해 무서운 일격의 칼날을 휘둘렀다. 방패나 투구라 할지라도 그 일격을 견딜 수 없었으니, 가레스 경의 검이 기사의 방패를 가르고, 이어 투구를 뚫어 두개골 깊숙이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강기사는 안장에서 머리를 먼저 내던져 떨어지며 땅바닥에 생기도 움직임도 없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에 가레스 경은 안장에서 매우 가볍게 뛰어내려 달려가 자신이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려 하였다. 그는 기사의 투구를 벗겨내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으며, 이로써 자신의 일이 매우 잘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으니, 이미 쓰러진 기사는 혼을 내어놓는 순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가레스 경은 그의 칼을 닦아 다시 칼집에 꽂고, 말에 다시 올라타 매우 조용히 건너편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던 낭자에게로 되돌아갔다. 낭자는 가레스 경을 매우 기묘한 눈초리로 바라보았으나, 가레스 경은 그녀를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

이에 가레스 경은 린넷을 무사히 강을 건너게 한 뒤, 그들이 이전부터 해오던 대로 길을 재촉하였노라. 낭자가 앞서고, 가레스 경과 아크사탈레즈는 뒤따라 적당히 거리를 두고 행진하였더라.

〈각주: 리네트가 가레스 경을 조롱하다.〉

그들이 길게 말을 타고 가던 중, 낭자가 안장에서 몸을 돌려 가레스 경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이르되, "하하, 보우먼스, 네가 한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가?" 가레스 경이 이르되, "아니오, 부인. 그런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저주받기를 바랍니다." 린넷이 이르되, "네가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나는 멀리서 네 전투를 지켜보았으며, 네게 행운이 따랐음을 보았다. 그 두 기사 중 첫째는 말이 강물에 미끄러져 물에 빠져 익사했고, 두 번째 기사는 아직 방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네 칼에 맞아 죽었기 때문이다."

"부인," 가레스 경이 매우 평온한 어조로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바는 내가 행한 일의 처지를 조금도 바꾸지 못하노라. 이제 나의 임무는 다하였으니, 내가 그 일을 잘 행하였는지 아니면 나쁘게 행하였는지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겠노라."

"하!" 린네트가 이르되, "너는 부엌의 하인 노릇을 하는 자로서 매우 건방지게 말하는구나."

그러자 가레스 경은 여전히 매우 평온한 어조로 이르되,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부인?"

"그렇소," 린네트가 이르되, "나는 당신이 여전히 나의 명령을 잊고 있음을 보오. 당신이 너무 가까이 오셔서, 내가 부엌 냄새가 나는 것 같소. 이제 청하노니, 조금 더 멀리 떨어져 타시오."

가레스 경이 이르되, "낭자여, 당신이 명하신 대로 하겠사옵니다."

그리하여 그는 고삐를 당겨 조금 더 먼 거리를 두고 타자, 린네트는 그가 그처럼 순종하는 것을 보고 웃었다.

이때 낮의 한참 무렵, 그들은 꽤 넓은 초원지대에 다다랐는데, 그곳에는 아주 오래되어 굵고 굽어진 가시나무 덤불이 하나 서 있었다. 그 덤불은 큰길 옆에 홀로 서서 가시가 무성하게 돋아나 있었다. 그들이 가까이가자, 그들은 그 가시나무 덤불에 커다란 검은 방패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방패에는 붉은 그리폰(날개 달린 사자)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방패 곁에 붉은 그리폰의 문장이 새겨진 검은 깃발을 단 커다란 검은 창이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덤불 근처에 고귀한 검은 말이 서 있는 것을 바라보았는데, 그 말은 모든 구비품과 안장이 검은색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곳에 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각주: 그들이 검은 기사 경을 식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더라.〉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더욱 가까이에 다다르자, 산사나무 덤불 너머에 검은 갑옷을 두른 한 기사가 있음을 깨달았노라. 그 기사는 거대한 평평한 돌 옆에 앉아, 돌 위에 펼쳐 놓은 정오의 식사를 하고 있음을

보았더라. 기사는 그들의 접근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직 자신 앞에 펼쳐진 음식을 큰 식욕으로 끊임없이 먹고 있을 뿐이었노라.

그때 린넷은 아직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을 멈추고 웃으며 가시덤불 너머에 앉아 있는 기사를 가리켰다. 그리고 그녀는 이르되, "부엌 종자이신 그대여, 저쪽을 보시오. 그 기사가 보이시오? 그 기사의 방패에 새겨진 문양을 보시오. 그 문양은 내가 잘 아나니, 그 기사의 이름이 페라드 경임을 내가 말하오. 그는 힌드의 퍼시번트 경의 형제요, 매우 강인하고 가치 있으며 고결한 기사요, 무공에서 큰 명성을 가진 자라오. 그대는 강가의 여울에서 물리친 기사들과는 사뭇 다른 종류의 기사요, 그러니 내 충고를 받아 그대 몸을 돌려 그 기사가 그대를 보기 전에 떠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해를 입을 것이오."

가레스 경이 이르되 "낭자여, 내가 당신을 따라 이리까지 왔고 여러 위험을 겪었사오니, 비록 말씀하신 대로 더 큰 위태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여기서 돌아서리라고는 생각지 못하노라" 하더라.

"좋소," 린넷이 이르되, "만일 불행이 닥치거든 그 원인은 당신에게 있으니 나를 원망하지 말지니라." 이같이 말하며 그녀는 자신의 발리(말)의 고삐를 당겨 앞서 말한 가시나무 덤불 쪽으로 나아갔다.

그들이 그 곳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검은 기사 페라드 경은 그들의 도착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더라. 이때 무장을 한 기사와 한 낭자가 그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본 페라드 경은 매우 느리고도 위엄 있게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닥칠 어떤 일에도 대비하여 몸을 준비하였더라.

그렇게 자신을 준비한 뒤, 그는 그들을 마주하기 위해 길가로 나아갔더라. 가레스 경과 낭자가 거의 가까이 다다랐을 때, 페라드 경은 가레스 경에게 말을 걸며 이르되,

"기사여, 너의 예의에 감사하노니, 네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를 내게 알려다오."

가레스 경이 이르되, “내가 내 정체를 밝힐 수는 없노라. 다만 이 낭자에게 물으라. 그녀가 너에게 말하리라.”

이에 페라드 경은 그 대답을 듣고 크게 놀라 이르되, “이것이 장난인가?” 하고 말하였다. “낭자여, 내가 당신에게로 인도되었으니, 부디 이 기사의 이름과 신분을 내게 알려주시오.”

이때 린넷은 크게 웃으며 이르되, “경하소서, 경께서 저에게 그와 같은 물음을 하시는지라, 내가 마땅히 진실을 말씀드려야 하리니, 이 자는 바로 ‘보먼즈’라 불리는 부엌의 하찮은 종놈이라. 그는 아서왕의 궁전에서부터 나를 따라온 자요. 내가 여러 차례 그에게 물러가라 명하고 나를 떠나게 하였으나, 그는 듣지 아니하고 오직 끊임없이 나를 뒤따르나이다.”

“아름다운 낭자여,” 검은 기사가 높은 위엄으로 말하되, “당신은 나를 장난 삼아 놀리시나니, 이는 부엌의 하인이라기보다는 실로 존귀하고 위엄 있는 기사이시니, 당신이 그분께 대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참으로 기이하도다.”

그때 가레스 경이 매우 엄한 어조로 이르되, “영주여, 나는 당신이 이 부인이 하는 말을 반대하거나 다른 이가 반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노라.” 하니, 흑기사 역시 큰 위엄을 잃지 않고 말하되, “내가 어찌 그녀를 반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보라, 당신의 갑옷은 전장의 흔적으로 깊게 패여 있도다. 누가 부엌의 하인이 그러한 갑옷을 입고 다닌다고 들은 바 있겠는가?” “그렇지 않소,” 가레스 경이 이르되, “당신이 이 부인이 내게 대해 한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내가 그녀가 한 말을 옹호하기 위해 당신과 싸우게 될 것이오.”

“경,” 흑기사께서 이르시되, “그렇사오면 내가 경과 결투하겠나이다. 이 낭자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사옴이니이다.”

〈각주: 가레스 경이 흑기사와의 결투를 시작하더라.〉

그때 페라드 경은 검은가시나무 덤불에서 방패를 내려받고, 창을 손에 쥐었으며, 말에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는 말에 올라타 전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었노라.한편 가레스 경은 상대방이 모든 준비를 끝낼 때까지 매우 차분하고 태연하게 기다렸더라. 이때 페라드 경이 이르되, “저를 준비하였사이다, 경,”라고 하거늘, 두 기사 모두 말의 고삐를 당겨 돌진할 만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물러났더라.

이 일이 이루어지자, 각기 기수가 말에게 외치며 서로를 향해 치명적인 속도와 격렬함으로 돌진하였노라. 두 기사는 길목 한가운데서 충돌하였는데, 그 소리는 두 퍼롱(약 400미터) 밖에서도 들릴 만큼 컸더라. 그 충돌로 인해 각기 기사의 창은 손이 쥐고 있던 부분까지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고, 두 말 모두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더라. 만약 기사

가 큰 소리와 박차 찌르기, 그리고 뛰어난 기마술로 다시 일으키지 않았다면 말은 쓰러졌을 것이었노라.

그때 두 기사 모두 말에서 내려 칼을 빼들고 무기를 들고 돌진하였노라. 그들은 서로에게 다시 한 번, 또 다시, 그리고 또 다시 타격을 가하였는데, 그 타격의 소리는 여러 대장장이들이 모루를 치는 소리처럼 들렸노라. 잠시 동안 어느 기사도 다른 기사보다 우위를 점하지 못하였으나, 각기 그 시간 동안 잘 맞선 싸움을 하였노라.

그때 갑자기 린넷이 매우 날카롭게 외쳤노라. "페어드 경! 페어드 경! 고귀하고 값진 기사여! 당신이 부엌의 하인을 당신의 뜻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에 그녀가 매우 크게 또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니, 가레스 경은 그녀가 내뱉은 그 말들을 들었노라. 그때 그의 마음에는 거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 마치 여러 사내의 기운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와 그를 들어 올리는 듯하더라. 이에 그는 곧장 그전보다 두 배나 격렬하게 싸움을 가하여, 일격을 가하면 또 다른 일격을 가하니, 그로 인해 흑기사는 그의 공격의 맹렬함과 격렬함 앞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노라.

그때 가레스 경은 페라드 경이 그 싸움에서 매우 지쳐가고, 자신의 방어를 아주 낮게 내리고 있음을 깨달았노라. 이에 그는 그의 일격을 더욱 가중하여 페라드 경의 투구에 맹렬하게 내려찍으니, 그의 머릿속은 물처럼 어지러워지고 그의 머리는 그의 가슴에 축 처졌노라.

이때 페라드 경이 기절하는 것을 보고, 가레스 경은 그에게 달려가 그의 투구를 잡아 무릎을 꿇게 끌어내렸다. 페라드의 투구가 벗겨지자, 가레스는 그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목을 꺾어 눌러, 마음만 먹었다면 그를 죽일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때 페라드 경이 자기가 이미 죽음을 코앞에 두었음을 깨닫고, 가레스 경의 무릎을 안으며 높은 소리로 외쳤다. “영주여, 제 목숨을 용서하소서. 제 목숨은 이제 전적으로 당신의 자비에 달려 있사옵니다.”

가레스 경이 이르시되, “기사여, 이 부인이 나를 위해 간구하지 않는 한, 나는 네 목숨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때 린넷이 소리쳐 이르되, "에잇, 너 같은 건방진 하찮은 놈이여!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은혜를 청하랴?"

〈각주: 린넷이 흑기사에게 생명을 구걸하더라.〉

그때 페라드 경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아름다운 부인, 내가 청하노니 이 기사에게서 내 목숨을 구해 주시옵소서.” 이에 린넷이 이르되, “슬프도다, 어찌 그리 되었는가. 그러나 참으로 나는 너와 같은 존귀한 기사, 페어드 경이 부엌 종자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노라. 그러므로, 보먼즈야, 네 칼을 거두고 이 기사의 목숨을 용서하라.”

이 말을 마친 후, 가레스 경은 페라드 경의 손을 놓으며 이르되, “일어나소서, 기사여다. 이 부인의 명을 받아 당신의 목숨은 아끼리다.”

이에 페라드 경이 일어나 서서 이르되, “경이시여, 경은 정당한 전투에서 나를 물리치셨사오니, 이로 인해 나는 항복하였나이다. 이제 청하노니, 경께서 나에게 내릴 명령이 있사오며?”

가레스 경이 이르시되, “그렇노라, 영주여다. 내가 내릴 명령이 있나니, 그 명은 이렇도다. 너는 곧장 아서왕의 궁정으로 가서 그에게 예를 갖추라. 그리고 아서왕에게 이르되, 부엌 하인 보먼즈가 당신을 그에게 보냈노라 할지니라. 또한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에게 안부를 전하고, 내가 무사히 잘 지내고 있음을 알리라.”

페라드 경이 이르되, “영주여다, 경의 명을 따라 행하겠나이다.”

가레스 경이 이르시되, “그렇게 하라.”

이때 가레스 경이 행한 모든 일과 말에는 그가 지닌 위엄과 고고함이 배어 있어, 십 년 경력의 기사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위엄 있게 행동하지는 못하리라. 그가 그러한 방식으로 모든 일을 정리한 후, 그는 린넷을 돌아보며 그녀에게 이르되, “부인, 이제 떠나실 준비가 되셨거든 나는 동행할 준비가 되었노라” 하고 말하였다. 이에 낭자는 곧장 떠났고, 가레스 경과 아락사레스가 그녀를 따라 뒤를 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전투의 장소를 떠나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잠시 간 후에 퍼아드 경은 앞서 가레스 경이 명한 바와 같이 아서왕의 궁정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하였다.

이때 린넷과 가레스 경이 잠시 동안 침묵하며 말을 몰고 가더니, 린넷이 고개를 돌려 가레스 경을 바라보며 이르되, “요리부 하인 경, 당신이 과연 누구인지 내가 알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이에 가레스 경이 매우 평온한 어조로 대답하되, “당신이 이미 여러 차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아서왕 궁전의 요리부 하인임을 말하였나이다.”

린넷이 웃으며 이르되, “참으로 그러하오. 내가 거의 잊고 있었소.”

그리고 이어 이르되, “나와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시오. 당신 여전히 요리 냄새가 나는 것 같소.”

이에 가레스 경은 다시 전에 그가 유지하던 그 거리로 물러나 말 몰기를 계속하더라.

〈각주: _그들이 숲에서 도망치는 자 하나를 바라보더라._〉

이때 해가 기울어 밤이 다가올 무렵, 가레스 경과 린넷, 그리고 아락사레스는 그 땅을 떠나 다시 숲이 시작되는 곳으로 향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숲에 다다르려 할 때, 갑자기 숲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 흰 말에 올라타 거칠게 채찍을 질러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것을 보았노라. 그 기수는 가까이 오자마자 갑자기 말을 멈추고 안장에서 뛰어내려 가레스 경에게 달려가 등자(발걸이)를 잡으며 외쳤노라.

"경! 경이시여! 저는 경의 은혜를 빌며, 절박한 필요에 처한 이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노라!"

그때 가레스 경은 자신에게 이렇게 달려온 자가 한 시종(에스큐어)임을 보았으니, 그는 초록색과 노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용모가 단정하고 기품이 있는 자였노라. 이에 가레스 경이 이르시되,

"아름다운 친구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말해주게."

"경," 그 시종이 외쳤다. "제 주군께서는 이 경계 지역을 지키는 기사로서, 저 숲속에서 여러 도적들에게 포위되어 있사옵니다. 속히 구원이 미치지 못하면 주군께서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옵니다."

가레스 경이 이르시되, "너의 주군은 어디에 있느냐?"

시종이 대답하되, "저를 따르소서. 그리하면 주군께 모셔가겠사옵니다."

〈각주: 가레스 경이 부상을 입은 기사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니라.〉

그리하여 시종은 다시 말에 올라 타고 전속력으로 달아났으며, 가레스 경도 또한 말에 채찍을 가하여 속도를 내어 뒤따랐다. 린넷과 난쟁이 또한 가레스 경을 따라 급히 뒤를 이었다. 곧이어 그들은 숲속으로 들어갔고, 잠시 동안 그 사이를 달린 후, 가레스 경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한 기사가 나무에 등을 기댄 채 여섯 명의 거칠고 건장한 악당들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악당들은 전신 갑옷을 두르고 있었다. 가레스 경은 또한 땅에 누워 죽어 있는 세 명의 악당들을 보았으나, 그 기사는 여러 곳에서 피를 흘리며 전투로 인해 매우 지친 처참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목격한 가레스 경은 검을 뽑아 매우 큰 소리로 외쳤다. “와라, 악당들이여! 와라!” 그러면서 그는 그 격투의 한복판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그의 돌진하는 힘이 너무도 맹렬하여 도적들은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해 어리둥절해했다. 가레스 경은 어떠한 방해나 멈춤도 없이 그들 한복판으로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놀람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가레스 경은 한 방으로 한 악당을 땅에 쓰러뜨렸고, 곧이어 또 다른 한 명을 내려쳤다. 세 번째 악당은 자신을 방어하려 했으나, 가레스 경은 안장을 박차고 일어서서 그를 향하여 그토록 강렬하고 두려운 타격을 가하여, 그의 모리온(투구)을 뚫고 머리를 관통하여 이빨까지 도달하였다.

〈각주: 가레스 경이 도적들을 죽이다.〉

그때 가레스 경이 자신의 동료를 내려친 그 무서운 일격을 보자, 나머지 세 악당들은 목숨을 부지할까 봐 두려워하여 비명을 지르며 숲속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가레스 경은 그들을 놓아주지 아니하고 맹렬한 기세로 그들을 추격하였노라.

세 도적은 도망칠 길이 없음을 깨닫고, 달리 할 일이 없으니 돌아서서 맞서 싸울 수밖에 없음을 알았더라. 그러나 가레스 경은 그들에 의해 멈춰 서지 아니하고, 곧장 그들 한가운데로 돌진하여 이쪽저쪽을 가리지 않고 내리쳤노라. 그들의 방어에도 불구하고, 세 악당은 곧바로 피투성이가 된 채 땅에 쓰러졌더라.

그리하여 가레스 경은 다시 말타고 돌아왔으며, 칼을 칼집에 꽂기 전에 매우 평온한 표정으로 칼날을 닦았노라.

그때 곧 그는 자신이 구해준 그 기사에게 다다랐는데, 그때 린넷과 아락사레스 및 시종이 그의 상태에 맞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사가 가레스 경이 전투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다른 이들로부터 벗어나 가레스 경에게 다가가 그의 무릎을 안으며 이르되, "영주여, 진실로 당신은 제 목숨을 구하셨나이다." 하고 말하더라. 이어 가레스 경에게 이르되, "저는 청하노니, 어찌하여 이처럼 놀라운 무공을 떨치시는 위대한 존귀한 기사이신지 저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저는 단 한 명의 기사가 오늘 저 눈으로 목격한 바와 같이 여섯 명의 무장한 자들을 그토록 수월하게 무찌를 수 있으리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하였사옵니다."

〈각주: 린넷이 가레스 경을 조롱하더라.〉

그때 린넷이 곁에 서 있었는데, 그녀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경이로운 눈빛으로 가레스 경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가레스 경이 구해 준 그 기사가 한 말을 듣고, 그녀는 매우 날카롭고 째지는 듯한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외쳤다. "기사님, 이분이 당신의 목숨을 구해 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사님은 "아니오, 낭자여, 저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다시 말했다. "이분이 왕궁의 부엌 종자이며, 그의 이름은 보우먼스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는 그의 손이 하얗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는 제 뜻에 반해 이곳까지 따라왔고, 저는 그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때 그 기사는 크게 놀라며 이르되, "아름다운 낭자여, 진실로 당신은 나를 장난으로 여기시는구나. 이는 실로 매우 고귀하고 명성 높은,

큰 존경을 받는 기사임이 분명하노라. 내가 오늘 목격한 그와 같은 무공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그러한 기사뿐이니라."

〈각주: 가레스 경이 그 기사를 책망하더라.〉

이때 가레스 경은 낮 동안 싸우느라 지쳐 있었고, 몸은 여러 상처로 아팠으며, 린넷이 그동안 자신에게 보인 멸시는 그의 영혼을 깊이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인내심을 가지고 대할 여유가 없었나이다.

그리하여 그는 곧장 그 기사에게로 돌아서서 매우 엄격하게 이르시되, "영주여, 이 부인이 나를 두고 당신에게 말한 바에 대해 당신은 이의를 제기하려 하시오? 내가 그녀의 말을 어찌된 일로든 의심하게 두지 않을 것임을 아시오. 그러므로 그녀가 나를 부엌일을 보는 하인으로 말하기를 기뻐한다면, 그녀를 위해 당신은 그것을 진실로 믿어야 하오."

이때 그 기사는 이전보다 더 놀라워하며,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자 곧이어 그가 이르되, "경이시여, 진실로 저는 경께 불쾌감을 주려 한 것이 아오니, 어찌 오늘 경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와 같은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자에게 불쾌감을 주려 하겠나이까?"

"그렇구려," 가레스 경이 이르되, "이 일로 내가 크게 분함을 느낀 것은, 이 부인이 기꺼이 말씀하신 바를 당신이 거스른다는 것이오. 당신도 잘 아시리니, 이 동안 나는 이 부인의 대리가 되어 있사오니, 그분

이 하시는 말씀을 거스르는 자는 누구든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이다."

가레스 경이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자, 린넷은 온 힘을 다해 크게 웃고 또 웃으며 외치되, "잘했소, 부엌의 하찮은 놈!"이라 하거늘, 가레스 경은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그 기사가 가레스 경과 린넷에게 이르되, "영주여, 그리고 아름다운 낭자여, 내가 이 모든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아마도 너희는 알 것이리라. 그러나 나는 보노라, 기사여, 네가 여러 곳에서 부상을 입었음을. 그리고 내가 의심치 않노니, 너희는 여행으로 인해 피곤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나와 함께 내 성으로 오라. 그 성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으니.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오늘 밤 그곳에서 숙박하며 쉬어가라."

이때 린넷이 이르되, "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내게 매우 기쁘로다. 실로 나는 지쳐 잠시 쉬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경의 성으로 가자. 그러나 이 보우먼스는 우리 곁에 너무 가까이 타지 말라. 실로 나는 부엌의 냄새를 견딜 수 없노라" 하니라.

그 후 그들이 모두 그 곳을 떠났으나, 낭자가 명한 바와 같이 가레스 경은 항상 떨어져서 말을 몰았더라.

〈각주: 그들이 그 기사의 성에 이르러라.〉

그들이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후, 그들은 숲을 벗어나 그 기사 성이 서 있는 계곡으로 나왔다. 그 성은 매우 아름답고 고귀했으며, 계곡은

매우 비옥하여 많은 비옥한 들판과 초원, 그리고 과일나무를 비롯한 여러 나무 식목지가 있었다. 이 비옥한 계곡을 지나 그들이 성에 도착했을 때, 말발굽이 석판 위에서 내는 큰 소리와 함께 성 안뜰로 들어갔다. 그 도착에 따라 성의 많은 하인들이 달려와 말들을 데리고 그들을 맞이했다.

그때 린넷이 주변을 두루 바라보며 성의 기사에게 물었다. “영주님, 이 사람들은 누구이오?”

그가 대답하되, “아름다운 낭자여, 이들은 당신의 말과 그 고결한 기사, 당신의 동행자의 말을 거두어 가고, 또한 당신과 그를 위해 봉사하며 시중들러 온 자들이라.”

린넷이 이르되, “그렇지 않소이다, 기사님. 제 말은 그들이 거두어가도 좋고, 저를 섬기게 하더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부엌의 하찮은 종자, 곧 비우메인스가 그러한 예우를 받으며 시중받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그를 스스로 시중들게 하라 명하노라.”

〈각주: 가레스 경이 스스로를 섬기니라.〉

이 말에 가레스 경은 성의 기사에게로 돌아섰는데, 그의 얼굴은 매우 평온하였으나 그의 눈은 불꽃처럼 빛나며 매우 오만하게 이르되, “영주여, 마구간이 어느 쪽에 있나이까? 내가 이 부인, 곧 내가 섬기기로 맹세한 이 여인을 모시라 명하신 대로, 나의 좋은 말을 마구간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를 돌보려 하오니, 그 곳을 가르쳐 주시기를 청하노라.” 이에 성의 기사는 크게 당황하여 대답할 말을 알지 못하더니, 곧

이어 이르되, “영주여, 이 일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오나, 만일 당신이 묻거든 마구간이 저쪽 어딘가에 있음을 말해야 하겠소.”

이렇게 말한 후, 가레스 경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이켜 조용히 말을 몰아 떠나갔더라. 그는 여전히 매우 평온한 태도로, 그들을 홀로 남겨 둔 채였다.

그리하여 그 기사와 린넷은 성채 안으로 들어갔으나, 기사 홀로 남은 때에 그는 성채의 시종장을 불러 이르되, “너는 그 고귀하고 존경할 만한 기사를 찾아보라. 그는 틀림없이 위대하고 명성 높은 전사라. 그에게 왕자나 귀족에게 마땅히 행하는 모든 예우를 다하여 대접하고, 그를 편안하게 하고 안위시키기에 아낌이 없으라. 이는 오늘 그가 필시 나의 목숨을 구해주었기 때문이니라.” 이에 시종장은 명을 따라 행하여, 그날 저녁 가레스 경은 그가 진정으로 지닌 바와 같이 왕족 기사의 품위에 합당한 모든 예우로 대접받았더라.

다음 날이 밝아오고, 린넷과 가레스 경, 그리고 난쟁이 아크사탈레스가 그 곳을 떠나야 할 때가 이르렀을 때, 성의 기사 하나가 가레스 경이 말 위에 앉아 계신 곳으로 달려와, 가레스 경의 등자 위에 손을 얹으며 이르되, “영주여, 청하건대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감히 봉사할 만한 일은 없으신지요?”

〈각주: 가레스 경이 그 기사에게 봉사를 청하더라.〉

그때 가레스 경은 그 기사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르되, “기사여, 당신이 기꺼이 행한다면 나를 위해 베풀 수 있는 한 가지 봉사가 있노라. 그 봉사는 이렇도다. 당신은 마땅히 당신의 지위에 어울리는 모든 수하를 거느리고 아서왕의 궁정으로 가라. 그리고 궁정에 도착한 후, 부엌 하인 보우먼스가 당신을 그분께 보내어 예를 드리게 하였다고 아서왕께 아뢰기를 원하노라. 또한 당신께서 목격하신 바에 따라, 나와 함께한 일들이 어떠했는지 아서왕과 가웨인 경께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 가레스 경에게, 성채의 기사는 답하되, “주인님, 명하신 대로 행하겠사오니, 명하신 모든 일을 다하여 행하리이다.”

그 후 세 사람은 길을 떠났노라. 처녀 린넷이 앞서 달리고, 가레스 경과 난쟁이는 다소 떨어진 뒤를 따랐더라.

* * * * *

이제 만약 너희가 이때 가레스 경과 린넷이 겪은 또 다른 모험들을 듣고자 한다면, 더 나아가 읽기를 청하노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차례대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일러스트레이션: 레이요네스의 부인.]

[그림]

네 번째 장

how Sir Gareth met Sir Percevant of Hind, and how he came to Castle Dangerous and had speech with the Lady Layonnesse. Also how the Lady Layonnesse accepted him for her champion.

가레스 경이 힌드의 퍼시번트 경을 만나고, 위험한 성에 이르러 레이오네스 부인과 담소를 나눈 일. 또한 레이오네스 부인이 그를 자신의 대리로 받아들인 일.

이때 처녀 린넷은 가레스 경과 난쟁이를 따르며 그날 아침 내내, 그리고 오후의 일부를 쉬지 않고 여행하였노라. 어떤 방해나 정지도 없었고, 어떠한 모험도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 모든 시간 동안 린넷은 가레스 경에게 선악을 가리지 않고 단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그녀의 눈은 항상 정면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었으니, 이는 그녀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음을 나타내는 듯하였노라.

〈각주: _그들이 계곡 한가운데에 아름다운 천막을 발견하더라._〉

그날 아침 기도 시각(프라임)으로부터 두세 시간쯤 지났을 무렵, 그들은 매우 길고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다다랐다. 그리고 언덕 아래 펼쳐진 계곡을 내려다본 가레스 경은, 그곳에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보았는데, 그들은 모두 지위가 높은 듯 보였다.

그 곳에는 다채로운 색상의 비단 천으로 지어진 여러 천막들이 서 있었다. 각 천막 위에는 그 천막의 주인을 상징하는 문양이 수놓인 비단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천막들 한가운데에는, 다

른 모든 천막들을 통솔하는 챔피언 기사 또는 그 지역의 영주인 것이 분명한 하나의 천막이 있었다.

그 천막은 붉은빛 비단으로 만들어졌으며, 은실과 검은 실로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다. 그리고 그 천막 위에는 매우 큰 크기의 깃발이 휘날렸는데, 그 깃발 역시 붉은 비단으로 만들어졌고 은실과 검은 실로 표범이 엎드린 형상(leopard couchant)이 수놓아져 있었다.

그가 높은 지대에 서서 내려다보니, 이 모든 천막들이 잘 깎인 잔디로 덮인 평평하고 아름다운 초원 위에 펼쳐져 있더라. 그곳의 풀은 녹색 벨벳 천처럼 고르게 평탄하였고, 여기저기 화사하고 예쁜 꽃들로 빛나고 있었더라. 이 초원과 그 너머의 다른 초원들은 멀리까지 이어져 있었고, 그 끝자락에는 우뚝 솟은 아름다운 성채와 많은 탑들을 지닌 훌륭한 마을이 서 있더라.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낮 햇살 아래, 그것들은 매우 밝게 빛나고 있었더라.

이 모든 것을 가레스 경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듯 또렷이 보았노라. 그는 그 비옥하고 평평한 골짜기 위에 하늘이 수정 지붕처럼 아치형을 이루며, 따뜻하고 완벽히 푸른 빛을 띠고, 매우 많은 구름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았더라.

이에 린넷이 이르되 “아하, 보우먼스여, 저편의 천막들을 보라. 또 그 가운데 있는 천막을 보느냐?” 하니 가레스 경이 이르되 “소녀여, 보나이다. 모두 보나이다.”

〈각주: 린넷이 가레스 경에게 퍼시번트 경에 대하여 말하다.〉

린넷이 이르되, “너는 그 중앙의 천막이 힌드의 퍼시번트 경의 소유임을 알라. 그의 깃발에 수놓인 문양을 내가 잘 알기 때문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일러두거니와, 퍼시번트 경은 이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기사 중 한 분으로, 원탁의 기사 중 주요 인물들과 수많은 전투를 치르셨으며, 모든 격투에서 큰 명성을 얻으셨노라. 이제, 보우매인스여,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접해 온 어떤 기사들과도 사뭇 다른 종류의 기사라. 그러므로 경계하라, 부엌 종자가 이와 같은 모험에 관여하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돌아서서 물러가라. 그렇지 않으면, 이 일에서 반드시 큰 재앙이 너희에게 닥치리라.”

그때 가레스 경은 린넷을 매우 차분히 바라보며 이르되, “부인, 명성과 명예를 지닌 자라 일컫는 자가 이와 같은 과업에서 실패할 수도 있사오나, 그런 명성과 명예를 가진 자가 큰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모험에서 물러났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사오리까?”

그때 린넷이 웃으며 이르되, “하하, 보우먼스여, 네가 부엌 하인이라기엔 기개가 매우 높구나. 이제 이 일로 인해 네게 해가 미치더라도, 그 책임은 오직 네게 있음을 알라.”

그러자 가레스 경이 이르되, “그렇게 하겠노라. 공녀여, 안심하시라. 내가 이로 인해나, 혹은 내게 닥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그 책임을 당신께 돌리지 않을 것이오.”

그리하여 린넷은 다시금 웃었더라.

그때 가레스 경은 말의 고삐를 당겨 뒤로 돌아, 앞서 말한 천막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니, 세 사람은 모두 높은 곳으로부터 계곡으로 내려가, 비단 천막이 치어져 있던 그 아름다운 초지로 다다랐더라.

그들이 천막들 근처에 다다랐을 때, 몇몇 시종들이 벤치에 앉아 주사위 놀이를 하는 것을 보았노라. 이 시종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는 가레스 경과 아름다운 낭자, 그리고 난쟁이를 보고 모두 일어나, 그들 중 가장 위대한 자가 이르되, "기사님, 당신은 어떤 기사이며, 그 신분이 어떠하며, 어찌하여 이 곳으로 오셨나이까?" 하니, 가레스 경이 이에 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누구인가는 중요치 않노라. 다만 내가 마땅한 가치가 있음을 알면 족하노라. 나의 목적은 이 무리의 주인이시며, 힌드의 퍼시반트 경과 담소를 나누기 위함이니라."

청년 무사가 이르되, "기사님, 이 길로는 지나실 수 없으며, 하인드의 퍼시반트 경과 말씀 나누실 수도 없나이다. 먼저 기사님의 성명과 신분을 밝히시지 않는 한, 그렇지 않으면 기사님께서는 큰 위험을 무릅쓰시는 것이나이다."

이에 가레스 경이 웃으며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시며, 그 즉시 그 모든 청년 무사들을 지나쳐 가시니, 린넷과 난쟁이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 누구도 그들을 말리려 감히 나서는 자가 없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퍼시반트 경의 천막에 다다랐고, 그 때 퍼시반트 경은 바로 그 천막 안에 계셨더라.

이때 천막 앞에는 땅에 박힌 높은 채색 기둥이 서 있었고, 그 기둥에는 커다란 방패가 달려 있었다. 그 방패에는 흑백의 표범이 엎드린 형상이 새겨져 있었더라. 이에 가레스 경은 이것이 퍼시번트 경의 방패임을 직감하였노라.

이에 가레스 경은 검을 빼어들고 나아가 그 방패를 치니, 그의 강타 아래 방패는 천둥처럼 울려퍼졌더라.

그때 힌드의 퍼시반트 경이 그의 천막에서 나와, 분노에 얼굴이 붉게 타오르며 매우 격하게 외치니라. “영주여, 당신은 누구이기에 감히 나의 방패를 그러한 방식으로 내리치느냐?”

〈각주: 가레스 경이 퍼시번트 경에게 도전하더라.〉

그러나 가레스 경은 말 위에서 매우 차분히 앉아 있다가 이르되, “영주여, 내가 당신의 방패를 친 것은 당신을 불러내기 위함이오. 내가 당신과 말씀을 나누고자 함이니이다. 나의 이름과 신분에 관하여는,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당신이 이것들을 알고자 하시면, 나의 동행인 이 낭자에게 물어보시기를 청하노라.”

이때 퍼시벌 경이 돌아서서 낭자에게 이르되, “낭자여, 이 기사는 누구인가?” 하니, 낭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경이시여, 나는 그가 아서왕의 궁정에 있는 부엌 종일 뿐, 갑옷을 입은 자라 외에는 알 바 없나이다. 그는 보우메인스라 불리우나이다. 나는 여러 번 그를 떨쳐내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사오니, 그는 항상 나를 따르며, 나의 뜻에 거스르더라도 항상 나의 대리로 서려 함이니이다.”

그때 퍼시벌 경은 큰 노여움에 사로잡혀 가레스 경을 돌아보며 이르되, “경이여, 당신과 당신의 낭자가 나에게 걸고자 하는 이 장난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당신이 그녀로 하여금 당신을 대신하여 말하게 하였고, 그녀가 당신을 부엌 하인이라 일렀으니, 나는 당신이 과연 그러하리라 믿을 수밖에 없노라. 그러므로 당신이 즉시 스스로의 이름과 신분을 나에게 밝히지 않고, 또한 이 낭자가 말한 바와 달리 당신이 아님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나는 즉시 당신의 갑주를 벗기고, 당신이 나의 방패에 끼친 이 모욕에 대하여 줄로 묶어 때리게 하겠노라.”

그때 가레스 경이 매우 차분한 어조로 말하더라.

“경이여, 그대는 그러한 행동을 하시면 실이 되리이다. 내가 말씀드리건대, 비록 내가 부엌 하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미 명망 높은 여러 고결한 기사들과 인연을 맺었사오며, 그들의 평판은 훌륭하오.

내가 또 말씀드리건대, 이들 중 한 분은 호수의 랜슬롯 경이시었고, 그분께서 나를 기사로 임명하셨사오며, 또 다른 한 분은 경의 친형제이신 페라드 경이시었소. 나는 어제 그분과 전투에서 맞서 그를 무찌르었사오나, 이 낭자가 그분의 생명을 간구하므로 나는 그를 죽이지 않았사오며, 지금 페라드 경은 아서왕의 궁정에 나아가, 내가 그에게 요구한 바에 따라 왕께 예를 올리고 있사오니이다.”

이에 퍼시벌 경은 분노로 어두웠던 이마를 털고 말하더라.

"경, 내가 듣기로는 경이 지극히 훌륭한 자질과 덕을 지닌 기사임을 알겠노라. 그러므로 내가 앞서 한 말을 거두어들일 것이며, 경이 나의 방패를 쳤으므로 경과 결투하겠노라. 비록 내게는 고난이 따르리라 할지라도, 경의 뜨거운 붉은 피로써 그 모욕을 씻어내리라. 내가 경과의 결투에서 물러서거나 멈추지 않음을 경에게 약속하노라."

이때 퍼시벌 경이 이같이 말하고 곧장 그의 천막으로 물러가니, 그의 동료인 몇몇 기사들과 이렇게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모여든 몇몇 시종들이 함께 그의 천막으로 들어가 그를 도와 갑옷을 입히고 전장에 대비케 하였더라.

〈각주: 전투의 초원에 대하여.〉

이때 퍼시벌 경이 다시 나타나, 그 전투에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로 모습을 드러냈노라. 그의 시종들이 그에게 우유처럼 희고 고결한 말을 가져다 바치며, 그를 타고 오르도록 보좌하였더라. 퍼시벌 경은 거대한 창을 손에 쥐고 몸을 돌려, 두 기사가 서로를 향해 돌진하기에 적합한, 아름답고 평평한 잔디밭을 향해 길을 앞서 나갔노라. 그 무리에 속한 자들 모두 퍼시벌 경과 가레스 경을 따라 그 잔디밭으로 따라갔고, 낭자 린넷과 난쟁이 아카탈레즈도 다른 이들과 함께 그곳으로 향하였더라.

이에 그 장소에 경연의 총책임자(마샬)가 임명되었고, 그 후 각 기사는 그 총책임자에 의해 정해진 특정 위치를 배정받았노라.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자 공격의 신호가 울렸고, 각 기사는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의 속도로 서로를 향해 돌진하였더라.

그들은 장중의 한복판에서 거대한 굉음과 나무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충돌하였노라. 그 격돌에서 각기 기사의 창은 작은 조각들로 산산조각이 났고, 각기 기사의 말은 그 타격의 충격으로 뒤로 물러서며 비틀거렸노라. 만약 기사가 고삐와 박차와 목소리로 말의 균형을 잡지 않았다면, 말은 쓰러졌을 것이었노라.

〈각주: _가레스 경이 퍼시벌 경과 무예를 겨룬다._〉

이에 각기 기사들은 말에서 내려 칼을 빼 들고 두 마리의 야생 멧돼지가 싸우는 듯 맹렬하게 돌진하여 보행으로 공격하더라. 그러자 그들은 서로에게 격렬한 타격을 가하여 멀리서 지켜보는 자들도 그 공격의 격렬함과 소음에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끼더라. 두 전사들은 매우 격렬하게 싸웠고, 싸움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전투는 더욱 격렬해졌더라. 얼마 지나지 않아 각자의 갑옷은 모두 붉게 물들었고, 그들이 싸우던 땅도 붉은 피로 적셔졌으나, 어느 기사도 조금이나마 상대방에게 양보할 생각이 없었더라. 오히려 각자는 더욱 격렬한 분노로 상대방을 향해 계속 싸웠더라.

이때 두 기사 중 어느 쪽도 다른 쪽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못하였으며, 그 전투가 어떻게 끝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노라. 그러나 가장 큰 의구심이 일었던 바로 그 순간, 린넷이 공포에 질린 듯 높은 목소리를 높여, 매우 날카롭고 격렬하게 외쳤노라.

"선량한 기사 퍼시벌 경이시여, 당신은 과연 부엌 하인이며 설거지 노예에게서 이렇게나 막히실 것이오이까?"

〈각주: 가레스 경이 퍼시벌 경을 물리치니라.〉

그때 일어난 일은 전에도 그랬듯, 가레스 경이 퍼시벌 경의 형제인 흑기사와 싸웠을 때와 같았으니, 가레스 경은 린넷이 외친 말들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 말들에 대한 분노로 인해, 마치 여러 사내의 새로운 힘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온 듯하였다. 그 분노는 지혜나 인내심 같은 다른 모든 것을 삼켜버렸으니, 가레스 경은 곧장 방패를 내던지고 양손으로 검을 쥐고서 퍼시반트 경을 향해 돌진하여, 기량이나 힘으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격렬하고 맹렬하게 연타하였다.

이에 퍼시벌 경은 그 돌진 앞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으며, 방패를 매우 낮게 내려 쥔 채 버티었다. 그러나 가레스 경은 그를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가며 더욱 격렬하게 내리쳤고, 퍼시벌 경은 적의 공격을 막아낼 힘을 더 이상 지니지 못하였다. 가레스 경은 퍼시벌 경이 방어에 점점 약해짐을 깨닫고, 다시금 돌진하여 그의 투구 위에 처참한 일격을 가하였으니, 퍼시벌 경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 천천히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때 가레스 경은 퍼시벌 경에게 달려가 그의 투구를 잡아 벗겨내니, 퍼시벌 경은 죽음이 자신에게 덮쳐옴을 깨달았더라. 퍼시벌 경은 가레스 경의 허벅지를 감싸 쥐고 그를 안으며 외치되, “영주여, 제 목숨을 아껴주옵소서. 저를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하였노라.

그리고 퍼시벌 경을 호위하던 모든 기사들과 시종들은 가레스 경이 서 있는 곳으로 모여들며 목소리를 높여 외쳤으니, “기사여, 우리의 투

사인 그 훌륭한 기사를 죽이지 마옵소서. 제발 그의 목숨을 아껴주옵소서!"라고 하였더라.

이때 피와 땀으로 온몸이 젖고 숨을 헐떡이던 가레스 경이 매우 쉰 목소리로 이르되, "너희는 이 기사의 생명을 구하지 말라. 내가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노라. 그 조건은 내가 그 옹호자로 있는 이 처녀가 내게서 그의 생명을 청하는 것이니라."

그때 린넷은 심히 울고 있었노라. 혹 그 혹독한 싸움을 두려워하여 우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연유가 있는 것인지, 누가 알리오. 그러나 그녀는 끊임없이 울다가도 다시 웃고, 또 울기를 반복하였노라. 그녀가 소리쳐 외쳤으니, "너 무례한 놈이여, 보우메인스여, 네가 어찌하여 그런 요구를 하느냐?"

그러나 가레스 경이 이르되, "내가 무례하더라도 그대는 용서하시오. 내가 말한 바가 옳사오니, 당신이 내게 청하지 않는 한, 나는 이 기사의 목숨을 아끼지 않겠소," 하고는 이에 퍼시벌 경의 머리카락을 잡으며 그의 검을 높이 들어 퍼시벌 경의 머리를 몸에서 분리하려 함과 같았더라.

〈각주: 리네트가 퍼시벌 경의 생명을 간구하더라.〉

그때 모든 기사들과 시종들이 린넷을 에워싸고, 그녀에게 퍼시벌 경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청하더라. 린넷이 이르되, "손을 거두라, 보우먼스여. 그를 죽이지 말라. 힌드의 퍼시벌 경처럼 훌륭하고 존귀한 기

사가, 너와 같은 부엌 하인 계급의 자손의 손에 목숨을 잃는 것은 큰 불행이니라."

이에 가레스 경이 이르되 "일어나시오, 기사여, 일어나시오. 이 부인의 말씀이 당신의 목숨을 구원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가레스 경은 퍼시벌 경을 놓아주니, 퍼시벌 경이 일어나 서니라.

〈각주: 가레스 경이 퍼시벌에게 봉사를 명하시니라.〉

이에 퍼시벌 경이 이르되 "대인, 대인께서는 매우 정정당당하고도 치열한 싸움에서 저를 물리치셨사오니, 이제 저는 대인에게 항복하나이다. 이제 대인이 저에게 내리시는 명령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니, 가레스 경이 이르되 "대인, 대인이 옳게 말하도다. 나의 명령은 이러하니라. 대인은 이 대인의 기사와 시종들과 함께 이 장터를 떠나, 모두 아서왕의 궁정으로 가라. 그리고 대인이 왕의 궁정에 이르거든 왕께 예를 올리고, 보우메인스, 곧 부엌 하인이 보내신 바라고 전하여 예를 올리라" 하였더라.

그때 퍼시반트 경은 가레스 경 앞에 머리를 숙이며 이르되, "폐하의 명대로 하겠사옵니다." 하더니 다시 이르되, "폐하, 한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멀리 보이는 그 성채가 있는 마을로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그곳은 저의 성채요 저의 고을이니, 폐하께서 더 먼 길을 떠나시기 전에 잠시 쉬어가시고, 저의 성에서 몸을 보양하시기를 간곡히 청하노라. 보기에 폐하께서 여러 곳에 상처를 입으셨음을 알겠사오니, 폐하께서 더 나아가기 전에 상처를 살펴보고 치료받으시며, 편안히 쉬

어 상처가 낫고 건강을 회복하신 후에야 다시 새로운 모험에 임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이에 가레스 경이 이르되 "경이시여, 경의 예우에 깊이 감사하나이다. 경의 성으로 함께 가 그곳에서 잠시 쉬는 것이 기쁘겠나이다. 실로 오늘 폐하와 치른 싸움은 혹독하였사오며, 저는 심한 고통을 겪고 있사오며, 더구나 최근 다른 전투들도 치렀사오니 피곤하여 당분간 더 나아가기에 적합치 못하나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가레스 경과 퍼시반트 경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그들 일행은 그곳을 떠나 퍼시반트 경의 성으로 향하였더라. 그곳에서 가레스 경은 목욕을 하고 상처를 살펴받은 뒤 깨끗이 치료받았으며, 가능한 한 가장 편안한 대우를 받았노라.

〈각주: 가레스 경은 퍼시반트 경의 성에서 휴식을 취하더라.〉

퍼시반트 경은 가레스 경이 누워 있는 곳에 늘 한 무리의 기사들이 보초를 서서 그에게 해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명하였고, 그 명령대로 행하여지니라. 이에 가레스 경은 퍼시반트 경의 성에서 오일 동안 머무르며, 그 모든 동안 그는 린넷 처녀를 조금도 보지 못하였으니, 그는 성의 한 편에 누워 있고 그녀는 성의 다른 편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오일 동안이 끝날 때에, 가레스 경은 그의 상처들이 모두 낫고 그의 나머지 모험을 수행하기에 온전히 건강하고 강건하게 되었더라.

* * * * *

〈각주: 리네트가 가레스 경과 화해하다.〉

이제 앞서 말한 닷새가 지나가자, 가레스 경은 떠나갈 채비를 하고, 린넷 또한 그녀 스스로 떠날 준비를 갖추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퍼시반트 경의 성을 떠나 작별 인사를 나눴다. 그리고 그들은 성의 문지방을 넘어, 그 너머에 펼쳐진 햇살 속으로 말을 몰아냈으니, 그 날은 참으로 놀랍도록 밝고 명랑하며 즐거운 하루였더라. 작은 새들이 힘차게 지저귀고, 사과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꽃잎들은 눈송이처럼 흩날렸더라.

이렇게 그들은 떠났고, 그 후로 그들은 오랜 동안 말을 몰아갔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길에서 두세 리쯤 나아갔을 때, 그 시간 동안 서로 아무 말도 나누지 않고 두 사람 모두 침묵 속에서 말을 몰았더라. 그러자 마침내 린넷이 말을 돌려세우자, 가레스 경은 그녀의 눈이 매우 빛나고 있음을 깨달았더라.

린넷이 이르되, "경님, 저에게 노여워하십니까?"

그때 가레스 경은, 그가 이전에 그녀의 명을 받들어 하던 바와 같이, 얼마간 떨어진 곳에서 말을 몰고 있었으나, 이제 그녀에게로 가까이 다가가 이르되, "아니오, 아름다운 낭자여. 어찌하여 내가 당신에게 노여워하리라 생각하오니까? 내가 당신에게 노여움을 보인 적이 있소이까, 그러므로 당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오이까?"

그녀가 이르되, "아니오, 영주여. 어느 때든 저에게 노여움을 보인 적이 없사오며, 오히려 저는 경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이, 기

사를 모든 배려와 존중으로 대했던 부인에게, 그 어떤 고귀하고 훌륭한 기사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이었사오며, 이 모든 것을 경은 제가 저를 대했던 경멸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행하셨사오며, 또한 저는 경께서 싸우셨던 여러 무예 시합에서 경께서 행하신 태도를 매우 잘 깨달았사오니, 경께서 강하고 용감한 기사들에게는 매우 용감하고 위엄 있게 임하셨사오며, 저와 같은 여자에게는 부드럽고 자비롭게 임하셨사오며, 이 두 가지 태도는 동일하셨사오나이다."

이에 가레스 경이 미소하며 이르되, "부인, 그대는 아주 작은 일로 크게 과잉 반응하십니다. 모든 참된 기사들이 자신보다 약한 자들에게 온유하고 인내하여야 함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러므로 제가 부인에게 예의를 갖추었던 것은, 그러한 경우에 행해야 할 바를 배웠기 때문일 뿐이니이다. 부인이 저에게 던지신 가혹한 말씀에 관하여는, 만약 제가 그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 하더라도 그 분노를 제가 맞서 싸웠던 기사들에게 돌렸음을 아뢰나이다. 부인이 저에게 가혹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그에 대해 가혹한 일격을 가하였으니, 부인이 저를 더 멸시할수록 저는 더욱 강렬하고 격렬하게 싸웠사오니이다."

이때 린넷이 이르되, "경이시여, 경은 실로 지극히 높고 고결하며 존귀한 기사이오이다. 경께서 당신의 아름다운 시선을 아껴 주시는 그 부인은 내가 들은 바 있는 그 어떤 여인보다도 복된 자일 것이오이다. 이는 내가 경과 함께 이 길을 여행하는 동안 경을 얼마나 많이 시험해 보았는지 아시오. 경이 이 일에서 이와 같이 훌륭하심을 입증하셨다면, 장차 경에게 닥칠 더 큰 일들에서는 더욱더 경이 훌륭하심을 입증하시리라고 나는 믿노라."

이렇게 말한 린넷에게서, 가레스 경은 가볍게 웃으며 이르되, “아름다운 낭자여, 이제 내가 당신 곁을 따라 탈 수 있는 허락을 얻었는가, 그리고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있는가?” 하니, 린넷이 이르되, “예, 경,” 하더라. 이에 가레스 경은 앞서 가다가 린넷의 곁에 이르렀고, 그 때부터 그들 사이에 화평과 우호가 있더라. 이는 린넷이 이제 그에게 이전의 거만하고 무례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온순하고 겸손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각주: 그들은 화목하게 함께 여행을 떠났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며 린넷은 가레스 경에게 그가 이제 막 뛰어들게 된 모험에 관하여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여 주었노라. 그녀가 그에게 일러주기를, 바로 그 부인 곧 그녀의 자매는 레이오네스 부인이라 불리며 나이는 열여덟 살에 불과하다고 하였노라. 또한 그녀는 레이오네스 부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인 중 한 분이라고 말하며, 그 부인은 그랜드레가르드라 불리는 매우 크고 부유한 도시의 백작부인이며, 그 도시와 결부된 고귀한 성채, 곧 데인저러스 성(The Castle Dangerous)의 주인이라고 일러주었노라.

그녀는 레이오네스 부인이 백작부인으로 다스리는 영토가 그 도시와 성채의 양쪽으로 여러 리에 걸쳐 이어져 있다고 말하며, 그녀의 자매를 막아서는 레드 랜즈의 기사(The Knight of the Red Lands)는 너무나도 강인하고 용감한 기사라, 그와 맞먹는 위력을 지닌 기사가 왕국 어느 구석에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 믿는다고 고백하였노라.

그리고 린넷은 가레스 경에게 이르되, “진실로 말씀드리오니, 경께서는 레드 랜즈의 기사라 불리는 이 레드 기사와 맞서 싸우시어 자신을 지키기가 매우 고역이 되실까 두려워하옵니다. 여울에서 경께서 쉽게 물리치신 두 기사보다 퍼아드 경이 더 크고 위대한 존재였으며, 퍼아드 경보다 퍼시반트 오브 힌드 경이 더 크고 위대하였사오니, 이와 같으니 레드 랜즈의 기사가 퍼시반트 경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리라 믿사옵니다.”

“그래, 린넷아,” 가레스 경이 이르시되, “내 전적 중 패배한 것은 한 번뿐이었노라. 그 한 번의 전투에서도 나는 치욕을 당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이 기사와의 싸움에서도 내게 좋은 운수가 있을 것이라 믿노라. 너는 알지니, 모든 기사의 운명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느니라. 그러므로 만약 그분께서 내가 이 일을 잘 해내기를 원하시거든, 나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이같이 그들은 큰 우의를 다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그날 종일과 다음날, 그리고 그 이튿날의 일부 시간을 여행하였더라. 제삼일 날 아침 일찍이, 그들은 어느 높은 고지의 정상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가레스 경은 그 자신이 섰던 높은 곳 아래에 펼쳐진 넓고 비옥한 평야를 바라보았더라. 그가 보니 그 평야는 매우 넓고 길었으며, 그 한가운데에는 하나의 언덕이 있었고, 그 언덕 위에는 하나의 성채가 서 있었더라. 그리고 그 성채 뒤에는 아름답고 잘 지은 집들이 많은 한 마을이 있었더라.

〈각주: 그들이 붉은 기사들의 천막들을 바라보더라.〉

이에 린넷이 손을 들어 가리키며 가레스 경에게 이르되, "저 성곽과 그 마을을 보시나이까? 그 성곽은 자매님의 성이고 그 마을은 자매님의 마을이라. 또 저기, 성곽과 마을의 성벽 아래로 넓은 초원 위에 수많은 천막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나니, 그것들은 붉은 땅의 붉은 기사와 그를 따르는 기사들과 종자들의 천막들이라. 그가 자매님의 성곽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키고 있사오니, 그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그곳에서 벗어나거나 들어올 수 없노라." 이에 가레스 경이 이르되, "그곳으로 내려가자."

그때 곧 그들은 고지에서 내려와 평야로 나아갔으며, 레이오네스 부인의 성읍과 성채를 향해 길을 계속하였다.

그들이 붉은 땅의 붉은 기사와 그의 동료들이 치었던 천막이 있던 곳으로 더 가까워지자, 일렬로 늘어선 가지치기 버드나무들이 많은 것을 지나쳤더라. 가레스 경은 각 나무마다 하나 또는 두 개, 세 개의 방패가 달려 있고, 각 방패에는 기사도의 어떤 상징이 새겨져 있음을 보았더라. 그 광경을 보고 그는 크게 놀라 말하되, "아름다운 낭자여, 내가 청하노니 이 광경의 뜻과, 왜 그 방패들이 저 가지치기 버드나무들에 달려 있는지 내게 알려주시오." 린넷이 이르되, "경이시여, 그 방패들 각각은 붉은 땅의 기사가 무너뜨린 어떤 기사의 방패이니이다. 그리고 이 기사들 중 일부는 붉은 땅의 기사와의 전투에서 전사하였으며, 일부는 전사하지는 않았으나, 그들이 맞서 싸운 그 싸움에서 모두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였으니이다. 붉은 땅의 기사가 무너뜨린 각 기사로부터 그는 그 방패와 말을 빼앗아, 발로 걷고, 무장이 없으며, 탈 것이 없는 상태로 내보냈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그와 같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보다 전투에서 전사하는 것이 나았으리라 여긴다."

그때 가레스 경이 이르되 "정녕 리네트여, 저토록 많은 기사들을 무너뜨렸다면 그 무장은 참으로 강인한 무장이었으리라. 이제 만약 내가 그와 싸우러 온 그 전투에서 그를 쓰러뜨리는 운명이 내게 있다면, 나는 내가 그 어떤 명예와 명성을 얻으리라 믿노라. 내가 어릴 적부터 월스의 퍼시벌 경이 기사직을 수행한 이후로 내 나이의 젊은 기사들에게 내려진 그 어떤 명예보다 더 큰 것을."

이같이 이르시니 가레스 경이 말하더라, 그 후 가레스 경과 린넷이 조금 더 나아가 그 초원에 이르기까지 타거늘, 그 초원은 붉은 땅의 붉은 기사와 그의 동행 기사들이 치었던 천막들이 있던 곳이더라.

그때 가레스 경과 낭자는 그 천막들 한가운데를 곧장 지나쳐 갔으며, 많은 기사들과 시종들이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려 밖으로 나왔으나, 가레스 경과 리네트 그리고 난쟁이는 끝내 멈추지 않고 나아가, 마침내 모든 천막의 한가운데에 있는, 앞서 말한 붉은 기사(Red Knight)의 천막에 이르렀더라.

이곳에 몇몇 시종들이 있거늘, 가레스 경은 그들 중 한 명에게 물었다. "그 붉은 기사라는 자는 어디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영주님, 그는 한낮의 식사를 마치고 장막 안에서 쉬고 있나이다." 가레스 경이 이르되, "가서 그에게 이르라. 그와 담소를 나누고자 하는 자가 왔노라."

〈각주: 가레스 경이 붉은 기사의 모습을 바라보더라.〉

그리하여 그 시종들은 물러가고, 곧이어 붉은 기사께서 그의 천막에서 나오시니, 그는 미네버 털로 가장자리를 두른 붉은 실크의 헐렁한 옷을 모두 두르고 계셨더라. 가레스 경이 그를 바라보매, 그의 뼈와 힘줄이 매우 굵고 튼튼하며, 머리카락과 수염이 매우 붉고, 그의 얼굴은 무섭게도 험상궂고 위압적인 것이더라.

이때 붉은 기사가 가레스 경을 보자 이르되, "너는 누구며, 어찌하여 이 땅에 왔느냐?" 하니, 가레스 경이 이르되, "영주여, 나는 아서왕의 궁전에서 온 자로서, 이 곳의 레이요네스 부인의 원수를 대신 갚고자 그분의 시종이 되려 왔사옵니다."

이에 붉은 땅의 기사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무예로 명성과 명망을 떨치는 기사인가?" 하니 가레스 경이 이르되, "아니오, 경. 그런 것이 아니라오. 나는 불과 보름 전에야 기사 작위를 받았사오며, 아직 무예로 이룬 업적이라곤 거의 없사오나이다."

그때 붉은 기사 경쾌하게 크게 웃으며 이르되, "이것이 어찌된 일이며, 감히 내게 대항하는 자라니 너는 무슨 녹색 기사냐?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나은 마흔이 넘는 기사들을 먼지 속에 눕혔노라."

가레스 경이 이르되, "그 말씀이 옳을지니이다, 기사 각하. 그러나 모든 자의 운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혹시 그분께서 이번 기회에 제가 그대를 쓰러뜨리게 하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가레스 경이 다시 말하되, “이제 청하오니, 저 성으로 올라가 그곳 부인과 말씀 나누게 하소서. 만일 그녀가 저를 그녀의 대리로 받아들이시거든, 즉시 이리로 돌아와 그대와 결투를 벌이겠사옵니다.”

붉은 기사도 이르되, “가서 그 부인과 말하라.”

이때 가레스 경은 위험한 성으로 향하여 올라가니, 린넷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성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 성의 부인이 높은 창문에서 나타나 가레스 경을 향해 부르며 이르되, “기사여, 당신은 누구요, 어디로부터 오시나이?”

〈각주: 가레스 경이 레이오네스 부인을 바라보더라.〉

그때 가레스 경이 고개를 들어 창가에 서 있는 낭자를 보았으니, 그녀의 얼굴은 지극히 아름다웠더라. 비록 그녀의 머리카락은 린넷과 같이 어두웠고, 그녀의 볼은 린넷의 그것처럼 맑고 희었으며, 그녀의 입술은 린넷과 같이 산호처럼 붉었으나, 그녀가 린넷보다 열 배는 더 아름다웠더라. 그러므로 가레스 경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자마자 그의 마음이 곧장 새가 날아오르듯 그녀의 품속으로 올라가 거기 머물렀더라.

이에 가레스 경이 그녀에게 이르되, “부인, 부인이 저를 누구냐 물으시니, 저는 아서왕의 궁에서 왔사오니, 부인이 저를 그런 자로 받아들이시거든 부인의 시종으로, 그리고 옹호자로 봉사하려 왔사오며”라 하더라.

그때 레이요네스 부인이 이르되, “경이여, 경은 명성과 공로가 뛰어난 기사인가?” 하니, 가레스 경이 이르되, “아니오, 부인이시여. 저는 무예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녹색 기사일 뿐입니다. 저는 불과 며칠 전부터 기사가 되었사오나, 그 동안 몇 차례의 전투에서 좋은 운을 거두었사오나, 아직 저는 붉은 땅의 붉은 기사와 같은 강적과 마주쳤을 때 제 운명이 어떠할지 알지 못하오이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니, 비록 제가 매우 어리고 무예에 미숙하오나, 이 여정에 대한 제 정신은 매우 강대하오이다.”

이에 레이요네스 부인이 이르되 “경이시여, 경의 이름은 무엇이며 경의 신분은 어떠하뇨?” 하니, 가레스 경이 이르되 “지금 그대를 그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 혈족(아직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겠음이라” 하더라. 이에 레이요네스 부인이 이르되 “이것은 매우 기이한 일이라. 아서왕께서 경의 이름도 없고 무공도 없는 기사를 보내어 나의 대리로 싸우게 하셨다니, 나는 크게 모욕을 느낀다” 하거늘, 가레스 경이 이르되 “부인, 그에게는 그럴 만한 연유가 있나이다” 하니라.

그때 레이요네스 부인이 이르되 “내 누이 리네트가 그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니 가레스 경이 이르되 “그렇사옵니다, 부인”이라. 부인이 이르되 “이 기사는 누구냐, 리네트여?” 하니 리네트가 대답하되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오나, 누이여, 오직 그가 내가 보아 온 모든 기사 중 가장 고결하고, 가장 위엄 있으며, 가장 가치 있는 자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사오니”라. 레이요네스 부인이 이르되 “그대가 그를

이같이 보증하거든, 그대의 선택에 따른 위험은 그대가 지라" 하니 리네트가 이르되 "그렇게 하옵소서"라.

〈각주: 레이오네스의 부인이 가레스 경에게 자신의 스카프를 주니라.〉

이에 레이요네스의 부인이 이르되, "기사여, 내가 너를 나의 시종으로 받노라." 하고는 서 있던 창문에서 금실로 수놓은 아름다운 녹색 사미트 천을 떨어뜨리니, 가레스 경이 이를 받아 들 때의 기쁨이 크여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터질 듯하였더라. 그가 이 천을 팔에 둘렀을 때에 그의 힘의 기운이 세 배나 불어난 듯하였더라.

*****

만약 당신이 가레스 경이 붉은 땅의 붉은 기사와의 일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자 한다면, 이어지는 글을 읽기를 청하노라. 거기에는 그 일이 곧바로 밝히어짐이라.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레이요네스 부인이 가레스 경의 천막에 오니라]

[일러스트레이션]

다섯 번째 장

붉은 땅의 붉은 기사와 싸운 가레스 경의 이야기, 그리고 그 전투에서의 여파. 또한 그의 난쟁이가 어떻게 납치되었고, 그의 이름과 신분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서술.

이제 가레스 경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레이오네스 부인의 스카프를 받자, 그는 린넷과 난쟁이를 데리고 전투가 치러질 것으로 정해진 천막 근처의 초원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붉은 땅의 붉은 기사가 전투에 모든 준비를 갖추었음을 발견하였다. 그는 피처럼 붉은 갑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으며, 손에는 피처럼 온통 붉은 큰 창을 들고 있었다. 그 창끝에는 또 다시 피처럼 붉은 작은 깃발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전투를 위해 준비된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처녀 린넷은 그녀에게 할당된 자리에서 서 있었다. 그 곁에는 난쟁이 아크사탈레즈가 그녀의 곁에서 시중들고 있었다. 또한 전투의 심판을 맡을 광장의 마르샬이 임명되어 있었는데, 각 기사들이 광장에 도착할 때마다 마르샬은 그들을 자신의 자리로 인도하였다. 그 자리란 서로의 기사들이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적절히 배치된 곳이었고, 또한 두 기사 중 어느 쪽도 햇빛이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전투에 적합하게 준비되고, 기사들이 각자의 자리를 취하며, 각기 모든 방면에서 달려야 할 코스를 준비하자, 원수장이 돌격의 신호를 외쳤더라. 이에 각기 기사들이 즉시 말에서 뛰어올라 서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우레 같은 발굽 소리와 함께 회오리바람처럼 서로를 향해 돌진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먼지 구름 속에서, 그리고 부

러진 나무의 끔찍한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서로를 맞이하니, 그 충돌에서 각기 기사는 그의 창을 조각조각 부서뜨렸으며, 그것을 쥐고 있던 손까지도 그러하더라. 또한 각기 서로에게 가한 타격이 그렇게 격렬하여, 두 말 모두 마치 무장한 기사가 아니라 단단한 바위에 부딪힌 것처럼 뒤로 비틀거리더라.

이에 각기 기사들은 흔들거리는 말에서 내리막을 내려 서고, 각각 칼을 뽑아 들었으며, 곧장 서로를 향해 달려들었으니, 그 열의가 마치 전쟁의 욕망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인 양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가장 극치이며 가장 무서운 격분으로 싸움을 시작하여, 날카롭게 내리치는 타격이 마치 쇠와 쇠가 부딪치는 소리가 끊임없이 우레처럼 울리는 듯하였더라.

〈각주: 가레스 경과 붉은 기사와의 전투에 대하여.〉

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싸우매, 육신의 피를 가진 어느 인간이든 서로가 가하는 타격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었노라. 자주자주 검이 제 자리를 찾아내어, 그 타격을 받은 기사의 갑옷 일부가 잘려 나가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라. 이 전투를 기록한 책에 이르되, 각 기사들의 갑옷은 잠시 사이에 여러 곳에서 벗겨져 살이 드러나기도 하였다고 하노라. 또한 그 책에는 가레스 경의 갑옷이 적의 갑옷과 마찬가지로 피로 물들어 붉게 물들었다고 전하노라. 같은 사연에 따르면, 그들은 견뎌낸 타격으로 인해 잠시 동안 어찌할 바를 몰라 혼란에 빠지기도 하여, 때로는 서로의 검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기도 하였다고 하

나, 그 사연에는 두 시간이 넘게 쉬지 않고 이러한 방식으로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노라.

그러나 그 전투가 장시간 이어졌으나, 차차 그들의 타격은 처음의 맹렬함에 비해 다소 흐려지고 약해졌으며, 각기 기사들은 약함과 피의 손실로 인해 때때로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마침내 붉은 땅의 붉은 기사는 가레스 경에게 외쳤다.

"기사여, 손을 멈추고 잠시 쉬자. 내가 보기에 우리 둘 다 지금처럼 싸운다면 이 결투를 끝까지 이어나갈 수 없음을 알노라."

붉은 기사의 이 말에 가레스 경은 손을 거두며 이르되,

"그리하오리다, 기사여. 당신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이때 그들은 잠시 싸움을 멈추고 흙으로 된 언덕에 앉아 쉬었더라. 한 시종이 붉은 땅의 붉은 기사에게 다가가 그의 투구를 벗겨냈고, 난쟁이 악사탈레즈는 가레스 경의 투구를 벗겨주었더라. 시종과 난쟁이는 각각 자신의 주인에게서 투구를 들어 올렸고, 두 사람은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칠 수 있는 곳에 앉아 있었더라.

그때 곧이어 가레스 경이 눈을 들어 보니, 앞서 말한 성의 높은 창가에 레이온네스 부인이 서 있고, 그와 함께 성의 주요 인물들이 몇 명 함께 서 있더라. 이에 가레스 경이 레이온네스 부인에게 인사를 드리니, 그녀가 그에게 인사하는 것을 보고는 매우 날카롭고 뾰족한 목소리로 외치더라. "슬프도다, 기사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의지할 이는

오직 당신뿐이니이다!" 이와 같이 그녀는 그 날카로운 목소리로 부르짖었고, 가레스 경은 그 먼 거리에서도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있었노라.

그리하여 그가 그 말을 듣자 그의 마음은 다시금 크게 뛰었고, 그의 정신은 가벼워졌노라. 이에 그는 소리쳐 외쳤노라. "적색 기사여, 다시 우리 싸움으로 돌아가자!"

이때 각 기사들은 다시금 투구를 썼고, 그 투구가 단단히 고정되자, 아락사탈레즈와 붉은 기사 소년은 곁으로 물러섰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금 맞붙었는데, 그들이 잠시 쉬어간 덕분에 기운이 크게 충만하였다.

그들이 한참 더 싸운 끝에, 잠시나마 휴전이 찾아왔다. 이때 가레스 경은 적수가 된 붉은 기사가 숨이 턱턱 막히며 가슴이 터질 듯이 고달픈 기색을 보자, 적에게 달려가 마지막 일격을 가해 이 전투를 종결하려 했다. 그러나 붉은 기사는 매우 신중하여 그 기습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가레스 경의 일격을 재빠르게 피해냈다. 이어 붉은 기사는 자신의 검을 휘두르며 가레스 경의 손을 강타했고, 그 타격으로 가레스 경의 검이 손에서 벗어나 들판의 풀잎 위로 떨어지고 말았다.

〈각주: _가레스 경이 쓰러져 큰 위기에 빠지니라._〉

그때 붉은 기사가 가레스 경에게로 달려들었다. 가레스 경은 그를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내리쳤다. 세 번째 타격으로 그의 투구에 내려친 순간, 가레스 경의 뇌수는 그 안에서 녹아내렸고, 그는 무릎을

꿇더니 이내 땅바닥으로 쓰러졌다. 서 있을 힘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붉은 기사가 가레스 경에게로 다시 달려들며 그를 제압하려 했다. 그는 가레스 경을 꼼짝 못하게 눌러 붙여, 마침내 그를 끝장내려던 것이었다. 가레스 경은 그를 떨쳐낼 힘이 없었다.

그러나 린넷이라는 낭자가 랜슬롯 경의 아들 가레스 경이 적의 아래에 엎드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날카롭고 뾰족한 목소리로 크게 비명을 지르며 외쳤노라. "슬프도다, 보우먼스여! 당신은 당신의 부인을 배반하는 것인가, 결국 너는 그저 부엌의 하인일 뿐이더냐?"

〈각주: 가레스 경이 적색 기사에게 승리하다.〉

이때 랜슬롯 경의 동료들 중 한 사람, 곧 가레스 경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으나 그 말소리를 들었더라. 그때 그의 몸에는 전과 같이 다시금 새로운 기운이 솟아났으니, 그는 몸을 일으켜 붉은 기사에게서 벗어나 그를 땅바닥에 던져 버렸노라.

가레스 경은 재빨리 일어나 풀밭 위에 놓인 그의 검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검을 집어 들고 붉은 기사에게 달려가서 무서운 일격을 가하였노라. 그는 다시 한 번, 또 다시 그를 치니, 네 번째 타격은 투구에 먹혀든 것이 매우 처참하여, 붉은 기사는 땅바닥에 쓰러져 다시는 일어날 수 없었노라.

그때 가레스 경은 붉은 기사 위에 엎드려 그를 땅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았노라. 그는 미세리코르디아를 뽑아 붉은 기사의 투구 끈을 베어 내고는, 그 투구를 붉은 기사의 머리에서 벗겨냈노라. 그리고 그는 미세리코르디아를 붉은 기사의 목구멍에 대었으니, 이때 붉은 기사는 마치 죽음이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을 보았노라.

그때 근처에 있던 모든 이들이 달려와 두 기사가 누운 곳으로 나아갔으며,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쳐 랜슬롯 경에게 이르되, "기사여! 기사여! 우리의 챔피언인 기사를 살려주시고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하였더라. 붉은 기사도 매우 희미하고 약한 목소리로 이르되, "기사여, 제 목숨을 살려주소서!"라고 하였더라.

그때 가레스 경이 외쳐 이르되, "나는 이 기사가 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는 한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그 기사가 이르되, "저는 복종하오이다." 이에 가레스 경이 이르되, "아직도 나는 이 기사의 생명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저 낭자가 내 손에서 그의 생명을 구걸할 때에야 용서하리라."

〈각주: 린넷이 붉은 기사에게 생명을 구걸하다.〉

그때 린넷이 여전히 적을 제압하고 있던 가레스 경 곁으로 다가가, 눈물을 쏟아내며 이렇게 호소하였다.

"용감한 보메인스 경이시여, 힘만 세실 뿐 아니라 자비로우시니, 이 선량하고 존귀한 기사의 목숨을 살려주소서."

가레스 경이 이르되, "네 청을 들어주리라."

〈각주: 가레스 경이 적색 기사에게 명령을 내리니라.〉

이때 가레스 경은 몸을 일으켜 서고, 붉은 갑옷의 기사 또한 일어섰다. 그들의 싸움이 이처럼 치열하였기에, 두 기사는 곁에 서 있던 자들의 부축을 받아야 비로소 제 자리에 설 수 있었더라.

그때 붉은 갑옷의 기사가 매우 약하고 기운 없는 목소리로 이르되, "고귀한 기사여, 나를 대하는 당신의 명은 어떠하뇨?" 하니, 가레스 경이 이르되, "나의 명은 이러하니라. 네 상처가 sufficiently 낫거든, 너와 네 모든 종자들은 이 곳을 떠나 아서왕의 궁정으로 향하라. 그리고 네가 아서왕에게 아뢰되, 부엌 종자 보아메인(Beaumains)이 네게 네 충성을 바치라 명하였노라 하라.

또한 네가 다른 기사들을 모욕하였으니, 곧 그들의 방패와 말을 빼앗아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이와 같이 네 또한 모욕을 당하리라. 내가 명하노니, 네 방패는 네게서 빼앗겨, 내가 너를 격파한 것처럼 네가 격파한 기사들의 방패를 걸어둔 버드나무 가지 중 하나에 걸리리라. 또한 네 말과 갑옷은 네게서 빼앗겨, 네가 전투에서 이긴 기사들이 걸어가게 한 것과 같이, 너 또한 아서왕의 궁정으로 걸어가리라."

이에 붉은 기사羞愧로 머리를 깊이 숙이며 이르되, "이것은 참으로 엄중한 처지라 하오나, 내가 남에게 재단한 바와 같이 내게도 그대로 갚음을 받았사오니, 경이 명하시는 바는 모든 방편으로 행하리이다."

이에 린넷이 랜슬롯 경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자기 입술에 대니, 그때까지도 그녀는 눈물을 그치지 않고 있었다. 이때 랜슬롯 경이

그녀를 향해 미소 지으며 이르시되, “하! 린넷, 내가 잘하였느냐?” 하니, 린넷은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못한 채 흐느끼며 대답하되, “예, 영주여.”라 하더라.

그리고 곧이어 그녀가 아뢰되, “비옵건대 영주여, 저의 누이의 성채로 저와 함께 가시사, 거기서 영접을 받으시며 상처를 살피고 치료받으소서.”

이때 가레스 경이 이르되 “그르지 아니하니이다, 리네트여. 보라, 나는 심히 상하여 피와 먼지와 전투의 땀으로 온몸이 더러워졌노라. 그러므로 내가 가장 아름다운 그대 자매의 앞에 나아갈 제, 먼저 쉬며 몸을 깨끗이 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밤 나는 이 붉은 기사막에 머물며 내 상처를 치료하고 힘을 회복하리라. 그리하여 내일 아침 그대 자매의 앞에 나아가리라.”

〈각주: 가레스 경은 붉은 기사들의 천막에 머무르니라.〉

그리하여 랜슬롯 경이 원하신 대로 일이 치러졌으니, 그 밤 그는 붉은 기사(Red Knight)의 천막에 머물렀기 때문이라. 그는 목욕하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여 피로를 풀었고, 명약수(skilled leech)가 찾아와 그의 상처를 치료하였더라. 붉은 땅의 붉은 기사는 시라 가레스 경의 휴식을 방해받지 않게 하려, 천막 주위에 몇몇 기사들을 경비로 배치하였더라.

* * * * *

이제 앞서 예언된 그 전투가 있은 뒤, 린넷이라는 처녀는 자신의 자매가 있는 성으로 향하였다. 그녀가 성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의 귀환을 기뻐하는 큰 환호가 울려 퍼졌다. 그녀를 처음 맞은 자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네 자매가 너를 기다리노라. 그녀는 탑의 한 방에 있나니, 그곳이 그녀의 침실이라.” 하니, 린넷이 이르되, “내가 그곳으로 가리라.”

그리하여 그녀는 그 곳으로 가서 호수의 부인 레이요네스와 그의 형제인 그링amore 경을 함께 발견하였더라. 린넷은 곧장 자매에게 달려가 그녀를 안고 입을 맞추며 이르되, “평안하기를, 나의 자매여. 내가 데려온 이 기사가 당신을 적으로부터 해방시켰으니 기뻐하소서.”

레이요네스의 부인이 이르되, "그 기사는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그를 데리고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에게 감사를 표하려 함이니라."

린넷이 이에 대답하되, “자매여, 그분은 싸움에서 크게 다치셨노라. 또한 전장의 피와 먼지로 인해 더럽히심을 입으셨으므로, 지금 여기로 오시기를 원치 않으시며, 내일 아침까지 붉은 기사의 천막에 머무르시리라.”

〈각주: 리네트가 자매에게 가레스 경에 관하여 말하더라.〉

이때 레이요네스 부인이 이르되 “나에게 이리하여 억압자로부터 구원을 베푼 이 시련의 전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 주시오” 하거늘, 린넷이 이르되 “그가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하오나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나이다. 아서왕의 궁정에서는 내가 왕의 앞모인 법정에 당

신의 이름과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느 기사도 이 모험을 맡으려 하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때에 한 청년이 일어났는데 케이 경은 그를 크게 조롱하며 그를 부엌의 하인이라 일컫는 보우메인이라 하였거늘, 그 청년은 그 말을 부인하지 아니하였사오며, 아서왕은 그에게 나와 함께 이 소임을 맡게 하시니, 그 청년이 그대로 행하였사오며, 우리가 함께 여행하였사오며, 나는 매우 분하여 생각하되 아서왕이 나를 위하여 훌륭한 기사 대신 부엌 하인을 시련의 전사로 주셨다고 생각하였사오며, 그리하여 보우메인을 크게 조롱하였거늘, 그는 항상 나의 모든 조롱을 매우 인내심 있고 정중한 말로 갚았사오며, 그리하여 그가 여기까지 나를 따랐사오며, 이제 그가 바로 방금 당신의 적을 무너뜨린 그 전사이오" 하더라.

그때 레이요네스 부인이 소리쳐 외쳤노라. "이 젊은 기사가 부엌 하인이라 한들 무엇이 중요하리요? 보라, 그는 나의 대장이요,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졌노라. 그러므로 그가 나를 위해 그 싸움을 치렀으니, 나는 그를 일으켜 내 곁에 앉히려니와, 나의 모든 영예가 그의 영예가 되리라. 그가 지금 비천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여기 있는 너희 모두의 머리 위까지 높여주리라."

〈각주: 리넷이 비오먼스를 변호하다.〉

이렇게 말하되 레이온네스 부인이라, 이에 린넷이 크게 웃으며 즐거워하더라. 그 웃음을 그치고 나서 이르되, "누나여, 내가 생각하건대 당신이 이 젊은 기사의 등을 들어 올릴 필요는 없으리라. 우리가 그의 진정한 신분을 알게 된다면, 오히려 당신이 그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신을 높일 자임을 발견하게 될지 모르노라. 이 원수(원수)는 그가 내세우는 부엌 하인 따위가 아니라, 실로 큰 가치와 높은 지위를 지닌 자임이 분명하노라.

수 일 동안 내가 이 기사의 인내를 시험하였거늘, 그토록 시험받은 자는 없었으리라 믿노라. 비록 내가 그를 심히 시험하였으나, 그는 언제나 나에게 지극히 인내심 있고 온유하더라. 부엌 하인이 그토록 인내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기사가 여섯 번의 전투를 치르는 것을 보았노라. 그의 거룩함과 용기는 어떠하였는가? 만일 그가 아서왕의 원탁 기사 중 노련한 베테랑이었다면, 그보다 더 고귀하고 값진 자임을 증명하기 어려웠으리라. 오늘 당신은 그가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기사 중 한 명인 붉은 기사와 싸우는 것을 보았노라. 그는 결코 이전에 패배한 적이 없었노라. 당신은 그가 상처를 입고 죽음의 위기를 겪는 것을 보았노라. 그렇다면 당신이 보았던 그와 같은 전투를 부엌 하인이 치를 수 있겠는가?

아니, 누나여. 오히려 이 젊은 기사는 지극히 높고 귀한 신분의 자라."

그때 그링모어 경이 말하되 이르되 "린넷이 옳게 말하노라, 내 자매여. 진실로 나는 이것이 부엌 종자가 아니라, 참된 기사들의 혈통에서 나온 자라 믿노라. 이제 이르노니, 린넷이여, 이 기사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느냐?" 하니, 린넷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니, 아는 자가 있으니 곧 난쟁이 아크사탈레시라. 그는 이 기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

줄 수 있나니, 이는 그가 이 기사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오랫동안 따라 다노왔기 때문이라."

그때 에커 경의 아들인 가레스 경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곧 이렇게 말하더라. "내 생각에, 이 난쟁이를 데려오는 것이 필요하도다. 오직 그를 통해서만 그 기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노라. 이제 너와 나, 그리고 린넷이 그 천막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자. 너는 그 기사의 천막으로 가서 난쟁이를 그곳에서 데려오라. 그가 네 명령에는 따를 것이니 나는 의심하지 않노라. 한편, 네가 그 난쟁이를 찾는 동안 나는 어딘가 숨겨진 곳에 숨어 있겠노라. 네가 그를 내게 충분히 가까이 데려오면, 나는 그를 향해 뛰쳐나와 그를 사로잡으리라. 그리하여 그를 이곳으로 데려오면, 그 기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것이 거의 없으리라."

이와 같이 시 그링모어 경이 말한 대로 행하였으니, 그는 낭자 리네트와 함께 천막들이 있는 곳 근처에 있는 울타리가 있는 곳으로 갔기 때문이라. 시 그링모어는 울타리 뒤에 숨어 있다가, 자신이 숨은 뒤에는 리네트가 홀로 레드 나이트의 천막, 곧 시 가레스가 머무는 곳으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그들은 모두 잠들었으니, 천막을 에워싸고 경계를 서던 자들까지도 예외가 아니었더라. 그리하여 리네트는 그들 사이를 지나갔으나 아무도 그녀를 듣지 못하였노라. 리네트는 시 가레스가 머무는 천막에 이르러 문 휘장을 들어 올리고 안을 들여다보았으니, 시 가레스는 곁에 아주 희미하게 타오르는 등불 하나를 두고 소파 위에 누워 잠들어

있었더라. 또한 리네트는 천막 문 근처에서 작은 용사 아크사탈레즈도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노라.

그때 린넷이 매우 조용히 파빌리온 안으로 들어와, 어깨를 두드려 액사탈레즈를 깨웠다. 그러자 액사탈레즈는 그 곳에 처녀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으나, 린넷은 손가락을 입에 대고 매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말하지 마시오, 액사탈레즈. 나를 따르시오." 이에 액사탈레즈는 그대로 따랐다.

그 처녀는 액사탈레스를 천막 밖으로 이끌어 내었고, 그는 묵묵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그를 다른 천막들을 지나게 하였으나, 그는 여전히 침묵하며 그녀를 따랐고, 그들의 행로를 막는 자는 아무도 없었더라. 액사탈레스는 린넷을 따라갔고, 린넷은 그를 인도하여 천막들이 있던 들판을 벗어나, 근처의 한 곳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가웨인 경이 장미나무 덤불 뒤에 숨어 있던 곳과 가까웠더라.

액사탈레스가 그 장소에 매우 가까이 다다랐을 때, 가웨인 경은 갑자기 덤불에서 뛰쳐나와 그를 사로잡았더라. 액사탈레스는 목청을 높여 매우 크고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였으나, 곧이어 가웨인 경은 그 야수의 입에 손을 얹어 그를 침묵시켰더라. 가웨인 경은 미세라코르디아(단검)를 빼들고 액사탈레스의 목에 대고 이르되, "놈, 살려거든 침묵하라."

그때 액사탈레스는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완전히 고요해졌더라. 가웨인 경은 액사탈레스의 입에서 손을 떼었으나, 액사탈레스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르는 것을 두려워하여 입을 다물었더라.

〈각주: 그들이 아락사레즈를 성채로 데려오니라.〉

그 후 그리그모어 경과 리네트는 아크사탈레즈를 성으로 모셔들였고, 성 안으로 그를 이끌고 들어갔다. 그들은 그를 호수의 부인 레이요네스가 그들의 도착을 기다리던 곳으로 데려갔다. 그들이 무사히 그 곳에 도착하자, 그리그모어 경은 아크사탈레즈에게 이르되, "너 왜소한 자여, 네 주인인 그 기사와 그의 신분을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아크사탈레즈가 외쳐 이르되, "슬프도다, 주군, 저를 해치지 마옵소서." 그리그모어 경이 이르되, "너에게 해가 끼치지는 않으니, 내가 명하는 대로 말하여라. 네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라."

〈각주: 아사탈레스가 가레스 경에 대하여 말하더라.〉

이에 아크사탈레스는 두려움에 떨며 이르되, "아름다운 경이시여, 제 주군 되신 기사는 가레스 경이라 칭하오며, 그는 오크니의 왕 롯과 아서왕의 자매인 마르가이 여왕의 아들이라 하오니, 그로 인하여 그는 고결하고 위대한 영웅들이신 가웨인 경과 가헤리스 경의 친형제요, 오크니의 모드레드 경의 아우라 하오이다."

이때 린넷은 아크사탈레가 한 말을 듣고 양손을 힘껏 치며 크게 외쳤노라. "내가 그러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이 자가 부엌의 하인이 아님을 알았노라. 그는 실로 고귀하고 존경할 만한 기사라. 과연 그러하도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자가 있으니, 이는 그분께서라. 내 자매여, 기뻐하라. 이는 실로 네게 내린 큰 영예라. 이는 너를 곤경에서 구원해 줄 만한 매우 존경할 만한 시련자라."

레이요네스 부인이 이르되 “자매여, 실로 나는 기뻐하노라. 그 기쁨은 헤아릴 수 없이 크도다.” 하고는 그리ngamore 경을 돌아보며 이르되 “내 형제여, 서둘러 이 고결한 기사에게로 가자. 그의 지위에 합당한 감사의 뜻을 전하리라.”

“아니오,” 그링아모어 경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말자. 차라리 내일까지 기다려서 그가 오늘 전투의 피로를 완전히 풀게 하라. 그사이 나는 이 난쟁이를 우리가 데려온 곳으로 돌려보내겠노라. 내일 우리가 가레스 경에게 마땅한 예우를 다하리라.”

〈각주: 그링모어 경이 가레스 경에게 정성을 바치더라.〉

그리하여 그 일은 경 그링모어가 정하신 대로 이루어졌노라. 그는 우선 아크사탈레스를 천막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데려갔고, 이후 그들은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렸노라. 아침이 이르자 경 그링모어와 레이요네스 부인, 그리고 린넷이 천막들이 있는 곳과 가웨인 경의 천막으로 내려갔노라. 레이요네스 부인과 낭자 린넷은 천막 밖에서 기다렸고, 경 그링모어는 그 안으로 들어갔노라. 경 그링모어는 가웨인 경이 누워계신 곳으로 다가가 그를 향해 인사하며 이르되, “평안하시길, 오크니의 가웨인 경.”

그때 가레스 경은 크게 놀라 이르되 “어찌하여 나의 이름과 신분을 아시오이까, 경?” 하니, 그링amore 경이 이르되 “경이시여, 나의 누이인 낭자 리네트와 내가 어젯밤 당신의 난쟁이를 사로잡아 그의 성으로 데려갔사옵나이다. 거기서 우리는 그에게 경께서 누구이신지 말하게 하였고, 그리하여 경의 이름과 신분을 알게 되었나이다.” 하고, 그링

amore 경이 다시 이르되 “가레스 경이시여, 경께서 나의 누이인 레이요네스 부인을 위해 대항자가 되시려 이 곳으로 오시어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를 헤아릴 수 없이 기뻐하나이다. 이제 경께서 허락하시거든 그녀가 경과 말씀드리리니, 그녀는 지금 천막 문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가레스 경이 이르되 “그녀를 들이게 하시오. 내가 그녀를 가까이서 보고 싶사옵니다.”

〈각주: 레이오네스의 부인이 가레스 경에게 오니라.〉

이에 가레스 경은 천막 밖으로 나가 곧장 돌아왔으니, 그와 함께 레이온네스 부인과 린넷이 동행하였더라. 레이온네스 부인이 다가와 가레스 경이 누워 있는 침상 곁에 무릎을 꿇고 앉으니, 가레스 경이 가까이서 그녀의 얼굴을 보니, 그 아름다움은 그가 앞서 캐슬 데인저러스의 높은 창문 너머로 멀리서 보았을 때 짐작했던 것보다 열 배는 더 아름다웠더라. 가레스 경은 그 순간부터 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그의 사랑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였더라.

그 날 그들은 랜슬롯 경을 지팡이 의자에 태워 성으로 모셨고, 랜슬롯 경은 성에서 사흘 밤 낮을 머무르며 적 기사와의 전투에서 입은 상처들이 온전히 낫기를 기다렸노라.

그리고 랜슬롯 경의 동생인 가레스 경은 레이온네스 부인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 또한 그에게 같은 마음으로 답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항상 함께 있었고, 모든 이들이 말하길, 하늘이 이 땅에 보낸 그 어떤 두 젊은 존재보다 더 아름다운 이들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이보름이 끝날 무렵, 가레스 경이 이르되, “이제 나는 아서왕의 궁전으로 돌아가 형제들에게 내 정체를 밝히리라. 내가 붉은 땅의 붉은 기사의 패배를 성취하여 이 모험을 완수하였으니, 비록 형제들 앞에서도 내 이름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믿노라.”

이때 가레스 경이 이같이 말하니, 레이오네스 부인이 이에 대답하여 이르되, “경, 왕의 궁전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참으로 마땅하옵니다. 그러나 경이 가실 때에, 제 아우인 그링모어 경과 제 누이 리네트, 그리고 저 자신까지도 경과 함께 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혼자 떠나셨던 경이 경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동료들을 거느리고 돌아오시게 되리이다.”

레이오네스 부인이 이같이 말한 것은, 이때쯤에는 그녀가 가레스 경과 단 몇 날 몇 밤의 짧은 이별조차 견딜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더라.

〈각주: _그들 모두 왕의 궁궐로 떠난다._〉

이에 그녀는 말한 대로 행하여졌고, 곧장 떠날 준비가 갖추어졌더라. 그러므로 다음 날 그들은 잠시 동안 위험한 성을 떠나, 상당한 기사와 시종, 그리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당시 아서왕이 머무르고 있던 카를레온의 왕궁으로 향하였더라.

* * * * *

이제 다른 이들이 그 곳에 도착하기 전에, 아서왕의 궁정으로 돌아가자. 그리하여 주방 하인인 보우먼스가 떠난 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보게 되리라.

이제 케이 경이 범보메인을 쫓아 그를 쓰러뜨리려 떠난 일과, 회색 노새를 타고 궁정으로 돌아온 일, 그리고 그에게 닥친 불행으로 인해 그가 온갖 조롱과 웃음거리가 된 일은 이미 말씀드렸다.

그 후 닷새가 지나고, 그 시점 끝에 퍼아드 경이 궁정에 이르러 전하되, 케이 경이 그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명하셨노라 하였으니, 곧 부엌 종자 보아메인스가 그와 싸워 이기고, 그에게 왕께 예물을 바치러 오라고 보냈노라 하였더라.

〈각주: 여러 기사들이 예의를 갖추는 일.〉

이에 아서왕이 이르시되, "하늘을 두고 맹세하노니, 퍼드 경처럼 용감하고 기개 넘치는 기사를 이겨낸 자가 어찌 단순한 부엌 하인이라 하리오? 이는 결코 부엌 하인이 아니라, 오랜 세월 우리 가운데 하인의 체취를 뒤집어쓰고 정체를 숨겨온, 참으로 영웅적 혈통을 지닌 젊은이가 분명하도다."

이렇게 왕이 말씀하시니, 가웨인 경이 대답하되, "주군, 왕께서 이르신 바가 실로 옳은 말씀임이 마땅히 믿어지나이다."

그 후 두 날이 지나 퍼아드 경이 그와 같이 캐를론에 도착한 뒤, 가웨인 경이 여섯 도적로부터 구원한 그 기사가 그곳에 이르렀노라. 그는 많은 수의 시종들과 하인들을 거느리고 왔으며, 또한 가웨인 경의 그 이후 행적들을 전하였노라. 캐를론에 있는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 왕과 궁중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워하며 찬사를 보내었노라. 비오만

스가 그토록 놀라운 전사가 되어, 자신에 대해 전해지는 일들을 성취해 냈다는 사실에 모두 감탄하였노라.

그 후 일주가 지나고, 그 시점 끝에 힌드의 퍼시반트 경이 많은 기사들과 시종들을 거느리고 찾아왔더라. 그 역시 퍼아드 경이 전했던 바로 그 말을 전하였으니, 즉 부엌 하인인 보메인스가 전투에서 그를 물리치고, 그에게 국왕의 궁정에 나아가 국왕께 예를 갖추라고 보냈다는 것이었다. 이때 아서왕과 그의 궁정 전체는 부엌 하인이 그러한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대해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알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보름이 지나갔고, 그 시기가 다다랐을 때 붉은 땅의 붉은 기사(Red Knight of the Red Lands)가 이르렀노라. 그는 발로 걸어가며 방패나 갑옷을 두르지 않았으나, 그의 뒤를 따르는 기사들과 기사의 아들들(escquires)의 무리는 퍼시벌 경이 데리고 온 것보다 더 컸더라.

그 또한 아서왕께 같은 소식을 전하였노라. 곧 부엌종자 보아메인(Beaumains)이 그를 물리쳤고, 왕께 공물을 바치기 위해 그에게 보내졌다는 것이었노라. 그리고 이 외에도 그는 다른 이들이 전하지 않았던 보아메인에 관한 많은 일들을 왕께 아뢰었노라. 곧 보아메인이 위험한 성(Castle Dangerous)의 모험을 훌륭하게 끝마쳤다는 것과, 그가 지금 바로 그란데가르드의 레이요네스 부인(Lady Layonnesse of Granderegard)의 성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었노라.

이때 아서왕과 그 궁중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듣고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이 놀라운 젊은 기사가 누구인지 깊이 의아해하더라.

〈각주: 마르세 여왕이 궁정에 오시니라.〉

이제 붉은 땅의 붉은 기사라 일컬어지던 자가 카를레온에 이르러 예언된 바와 같이 지낸 날 이튿날, 왕의 궁정에 한 전령이 이르러 왕께 보고하더라. 전령은 오르니의 마르제이 여왕께서 지금 곧 왕을 뵈러 오고계신다는 소식을 전하였노라.

그때 아서왕은 자매가 그곳으로 올 줄 알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신의 친족 중 누구보다도 그녀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튿날이 지나 그 다음 날이 이르렀을 때, 마르가이즈 왕후는 그가 약속하였던 바대로 왕의 궁정에 도착하였더라. 왕과 궁중의 사람들은 그녀에게 왕가의 예우로 영접하였더라.

그때 마르제 여왕이 사방을 두루 둘러보며, 얼마 뒤 이르되 "내가 일년 전에 저쪽으로 보낸 내 아들 가레스는 어디 있느냐?" 하니

그때 아서왕은 크게 놀라 잠시 동안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알지 못하더니, 마침내 이르시되 "나에게 가레스라는 자는 없노라" 하시니라

〈각주: 마르제이 여왕이 가레스 경을 위해 슬퍼하더라.〉

이때 마르세 여왕은 크게 근심에 빠졌으니, 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녀의 얼굴색이 여러 차례 변했고,

여러 차례 말을 시도했으나 입이 열리지 아니하더라. 마침내 그녀는 입을 열어 이르되, “만약 그에게 해가 끼쳤다면, 이는 참으로 불행이라. 진실로 그는 내 자손 중 가장 아름다운 꽃이니라.”

그때 아서왕이 문득 비오먼스를 생각하며 이르시되, “공주여, 마음을 굳게 먹고 고개를 들라. 네 아들에게는 해가 아니라 큰 영예가 있었음이 틀림없노라. 일러보라, 그가 작년 성령강림절 무렵 여기로 왔던가?”

구이니비어 공주가 대답하되, “그렇사옵니다.”

이에 아서왕이 이르시되, “네 아들이 얼굴이 아름다웠던가? 붉은 머리를 가졌던가?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했던가? 또한 엑사타레즈라는 이름의 난쟁이가 그와 함께 있었던가?”

공주가 대답하되, “그가 맞사옵니다.”

아서왕이 이르시되, “그가 이곳에 있었노라. 그러나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하였노라.”

공주가 묻되,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이까?”

이때 아서왕은 자신의 누나인 마르가스 왕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일러주시니라. 그는 가웨인이 어떻게 그곳에 이르렀으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전하셨고, 또한 그의 손이 희었기에 비우먼스라는 이름으로 그 일 년 내내 궁중에서 정체를 숨기고 지냈음을 말씀하셨노라. 또 비우먼스가 그 위험한 성으로 향하여 그 모험에 나섰던 일과, 마침

내 그 모험을 성취하였던 일을 전하셨으며, 여기에 기록된 그 밖의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하나 일러주시니라. 마르가스 왕비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되, 끝내 그의 말을 끊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아서왕이 그 이야기를 마치자 왕후는 크게 노하여 이르시되, “내 형제여, 비록 그가 당신에게 말한 대로 초록빛 옷을 입고 있더래도, 그리고 당신에게 청한 것이 음식과 마실 것과 잠자리 외에는 없었더래도, 너는 내 아들이 고귀한 신분의 사람임을 알았어야 했노라. 진실로 그의 거동에는 이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해주는 무언가가 항상 서려 있었노라.”

〈각주: 아서왕은 마르가이즈 여왕을 달래노라.〉

이때 아서왕이 매우 온화한 어조로 이르시되, “내 자매여, 어찌하여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봄만으로 그의 이름과 신분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이 청년에게 고귀하고 존귀한 기상이 있음을 보았기에, 그가 이토록 영광스럽게 성취한 이 모험을 수행하도록 허락하였노라.”

이와 같이 아서왕이 말씀하시되, 마르그이즈 왕비는 아직 진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더라. 그러나 마침내 그녀는 평정을 찾았으니라.

이때로부터 이틀쯤 후, 아서왕은 가웨인과 가헤리스 경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고귀한 기사들과 신하들로 구성된 정중한 호위를 거느리고 나가, 너희의 형제를 찾아 내 궁정으로 데려오라. 그 기사에게 마

땅히 주어질 만한 모든 왕성한 예우를 다하여 그를 모시라. 진실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기사가 함께한다는 것은 큰 영예가 될 것이니라."

이에 가웨인 경과 가헤리스 경은 아서왕이 그들의 아우를 이처럼 총애하시니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왕의 명을 성실히 수행하여, 가능한 한 가장 고귀한 궁정을 그들을 위해 마련하고, 왕이 명하신 대로 그 여정에 올랐노라.

〈각주: 가웨인 경과 가헤리스 경이 가레스 경을 찾으러 떠남.〉

그들이 하루 종일, 그리고 이튿날의 일부까지 여행을 계속하던 중, 그 이튿날 오후 무렵에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기마대의 일행을 목격하였다. 그 아름다운 행렬에는 많은 시종들과 하인들이 따랐으며, 그들은 금단포와 수많은 보석, 그리고 빛나는 갑주로 빛나고 있어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가웨인 경과 가헤리스 경은 그 고귀한 일행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였다. 그 일행이 더 가까워지자 두 형제는 그 선두에 갑주를 입은 두 명의 기사와 능마를 탄 두 명의 공녀가 있음을 알아차렸고, 두 공녀가 매우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 일행이 더 가까이 오자 가웨인 경과 가헤리스 경은 그 공녀들과 함께 기마를 몰고 있는 두 기사 중 한 명이 바로 그들이 이전에 "보메인"이라 부르던 자임을, 그리고 한 공녀가 바로 얼마 전 궁정에 찾아왔던 린넷 공녀임을 알아차렸다.

〈각주: _그들은 길에서 가레스 경을 만나니라._〉

이때 가웨인 경과 가헤리스 경이 그 무리 맨 앞에서 형제인 가레스 경을 보자, 즉시 말에 채찍을 가하며 최대한의 속도로 그를 향해 돌진하였더라. 그들이 가레스 경이 있는 곳에 다다르자, 말에서 뛰어 내려 그를 향해 달려가며 크게 소리쳐 부르되 "형제여, 형제여!" 하였더라. 이에 가레스 경도 말에서 뛰어 내려 그들을 향해 달려가니, 그들은 고갯길에서 서로 입맞추고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더라.

이와 같이 랜슬롯 경의 두 형제요 고결한 기사들이 그에게 인정을 표하므로, 그의 친족들이 그를 맞아 기쁨으로 맞이하였더라.

* * * * *

〈각주: 가레스 경이 원탁의 기사가 되니라.〉

이제 말해야 할 일은 겨우 몇 가지로 남았노라. 서 가레스가 궁정에 모셔질 때 그 기쁨이 어떠했는지는 너희도 잘 짐작하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때 원탁의 한 자리, 호수의 랜슬롯 경의 자리 곁에 금글자로 된 이름이 갑자기 나타나었노라.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오크니의 가레스

그때부터 가레스 경은 원탁의 기사가 되었으니, 이는 그와 같은 고귀하고 존귀한 동맹에 선출되는 자들에게 흔히 있던 기적적인 방식에 따라 선출되었음이라.

그리고 일러야 할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레스 경이 레이오네스 부인과 큰 장엄함으로 결혼하였고, 이후 그는 그녀와 함께 이제 그의 영지가 된 데인저어스 성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 후세에 가레스 경은 원탁의 기사들 중 가장 유명한 기사 중 한 사람이 되어, 수많은 기사도 서적에 그의 일화가 많이 기록되기에 이르렀노라. 그러나 이 지점에서 그의 모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이 뒤에 이어질 다른 책에서 그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가 언급될지라도. 다만 분명히 말하건대, 이것이 그에게 일어난 가장 유명한 모험들이며, 가레스와 리네트의 역사는 이야기와 발라드, 시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고 노래되는 하나이니라.

* * * * *

이로써 오크니의 가레스 경의 이야기가 끝나니, 이는 그가 행한 기개 넘치는 모험이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더라도 들려줄 만한 훌륭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요, 또 그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랜슬롯 경과 싸워 그에게 기사 작위를 받았던 그 시기가, 그가 코르빈의 벌레의 모험을 성취하기 전까지 아서왕의 궁정에서 그 누구에게도 랜슬롯 경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유일한 시기였기 때문이라.

이후의 서술은 코르빈의 벌레에 관한 모험과, 랜슬롯 경이 그 용사를 물리치고 갤러해드 경의 어머니이신 고운 엘레인 부인과 인연을 맺게 된 일을 다룬다. 갤러해드 경은 모든 기사도 가운데 가장 빛나는 꽃이니라.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랜슬롯 경의 역사 중 그 일들과 관련된 부분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뒤에 기록된 바를 읽어야 하리라.

[그림]

제삼부

랜슬롯 경과 아름다운 엘레인의 이야기

여기서부터는 랜슬롯 경의 방랑과 그가 코르빈의 마을에 이르게 된 일, 그리고 오랫동안 코르빈 백성들에게 슬픔과 죽음을 안겨 주었던 코르빈의 거대한 벌레를 랜슬롯 경이 처단한 일을 기록하노라. 또한 여기에서는 코르빈의 왕의 딸인 아리따운 엘레인의 이야기와, 그녀를 위해 랜슬롯 경이 아스토랏에서 열린 시합에 참가하여 싸웠던 일을 읽을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은 일들과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 적절히 기록되었으니, 장차 이어질 이야기를 읽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연에서 큰 즐거움과 흥미를 찾으실 것이라 믿노라.

[그림: 랜슬롯 경이 즐거운 광대들과 담소를 나누시는 모습]

[일러스트레이션]

제1장

랜슬롯 경이 방랑의 길을 떠났고, 코르빈의 벌레의 모험을 스스로 떠맡게 된 이야기

이제부터 랜슬롯 경이 가웨인 경과 싸우고 그를 기사로 임명한 후의 일을 들려주리라. 이는 가웨인 경의 역사에서 이미 서술된 바와 같으니라.

* * * * *

너희는 알지니, 랜슬롯 경이 가레스 경을 떠난 후 그가 매우 기쁜 마음으로 길을 갔노라. 여러 번 그는 린넷이라는 낭자가 가레스 경을 부엌 하인으로 착각했던 일을 생각하며, 그 훌륭한 장난에 대해 큰 기쁨으로 웃었노라.

〈각주: 랜슬롯 경이 방랑 기사로 나섰노라.〉

이때 랜슬롯 경은 기쁨에 넘치는 마음으로 길을 재촉하여 나아가니, 해는 서서히 저물어 갔더라. 얼마 후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어 지고, 황혼의 고요함이 온 땅을 부드러운 베일로 덮으며 내려앉았더라. 어둠이 내리고, 땅은 여기저기 그림자로 변하여 갔으며, 모든 소리는 매우 또렷하고 크게 들리니, 머리 위를 아치처럼 감싸고 있던 빛나는 하늘이 거대한 수정 종처럼 모든 갑작스러운 소리를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되울리는 듯하였더라. 이때 랜슬롯 경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셨으나, 자신의 몸을 위한 양식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시더라.

〈각주: 랜슬롯 경이 떠돌이 악사들을 만나다.〉

식사와 음료를 생각하던 그는, 해질 무렵의 회색빛 어스름 속에 불빛이 비치는 것을 곧장 알아차렸고, 그 빛을 향해 그의 발길을 돌렸다.

그리하여 작은 골짜기를 지나자, 그는 그곳에서 밝고 즐거운 불빛을 둘러싸고 한 무리의 떠돌이 광대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들 중 일부는 푸른 옷을 입고 있었고, 어떤 이는 노란 옷을, 또 어떤 이는 붉은 옷을, 그리고 어떤 이는 초록 옷을 입었으며, 어떤 이는 여러 빛깔이 섞인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양고기 렌틸콩 스튜를 양념한 양파의 향긋한 맛을 큰 입맛으로 먹으며, 그 음식을 큰 배를 가진 가죽 부대로부터 수시로 쏟아내는 거친 맥주와 와인으로 목을 축이고 있었다.

이들 즐거운 사내들은 황혼 속을 지나 랜슬롯 경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환호하며 그를 맞이하고, 말에서 내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를 청하니, 랜슬롯 경은 이를 기꺼이 승낙하셨더라.

이에 그는 말에서 내려 그 말의 안장을 벗겨 내고, 말은 길가 풀밭에서 마음대로 풀을 뜯게 풀어 놓았노라. 그리고 그는 방패와 창과 검과 투구를 벗어 던지고, 그 악사들과 함께 앉아 힘껏 먹고 마시니, 악사들은 그에게 기운을 내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라 권하거늘, 랜슬롯 경은 그 말대로 하였더라.

〈각주: _악사들이 노래를 부른다._〉

그때 랜슬롯 경과 악사들이 배부르게 식사를 마친 후, 그 거친 사내들은 또 다른 술가죽 부대를 가져와 여러 잔과 주전자를 가득 채우니, 모두들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더라. 그리고 악사들 중 몇몇은 류트를 가져오고, 또 다른 이들은 비올을 가져와서, 곧장 수석 악사가 한 사람을 불러내어 노래를 부르라 하니, 그 사내가 일어나서 연인의 눈을 찬미하는 론델을 노래하였더라. 그 후, 또 다른 이는 전투에 대해 노래

하고, 여전히 또 다른 이는 즐거운 삶을 찬미하며 노래하니, 그 사이 다른 이들은 류트와 비올로 노래하는 이들을 반주하였으며, 랜슬롯 경은 그 음악을 큰 기쁨으로 들었더라.

그들 주변에는 달빛이 내리쬐는 밤의 깊은 고요함이 드리워져 있었으나, 그 한가운데에는 붉은 불꽃 하나와 즐거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불빛은 기사 갑옷에 매우 밝게 비추었고, 붉은색과 초록색, 노란색과 파란색, 그리고 얼룩무늬 옷을 입은 그 특이한 무리들을 환하게 밝혀 주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뒤쪽의 어둠을 가르는 칼날로 조각해 낸 듯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때 무희 중 으뜸이 랜슬롯 경에게 이르되, "영주님, 폐하도 노래하지 않으시렵니까?" 이에 랜슬롯 경은 웃으며 이르시되, "아니로다, 좋은 친구들이여, 너희처럼 나는 노래할 줄 모르노라. 그러나 너희가 듣고자 한다면 내가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각주: 랜슬롯 경이 한 이야기를 전함.〉

그때에 모두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청하므로, 그는 이에 응하여 두 기사가 한 부인을 사랑하였으나 그 부인은 그들 둘 중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신분이 낮은 시종 한 명에게 마음을 두었던 한 가지 아름다운 고사를 들려주었노라. 그 두 기사 중 한 명은 은자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기사로서의 권능으로 그 시종을 들어 왕위에 올렸노라. 그러나 그 시종이 왕이 되었을 때 부인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높은 지위로 올려준 기사의 사랑을 선택하였노라. 그리하여 부인은 왕이 된 시종을 버리고 그를 왕으로 만들어준 고귀한 기사와 결혼하였으니, 이렇

게 하여 그녀는 세 사람 중 가장 크고 고귀한 자를 택하여 그와 함께 평생을 행복하게 지냈노라.

이때 궁수들은 고요히 귀를 기울였고, 랜슬롯 경이 그 노래를 마치자 그들은 그를 끝없는 박수로 맞이하였더라.

그 후 무희들이 다시 노래를 불렀고, 랜슬롯 경은 그들에게 또 다른 기사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노라. 그리하여 즐거운 기운 속에 밤은 즐겁게 흘러가, 하늘 높이 떠 있는 크고 둥근 달이 그들 머리 위를 비추었으니, 그 달은 빛나는 은의 거품 같아 밝고 가득 차 있었노라. 달빛은 낮처럼 장엄하여 온 세상에 고요한 백색의 빛을 쏟아부었으니, 그 경치는 보기에 참으로 놀라웠노라.

〈각주: _랜슬롯 경은 광대들을 떠나기로 결심하였다._〉

그때가 한밤중임을 깨달은 랜슬롯 경은 몸을 일으키며 이르되, "친애하는 여러분,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심에 감사하노라. 이제 피로를 풀었으니, 다시 길을 떠나야 하겠나이다."

이때 악사들 중 수장이라 일컫는 자가 이르되, "경이시여, 우리와 함께 오늘 밤을 묵고자 하오니, 내일 우리와 함께 길을 동행하시옵소서. 실로 경은 우리 일생 동안 만나 본 어떤 기사보다도 가장 유쾌하고 기쁜 마음을 지닌 분임이니다."

〈각주: 그가 어떤 모험을 구하더라.〉

이때 랜슬롯 경은 큰 기쁨으로 크게 웃으며 이르시되, "좋은 친구들이여, 너희의 공평한 대우에 감사하노라. 너희는 참으로 즐거운 동무들이라. 내가 만일 기사가 아니라면, 내가 만나왔던 어떤 다른 무리보다도 너희의 무리에 속하기를 더 좋아하였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으니, 보라, 나는 기사이니 금발자락을 찬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해야 하노라. 그러므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헤어지노라. 그럼에도 너희가 나에게 한 가지 은혜를 베풀 수 있겠으니, 그것은 이 근처 어딘가에 좋은 명성의 기사가 감당할 만한 모험이 있는지 내게 알려주는 것이니라."

이때 그 무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영주여, 제가 알기에 한 가지 모험이 있사오니, 만약 그대를 성공으로 이끈다면 그대의 명성이 지극히 높아져, 호수의 랜슬롯 경조차도 그대의 명성만은 따라가지 못할 것이옵니다."

이때 랜슬롯 경은 큰 기쁨으로 크게 웃었다. "좋소," 그가 이르되, "내가 지나치게 과감해지려 하지는 않노라.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 호수의 랜슬롯 경이 두려워하지 않고 맡을 일이면 나도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맡겠노라. 그가 감당할 힘을 가진 일이면 나도 또한 이루리라 믿노라.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나는 호수의 랜슬롯 경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 가장 훌륭하고 가치 있는 기사라고 여기노라."

"하!" 수석 시인이 이르되, "나 보기에 경은 스스로를 매우 훌륭히 여기는구나. 지금 랜슬롯 경이 여기 계셨더라면, 경은 지금처럼 스스로를 그토록 높게 여기지는 못했을 것이요."

이에 그 무수한 악사들이 크게 웃으며, 랜슬롯 경 또한 그들 중 가장 크게 웃었노라. "훌륭한 친구들이여," 그가 이르되, "나는 스스로를 여인의 아들로 태어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지 않노라.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하니, 나는 수없이 랜슬롯 경을 보았으며, 때로는 그의 뜻에 반하여 그와 겨루기도 하였노라.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그가 나보다 더 강하거나 더 가치 있는 자임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이와 같은 사소한 일에 논쟁을 붙이지 말자. 대신 저기 좋은 친구가 우리에게 조언하고자 하는 그 모험이 무엇인지 배워야 하리라."

"영주여," 시인이 이르되, "당신은 코르빈의 벌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이까?"

"아니오," 랜슬롯 경이 이르되, "그것에 대해 너는 내게 말하라."

〈각주: _악사가 코르빈의 벌레에 대해 이야기하더라._〉

"경," 시인이 이르되, "그리하겠사옵니다. 경께서 아시옵소서. 이 곳 동쪽 멀리 떨어진 곳에 코르빈(Corbin)이라 하는 매우 크고 고귀한 마을이 있사오니, 그 땅의 왕은 펠레스 왕이시옵니다. 어느 날, 모르가나 레 페이 왕비와 북웨일스의 왕비가 코르빈을 방문하시어, 그들이 머무는 동안 그 곳에서는 그들을 위한 큰 기사 시합과 잔치가 베풀어졌사옵니다."

〈각주: 왕의 연회에 온 처녀에 대하여〉

펠레스 왕이 두 여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을 때, 그의 궁정 전체와 아름다운 엘레인이 함께하던 곳이었다. 이때 연회장이 된 천막 안으로 놀랍도록 아름다운 낭자가 들어왔는데, 키가 크고 곧추섰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붉은빛 새틴으로 옷을 입었다. 그녀의 손에는 은으로 된 접시가 들려 있었고, 그 접시 위에는 수건이 놓여 있었으며, 수건 위에는 맑은 푸른 돌이 박힌 놀라운 금반지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낭자는 높고 맑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영주들과 부인들, 여기에는 오직 이 방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여인만이 착용할 수 있는 반지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짐작컨대, 많은 이들이 놀라움과 큰 기대감을 품었으며, 또한 많은 수군수군한 말이 오갔다. 어떤 이들은 이 반지가 마땅히 한 부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 반지는 다른 부인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각주: 모르가나 여왕이 반지를 시험하는 법에 대하여〉

이때 첫 번째로 그 반지를 시험해 보려는 이는 마르가나 레 페 여왕이었는데, 그녀는 이것이 펠레스 왕이 자신을 위해 꾸민 가면극이라 여겼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녀는 반지를 손에 쥐고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려 하였으나, 보라! 그것은 첫 번째 마디조차 통과하지 못하더라.

그때에 모르가나 왕비는 분노로 가득 찼으나, 여전히 그 노여움을 감추고 앉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며 기다렸노라.

〈각주: 북웨일즈 여왕이 반지를 시험하는 일.〉

이와 같이 모르가나 레 페이 여왕이 그 반지를 끼는 데 실패한 후, 북웨일즈의 여왕이 스스로 이르되 “아마도 펠레스 왕께서 이 반지를 내게 주시려 하시는 것일세”라 하고 또한 그 반지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끼려 하였으나, 보라! 반지가 너무 커져서 제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왕의 온갖 신하들 앞에서 탁자 위로 떨어지고 말았더라.

이때 거기에 있던 많은 이들이 크게 웃어대므로, 북웨일즈의 왕비는 모르가나 르 페이의 왕비 때만큼이나 분노와 수치심에 사로잡혔노라. 그러나 그녀는 재판 앞에서도 그 분노를 감추고,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기로 앉았더라.

이 두 여왕이 모두 실패한 뒤, 그곳에 모인 다른 여러 공주들과 낭자들도 차례로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보았으나,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였더라. 반지가 너무 크거나 혹은 너무 작기 때문이었노라. 그러자 마침내 아서왕의 딸, 미인 엘레인 공녀가 그 반지의 모험에 도전하였노라. 보라! 그 반지는 마치 그녀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처럼 완벽하게 그녀의 손가락에 맞았더라.

이때 앞서 말한 두 여왕은 전보다 더 크게 분하여, 각각 속으로 ‘정녕 이 왕은 우리에게 모욕을 가하기 위해 이 일을 저질렀도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 밤, 그들은 자신이 입은 모욕에 대한 보복으로 코르뱅의 왕 펠레스와 코르뱅 성을 어떻게 징벌할지 서로 의논하였더라.

〈각주: 모르가나 여왕이 마을에 저주를 내림에 대하여〉

이튿날 아침, 두 여왕은 궁정을 떠나니, 그들이 시골 시장의 한복판을 지나갈 때, 그곳에 큰 평평한 돌이 놓여 있어 마을의 중심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때 모르가나 레 페 여왕이 소리쳐 이르되, "너희는 저 돌을 보느냐! 그 판석 아래에는 거대한 벌레가 태어날 것이요, 그 벌레는 이곳에 내가 어제 당한 수치보다 만 배나 더 큰 슬픔과 비참을 가져오리라. 그 돌은 마법이 걸려 있어 어느 누구도 들어 올릴 수 없으리. 그리고 그 돌 아래에서 벌레가 살며, 때때로 나와 이 마을의 아름다운 젊은 처녀 한 명을 사로잡아 자신의 은신처로 데려가 그곳에서 먹이로 삼아 삼키리라."

"그렇도다. 여왕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라. 이제 코르빈의 돌 아래에 거하는 벌레는 그곳에 슬픔과 죽음을 끊임없이 가져오느니라. 그 벌레는 밤이 되어야만 모습을 드러내니, 코르빈의 벌레에 대한 공포는 더욱 커지리라. 그 벌레가 나타나거나 물러갈 때를 본 눈은 아직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만일 어떤 기사가 그 벌레를 죽이는 업적을 이루리라 한다면, 그는 호수의 랜슬롯 경 자신과 맞먹을 만한 위대한 행적을 남긴 자로 여겨지리라."

"친애하는 자여," 랜슬롯 경이 이르되, "네 말이 옳도다. 이는 어찌 보면 어떤 기사에게나 가장 가치 있는 모험이 되리라. 나로서는 이미 그 모험에 뛰어들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도 간절하여, 참을성을 지킬 길이 없노라."

이와 같은 말을 남기며, 랜슬롯 경은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는 호루라기를 불어 자신의 말을 불러들이고, 말이 그에게로 다다르

자 안장을 등에 얹었다. 그리고는 방패와 창을 손에 쥐고, 전마에 올라타 그 곳을 떠나실 준비를 갖추셨더라.

그러나 그가 떠나기 전에, 수석 시인과 몇몇 다른 이들이 그에게 다가왔고, 수석 시인이 말의 목에 손을 얹으며 이르되, "경하소서, 경이 호수의 랜슬롯 경을 자주 만나셨고, 경 자신 또한 그와 견줄 만한 기사라 말씀하시니, 경께서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각주: 랜슬롯 경이 악사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니라.〉

그때 랜슬롯 경은 웃으며 이르되, "좋은 벗이여, 보시거니와 내가 지금 순례의 길을 가고 있노라. 나의 이 여행 동안 내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노라. 그러나 우리가 함께 먹고 마셨고, 좋은 우정으로 함께 지냈으니, 내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높게 여기는 바로 그 랜슬롯 경임을 말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와 다를 바 없이 훌륭함을 확신하노라. 이를 말하건대, 많게 말하든 적게 말하든."

이렇게 말한 후, 호수의 랜슬롯 경은 말에 채찍을 가하여 달려갔고, 그들의 말에 놀라움에 빠진 그들을 남겨두고 갔노라. 그가 그 즐거운 동료들을 떠난 지 오래도록, 그는 멀리서 그들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매우 크게 수다를 떨며 들렸노라. 호수의 랜슬롯 경이 그들 사이에 그토록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그들 중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왜냐하면 이때까지 온 세상은 호수의 랜슬롯 경이 처음부터 그 시점까지 세상이 본 가장 위대한 챔피언임을 알고 있었노라.

* * * * *

그 후, 랜슬롯 경은 달빛이 비치는 밤길을 따라 동쪽을 향해 나아가니라. 얼마 뒤, 그는 광활한 숲속으로 들어섰노라. 그가 숲에 들어선 지 잠시 후, 여름의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하더라. 처음에는 작은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하더니, 이내 모든 잎사귀 틈새에서 수많은 행복하고 즐거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라. 그러자 상쾌한 해가 솟아올라 나무들의 윗가지들을 스치며, 그들을 금빛으로 물들였노라.

〈각주: _랜슬롯 경이 코르빈을 바라보더라._〉

그리고 곧 해가 높이, 더 높이 떠올랐으며, 하늘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랜슬롯 경은 숲을 벗어나 평평한 초원과 목초지가 펼쳐진 넓은 들판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멀리서 그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성곽 도시와 그 기슭을 흐르는 매끄럽고 빛나는 강을 보았으니, 그가 바로 전날 밤 떠돌이 광대들이 말해 주었던 코르빈의 도시임을 알았더라.

이에 랜슬롯 경이 전진하여 성읍에 가까워지니라. 그가 더욱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이 성읍이 일생 동안 본 적 있는 그 어떤 성읍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여겼노라. 성읍의 성채와 집들은 모두 돌이나 벽돌로 지어졌고, 백 개의 창문이 낮의 빛에 반짝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노라.

성읍 곁을 흐르는 강은 아름다운 푸른 초원 사이로 굽이쳐 내려가는데, 초원은 양편에 펼쳐져 있고 갈대와 부들, 가지치기 한 버드나무들

이 있는 제방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노라. 강물은 마치 풀밭 위에 누운 순은의 큰 뱀과도 같았노라. 성채의 성벽과 성읍의 성벽은 강가까지 내려와, 마치 그 발을 맑고 수정처럼 밝은 물속에 담그고 서 있더라. 강 위에는 이쪽과 저쪽에 나무들이 가지치기를 하며 물 위를 덮었고, 세 개의 아치를 가진 다리가 강을 가로질러 성읍으로 이어지고 있었노라.

이 모든 것을 랜슬롯 경이 바라보았으니, 성읍은 그의 눈앞에 지극히 아름다워 보였노라.

〈각주: _랜슬롯 경이 마을 사람들을 부르다._〉

이때 랜슬롯 경이 성읍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는 종들을 달린 여러 필의 짐나귀를 거느린 성읍 백성들의 무리를 만나니라. 그들을 본 랜슬롯 경이 이렇게 물으니라. “청하노니, 공경한 백성들이여, 이르소서. 이것이 바로 코르빈 성읍이오?” 이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 기사여, 이것이 바로 그 성읍이오.” 랜슬롯 경이 묻되, “무릇 너희가 어찌 그리 슬퍼하며 낙담하였는가?” 이에 그 무리 중 가장 존귀한 자, 곧 긴 백수를 가진 경건한 노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기사여, 어찌하여 우리가 슬퍼하는지 묻느냐? 네가 어디로부터 왔기에, 이 성읍이 한 구렁이에 의해 저주를 받았다는 소문을 듣지 못했는가? 그 구렁이는 우리를 매우 고통스럽게 하노라. 또한 그 구렁이가 때때로 우리 중의 순결한 처녀를 삼킨다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

“경,”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저로 하여금 이토록 큰 슬픔과 애환을 안겨준 이 벌레에 관하여 내가 들은 바 있노라. 경이 알지 못하리니, 내가 이리로 온 것도 바로 이 벌레 때문이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면, 그 흉악한 것을 멸하여 경과 모든 이를 그 저주에서 해방시키려 하노라!"

"슬프도다, 기사여," 노인이 매우 슬픈 어조로 이르되, "내가 의심하건대, 너는 이 사업에 필요한 모든 용기를 갖추었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네 탐구를 성취하기를 바랄 수 없으리라. 비록 네가 그 벌레를 죽일 수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에 접근할 수 없으리라. 이는 네가 알지니, 그 벌레는 큰 돌 아래에 누워 있으며, 그 돌은 마법으로 봉해졌기 때문이라. 호수의 부인 모르가나가 그 돌 위에 그 마법을 걸어, 아무도 그 돌을 제자리에서 들어 올릴 수 없게 하였노라."

〈각주: 랜슬롯 경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에 랜슬롯 경은 그 노인과 그 동료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말을 건네며 이르되, "어찌되었든 그리할진대, 구원을 바라지 말라 하지 말라. 무언가 성취되기 전에 먼저 시도되지 않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돌에 내려진 마법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보라, 내 손가락에 낀 이 반지를! 이는 모든 마법에 대적하는 최상의 방패라. 그러므로 이 돌을 제자리에 묶어둔 주문이 이 반지의 마력에는 당해내지 못하리라. 내가 이 돌을 들어 올리리라는 것을 너희는 굳게 믿을지니, 돌이 들어 올려진 후, 그 때에 나와 그 구렁이가 맞서 싸우게 될 때, 그 승부는 오직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에 달려 있으리라."

〈각주: 랜슬롯 경이 코르빈에 입성하게 된 일.〉

이때 그곳에 있던 자들은 랜슬롯 경의 말씀을 듣고는 마음속에 희망과 기쁨이 가득 차니라. 이는 그들에게 있어, 바로 이 자가 자들의 곤경을 구원할 전사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 큰 환호성을 지르며,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소서!"라 외치고, 어떤 이는 "파멸로부터 구원하소서!"라 부르짖으며, 또 어떤 이는 이 말을, 어떤 이는 저 말을 외치니라.

이때 랜슬롯 경은 그들을 향해 미소 짓고 이르되, "무사히 계시기를, 선한 이들이여," 하고는 곧장 말에 채찍을 가해 달아났더라.

그러나 거기에 있던 많은 이들이 그와 함께 달렸노라. 그들은 그의 말 곁을 달리며 그에게 닿으려 했고, 심지어 그가 타신 말의 몸에도 손을 대려 하였노라.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에게 끝없는 찬사를 보내며, 그치지 않는 함성을 울렸노라.

랜슬롯 경의 덕이 그에게서 빛나는 빛처럼 뿜어져 나왔으므로, 그들은 이것이 반드시 자신들에게 내려진 저주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줄 자라고 여겼더라.

* * * * *

이와 같이 호수의 랜슬롯 경은 세 개의 아치를 가진 다리를 건너 코르반의 마을로 들어가, 코르반의 벌레와의 모험을 향해 나아가더라.

[일러스트레이션: 코르빈의 벌레를 죽이는 랜슬롯 경:]

[일러스트레이션]

제이장

<일러스트레이션: 랜슬롯 경이 코르빈의 거대한 뱀을 베어 죽이는 장면>

코르빈의 거대한 뱀을 죽인 일과, 그 후 랜슬롯 경이 코르빈 성으로, 그리고 펠레스 왕과 아름다운 엘레인 공녀의 품으로 모셔져 간 일을 전하노라.

그때 랜슬롯 경은 그 거대한 뱀을 베어 죽이고, 그 시체를 성벽 밖으로 던져 치웠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으나, 이제 그 성은 고요하고 적막함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도 만나지 못했고, 오직 고독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성을 둘러보며 걸을 때, 그는 작은 문 하나를 발견하였는데, 그 문 너머로 계단이 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그 계단을 내려가 보았더니, 깊은 지하에 있는 방 하나를 발견하였더라. 그 방 안에는 화려한 침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한 여인이 누워 있었으니, 그 여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랜슬롯 경은 그 여인을 바라보았더니, 그 아름다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더라. 그의 마음은 그 여인에게로 끌려가, 그는 그 여인을 깨우려 하지 않고 그저 그 곁에 서서 바라보기만 하였노라.

그때 그 여인이 눈을 뜨고 일어나, 랜슬롯 경을 보며 이르되, "당신은 누구요? 어찌하여 이 곳에 왔나이까?" 하니,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나는 랜슬롯 경이라. 나는 이 성을 지나가다, 이 곳에 들어왔노라." 하더라.

그 여인이 이르되, "당신은 행운아라. 왜냐하면 당신은 이 성의 주인인 펠레스 왕의 친구이기 때문이오. 그는 당신을 매우 사랑하오." 하니, 랜슬롯 경이 이르되, "펠레스 왕이 나를 아는지요?" 하더라.

그 여인이 이르되, "그는 당신을 알지 못하나, 당신의 명성은 널리 알려져 있소. 그는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소." 하더라.

랜슬롯 경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하니, 그 여인이 이르되, "그는 성의 다른 편에 계시오. 그가 오면, 그가 당신을 맞이할 것이오." 하더라.

그때 랜슬롯 경은 그 여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성의 다른 편으로 향하였노라. 그는 성을 지나가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였더라. 성의 벽은 흰 석회로 칠해져 있었고, 창문들은 화려한 유리창으로 장식되어 있었노라.

그가 성의 다른 편에 다다랐을 때, 펠레스 왕이 그를 맞이하였더라. 왕은 랜슬롯 경을 매우 기쁘게 맞이하며, 그에게 안식을 권하였노라. 랜슬롯 경은 왕의 환대에 감사하며, 성에서 며칠간 머물렀노라.

그 동안 랜슬롯 경은 펠레스 왕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왕은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노라. 왕은 자신이 어떻게 이 성을 건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름다운 엘레인 공녀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였노라.

랜슬롯 경은 왕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 공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였노라. 그때 펠레스 왕이 이르되, "당신이 그 공녀를 만나고 싶다면, 내가 그녀를 데려오겠노라." 하더라.

그때 랜슬롯 경은 기쁨으로 가득 차, 왕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노라. 잠시 후, 펠레스 왕은 아름다운 엘레인 공녀를 데리고 왔노라. 공녀는 랜슬롯 경을 보며 미소 짓고, 랜슬롯 경은 그 아름다움에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노라.

그들은 함께 성의 정원에서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노라. 랜슬롯 경은 공녀의 지혜와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의 마음은 공녀에게로 완전히 사로잡혔노라.

그날 밤, 랜슬롯 경은 펠레스 왕의 환대에 감사하며, 성에서 떠나기로 결심하였노라. 왕과 공녀는 그를 배웅하며, 그가 다시 오기를 기원하였노라. 랜슬롯 경은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다시 그의 여정을 시작하였노라.

〈각주: 마을 사람들이 랜슬롯 경을 환영하더라.〉

이와 같이 랜슬롯 경은 돌 아래에 숨어 있던 용을 퇴치하고자 코르빈의 성읍에 입성하였더라. 그의 도착과 함께 수많은 군중이 사방에서 달려와 모였으며, 그가 말을 타고 나아가실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외치며 축복을 보내었더라. 그의 주변에는 마치 많은 물결이 일렁이는 소리처럼 거대한 군중의 함성이 울려 퍼졌더라.

〈각주: _랜슬롯 경이 용의 거처에 이르러라._〉

이에 군중의 물결에 밀려, 랜슬롯 경은 town의 시장으로 굳건히 나아갔노라. 그 시장 한가운데에는 앞서 언급되었던 커다란 돌이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벌레가 숨어 있었더라. 그가 그 장소에 다다르자, 그는 군중에게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을 명하였노라.

그리하여 왕의 명을 받자 백성은 멀리 물러서서 서 있거늘, 랜슬롯 경은 홀로 앞으로 나아가 돌판이 있는 곳으로 향하더라. 그가 돌판을 내려다보니, 그것은 매우 평평하고 넓었으며 그 크기가 세 사람이라야 겨우 들어 올릴 수 있으리라 기대할 만한 크기였더라. 이에 더구나 그는 그 돌판이 전하여 들은 바와 같이 마술로 봉해졌음을 보았으니, 돌의 표면에는 기이한 문자와 도형들이 다수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라.

이제 너희는 기억할지니, 원탁의 기사들에 관한 『기사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이, 랜슬롯 경은 호수의 부인이 그가 호수를 떠날 때 그에게 주었던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너희 모두는 그 반지가 어떤 성질을 지녔음을 기억하리라. 즉, 그것을 지닌 자는 자신의 힘으로 대적할 수 있는 모든 악마의 마법이나 주술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노라. 그러므로 랜슬롯 경은 성벽 밖의 사람들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 돌 위에 얽힌 마술 때문에 다른 이라면 그 자리에 꼼짝도 못 할지라도, 그는 그 돌을 들어 올릴 수 있음을 알고 있었노라.

이에 랜슬롯 경은 검과 방패를 내려놓으시고 돌판 앞으로 나아가 양손으로 그것을 붙잡았노라. 그리고 허리를 굽혀 들어 올리시니, 보라! 돌판 위에 얽혀 있던 마법의 결박이 끊어지고, 그 돌판이 안치된 자리에서 움직이며 요동쳤더라.

〈각주: _랜슬롯 경이 돌을 들어 올리니라._〉

그때 군중들이 그를 바라보며, 그 돌이 그 자리를 벗어나 움직이고 요동치는 것을 보자, 수천의 입에서 우러나온 큰 함성이 마치 하나의 위대한 비명처럼 울려 퍼졌노라. 이에 랜슬롯 경은 다시금 돌에 몸을 굽혀, 그 모든 힘을 다해 밀쳤노라. 보라! 그가 돌을 들어 올렸고, 그것을 들어 올린 뒤 땅 위로 굴려 넘어뜨렸노라.

그때 랜슬롯 경은 돌 아래에 있는 구멍을 내려다보았으며, 그 구멍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노라. 곧이어 두 개의 푸르고 유리알 같은 눈이 구멍 속에서 그를 향해 열리며 그를 올려다보았노라. 그리고 랜슬롯 경은 그 눈들이 낮의 눈부신 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얇은 막으로 덮여 있음을 보았노라.

랜슬롯 경이 응시하는 동안, 구멍 속에 있던 그 무언가가 구멍 밖으로 기어 나오기 시작하더니, 랜슬롯 경은 그것이 거대한 벌레임을 보았노라. 그 벌레는 호박석처럼 단단한 회청색 비늘로 온몸이 덮여 있었노라. 벌레는 키 큰 사람만큼의 높이로 몸의 앞부분을 들어 올리며, 한 엘(ell) 너비의 큰 입을 무서운 듯이 벌렸노라. 그 입안은 세 줄의 하얗고 빛나는 이빨로 반짝였노라.

랜슬롯 경은 그 벌레가 천 개나 되는 발을 가지고 있으며, 각 발마다 사자의 발톱과 같은 큰 발톱으로 무장해 있음을 보았노라. 그 발톱은 호박석처럼 단단하고 독이 매우 심하노라. 그리고 벌레는 랜슬롯 경을 향해 쉭쉭 거리는 소리를 내었노라. 그 숨결은 죽음의 냄새와 같았노라.

〈각주: 코르빈의 벌레가 나타나니라.〉

이러한 것이 바로 코르빈의 돌 아래에 잠복하고 있던 그 끔찍하고도 두려운 벌레였노라. 그러므로 마을 사람들이 그 괴물이 정오의 밝은 햇살 아래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목격한 그 광경에 대한 공포로 인해 그들은 큰 비명을 지르니라. 그것은 끔찍한 꿈에서 살아난 존재와도 같았으며, 그런 것이 인간의 살아있는 눈으로 본 적이 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노라.

그러나 랜슬롯 경은 그 벌레의 모든 공포를 바라보며, 자신의 칼이 있는 곳으로 뛰어올랐다. 그는 칼을 양손으로 꽉 쥐고 벌레를 향해 돌진하여, 그 강타는 참나무 한 그루를 쉽게 둘로 갈라놓을 만큼 위력적이었다. 그러나 벌레의 비늘은 강철보다 단단하여, 칼날은 이를 관통하지 못하고 빗겨나가 그 생물에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못하더라.

그때 벌레는 이같이 타격을 입음을 느낀지라, 다시금 지극히 무서운 소리로 쉭쉭 거렸노라. 그리고는 랜슬롯 경을 향해 그 몸집을 뻗어, 백 개의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를 포위하여 사로잡으려 하였노라. 그러나 랜슬롯 경은 벌레의 포위망을 피하여 옆으로 뛰쳐나갔고, 그는 벌레를 다시금 여러 차례 타격하였노라. 비록 그의 타격이 계속되었으나, 벌레의 몸을 덮고 있는 비늘을 어찌하여도 뚫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매번 타격이 가해질 때마다, 벌레는 더욱 더 무서운 소리로 쉭쉭거리며, 랜슬롯 경을 자신의 포위망에 사로잡으려 하였노라.

〈각주: 랜슬롯 경이 벌레와 싸우니라.〉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랜슬롯 경은 그 벌레를 피하여 왔으나, 마침내 그는 양쪽으로 도약하는 데 지쳐 기운이 빠지고 피곤해졌다. 그의 갑옷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침내 그 벌레는 한 발톱의 갈고리로 랜슬롯 경을 사로잡았으며, 그 전투를 지켜보던 자들은 그 벌레가 순식간에 수백 개의 발톱으로 랜슬롯 경을 포옹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의 몸은 거의 그 포옹 속에 가려졌다.

그리고 그 벌레는 랜슬롯 경을 그 포옹으로 붙잡고 있을 때, 그의 발톱으로 그를 찢고 빛나는 이빨로 그를 물려 싸웠다. 그리고 곧이어 그 벌레는 랜슬롯 경의 갑옷에 발톱을 파고들어 그의 왼쪽 어깨 위의 어깨 보호구를 찢어냈으며, 그의 왼쪽 허벅지를 덮고 있던 철 부츠를 찢어냈다. 그리고 그 발톱으로 랜슬롯 경의 왼쪽 어깨 살과 허벅지 살을 뼈까지 베어냈으니, 피가 붉은 줄기로 분출하여 그의 갑옷과 그 벌레의 발톱 위로 흘러내렸더라.

그때 랜슬롯 경은 죽음의 품에 안긴 듯이 느껴지자, 모든 힘을 모아 그 벌레의 발톱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벌레가 그에게 더 이상의 해를 가하기 전에, 그는 자신의 칼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꽉 쥐고 그 생물에게 돌진하여, 벌레의 벌어져 있는 입안으로 칼을 꽂아 목구멍 깊숙이 밀어 넣었다. 칼의 십자형 손잡이가 벌레의 이빨에 부딪혔다.

그 때 벌레는 그 끔찍하고 두려운 일격을 자신의 심연까지 깊숙이 받자, 고통 속에서 황소처럼 포효하더라. 곧이어 그것은 땅 위에서 구르며 몸을 비틀고, 온몸을 휘저으며 우렁찬 비명을 지르니,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뼈속의 골수가 녹아내리는 듯하였더라.

〈각주: _랜슬롯 경이 벌레를 죽이다._〉

그러나 랜슬롯 경은 용의 갈비뼈를 엮은 끈들을 내려다보며, 배 부근과 등쪽 및 옆면의 비늘 아래에 부드러운 곳이 있음을 보았더라. 이에 그는 그 용을 향해 돌진하여, 그 부드러운 곳을 향해 검을 두 번, 세 번 꽂아 넣었더라. 그러자 보라, 먹물처럼 검은 피가 그 찌름들 뒤에 거세게 분출하였노라.

그 후 다시 랜슬롯 경은 용의 또 다른 그 같은 곳을 향해 검을 두 번, 세 번 꽂아 넣었더라. 그러자 용은 곧 그와 같은 비명을 지르기를 멈추고, 죽어가는 몸으로 전율하며 비틀거리며, 마지막 생명의 고뇌 속에서 마른 비늘들을 땅에 부딪히며 떨었더라.

이때 랜슬롯 경은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음을 깨닫고, 검에 기대어 섰으니, 그는 숨을 헐떡이며 그 끔찍한 싸움의 피와 끈적한 진흘으로 온몸이 뒤덮여 있었더라. 백성들은 용이 이미 죽임을 당했음을 보고는 한없이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지르며 외쳤노라. 그들은 홍수처럼 사방에서 그 곳으로 달려와 광장을 온통 메웠으니, 그들은 무리지어 모여 용을 공포에 떨며 바라보았고, 하늘이 그들의 곤경에서 구원해 줄 놀라운 전사를 보내셨음에 놀라워하며 랜슬롯 경을 바라보았노라. 그리고 랜슬롯 경은 여전히 검에 기대어 서서 숨을 헐떡였으니, 그의 어깨와 허벅지로부터 피가 흘러내려 그의 몸의 한쪽 전체가 빛나는 붉은 피로 물들었더라.

〈각주: 코르빈의 기사들이 랜슬롯 경에게 예를 올니라.〉

그가 서 있자, 한 무리의 기사들이 말에 올라 그 곳으로 달려왔다. 그들은 군중을 헤치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군중 한가운데에 선 랜슬롯 경에게로 길을 열었다. 그들이 랜슬롯 경에게 다다르자, 그 무리 중 우두머리가 이르되, “경이시여, 경이 바로 그 벌레를 죽인 자인가?” 하니, 랜슬롯 경이 이르되, “경이 보거늘 내가 바로 그 자라.” 하거늘, 랜슬롯 경에게 말하던 자가 이르되, “영주여, 경께서 이 전투에서 크게 다치셨음을 두려워하노라.”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내가 참으로 다쳤노라. 그러나 내가 보거늘, 나는 여러 차례 다쳤으나 여전히 살아 있으니, 그다지 크게 다친 것이 아니라.”

그때 기사들은 가서 거기에 누워 있는 벌레를 살펴보았으며, 그들은 경이로움과 혐오감을 가지고 그것을 응시하였더라. 그리고 그 벌레를 죽인 기사에게 측량할 수 없는 큰 칭송을 드리니라.

그 후 그들은 거상(輿床)을 불러내어 랜슬롯 경을 그 위에 눕히고, 코르빈의 왕 펠레스가 당시 왕실의 화려한 행세를 갖추어 법정을 열고 있던 코르빈 성으로 그를 모셔갔다. 그리고 그들은 랜슬롯 경을 성의 아름다운 방으로 데려가, 여러 하인들이 달려와 그의 갑옷을 벗겨내고, 치유의 허브를 우려낸 미지근한 목욕물로 그를 목욕시켰다. 그러자 능숙한 의사가 달려와 랜슬롯 경의 상처를 살피고, 진정시키는 연고를 발라 리넨 천으로 감아 싸 주었다. 그 후 그들은 랜슬롯 경을 눈을 부릅뜨게 하듯 하얀 리넨으로 깐 아름답고 부드러운 침대로 모셔다 그를 눕혔고, 그는 몸으로 큰 안위를 느끼며 크게 위로를 받았다.

〈각주: 코르빈의 왕 펠레스가 랜슬롯 경을 공경하시니라.〉

이와 같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후, 코르빈의 왕 펠레스가 랜슬롯 경을 문안하러 그 곳으로 왔으니, 그와 함께 그의 아들인 라베인 경과 딸인 아름다운 엘레인 공녀도 함께 왔더라.

랜슬롯 경은 펠레스 왕이 지극히 고귀하고 위엄 있는 영주임을 보았노라. 그의 수염과 머리카락은 사자의 갈기처럼 길고 풍성하여, 은 실이 섞인 금 실과도 같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는 눈부신 보석들로 수놓은 자주색 로브를 두르고 있었고, 머리에는 값진 보석들을 여러 개 박은 금관을 쓰고 있었노라.

펠레스 왕의 오른편에는 그의 아들 라베인 경이 서 있으니, 그는 방금 기사 작위를 받은 지극히 고귀한 젊은 기사이었고, 그의 왼편에는 아름다운 엘레인 공녀가 서 있었더라.

〈각주: 미인 엘레인 공녀에 대하여.〉

이때 랜슬롯 경은 아름다운 엘레인 낭자를 바라보았노라. 그의 평생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처녀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이 가장 곱디고운 실크처럼 부드럽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것을 보았고, 눈썹은 날카롭고 섬세한 연필로 그린 듯 아리따이 굽어 있음을 보았노라. 그녀의 눈은 매우 크고 푸르름이 완벽하며 빛나고, 보석처럼 빛나며, 이마는 우유빛으로 희고, 볼은 장미빛 홍조로 부드럽고, 입술은 산호처럼 붉었노라. 그 입술 사이로 드러난 이빨은 진주처럼 희었더라.

이러한 것이 호수의 부인 엘레인의 모습이었더라. 랜슬롯 경이 그녀를 바라볼 때, 그는 그녀가 지닌 초월적인 아름다움과 처녀의 청춘이 지닌 연약한 우아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노라.

이에 펠레스 왕과 라베인 경, 그리고 아름다운 엘레인이 랜슬롯 경이 누워 계신 곳으로 다가가, 땅에 무릎을 꿇고 앉으니라. 펠레스 왕이 이르시되, "경하소서, 이 땅을 그 무서운 저주에서 구원하신 당신께 우리는 어떤 감사의 뜻을 표함이 마땅하오리까?"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폐하, 저를 감사하지 마옵시고, 이 일을 이루시려 제게 도구와 기구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소서."

펠레스 왕이 이르시되, "경하소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였사오나, 보소서, 그분께서 자신의 손에 맞추신 그 기구가 지극히 완벽하오니, 그 기구 또한 칭송받아 마땅하오리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을 칭송하며, 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신 구원을 위해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노라. 이제 내가 묻노니, 경은 누구이신가? 경이 우리 나라에 이 큰 구원을 가져다주었으니, 경은 분명히 유명한 영웅이시라. 경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경의 이름으로 직접 감사드리고자 하노라."

"영주여," 랜슬롯 경이 이르되, "만약 내가 내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더라도 이를 용서하시옵소서. 내 이름에는 수치스러운 일이 따르리라고 여겨지나니, 그러므로 나는 이제 '악한 기사(Le Chevalier Malfait)'라 일컬어지나니, 이는 내가 내게 책무가 있는 자들의 눈앞에서 실수를 범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이여," 펠레스 왕이 이르시되, "네가 행한 바에 있어 크게 그릇된 일을 한 적 없음을 나는 맹세하노라. 그러나 네가 그와 같이 하기를 원한다면, 네 뜻대로 될지니, 또한 이 곳 모든 이들과 함께 너는 네가 마땅한 이름과 작위를 취하기를 기뻐하실 때까지 '르 쉘발리에 말페(Le Chevalier Malfait)'라 불릴지니라."

* * * * *

〈각주: _랜슬롯 경이 코르빈에서 병들다._〉

이와 같이 내가 코르빈의 지렁이에 관한 그 유명한 모험의 전말을 모두 말하였노라. 이제 남아 있는 말은 오직 이것뿐이니, 곧 랜슬롯 경이 스스로 생각했던 만큼 상처에서 빨리 회복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니라. 용의 독이 그의 피속으로 들어갔으므로, 일 년이 지나도록 그는 코르빈의 펠레스 왕의 성에 머무르지 않을 수 없었노라. 비록 그 때쯤 되면 그의 몸은 이미 완전히 낫았을지라도.

또한 이 이야기를 전하노라—앞서 말한 십이 년이 다 되자, 펠레스 왕이 랜슬롯 경에게 와서 이르되, "경이여, 내가 청하노니 이제부터 이 궁전에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옵소서. 경께서 거처하시는 어느 궁전에도 큰 빛이 되시리요. 여기 우리 모두는 경을 자기의 눈동자처럼 사랑하오."

〈각주: 랜슬롯 경은 코르빈에 머무르니라.〉

"주군," 랜슬롯 경이 이르되, "저는 병고와 고난의 날들에 저를 이처럼 자비롭게 대하신 여러분을 저보다 더 사랑할 수 없나이다. 그러므로

저는 이 여정에 잠시 더 머물기를 기꺼이 받으리다. 이는 실로 긴 여정과 수고로운 인생의 여정에서 쉴 만한 즐거운 안식처요, 제가 갈 곳이 다른 데 없기 때문이니이다."

이에 펠레스 왕은 랜슬롯 경을 품에 안고 그의 이마에 입맞추었으니, 이로써 두 사람은 서로를 친구로 맹세하게 되었더라.

이때 랜슬롯 경은 코르빈에 머무르며, 그 시기에는 더 이상 방랑을 계속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그 동안, 그리고 그 모든 때에, 랜슬롯 경이 간 캐멀롯의 궁정에서는 큰 의아함이 일었노라. 그가 어디로 갔으며 어떻게 되었는지, 온 세상에 그의 소식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더라.

[일러스트레이션: 미인 엘레인이 랜슬롯 경에게 그의 방패를 맡기다]

[일러스트레이션]

제삼장

아서왕이 아스토라트에서 대회를 선포하신 일과, 코르빈의 왕 펠레스가 그의 궁정을 이끌고 그 곳으로 가신 일, 또한 그 길에서 랜슬롯 경과 라베인 경이 두 명의 기사들과 조우하신 일을 서술하노라.

〈각주: 아서왕이 대회를 선포하시니라.〉

이때 아서왕이 아스토라트에서, 성모 승천일에 큰 시합을 열기로 선포하더라. 이에 왕은 이 시합에 관한 소식을 땅 끝 끝까지, 동서남북 사방에 널리 전파하셨노라.

그리하여 어느 날, 한 선전관이 아서왕의 시합 소식을 코르반에 있는 펠레스 왕에게 전하매, 이 소식을 들은 펠레스 왕은 즉시 자신의 궁정을 준비시켜 아서왕의 선전관이 코르반에 가져온 그 명령을 따라, 무예의 장이 될 아스토라트로 향하게 명하셨노라.

〈각주: 랜슬롯 경이 근심에 빠지다.〉

이때 랜슬롯 경은 마음속으로 깊은 근심을 품었노라. 그는 스스로 이르되, "내가 이 궁중과 함께 아스토랄트로 갈 때, 나를 알아볼 자가 있을까 두렵구나," 하였노라. 랜슬롯 경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친족들이 자신에게 가한 모욕을 잊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구이니비어 왕비를 구하기 위해 앞서 말한 그 모험에서 수레를 타고 달려간 자신의 행위를 크게 책망하였기 때문이었노라.

랜슬롯 경의 자존심은 완고하고 고집스러워, 그는 그것을 꺾거나 부수려 하지 못하였노라. 또한 펠리아스 경과 에커 드 마리시 경이 자신에게 한 말로 인해 입은 그 모욕을 덮어두려 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자신의 명성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옛 동료들이 자신을 보거나 그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코르빈 왕 펠레스의 명령을 거절할 길이 없음을 알았으니, 이제 그는 코르빈 왕의 궁정 기사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라, 그 왕이

명하는 바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라. 이에 그는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마음이 크게 흔들렸노라.

〈각주: 펠레스 왕이 랜슬롯 경과 담소하시니라.〉

이때 펠레스 왕은 레 세발리에 마르페가 아스토라트에서 열리는 대회의에 가고자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어느 날 왕은 랜슬롯 경을 따로 불러 이렇게 이르시되, "경이시여, 아서왕이 선포하신 이 대회에 우리 궁정 일행과 함께 가시지 않겠소?"

이때 랜슬롯 경이 이르되, "폐하, 저는 가기를 원치 않사옵니다."

펠레스 왕이 이르시되, “기사여, 내 뜻이 너의 뜻에 크게 어긋나므로 네가 가고자 하지 아니하면 내가 강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네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슬픈 일이 될 것임은 알지니라. 진실로 너는 우리 궁정 중 그 누구보다도 으뜸이며, 가장 빛나고 찬란한 빛이니라. 그러므로 네 없이 우리가 그곳으로 갈진대 이는 우리 모두에게 슬픈 일이 되리라.”

이때 랜슬롯 경은 펠레스 왕을 매우 단호히 바라보며, 그의 마음이 왕을 향해 기울어지자 이르되, “그대가 정말로 나의 동행을 간절히 원하는가?” 펠레스 왕이 이르되, “그렇노라.” 랜슬롯 경이 이르되, “그렇다면 그대와 같이 가겠노라.” 이 말을 듣자 펠레스 왕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더라.

때가 이르매 랜슬롯 경은 그들과 함께 아스톨로로 떠날 준비를 갖추었고, 출발의 날이 다다르자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더라.

〈각주: 펠레스 왕과 그의 궁정이 아스토락으로 행차하시니라.〉

그 후 그들은 천천히, 그러나 차근차근 아스토라트 쪽으로 길을 재촉하더라. 그들이 코르빈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은 어느 백작의 성에 다다랐는데, 그 성은 마을로부터 약 세 리(league)쯤, 아니면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노라. 이 백작은 펠레스 왕의 친족으로, 그와 매우 친밀한 사이였으므로, 이때 왕과 그 궁정 사람들을 자택에 머물게 함을 기뻐하였노라. 또한 코르빈에서 온 자들도 또한 기뻐하였으니, 이는 아스토라트 인근의 다른 모든 성들과 여관들이 이때로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요, 이 곳이 머물기에 매우 고결하고 훌륭한 곳이었기 때문이었노라.

이리하여 펠레스 왕과 그의 궁정이 그 곳에 며칠간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모든 기간 동안 랜슬롯 경은 자신을 아는 이가 우연히 그를 보고 정체를 알아차릴까 봐 늘 은신하며 지냈다. 이러한 목적과 자기를 숨기기 위해, 랜슬롯 경은 왕의 궁정보다는 오히려 아름다운 엘레인 부인의 궁정에서 더 자주 지냈다.

〈각주: 엘레인 공녀와 랜슬롯 경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더라.〉

이때 호수의 부인 엘레인은 이 일에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녀가 다른 모든 남자들 가운데서도 랜슬롯 경을 가장 높이 존경하였기 때문이라. 그녀는 그가 그곳에 모인 다른 기사들과 함께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어, 그분의 고귀함이 그들 amongst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였노라.

그리하여 어느 날, 그 백작의 성당 정원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을 때에 — 호수의 부인 엘레인과 여러 왕실 신하들의 궁정이 근처에서 공놀이하고 있었느니라 — 엘레인은 이 일에 대하여 랜슬롯 경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며 이르되, “아름다운 경이시여, 내일 모레 있을 이 고귀하고 기사다운 대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때 랜슬롯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옵니다, 부인."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 그리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경? 경의 무공으로 보아서는 그곳에서 지극히 큰 명성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그때 잠시 랜슬롯 경은 침묵하더니, 잠시 후 그녀에게 이르되, “부인, 제가 스스로를 ‘레 샤발리에 말페’라 칭하는 것을 잊으셨나이까? 그 이름은 제 친구와 친척들이 제가 어떤 일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여겨, 제가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이니이다. 이제 그들이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저는 그들을 매우 크게 불쾌하게 여기며, 그들의 눈앞에서 제 잘못이 씻겨지기 전까지 그들을 피하고 싶사옵니다. 이 대회에는 예전에 저를 알았던 이들이 많사오니, 만약 가능하거든 그들을 피하고 싶사옵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서왕이 명하신 전투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바이니이다.”

이후 잠시 동안 그들은 침묵을 지켰고, 곧이어 엘레인 낭자가 입을 열었다. “마르페이트 경, 저는 당신이 과연 누구이며, 말씀하신 당신의 동료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때 랜슬롯 경은 미소를 짓며 이르되, “부인, 지금 당장 제가 누구이며 그들이 누구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사오나, 그들은 매우 훌륭하고 가치 있는 기사들과 신사들이라는 것만은 아뢰오." "네, 그렇군요," 엘레인 낭자가 이르되, "그것은 충분히 믿을 만한 말씀이오."

그때로 그 일과 관련하여 더 이상 말은 오가지 아니하였으나, 호수의 부인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일, 즉 랜슬롯 경이 앞서 말한 그 대회에 참가하기를 바라는 그 일에만 머물러 있더라.

그 후 어느 때에 두 사람이 홀로 함께 있을 때, 그녀가 이르되, "기사이시여, 악행의 기사여, 내가 큰 은혜를 하나 청하노라."

랜슬롯 경이 이르되, "부인이시여, 원하시는 바를 무엇이든 묻으시오. 만일 그 일이 내 힘으로 가능하고, 내 기사도의 명예에 부합한다면, 당신이 무엇을 청하시든 나는 반드시 행하리이다."

"경," 엘레인 낭자가 이르되, "내가 간절히 청하오니, 만약 허락하신다면 이 한 가지 부탁이 있나이다. 그것은 경께서 기이한 갑옷 한 벌을 준비하게 하사, 그 갑옷을 입으시면 경의 친구들이 경을 알아볼 수 없게 하시고, 또한 그 복장으로 변장하여 토너먼트에 임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경께서 그 토너먼트에서 나의 색채를 착용하시기를 원하오니, 이는 경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전투에서 영광을 얻고자 함이니이다."

〈각주: _랜슬롯 경은 토너먼트에 출전하려 하더라._〉

이에 랜슬롯 경은 깊게 한숨을 쉬며, 엘레인 공녀를 단호히 바라보며 이르되, "공녀여, 당신이 나의 자존심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지 못하오. 나는 지금과 같이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기를 원하오. 그리고 당신이 나의 기사도 정신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지 못하오. 당신이 나에게 싸우라고 명하시는 상대는 과거의 친구들이요, 함께 무기를 잡았던 동료들이오. 그러므로 내가 이런 일에서 성공한다면, 내가 얻게 될 모든 명성은 그들에게는 오명이나 다름없을 것이오. 더욱이 고백하건대, 내 평생 동안 어느 공녀의 색채도 입어본 적이 없소. 나는 나의 기사도를 왕과 왕비의 자격을 지닌 한 여인에게 맹세했기 때문이오. 그러나 비록 이러한 사정들이 있더라도, 당신께서 나를 위해 청원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내 본성에 맞지 않소. 내가 진실로 말하건대, 공녀의 명령이라면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칠 것이오. 그러므로 내가 말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청을 들어주겠소. 그러니 당신이 말한 갑옷을 준비해 주신다면, 나는 내 능력 있는 대로 당신의 뜻에 따르겠소."

이렇게 랜슬롯 경이 말하매, 엘레인 낭자는 그에게 그러한 미소로, 그리고 지극한 자비로운 사랑으로 응수하였으니, 그 미소 가운데 그녀의 기쁨과 크나큰 사랑이 모두 드러난 듯하였더라. 그녀가 이르되, "확실히 내가 당신의 손에서 큰 영광과 명성을 얻으리이다. 내가 믿거니와, 당신은 실로 이 세상 모든 기사 중 가장 위대하고 앞선 자 중 한 분이며, 모든 고귀한 신사의 완벽한 벗이시니이다."

이때 그 성의 영주 백작에게는 타이 경이라 불리우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당시 설사로 누워 앓고 있었다. 그리고 타이 경의 갑옷이 그 성에 마련되어 있었다. 이에 호수의 부인 엘레인은 백작에게 나아가,

그 갑옷을 랜슬롯 경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달라고 간청하였다. 백작은 그녀의 청을 들어주어 갑옷을 그에게 건네주었더라.

그때 그녀가 타이르 경의 갑옷을 랜슬롯 경에게 가져오게 하였고, 이로써 엘레인 부인은 그 대회를 위해 그를 온전히 차려 입혔으니,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각주: 엘레인 공녀가 랜슬롯 경에게 자신의 소매를 건넨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후, 엘레인 낭자가 랜슬롯 경이 머무는 방으로 찾아왔는데, 그의 오라버니 라베인 경도 함께였더라. 엘레인 낭자는 손에 붉은 빛이 도는 비단 소매를 들고 있었으니, 그 비단은 값진 진주들로 매우 화려하게 수놓아졌더라. 그녀가 랜슬롯 경에게 이르되, "경께 간청하오니, 이 소매를 받아 주시옵소서, 경이시여. 그리고 저를 위하여 이를 호의의 표시로 착용해 주시옵소서."

그때 랜슬롯 경은 에일레인 공녀를 보시며 매우 자비로운 미소를 띠우시고 이르시되, "이것이 당신의 기쁨이 되겠소?" 공녀가 대답하되, "그렇사옵나이다." 하니, 랜슬롯 경이 다시금 미소하시며 이르시되, "모든 일에 있어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겠소." 하시고는 그 소매를 취하여, 그가 토너먼트에서 쓰려던 투구의 꼭대기에 그것을 감아 올렸노라. 그 소매는 투구 주위에 불꽃과 같은 형상의 새틴 화관을 이루었으니, 그 화관 위의 진주들은 이른 아침에 보게 되는 이슬 방울들과 같았노라. 그러므로 그 화관의 광채와 그 위의 진주들 때문에, 에일레인 공녀의 호의는 그토록 현저하여, 온 세상이 그것이 무엇인지 보지

않을 수 없었노라. 그리하여 랜슬롯 경은 아름다운 에일레인 공녀의 호의를 받으셨노라.

이때 랜슬롯 경이 그 은혜를 받아들인 후, 라베인 경이 말하여 이르되, "악행의 기사여, 내가 당신을 따라 이 대회로 가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당신의 동행자가 되어 함께 하리니, 당신과 함께 함으로 나는 반드시 큰 명예와 많은 영광과 명성을 얻으리라 믿노라. 그러므로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노라."

〈각주: 랜슬롯 경이 라베인 경을 동행자로 받듦.〉

이때 랜슬롯 경은 라베인 경을 바라보며 그에게 미소를 지었고, 그를 지극히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랜슬롯 경은 라베인 경에게 이르시되, "내 친구여, 내가 기꺼이 너를 나의 전우로 받아들이노라. 진실로 나는 이와 같은 때에 나와 함께하기를 더 기뻐할 만한 이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 믿노라." 이에 라베인 경 또한 랜슬롯 경의 뜻대로 되었더라.

그때 랜슬롯 경은 엘레인 부인을 돌아보며 이르되, "부인, 이 방패와 나의 갑옷을 보시나이까?" 그녀가 이르되, "보나이다."

랜슬롯 경이 이르되, "부인, 이 방패는 내게 매우 귀중한 것이니, 이는 그 방패와 나의 모든 갑옷이 우리 인간들이 거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한 분 놀라운 부인으로부터 내게 하사되었기 때문이라. 그녀가 내 갑옷을 내게 주신 이후로, 나는 그 방패와 갑옷을 신사의 품위에 맞게 사용하고자 항상 모든 방법을 다해 왔노라. 그러므로 그 위에 전장

의 흔적이 있더라도, 그들의 빛을 더럽히는 불명예의 흔적이 없도록 하려 했노라. 이제 내가 부인에게 간청하노니, 이 방패와 갑옷을 당신의 처녀의 방으로 가져가서, 마치 당신이 당신의 생명 그 자체를 지키듯 성스럽게 나를 위해 그것을 신탁으로 간직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말하며 랜슬롯 경은 엘레인 부인에게 자신의 방패를 건네며 이르되, "부인,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나의 갑옷과 이 방패를 되찾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방패를 만지거나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라."

엘레인 부인이 이르되, "주인의 말씀대로 하겠사오며, 나는 이 방패와 갑옷을 나의 생명 그 자체처럼 성스럽게 간직하겠사오나이다."

〈각주: 랜슬롯 경과 라베인 경이 아스토랄로 떠나다.〉

이와 같은 일들이 모두 결말을 맺고, 이튿날 랜슬롯 경은 타이 경의 갑옷을 입고, 라베인 경은 자신의 갑옷을 차려 입은 채, 그 백작의 성채를 떠나 그 곳을 벗어나서, 아스트롤라트를 향해 길을 재촉하더라.

그 날이 바로 그 날이라, 아서왕의 궁정에서 매우 존경받는 두 명의 기사가 랜슬롯 경과 라베인 경이 아스토랄로 향하던 그 길 위에 있었다. 이 두 기사는 가웨인 경과 마도르 드 라 포트 경이었노라.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충성과 존경을 바치는 여러 영주들이 따랐으며, 그 무리는 모두 물방아간 근처, 매우 서늘하고 쾌적한 곳의 여러 나무 그늘 아래에 서 있더라. 그 중 일부는 말 위에 앉아 있었고, 일부는 말에서 내려 서늘하고 쾌적한 풀밭 위에 누워 쉬고 있더라.

그때 가웨인 경은 랜슬롯 경과 라베인 경이 말을 타고 다가오는 것을 보았더라. 그가 함께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보라, 저 두 기사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도다. 이제 내가 생각하건대, 모다르 드 라 포트 경과 내가 그들과 시합을 벌여 보리라. 너희는 곁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라."

〈각주: 가웨인 경과 마도르 경이 랜슬롯 경과 라베인 경을 부르다.〉

이에 가웨인 경과 마도르 경이 말을 타고 조금 앞서 나아가 두 사람을 만나 매우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고, 랜슬롯 경과 라베인 경도 또한 그들을 동등하게 맞이하여 인사하였다. 이때 가웨인 경이 이르되, "영주들이여, 내가 청하노니 너희가 누구이며 이 길에 어찌하여 가는지 내게 말하라."

이때 랜슬롯 경은 그들의 방패에 새겨진 문장을 보아 그 두 기사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으므로, 가웨인 경이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조금 바꿔 대답하였노라.

"영주여, 당신이 우리에게 그러한 지식을 요구하는 권위가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하나, 다만 내가 레 쁘발리에 말페(Le Chevalier Malfait)라 불린다는 것과, 나의 동행인 이 분은 코르빈의 시르 라베인(Sir Lavaine of Corbin)이라 한다는 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나이다. 그리고 우리의 여정 목적에 관하여는, 하느님 허락하건대 내일 아스토라트(Astolat)에서 열리는 토너먼트에 참가하려 한다는 것과, 그 친선

된 싸움에서 당신도 또한 참여하실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덧붙여 말씀드리노라.”

이에 가웨인 경이 이르시되, “말하노니, 악행의 기사여, 너와 그 동료가 나와 내 동료 기사들과 겨루어 보기를 원하느냐?”

이때 랜슬롯 경은 그러한 맞수와의 만남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혹시라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리라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그는 가웨인 경의 도전을 받아들여야 함을 알았으므로, 잠시 침묵을 지키던 끝에 이르되, “기사님이시여, 우리 둘은 평온히 길을 가려 하나이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사오면 당신의 도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나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우리를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나이까?”라고 하니,

“이제야,” 가웨인 경이 이르되, “내일 있을 그 토너먼트에 출전하려 한다는 네가, 길에서 마주치는 두 기사와 우호적으로 창을 부딪힐 마음조차 없다니, 이는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경,”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우리는 경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비를 갖추라. 우리 역시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하리라.”

〈각주: 네 명의 기사들이 투구를 맞대다.〉

〈각주: 가웨인 경이 쓰러지니라.〉

이때 가웨인 경과 모다르 드 라 포트 경은 랜슬롯 경의 조언을 따라 준비를 갖추었으니, 모든 준비가 끝난 뒤 그들은 좋은 질주를 위해 조금 떨어진 곳으로 물러났더라.

그리하여 그 격돌을 준비한 모든 자가 갖추어지자, 각기 기사들은 고함을 지르고 말의 갈퀴를 차서 달렸으며, 네 기사가 함께 우레처럼 내달리니 그 위력이 장대하여 땅이 그 아래에서 진동하였더라.

이에 그들은 길의 중간에서 마주쳤고, 이 네 훌륭한 기사들의 격렬한 충돌은 반 마일 밖에서도 들릴 만한 굉음을 일으켰으니, 그 소리는 더욱 멀리까지 퍼져 나갔더라.

그 격돌에서 라베인 경과 모다르 경은 각각의 창을 적에게 부수었으나, 둘 다 낙마하지는 않았더라. 그러나 가웨인 경은 그렇지 못하였으니, 그의 창은 손잡이 끝까지 산산조각이 나버렸기 때문이라. 반면 랜슬롯 경의 창은 견고히 버텼으므로, 가웨인 경은 안장에서 들어 올려져 땅에 던져졌고, 그 충격이 심하여 그는 떨어지기를 멈출 때까지 세 번이나 네 번이나 구르며 굴렀더라.

그때 그 대결을 지켜보던 자들은 가웨인 경이 손쉽게 상대를 진흙탕으로 쓰러뜨릴 것이라 굳게 믿었노라. 가웨인 경은 온 세상에 걸쳐 가장 위대한 기사 중 한 분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가 기수를 맞추어 돌진한 그 미지의 기사에게 얼마나 격렬하게 땅바닥으로 던져졌는지 목격했을 때, 그들의 놀람은 상상을 초월하였더라.

그러나 포트의 경 마다는 가웨인 경이 죽은 자처럼 먼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자, 말에서 내려 그 쓰러진 기사의 곁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는 가웨인 경의 투구의 얼굴 가리개를 들어 올렸노라. 보라, 가웨인 경의 얼굴은 죽은 자와도 같았더라. 처음에 포트의 경 마다는 그가 죽은 줄 알았으나, 잠시 후 가웨인 경이 한숨을 쉬고 다시 한 번 숨을 내쉬는지라, 포트의 경 마다는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낙하의 격렬함으로 인해 기절하였음을 알았노라. 그리고 포트의 경 마다는 그 만남으로 인해 더 이상의 재앙이 닥치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때 에커 경의 아들, 즉 구이니비어 왕비의 친정 오빠인 에커 경의 아들인 에커 경의 아들인 에커 경의 아들

아들인 에커 경의 아들인 에커 경의 아들인 에커 경의

커 경의 아들인 에커 경의 아들인 에커 경의 아들인 에

들인 에커 경의 아들인 에커 경의 아들인 에커 경의 아

경의 아들인 에커 경의 아들인 에커 경의 아들인 에커

인 에커 경의 아들인 에커 경의 아들인 에커 경의 아들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잘 들었노라, 기사여. 이 다툼은 전적으로 네가 스스로 일으킨 것이요, 우리 쪽에서 꺼낸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만일 이 존귀한 기사에게 불행이 닥쳤다면, 그것은 그의 스스로 꾀한 바요, 내 뜻이 아니니라.”

그러나 에커 경의 아들인 마도르 경은 오히려 더 격렬하게 외쳤다. “가시오! 가시오, 우리를 평안히 내버려 두시오!” 이에 랜슬롯 경과 라베인 경은 안장을 조이고 말발굽을 채워 그 곳을 떠나가니, 마도르 경과 함께 있던 다른 기사들은 가웨인을 부축하여 그 기절에서 깨어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각주: _아스토랠드의 버나드 경이 랜슬롯 경과 라베인 경을 따르니라._〉

이때 아서 왕의 기사 중, 가웨인 경과 마도르 경과 함께 있던 자리에 아스토랫의 노장(老將)이자 매우 존귀한 기사 한 명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버나드 경이요, 아스토랫의 버나드라 불리었더라.

그가 랜슬롯 경과 라베인 경이 이와 같이 떠나가는 것을 보자, 즉시 그들을 따라 달려가 그들을 따라잡고 인사한 뒤 이같이 말하더라.

“경들이시여, 청하노니 오늘 밤 경들이 묵으실 곳이 어디인지 저에게 알려주소서.”

랜슬롯 경이 이르되, “아름다운 영주여, 우리가 어디에 묵게 될는지 알 수 없사오니, 우리는 아스토라트에서 구할 수 있는 묵처를 찾아 가고 있나이다”

버나드 경이 이르되, “오늘 밤 아스트라트에서 묵을 곳을 찾으실지 언정, 모든 곳이 가득 차 있사오니 마땅치 않사옵니다. 이제 저를 청하옵나니, 제게 묵게 하소서. 제 집은 매우 좋고 아름다우며, 귀하께서 묵어 주신다면 저는 큰 영광을 얻으리이다. 내가 맹세하노니, 아까 가웨인 경에게 내리친 그 방패 타격은 내가 본 적 없는 위력이라. 호수의 랜슬롯 경 자신이라 할지라도 그 전투에서 귀하보다 더 용감하게 행할 수는 없으리라 믿노라. 그러므로 내일 장차 귀하가 큰 영광을 얻으실 것이며, 만일 귀하와 동행한 분이 오늘 밤 제 집에 묵어 주신다면, 나도 마땅한 존경을 받을 것이라 믿노라.”

그때 랜슬롯 경은 웃으며 버나드 경에게 이르되, “잘하셨소, 기사여. 당신의 예우에 감사를 표하오. 그러니 우리는 토너먼트가 시작될 때까지 당신과 함께 이숙을 머물기로 하겠소. 다만 한 가지만 요구하오니, 우리는 다른 이들과는 별도로 비밀리에 숙소를 마련하기를 원하오. 내일, 그리고 이 토너먼트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오.”

“영주여,” 버나드 경이 이르되, “모든 것이 폐하의 원하시는 대로 될지라.”

이 세 사람은 함께 길을 재촉하여, 마침내 아스토라트와 그곳의 영주 버나드 경의 거처에 다다르니라.

〈각주: 랜슬롯 경은 버나드 경의 집에 묵었노라.〉

〈각주: 아서왕은 랜슬롯 경을 아시더라.〉

이때 에스톨라트 성의 거꾸편에는 매우 아름다운 저택이 있었으니, 그곳은 아서왕과 그의 궁정이 묵고 있던 곳이었더라. 에스톨라트 성에는 높은 단상식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은 시버드 경의 집 정원을 내려다보도록 되어 있더라.

그 날 아서왕은 꽃밭과 잔디밭 위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 단상식 정원을 거닐고 계셨더라. 왕이 그렇게 거닐다가 문득 단상 가장자리 너머로 시버드 경의 집 정원을 내려다보셨는데, 그 때 랜슬롯 경이 혼자서 몸을 쉬려고 정원을 거닐고 있었더라. 그와 함께한 자는 아무도 없었더라.

당시 랜슬롯 경은 더위를 피하려 갑옷을 벗어 던지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머리를 벗고 바람을 맞으며 거닐고 있었더라. 이로 인해 아서왕은 즉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셨더라.

이때 아서왕은 그 자리에 랜슬롯 경이 있음을 보시고 크게 놀라니, 그분은 스스로 이르시되 “랜슬롯 경이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하셨노라. 처음에 왕은 랜슬롯 경에게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는 전갈을 보내려 하셨으나, 뒤이어 그분은 아마도 랜슬롯 경이 이와 같이 불려 나가 자신을 드러내야 함을 불쾌히 여기리라 생각하셨노라. 왕은 그 때에 랜슬롯 경이 아무에게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려 하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이에 아서왕은 스스로 말씀하시되 “좋다, 그대로 두자. 내일, 랜슬롯 경이 저기 전장(戰場)에서 그와 싸우게 될 많은 기사들을 놀라게 하듯, 스스로를 드러내리라. 그러므로 그로써 자신의 방식대로 드러내게 하라.” 하셨노라.

이와 같이 아서왕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셨더라. 그러므로 그 때에 그는 랜슬롯 경의 정체를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일을 오직 자신의 가슴 속에 깊이 숨겨 두었노라.

그러나 그가 다시 자신의 궁정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 모인 기사들에게 이르되, "경들이여, 나는 오늘 어떤 기사가 이곳에 왔음을 보았노라. 그는 내일 열리는 기마창시합에서 너희 모두 중 가장 뛰어난 자와 겨루리라 믿노라." 이에 그곳에 있던 기사들이 왕에게 아뢰되, "폐하, 그 기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그에게 마땅한 존경을 다할 수 있사오니이다." 아서왕이 이르시되, "아니로다. 내가 지금 그 기사가 누구인지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일 너희는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리라."

그때 그 곳에 있던 기사 중 한 명이 이르되 "아마도 그분은 오늘 아침 성에서 조금 떨어진 대로에서 가웨인 경을 쓰러뜨리신 기사이시라. 그분은 스스로를 말페아르 경이라 칭하시며, 동행한 젊은 기사로 코르빈의 왕자 라베인 경을 거느리고 있노라."

이에 아서왕께서 웃으시며 이르시되, "그가 틀림없도다." 하시고는, 왕께서 자신의 숙소로 물러가시니, 왕께서 그들에게 말한 그 기사가 누구인지 모든 기사들이 매우 궁금해하며 남았더라.

* * * * *

이와 같이 랜슬롯 경과 라베인 경은 아스토랄에 이르렀으니, 이제 호수의 랜슬롯 경과 그의 동료인 코르빈의 라베인 경에게 영향을 미친

그 유명한 무예 시합의 내력을 따르려 하노라. 그 무예 시합에 관하여 곧 들으리라 하거니와, 라베인 경은 거기서 지극한 영광과 명성을 얻었으므로, 이후로 그는 기사도 시대의 위대한 영웅 중 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나중에는 원탁의 기사 동맹에 가입한다는 최고의 영예를 받게 되었노라.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랜슬롯 경과 라베인 경이 아스토달의 들판을 내려다보며:]

[그림]

제4장

랜슬롯 경과 라베인 경이 아스토라트에서 벌인 투기에서 싸운 일과, 그 일로 인해 랜슬롯 경이 부상을 입고 라베인 경이 그를 안전한 곳으로 모셔간 일을 전하노라

〈각주: 아스토락의 투기장(리스트)에 대하여.〉

이때에 호수의 부인의 날, 즉 성모 승천일에 아스토라트에서 벌어질 전장은 그 어떤 때보다도 장엄하고 눈부신 광경이었노라. 아서왕이 선포한 그 토너먼트가 왕의 시선 앞에서 벌어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이니라.

그 아침은 놀랍도록 맑고 투명하며 온화하였더라. 온갖 지위의 사람들이 모여든 군중이 푸른 초원 전체를 뒤덮었으니, 영주와 부인, 기사와 귀부인, 시종과 시민, 농민과 장인들까지 모두 각기 자신의 관중석으로 향하며 움직이고 있었노라.

여기에는 화려한 의복과 빛나는 색채가 넘쳤고, 비단 자락이 살랑거렸으며, 빛나는 장신구들이 반짝이고 빛나고 있었노라. 이러한 모든 빛의 광채와 반짝임 때문에 온 세상은 생기와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였노라.

그러나 여러 사람이 사방으로 밀쳐대는 그 혼란은, 하나둘씩 군중이 자리를 잡고 고요함을 되찾아감에 따라 서서히 질서로 정리되어 갔다. 그리하여 결국, 전투를 위해 준비된 장지는 거의 비워졌고, 오직 몇몇 발걸음을 떼지 못한 자들만 남았으니, 그들은 경호원들에 의해 제자리로 밀려났다.

〈각주: 기사들이 시합장으로 들어오니라.〉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정리되자, 토너먼트의 마샬이 나팔을 불렀고, 곧이어 그 넓은 초원의 한쪽 편과 다른 쪽 편에서 서로 대결할 두 기사의 부대가 차례로 들어왔다.

그때 보라! 햇살이 빛나는 갑옷 위에 번쩍이며 내려앉도다. 창끝에 달린 깃발과 창끝의 펜들이 햇빛을 받아 불꽃처럼 반짝이도다. 전쟁마들은 싸움의 정열에 울부짖으며 날뛰고, 갑옷은 부딪히며 방패판은 울

려 퍼졌으니, 이 훌륭한 기사들의 대오가 차츰 전투 태세를 갖추는 소리가 들렸더라.

초원의 한쪽 끝에는 아서왕의 편에 선 기사들이 모였으니, 그들의 지휘관은 스코틀랜드 왕과 아일랜드 왕이요, 그들과 함께 원탁의 많은 기사들이 함께하였는데, 그 명성은 노래와 전투 양쪽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더라. 이 무리의 기사 수는 모두 이백 십 명이었노라.

〈각주: 두 패의 경쟁자들에 관하여.〉

전투의 초원 다른 끝에는 아서왕의 세력을 막아설 세력이 집결하였으니, 그 무리의 수장은 북웨일스의 왕과 백 기사의 왕, 노섬브리아의 왕, 그리고 고귀한 공작 갈라호였더라. 비록 그 무리에는 원탁의 기사들이 없었으나, 기사도적 궁정들에서 매우 큰 명성과 높은 신망을 누린 많은 명장들이 함께하였으니, 그 무리의 수는 모두 이백 삼십이 명이었더라.

〈각주: _랜슬롯 경과 라베인 경은 아스타롤의 광야를 내려다본다._〉

이때 전장의 한 구석에 이르러, 숲의 나무들이 초원 가까이로 굽이쳐 들어와 마치 푸른 잎사귀로 된 담장처럼 그 일대를 둘러쌌더라. 서늘하고 그늘지며 고요한 그 숲의 그늘 아래서, 랜슬롯 경과 라베인 경은 두 무리의 기사들이 전투 태세를 갖춘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는 지점에 자리를 잡았더라. 이때 라베인 경의 눈은 빛나는 불꽃처럼 빛났고, 뺨은 마치 타고 있는 듯 붉게 익어 있었으며, 숨을 쉴 때마다 숨이

막혀 거칠었더라. 이는 그가 처음 참가하는 대장정이었기에, 그가 이 무예의 현장에서 무엇을 맞이하게 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 순간 랜슬롯 경은 조금도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는 마치 철로 만든 동상처럼 말 위에 앉아, 고요하고 굳건하며, 그 앞의 광활한 들판을 매우 단호하게 응시하였더라.

그때 랜라인 경이 놀랍도록 높고 맑은 목소리로 말하더라. "영주여," 그가 이르되, "우리는 이 싸움에서 어느 편에 서서 싸우기를 원하시나이까?"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우리는 아직 어느 한쪽에도 합세하지 말자. 차라리 잠시 기다리며 이 전투의 결말을 지켜보라. 그리고 한쪽이 패배할 기로에 서 있음을 보거든, 그때 그 편에 합세하리라. 만약 우리가 그 편을 패배에서 승리로 이끄는 데 공헌한다면, 우리의 명성과 영광은 그만큼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

라베인 경이 말하되, "폐하, 지혜가 깊으시니이다."

그때, 두 사람이 그와 같이 지켜보고 있자니, 어느 한쪽에서 세 명의 기사대장이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도 세 명의 기사대장이 나왔으니, 그들은 이 여섯 명의 기사대장이 서로 일대일로 맞서 싸워, 두 군대가 총력전을 벌이기 전에 양쪽의 힘을 시험하려 함을 알았노라. 그리고 랜슬롯 경은 이 여섯 명의 기사대장을 아주 잘 알고 있었으니, 그는 랜베인 경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일러주었노라. 즉, 그는 아서왕 편에 서 있는 기사들은 스코틀랜드 왕과 아일랜드 왕, 그리고 팔라마데스 경이라고

밝히며, 다른 편에 서 있는 기사들은 노섬브리아 왕과 백 명의 기사 왕, 그리고 고귀한 공작 갈라호라고 일러주었노라.

〈각주: _전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_〉

이때 랜슬롯 경이 이 여섯 명의 용감한 기사들이 누구인지, 또 그들 중 누가 서로 맞서 싸우려 하는지를 케이 경에게 설명하고 있을 때, 전령이 나팔을 매우 높고 날카로운 소리로 불었다. 그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각기 기사들은 말에 안장을 채웠고, 말들은 제 자리에서 뛰어올라 돌진하였다. 세 기사가 세 기사를 향해 번개가 서로를 향하듯 달려들었다.

그들은 경기장 한가운데서 부딪쳤으니, 꺾이는 나무의 소리와 갑옷이 부딪치는 굉음이 천 명도 아닌 한 마일 밖에서 들릴 만큼 컸다. 그 충돌 속에서 팔라미데스 경과 고귀한 공작 갈라호 경은 서로를 먼지 속으로 쓰러뜨렸다. 백인의 왕은 아일랜드의 앵거스 왕을 치니, 그 위력이 너무도 두려워 앵거스 왕은 땅에 죽은 자처럼 누웠고, 그의 시종들에게 들리어 전장 밖으로 옮겨져야 했으며, 그 날 다시는 싸울 수 없었다. 노섬버랜드의 왕과 스코틀랜드의 왕은 서로의 창을 부러뜨렸으나, 자신들은 쓰러지지 않았다.

이로써 첫 번째 격돌은 아서왕에 대항한 편에 다소 유리하게 끝났다.

〈각주: _무예의 웅장한 시합에 대하여._〉

이에 그 고결한 기사 대 기사의 격투를 목격한 모든 이들이 크게 환호성을 지르니, 그 광대한 환호성은 숲 속을 강풍이 우레처럼 몰아치는 듯한 소리와 같았더라. 그 모든 굉음 한가운데서 전령이 다시 나팔을 불었고, 이에 두 진영이 서로를 향해 돌진하여, 지진은 마치 지진이 난 듯이 그 돌진 아래에서 떨리고 흔들렸노라.

그리하여 잠시 후, 그들은 만나니, 철기의 소리와 부러진 나무의 파열음이 어우러져 그 격돌의 굉음에 귀를 가진 자들은 모두 혼비백산하였더라. 이때 공기는 먼지와 나무 조각, 그리고 비단 조각과 깃털들로 가득 찼고, 곧 붉은 먼지 구름 속에서 거대한 전투의 비명이 울려 퍼졌노라. 이는 사람들의 함성, 말의 우는 소리, 타격의 굉음, 그리고 쓰러진 자들의 신음소리였더라.

때때로 어떤 기사가 상처 입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안장에서 비틀거리며 군중 속으로 나오기도 하고, 다른 때에는 기사들의 무리가 그 먼지 속으로 달려 들어가, 곧이어 자신이 구해 낸 부상 기사를 모시고 다시 나오기도 하였노라. 전장의 다른 곳에서는 창을 든 기사들이 서로를 향해 돌진하여, 때때로 한 기사가 안장에서 날아오르거나, 혹은 기수와 기사가 함께 먼지 구름 속에 굴러떨어지곤 하였더라.

이때로 잠시 동안 전투는 치열하게 이어졌으나, 그 승패가 어찌 되는지 아무도 볼 수 없었노라. 먼지와 각기 일대일로 맞서는 기사들의 격투로 인해, 어느 편으로 기울고 있는지 가히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얼마 뒤, 먼지가 조금 걷히자 한쪽의 전투원들은 다른 쪽보다 적어졌고, 이로써 그들의 격렬한 싸움은 다소 누그러들었더라.

그때에 그 전투를 내려다보던 자들은, 아서왕의 편이 조금씩 조금씩 적들을 밀어내어, 장내 그들 쪽의 장벽 쪽으로 몰아넣는 것을 보았더라. (만일 그들이 완전히 그 장벽 쪽으로 밀려들어갔다면, 그들의 전투는 영원히 패배한 것이 되리라.)

이에 랜슬롯 경이 라베인 경에게 이르되 "보라, 저기 고귀한 기사들의 무리가 어찌 그들에게 반드시 닥쳐야 할 패배를 알면서도 끝까지 단결하여 적군과 대항하는지."

"보았노라," 하고 랜슬롯 경이 이르되, "그들을 보고 큰 불쌍히 여기노라."

"그렇다면," 랜슬롯 경이 이르되, "우리는 가장 위급한 편에 서자. 내가 네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고, 아마도 그들을 삼키려 하는 불운을 막을 수 있으리라 믿노라."

"경," 라바인 경이 이르되, "경계하지 마시고, 나도 내 힘껏 경을 도우리이다."

〈각주: _랜슬롯 경과 라베인 경이 전투에 참여하다._〉

이와 같이 랜슬롯 경과 라베인 경은 자신들을 피신시켰던 숲을 벗어나 나섰고, 창을 받쳐 들며 전투를 벌이던 기사들이 있는 곳으로 돌진

하였노라. 그들이 점점 더 빠르게 달릴수록, 마침내 가장 격렬한 혼전 한가운데로 들이닥쳤더라.

이 일에 대한 사연은 이렇더라. 이 공격과 그 이후의 여러 공격에서 랜슬롯 경은 브랜드일 경, 사그모어 경, 도디나스 경, 케이 경, 그리플릿 경을 쓰러뜨렸노라. 사연은 또한 그가 그 창이 부러지기 전에 원탁의 기사 중 그 좋은 기사들을 모두 한 창으로 쓰러뜨렸다고 전하노라. 같은 사연은 라베인 경이 루시안 시종장과 베디버 경을 한 창으로 쓰러뜨렸으며, 그 창 또한 조각이 나버렸다고 전하노라. 사연은 랜슬롯 경이 또 다른 창을 얻었고 라베인 경도 또한 그렇게 하였으며, 그 후 두 사람이 이전처럼 다시 돌격했다고 전하노라. 그리고 이 두 번째 공격에서 랜슬롯 경은 아그라베인 경, 가헤리스 경, 모드레드 경, 로그레스의 멜리엇 경을 쓰러뜨렸고, 라베인 경은 호잔나 르 쿠크 하르디 경을 쓰러뜨렸노라. 그 후 두 번째 창들도 첫 번째 창들처럼 공격 중에 부러졌노라.

그때 랜슬롯 경은 다른 창을 얻기 위해 잠시 물러났으나, 이미 전투의 광기가 랜슬롯 경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는 검을 뽑아 군중의 가장 혼란스러운 곳으로 돌진하여, 온 힘을 다해 좌우를 가리지 않고 내리쳤다. 놀랍도록 짧은 시간 안에 그는 세이퍼 경, 에피노그리스 경, 갤러론 경을 쓰러뜨렸다. 그가 가한 타격은 그토록 두려운 것이었기에, 그 근처에 있던 자들은 그가 미치도록 휘두르는 타격에 누구든 닿는 자를 가차 없이 내리친다는 두려움에 모두 그를 피하여 물러섰다.

〈각주: 엘레인 공주는 이 전투를 기뻐하더라.〉

이때 아서왕은 앉으신 자리에서 곁에 모인 이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저 기사가 어찌 싸우고 있는지. 그토록 훌륭한 싸움을 너희가 본 적이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이르되, “아니오, 그토록 장엄한 싸움은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가웨인 경이 그 전사가 투구 둘레에 두른 불빛 같은 색의 소매를 보았을 때, 그는 아서왕께 아뢰었노라. “저기 그 기사는 어제 성문 앞 대로 위에 저를 먼지 속에 던져 넣은 자라.” 가웨인 경이 또 이르되, “그 일과 그가 지금 벌이는 이 싸움으로 볼 때에, 저 기사는 호수의 랜슬롯 경이 아니면 결코 아닐 것이라. 그러나 실로 호수의 랜슬롯 경이 될 수는 없으니, 이는 이 기사가 투구에 어떤 부인의 색채를 즐겨로 달고 있음이라. 온 세상이 아나니, 호수의 랜슬롯 경은 결코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부인의 색채를 즐겨로 달지 않을 것이라.”

〈각주: 전투의 중단에 대하여.〉

그때에 잠시 동안 전투는 멈추었으니, 이는 그 때에 있어서는 말이나 사람이 더 이상 무언가를 해낼 수 없는 듯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비록 전투가 잠시 멈추었으나, 각기 기사들은 이전의 전투보다 더 큰 전투를 위해 스스로를 다잡았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이제야 비로소 한쪽 편이든 다른 쪽 편이든 이 전투에서 승리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전투의 그 멈춤 사이에서 랜슬롯 경과 라베인 경은 각각 잘 생긴 단단한 새로운 마호가리 나무 창을 하나씩 선택하고, 힘을 회복하기 위해 향기로운 술 한 잔을 마셨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시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보르스 드 가니스 경과 에커 드 마리스 경, 그리고 라이오넬은 그 전장에 있던 자신의 혈육들을 불러모았다. 곧 블라마르 드 가니스 경, 블레오베리스 경과 알리두크 경, 갈리아다난 경, 그리고 벨랑저 경이었는데, 이 모든 기사들은 랜슬롯 경의 친족들이었다. 이들이 서로에게 이르되, "만약 우리가 저들 가운데 놀랍게도 우리와 맞서 싸우는 그 단 하나의 기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필연코 우리는 이 전투에서 패할 것이다. 결코 다른 기사가 저처럼 싸운 적은 없었으니, 오직 랜슬롯 경만이 그러했을 뿐이다. 보라, 그가 바로 이 전투에서 우리를 막아서는 유일한 성채라."

이때 랜슬롯 경의 친족들은 필요시에는 주저 없이 이 기사를 정면으로 무너뜨리기로 결의하더라.

〈각주: 그의 친족들이 랜슬롯 경과 싸움을 걸다.〉

〈각주: _랜슬롯 경이 부상을 입다._〉

그때 곧이어 전투가 재개되었고, 양측은 서로를 향해 돌진하였다. 이때는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 돌진 속에서 랜슬롯 경의 친족들은 붉은 소매의 기사와 그 곁에 있던 자들을 향해 몸을 던졌다. 그리고 보르스 경과 에커 경, 라이오넬 경은 세 명이 한꺼번에 랜슬롯 경을 향해 달려들었고, 랜슬롯 경 또한 그들에게 맞섰다. 곧 한 사람이 세 명과 맞서는 격이었다. 그러나 그 세 명의 공격이 너무도 위력적이어서, 그들의 세 마리 말이 가진 무게로 인해 랜슬롯 경의 말은 쓰러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랜슬롯 경의 말과 랜슬롯 경 자신은 적들이 몰려오는 말들의 발底下로 쓰러져 땅바닥

에 떨어졌다. 그 충돌 속에서 보르스 경의 창이 랜슬롯 경의 옆구리를 찔렀고, 창끝은 랜슬롯 경의 갑옷을 뚫고 깊숙이 옆구리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때 창머리가 창자루에서 떨어져 나가 랜슬롯 경의 옆구리 깊숙이 박힌 채로 남았고, 랜슬롯 경은 크게 신음하였다. 그는 자신이 치명상을 입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때 랜슬롯 경은 땅바닥에 쓰러져 일어설 힘이 없었으니, 그라면 말발굽 아래에서 구타를 당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라베인 경이 그의 처지를 목격하고 크게 외치니, 그와 함께하던 이들이 모두 달려와 랜슬롯 경을 구원하러 왔더라. 라베인 경은 단검 한 방으로 스코틀랜드 왕을 안장에서 떨어뜨렸고, 그 왕의 말을 랜슬롯 경이 누워 있는 곳으로 돌려세웠다. 그리고는 랜슬롯 경 위에 서서 그 주변을 에워싼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를 지키며, 그들의 격렬한 공격을 물리치고야 랜슬롯 경을 다시 말 위에 태워 올렸노라.

그때 랜슬롯 경은 그 중대한 상처로 인한 극심한 고통에 사로잡혀 미쳐버렸노라. 그러므로 그는 검을 뽑아 stirrups(발걸이) 위에 서서 미친 자처럼 좌우로 내리쳤노라. 그는 시어 라이오넬과 시어 보르스 드 가니스를 차례로 쓰러뜨렸으며, 시어 블레베리스에게such a buffet(강타)를 가하여 그가 마치 죽은 자처럼 기절하여 땅에 쓰러지게 하였노라. 그 시기에 시어 라베인은 시어 벨랑거와 명성과 존엄을 갖춘 두 명의 다른 기사들을 쓰러뜨렸노라.

그때 랜슬롯 경은 몸을 돌려 시어 블라마어를 말에서 떨어뜨렸고, 그와 동시에 시어 에커가 그에게로 달려들었노라. 그러나 랜슬롯 경은

전투와 고통의 열기에 눈이 멀어,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노라. 그러므로 그는 시어 에커를 향해 돌진하여, 시어 에커의 머리가 말의 목에 축 처지도록 끔찍하고 무서운 강타를 가했노라.

그때 랜슬롯 경은 시어 에커를 붙잡고 그의 머리에서 투구를 벗겨내려 했노라. 그는 그를 죽이려 했노라. 그 당시 그는 미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노라.

〈각주: 에커 경을 용서하신 랜슬롯 경.〉

그때 그가 자신의 형제 에커 경의 얼굴을 보았으니, 그 얼굴은 자신이 내려친 타격으로 인해 온통 하얗게 질려 창백하였고, 형제의 뺨은 피로 얼룩져 붉게 물들어 있더라. 이에 그의 의식이 돌아왔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노라. 그때 그가 크고도 두려운 목소리로 외치되, "슬프도다! 슬프도다! 내게 무슨 재앙이 닥쳤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고!" 하더라. 이에 그는 에커 경이 있는 그곳을 벗어나, 가장 혼잡한 곳으로 돌진하여 미친 자처럼 분노에 차 좌우를 가리지 않고 휘둘러 대더라.

기록에 의하면, 그 전투에서 랜슬롯 경은 친히 서른 명의 기사를 쓰러뜨렸노라. 그 서른 명 중 열여섯 명은 원탁의 기사들이었더라. 또한 서브 경이 열네 명의 기사를 쓰러뜨렸고, 그 중 여섯 명 역시 원탁의 기사들이었음이 기록되어 있노라.

이 전투에서 그들의 편이 승리를 거둔 것은 바로 랜슬롯 경과 서브 경의 덕분이었노라.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목격한 동지들은 큰 용기

를 얻어 힘을 합쳤고, 그리하여 적들을 초원의 전투터 너머로 밀어냈노라. 적들은 자신들의 진영 경계선까지 밀려나야 했으며, 이로써 전투는 승리로 끝났노라.

이와 같이 그 일이 성취되었으니, 만일 랜슬롯 경과 라베인 경이 아서왕 편과 싸우는 그 무리에 합세하여 원조를 아뢰지 아니하였다면, 그 일은 필히 상실되었을 것이라.

* * * * *

그러나 랜슬롯 경은 죽음을 코앞에 둔 채 상처 입은 채 앉아 있더라. 진실로 그는 죽음의 병과 땀이 이미 자신에게 내린 줄로 여겼으니, 심한 기운 상함이 그의 영혼을 어둡게 했기 때문이라. 그 때 북웨일스의 왕과 노섬브리아의 왕, 그리고 백 기사의 왕이 그에게로 와서 이르되, "경이여, 하느님께서 경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경의 도움과 경의 동반자의 도움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필히 패배했으리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이르되, "이제 경께서 아서왕께로 함께 오셔서, 경이 지극히 공로 있게 deserved한 상을 그분 손에서 받으시기를 청하노라." 그들이 이렇게 매우 기쁜 어조로 말하였으니, 그 중 어느 영웅도 랜슬롯 경이 싸운 전투에서 그리도 심하게 상처 입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각주: 랜슬롯 경은 떠나고자 하였노라.〉

이에 랜슬롯 경이 매우 약한 목소리로 말하되, 그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듯하였노라. 이르시되, "고귀한 영주들이여, 내가 이 일을 통해 명성을 얻었사오면, 그 대가로 공정한 값을 치렀나이다. 나는 크게 다

쳤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사오나, 이제 다만 한 가지 청하오니, 이곳을 떠나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나는 심한 고통 속에 있으며, 이곳을 떠나 어느 곳에서는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그때 세 왕은 그가 상처를 살펴보고 치료받으려 공정한 천막으로 가기를 원했으나, 그는 끝내 그들을 간청하여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더라. 이에 그들은 그를 허락했고, 그는 매우 느리게 그 곳을 떠나기 시작했으며, 라베인 경도 함께 동행하더라.

* * * * *

이러므로 랜슬롯 경과 라베인 경은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아스톨라트에서 열린 그 유명한 대회에서 격투를 벌였노라.

이제 랜슬롯 경이 앞서 말한 대로 부상을 입고 그 곳을 떠나고 난 후의 일이 어떠했는지 알고자 한다면,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곧바로 그 사실을 들으리라.

[일러스트레이션: 가웨인 경이 랜슬롯 경의 방패를 알아차리다]

[일러스트레이션]

제5장

랜슬롯 경이 부상을 입고 숲속으로 탈출한 일과, 가웨인 경이 펠레스 왕의 궁정에서 레 쁘발리에 말페테가 누구인지 밝혀낸 일

이때 랜슬롯 경은 깊은 상처를 입었으나, 그의 용맹함과 기개가 그를 지켰노라. 그는 말에서 내려 숲속으로 숨어들었고, 그의 동료들은 그를 쫓지 못하였더라. 가웨인 경은 왕의 궁정으로 돌아가, 펠레스 왕 앞에 서서 이 일을 아뢰었노라. 그는 말하되, "폐하, 레 쁘발리에 말페테는 바로 랜슬롯 경이 아니었나이다. 그는 부상을 입고 숲속으로 도망쳤사오니, 그 정체를 밝히지 못하였나이다"라고 하였노라. 펠레스 왕은 이를 듣고 크게 놀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자세히 물었노라. 가웨인 경은 모든 일을 상세히 설명하였더라.

이때 랜슬롯 경과 라베인 경은 그 전장을 떠나 물러났더라. 두 사람은 함께 숲속으로 들어갔고, 랜슬롯 경은 그 동안 자신의 고통을 감추어 라베인 경이 자신의 상처가 얼마나 중한지, 혹은 그 상처로 인해 그가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견디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이 숲속을 한 두 세 마일쯤 더 달린 뒤, 랜슬롯 경은 더 이상 자신을 참아낼 수 없게 되어 그의 머리를 매우 낮게 숙이고 큰 비통함으로 신음하였더라. 이때 라베인 경은 랜슬롯 경에게 무언가 중대한 부상이 닥쳤음을 깨달았노라. 그러므로 그가 외쳐 이르되, "주군, 주께서 크게 다치셨음을 두려워하옵니다. 이제 제게 말씀하소서, 주님의 몸은 어떠하오리까?"

〈각주: 랜슬롯 경이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더라.〉

이에 랜슬롯 경은 다시 한 번 신음하며 이르되, “불쌍한 내가여! 나는 심한 고통을 겪노라.” 하고는 곧장 말에서 내리려 하였으나, 만일 라베인 경이 그를 붙잡고 지탱하지 않았다면 그는 쓰러졌으리라. 그 후

라베인 경은 랜슬롯 경을 말에서 내려 도와주었고, 랜슬롯 경은 숲속의 한 나무에 기대어, 그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음소리를 내며 섰으니, 라베인 경은 그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지 못하더라.

그때 랜슬롯 경은 흐릿하고 약해진 눈으로 라베인 경을 바라보며 이르시되, “오, 자비로운 기사여, 라베인 경이여, 하나님의 자비를 빌어 내 옆구리를 뚫은 창날을 뽑아주기를 청하노라. 나는 지독한 고통의 찌름을 겪고 있노라.”

이에 랜슬롯 경의 상처가 어떠함을 알게 된 라베인 경은 재촉하여 아서 경의 갑옷을 벗기었노라. 갑옷이 벗겨지자 라베인 경은 창날이 랜슬롯 경의 옆구리, 배꼽 조금 위 깊숙이 파고든 자리에 치명적인 상처가 있음을 보았노라. 라베인 경은 창날이 아직 상처 속에 박혀 있고, 그 상해가 매우 깊음을 깨달았노라.

이 상처를 바라본 라베인 경은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노라. "사랑하는 주군이여! 불쌍한 제가로소이다! 이 창날을 뽑아낼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이다. 만일 제가 이를 뽑아내리니이다, 주군께서 구원을 받기 전에 이 숲에서 돌아가시리라 두려워하오니이다. 그리하면 이는 곧 제가 주군을 죽인 것이 되겠사옵니다."

“문제가 없노라.” 랜슬롯 경이 아주 희미한 목소리로, 그리고 끊어지는 숨결로 말하였다. “내가 명하는 대로 하라. 이 칼날이 내 마음 근처에 박혀 있으므로 나는 심한 고통을 겪고 있노라.”

〈각주: _라베인 경이 철퇴를 휘두르노라._〉

그때 랜슬롯 경은 창끝을 붙잡고 그 날카로운 칼날을 자신의 옆구리에서 빼내려 애썼으나, 도무지 움직이지 아니하더라. 이에 랜슬롯 경이 매우 날카로운 목소리로 크게 외치되, “아끼지 말라! 아끼지 말라! 다만 그 강철을 빼내라!” 하거늘, 이에 랜슬롯 경이 온 힘을 다해 다시 당기니, 그 강철이 상처에서 빼내어지니라.

그 칼날이 살갗을 벗어나 나올 때, 랜슬롯 경이 다시금 매우 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치되, “하느님이시여! 하느님이시여! 어찌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하였더라. 이에 상처로부터 피가 마치 진홍빛 분수처럼 거세게 분출하더니, 랜슬롯 경은 죽음과도 같은 실신에 빠져 땅에 쓰러지니라.

이에 랜슬롯 경이 죽었음을 확신토록 믿은 란바인 경은 큰 슬픔에 사로잡혀 크게 울부짖으며 두 손을 치켜들고 통곡하되, “불쌍한 내가로다! 내가 내 dear한 주군을 죽였노라!” 하였노라. 이에 그는 랜슬롯 경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심장을 더듬어 보았노라. 그러자 심장은 아직 뛰고 있으나 매우 미약함을 깨달아, 랜슬롯 경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오직 치명적인 실신 상태에 빠진 것임을 알았노라.

이때 랜슬롯 경은 랜바인 경이 바람이 랜슬롯 경의 얼굴을 향하도록 그를 돌려눕게 하매, 잠시 후 랜슬롯 경이 눈을 뜨니라. 그의 시야가 모두 흐릿하게 어지러워진 가운데, 그는 옆에서 울고 있는 랜바인 경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는 매우 약하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하되, “랜바인, 내가 아직 살아있느냐?” 하니, 랜바인 경이 이르되, “예, 폐하.”라 하더라. 랜슬롯 경이 이르되, “그렇다면 나를 이 곳에서

데려가라.” 하니, 랜바인 경이 이르되, “어디로 모시리이까?” 하니, 랜슬롯 경이 이르되, “들어라, 친구여, 나를 이곳 서쪽의 숲 속으로 데려가라. 잠시 후 이 곳 서쪽에서 너의 길과 교차하는 숲의 길이 하나 있을 것이니, 그 길을 오른쪽으로 따라가면 잠시 후에 숲 속 은자의 오두막에 이를 것이다. 나를 그 거룩한 자에게 데려다오라. 만일 이 상처를 고칠 자가 있다면 오직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느니라.” 랜바인 경이 이르되, “폐하, 폐하께서 그러한 여정을 감당하시어 죽지 않도록 어떻게 모시리이까?” 하니, 랜슬롯 경이 대답하되, “내가 어떻게 모셔야 할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알노니, 만일 나를 그 곳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이 숲 속에서 네 눈앞에서 죽으리라.”

〈각주: _라베인 경이 랜슬롯 경을 그곳에서 모셔 가니라._〉

이에 랜슬롯 경은 눈물을 흘리며 곧은 어린 나무들로 가마를 만들었고, 그의 망토를 그 위에 깔아 덮은 후, 가마를 말에 단단히 매달았더라. 그 후 그는 랜슬롯 경을 들어 올려 마치 작은 아이를 안듯 그 가마 위에 눕혔노라. 이후 그는 맨 앞의 말에 고삐를 잡고, 랜슬롯 경이 그에게 가라 명하던 숲 속으로 그를 모셔 갔더라.

이와 같이 그들은 숲을 가로질러 오랜 시간 여행을 계속하다가, 어느덧 밤이 내려앉고 하얀 빛을 머금은 보름달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달은 점점 더 높이 떠올라 숲의 수풀들을 비추었으니, 여기는 환하게 밝고 저기는 그림자 속에 어둠이 드리웠다. 이때 랜슬롯 경을 모시던 라베인 경은 그 은빛 고요한 빛 속에서 말을 이끌고 걷다가는,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곤 하였다.

그 동안 랜슬롯 경은 너무도 고요히 누워 계셨기에, 라베인 경은 수차례 그가 이미 죽었으리라 생각하였다. 그러곤 라베인 경이 물었노라. “폐하, 폐하께서는 죽으셨나이까?”

그러면 랜슬롯 경은 언제나 이렇게 대답하셨노라. “아직은 아니니라.”

이들 삼림은 고요하고 경이로운 곳이라, 그들 일행이 오랫동안 그 길을 걸었노라. 하늘에는 맑고 옅은 달빛이 내려앉아 모든 것이 고요한 마법이라도 걸린 듯 보이게 하였더라. 밤의 중간 무렵이 지나서인지, 랜슬롯 경은 돌절벽의 바위들과 거대한 참나무의 어둡고 무성한 가지들 아래에 작은 예배당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노라. 달빛은 참나무를 지나 예배당 정면으로 쏟아져 내려, 순백의 은빛으로 그 예배당을 적셨더라. 그 고요함과 정적은 예배당이 마치 꿈속에서 본 기이하고 특이한 그림처럼 보이게 하였더라.

〈각주: 그들이 숲의 예배당에 도착하다.〉

그곳으로 랜레인 경은 말들을 이끌고 갔으며, 그 말들 사이에는 부상을 입은 기사가 안겨 있었다. 그 기사의 얼굴은 하늘 위의 달처럼 희었으며, 하늘을 향해 위로 향하고 있었다. 랜레인 경이 예배당 문에 다다르자, 그는 창끝으로 문을 두드렸다. 다시 한번 더 두드리자, 문이 열리며 문턱에는 눈처럼 하얀 긴 수염을 가진 노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 노인은 이 이야기들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숲의 은수자였다.

그때 그 경건한 은수사가 랜슬롯 경이 수레 위에 누워 심하게 상처 입은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그의 심장을 더듬어 보았노라. 그리하여 그가 살아 있음을 깨달은 그는, 랜라인 경을 도와 상처 입은 자를 수레에서 들어 hut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 향기로운 나뭇잎과 이끼로 만든 부드러운 침상 위에 눕혔더라.

그때 랜슬롯 경은 죽은 자와 다름없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더라. 그러나 그는 죽지 아니하였으니, 은수사가 강포한 포도주로 그의 얼굴을 씻어주고, 향기로운 약초를 그의 콧구멍에 대자, 곧 랜슬롯 경이 크게 한숨을 쉬며 눈을 뜨고 기운을 차렸노라.

이에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는고? 나는 아직 살아있는고?” 하니, 은수사가 이르되, “예, 경이시여.” 하거늘,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나는 아마도 내가 죽었나 보다 하였노라.”

이에 수도사는 랜슬롯 경의 상처를 살피고 씻은 뒤 연고를 바르고, 아마포로 된 붕대로 감아 주었으므로 랜슬롯 경은 안도하였더라. 그 후 랜슬롯 경은 깊은 잠에 빠졌으니, 그 고요하고 깊은 잠은 마치 어린 아이의 몽롱한 잠과도 같았더라.

* * * * *

이때 랜슬롯 경이 이렇게 잠들었을 때, 라베인 경과 수도사는 달빛 아래 수도원의 문 앞 작은 잔디밭을 거닐고 있었다. 잠시 후 수도사가 라베인 경에게 이르되, “기사님, 오늘 밤 당신이 데려온 저 기사에 대

해 아십니까?" 라베인 경이 대답하되, "아니옵니다. 다만 그가 스스로를 말페이트의 기사라 부른다는 것 외에는 알 바 없습니다."

〈각주: 은수사가 랜슬롯 경의 이름을 밝히니라.〉

"이제야," 수사가 이르되,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 그분의 땅에서 살면서 그분 앞에서 쉽게 악을 행할 수 있음을 아시나, 내가 감히 말하건대 저 기사는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적게 악을 행하였노라. 경이여, 경은 그가 호수의 랜슬롯 경 그분 자신임을 알아야 하리라."

이때 라베인 경은 크게 놀라며 소리쳐 이르되, "무슨 말씀이시오! 보시오, 이 기사는 우리 아버지 코르빈의 펠레스 왕의 궁정에 일 년 이상 머무르셨거늘, 우리 가운데서 그를 접대하고 있었노라. 그러나 그가 호수의 랜슬롯 경이심을 아는 자가 없었노라."

"그러나" 수사가 이르되 "그 상처 입은 자는 다름 아닌 그이시라"

* * * * *

〈각주: 아서왕이 연회에 앉아 계시다.〉

이날 밤, 숲 속 은자의 방에서 부상을 입은 채 누워 계신 랜슬롯 경과 동시에, 아스트롤라트에서는 아서왕께서 친히 참석하신 가운데 큰 잔치가 열렸다. 아스트롤라트의 성 대청에는 열네 개의 식탁이 차려졌고, 그 식탁에는 그 땅의 영주들과 기사들, 그리고 부인들—왕들이시요 백작들이시요 공작들이시요 남작들이시요 기사들이시요 그리고 그

들을 따르는 소년들과 그들 각기의 부인들—이 모두 칠백 명이나 앉았으니, 식탁마다 오십 명씩이었다.

이에 아서왕이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랜슬롯 경의 흔적은 보이지 않더라. 이에 아서왕은 곁에 앉은 북웨일스 왕에게 이르시되, "오늘 함께 하시던 그 고결한 기사는 어디에 있느냐? 그분의 투구에는 값진 진주로 수놓인 붉은색 소매가 감겨 있더라."

이에 북웨일스 왕이 대답하되, "폐하, 이제 그 존귀한 전사가 어디에 계신지 저희는 알지 못하나이다. 비록 저희가 그분께 함께 오시기를 간청하였고, 또한 그분께 나아가시어 전승의 상을 받으시기를 권하였으나, 그분은 거절하시더라. 그분은 부상을 입었다 일컫고 물러갈 허락을 구하였으므로, 저희는 그 허락을 드렸사오며 그분은 급히 떠났나이다. 그분이 어느 곳으로 가셨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나이다."

"이제 나는 그 일로 깊이 유감이라," 아서왕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 홀에서 발등에 박차를 가진 자들 중 그 누구보다도 그 기사를 우리와 함께 잔치를 나누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오늘 이 전투에서 그토록 존경스러운 전사가 불운을 겪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더욱 안타까우니라. 그러나 그가 입은 상처가 그리 심하지 않아 곧 나을 것이리라 믿노라."

"주군," 북웨일스의 왕이 이르되, "내가 두려워하노니, 비록 그분이 누구이시든, 그 고결한 기사는 매우 중상을 입으셨나니,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목소리가 지나치게 약했고, 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듯 보였기 때문이라."

이때 아서왕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근심하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내게 슬픈 소식이라. 내가 내 왕국의 절반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고결한 전사가 죽음을 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서왕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그가 누구인지 밝히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호수의 부인이 그 붉은 소매의 전사가 누구인지 밝히려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요, 아서왕 또한 그 이름을 숨기려 하는 랜슬롯 경을 배반하지 않으려 하셨기 때문이라.

〈각주: 엘레인 낭자가 슬퍼하더라.〉

이때 펠레스 왕은 아서왕의 높은 자리 곁에 앉아 있었고, 아름다운 엘레인 부인은 그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궁정에서 몇몇 영주들도 그곳에 있었다. 이 사람들은 아서왕과 북웨일즈 왕 사이에 오간 대화를 들었다. 아름다운 엘레인 부인은 자신의 시종이 심하게 다쳐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을 듣자, 마치 공포의 칼날이 그녀의 가슴속으로 깊게 찔러 들어온 것 같았다. 그 말을 듣자 그녀의 얼굴은 재처럼 하얗게 질렸고, 기절할 듯 의자 뒤로 몸을 기대었다.

그렇게 하얗게 질려 쓰러진 그녀를 보시고, 펠레스 왕은 말씀하셨노라. “딸아, 무엇이 너를 괴롭히는고?” 그녀가 대답하되, “아비여, 말파테 경이 크게 다쳐서, 아마도 지금 곧 죽어 누워 있을지 모른다는 말씀 듣지 못하셨나이까?” 왕이 이르시되, “듣기는 들었노라. 그러나 전쟁의 운명은 이와 같아서, 모든 선량한 기사들은 맞서 싸우기를 요구받는 법이라.” 이때 엘레인 부인이 소리쳐 부르짖었노라. “아비여! 아비여! 그 고결한 기사에게 큰 재앙이 닥쳤음을 내가 심히 두려워하오이다. 이

제 비오니, 우리 여기서 떠나시옵소서." 펠레스 왕이 물으시되, "어디로 떠나랴?" 그녀가 이르되, "아마도 제 형제인 라베인 경이 그를 우리 친척인 백작의 성으로 데려가지 않겠나이까. 그러므로 비오니, 어서 그곳으로 가서 그것이 진실인지 확인합시다." 이에 펠레스 왕이 이르시되, "너의 뜻대로 하리라."

이때 펠레스 왕이 아서왕께 이 잔치를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하니, 아서왕이 허락하시므로 펠레스 왕은 엘레인 공녀와 자신의 모든 신하들을 거느리고 그곳을 떠나니라.

그러나 그들이 백작의 성으로 돌아왔을 때, 랜슬롯 경은 거기에 없었더라.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때 그대는 숲 속의 수도자의 작은 방에 누워, 영혼이 생과 사의 저울 위에 매달린 채 위태로웠기 때문이니라.

〈각주: 아서왕이 가웨인 경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러나 아서왕은 항상 랜슬롯 경이 어떻게 부상을 입었는지를 마음에 새기고 계셨으므로, 그 잔치가 끝나는 대로 가웨인 경을 따로 불러 이르시되, "경이여, 나는 그 붉은 소매를 두른 기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 그에게 원조와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노라."

가웨인 경이 아뢰되, "주군, 청컨대 저에게 말씀하소서. 그 기사가 누구신지 아시나이까? 오늘 그 용사가 싸움에서 이처럼 고귀하게 행한 것을 보아하니, 그는 호수의 랜슬롯 경이시라고 생각되나이다. 내가 오늘처럼 고귀하게 싸운 기사는 그분 외에는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

나 그는 확실히 랜슬롯 경이 될 수 없나이다. 주님께서는 잘 아시거니와, 랜슬롯 경은 오늘 그처럼 투구 주위에 소매를 두른 여인의 호의를 결코 착용하지 않으셨음이니이다. 그러므로 그 기사가 누구인지 나는 알 수 없나이다."

"그렇구나," 아서왕이 이르시되, "너는 그를 구원한 후에야 그가 누구인지 알리라."

〈각주: 가웨인 경이 랜슬롯 경을 찾아 떠나니라.〉

이에 가웨인 경은 왕궁을 떠나 그 부상을 입은 기사를 찾아 나섰다. 그는 그 기사가 자기를 '레 세발리에 말페'라 칭하며, 동행한 무장은 코르빈의 왕 펠레스의 아들인 라베인 경임을 기억해 내었다. 이에 가웨인 경은 펠레스 왕을 아는 여러 기사들을 찾아 그들에게 물었다. "경들이시여, 아시옵니까? 내가 코르빈의 펠레스 왕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펠레스 왕은 어느 성에 머물러 있나이다." 이에 가웨인 경은 말을 타고 펠레스 왕이 머물고 있던 백작의 성으로 향하였는데, 펠레스 왕과 그의 궁중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더라. 이에 가웨인 경은 펠레스 왕과 담화를 청하였고, 이에 그는 왕이 계신 곳으로 인도되어 왕 앞에 나아가니라. 이때 아름다운 엘레인 부인이 펠레스 왕과 함께 있었는데, 가웨인 경이 그녀를 보았을 때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더라.

그때 가웨인 경이 펠레스 왕께 아뢰되, "은인 되신 왕이시여, 저는 자기를 마르페와 기사이라 일컫고 다친 기사를 찾아나섰사오니, 그분께서 어디 계신지 아뢰시겠나이까?"

펠레스 왕이 이르시되, “슬프도다. 내가 그의 거처를 알지 못하노라.”

가웨인 경이 이르되, “은인 되신 왕이시여, 간청하오니 그분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뢰소서.”

이에 펠레스 왕이 대답하시되, “영주여, 내가 그 기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노라. 다만 그가 우리 곁으로 온 지가 일 년이 조금 지난 무렵이요, 그가 코르빈의 대용암을 죽였으며, 그 용과의 격투에서 심히 다쳤다는 것뿐이라. 그 후로 그는 우리 궁정에 머물러 왔노라. 그러나 우리는 그를 마르페와 기사 외의 다른 이름으로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그때 가웨인 경이 이르되, “이제 내게 그 기사에게 자신의 소매를 선물로 주었던 부인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라면 그 기사가 누구인지 아실 것이오.”

이때 호수의 부인 엘레인이 이르되, “영주여, 그 Sleeves를 그에게 건넨 이는 바로 나로소이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가웨인 경이 이르되 “그를 알아볼 만한 표적이 없으뇨?” 하니 호수의 부인 엘레인이 답하여 이르되 “경이시여, 우리 친족이시요 이 성의 백작이신 분의 허락을 얻어, 마르페이트 경이 이 대장간에 출전할 때 입으실 갑옷을 준비하였사옵니다. 그가 떠나실 때 그 갑옷과 방패를 저에게 맡기며, 그가 이곳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하

셨나이다. 그 방패를 보시면 그 존귀한 기사가 누구신지 아실 수 있으리이다."

가웨인 경이 이르되, "청하노니 아름다운 부인이시여, 그 방패에 그려진 문양이 무엇이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시오." 하매 호수의 부인 엘레인이 이르되, "저는 그 문양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소이다. 방패는 가죽으로 온전히 싸여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흰색으로 칠하여져 그 방패가 지닌 문양을 아무도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오."

〈각주: 가웨인 경은 랜슬롯 경의 방패를 알아차렸노라.〉

이에 가웨인 경이 이르되, "그 방패를 보게나." 하거늘, 이에 아름다운 엘레인 부인이 시녀들을 보내어 방패를 가져오게 하니, 그들이 그들을 있는 곳으로 그것을 가져왔더라. 이에 가웨인 경이 방패의 가죽 끈을 풀고 방패를 그 껍데기에서 꺼내니, 보라, 방패가 그 빛을 발하여 해가 그 영광을 드러낼 때와 같이 눈부시게 빛나더라. 그리고 가웨인 경이 방패 위에 새겨진 문장을 바라보니, 그것은 은빛 배경 위에 한 부인을 향해 무릎을 꿇은 한 기사의 모습이었고, 그로써 그는 (그 곳에 있던 다른 몇몇 자들도 알았거니와) 이것이 랜슬롯 경의 방패임을 알았더라. 이에 가웨인 경이 아름다운 엘레인 부인을 돌아보며 이르되, "부인, 당신이 당신의 애착을 건넸던 그 기사가 어제 전투에서 이처럼 훌륭하게 싸웠던 것은 놀랄 일이 아니로다. 이는 이 방패가 호수의 랜슬롯 경의 방패이며, 당신이 당신의 소매를 건넸던 바로 그 그에게 속한 것임을 아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로 인해 당신에게 닥친 이 큰 영광을 기뻐하노라. 이는 당신에게 알려지기를, 랜슬롯 경이 전투에 나아갈

때 어떤 부인의 애착을 걸친 일은 이 때까지 들어본 바 없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호수의 랜슬롯 경이 바로 그 sleeve를 받은 자임을 알게 된 엘레인 부인은 큰 기쁨과 함께 묘한 공포에 사로잡혔노라. 그녀는 지극히 고결한 호수의 랜슬롯 경으로부터 이와 같이 놀랍도록 존경을 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기쁨을 느꼈으나, 동시에 자신이 사랑의 눈길조차 돌리지 않는 자를 향해 자신의 마음을 바쳤다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할 때면, 그녀를 공포가 덮쳤노라. 그녀는 이미 예감하였기 때문이니, 자신의 마음과 모든 행복을 이 기사에게 맡긴 자에게서 돌아올 것은 오직 슬픔뿐이라는 것을. 이 기사는 어떤 부인이라도 사랑으로 돌아볼 마음이나 행복을 베풀 줄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펠레스 왕은 자신의 딸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랜슬롯 경이 오랫동안 자신의 궁정에서 기사로 봉직해 왔다는 생각에 그의 영혼은 크게 들뜨었으며,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영주여,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로다. 그가 바로 이토록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있었던 랜슬롯 경이라니, 누가 생각했으리오? 이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영광 중 그보다 더 큰 것은 없노라. 곧, 우리가 그 고결하고, 유능하며, 영광스러운 용사를 우리 궁정의 기사로 모셨다는 사실 그 자체로 말하노라. 이제 그로 인해 이 궁정은 먼 곳까지,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알려지게 되었으니,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오."

"주군," 가웨인 경이 이르되, "그가 주신 이 영예로 인해 주께 큰 기쁨을 드리나이다. 내가 주께 아뢰오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랜슬롯 경이 주군을 위해 시종한 궁정은 오직 주님의 궁전과 아서왕의 궁전뿐이니이다. 그러므로 이는 주님께 내린 지극히 특별한 영예라 할 수 있나이다."

이에 펠레스 왕과 가웨인 경이 각각 이와 같이 말하였으나, 그 동안 아름다운 엘레인 부인은 아무에게도 말 없이 침묵하였으니, 그녀의 마음은 랜슬롯 경이 자신의 시종이 되리라는데 기쁨과 자부심이 깊게 차올랐고, 동시에 자신의 기사의 안위에 대해 두려움과 근심이 컸기 때문이라. 그녀는 자신 주변에 앉아 있는 이들이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였더라.

그 밤 가웨인 경은 코르빈의 궁정에 머물렀고, 그를 위한 큰 잔치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에게 가능한 모든 존경과 예우가 지불되었으니, 비록 그 사람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가웨인 경은 펠레스 왕의 오른쪽에 앉았고, 엘레인 부인은 왕의 왼쪽에 앉았다. 그리고 가웨인 경과 왕은 매우 많이 이야기했지만, 언제나 엘레인 부인은 침묵에 싸여 매우 동요한 채로 앉아, 음식을 맛보지도 않고 지나쳤다. 그녀의 생각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항상 랜슬롯 경에게 머물렀고, 그의 일어난 일과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병통과 고통 속에서 그를 돌보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그녀의 마음은 항상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음, 심지어 그녀는 그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지만, 자신 근처에

서 즐거워하고 웃고 이야기하고 농담을 던지는 모든 이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영혼을 가지고 침묵으로 앉아 있었다.

이러한 시련과 근심의 때에 영혼은 종종 매우 고독하고 침묵하느니라. 이는 마치 어둠의 구름에 싸인 영혼이 그 주위에 펼쳐진 유희와 기쁨의 밝은 세상을 시야에서 차단한 채, 오직 자신의 깊은 사색에 잠긴 것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이 시기에 에일레인 부인 또한 그러하였더라.

* * * * *

이때 아침이 밝아오자, 가웨인 경은 그 곳을 떠나 아서왕의 궁정으로 돌아가니, 왕의 거처는 아직 아스트롤랫에 머물러 있었더라. 그는 그곳에서 그 전투에서 싸웠으며 부상을 입은 자가 바로 랜슬롯 경임을 알리고자 했노라.

〈각주: 구이니비어 여왕이 노여워하시니라.〉

그러나 이 소문이 구이니비어 왕비에게 전해지자, 그녀는 랜슬롯 경과 엘레인 부인에 대한 격분과 분노로 가득 찼노라. 기억할 것은, 랜슬롯 경이 구이니비어 왕비에게 봉사의 서약을 맺었고, 왕비 또한 그 서약을 받아들이고 그를 자신의 기사의 수호자로 인정하였던 사실이라. 그러므로 그가 다른 부인의 색채를 이와 같이 착용한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지극한 격분으로 가득 찼노라. 처음에 그녀는 랜슬롯 경이 소매를 착용했다는 사실이 진실인지 믿지 못하였으나, 마침내 그 진실을 깨닫자 그녀는 모든 이의 시선을 피하여 자신의 거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

고 말았노라. 그곳에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노라.

〈각주: 구이니비어 왕비가 보르 경에게 말씀하시니라.〉

그 후 잠시 뒤, 그녀는 당시 궁정에 있던 이들 중 랜슬롯 경과 가장 가까운 친족인 가니스의 보르 경을 불렀다. 그리고 여왕은 보르 경에게 이르시되, "이 당신의 친족이 무슨 일을 저질렀소, 메시에르? 그는 스스로를 배반하였고, 나와 모든 이들의 목전에서 그의 기사도라는 것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소. 어찌 한 부인에게 맹세한 신의를 저버리고도 다른 이의 색을 띠고 다닌다는 경의를 가진 기사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겠소? 그러므로 나는 이 기사가 맹세를 저버렸으며, 참된 기사가 아니라고 말하오."

보르 경이 이르되 "부인, 온 세상에 랜슬롯 경이 그의 기사도에서 치욕을 입었다는 말을 감히 할 자가 없사오나, 오직 부인께서는 부인이시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청하오니, 어찌하여 랜슬롯 경이 코르빈의 왕녀 엘레인 부인의, 그러니까 국왕의 딸이신 엘레인 부인의, 그처럼 자비롭고 아름다운 부인의 색채를 착용하지 못하리이까? 그러한 봉사는 항상 부인의 봉사를 위해 아서왕 자신과 같은 높고 고귀한 기사를 모셔온 부인에게 결코 해가 되지 않겠사옵니다."

이때 존경받는 보르 경이 매우 엄숙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더라. 이에 구이니비어 여왕의 뺨은 불처럼 타올랐고, 그녀는 분노로 발을 동동 구르며 매우 큰 소리로 외쳤노라.

"너는 나, 곧 너희의 여왕에게 이러한 말을 감히 할 수 있느냐? 내가 말하노니, 이 천한 기사는 이미 맹세를 어긴 자라. 그는 나에게 신성한 맹세를 하였거늘, 다른 부인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까지 그 맹세에서 풀려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명하노니, 너는 가서 랜슬롯 경을 찾아 즉시 이곳으로 데려오라. 그가 내 눈앞에서 내게 대답하게 하되, 만약 그가 할 수 있다면 그 불의한 배신을 스스로 깨끗이 변명하게 하라."

그때에 보르 경은 왕비에 대하여 분노로 가득 차 있었으나, 동시에 그녀를 향하여 큰 연민을 품었노라.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으므로, 그는 왕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보다 오히려 그 앞에 깊이 절하며 이르되, "부인, 명하신 대로 하리이다. 즉시 나의 친족을 찾아뵈어, 부인의 명을 전하여 그가 오셔서 부인 앞에 나아갈 것임을 알리리이다."

〈각주: 보스 경이 랜슬롯 경을 찾아 떠나다.〉

이에 바로 보르스 경은 궁정을 떠나 랜슬롯 경을 찾으러 떠났노라. 그러나 그가 그녀를 떠난 후, 구이니비어 여왕은 그녀의 사적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단단히 잠그고 혼자 남았노라. 그리고 그녀는 크게 울었으며, 울면서 혼잣말을 하였노라. "내 영혼이여! 내 영혼이여! 이는 분노인가, 아니면 분노 외의 다른 감정이인가?"

[일러스트레이션: 랜슬롯 경,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그림]

제육장

엘레인 공주가 랜슬롯 경을 찾아 나선 일과, 이후 랜슬롯 경이 아서 왕의 궁궐로 돌아온 일

엘레인 공주는 자기의 형제들인 가웨인 경과 가레스 경이 랜슬롯 경을 매우 존경하며 그를 따랐다는 말을 듣고, 그녀 역시 그에게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용기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의 연인이 되고자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그녀는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 랜슬롯 경을 찾아 떠났다.

그녀는 여러 날을 여행하며 그를 찾았으나, 끝내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를 찾아다녔다. 마침내 그녀는 그가 머무는 성으로 들어갔고, 성의 문지기에게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문지기는 그녀에게 랜슬롯 경이 지금 성 안에 없다고 말하였다.

엘레인 공주는 슬픔에 잠겼으나, 그녀는 성의 한 구석에 숨어 기다리기로 하였다. 그녀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 간절하게 그를 기다렸다. 마침내 랜슬롯 경이 성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녀를 발견하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엘레인 공주는 랜슬롯 경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연인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다. 그러나 랜슬롯 경은 구이니비어 여왕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녀를 배반할 수 없다고 말하였

다. 그는 엘레인 공주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그녀를 돌려보내기로 하였다.

엘레인 공주는 슬픔에 잠겨 성을 떠났다. 그녀는 다시는 랜슬롯 경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었으며,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하기로 결심하였다.

랜슬롯 경은 엘레인 공주가 떠난 후,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다. 그는 구이니비어 여왕에 대한 사랑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으며,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아서왕의 궁궐로 돌아가, 원탁의 기사들 중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랜슬롯 경은 아서왕의 궁궐로 돌아왔으며, 그는 다시 원탁의 기사들 중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구이니비어 여왕을 사랑하고 있었으며,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이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름다운 엘레인 공주는 아서왕의 기사 중 가장 뛰어난 랜슬롯 경의 운명을 두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슬픔에 잠겼다. 그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곳에 부상을 입고 누워 있었기 때문이요, 그가 회복하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또한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어느 날, 그녀는 눈물을 많이 흘린 채로 아버지의 계신 곳, 곧 펠레스 왕에게로 나아갔다. 심지어 아버지와 말을 나누는 도중에도 그녀는 다시금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노라.

"폐하, 청컨대 저를 보내소서. 저의 상처 입은 채 누워 계신 이 고귀한 전사, 호수의 기사 랜슬롯 경을 찾아오리이다. 저의 두려움은 그가 너무나도 중하게 다쳐, 이미 죽을 고비 위에 서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나이다."

이에 펠레스 왕이 이르시되 "내 딸아, 네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뇨? 네가 연약한 처녀로서 스스로 기마를 몰고 이 상처 입은 기사를 찾아 헤매고자 하느냐?" 하니 호수의 공녀 엘레인이 이르되 "그렇사옵나이다." 하거늘 그녀의 아버지 왕이 이르시되 "그것은 될 수 없노라." 하시니 이에 공녀 엘레인이 더욱 크게 울며 그 정성이 지극하여 마치 그녀의 마음이 찢어질 듯하더라. 이에 그녀가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르짖어 이르되 "폐하, 저를 보내소서. 그렇지 않다면 그가 그 상처로 죽어가리라는 두려움에 제가 미쳐 버릴까 두렵사오니이다."

이에 펠레스 왕은 엘레인 공녀를 불쌍히 여겨 그녀를 일으켜 안고 그 얼굴에 입맞추었노라. 왕은 공녀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주며 그녀를 위로하려 하였노라. 그리고 이르시되, "내 딸아, 그리 울지 말라"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어찌할 수 없나이다" 하더라. 이에 왕이 이르시되, "내 딸아, 이제 울지 말라. 네가 원하는 바대로 될 것이니,

만약 이 여정이 네 마음을 편하게 할진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길을 떠나라. 내가 너를 안전하게 호위할 병사를 보내리라."

〈각주: 엘레인 부인이 랜슬롯 경을 찾아 떠난다.〉

이와 같이 미인 엘레인 공녀는 랜슬롯 경을 찾아 그 여정에 올랐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가 약속했던 대로 호위대를 준비해 주었노라. 그는 그녀와 함께 일곱 명의 명망 높고 고귀한 기사들과 그들의 시종들, 그리고 그녀의 궁정에서 일하던 일곱 명의 처녀들을 함께 보냈기 때문이라. 이들은 아스토랄로 향하였으니, 엘레인 공녀는 그곳에서 부상을 입은 기사에 대한 소식을 가장 잘 접할 수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이었노라. 그들이 아스토랄에 도착하자 그녀는 그곳에 여관을 정하고, 부상을 입은 기사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지 열심히 조사하라고 여러 사람을 파견하였노라.

이에 그녀가 파견한 자들이 사방으로 물색을 벌였고, 어느 날 그들은 숲에서 장작더미를 실은 수레를 끌고 나온 한 나무꾼을 발견하더라. 이 나무꾼은 랜슬롯 경과 라베인 경에 대한 소식을 전하였으니, 그는 토너먼트 이후 두 분이 숲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 이에 그녀의 심부름꾼들은 그 나무꾼을 엘레인 부인 앞으로 데려왔고, 부인이 그에게 이르되, "좋은 친구여, 너는 무엇을 아느냐?"

〈각주: 나무꾼이 랜슬롯 경에 대하여 말하더라.〉

이에 나무꾼이 대답하되 "부인, 내가 모든 일을 말씀드리리다. 어느 날 내가 숲 속에 있을 때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서로交谈하는 소리를

들었노라. 그 목소리가 무엇인지 크게 의아하여, 나는 그 소리가 들리던 곳으로 몰래 다가가 보았노라. 거기서 나는 한 기사의 반쯤 무장한 자가 땅에 누워 자신의 피로 온몸이 적셔 있는 것을 보았고, 또 다른 한 기사가 온몸에 갑옷을 두른 채 그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노라. 두 번째 기사의 손은 모두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노라. 그러므로 나는 무장한 기사가 숲속에서 부당하게 동료 기사를 죽였으리라 생각하였노라. 실제로도 그렇게 보였다. 내가 그곳에 서 있을 때, 땅에 누운 기사가 자신이 죽게 될 정도로 크게 다쳤다고 호소하는 소리를 들었고, 또 그 기사가 무장한 기사를 청하여 자신을 서쪽으로 모셔가서 그 지방에 사는 한 은자의 오두막으로 데려가게 하라고 간청하는 소리를 들었노라. 이에 나는 아마 그곳에서 어떤 나쁜 일이 행하여졌고, 내가 그것에 간섭한다면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내가 왔던 것처럼 몰래 그곳을 떠나왔노라. 그리하여 나는 두 기사를 그와 같은 상태로 남겨두고 물러났노라."

그때 아가씨 엘레인(Fair Elaine)이 그 나무꾼에게 물었다. "저 말들 중 한 마리는 희고, 다른 한 마리는 얼룩말이 아니오?"

나무꾼이 대답하되, "그렇소이다. 우유처럼 희고, 검은 얼룩이 섞인 말들이오."

아가씨가 이르되, "그렇다면 저들이로구나."

〈각주: 엘레인 공주가 숲의 예배당으로 오니라.〉

그 날 바로 그 때에 그녀와 그녀의 일행은 모든 준비를 갖추었고, 그들은 아스토락에서 떠나 서쪽 숲으로 향하여 길을 떠났노라. 잠시 후 그들은 길과 가로로 이어지는 한 작은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섰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 길을 오랫동안 여행하다가, 얼마 후 그들의 눈앞에 노승의 오두막이 나타나더라. 그 오두막은 숲의 거대한 바위 기슭에 기대어 지어졌고, 그 위에 우거진 고목의 가지들이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노라. 그들이 가까이에 다가가자 말들의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들은 그것이 바로 랜슬롯 경과 라베인 경의 말들임을 알았더라.

그때 말들이 그렇게 울부짖자, 엘레인 부인의 일행의 말들도 그들의 울음소리에 화답하더라. 이때 한 사람이 와서 오두막의 문을 열고, 비스듬히 내려쬐는 햇빛을 가리며 엘레인 부인과 그녀의 일행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며 서 있더라. 엘레인 부인은 그곳에 서 있는 자가 누구인지 보고, 그가 바로 라베인 경임을 알아차렸으므로, 그녀는 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노라.

"내 형제여! 내 형제여!"

라베인 경이 이를 듣자, 그는 큰 놀람 가운데서도 외쳤노라. "내 자매여, 그것이 너인가?" 그러면서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는 말에서 내려 그의 입술에 키스하더라.

그때 그녀가 랜슬롯 경에게 물었다. "그는 어떠하뇨? 살아 있사오리까?" 이에 랜슬롯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살아 있사오며 살리이

다. 비록 그 몸이 어린 아이처럼 약하오나 말입니다." 그녀가 묻되, "그가 어디 있사오리까?" 랜슬롯 경이 이르되, "오시사오면 보시리이다."

〈각주: 엘레인 공녀가 랜슬롯 경을 바라보더라.〉

그가 호수의 부인 엘레인을 말에서 내려 안아 들이고, 그녀의 손을 잡아 고승의 오두막 안으로 이끌어들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랜슬롯 경이 나뭇가지로 짠 침상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노라. 보라, 그의 얼굴은 흰 밀랍처럼 희었으며, 그의 눈은 잠든 자처럼 감겨 있었노라. 엘레인 부인에게는 그가 살아있는 인간이라기보다, 하얗게 잠들어 있는 영혼과 더 닮아 보였다.

이때 엘레인 낭자는 고요히 나아가 랜슬롯 경이 누워 계신 곳으로 다가가, 거적자리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얼굴로 눈물이 불꽃처럼 흘러내렸노라.

그때 랜슬롯 경이 눈을 뜨시어 그녀가 누구인지 보시고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셨노라.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너라?"

그녀가 이르되, "예, 경."

경이 이르시되, "어디서 왔느냐?"

그녀가 이르되, "저의 아버지 댁에서 왔나이다."

경이 이르시되, "그리하여 너는 나를 찾으러 그곳에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녀가 이르되, “예.”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그토록 큰 고생을 감수하였느냐?”

그때 그녀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이르되, “정녕 경은 그 이유를 아시나이다.”

그녀는 이 말을 매우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으니, 내가 믿건대 그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하였으리라.

이에 랜슬롯 경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녀를 응시하며 누웠노라. 비록 그의 눈앞에는 그녀의 머리뿐 보였을 뿐, 그녀의 얼굴은 그의 시야에서 가려졌기 때문이었노라. 그리하여 잠시 후 그가 깊게 한숨을 쉬며 이르되, “부인, 하나님께서 아시니이다. 나는 행복하지 않은 자라. 비록 내가 행복을 내 손끝에 닿을 듯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잡기 위해 손을 뻗을 수 없음이라. 나의 신념은 내가 맡긴 자의 손에 맡겨졌고, 그 자는 내가 바라는 그 부인이 현재와 다를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나의 불행한 운명은 그것이 잘못이든 옳음이든, 내가 그것을 다르게 원치 않음이니, 그리하여 나의 신념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약속된 채로 남아 있나이다.”

〈각주: _랜슬롯 경과 엘레인 공녀가 서로 교감하더라._〉

이때 호수의 부인 엘레인은 랜슬롯 경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그가 자신의 기사도 맹세를 바친 구이니비어 여왕에 대해 말씀하시는 줄을 깨달았더라. 엘레인은 울며 이르되, “슬프도다, 랜슬롯이여. 나는

당신과 나를 모두 위해 큰 연민을 느낍니다." 이에 랜슬롯 경은 다시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한숨을 쉬며 이르되, "그렇도다, 이는 참으로 큰 연민이로다."

그 후 잠시 뒤, 레이디 엘레인이 랜슬롯 경이 누워 있던 곳에서 나와, 부상당한 기사가 낫기까지 그곳에 머무르라 명하였다. 이에 레이디 엘레인은 랜슬롯 경이 머무는 숲 근처에 그녀의 궁정을 차렸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주위에 천막을 치고 늘어놓았으니, 전에는 고요하고 적막하던 그 숲은 곧 밝은 빛깔로 물들고 수많은 목소리의 활기로 가득 차게 되었더라.

그리고 내 생각에, 그 좋은 노승의 숲속 예배당 근처에서 엘레인 부인이 머물렀던 그 시절, 그리고 그가 중병에 시달릴 때 그녀가 항상 랜슬롯 경 곁을 지켰던 그 때야말로 그녀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노라. 왜냐하면 랜슬롯 경은 오직 그녀의 것인 양,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오직 그들 두 사람만 있는 양 여겨졌기 때문이더라. 그녀는 항상 그와 함께하며 그를 온갖 방법으로 보살폈고, 그들 곁에 있던 다른 이들의 목소리는 그녀의 세계와는 다른 세상에 속한 듯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노라.

이때 호수의 부인 엘레인은 사랑과 기쁨의 잔을 깊이 마시며, 내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그 날과 그 날이 그녀의 영혼의 입술에 가져다 준 기쁨들만 생각하더라. 마치 순금으로 만든 빛나는 잔에 담긴 것과 같았노라.

이와 같이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 영혼이 그 잔에서 깊이 마시되, 잔 底下에 슬픔이나 절망의 찌꺼기가 잠자코 있음을 헤아리지 못하노라. 그 찌꺼기는 뒤이어 마시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요, 마셔버리면 이후의 모든 생을 쓴 담즙과 쑥의 맛으로 변하게 하느니, 마치 그 찌꺼기가 죽음의 쓴맛과 쑥의 맛으로 섞인 것 같도다.

〈각주: 그들이 코르빈으로 돌아오니라.〉

이처럼 아름다운 엘레인 공주는 숲 속의 저 궁전에서 거의 한 달 동안 거처하며 지냈고, 그 시일이 다할 무렵에 랜슬롯 경은 그의 병고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으나, 약함이 어린아이만 하더라.

그가 낫고 난 후, 그녀가 부드러운 깃털 베개 여러 개를 얹은 아름다운 가마를 준비하게 하였노라. 그리고 그 가마에는 화염색의 새틴 천으로 만든 휘장을 드리웠으며, 그녀가 명하여 랜슬롯 경을 그 안에 눕히고는 그를 그곳에서 옮기게 하였더라.

이들 가마를 모셔 간 자들은 쉬엄쉬엄 여정을 이어가며, 마침내 코르빈에 이를 때까지 그를 모셔 갔고, 그곳에서 그는 큰 기쁨과 높은 존경으로 맞이되더라.

* * * * *

이제 구이니비어 여왕이 랜슬롯 경을 찾아 그를 왕의 궁정으로 돌아오라는 명을 전하라고 보르스 경을 파견하셨던 일이 이미 서술되었노라. 이에 보르스 경은 여왕의 명을 받들어 행하였으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가 코르빈으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랜슬롯 경을 찾아내지 못하였더라.

〈각주: 보스 경이 코르빈에 이르러라〉

그 후 어느 날, 보스 경은 랜슬롯 경이 펠레스 왕의 궁정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그는 그곳으로 향하여, 마침내 상처에서 거의 완전히 회복한 상태에 있던 랜슬롯 경을 목격하였더라.

그러나 랜슬롯 경이 보르스 경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에 찾아온 기쁨은 마치 그의 마음이 찢어질 듯하여, 그는 보르스 경에게 달려가 그를 자신의 품에 안아 큰 열정으로 그를 포옹하고 그의 얼굴에 여러 번 입을 맞추었더라.

그리고 펠레스 왕의 궁정 사람들은 이처럼 저명한 기사가 그곳에 도착하였음을 매우 기뻐하였으며, 그로 인해 그에게 큰 존경을 표하였더라.

오직 엘레인 부인만 마음의 평화를 잃었으니, 이는 그녀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서 보르스가 도착한 이상, 서 랜슬롯은 그들과 함께 오래 머무르지 않을 것이며, 곧 아서왕의 궁정으로 돌아가고 싶어할 것임을 그녀는 알았노라.

〈각주: 보스 경이 랜슬롯 경에게 말하더라.〉

그녀가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 아가씨를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 코르빈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어느 날 아침,

보스 경이 랜슬롯 경을 따로 불러내어 이르되, “경은 사신이라.” 하니, 랜슬롯 경이 묻되, “무슨 소식을 가지고 왔으며, 누구의 명인가?” 보스 경이 이르되, “나는 구이니비어 왕비께로부터 사신을 맡았사오니, 경께서는 즉시 아서왕의 궁정으로 돌아가, 왕비께 나아가 옛날과 다름없이 예를 갖추어 인사드리라.” 하더라.

이러한 말들을 한 후, 보르 경은 입을 다물었고, 랜슬롯 경은 그를 돌아서서 창가에서 등을 돌린 채 섰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그가 이르되, “경, 나의 의무가 여기 있음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니, 보르 경이 이르되, “그것은 내가 잘 믿사옵니다. 또한 제가 가져온 그 명령을 거스르시더라도, 제가 경을 탓할 수 없사옵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경을 캐멀롯으로 부르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른 이의 명령을 전하기 위함이오이다.”

이에 랜슬롯 경이 이르되 “만약 네가 나이고 내가 네라면, 너는 캐멀롯으로 돌아가겠느냐?” 하니, 보르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것은 제가 알 수 없나이다.”

그 후 잠시 있다가 랜슬롯 경이 크게 외쳐 이르되 “아니로다, 나는 가지 아니하리라. 비록 내 마음은 그곳에 있고 이곳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이의 행복을 내 손에 쥐고 있으니 그것을 버릴 수 없노라.”

“그리하오리다,” 하고 보르스 경이 이르되, “내가 돌아가 아서왕의 궁정에 가서 당신의 명성이 여기 계심을 알리리이다.” 이에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그렇게 하라.” 하시고는 다시 말씀하시되, “내가 한 가

지 은혜를 청하노니, 미시르여." 보르스 경이 이르되, "무엇이오?" 랜슬롯 경이 이르되, "이것이라. 당신의 자비로써 당신이 즉시 이 곳을 떠나라고 청하노라. 당신의 모습을 뵈옵는 것이 내게 나의 친족들과 친구들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 큰 욕망을 불러일으키나니, 당신이 더 이상 여기 계신다면 나는 그 욕망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에 보르스 경이 이르되, "한 시간 이내에 떠나겠사옵나이다."

그때 바로 그 시각, 보스 경은 코르빈을 떠나 아서왕의 궁정으로 돌아왔고, 도착하자마자 그는 왕비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그 말을 듣자 왕비는 마치 마음이 찢어질 듯한 표정이 되었다. 랜슬롯 경으로부터 그 소식을 받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침실로 물러가서 이후 오랫동안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펠리아스 경이 그와 같이 떠난 후, 랜슬롯 경은 매우 무겁고 슬퍼하였으며, 여러 날이 지나갔음에도 그의 슬픔은 줄어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은 먼 곳에 머물러 꿈결을 걷는 자와 같이 행하더라.

〈각주: 엘레인 공녀는 랜슬롯 경에게 돌아갈 것을 명하시니라.〉

이 모든 것을 호수의 부인 엘레인은 지켜보았노라. 그녀의 마음은 랜슬롯 경의 슬픔 때문에 괴로워하였더라.

그리하여 어느 날 그녀가 랜슬롯 경을 불러 자신의 방으로 오라 명하니, 랜슬롯 경이 그곳에 이르러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랜슬롯, 나는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노라."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그녀가 이르되, “네 마음속에는 아서왕의 궁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느니라.”

“부인,” 랜슬롯 경이 이르되, “지금 내 마음이 어떤 향방을 두고 있는지야 중요치 않사오나, 모든 그같은 향방 위에 나의 뜻은 이 곳에 머무름이니이다.”

그때 엘레인이 그를 매우 단호히 응시하며 미소 지었으나, 그 미소 속에는 어딘지 절망이 서려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하였다.

“아닙니다, 경. 제가 경께서 이같이 슬픔에 잠겨 우리와 함께 지내는 것을 보며 견딜 수 없사오니, 이에 경께 한 명령을 내리나이다. 곧 이 궁정을 떠나 아서왕의 궁전으로 돌아가시라는 것이오. 경께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니이다.”

그때 랜슬롯 경은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얼굴에, 다시금 친족들과 친구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서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 기쁨을 그녀에게 보이지 않으려 한 것이다.

그리하여 잠시 뒤, 등을 돌린 채로 그는 숨을 죽인 듯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부인, 이것이 당신의 명이라면 저는 마땅히 복종해야 하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이 명을 받든다면, 그것은 잠시 동안 머물렀다가 그 후에 다시 돌아가기 위함일 뿐이니이다.”

그리하여 잠시 동안은 더 이상 말이 없었으나, 호수의 부인 엘레인은 랜슬롯 경이 등을 돌린 채 서 있는 곳을 바라보며 끝없이 응시하였다. 그리고 잠시 뒤 그녀가 말하였다.

"아, 랜슬롯! 랜슬롯!"

이에 랜슬롯 경은 몸을 돌려 외쳤다.

"엘레인, 머물러라 명한다면 저는 머물겠노라!"

그러나 그녀가 말하였다.

"아니오, 저는 머물라 명하지 아니하오. 저는 떠나라 명하오."

이때 랜슬롯 경은 그 자리를 떠나셨는데, 그의 머리는 가슴에 깊이 숙여진 채였더라. 그가 떠난 뒤, 그녀는 크게 울었으니, 이는 마치 자신의 손으로 행복에 대한 희망을 베어낸 듯, 마치 몸의 일부가 잘려나간 듯하기 때문이었노라.

〈각주: 랜슬롯 경이 궁정으로 돌아오니라.〉

그리하여 이튿날 랜슬롯 경은 말을 타고 코르빈을 떠나 캐멀롯으로 향하였노라. 그곳은 아서왕의 궁정이었거늘, 비록 그가 엘레인 공녀를 깊이 생각하며 마음에 품었으나, 다시금 왕의 궁정으로 돌아가 왕비와 동료 기사들을 다시 뵙게 될 기쁨을 어찌 참으리오.

* * * * *

〈각주: 랜슬롯 경이 왕비께 오시다.〉

이때 랜슬롯 경이 캐멀롯에 도착하니, 그의 내왕을 알리는 소문은 온 땅에 불이 번지듯 퍼져 나갔고, 곳곳에서 큰 환호와 찬사가 울려 퍼졌노라. 그러나 랜슬롯 경은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곧장 구이니비어 왕비께서 계시는 곳으로 향하여, 왕비 앞에 서서 그의 얼굴은 매우 어둡게 가라앉은 채 그녀에게 이르되, “부인, 여기 저가 있사옵나이다.”

이에 구이니비어 여왕은 그를 매우 냉담한 눈초리로 바라보며 이르되, “기사여, 무엇이 너를 여기로 이끌고 왔노냐?” 하니, 랜슬롯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인, 이는 폐하의 명령이 저를 이끌고 온 것이라. 슬프도다, 저에게는 이와 같사오니, 폐하의 말씀이 영광이나 행복이나 평안이나 번영에서라 할지라도 저를 폐하께로 이끌어 올릴 힘을 지니고 있사오며,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폐하의 명에 따라 바치리이다.”

이때 구이니비어 여왕은 장시간 동안 랜슬롯 경을 응시하더라. 그녀의 영혼은 거대한 열정의 격동으로 요동치고 혼란스러웠으나, 그 열정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노여움인지, 아니면 이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다른 무엇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노라. 처음에 그가 그녀의 앞에 서 있을 때 그녀의 얼굴은 매우 창백하였으나, 이내 불꽃처럼 붉게 타올랐더라. 그리고 그녀가 이르되,

"기사여, 한때 내가 사신을 보내어 너에게 말을 전하였거늘, 너는 그를 듣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네가 오는 것은 중요치 않으니, 앞으로 네가 오는 것과 가는 것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노라."

이때 랜슬롯 경의 마음은 쓴 것과 절망으로 가득 차 터져 나갈 지경이었고, 그는 큰 소리로 외쳤노라.

"부인이여, 나를 보소서. 나는 비참한 자라. 내가 내 모든 의무를, 내 모든 봉사를, 그리고 평화와 행복에 대한 모든 희망을 버리고 오직 부인을 찾아 왔사오니, 부인께서 나를 위해 자비로운 말씀 하나라도 하시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나이까?"

그러나 왕후는 다만 마음을 굳게 닫고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랜슬롯 경은 깊은 절망 속에 큰 소리로 외쳤노라. "슬프도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이랴? 보라, 내가 이미 모든 평화의 소망을 버렸거늘, 이제 네 우정마저 내게서 거두어졌도다.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 나의 생은 이미 죽었노라."

〈각주: 여왕이 노하셨노라.〉

그때 구이니비어 여왕의 눈이 불꽃처럼 번뜩이며 그녀가 외쳤다. "기사여, 당신은 내가 알 수 없는 말을 하오. 이제 내가 당신에게 명하노니, 이것을 내게 말하시오—아스톨라트의 아름다운 엘레인 부인이 당신의 호의로 준 소매를 아스톨라트 대회 때 당신이 착용했었느냐는 말이 진실인가?"

랜슬롯 경이 이르되 "참으로 그러하도다" 하니

이때 구이니비어 여왕은 붉게 달아오른 뺨을 드러내며 웃으며 이르시되, "잘 보았노라, 기사여. 네가 기사도라는 것을 그리 잘 알지 못하

는구나. 한 부인에게 맹세한 신의를 저버리고 다른 부인의 색채를 띠는 것이 기사다움에도 불합리하고 불명예된 일임을 알지 못한다 하노라. 그러나 어찌하여 그런 자에게서 다른 것을 기대하겠는가? 기사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조금도 알지 못하고, 처형인의 수레를 타고 방랑하는 자에게서 어찌 다른 것을 바라겠는가?"

이에 구이니비어 여왕은 급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말하였으니, 그녀의 말들은 그녀의 정열에 의해 밀려나갔고, 그 정열은 폭풍에 날리는 깃털들처럼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채로 밀려났더라. 그러나 그녀가 그 말들을 한 후, 그녀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며, 그것을 되돌리고자 하였노라.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할 수 없었으니, 이는 누가 말한 말을 되돌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녀가 그 말들을 한 후, 그녀는 할 수 없이 랜슬롯 경의 얼굴을 바라보았으니, 그것은 일종의 두려움 속에서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는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다가, 마치 그의 머리의 정맥들이 터질 것처럼 보일 정도로 보라빛으로 변하는 것이 보였노라. 또한 그녀의 눈에는 그의 눈이 머리를 벗어나는 것처럼 튀어나와, 피로 충만해 보이는 것이 보였노라. 그리고 그녀가 보았을 때, 그는 목을 쥐고 있는 것이 보였으니, 마치 질식하는 것처럼 보였노라. 그리고 그는 말하려고 애썼으나, 처음에는 할 수 없었고, 그런 다음 그는 거친 질식하는 목소리로 "너는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외쳤노라. 그리고 다시 같은 목소리로 그는 외쳤노라. "너는 그렇게 말하느냐!"

〈각주: _랜슬롯 경이 창문에서 뛰어내리더라._〉

이윽고 그는 몸을 돌렸으나, 마치 술에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더라. 그 뒤에는 높은 창문이 열려 있었고, 그는 곧장 그 창문 너머로 뛰어들어 아래 마당으로 떨어졌으며, 거대한 비명 같은 굉음과 함께 땅에 쓰러졌노라.

그러나 그는 마치 쓰러지지 않은 양, 곧장 자리에서 뛰어 일어나 멍이 들고 피투성이가 된 채 그 곳을 달아났으니, 이는 미친 자와도 같았더라.

그때 구이니비어 여왕은 깊은 공포와 회한의 격정에 사로잡혀 큰 비명을 지르며 소리 높여 울부짖었노라. 그녀는 자신이 무엇이라 외치는지 알지 못한 채 두 손을 매우 격렬하게 치켜들었더라. 이에 여러 사람이 달려와 그녀에게로 나아갔고, 그녀가 그들을 향하여 격렬한 정열의 목소리로 외쳤노라.

"너희는 가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 랜슬롯 경을 다시 데려오라!"

그들은 서둘러 달려갔으나 랜슬롯 경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는 그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여왕을 떠나자마자 곧장 말에 올라타서 천둥처럼 전속력으로 달아났기 때문이요, 그가 어디로 향하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노라.

〈각주: 보스 경은 분노하였다.〉

이 모든 소문이 아서왕의 궁정에 퍼진 것은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으니, 궁정 전체가 그 소동으로 떠들썩했기 때문이라.

이때 랜슬롯 경의 친족들은 일어난 일을 듣고, 그가 당한 대우에 대해 큰 분개를 금치 못하였노라. 그중에서도 특히 보르스 경이 격분하였으니, 그는 속으로 이르되 "보라, 이 부인은 먼저 나를 보내어 내 친족을 찾아 그녀에게로 데려오라 하더니, 그가 그녀의 부름에 따라 도착하자마자 그녀가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는 기사가 감내하기에 부끄러운 모욕이로다. 그렇다면 나를 그녀를 위해 그를 데려온 어리석은 전령으로 여길 랜슬롯 경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고 생각하였더라.

〈각주: 구이니비어 왕비가 랜슬롯 경의 친척들을 불러내다.〉

그러나 구이니비어 여왕은 랜슬롯 경의 친족들이 품고 있는 분노를 알지 못했으므로, 그들 중 세 명을 자기 앞으로 부르라 명하였다. 그 세 명은 에커 경과 라이오넬 경, 그리고 간니스의 보르스 경이었더라. 이 세 사람이 여왕 앞에 나아가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그 앞에 서서 서 있을 때 여왕이 이르되, "영주들이여, 내가 잘못을 저질렀노라." 하니, 그들이 분노하여 지나친 말을 하을까 두려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여왕은 그들의 분노를 보았으므로, 눈물을 닦고 자존심을 안고 말하였다. "영주들이여, 나는 너희의 여왕인 나를 용서해 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랜슬롯 경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간구하노라. 나는 그의 온화한 성정이라면 반드시 그러할 줄 아노라. 이제 너희의 여왕이자 주군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즉시 랜슬롯 경을 찾아 그에게로 가서 그를 이곳으로 데려오라. 그리하여 내가 그에게 내가 그에게 한 모든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하게 하라."

이때 구이니비어 여왕이 이같이 이르시니, 거기에 있던 기사들이 비록 그녀께 노여움을 품었으나 그녀가 내린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더라.

* * * * *

〈각주: 랜슬롯 경의 모험에 대하여.〉

이때부터 시작되었노라. 랜슬롯 경의 이 모험에 관하여는 그 동안에 많이 쓰이고 많이 말하여졌노라. 그 모험을 위하여는 앞서 말한 세 명의 기사들, 곧 에커 경과 라이오넬 경과 가니스의 보르스 경이 먼저 떠나고, 그 뒤에 가웨인 경과 에웨인 경과 열망의 사그모어 경과 아그라베인 경과 월레스의 퍼시벌 경이 떠나니라.

이들 모두 랜슬롯 경의 모험을 떠맡았고, 그 여정에서 여러 가지 기이한 사건들이 그들에게 닥쳤노라. 그러나 이 중 어떤 것에 관해서도 자세히 말하지 아니하리라. 다만 에웨인 경과 퍼시벌 경, 그리고 가웨인 경에게 닥친 사건들만을 논하리니, 이에 대해서는 곧 이어 자세히 서술하리라.

* * * * *

이제부터 랜슬롯 경의 광기와, 그가 매우 기이한 방식으로 아름다운 엘레인 부인에게 돌아오는 일, 그리고 그 돌아옴으로 그녀가 어떻게 행복을 얻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노라.

[그림]

제4부

랜슬롯 경의 광기

이제부터 랜슬롯 경이 슬픔으로 인해 미쳐 숲을 헤매는 자로 변모하게 된 이야기와, 그에게 닥친 수많은 다른 모험들을 전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 너희의 즐거움을 위해 기록한 바를 읽는 너희가 기쁨을 얻기를 바라노라.

[일러스트레이션: 숲의 광인이시던 랜슬롯 경:]

[일러스트레이션]

제1장

랜슬롯 경이 어떻게 숲의 광인이 되었고, 그가 어떻게 블라이언트 경의 성으로 인도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각주: 랜슬롯 경과 그의 동료들이 숲을 가로지르다.〉

〈각주: _랜슬롯 경이 발작을 일으키다._〉

이제 랜슬롯 경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구이니비어 여왕의 현관을 떠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말에 올라타자,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또한 상관하지도 않은 채 격렬하게 달아났다. 그는 마치 자신과 자신의 절망으로부터 도망치려 하듯, 회오리바람처럼 질주했다. 이렇듯 그는 숲의 그늘에 다다를 때까지 나아가며, 자신의 몸으로 나뭇가지를 찢으며 숲을 통과했다. 그의 말은 땀으로 온통 거품이 일었다.

그는 밤이 내려앉을 때까지 그 길을 계속해 나아갔고, 그는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전진했다. 그는 이처럼 밤새도록 여행하다가, 새벽녘에 이르러 숲의 은수사가 사는 오두막이 있는 숲의 그 부분, 곧 은수사의 예배당과 거처를 보게 되었다. 이때 랜슬롯 경은 말에서 격렬하게 내려뛰었고, 그 선한 남자의 거처로 거침없이 뛰어들어가니, 은수사는 그의 방문에 깜짝 놀랐다.

랜슬롯 경은 크고 격한 목소리로 외쳤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옵소서!" 그러자 그는 앞으로 쓰러져 얼굴을 바닥에 대고 쓰러졌다.

그때 수염이 긴 노인이 달려와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더라. 그는 랜슬롯 경이 발작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았노라.

이에 수도자는 랜슬롯 경의 갑옷을 벗겨내고, 그의 목깃을 풀고 셔츠를 여어 목이 드러나게 하였노라. 그리고 그는 랜슬롯 경을 들어 안아 자신의 침상까지 모셔가 거기에 눕혔더라. 이에 랜슬롯 경은 종일 그 위에 누워 있더라.

그러나 해가 기울어가는 오후가 되자, 병자는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 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 은수사가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있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랜슬롯 경이시여, 당신께 무슨 일이 있소?"

그러나 이에 랜슬롯 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주위를 두리번거렸으니, 이는 그가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양이었더라. 이는 그가 중한 타격을 입고 어지러움을 겪는 자와

같았기 때문이라. 그 후 잠시 뒤에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였노라. 이는 그의 정신이 그가 겪었던 격렬한 정념으로 인해 혼미해졌기 때문이라. 실로 그 때 이미 나중에 그를 사로잡게 될 광기가 그의 뇌리에서 발효되기 시작하여, 그가 말하거나 행하는 바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더라.

이에 은수사는 랜슬롯 경에게 큰 시련이 닥쳤음을 깨달았노라. 그는 식사를 하신다면 기운이 회복되고 다시 정신을 차리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더라. 이에 선한 사제가 이르되, “영주님, 드시지 않겠나이까?” 하니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그렇도다. 먹게 하라.” 하시니라.

〈각주: 은수사가 랜슬롯 경을 보살피더라.〉

이에 은수사는 빵과 우유와 꿀과 과일을 가져와서 랜슬롯 경 앞에 차려 놓았더라. 랜슬롯 경은 그 음식에 달려들어 몹시 사납고 탐스럽게 먹으니, 그 먹던 모습은 경건하고 존귀한 기사라기보다는 야수 같았더라.

이후 랜슬롯 경이 이렇게 식사를 마치시자 이르시되, “나는 지치노라.” 하시며 이에 일어나 갑옷을 벗기 시작하시니, 그 조각조각 갑옷을 하나씩 벗겨 내어 마지막 한 조각에 이르기까지 모두 벗어치시더라. 이때 갑옷을 모두 벗고 가벼워지신 그는 겉옷과 바지만 입은 채 수도사의 간소한 침상 위에 몸을 던지시니, 순식간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으니 그 잠은 마치 죽음과도 같았더라.

그가 이렇게 주무시는 동안 수도사는 랜슬롯 경이 누우신 침상 곁에 앉아 계셨더라. 그는 랜슬롯 경을 매우 굳게 응시하시며, 그와 같은 처지에 계신 것을 보시고 크게 근심하시더라.

이때는 한밤중 중반쯤이 되어, 은수사는 앉아 있던 자리에서 잠이 들어버렸노라. 얼마 지나지 않아 랜슬롯 경이 깨어나 보니, 노인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었노라.

그런데 랜슬롯 경은 문득 은수사를 보고는 알 수 없는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혔노라. 그 두려움의 원인을 알 수 없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 즉 은수사를 피하여 도망치는 일뿐이었노라.

이에 그는 일어나 발끝으로만 걸으며 매우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노라. 맨발로 걸었음에도 그의 발걸음은 너무도 고요하여, 은수사의 잠을 깨우지 못하였노라.

〈각주: 랜슬롯 경이 수도원을 탈출하더라.〉

이때 랜슬롯 경은 수도자의 오두막 밖으로 나섰노라. 그가 이렇게 그곳을 탈출한 후, 그는 갑자기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노라. 수도자가 깨어나 그를 쫓아 다시 오두막으로 데려갈까 봐 두려워한 것이라. 그러므로 그는 곧바로 몸을 돌려 숲속으로 큰 속도로 달아났노라.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야수처럼 달아난 것이었노라. 그리고 그는 그 밤의 나머지 동안 도망쳤노라. 그리고 해가 뜨자 그는 도망을 멈추고 웅크려 숲속의 덤불 속에 몸을 숨겼노라. 그의 광기 속에서 그는 항상 수도자

가 자신을 쫓아올까 봐 두려워했고, 수도자가 이미 그를 쫓아 다시 오두막으로 데려오려 하고 있다고 생각했노라.

이와 같이 랜슬롯 경은 수도자의 오두막을 빠져나왔으며, 이후 오랫동안 그 숲에 머무르니라. 그가 먹을 것을 위해 숲의 야생 과일을 채gather하고, 숲의 샘물에서 마시되, 이것이 그가 가진 유일한 양식과 음료가 되었노라.

그리고 세월이 흐르자, 랜슬롯 경의 옷은 가시덤불과 찔레에 의해 모두 찢겨 조각나고, 그의 머리카락은 눈까지 내려 덮였으며, 수염은 가슴까지 자라나니라. 이로 인해 그는 온전히 숲의 야수인 양, 온몸이 벗겨지고 거칠며, 주린 늑대처럼 야위어 보이니라.

〈각주: 랜슬롯 경이 숲의 광인이 되니라.〉

그리고 때때로 숲을 지나가던 이들이, 그가 수풀 사이를 들개처럼 달리는 모습을 목격하곤 하였으니, 이로 인해 시골 곳곳에 '숲의 야인'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여 그 숲의 일대를 기피하더라.

이때 가을의 어느 달콤한 아침, 이른 서리가 내리고 모든 나무가 자줏빛과 갈색, 그리고 황금빛 옷을 입었을 때, 랜슬롯 경은 그의 미친 방랑 중 숲 가장자리로 이르렀더라.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넓은 햇살의 빛줄기 아래 노랗고 밝은 작은 열린 평야가 펼쳐져 있더라. 랜슬롯 경은 그 작은 평야 한가운데 푸른 실크로 만든 아름다운 천막이 서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리고 그는 천막 근처에서 세 마리의 말이 가을 풀을

뜯으며 묶여 있는 것을 보았더라. 또한 그는 천막 근처에 자라는 나무에 밝은 방패가 걸려 있고, 그 방패 곁에 아름다운 검이 매달려 있으며, 방패와 검 옆에 창이 나무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랜슬롯 경은 천막의 빛나는 색채를 기뻐하며, 방패와 검과 창을 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기사도적인 것이 깨어났노라. 그러므로 그는 검과 창을 잡고 방패를 만지고자 하였더라.

〈각주: _랜슬롯 경은 블라이언트 경의 방패를 두드렸노라._〉

이때 랜슬롯 경은 그 평야로 나아가, 검과 방패, 창이 놓인 나무에 다다랐노라. 그가 검의 손잡이를 손에 쥐자, 곧장 격렬한 전투 욕구가 그를 사로잡았노라. 그는 즉시 양손으로 검의 손잡이를 꽉 쥐고, 검신을 낫에서 빼냈노라. 그리고 그는 검을 머리 위로 휘둘러 방패를 내리쳤노라. 그는 다시 또 다시 방패를 내리쳐, 검날로 깊은 패인들을 파놓았노라. 그 타격의 소리는 마치 그곳에서 열 명의 남자가 싸우는 듯한 시끄러운 소란을 일으켰노라.

그때 그 갑작스러운 소란과 떠들썩한 소리에, 어깨는 넓고 팔다리는 힘찬 못생긴 난쟁이 한 명이 그 천막에서 뛰어 나왔다. 그리고 그 난쟁이가 그와 같이 방패를 내리치는 광인을 보자, 그는 그 칼을 빼앗으려 하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랜슬롯 경은 그와 같이 다가오는 난쟁이를 보고는, 곧장 자신이 들고 있던 검을 떨어뜨리고 난쟁이의 어깨를 잡은 뒤, 그를 땅바

닥에 거칠게 내동댕이쳤다. 그 낙하의 충격으로 난쟁이의 목은 거의 부러질 뻔하였다.

이때 난쟁이는 랜슬롯 경의 위엄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질렸으므로, 자신이 쓰러졌던 땅에서 일어나려 감히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곳에 엎드린 채 큰 소리로 도움을 부르짖었더라.

그때 그 천막에서 즉시 한 고귀한 기사가 나타나니, 그는 온몸에 스카렛(선홍색) 옷을 입고 미네버(흰 담비 가죽)로 가장자리가 장식된 스카렛 망토를 두르고 있었다. 그 기사는 바로 블라이언트 경이었는데, 그의 성은 이 곳으로부터 사오 리(league) 이내 거리에 있었다. 일년 중 이같이 화창한 계절에는 블라이언트 경이 그의 부인과 함께 외출하는 것이 관습이었으며, 그는 언제든지 이 작은 숲속길과 같은 아름다운 장소에 천막을 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때때로 블라이언트 경과 그의 부인은 이 천막에서 하룻밤을 묵기도 하였으니, 이때도 그러한 경우였다.

〈각주: 블라이언트 경은 광인을 불쌍히 여겼노라.〉

이때 블라이언트 경이 앞서 말한 대로 천막에서 나와 보니, 난쟁이가 땅에 누워 있더라. 또한 그는 랜슬롯 경이 다시 검을 들어 올렸으며, 난쟁이 위에 서서 마치 주변에 수많은 적들이 있는 양 검을 휘두르며 장난치는 것을 보았노라. 블라이언트 경이 본 자가 바로 세간에서 크게 떠들던 '숲의 광인'임을 직감하였노라. 이에 블라이언트 경은 그 광인을 지극히 불쌍히 여겨, 매우 온화한 어조로 그에게 말하였노라.

"선한 자여, 그 검을 내려놓으소서. 보기에 그대는 날카로운 검으로 장난치는 것보다 따뜻한 옷과 양식, 그리고 위로와 양육이 훨씬 더 필요해 보이옵니다."

그러나 랜슬롯 경은 이쪽저쪽으로 검을 휘두르며 큰 소리로 외쳤노라. "물러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때 블라이언트 경은 무장하지 않은 채로 그 광인(狂人)과 맞서 싸우는 것이 큰 위험임을 깨닫고, 자신의 난쟁이 종을 불러 일으키게 한 뒤 그와 함께 천막 안으로 물러나 무장을 갖추었다. 그리고는 그 검을 랜슬롯 경에게서 빼앗으려 무력으로 시도하려 하였더라.

〈각주: 블라이언트 경이 자신의 갑주를 갖추는 도중이다.〉

이때 그 난쟁이는 이미 쓰러져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호수 부인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 케이 경 곁으로 다가가, 케이 경이 갑옷을 입도록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케이 경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무장을 갖추었더라.

그가 이렇게 무장을 마치자, 검을 손에 쥐고 천막 밖으로 나섰다. 그는 그 광인을 상대하여, 그 위험한 검을 빼앗아 올 필요가 있는 대로 처신할 채비를 갖추었기 때문이라. 비록 그 광인을 죽여야만 한다면, 케이 경은 그에게 날카로운 검을 든 채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케이 경은 온몸에 갑옷을 두른 채 천막 밖으로 나왔더라.

그러나 랜슬롯 경이 그를 전투를 위해 무장한 채로 나타나자, 그의 마음속에서 전투의 사랑이 생생하게 깨어났고,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그는 블라이언트 경에게 돌진하여, 그의 헬름에 그렇게 강렬하고 두려운 타격을 가했는데, 그 한 방을 막거나 방어할 수 있는 갑옷은 없었다. 만약 랜슬롯 경의 칼이 조금이라도 덜 흔들렸더라면, 블라이언트 경은 그날로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각주: 광인이 블라이언트 경을 쓰러뜨리니라.〉

그러나 그 검, 비록 꺾였으나, 전력을 다해 버라이언트 경의 투구 정수리를 내려쳤다. 그 끔찍하고도 두려운 일격에 버라이언트 경의 뇌수는 그의 눈구멍 속으로 불꽃처럼 튀어 올랐다. 곧이어 검은 안개가 그를 덮쳤고, 그는 죽을 듯 쓰러져 기절하였으니, 그가 당한 그 비참한 일격의 힘으로 피가 그의 코와 귀로 흘러내렸더라.

이에 랜슬롯 경은 블라이언트 경이 그와 같이 타격 아래 쓰러지는 것을 보고 기쁨에 차 크게 외쳤노라. 그리고 곧장 손에 낫은 칼을 든 채 그 곳에 다른 적들이 있을지라도 찾으려 하여 천막 속으로 달려들었더라.

이때 비얀트 경의 부인은 그 천막 안에 홀로 있더니, 반쯤 벗은 몸으로 빛나는 검을 손에 쥔 광인이 거칠게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는, 얼굴에 두려움과 광기가 서린 끔찍한 표정으로 달려드는 그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곧장 천막 반대편으로 달아났더라.

이때 랜슬롯 경은 서서 사방을 두루 바라보며 검을 좌우로 휘둘렀으나, 자신에게 공격할 적수가 있음을 볼 수 없었더라. 그러자 그 곳에는 화염색의 린넬로 덮인 곱고 부드러운 침상이 놓여 있음을 보았으니, 그는 곧장 그 침상으로 달려가 그 위에 뛰어올라 즉시 이불로 온몸을 덮었더라.

〈각주: 그 부인은 두려워하노라.〉

이때 시어 블라이언트의 부인이 앞서 전한 바와 같이 천막을 뛰쳐나올 때, 그녀는 자신의 남편인 시어 블라이언트가 땅 위에 드러누워 있는 것을 보았고, 또 난쟁이가 그의 머리 위에 굽혀 앉아 그의 투구를 벗기고 있는 것을 보았노라. 이 광경을 목격한 그녀는 예전보다 더 큰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기사가 누워 있는 곳으로 광기 어린 듯 달려갔노라.

그리고 그의 얼굴이 우유처럼 하얗게 질린 채 피줄이 지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그 광인이 그를 틀림없이 죽였다고 생각했노라. 이에 그녀는 그의 시체 위에 몸을 던지며, 가장 날카로운 음성으로 크게 울부짖었노라.

"내 주군이여! 내 주군이여! 진실로 당신은 죽었소!"

"그렇지 않으니이다, 부인," 난쟁이가 말하였다. "그는 죽지 아니하였사오나, 기절하였을 뿐이오."

그리고 난쟁이가 이 말을 하던 찰나, 블라이언트 경은 매우 깊은 한숨을 쉬며 눈을 뜨니라. 그리고 그가 이르되, “방금 나를 치고 간 그 광인은 어디 있느냐? 내 평생에 그와 같은 일격을 받은 적이 없노라.”

난쟁이가 말하였다. “주군, 그 광인은 방금 천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주군의 부인을 그곳에서 쫓아내었나이다.”

“가라, 놔,” 블라이언트 경이 이르되, “천막 안에서 그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이에 난쟁이는 매우 두려워하며 천막의 문으로 다가가 안을 엿보았더라. 그는 랜슬롯 경이 소파 위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노라. 이에 난쟁이는 돌아와서 블라이언트 경에게 이르되, “경님, 그 미친 자가 경님의 침상을 차지하였사오며, 지금 그는 심호흡을 하며 깊은 잠에 빠져 있사오니 마치 기절하신 듯하옵니다.” 그리고 난쟁이는 다시 말하되, “저를 죽여 버리도록 이 검을 저에게 주시오. 그가 잠에서 깨어날 때 그의 광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오.”

〈각주: 블라이언트 경이 광인을 바라보더라.〉

그러나 블라이언트 경은 그 광인을 불쌍히 여겨 이르되, “그를 내버려 두라, 그를 해치지 말라. 내가 의심하건대 이 광인은 겉으로 보이는 바와 같지 아니하니라.” 하고 또 이르되, “나를 일으켜 주시오. 내 머리가 어지럽사오.” 하거늘, 부인과 난쟁이가 블라이언트 경을 도와 일어서게 하였고, 잠시 후 그는 서서 걸을 수 있게 되었더라.

그때 블라이언트 경은 천막 안으로 들어가, 랜슬롯 경이 누워 있는 곳으로 다가가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더라. 그가 보니 랜슬롯 경의 손가락에는 풍성한 반지가 끼워져 있었으니, 그것은 호수의 부인이 그에게 주신 마법의 반지였더라. 또한 그가 보니 랜슬롯 경의 몸에는 많은 상처의 자국이 덮여 있었으니, 이는 기사들이 전투에서 입는 상처와 같았더라.

이러한 것들을 본 블라이언트 경은 이르되, "이 이는 평범한 광인이 아니요, 불운에 빠진 위대한 전사라. 내가 보기에 그는 오직 명성 높은 기사만이 착용할 수 있는 반지를 끼고 있사오며, 또한 그가 많은 전투의 영광스러운 상처를 안고 있사오니라." 하더라.

이에 블라이언트 경이 난쟁이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말을 데리고 속히 나의 성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내 아우 셀리반트 경에게 여러 무리를 거느리고 이곳으로 서둘러 오라 명하라. 또한 그에게 말 수레를 가져오라 명하라. 이는 우리가 이 미친 기사의 병자를 데려가, 그가 도움을 받고 그의 병이 나을지도 모를 곳으로 모시려 함이라."

이에 난쟁이는 블라이언트 경의 명을 따랐노라. 그는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블라이언트 경의 성으로 달려가, 거기서 블라이언트 경의 뜻을 셀리반트 경에게 전하였더라. 그러자 셀리반트 경은 즉시 그 일행과 함께, 랜슬롯 경을 모셔갈 말 수레를 준비하여 그 곳으로 향하였노라. 사신이 그를 찾은 지 삼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그곳에 도착하였더라.

〈각주: 그들이 그 광인을 그곳에서 옮기더라.〉

이에 셀리반트 경과 블라이언트 경, 그리고 그 무리들이 랜슬롯 경을 침상에서 들어 올렸고, 그를 거적매에 눕혔으나 랜슬롯 경은 깨어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그를 그 곳에서 옮겨 가도 그는 여전히 깨지 아니하니, 이는 그 동안 그가 실신과도 같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 이같이 그들은 그를 블라이언트 경의 성으로 가져왔으나, 그가 그 실신과도 같은 잠에서 깨어나는 일은 없었더라.

그 후 그들은 성의 이발사를 불러내어 랜슬롯 경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 주었고, 그에게 새롭고 단정하게 차려입힌 옷을 입혔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동안 랜슬롯 경은 깨어나지 아니하고, 그저 기절할 듯 깊은 잠 속에 누워 있더라.

그 성채의 사람들이 랜슬롯 경을 보았노라. 그가 이렇게 옷을 입히고 머리를 깎인 채 누워 있더라. 그들이 그의 모습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우며 당당하게 보이는지 보았을 때, 그들은 말하되, "진실로 그는 높은 지위를 가진 고귀하고 거만한 전사라, 비록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리라."

이에 모두들 랜슬롯 경을 불쌍히 여겼으나, 그가 깨어날 때의 광기를 두려워하였노라. 이에 그들은 성의 대장장이를 부르라 명하였고, 대장가이는 랜슬롯 경의 손목과 발목에 가볍고 견고한 강철 사슬을 매었노라. 이는 그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함이었더라.

〈각주: 그 광인이 포로가 되니라.〉

이때 랜슬롯 경이 깨어보니, 그는 블라이언트 경의 성채에서 사슬에 묶인 포로가 되어 있더라. 랜슬롯 경은 블라이언트 경의 성채에서 일 년 반 동안 머무르며, 늘 그 가볍지만 단단한 강철 사슬에 묶여 지냈노라. 이는 그의 정신이 여전히 흐트러져 있었기 때문이라.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언제라도 광기에 사로잡혀 폭발할까 두려워했노라.

그러나 성 안의 사람들은 모두 랜슬롯 경을 지극한 친절과 온유로 대하였노라. 특히 블라이언트 경은 그에게 각별한 자비를 베풀었으므로, 랜슬롯 경은 어떤 말 없는 짐승이 주인을 사랑하는 듯 블라이언트 경을 사랑하였으며, 그가 어디로 가든 그를 뒤따라 다녔노라.

이러한 연유로 랜슬롯 경은 미쳐버렸고, 그리하여 그는 블라이언트 경의 성에 사슬로 묶이게 되었더라.

이때에 또 다른 모험들이 남아 있노라. 이는 이 시기에 일어난 일들이라.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숲의 광인이 아서왕의 목숨을 구하더라:]

[일러스트레이션]

제이장

랜슬롯 경이 브라이언트 경의 목숨을 구한 일. 그가 브라이언트 경의 성에서 탈출한 일, 그리고 리스테네스의 거대한 야생 멧돼지를 죽여 그의 주군인 아서왕의 목숨을 구한 일.

〈각주: 블라이언트 경이 숲속을 달린다.〉

어느 날, 랜슬롯 경의 성채 근처의 작은 숲을 지나가던 중, 그는 홀로 외롭게 말을 몰고 있었다. 이때 맑고 화창한 봄날의 햇살 아래, 두 명의 기사가 나란히 달리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들이 가까워지자, 랜슬롯 경은 그들의 방패에 새겨진 문양을 보고, 한 명이 브루스 산스 피티 경이며, 다른 한 명이 그의 형제인 베르톨레 경임을 알아차렸다. 이 두 사람은 랜슬롯 경의 원수였으니, 그 연유를 들어야 하리라.

아스토라트에서 열린 대회에서 랜슬롯 경은 그들의 동생인 젊은 기사의 몸을 매우 중하게 다친 바 있었다. 그 젊은 기사의 이름은 제로티우스 경이라 하였는데, 그 후로 그의 부상으로 인해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러나 블라이언트 경이 이 만남이 자신에게 불길한 징조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갔으니라. 그리하여 그가 두 기사에게 거의 다다랐을 때, 그들 중 앞선 자(즉 피티 없는 브루스 경)가 나아와 그를 불러 이르되, “기사여, 당신은 누구이며 어디로 가시오?” 하니 블라이언트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영주들이여, 나는 이 국경의 기사이며 모험을 찾아 방황하는 기사이오.” 브

루스 경이 이르되, “당신은 하얀 성의 블라이언트 경이 아니오?” 블라이언트 경이 이르되, “당신이 말한 바가 옳으니 나는 바로 그이오.”

이에 피티 없이 브루스 경이 매우 사나운 어조로 이르되, “경이시여, 아스토라트 대회에서 우리 형제 젤로티우스 경을 죽인 자를 여기서 만나게 되니 이는 다행이로소이다.” 이에 블라이언트 경이 이르되, “영주들이여, 내가 어찌 그 일로 인해 너희의 원한을 사오리요? 진실로 내가 젤로티우스 경을 낙마케 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가 죽었사오나, 이는 전쟁의 우연한 결과요, 나의 악의가 아니었나이다. 더욱이, 너희 형제 젤로티우스 경 또한 그 대회에 참여한 모든 자들과 마찬가지로 전쟁의 기회를 받아들였나이다.”

“더는 말씀하지 마시오!” 브루스 경이 이르되, “그만두시오. 다만 우리를 향하여 곧장 전투를 준비하시오. 우리는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일 당신을 찾아다녔사오니,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을 우리 손에 붙잡았나이다.”

“경들이여,” 블라이언트 경이 외쳤다, “두 사람이 한 사람에게 덤비려 하느냐?” 그들이 “그렇다”라 일러대고, 이에 검을 빼 들고 싸움을 준비하더라.

〈각주: _블라이언트 경이 숲에서 습격받다._〉

이에 블라이언트 경은 형편이 어찌된 바를 깨닫고, 자신의 처지가 불리함을 알았으나 싸움을 피할 길이 없음을 알고는 곧장 검을 뽑아 방

어 태세를 갖추었더라. 이때 세 사람은 숲속에서 곧장 맞서 싸우니, 둘이 하나를 상대하는 형국이었더라.

그러나 잠시 동안, 비록 그가 두 명과 맞서 서 있었음에도, 블라이언트 경은 큰 용기와 기개로 자신을 방어하더라. 그는 이제 이쪽을, 이제 저쪽을 치며, 때로는 적의 일격을 피하기 위해 말을 돌렸고, 때로는 적들에게 일격을 가하더라. 그가 펼친 방어가 그리도 컸기에, 그 두 기사가 그에게서 원하는 바를 이루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노라.

그러나 한 명의 기사가 자기와 필적하는 두 상대와 지속되는 싸움을 벌일 소망은 없었다. 그 결과 잠시 후, 블라이언트 경은 온몸 여기저기에 상처를 입었으며, 잠시 더 시간이 흐르자 그는 피로와 출혈로 인해 이 숲속에서 적들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싸움에서 죽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

〈각주: 블라이언트 경이 도망치니라.〉

그때 큰 절망이 그에게 닥쳤고, 그는 즉시 말머리를 브루스 경에게 향하여 마치 그를 강타하려 함과 같았더라. 브루스 경이 그 타격을 피하려고 몸을 피우자, 블라이언트 경은 그의 말을 매우 격렬하게 브루스 경의 말에 들이받았으므로, 브루스 경의 말은 기수가 등 위에 있는 채로 거의 땅에 쓰러질 지경이었더라. 이에 블라이언트 경은 적을 지나쳐 빠르게 달아나, 그가 이끌 수 있는 최속력으로 자신의 성채를 향해 도망쳤더라.

이때 두 기사들은 적의 갑작스러운 탈출에 깜짝 놀랐으나, 곧 그가 달아나는 것을 깨닫고 즉시 말에 채찍을 가하여 서 벨리안트 경을 추격하니, 그가 빠르게 달릴수록 그들도 또한 빠르게 뒤를 쫓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틈만 나면 그를 향해 잔인하게 채찍을 휘둘렀으나, 그의 빠른 발걸음 때문에 큰 해를 끼치지 못하였더라.

이에 브라이언트 경은 성으로 달아났고, 두 기사가 그 뒤를 맹렬히 추격하며 성벽 아래로 돌진하여 왔노라. 그들이 너무 가까이 따라왔으므로 브라이언트 경은 안장 위에 앉아 말의 고삐를 잡아 성의 도개교로 방향을 틀 여유가 없었노라. 그는 도개교를 지나쳐 지나가며, 성벽 안의 자들에게 원조를 호소하였노라.

〈각주: 광인이 비라이언트의 위태로움을 바라보더라.〉

그때 랜슬롯 경은(앞서 예언된 바와 같이) 성채의 한 창가에 묶여 누워 있었으니, 해가 그에게 강렬하고 따뜻한 빛을 쏟아부으며 내리쬐고 있었다. 랜슬롯 경은 그 햇살 아래서 잠들고 있었더라.

그가 이렇게 잠들었을 때, 그는 발굽 소리와 큰 외침 소리, 그리고 채찍질하는 타격의 소란에 깨어났다. 그리하여 그는 그 창문 밖을 내다보았으니, 세 명의 기사들이 성채 벽을 우레처럼 지나가는 것을 보았더라. 랜슬롯 경은 뒤쫓는 두 기사에게 쫓기는 한 기사가 바로 자신의 스승, 블라이언트 경임을 보았노라. 또한 블라이언트 경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매우 고전하고 있음을 보았으니, 그는 온몸이 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라. 그가 잠시 말에 몸을 돌려 좌우로 치려 할 때마다, 또 잠시 다시 말에 몸을 돌려 목숨을 구하려 도망치곤 하였더라. 랜슬롯

경은 블라이언트 경이 적들이 내려치는 모든 타격마다 안장에서 비틀거림을 보았노라.

그 사이 성채 안에서는 큰 외침과 무기를 들라는 부름이 끊이지 않았으므로, 블라이언트 경이 죽임을 당하고 있음을 알기에 이르렀더라.

〈각주: 그 광인이 자신의 사슬을 끊어뜨리니라.〉

그때 랜슬롯 경의 마음속에는 격렬한 전투의 분노가 타올랐노라. 그의 사랑하는 주군인 블라이언트 경을 그와 같이 압박하는 자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이에 그는 블라이언트 경을 구원하기 위해 서둘렀으나, 자신을 묶어둔 사슬 때문에 그러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는 광기 어린 마음으로, 이처럼 묶여 있는 것에 격분하여 그 단단한 강철 사슬을 손에 쥐고 그것과 몸부림쳤노라. 그의 몸부림 중 사슬이 그의 살에 깊게 파고들어, 그는 철에 의해 심하게 상처를 입었노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슬롯 경은 자신의 전력을 다해 힘을 쏟았노라. 비록 그의 팔과 손에서 피가 흘렀을지라도, 그는 결국 자신의 팔을 묶고 있던 사슬을 끊어버렸노라.

그 후 그는 큰 돌을 손에 들어 자신의 다리를 묶고 있던 사슬을 때렸고, 그것들도 부러뜨렸노라. 그리하여 그는 다시금 자유의 몸이 되었더라.

이에 랜슬롯 경은 창틀 위로 뛰어올라, 성채의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들어 아래 도랑으로 떨어졌고, 도랑을 헤엄쳐 건너가 그 반대편으로 무사히 올라왔더라.

그때 바로 그곳에서 블라이언트 경은 자신을 추격하는 자들에게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려 애썼노라. 그는 매번 맞을 때마다 말에서 떨어질 뻔할 지경이었노라. 이 광경을 바라보던 랜슬롯 경은, 두 명의 기사가 블라이언트 경을 끊임없이 치고, 블라이언트 경이 그 타격 아래 안장에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연민과 분노로 가득 차 크게 외쳤노라.

〈각주: 광인이 블라이언트 경을 위하여 싸우니라.〉

이와 함께 그는 포효하며 곧장 가장 가까이 있던 버톨레트 경에게 돌진하더라. 버톨레트 경은 일어나 그 기사의 몸을 붙잡아 거대한 힘으로 그의 안장 고삐대에 끌어내렸고, 랜슬롯 경은 버톨레트 경의 칼을 빼앗아 그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결국 칼을 손에서 빼앗아 내었더라.

그때 케이 경이 외쳐 부르되,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내 형제여! 이 광인이 나를 죽이려 하노라!"

이때 브루스 경은 자신의 동생을 구원하고자 블라이언트 경을 떠나서 돌렸고, 이에 랜슬롯 경은 베르톨레 경을 놓아주고 브루스 경을 향해 돌진하였노라. 랜슬롯 경은 베르톨레 경의 검으로 브루스 경의 투구에 such한 타격을 가하여, 단 한 방에 그를 말등 뒤쪽의 안장 덮개 너머로 완전히 날려버렸노라.

이에 랜슬롯 경은 창을 손에 쥐고, 그로써 말에 올라타 아서 왕의 기사 랜슬롯을 향해 돌진하여 그의 몸을 관통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그 공격에서 랜슬롯 경은 재빠르게 옆으로 뛰어 피하였노라. 이에 랜슬롯

경은 달려들어 랜슬롯 경의 창을 손으로 잡아채고, 창 끝을 따라 손을 뻗어 랜슬롯 경에게 일격을 가하였노라. 그 타격은 어깨의 갑옷을 관통하여 어깨 뼈까지 깊숙이 파고들었으며, 그 결과 랜슬롯 경의 팔은 몸에서 절반 정도 잘려 나갔노라. 이때 랜슬롯 경은 다시 한 방을 가하려 하였으나, 랜슬롯 경은 창을 손에서 놓으며 큰 비명을 지르고 말을 돌려 도망쳤노라.

이때 브루스 산스 피티 경이 다시 말에 올라타려 할 즈음, 그는 그 무서운 일격을 바라보았고, 또 자신의 형제인 베르톨레 경이 그 광인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그는 말의 옆구리에 채찍을 꽂고, 온 힘을 다해 함께 도망쳤더라.

이때 랜슬롯 경은, 손에 쥔 검 하나를 제외하고는 무장을 갖추지 않은 채, 두 명의 강인하고 용감한 기사들을 격파하여 그의 주군의 목숨을 구하더라.

〈각주: 블라이언트 경은 광인을 아끼니라.〉

이때 성 안의 사람들이 달려와, 성에서 미친 광부로 불리던 자와 함께 서 블라이언트가 있는 곳에 이르렀으니, 그들은 두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더라. 서 블라이언트가 서 랜슬롯을 바라보니, 그의 팔과 손은 사슬을 부수며 찢겨 피가 흐르고 있더라. 블라이언트가 이르되, “불쌍한 광부여! 네가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고난을 겪었느냐?” 하니, 이에 랜슬롯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라. 이때 블라이언트가 성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제 다시는 그 사슬을 그에게 채우

지 말라. 그는 온순하고 자비로우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려 하지 않느니라."

그들은 다시는 랜슬롯 경을 결박하지 아니하고,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었노라. 그 후로 그는 가고자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떠돌아다녔으며, 그의 가는 길과 돌아오는 길에 이를 막는 자는 아무도 없었노라. 그는 모든 이에게 자비롭고 온유하였으므로, 그 땅의 그 누구도 그에게 두려움을 품지 아니하고, 모두 그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었노라.

그러나 랜슬롯 경의 마음속에는 늘 그가 너무도 가치 있는 자로서, 한 영주의 성에서 광대처럼 어리석게 지내는 데 만족할 수 없다는 기억이 남아 있었으므로, 그가 만약 그 일을 해낼 수만 있다면, 블라이언트 경의 성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그의 의지에 담겨 있었다.

〈각주: 광인이 블라이언트 경의 성에서 탈출하다.〉

이제 사슬이 풀린 지어 그는, 아무도 그를 지켜보지 않는 어느 밤, 성채의 벽에서 몰래 내려와 해자를 건너 반대편으로 헤엄쳤다. 이렇게 밤의 은밀함을 틈타 탈출한 그는, 멈춤 없이 달렸고, 마침내 숲에 닿아 다시금 예전처럼 완전히 wild하게 방황하였다. 그의 기사도 중 잔존한 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영주의 성채에서 수치스레 사는 것보다 숲속에서 홀로 죽는 것이 더 나으리라 하였음이라.

* * * * *

그때 그 지방에는 모든 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거대한 멧돼지가 있었는데, 이 멧돼지는 릿네스 숲이라 불리던 그 숲의 이름에서 유래한 '릿네스의 멧돼지'라 불렸다.

〈각주: 아서왕이 리스테네스의 멧돼지를 사냥하다.〉

이 거대한 멧돼지와 그로 인한 참상에 대한 소문이 아서왕의 귀에 들어오매, 왕은 이 짐승을 사살하여 농토를 그 괴롭힘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특별한 사냥날을 정하라고 명하셨노라.

〈각주: 광인이 멧돼지를 쫓는다.〉

이러한 연유로, 어느 날 숲속에서 홀로 광기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랜슬롯 경은 사냥개들의 짖음과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의 함성을 깨달았노라. 곧이어 사냥개들의 짖음은 그의 바로 곁까지 바짝 다가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목과 작은 나무들이 거칠게 부수어지는 소리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노라. 이에 그가 주시하는 사이, 리스테네스의 거대하고 야생적인 멧돼지가 숲속에서 뚫고 나왔노라.

보라! 그 멧돼지의 턱은 송곳니가 거품으로 일게 하며 거품으로 하얗게 물들었고, 그 거대한 송곳니들은 거품 한가운데서 희게 빛나고 있었노라. 그 거대한 짐승의 가시털은 날카로운 강철 선과 같았고, 또한 그것들 역시 짐승의 턱에서 떨어지는 거품으로 얼룩져 있었노라. 그리고 그 멧돼지의 눈은 두 장작불과 같이 빛나며, 숲속을 찢고 도망치는 동안 악마처럼 포효했노라.

사냥개들은 항상 그 멧돼지를 쫓아다녔으나, 그 주변을 감싸는 공포 때문에 도망치는 그와 맞서 싸우지는 못하고 옆구리를 쫓아다닐 뿐이었노라.

이때 랜슬롯 경이 그 광경을 목격하니, 사냥에 대한 열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타올랐다. 그는 크게 외치며 개들과 함께 멧돼지를 쫓아갔고, 멧돼지와 개들이 가시덤불과 가시나무, 그리고 울창한 수풀을 뚫고 나아갈 때, 그 역시 그 사이를 헤치며 따라갔다.

그리하여 랜슬롯 경과 개들은 멧돼지를 오랫동안 쫓았다. 마침내 그 짐승은 거대한 바위 절벽 뒤로 물러나 몸을 기대고 서니, 개들이 이를 에워싸고 짖어대며 울부짖었다. 랜슬롯 경은 끊임없이 그들을 격려하며 공격을 독려했으나, 그 야수무서운 모습에 대한 공포로 인해 단 한 마리의 개조차도 그 맹수와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다.

이때 랜슬롯 경과 사냥개들이 멧돼지를 에워싸고 돌진할 때, 말 타는 자의 빠른 발걸음과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곧 아서왕께서 홀로 숲을 뚫고 나타나시니, 왕께서는 온 궁정을 따돌리고 가장 먼저 이 벌판에 도착하셨더라.

이에 아서왕은 사나운 멧돼지가 막다른 골목에서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창을 받쳐 그 짐승을 향해 돌진하여 그 몸을 관통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사냥의 고초로 인해 격분하고 광란에 찬 멧돼지는 왕의 돌진을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기마의 왕을 향해 스스로 돌진하였더라. 그 돌진에 아서왕의 말은 그 짐승의 공포에 질려 갑자기 옆으로 비켜서므로, 아서왕의 창은 그 명중을 잃고 말았노라.

〈각주: 멧돼지가 아서왕을 쓰러뜨리니라.〉

그때 멧돼지는 창끝 아래로 들이닥쳐 아서왕의 기마를 어금니로 낚아채어 찢었으니, 말과 기수 모두 땅에 쓰러졌더라. 아서왕은 상처 입은 짐승 아래에 깔려,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려 다리를 빼낼 수도 없었더라.

그때 아서왕의 형편은 참으로 위태로웠으리라. 그러나 그 숲의 광인 덕분이었노라. 아서왕이 넘어지는 것을 본 랜슬롯 경은 곧장 그에게로 달려들었노라. 그는 왕의 검을 붙잡아 칼집에서 빼내었노라. 그 검으로 그는 멧돼지를 향해 맹렬한 일격을 가하였노라. 그러나 그 때 그의 발이 땅 위에 누워 있는 말의 피 위에서 미끄러져, 그는 멧돼지를 쓰러뜨리려던 그 거친 일격의 힘에 의해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노라.

그때 그 멧돼지는 또 다른 자로부터 공격을 받자, 즉각 그 공격자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랜슬롯 경이 낙상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그 짐승은 이미 그에게로 달려들었노라. 멧돼지는 그 송곳니로 랜슬롯 경의 허벅살을 찢어, 고관절 뼈에 닿을 때까지 깊숙이 상처를 입혔더라.

〈각주: 광인이 멧돼지를 죽이다._〉

이때 랜슬롯 경이 그 끔찍한 멧돼지의 상처로 인한 고통을 느끼자, 그는 크게 비명을 지르니라. 동시에 그의 영혼은 격분과 광기로 가득 차, 멧돼지가 다시 그를 향해 돌진하기 전에 그는 이미 일어서서 멧돼지에게 달려들었노라. 랜슬롯 경이 멧돼지를 치니, 그 치명적인 일격

은 목의 털을 뚫고 목뼈를 관통하여 목의 절반까지 잘랐으므로, 멧돼지의 머리는 몸통에서 거의 떨어질 뻔하였더라.

그와 함께 멧돼지는 죽어 쓰러졌고, 랜슬롯 경은 비틀거리며 검에 기대어 섰노라. 그의 몸을 찌르는 고통의 심한 고통으로 인해 그는 크게 신음하였더라.

이때 랜슬롯 경이 이와 같이 서 있을 때, 왕의 일행에 속한 다른 사냥꾼들이 말발굽 소리와 함성 소리를 동반하며 숲에서 갑자기 뛰쳐나왔더라.

이때 랜슬롯 경이 그들을 보았을 때, 그의 광기와 고통의 격렬함으로 인해 이들은 자기를 해친 자들인 줄 알았노라. 이에 그는 들짐승처럼 포효하며 새로 온 자들을 향해 달려들었고, 아서왕의 검을 번개처럼 머리 둘레 휘두르며 공격하였더라.

이때 몇몇 기사들이 그 광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기 전에 창을 받쳐 그를 관통하려 하였으나, 아서왕이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려는지 삼가라! 그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 그가 나의 목숨을 구하였노라." 하시니, 본래 랜슬롯 경을 공격하려 하던 자들이 손을 거두어 그의 앞에서 물러나 물러갔더라.

그러나 이미 랜슬롯 경의 기운은 서서히 꺾여 가고 있었다. 그의 정신은 이미 어지러움에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잠시 후 그는 기절하여 땅바닥에 주저앉듯 쓰러져 누워 버렸다.

그때 왕과 함께 있던 이들이 모두 그의 곁으로 달려가,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누운 그를 내려다보았으나, 그는 온몸이 벗겨지고 흐트러져 있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가 거구임을, 그리고 온몸에 수많은 전상(戰傷)이 겹겹이 새겨져 있음을 보았고, 그처럼 처참하게 누운 그를 보고 모두 깊은 연민을 느끼니라. 이때 아서 왕이 이르시되, "이것은 위대한 전사의 골격이로다. 그가 지금과 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니, 참으로 불쌍한 일이로다." 하시고는, "그를 부드럽게 들어 올려, 위로를 받고 양분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모시라." 하시더라.

그들이 랜슬롯 경을 지극히 정성스럽게 들어 올렸고, 그 곳으로부터 그를 모셔 갔으며, 그가 아스토라트에서 열린 검술 시합에서 중상을 입었던 때에 이전에 치유를 받았던 그 은수자의 오두막으로 그를 모셔 갔더라.

* * * * *

이에 선인은 랜슬롯 경을 맞아들이되 그가 누구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비록 그가 거구요 위용 있는 사내임을 보았을지라도, 그 위대한 전사는 숲속에서의 광기와 금식 탓에 그토록 변하여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조차 그를 알아볼 수 없었노라. 그럼에도 선인은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 숲의 광인을 자신의 작은 방에 있는 침상에 눕히고, 광인의 허벅지에 난 상처를 살피며 미지근한 물로 씻고, 향유로 발라 매끄러운 흰 린넨 천으로 감아 주었노라. 그리하여 그 상처는 모든 방면에서 잘 치료되고 손질되었더라.

〈각주: 그 광인이 수도자의 작은 방에 누워 있더라.〉

그때 은수사가 랜슬롯 경을 바라보았노라. 그는 굶주림으로 인해 온몸이 야위고 오목하게 패어 있음을 보았더라. 이에 은수사가 이르되, "이 가련한 광인이 먹지 아니하면 곧 죽게 되리라" 하더라.

이에 랜슬롯 경이 그 기절에서 깨어나게 하자, 선한 노인은 우유와 흰 빵을 가져와 병자에게 바쳤노라. 그러나 그는 그 음식을 손대지 아니하였노라. 비록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었을지라도, 그의 광기로 인해 그 음식이 혐오스러웠기 때문이라.

이때 랜슬롯 경은 상처와 기아로 인해 그곳에 누워 있었고, 은수사는 그를 먹이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이러한 상태로 사흘 동안 누워 있었으며, 은수사는 그를 지켜보며 음식을 먹으려 시도했으나, 그 미친 자는 제공된 음식을 항상 내던지며 거부하였다.

〈각주: 그 광인이 수도사의 감방에서 탈출하더라.〉

이때 사흘째가 지나 사흘째 밤이 깊어가던 때, 은수사는 예배당에서 기도에 열중하고 있었다. 랜슬롯 경은 일어나려 애썼으나, 그의 허약함을 물리치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노라.

일어나자마자 그는 은수사의 오두막을 기어 나와야 했으니, 그 힘은 간신히 그 정도에 불과하였노라. 은수사는 여전히 기도에 몰두하여, 부상당한 자가 이미 떠났음을 알지 못하였노라.

그 후 랜슬롯 경은 숲속으로 기어 들어가, 마치 들짐승처럼 지극히 은밀하게 몸을 숨겼노라. 비록 은수사가 그를 찾아 헤매며 아무리 철저히 수색한다 할지라도, 끝내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은수사는 탄식하며 이르되, “슬프도다! 진실로 이 불쌍한 광인은 상처와 기아로 인해 이 숲속에서 홀로 죽고 말리라. 그를 구할 이가 없도다.”

* * * * *

이와 같이 랜슬롯 경은 은수자의 감옥에서 두 번째로 탈출하였노라. 이제 그가 어떻게 코르빈으로 돌아와 아름다운 엘레인 부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으며, 엘레인 부인이 그를 보살피며 그의 건강과 힘과 아름다움을 다시 되찾게 하였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 하노라. 그러므로 이 일들에 대해 알고자 하는 자여, 이어지는 글을 읽으라.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아름다운 엘레인 부인이 랜슬롯 경을 알아차리다:]

[일러스트레이션]

제삼장

랜슬롯 경이 다시 코르빈으로 돌아온 일과, 아름다운 엘레인 부인이 그를 보살피어 건강을 회복시킨 일, 그리고 랜슬롯 경이 엘레인 부인과 함께 기쁨의 섬으로 물러간 일을 전하노라.

이때 랜슬롯 경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사제의 굴을 탈출하더라. 그는 그 낮 내내 수풀 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깊어지자 몸을 일으켜 동쪽을 향하여 길을 떠났노라.

〈각주: 랜슬롯 경이 코르빈으로 돌아감에 대하여〉

죽음은 이미 랜슬롯 경에 매우 가까이 다가와 있었으며, 그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것은 코르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비록 그의 정신이 광기의 구름에 뒤덮여 있었으나, 랜슬롯 경은 코르빈에서 그에게 크고 깊은 사랑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다. 만약 그가 그 곳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그는 안식과 평화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약함과 고통의 시기에, 그는 다시금 그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였다.

그때 랜슬롯 경은 코빈을 향해 길을 떠났노라. 그는 여러 날을 여행하여 그곳에 이르렀으니, 그가 그토록 고단한 여정을 어떻게 견뎌냈는지는 오직 하느님만이 아시리라.

새벽이 밝아오던 어느 날 아침, 그는 코빈의 성내에 도착하여, 예전에 잘 알고 있던 작은 문으로 성 안으로 들어갔노라. 성문에 들어선 후, 그는 아직 잠들었던 거리들을 천천히, 그리고 큰 고통을 안고서 올라갔노라.

그는 아무에게도 발각되지 않은 채, 예전에 코빈의 벌레를 죽이고 그 영광을 얻었던 바로 그 시장 광장으로 향하였노라. 그리고 그는 그 벌레가 거처로 삼았던 돌덩어리 위에 앉아 버렸노라.

그가 어찌하여 그곳으로 향하였는지, 누가 알리오. 다만 그의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는, 그곳에서 한때 그가 기사의 위대한 영광과 명성을 얻었었다는 희미한 기억이 남아 있었는지도 모르겠노라.

〈각주: 백성들은 광인을 바라보았노라.〉

그리하여 그는 그곳에 앉아 있더라. 마을 사람들이 깨어나 보니, 그 시장 한가운데서 한 사내가 전신에 옷깃 하나 걸치지 못한 채 기아에 지친 채 앉아 있는 것이었다. 그는 굶주린 늑대가 숲에서 쫓겨나 나온 듯 wild하고 terrified한 눈빛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더라.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모여 멀리서 랜슬롯 경을 바라보았으며, 그가 벌거벗은 채 앉아 있을 때 이들은 그를 향해 웃으며 조롱하였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그가 바로 이전에 코르빈의 구렁이를 죽여, 그들의 가장 극심한 위기 때 그들을 구원한 자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를 웃고 비웃었으며, 곧 그 곳에 있던 이들 중 일부가 그를 그 장소에서 쫓아내려 돌을 던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마침내 그 돌 중 하나가 랜슬롯 경이 앉아 있던 곳을 맞혔고, 그로 인해 그의 분노가 타올라 그를 집어삼켰다. 이에 그는 벌떡 일어나 그를 괴롭히던 자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리고 그는 한 젊은이를 붙잡아 들어 올린 뒤, 그를 땅에 거세게 던져 그의 허벅지 뼈를 부러뜨렸다.

〈각주: 백성들이 광인을 습격하더라.〉

이에 그 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 외침과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더라. 그러나 곧 그들은 다시 모여들더니, 자신의 발치에 쓰러져 고통스러워

하는 자를 향해 노기를 품고 이를 갈며 서 있는 랜슬롯 경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하였노라. 수많은 돌들이 랜슬롯 경을 강타하여, 어떤 것은 그의 머리를 치고 어떤 것은 그의 몸을 맞혔노라.

그리고 랜슬롯 경은 격분하여 때때로 군중을 향해 돌진하였으니, 군중은 마치 강풍 앞의 짚더미처럼 그의 앞을 헤치고 흩어졌노라. 그러나 그들은 다시금 모여들더니 그를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을 멈추지 않았더라.

이와 같이 돌을 던지며 랜슬롯 경을 공격하고, 랜슬롯 경이 무리를 향해 돌진하자, 백성들은 그를 시장 광장에서 쫓아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몰아냈고, 랜슬롯 경은 그들 앞에 물러나 성을 향해 후퇴하였으니, 이는 그가 미친 듯이 있더라도 성 안에는 자신을 도와줄 벗들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는 물러나다가 성의 작은 문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그는 벽을 등에 기대고 서서 저항하였더라. 그 자리에서 그는 무리를 향해 맞서서 노려보며 버텼으나, 마침내 한 돌이 그의 머리를 치고 그는 땅에 쓰러졌더라.

〈각주: 성의 사람들은 랜슬롯 경을 제외하고 모두 구원받았더라.〉

그때 캐멀롯의 성안 사람들은 군중의 소란을 듣고는 문득 작은 문을 열어 치솟아 나왔고, 곧바로 무리에게 돌진하였더라. 그러자 군중은 성의 무장한 자들에게 습격당하여 사방으로 흩어지며 달아났고, 랜슬롯 경은 그 자리에 누운 채로 남겨졌더라.

그때 성채의 사람들이 나와 누워 있는 랜슬롯 경을 바라보았더라. 그들은 그곳에 누운 자가 어찌 그리 크고 고귀한 체격을 지녔는지 보았으며, 그와 같은 인물이 그러한 신세가 된 것을 보고 큰 연민을 품었노라. 이에 호위대장이 이르되, "슬프도다. 이와 같은 인물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니. 이제 그를 들어 성채 안으로 모시자. 그리하면 그가 보살핌과 양식을 받을 수 있으리라."

그들이 그 선장의 말대로 행하여, 랜슬롯 경을 코르빈 성으로 데려가 안전히 보호하더라.

〈각주: 엘레인 공주는 랜슬롯 경을 아노라.〉

이때 아름다운 엘레인 공녀가 마침 창가에 서 있어, 그 높은 곳으로 내려다보며 안뜰을 바라보았더라. 그녀가 바라보니, 몇몇 무장한 병사들이 후문으로부터 부상당한 한 사내를 성 안으로 모셔 들어가는지라. 그들이 그녀가 서 있는 곳 바로 아래를 지나갈 때, 엘레인 공녀는 그 부상당한 사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노라.

그때 해빛이 그의 얼굴에 밝게 비추었더라. 그 순간, 날카롭고 예리한 칼날이 내려치는 것과 같은 생각이 그녀의 영혼을 찔렀노라. 이에 엘레인 공녀는 손을 모아 잡고는 큰 소리로 외쳤노라.

"내 영혼이여! 내 영혼이여! 이것이 무엇인가? 과연 그가 맞을는지?"

그때 호수의 부인 엘레인의 곁에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엘레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세상을 떠도는 작은 무력한 아기로 남겨진 이후부터 그녀의 유모이자 보모였던 매우 연로하고 단정해 보이는

궁정의 여인이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데임 브리센이었다. 엘레인은 데임 브리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그녀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마치 그곳에 앉아 계신 분이 어머니인 양 그녀의 얼굴을 데임 브리센의 무릎에 묻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여인의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로 울부짖으며 외쳤다. "슬프도다! 슬프도다! 슬프도다! 나는 지극히 끔찍한 광경을 보았노라!" 데임 브리센은 놀란 듯이 말하였다. "무엇을 보았느냐, 내 아이여?" 호수의 부인 엘레인이 말하였다. "나는 랜슬롯 경이 기아에 시달리고, 상해와 출혈로 고통받으며, 죽음의 문턱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노라.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는 알 수 없노라."

브라이젠 부인이 이르되, “내 자식아,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런 광경을 어디에서 보았느냐? 꿈꾸던 것이 아니냐?”

엘레인 공녀가 이르되, “아니오, 꿈꾸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방금 전, 내가 창가에 서 있다가 랜슬롯 경을 보았사옵니다. 여러 사내들이 그를 들쳐업고 성의 안마당으로 후문으로 들여보내었사오니, 그는 온몸이 벗겨지고 기진맥진하며 상처투성이이고 멍이 들었사옵니다.”

브라이젠 부인이 이르되, “아들아, 가라앉으라. 어찌하여 그런 기이한 일을 생각하느냐? 네가 보았다고 한 그 사람은 랜슬롯 경이 아니었노라. 다만 성문 밖에서 시민들이 돌을 던지고 있던 가련한 광인이었을 뿐이니라.”

그러나 엘레인 공녀는 더욱 격정적으로 외쳤다. “두렵소! 두렵소! 진실로 그분은 랜슬롯 경이셨소! 이제 그분께 나를 데려가 주시오. 내가

그분께서 맞으신지 아닌지 확실히 알고 싶소. 그렇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소!”

그때 브라이젠 여사는 구이니비어 부인의 심정이 어떠함을 깨닫고, 그녀가 정신을 잃은 자와 다름없음을 보았노라. 그리하여 이 일에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녀가 원하는 대로 두는 것뿐임을 알았더라. 이에 이르되, “그대의 뜻대로 하리라.”

〈각주: 엘레인 공주가 랜슬롯 경에게 오니라.〉

이에 브라이젠 부인이 일어나 손에 랄리네 일레인을 잡고 그 광인을 찾아간지라. 그들이 이르니 광인은 작은 돌방에 누워 있더라. 그 방은 매우 음울하고 어두웠으니, 그 곳으로 들어오는 빛이라곤 철창이 달린 작은 창문 하나를 통해서뿐이었기 때문이라. 그 창문의 너비는 손 두 개 길이쯤에 불과하였더라. 그럼에도 그 희미한 빛 가운데서 그들은 상한 자가 짚으로 만든 단단한 침상에 누운 것을 보았더라. 그가 죽은 자의 혼백이 나간 듯 깊은 잠에 빠진 것을 보았고, 그의 얼굴이 죽음처럼 하얗게 질린 것을 보았더라.

그 어두운 빛 속에서 엘레인 공주가 나타나 그의 누워 있는 침상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는 랜슬롯 경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으니, 마치 매우 정교하고 작은 글씨로 쓰인 한 권의 책인 양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는 듯하였다. 그녀의 숨결은 점점 더 가빠져와 질식할 듯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확신하되 이가 참으로 랜슬롯 경임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곧이어 그녀는 랜슬롯 경의 손을 잡았으니, 그 손은 기아로 인해 야위고 얼음처럼 차가웠더라. 그녀가 그것을 바라보매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진 것이 보였는데, 그 반지에는 맑은 푸른 돌이 박혀 있었더라. 이에 엘레인 공주는 이것이 호수의 부인이 옛적에 랜슬롯 경에게 주었던 반지임을 알았노라.

〈각주: 엘레인 공녀가 울고 있더라.〉

그때 그녀가 이것이 참으로 랜슬롯 경임을 알았으니, 그녀는 매우 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가로다! 그가로다!" 하고, 이렇게 부르짖으며 그녀는 큰 정성으로 울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그녀는 랜슬롯 경의 손을 입맞추고 그것을 자신의 목구멍에 바짝 대었으며, 다시 입맞추고 또 다시 입맞추었노라.

그때 브리센 부인이 구이니비어 공녀 쪽으로 몸을 굽혀 그녀의 팔을 감싸 쥐며 이르되, "공녀여, 공녀여! 당신의 정념을 억누르소서! 스스로를 돌아보시옵소서. 여기 당신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사오니." 그리하여 브리센 부인은 공녀를 무릎 꿇고 있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고, 그녀를 그 어둡고 음침한 곳으로부터 데려내었노라. 공녀는 여전히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 찬 큰 슬픔에 젖어 울고 있었으나, 그녀는 자존심을 지키려 자신의 베일을 얼굴 위로 당겨 아무도 그녀의 정념을 보지 못하게 하였노라. 그리고 그녀는 브리센 부인에게 이르되, "저를 아버지께 모셔가소서," 하니, 브리센 부인이 한 팔로 그녀를 안고 펠레스 왕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였더라.

〈각주: 엘레인 공녀가 랜슬롯 경에 대해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때 엘레인 공녀가 아버지가 자신 앞에 서 계심을 보자, 그녀는 즉시 무릎을 꿇고 그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소리 높여 부르짖었노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를 보았사옵니다. 그가 이 성 안에 계시다!”

이러한 슬픔의 격정에 펠레스 왕은 크게 놀라 물으시되, “내 딸아, 너는 누구를 보았느냐?”

공녀가 아뢰되, “저는 랜슬롯 경을 뵈었사옵니다. 그가 바로 지금 성 안으로 끌려온 자이니이다. 성문 근처에서 시민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그를 구하기 위해 성 안으로 모셔온 자라니이다.”

펠레스 왕은 이 말을 듣고 더없이 놀라시며 이르시되, “이것이 진실로 가능할까? 어찌 그가 그인 줄 아느냐?”

공녀가 아뢰되, “저는 여러 징표로 그를 알았나이다. 사랑으로 그를 알았고, 그의 얼굴로 그를 알았사오며, 또 그의 손가락에 끼고 있는 푸른 돌이 박힌 반지로 그를 알았나이다.”

이에 펠레스 왕은 그의 발 앞에 꿇어앉은 엘레인 부인을 일으켜 세우며 이르시되, “딸아, 울음을 그치라. 내가 이 일을 살펴보리라.”

그는 말한 대로 행하여 그 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는 랜슬롯 경과 장시간 동안 그를 바라보았노라. 그리고 그는 상처 입은 남자의 손가락에 낀 반지를 살펴 보았더라. 그리하여 잠시 후 펠레스 왕은, 비록 호수의 부인이 먼저 그가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지라도, 그 누워 있는 자가 실로 랜슬롯 경임이 분명함을 알았노라.

그때 펠레스 왕은 시종들을 명하여 랜슬롯 경을 들어 올리고, 그 곳을 매우 정중하게 떠날 수 있도록 하며, 아름다운 큰 방으로 데려오라 하셨노라. 이에 시종들은 왕의 명을 따라 랜슬롯 경을 깃털로 채운 침대 위에 놓았고, 그 위에는 솜으로 채운 새틴 이불을 덮었노라. 펠레스 왕은 숙련된 의사를 불러 랜슬롯 경의 상처를 살펴보고,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주의를 기울이라 명하셨노라. 그 동안 랜슬롯 경은 죽음과도 같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였더라.

그때 랜슬롯 경은 그와 같이 사흘 밤낮을 주무시더니, 깨어나셨을 때 호수의 부인 엘레인과 그 아버지, 브리젠 부인, 그리고 의술사 한 사람만이 함께 있더라. 보라, 랜슬롯 경이 깨어나셨을 때 그의 마음에서 광기의 먹구름이 걷히시니, 그는 다시금 자기 자신이 되셨노라. 비록 약하시되, 오래 누워 앓던 어린 아이와 같았더라.

〈각주: 랜슬롯 경이 광기에서 깨어난 일.〉

그때 호수의 부인 엘레인이 랜슬롯 경의 침상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으며, 그가 처음 본 얼굴은 바로 그녀의 얼굴이었노라. 이때 랜슬롯 경이 매우 나약하고 미약한 목소리로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 호수의 부인 엘레인이 울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는 주를 매우 아끼는 자들 곁에 있어 안전하옵니다.”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는 정신이 혼미하셨고 무거운 상처로 인해 심하게 다치셨사오니, 이로 인해 주께서는 죽음의 문턱에 서 계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 곁에 있어 안전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과연 미쳤던가?” 하니,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 이때 랜슬롯 경이 다시 이르되, “내가 미쳤던가?” 하니, 펠레스 왕이 이르시되, “그렇사오, 경.”

이때 랜슬롯 경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난 듯 탄식하며, 한 손으로 얼굴을 가렸노라(호수의 부인이 다른 한 손을 그의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르되, “어찌 이토록 부끄러운가! 어찌 이토록 부끄러운가!” 하더라. 이에 다시 한번 깊은 탄식을 터뜨렸노라.

〈각주: 랜슬롯 경이 어떻게 귀하게 여겨졌는가.〉

그때 엘레인 낭자는 그치지 않는 눈물로 아뢰었노라. “폐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직 큰 연민일 뿐이니이다.” 하더라. 그녀가 그의 손을 입맞추고 눈물로 그 손을 씻었노라.

그리고 랜슬롯 경 또한 자기의 심한 약함을 생각하며 울었노라. 잠시 후 그가 이르되, “엘레아, 내게는 오직 너뿐이 희망이요 명예니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평안히 여기소서, 경이여. 내 마음속에는 진실로 경에 대한 존경과 경의 큰 행복에 대한 희망이 있사오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랜슬롯 경은 비로소 평안을 얻었노라.

그 후 잠시 뒤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나로 하여금 미쳐버리게 한 일을 여기 누구 알는지?” 하니 펠레스 왕이 이르되, “이 성에 아주 소수만이 아나이다, 경.”

이에 랜슬롯 경이 이르되, “비옵건대 이 일을 가장 비밀리에 행하시고, 나에 관한 말이 이 성벽을 넘어 나가지 않게 하소서.” 하니 펠레스 왕이 이르시되, “말씀하신 대로 하리다, 경이여.”

이러한 연유로 랜슬롯 경의 광기와 그의 회복에 관한 소문은 그 성벽 너머로 퍼져 나가지 못하였더라.

〈각주: 랜슬롯 경과 엘레인이 서로 교감하더라.〉

십 사일이 지나고 나서, 랜슬롯 경은 몸과 마음이 차츰 완쾌되어 가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누워 있던 그 방에서 랜슬롯 경과 엘레인 부인은 둘만 남게 되었다. 그가 이르되, “부인, 저를 미워할 만한 큰 이유가 있었사옵니다.”

이때 그녀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이르되, “어찌하여 저를 미워하리이까, 랜슬롯이여?”

랜슬롯 경이 이르되, “엘레인, 나는 지난날 너에게 크고도 슬픈 잘못을 저질렀노라.”

그녀가 이르되, “그런 말씀 마옵소서.”

“아니오,” 그가 이르되, “나는 그 일에 대해 많은 말을 해야 하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내 무관심으로 너에게 저지른 그 잘못을 되돌릴 수 있다면 좋으련만 하는 바램뿐이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보상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소? 내게는 쪼그라들고 가난해진 내 목숨 외에는 아무것도 없소. 그러나 그 가난한 목숨과, 그것이 간직하고 있는 가

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그것이 너에게 조금이라도 보상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드리겠소."

그때 호수의 부인 엘레인이 매우 오래, 그리고 깊이 랜슬롯 경을 바라보며 이르되, "랜슬롯 경이여, 당신의 입술은 의무를 말하지만, 참으로 유익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의무를 말하는 것이라. 만일 당신이 나를 잘못 대했다면, 당신의 입으로 하는 말로는 그 잘못을 씻어낼 수 없느니라. 그러나 당신의 마음에서 '나는 이 사람을 잘못 대했으며, 나는 속죄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그 잘못은 참으로 매우 빠르게 시정될 수 있느니라."

이에 랜슬롯 경은 미소하며 이르되, "내가 당신께 말하기 전에 나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았노라. 내 입술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말하는 바니라. 내 마음속에는 당신에 대한 지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고, 확실히 당신에 대한 모든 존경과 경외심이 거기에 누워 있나니, 이는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나를 움직이게 하느니라. 이제 말씀하시오, 부인이여, 그 어떤 마음도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겠는가?"

엘레인이 이르되, "저에게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것 같지 않사옵니다."

이에 랜슬롯 경이 그녀의 손을 잡아 당겨 자기 곁으로 모시니, 그녀도 그를 따라갔더라. 그가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니, 그녀가 이를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두 사람은 화해하여 평화와 행복을 누렸노라.

〈각주: 랜슬롯 경과 엘레인 공녀가 혼인하다.〉

이때 랜슬롯 경의 병이 온전히 낫자, 두 사람은 혼인하였다. 혼인 후 펠레스 왕은 그들에게 거처할 만한 매우 고귀한 성을 하사하였으니, 그 성의 이름은 블레인의 성이라 하였더라.

그 성은 수정처럼 맑은 순수한 물로 이루어진 호수 한가운데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섬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섬은 가지각색의 잎사귀를 가진 아름다운 나무들로 이루어진 수많은 과수원과 농원들로 뒤덮여 있었다. 그리고 그 섬 위에는 정원과 초원이 있었고, 성 주변에는 한때 호수 가장자리에 서서 호수 너머의 마을과 성을 바라볼 때, 마치 빛나는 꿈속에서 보듯 그런 곳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다.

이때 랜슬롯 경은 그 섬의 큰 평화와, 자신이 거기서 평화를 얻으리라 바랐던 까닭에, 그 이름을 기쁨의 섬(Joyous Isle)이라 불렀노라. 그리하여 그때부터 이 섬은 모든 이에게 기쁨의 섬이라 알려졌더라.

* * * * *

이로써 랜슬롯 경의 사연 중 한 단락은 막을 내리노라. 다만 그가 기쁨의 섬에서 겉으로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였다는 말만 덧붙일 뿐이라.

〈각주: 랜슬롯 경이 기쁨의 섬에서 지내셨던 일.〉

그러나 과연 그가 느낀 것이 평화와 만족이었는가? 슬프게도 그러하거늘, 그는 종종 과거의 용감한 행적과 영광과 명성을 회상하곤 했으

며, 한때 그의 시선을 높이 올렸던 아름다운 왕비에 대해 생각하곤 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녀를 생각할 권리가 없었다. 그때면 그의 영혼은 무장한 듯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여기서 떠나 다시 그 영광과 또 다른 이의 사랑을 찾아야 한다! 너의 동료들이 너의 귀환을 기다리지 않는가? 그녀 또한 너를 기다리지 않는가?"

그러면 랜슬롯 경은 항상 그의 영혼에게 말하였다. "가라, 교만한 영혼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의무만을 생각하라." 그러나 그 영혼은 항상 다시 그의 안에서 일어나 명예의 사슬로 묶여 있는 것을 벗어나려 분투하였다. 그리고 랜슬롯 경은 항상 말하였다. "나에게 남은 것은 나의 의무와 영혼의 평안뿐이니라."

실로 사람의 뜻은 완고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에 대항하여 지극히 약하고 보잘것없는 방패일 뿐이니라. 비록 사람이 옳은 일을 하려 마음먹는다 할지라도, 그의 생각은 항상 그릇된 곳으로 향할 수 있으며, 비록 그가 그릇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참는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욕망에 반하여 그렇게 참는 것이니라. 아; 사람이 의무의 경계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도는 오직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을 때뿐이니라. 오직 그의 발이 그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을 때에야, 그가 그릇된 일을 하도록 부추기는 강력한 생각들에 맞서 이겨낼 소망을 가질 수 있느니라.

이때 랜슬롯 경의 마음도 이와 같았더라. 비록 그가 항상 옳은 일을 행하고자 결심하였으나, 그의 욕망은 항상 그로 하여금 그가 걷던 명예

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부르는지라, 그의 영혼은 자주 큰 시련에 처하곤 하였노라.

[그림]

제5부

에이웨인 경과 분수의 부인의 이야기

여기에 에웨인 경의 이야기가 시작되니, 그는 갈레스의 퍼시벌 경과 함께 랜슬롯 경을 찾아 나서는 여정, 그리고 그 둘이 매우 수치스러운 처지에 빠진 사그모어 경을 만나게 된 일, 그리고 에웨인 경이 생명의 큰 위기를 겪은 끝에 분수의 가장 아름다운 부인을 아내로 얻는 기이한 모험을 수행하게 된 일을 기록하리라.

[일러스트레이션: 분수의 기사 가웨인 경:]

[일러스트레이션]

제1장

에웨인 경과 퍼시벌 경이 함께 랜슬롯 경을 찾아 떠나는 일과, 그들이 어느 모험에서 실패한 사그모어 경을 만난 일. 또한 사그모어 경이 그 모험에 관해 들려준 이야기라.

본 서적에서 이미 서술되었거니와, 아서왕의 궁정에 속한 몇몇 기사들, 곧 에커 데 마리스 경, 라이오넬 경, 가니스의 보르스 경, 가웨인 경, 에웨인 경, 퍼시벌 경, 그리고 사그모어 더 데자이어스 경과 아그

라베인 경은 구이니비어 왕비의 명을 받아 랜슬롯 경을 찾아내고 그를 왕의 궁정으로 데려오기 위해 길을 나섰다.

〈각주: 퍼시벌 경과 유웨인 경이 함께 길을 떠난다.〉

그 기도를 위하여 퍼시벌 경과 유웨인 경은 벗이 되어 함께 말을 몰았노라. 두 사람은 모험의 운명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이같이 함께 행할 것을 맹세하였더라.

그들은 매우 즐거운 교분을 나누며 나란히 말을 몰아갔으며, 우연히 마주치는 길로 향하되, 어디에서나 랜슬롯 경에 대한 소식을 찾고자 했노라.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 관하여 어떠한 말도 찾아내지 못하였더라.

그 시절 세상은 매우 새롭고 청춘이었으니, 그러한 방식으로 여행하는 것은 큰 즐거움이더라. 곧 그들은 푸른 하늘 아래를 달리다가는 이내 부드러운 비를 만나고, 곧 언덕을 오르고는 계곡을 내려가며, 곧 시골을 지나고 마을을 지나고, 곧 숲을 지나고 황야를 지나니라.

정녕 그 시절, 세상이 젊었을 때, 생명의 모든 것은 그렇게도 밝고 기쁨에 넘쳐 있었으니, 이와 같이 밖으로 나서는 것을 즐겼던 두 사내와 같은 훌륭한 기사들이 그토록 기뻐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더라. 이는 그들이 하느님의 세계라는 더 넓은 공간에서 더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기 때문이요,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이 궁정 안이나 부인의 방 안에서 가능했던 것보다 더 큰 삶의 기쁨으로 확장될 수 있었기 때문이니라.

이 두 고결한 신사들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정을 다지며 함께 여행을 계속하였노라. 그들은 사흘 밤낮을 이곳저곳으로 떠돌며 다녔으나, 랜슬롯 경에 대한 소식은커녕 그 어떤 모험의 흔적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밤이 되면 운명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든, 그곳에서 묵으며 쉬었노라.

〈각주: _그들은 계곡 한가운데에 성채 하나를 발견하더라._〉

그때로부터 이틀 후, 즉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은 어느 높은 언덕에 이르러 그 정상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니 한 계곡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계곡 한가운데 우뚝 선 아름답고 높은 성을 보았으며, 성은 작은 마을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을은 또 아름다운 들판과 과수원, 그리고 과일 나무들이 심어진 농원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고, 하늘은 황금빛에서 은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늘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고왔으며, 밝게 빛나면서도 서서히 어두워지는 하늘 한가운데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한 개의 별이 떠 있었다.

그때 에와인 경이 이르되, “영주여, 저곳으로 내려가 그 아름다운 성에서 하룻밤 묵을 곳을 구합시다. 내 생각에는 이 밤을 지내기에 매우 쾌적한 곳일 것이옵니다.” 이에 퍼시벌이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여, 그대의 뜻대로 하오,” 하고는 두 사람은 그 계곡으로 내려가 그 성으로 향하였다.

그들이 성에 다다르자, 퍼시벌 경이 나팔을 매우 크고 또렷하게 불었더라. 곧바로 성의 여러 하인들이 나와 그들을 환영하며 성문 안으로

인도하였더라. 그들이 성내에 도착하였을 때, 성의 총무가 나와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말해 줄 것을 요청하였더라. 두 기사가 이를 밝히자, 그토록 유명한 두 전사가 이곳에 이르렀음을 알고 큰 기쁨을 금치 못하였더라.

그러자 몇몇 하인이 달려가 그들의 말을 맡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하마를 도와주었으며, 다시 다른 이들은 그들을 성 안으로 인도하여 각각 아름답게 꾸며진 방으로 안내하였더라. 그 방은 잘 차려져 있었고 창밖으로 매우 쾌적한 전망이 펼쳐져 있었더라.

이후 다른 하인들이 나와 각 기사의 갑옷을 벗기고 옷을 벗기도록 도왔으며, 그 후 미지근한 물이 담긴 목욕통을 가져왔더라. 목욕을 하고 향기로운 라벤더 냄새가 나는 부드러운 린넬 수건으로 몸을 말린 후, 그 하인들이 비단으로 된 고급 옷감과 의복을 가져와 그들을 입혀주었더라. 그들은 매우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로 머물렀더라.

이와 같이 옛날의 선량한 기사들은, 어디를 가든 그 모험의 길에서 머물기를 원하거든, 성채와 대청에서 그러한 대접을 받았노라.

〈각주: 퍼시벌 경과 유웨인 경은 성에서 휴식을 취하더라.〉

이때 에웨인 경과 퍼시벌 경은 몸과 마음을 씻고, 앞서 말한 대로 옷을 단정히 입었더라. 이때 성의 한 위인(高位者)이 그들에게 나아와, 성주의 두 분과 담소를 나누고자 하신다는 뜻을 전하더라. 이에 두 사내가 그 안내자를 따라 내려가, 성주의 계신 대청으로 나아갔더라. 성주는 두 분의 도착을 맞이하여 환대하고자 서 계셨으니, 그분은 장수한

노회한 수염을 가진 위엄 있고 고귀한 분으로, 은실로 수놓은 짙은 자색 로브를 입고 계셨더라.

에웨인 경과 퍼시벌 경이 그 곳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시자, 성주는 주저함 없이 두 분을 맞으러 나아가 끝없는 환대와 인사를 드리며 이르시되,

"환영하노라, 아름다운 영주들이여! 세 번이나 환영하노라! 너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광이라. 더욱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거니와, 이미 너희 동료 중 한 분이 이 성에 와 있으니, 너희가 그를 만나기를 매우 기뻐하리라."

에웨인 경이 이르되, "폐하, 여기 계신 이는 누구이신고?"

〈각주: 그들은 사그모어 경에 대한 소식을 듣더라.〉

"성 Sagramore께서 이 곳에 오셨노라," 성의 영주가 이르거늘, 이때 Sir Ewaine와 Sir Percival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노라. 그리고 Sir Ewaine가 이르되, "어찌하여 성 Sagramore께서 이 곳에 오셨나이까, 공경스러운 영주여?"

"내가 말하리라," 성주의가 이르되,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 조금 전에, 방패를 메지 않고 흰 노새를 타고 온 한 기사가 이 곳에 도착하였노라. 이 기사는 밤을 새울 곳과 식량을 청하였거늘, 우리가 그의 이름과 신분을 묻자,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워 말하기를 거절하였노라. 그러나 뒤에 이르러 그는 아서왕의 궁정에서 온 랜슬롯의 동료들 중 한 사람인 사그모어 경이며, 원탁의 기사라고 밝히니라. 또한 그

는 불행한 사고를 당하여 방패와 전쟁용 말을 잃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이 여행하고 있다고 고백하였노라."

"경," 에워인 경이 이르되, "이것은 매우 기이한 일이니, 사그모어 경이 기사도답지 않은 행차로 여행한다니. 경은 아시리니, 사그모어 경은 원탁의 기사요, 이 일은 퍼시벌 경과 나 자신에게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경께 간구하오니, 그와 담화할 기회를 허락하소서. 그가 어찌하여 기사다운 방패도 없이, 그리고 그런 기이한 행차로 여행하는지 내가 알 수 있도록 하소서."

"주인님의 명을 따르리이다, 경." 성주의 말이었노라. "그리하여 즉시 사그모어 경에게 당신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전갈을 보내리라."

〈각주: 사그모어 경이 나타나니라.〉

성곽의 영주는 그가 말한 대로 사신을 보냈고, 곧이어 사그모어 경이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사그모어 경이 에웨인 경과 퍼시벌 경 앞에 서서 머리를 깊게 숙이자, 이는 그가 부끄러움 때문에 그 기사들의 얼굴을 보기를 꺼렸기 때문이었노라. 그는 자신의 처지를 발견한 그들의 눈앞에 서 있음이 수치스러웠던 것이다. 이때 에웨인 경이 그에게 이르되, "경이여, 감히 묻노니, 어찌하여 방패도 없이 하얀 노새를 타고 유랑하는 처녀와도 같은 모습으로 이같이 불운한 길에 올랐는가?"

“영주여,” 사그모어 경이 이르되, “내가 전말을 말씀하리니, 내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전장의 우연한 사고 때문임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에웨인 경이 이르되, "그것을 믿지 못할 바가 못 되노라."

그때 성의 영주가 이르되, “경들이 이 일에 관해 논하기 전에,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몸을 편히 쉬소서. 그 후에야 이 기사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더 나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겠사옵니다.”

〈각주: 그들이 모두 함께 연회에 앉아 있더라.〉

성주께서 말씀하신 바는 그 기사들에게 매우 합당해 보이므로, 그들은 곧장 대청으로 들어가 식탁에 앉아 앉았더라. 식탁 위에는 온갖 종류의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붉은 포도주와 흰 포도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술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큰 식욕과 깊은 친분으로 먹고 마셨더라. 그들이 배를 채우자, 에웨인 경은 사그모어 경에게 이르되, "이제, 메시르, 저로 인해 닥친 그 모험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청하노라."

사그모어 경이 이르되,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 하더라.

〈각주: 사그모어 경이 그의 모험을 말하더라.〉

〈각주: 사그모어 경이 마법의 계곡에 이르게 된 일.〉

"너희는 내가 형제 랜슬롯 경을 찾아 방랑의 길에 올랐을 때, 나의 동료들 중 몇몇과 함께 하였노라. 나는 그의 소식을 구하며 부지런히 길을 떠났으나, 그에게 대한 소식은 어디에서도 얻지 못하였노라. 그리하여 나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여행을 계속하였노라. 그러던 중 이틀 전, 저녁 무렵에 나는 이곳에서 동쪽으로相当한 거리를 벗어난 한 곳에 이르렀노라.

그곳에서 나는 진실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이라 믿어지는 곳에 서 있었노라. 그 계곡에는 꽃으로 가득 찬 매우 아름다운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크기가 고른 나무들 사이의 숲속에는 꽃이 만발한 곳도 있고 열매로 가득 찬 곳도 있었노라. 또한 계곡 중앙을 따라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 있었고, 여기저기 기이한 깃털을 가진 새들이 매우 매혹적인 소리로 지저귀었노라. 이러한 것들을 보아 나는 이 계곡이 분명히 마법의 장소일 것이라 짐작하였노라.

그 계곡 한가운데에는 매우 위엄 있는 성이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은 계곡 자체만큼이나 놀라울 정도였노라. 이에 나는 말에 올라 계곡 안으로 들어가 성에 다가가니라."

내가 그 곳에 가까이 다가가자, 불꽃빛 새틴 옷을 입은 두 청년이 활과 화살로 과녁을 향하는 것을 보았노라. 그들의 머리카락은 노랗고 곱슬거리며, 각자 머리에는 금으로 된 전장을 두르고 있었고, 발에는 금박이 박힌 가죽 신발을 신었으며, 발등에는 금띠가 달린 신발을 신고 있었더라.

"이 두 청년이 내게 다가오자, 매우 정중한 인사를 건네며 내 이름과 신분을 밝히도록 청하거늘, 나는 이에 응하였다. 이어 그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성으로 오기를 청하거늘, 나는 큰 기쁨으로 그들을 따랐다. 밤을 새울 곳이 매우 아름답고 즐거운 곳일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노라.

그리하여 나는 이 두 청년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종들이 달려와 내 말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이들이 달려와 내 갑옷을 벗겨 따뜻하게 데운 물로 된 목욕탕으로 나를 인도하더라. 그 후 나는 성의 홀로 내려가니, 그곳은 온갖 종류의 비단과 직물로 벽을 두르고 매우 풍부하고 아름다운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어 내 눈에 띄었노라."

〈각주: 사그모어 경은 비비엔 부인을 만난다.〉

"그 큰 전당(殿堂) 안에는 열두 명의 처녀들이 앉아 창가에 있는 새틴 천을 자수하고 있었노라. 나는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처녀들을 본 적이 거의 없었노라. 내가 그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열두 명의 처녀들이 모두 일어났고, 그중 가장 아름다운 자가 앞으로 나아가 나를 맞이하며 인사를 전하였노라.

그때 나는 즉시 그 처녀가 바로 마법사 멀린을 속여 그의 파멸과 몰락으로 이끄는 비비안 공녀임을 알아차렸노라. 그러나 내가 확언하건대, 그 시대의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아름다워졌노라. 그녀의 머리카락은 본래 붉은 빛을 띠었으나, 이제는 순금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머리카락은 금실로 엮은 그물에 싸여 있어, 도대체 그물과 머리카락 중 어느 쪽이 더 빛나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노라. 그녀의 눈은

온통 검은 빛이 보석처럼 빛나고, 입술은 붉은 산호 같으며 향기가 진하고, 이빨은 값진 진주와 같았노라.

게다가 그녀는 불꽃빛 새틴 의복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목과 팔에는 여러 가지 색과 종류의 보석이 박힌 금 장신구로 치장되어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잘 알겠거니와, 경들이시여, 그녀의 얼굴과 용모에 완전히 매료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각주: 사그모어 경은 비비엔 부인과 함께 연회를 즐겼노라.〉

"그러나 이 부인이 장난을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알기에, 나는 잠시 동안 매우 불안했다. 그녀가 나에게 어떤 악한 마법을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에게 매우 친절한 말로 응대하고 예의바른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인접한 방으로 나를 이끌었는데, 그곳에는 온갖 고기와 포도로 차려진 연회가 베풀어져 있었다. 그리고 우리 둘은 식탁 곁에 나란히 자리를 잡았다.

우리가 함께 연회를 즐기던 중, 노래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다른 이들은 달콤한 음악을 연주하였다. 나는 평생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지극한 즐거움을 느꼈다. 한편, 우리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비비안 부인은 나에게 그녀가 내가 즐거워할 것이라 판단한 일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아서왕의 궁정에 있는 많은 영주들과 부인들에 대해 물었고, 그들 모두를 잘 칭찬하며 말하였다.

그리고相当한 시간이 흐른 뒤,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만약 내가 자신의 사연을 말해 준다면 기쁠 것이냐고. 이에 나는 그녀에게 내가 서라운슬로를 찾기 위해 방랑 중이라고 말하였다.”

“하!” 그녀가 이르되, “만일 당신이 모험을 찾고자 하거든, 나는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험을 당신에게 가져다주리라.”

내가 그에게 이르되, “부인, 비록 내가 어떤 임무를 띠고 떠돌아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내게 명예를 안겨줄 만한 모험을 만날 수 있다면 잠시 내 일을 멈추고 머물겠노라.”

〈각주: 비비안 부인이 사그모어 경에게 한 모험을 이야기하다.〉

그때 비비안 부인이 웃으며 이르되, “케이 경이여, 이 모험에서 귀하가 어떤 명성을 얻을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귀하가 취해야 할 길을 내가 일러주마. 내일 내가 귀하를 이곳으로 인도한 소년 중 한 명으로 하여금, 이 계곡 너머 숲을 지나는 어느 길이로 귀하를 인도하게 하리라. 그 길을 따라가면 곧 토뎅이를 보게 될 터이고, 그 토뎅이 위에서는 아마도 근처 우마群的 목동인 거구의 사나이를 보게 될 것이니, 그에게 마법 우물이 어디 있는지 물으면, 그가 귀하에게 길을 계속 나아가도록 인도하리라.”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부인, 저에게 주신 정보에 대해 큰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 모험을 기꺼이 맡아 수행하겠사옵니다.’ 이에 그녀가 크게 웃으며 이르되 ‘기사여, 이 모험을 지나간 후엔 당신도 나와 당신 자신에게 그리 만족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밤의 환대에

대한 보답으로 한 가지 청을 드리나이다. 이 모험이 끝난 뒤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당신의 행방이 어떠하였는지 내가 직접 확인하게 하소서.'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부인의 청대로 하겠사옵니다.'"

〈각주: 사그모어 경이 그 모험을 떠나니라.〉

"다음 날 아침이 밝자 나는 매우 일찍 일어나 갑옷을 갖추어 입었노라. 이때 앞서 예언된 소년 중 한 명이 내게 찾아와 나를 말에 태워 주었고, 이어 그 계곡을 가로질러 나를 인도하였더라. 그는 나를 계곡 너머에 펼쳐진 숲의 경계로 데려가 한 길을 가리키며, 그 길을 따라가면 내가 찾고자 하던 모험에 이를 것이라 일렀노라."

그 후 나는 그 길을 따라 걸었노라. 상당한 거리를 행한 후, 정오가 되기 전 어느 때인가에, 그 부인이 말하던 그 언덕에 이르렀노라.

언덕 꼭대기에는 거대한 체격의 사내가 앉아 있었으니, 그 추악한 모습은 나의 생애 그 어느 때에도 본 적이 없을 정도라. 이 괴물은 매우 크고 거친 목소리로 나를 부르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와 무슨 일로 가는지를 물었다. 이에 나는 내가 어떤 마법의 분수를 찾고 있으며, 만약 그가 내 길을 알려준다면 큰 은혜를 입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매우 크게 웃더니, 잠시 후 이렇게 말하였다.

"저쪽 숲길을 따라가라. 그 길을 따라 언덕에 이르기까지 가라. 언덕 꼭대기에서 너는 너 앞에 계곡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 계곡에는 작은 호수로 흐르는 분수가 있을 것이다. 호수 가장자리에는 많은 백합이 피어 있을 것이다. 분수 근처에는 가지가 넓게 퍼진 큰 나무가

있으며, 그 나무 아래에는 대리석 판이 놓여 있고, 그 판 위에는 은사슬로 연결된 은그릇이 놓여 있을 것이다. 그 분수의 물을 은그릇에 담아 대리석 판에 뿌려라. 그러면 너는 오랫동안 만족할 만한 모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각주: 사그모어 경이 분수의 계곡에 이르러라.〉

〈각주: 사그모어 경이 돌판 위에 물을 붓더라.〉

"그 거대한 소년이 이렇게 말하더라. 나는 그가 가리킨 길로 들어섰고, 그 길을 따라가다가 언덕에 다다랐다. 나는 언덕을 올라갔고, 거기서 그가 말한 계곡을 바라보았노라. 그리고 그가 말한 백합의 호수를 보았으며, 호수로 흘러드는 샘물을 보았고, 샘물을 그늘지게 하는 나무를 보았노라. 이에 나는 곧장 그 계곡으로 내려갔다.

나무에 다다랐을 때, 나는 돌판과 은빛 대야를 보았노라. 바로 그 거대한 목동이 내가 찾으리라 말한 그대로였노라. 나는 그가 지시한 대로 은빛 대야를 물속에 담갔고, 샘물을 대리석 판에 뿌렸노라."

그때 곧이어 매우 기이한 일이 일어났으니, 보라, 땅이 떨리고 요동치기 시작하더니 하늘은 마치 우레를 치듯 울렸고, 온 하늘을 가득히 매우 짙고 검은 구름이 덮치므로, 한창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밤처럼 어둠이 내려앉았더라. 이때에 거센 바람이 불어와, 내가 그 바람에 날려 사라질 것만 같았으며, 그 후에 쏟아진 빗물은 홍수처럼 폭우가 되어, 내가 그 비에 빠져 죽을 것만 같았노라. 그 빗물은 계곡 곳곳으로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며 홍수를 이루었고,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는 우레가

터지며 번개는 살아 있는 불꽃처럼 타올랐노라. 이때 멀리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애절한 탄식 소리가 들려왔더라.

그때에 조금 있다가 폭풍은 지나가고 구름은 사라져 버렸으며, 해는 기이할 정도로 밝은 빛을 띠고 모습을 드러냈노라. 이때 또 하나 기이한 일이 일어났으니, 곧 많은 새 떼가 하늘을 날아와 그 분수 위의 나무에 머물렀기 때문이라. 그들은 지극히 정교한 선율로 노래하였는데, 그들의 노래 기쁨에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노라.

"내가 거기 앉아 새들의 소리를 듣고 있을 때에, 멀리서 한 기수가 평원을 지나 놀랄 만한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보았노라. 그가 가까이 오자, 그는 검은 갑옷을 두르고 검은 말 위에 탄 한 기사인 것을 보았노라. 이 기사는 매우 격렬하게 내 쪽으로 달려오며, 매우 사나운 큰 소리로 외쳤노라. '기사여, 어찌하여 내 우물에 손을 대었는가. 너로 말미암아 이 땅에 큰 홍수가 닥쳤음을 알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벌하러 여기 왔노라. 이제 나의 분노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라, 그 분노가 매우 크니라.'"

〈각주: 사그모어 경은 분수의 기사에게 쓰러뜨리다.〉

그때 그이가 나를 공격하려 몸을 가다듬고, 나도 또한 즉시 방어 태세를 갖추어 방패와 창을 단단히 손에 쥐고, 분수 옆 초원 한가운데로 자리를 잡았노라. 그 후 그 기사와 내가 서로를 향해 돌진하여 충돌하였는데, 그이가 나를 안장에서 그렇게 거세게 떨어뜨리기에, 나는 그때 입은 타격이 그토록 강렬한 것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느꼈노라.

"이와 같이 나를 땅에 던져 버린 후, 그는 마치 내가 나무토막인 양 내게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내 방패를 빼앗아 말 안장에 올려 놓았으며, 내 말의 고삐를 잡아 그 자리를 떠나갔노라. 그는 나를 여전히 바닥에 누운 채로 남겨둔 채로였으며, 떠나가면서 내게 단 한 마디의 말씀도 건네지 아니하였노라. 진실로 내가 말하건대, 경들이시여, 나는 일생 중 그 어느 때보다도 부끄러움에 젖었던 적이 없었노라."

〈각주: 비비안 부인이 사그모어 경을 조롱하다.〉

"그때 내가 비비안 부인에게 돌아가겠다고 맹세하였음을 기억하더라. 그 일로 인해 나는 이전보다 더욱 부끄러움을 느꼈노라. 그러므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나는 발로 걸어 가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했노라. 내가 그 언덕을 지나갈 때, 그곳에 앉아 있던 거대한 괴물은 나를 크게 조롱하더라. 그리고 내가 성에 도달했을 때, 비비안 부인은 창문 너머로 나를 내려다보며 심히 비웃었노라. 내가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을 청하매, 그녀는 나를 들어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여정에 탈 것을 빌어 달라고 간구하매, 그녀는 대신 나를 태워 보낼 하얀 노새를 내주었노라. 그리하여 나는 방패 하나 없이 하얀 노새를 타고 이곳으로 돌아왔노라. 이와 같이 나는 말끝까지 모든 것을 당신께 고백하였노라."

이러한 것이 사그모어 경의 이야기였으며, 거기에 모인 모든 이들은 큰 경청과 깊은 놀라움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더라. 이때 에웨인 경이 말하여 이르되, "그것은 당신에게 가해진 매우 큰 치욕이었나이다, 메시에여. 저는 그것을 매우 마음에 깊이 새겨, 만약 그 일이 제 몸에서 일어났더라면 제가 느끼는 이 치욕보다 더 큰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노라. 당신이 겪으신 일은 마치 원탁의 기사들인 우리 모두에게 가해진 모욕과 같사오니, 그러므로 저는 그 동업자로서 당신의 모욕을 곧 나의 모욕으로 여기나이다. 저 사악한 비비안 부인에 관하여는, 저는 그녀가 이 모든 소동의 근원이라 생각하오며, 만약 이것이 아서 왕의 궁정과 원탁의 기사인 당신에게 치욕을 안겨주기 위해 그녀가 꾸민 것이 아니라면, 저는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오."

퍼시벌 경이 이르되, "그것이 매우 그럴듯한 말씀이시니이다, 영주여."

이에 에와인 경이 이르되, "이제 이 아비들아, 나는 이 모욕을 차분히 참아낼 마음이 없노라."

"경," 사그모어 경이 이르되, "무엇을 하시려 하옵니까?"

"내가 이를 행하리라," 에웨인 경이 이르되, "내가 바로 그same 여정, 곧 당신이 실패하신 그 여정에 나아가리라. 내가 therein에서 성공하거든, 그때에 당신의 불운으로 인한 치욕이 우리 모두에게서 씻겨지리라."

이와 같이 에웨인 경은 큰 감정을 담아 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알아야 할 바가 있노라. 원탁의 기사들이라 불리는 그 고결한 기사들은 형제애의 유대로 서로 깊이 결속되어 있어, 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일이 발생하면 그것이 곧 모든 이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되었고, 그 일당 중 어느 한 사람이 다툼을 일으키면 그 다툼은 모든 이의 다툼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사그모어 경에게 가해진 모욕은 에웨인 경에게

도 가해진 모욕이 되었고, 이로 인해 에웨인 경은 앞서 서술된 바와 같이 사그모어 경이 실패한 그 모험을 스스로 떠맡아야 할 사명이라고 느꼈노라.

이때 에워aine 경이 이르되 "내가 청하노니, 그대여, 내가 이 모험을 만나게 할 그 길이 어디인지를 내게 일러주게나. 내일 아침에 내가 그대를 떠나 그 길에 들어설 것이오. 그 동안에는 그대 두 분은 랜슬롯 경을 찾는 그대의 여정을 계속하시오. 내가 이 일을 성공하지 못한다면, 나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내 일을 보고할 것이오. 그러므로 그대들이 이곳으로 오고자 한다면, 언제라도 이곳에서 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오."

〈각주: 에웨인 경이 분수의 모험을 떠나다.〉

이에 사그모어 경은 그 모험을 위해 에웨인 경에게 필요한 지시를 내렸고, 그 후 그들은 모두 하루의 여정 끝에 피로를 풀기 위해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이슬이 아직 풀잎 위에 내려앉아 있었고, 그 이슬은 넓은 초원 지대 위에 얇고 빛나는 은빛 베일을 두른 듯 빛나고 있었다. 에웨인 경은 새벽의 상쾌함을 온전히 간직한 채 일어나, 성 안의 나머지 사람들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차려입었다. 그는 갑옷을 착용하고 내려가 잠들어 있던 말 길들이이를 깨웠으며, 자신의 말이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말 길들이이가 말을 갖추어 입히자, 에웨인 경은 말에 올라타 사그모어 경이 지시한 대로, 비비엔 부인의 성으로 이끄는 길로 떠났다.

*****

이제 에웨인 경이 스스로 맡은 그 임무에서 어떻게 성공하였는지 알고자 한다면, 이 역사서를 더 읽어보라. 그리하면 그에게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는지 듣게 되리라.

[일러스트레이션: 에웨인 경이 돌판에 물을 붓는다:]

[그림]

제2장

에웨인 경이 사그모어 경이 실패한 그 모험을 떠맡게 된 일과, 그 후 그의 행운에 대해

옛적에 아서왕의 궁정에는 수많은 기사가 있었으나, 그중에서도 에웨인 경은 그 용기와 기개로 특히 이름이 높았노라. 어느 날, 왕의 전당에 한 노인이 나타나 아서왕께 아뢰었노라.

"폐하, 제게 한 가지 간청이 있사옵니다. 저는 먼 땅에서 왔사온데, 그곳의 한 부인이 저에게 한 모험을 맡기셨나이다. 그 모험은 매우 위태로우며, 이를 성취할 수 있는 자는 드물다 하옵니다."

아서왕이 물으시되, "그 모험이 무엇이냐?" 하시니, 노인이 이르되, "그곳에는 한 성이 있사온데, 그 성의 문에는 두 개의 기둥이 서 있사옵니다. 그 중 하나의 기둥에는 금으로 된 칼이 꽂혀 있고, 다른 하나의 기둥에는 은으로 된 칼이 꽂혀 있사옵니다. 그 칼을 뽑아 든 자는 성의 주인의 승낙을 받아 그 성을 탈출할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칼을 뽑지 못하거나, 성을 탈출하지 못하면, 그 자는 영원히 그 성에 갇혀

살게 되나이다. 이 모험을 시도한 많은 기사들이 있었사오나, 그 중 사그모어 경이 가장 용감하게 시도하였사오나, 그는 실패하고 말았사옵니다. 이제 저는 이 모험을 수행할 기사가 필요하오니, 폐하께서 적절한 기사를 보내주시기를 간청하옵니다."

아서왕은 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노라. 그리고 나서 왕께서 에웨인 경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에웨인아, 너는 용감한 기사라. 이 노인이 말하는 모험을 수행해 보겠느냐?" 하시니, 에웨인 경이 대답하되, "폐하의 명이라면 기꺼이 수행하겠사옵니다. 비록 사그모어 경이 실패하였다고 하나, 저는 저보다 더 용감하고 힘차오니, 성공할 수 있으리라 믿사옵니다."

이에 아서왕은 에웨인 경에게 축복을 빌어주시고, 그를 그 노인과 함께 보내셨노라. 에웨인 경은 노인을 따라 먼 길을 떠나, 마침내 그 성에 도착하였노라. 성의 문에는 두 개의 기둥이 서 있었고, 그 위에는 금과 은으로 된 칼이 꽂혀 있더라. 에웨인 경은 먼저 금 칼을 뽑아 보았노라. 그러나 칼은 움직이지 아니하더라. 그는 다시 은 칼을 뽑아 보았노라. 이번에도 칼은 움직이지 아니하더라.

에웨인 경은 당황하지 아니하고, 두 칼을 모두 뽑아 보려 하였노라. 그는 두 칼을 한 손에 쥐고, 힘을 다해 당겨 보았노라. 그러자 두 칼이 동시에 뽑혀 나왔더라. 에웨인 경은 기쁨에 차서 성의 주인을 찾아가, 그의 승낙을 구하였노라. 성의 주인은 에웨인 경의 용기와 힘을 보고 감탄하며, 그의 승낙을 주었노라.

에웨인 경은 성을 탈출하여, 다시 아서왕의 궁정으로 돌아왔노라. 왕과 기사들은 에웨인 경의 성공을 기뻐하며, 그를 칭찬하였노라. 에웨인 경은 이 모험을 통해 그의 명성을 한층 더 높였노라.

이와 같이 서 Ewaine은 그 모험을 떠나갔으니, 서 Percival과 서 Sagramore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였으며, 그의 떠남을 아는 자는 말 괄량이 한 명뿐이었더라. 그가 그 곳을 떠나 숲으로 향하여 오래도록 길을 걸으며, 우연히 그곳에서 만난 숯장수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더라. 오전 중반쯤 그는 높은 언덕에 이르렀고, 그 언덕을 오르자 눈앞에 매우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계곡이 펼쳐졌으며, 그 계곡 한가운데에는 놀라운 성이 우뚝 서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는 이것이 서 Sagramore가 미리 말하던 Vivien 부인의 성임에 틀림없음을 알았더라.

〈각주: 에워인 경이 비비안 부인의 성에 이르러라.〉

에워인 경은 그 성채와 그 성채가 자리한 계곡의 경이로운 풍모에 심히 놀라워하더라. 이 성채는 다듬인 돌로 지은 듯 빛나고 번뜩였으며, 지붕은 붉은 기와로 덮여 짙은 녹색과 검은 기와가 섞여 신비로운 문양과 형상을 이루고 있어 보는 이를 놀라게 하였노라. 성채가 자리한 계곡은 아름다운 잔디밭과 정원, 초원, 그리고 단아한 나무들이 심긴 과수원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여기저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꽃들이 만개하여 피어났노라. 또한 계곡 전체의 나무들 위에는 수천 마리나 되는 찬란한 깃털을 가진 새들이 노래하고 있어, 그 무수한 새들의 노래 소리는 멀리 떨어진 채 에워인 경이 앉은 곳까지도 들려왔노라. 그리고 그 새들은 나무 잎사귀 사이를 빛나는 색채의 불꽃처럼 오

가며 날아다녔는데, 에워인 경은 평생 동안 이와 같은 광경을 본 적이 없었노라.

이처럼 그가 본 모든 것의 경이로움 때문에, 에워인 경은 이 땅이 마법과 요술의 땅이며, 비비엔 부인이 자기 성채와 자신, 그리고 자신의 궁정을 둘러싸고 있는 것임을 깨달았노라. 이에 잠시 동안 에워인 경은 그곳에 앉아 이 모든 것을 관찰하다가, 잠시 후 말에 채찍을 대고 그 계곡으로 내려가 성채를 향해 달렸노라.

이때 에웨인 경이 성채에 거의 다다르자, 불꽃빛 새틴 옷을 입은 두 사람의 금발 소년을 보았노라. 그는 이들이 사그모어 경이 말하던 두 아름다운 소년임을 알았더라. 그리고 그는 그 두 소년이 성채 벽 아래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니, 이는 사그모어 경이 그 곳을 방문했을 때 보았던 것과 똑같았더라.

에워인 경이 가까이 다다르자, 그들은 놀이를 멈추고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그 고귀한 기사에게 큰 예의를 다해 인사를 하며 이르되, "기사여, 당신을 이 땅에 오신 것을 크게 환영하노라. 여기에는 드물게 오는 이들이라. 이 성의 부인은 당신과 같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느니라. 이제 내가 청하노니, 당신의 자비로써 당신의 신분을, 당신이 어떤 사명을 띠고 왔는지를, 그리고 당신의 위상을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리하여 내가 성의 부인에게 모든 영예를 다하여 당신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사오니."

에와인 경이 이르되 "청춘이여, 너는 내가 아서왕의 궁정 기사요 원탁의 동맹임을 알지니라. 내 이름은 에와인 경이며, 고르의 왕 우리아

누스께서 내 부친이시요 호수의 부인 모르가나가 내 모친이시라.至于네 여주인에 관하여는 내가 그녀가 바로 마법사 비비안임을 잘 아노라. 또한 내가 아서왕과 그의 원탁 기사이기에 그녀가 나를 해치려 꾀할 것임도 알노라. 그러나 내가 너로 하여금 나를 그 여주인 앞에 인도하게 하리라. 내가 그녀와 담소하기를 원함이니라."

이에 에웨인 경이 이처럼 당당히 말하자, 두 미소년은 의심에 빠져 한쪽 구석으로 물러가 서로 상의하더라. 그러자 에웨인 경에게 먼저 말을 걸었던 자가 다시 입을 열어 이르되, "경, 성의 이 성의 부인에게 해를 끼치려 하시는 것은 아니시리라 믿노라. 만일 우리가 그 점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경을 그녀께 모셔가지 않을 것이라."

"편안히 쉬시라," 에웨인 경이 이르되 "나는 참된 기사요, 어떠한 부인이라도 선악을 막론하고 해를 끼칠 뜻이 없노라. 다만 내가 그분과 가능한 한 빨리 말씀 나누기를 원할 뿐이라."

그때 두 사람의 대변인인 청년이 이르되, "경, 내가 경을 그분께 모시리이다."

〈각주: _에웨인 경이 비비엔 부인을 만나러 가니라._〉

그때 그 청년이 곧장 마법 성 안으로 길을 이끌어 가고, 에워인 경이 그 뒤를 바짝 따라갔더라. 그들이 성에 도착하여 에워인 경이 말에서 내리고, 여러 구역을 지나간 후, 그 청년은 에워인 경을 비비안 부인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였노라. 부인은 자신의 아름다운 방 안에 계셨고, 열한 명의 처녀들이 그 주위에 모여 있었더라.

〈각주: 비비안 부인이 에웨인 경을 맞이함〉

이제 에워인 경의 도착 소문이 그보다 앞서 퍼졌으므로, 그가 비비엔 부인 앞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으러 나갔고,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그를 영접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이르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세 번이나 환영하오이다, 에워인 경! 이제 제 신하들이 당신을 아름다운 방으로 안내하여 목욕하고 휴식을 취하게 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을 이곳에 하루 이틀, 혹은 사흘 동안 머물게 하고자 하오니, 만약 당신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에워네 경은 미소조차 짓지 않았으며, 어떠한 인정의 표시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매우 엄숙한 어조로 말하되 이르되, "아름다운 부인이여, 내가 당신을 잘 아나이다. 또한 당신이 아서왕의 궁궐에 속한 우리들에게 그리 좋은 뜻을 품지 않았음도 아나이다. 내가 알기에 당신은 당신 근처로 오는 자들 모두를 향해 끊임없이 해악과 주술을 꾀하오니, 만약 스스로에게 위험이 따르지 않으리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해 해악을 행하려 할 것이오.

그럼에도 나는 당신의 결함을 탓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오. 비록 이러한 일들이 나와 다른 이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심판하는 것을 하느님의 지혜에 맡기겠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스스로 당신의 심판관이 되려 함이 아니오. 내가 찾아온 목적은 이것이니이다: 얼마 전 당신이 나의 동료인 사그모어 경을 한 모험에 보내었사오니, 그로 인해 그에게 큰 치욕이 돌아갔나이다. 이제 내가

청하노니, 그 모험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인도하시오. 내가 그 길을 찾아 나서리니, 만약 행운이 따르거든 그 무례한 기사가 나의 동료를 치욕스럽게 만들었으니, 그자를 반드시 응징하고 싶사오며."

그때 비비안 부인이 매우 높고 날카롭게 웃었다. "경," 그녀가 이르되, "경은 아주 담대한 자라. 사그모어 경이 그렇게도 크게 실패한 그 모험을 감당하려 하다니. 기꺼이 경의 길을 인도하겠노라. 내가 요구하는 보답은 오직 하나이니, 경이 그 모험에서 성공을 거두면 사그모어 경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내가 그에게 주었던 것과 같이 흰 노새를 경에게 하사하게 하라."

이때 에웨인 경은 매우 엄숙하게 고개를 숙이며 이르되, "그렇사오리다. 그 모험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주소서. 내가 실패하거든, 제가 사그모어 경을 굴욕스럽게 대하셨던 그와 같이 저를 굴욕스럽게 하시기에 주저함이 없으리이다."

〈각주: _에웨인 경이 분수의 모험에 뛰어들다._〉

이에 비비엔 부인이 그 청년을 불러내니, 그는 곧장 에웨인 경에게 말걸었던 그 청년이더라. 부인은 그에게 에웨인 경을 그가 찾고자 하던 모험으로 이끄는 길로 안내하라 명하였노라.

그 후 에웨인 경은 비비엔 부인에게 더 이상 말 없이 작별하고, 말에 올라 그 곳을 떠났더라. 금발의 아름다운 청년은 에웨인 경을 앞서 인도하여, 그가 처음 숲에 들어섰던 쪽과 반대편 계곡 너머에 펼쳐진 숲의 가장자리까지 데려갔노라.

그리고 청년은 에웨인 경에게 숲 속으로 통하는 한 길을 가리키며 이르되, "이 길로 가소서, 아름다운 영주여. 이 길이 당신께서 찾고자 하던 모험으로 당신을 인도하리다."

이에 에웨인 경은 소년이 가르쳐 준 길을 따라 걸었노라. 그가 한두 시간쯤 길을 따라 나아가자, 숲속 한가운데에 넓은 벌판이 나타나더라. 그 벌판 한가운데에는 푸른 잔디가 무성하게 덮인 높은 언덕이 있었고, 언덕의 비탈과 그 주변에는 많은 양들이 풀을 뜯고 있더라. 그리고 그 언덕 위에는 사그모어 경이 말하던 존재가 앉아 있었으니, 에웨인 경은 그의 흉측한 용모를 보고 깜짝 놀랐노라.

그는 거인처럼 키가 크고 피부는 먹칠한 듯 검었으며, 머리카락은 벽돌처럼 붉었더라. 그의 입은 동굴처럼 크게 벌어져 있었고, 그 안의 이빨들은 들짐승의 이빨처럼 날카로웠노라.

이 생물에게 에워인 경이 이르되, “야인아, 나는 분수의 모험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 거인은 천둥처럼 우렁차게 웃으며 이르되, “호! 작은 자여, 너도 또한 그 모험을 찾아 왔느냐? 그제 전 날에 한 사내가 여기로 왔으나 그다지 형통하지 못하였노라. 또한 너 또한 내 생각에는 그와 같은 운명일 것이니, 의심치 말라. 저쪽 길을 가라, 그리하면 네가 그 모험에 너무 빨리 다다라 네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이니라.”

〈각주: _에웨인 경이 분수의 계곡에 이르다._〉

이에 에웨인 경이 그 존재가 이르는 길을 따라 걸어가, 다시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두꺼운 숲 사이를 오랜 동안 달렸고, 얼마 후 언덕에 다다라 그것을 올랐다. 꼭대기에 올라서자 숲은 그치고, 그의 앞에 펼쳐진 벌판이 보였다. 그는 언덕 아래에 아름답고 평평한 계곡이 자리한 것을 목격하였다.

그 계곡은 매우 비옥하여, 수많은 들판과 아름다운 나무들이 심겨진 과수원들이 있었다. 에웨인 경은 그 계곡에서 호수와, 호수로 흘러드는 샘물을 보았다. 그리고 샘물 위를 가려주는 나무가 하나 있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서 사그모어가 그 예언된 모험을 겪었던 곳임을 알았다.

그는 곧장 계곡으로 내려가, 나무가 그늘을 드리운 마법 샘물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 다다랐을 때, 그는 서 사그모어가 보았던 바로 그 바위 판과, 은 사슬로 바위 판에 묶인 은 대야를 보았다.

〈각주: 에웨인 경이 돌판에 물을 붓더라.〉

그때 에웨인 경은 은으로 된 대야를 손에 들고 분수에서 물을 떠서, 사그모어 경이 행한 대로 대리석 판 위에 물을 뿌렸더라.

그때에 사그모어 경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이 즉시 일어났으니, 먼저 땅이 떨리고 요동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 하늘이 우레를 치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 거대한 구름이 일어나 하늘을 덮었으므로, 비록 정오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밤과 같이 온통 어두워지니라. 그 다음 거대한 바람이 불어왔으니, 에웨인 경은 일생 동안 이와 같은 풍경을 본 적이 없

었더라. 그 바람은 격렬한 분노와 같은 힘으로 불어와, 그가 그 자리에서 날아가 버릴까 두려워하게 되었더라. 그 다음 빗물이 쏟아져 내려, 그가 그것으로 인해 익사할까 두려워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비가 이같이 내리는 동안, 그는 멀리서 울부짖는 듯한 많은 목소리를 들었으니, 마치 사그모어 경이 그 목소리를 들었던 것과 같았더라.

비 그치고 구름이 흩어지자 해가 나타나 놀라울 만큼 따뜻하고 밝은 빛을 비추었더라. 이에 작은 새 떼가 모여 그 나무로 날아와 가지마다 앉으니, 날개 달린 무수한 새들이 모여 나무가 온통 새들로 가득 찼더라. 그리고 그 새들의 무리가 노래하기를, 이토록 아름답고도 날카로운 선율로 노래하므로, 에웨인 경이 그 노래를 들을 때에 그가 낙원에 있는지 아니면 땅 위에 있는지 알 수 없었더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에웨인 경에게 일어난 것은, 사그모어 경에게 일어난 일과 같았더라.

이때 에커 경이 그와 같이 서서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평원을 가로질러 매우 빠른 속도로 그에게 다가오는 자가 있었다. 그 기수가 에커 경에 가까워지자, 그는 검은 갑옷을 두른 한 기사가 거대한 흑마를 타고 오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은 까마귀의 깃털처럼 온통 새까맸으며, 그 위에 얹힌 안장 장식 또한 모두 검었다. 기사는 무늬 하나 없는 순흑의 방패를 메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매우 두려웠다. 그는 거구의 체격에다, 다가오는 발걸음마다 격렬하고 사나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검은 갑옷을 입은 기사, 에워인 경이 그를 기다리던 그 곳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큰 소리로 외치니라. “기사여, 어찌하여 내 우물을 건

드리려 이곳에 왔는가? 알라, 너는 이 땅 전체에 큰 홍수를 불러일으켰노라. 이로 인해 너는 이 땅 백성인 우리들에게 큰 해를 끼쳤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는 네가 저지른 이 해악에 대해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리라. 즉시 전투를 준비하라!"

이에 에와인 경이 대답하되 이르되 "기사여, 내가 저 석판 위에 물을 붓는 것이 당신이나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는 줄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당신이 요구하오니 나는 기꺼이 당신과 싸우겠습니다." 이에 에와인 경은 방패와 창을 차려 입고 분수 옆, 호수 곁의 초원에 자리를 잡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방어 태세를 갖추었더라.

〈각주: _에웨인 경이 분수의 기사와 싸우니라._〉

이에 두 사람이 모든 준비를 갖추자, 서로를 향해 말의 고삐를 풀고 맹렬한 돌격을 가하니, 마치 회오리바람이 몰아치듯 서로에게로 돌진하였더라. 두 사람은 경기장 한가운데서 천둥소리 같은 굉음을 내며 부딪쳤고, 서로에게 가한 타격의 위력이 너무나도 강하여 각자의 창은 손잡이 부분까지 모두 산산조각이 났다.

그 격렬한 충돌로 인해 두 기사 모두 쓰러졌으리라. 다만 각자의 놀라운 기교가 있었기에 간신히 위기를 면하였노라. 각기 말에 안장을 채찍질하고 크게 외치며, 각각의 명마가 균형을 되찾아 넘어지지 않게 하였기 때문이었노라.

이에 두 기사 모두 부서진 창잡이를 던져버리고 검을 뽑아내어, 온 힘을 다해 치열하게 싸움을 시작하였더라. 그 격투에서 두 기사는 서로

에게 수많은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고, 오랜 시간 동안 누가 승리를 거둘지 아무도 점칠 수 없었노라.

그러나 마침내 에워인 경은 그 다른 기사들의 방해에 극도로 분을 터뜨렸는지라, 그는 안장에 서서 그 검은 기사에게 맹렬한 일격을 가하였노라. 그 타격은 방패도, 투구도, 어떤 방어구로도 막아낼 수 없었더라. 그 일격 아래서 분수의 검은 기사는 안장에서 비틀거리며 말에서 떨어질 듯 하였으니라. 이때 그는 방패를 내리고 머리를 깊이 숙이며, 떨어지지 않도록 안장의 고삭이를 잡았노라. 이에 에워인 경이 또 한 번 그를 치니, 그의 검이 검은 기사의 투구를 뚫고 그 두개골 깊숙이까지 깊이 박혔노라. 그 일격으로 검은 기사는 치명상을 입었더라.

그때 에와인 경은 흑기사에게 입힌 상해가 극히 중함은 보았거늘, 격분한 싸움의 한창 중에 행한 일을 돌이켜 후회하며 손을 멈추었으나, 이미 너무 늦었더라. 그가 외쳐 이르되, "기사여, 내가 당신에게 매우 슬픈 상해를 입힌 것 같으니이다. 이를 후회하오니, 스스로를 저에게 내맡기소서. 그리하시면 즉시 당신의 상해를 살피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위안을 드리리이다."

〈각주: 분수의 기사가 에웨인 경을 피해 달아나더라.〉

그러나 분수의 검은 기사(Black Knight of the Fountain)는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곧장 말머리를 돌려 옆구리에 채찍을 대며 그 곳으로부터 모든 속도로 달아났노라. 그가 전투의 현장으로부터 그렇게 신속하게 달아나매, 마치 평야 위를 새의 그림자처럼 날아가는 듯하였더라.

〈각주: 에웨인 경이 흑기사 뒤를 쫓느니라.〉

처음에 에웨인 경은 검은 기사들의 갑작스러운 퇴각에 완전히 놀랐으나, 곧 정신을 차리고 말에 채찍을 꽂아 최대한 빠르게 말을 몰며 추격을 시작했다. 에웨인 경은 그와 같이 검은 기사를 뒤쫓으며 그를 멈추라고 부르짖었으나, 검은 기사는 에웨인 경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양 더욱 빠르게 도망쳤다. 에웨인 경이 아무리 애썼으나, 도망치는 검은 기사의 발치에 닿지 못하였더라.

이같이 두 기사는 바람결처럼 평원을 달렸다. 검은 기사도 도망치고, 에웨인 경도 쫓았다. 얼마 아니 있어 에웨인 경은 그들이 성곽으로 둘러싸인 한 고을과, 그 고을의 집들을 내려다보는 높은 탑과 가파른 지붕을 가진 매우 장엄하고 위대한 성에 다다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에웨인 경은 성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동요를 일으키며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성곽의 성벽 위에 올라서서 가까워지는 두 기사의 행적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기사는 끝없이 고을의 문과 성의 문으로 향해 바람처럼 달렸고, 에웨인 경은 그를 따랐으나 결코 따라잡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잠시 후, 검은 기사는 성문의 도개교에 다다랐고 그는 도개교를 우레처럼 건너갔으며, 에웨인 경도 그 뒤를 이어 우레처럼 따라갔다.

기사성이 성문의 성문가에 다다랐을 때, 성문은 그를 들여보내려 열렸고, 그는 온힘을 다해 성문을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갔노라. 그러나 에웨인 경이 뒤따르려 할 때, 성문은 그를 바깥에 가두려 다시 내려졌더라.

〈각주: _에웨인 경은 성문의 철통문 안에 갇히니라._〉

그러나 에워인 경의 추격이 그토록 맹렬하였고, 그가 검은 경을 쫓아 그토록 가깝게 따랐으므로, 그가 성문 빗장을 내리는 순간 그 빗장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그리고 성문 빗장이 에워인 경의 말 위에 떨어지며 안장 바로 뒤쪽을 강타하여, 그 말을 둘로 쪼개 버렸으니, 말의 절반은 성문 빗장 안으로, 나머지 절반은 성 밖으로 떨어졌다. 성문 빗장이 떨어지는 그 격렬한 타격과, 말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충격으로 인해 에워인 경은 땅바닥에 거칠게 던져졌는데, 그 충격이 그토록 끔찍하고 두려워져, 그는 마치 죽은 자처럼 기절하여 땅에 누워 있었다.

이때 에웨인 경이 그 자리에 누워 있자, 성의 그 일대에 있던 사람들이 다수 모여들었더라. 그들은 철로 된 작은 창문을 통해 내다보며, 성문과 안쪽 문 사이의 공간에서 기절해 누운 에웨인 경을 보았노라. 그들이 그의 곁에 죽어가는 말의 절반이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보자, 이르되 "보라! 저기 있도다. 우리 대장부를 다치게 하고 그를 쫓아온 자가 바로 저이로다. 우리 대장부가 그에게 무엇을 행할지 명할 때까지는 그 자리에 두자. 보라, 그는 이제 우리 손에 붙잡힌 포로이므로 도망칠 수 없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뜻대로 행할 권능을 가졌노라."

이같이 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대장이 이미 서 에웨인(Sir Ewaine)의 손에 입은 상처로 인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누워 있음을 알지 못함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 곳을 떠나갔고, 에워인 경은 그가 입은 심한 낙상으로 인한 실신 속에서 죽은 자처럼 누워 있었다. 그러나 잠시 후 생기가 그에게 돌아왔고, 그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으며, 그 후로는 큰 고통을 무릅쓰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이때 그는 자신이 그곳에서 포로가 되어 있음을 보았으니, 그의 죽은 말의 절반이 성문의 철통문과 성의 안문 사이에 끼어 있어, 그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는 마치 함정에 걸린 짐승처럼 그곳에서 포로가 되어 있었노라.

이에 에워인 경은 안쪽 문문의 작은 구멍으로 나아가, 철창 너머로 자신의 발아래 펼쳐진 곳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았노라. 그가 바라보니, 문 안쪽에는 마을의 거리가 있더라. 그는 그 거리가 매우 가파르고, 돌로 닦여 있음을 보았노라. 또한 거리의 양편에 서 있는 집들은 벽돌이나 돌로 지어졌으며, 아름답고 높고, 처마가 앞쪽으로 삐져나왔으며, 빛나는 유리창과 밝은 적색 기와 지붕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노라.

그는 많은 부스들과 상점들이 있고, 그곳에 아름다운 직물들과 상품들이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음을 보았노라. 그리고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모두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 마치 큰 동요 속에 있는 듯하였노라.

그가 서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는 마을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큰 애도의 소리를 듣게 되었노라.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이 쫓아간 그 기사가 이제 죽어가는 곳에 누워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노라. 이에 그는 크게 슬퍼하였노라. 그 기사야말로 매우 고결하고 용감한 기사

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은 성채의 사람들이 그를 지금 포로로 붙잡은 그곳에서 응징하러 올 때, 에워인 경 자신에게도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었노라.

* * * * *

이제부터는 기사도 서적에 기록된 바와 같이, 케이 경의 또 다른 모험사를 전하노라. 전에 읽으신 내용이 기쁘셨다면,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또한 읽으시기를 청하노라.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낭자 엘로즈가 에인 경에게 반지를 건네는 모습]

[그림]

제삼장

호수의 레솔리 부인의 시중을 들던 에로즈라는 이름의 처녀가, 포로로 잡힌 에인 경을 어떻게 구원하였는지에 관한 이야기

이때 에웨인 경은 앞서 말한 대로 성문의 작은 구멍을 통해 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는 어떻게 해야 목숨을 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노라.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오직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뿐이며, 자신과 맞서야 할 자들이 나타나 자신을 죽이러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라.

이때 그분께서는 심중에 깊은 근심을 안고 서 계시더니, 한 낭자가 그 곳으로 향하여 오는 것을 눈치채셨노라. 그 낭자가 가까이 오시매, 에웨인 경은 그녀가 매우 아름다운 용모를 지니셨으며, 곱게 말린 금발의 머리를 가지고 계심을 보셨노라. 에웨인 경에게 있어서는, 그의 감금된 곳으로 다가오는 이 낭자보다 더 아름다운 처녀를 본 적이 거의 없었더라.

이 낭자는 에워인 경이 서 있는 작은 문 곁으로 다가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노라. 그녀의 얼굴은 불쌍하고 자비로우며, 분노나 조소 따위는 없었더라. 이에 에워인 경은 그녀의 얼굴이 자비로운 것을 보고 그녀에게 이르되, "낭자여, 어찌하여 죽음을 기다리는 가난한 포로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려 하느냐?"

〈각주: 분수의 낭자가 에웨인 경을 불쌍히 여기니라.〉

이때 낭자가 대답하되, "슬프도다, 기사여, 내가 여기로 온 것은 너와 같은 고결한 용사가 이와 같은 슬픈 처지에 놓인 것을 보며 큰 연민을 품었기 때문이라. 진실로 이 성의 사람들은 지극히 짧은 시간 안에 너를 죽이러 올 것이라."

"낭자여," 에커 경이 이르되, "너의 자비는 나에게 큰 위안이 되나, 만일 네가 나를 이 곳에서 벗어나게 도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위안이 없으리라."

이 처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 그러나 곧 그녀가 말하되, "말하노니, 기사여,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 땅의 수호자요, 분수를 건드리려

던 자들로부터 이 땅을 지키던 우리 기사 대장을 그리도 가혹한 상해로 다쳤는지 내게 말하라. 당신이 그에게 가한 비통한 타격으로 인하여 그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어, 몇 시간 내에 죽게 될 것임을 알겠는가?"

"낭자여," 에커 경이 이르되, "진실을 말하노니, 나는 이 땅에 해를 끼치려 한 것이 아니며, 또한 당신의 시종으로서 그 훌륭하고 존귀한 기사에게 가한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려 한 것도 아니었노라. 다만 처음에 내가 이 모험에 뛰어들었던 것은, 내 동료가 이를 실패하였기 때문이요, 내가 그 실패로 인해 잃어버린 그의 명예를 나의 손으로 갚아야 마땅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

그가 내 손에서 입은 상해들에 관하여는, 듣거라. 한 기사가 다른 기사와 전투할 때, 내가 최근 당신의 시종과 싸웠던 것처럼, 한 사람이 어떻게 강하게 타격하는지는 그 해악이 이미 이루어진 후에나 알 수 있는 법이라. 내게도 그러하였노라. 내가 타격할 때는 전투의 열기와 격정에 사로잡혀 있었노라.

그리하여 내가 그에게 심히 큰 상해를 입혔음을 깨달았을 때, 나는 그가 입은 그 슬픈 상처를 치유하고자 그의 뒤를 쫓았노라. 그러나 당신의 기사 시종은 언제나 나를 피해 도망쳤으므로, 마침내 나는 분노에 찬 나머지 그를 쫓았노라. 그러므로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곳으로 돌진하였으며, 그 결과 무력한 포로가 되어 갇히게 되었노라."

이때 낭자가 이르되, "기사이시여, 청컨대 당신의 이름과 신분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오." 이에 에웨인 경이 답하여 이르되, "내 이름은 에

웨인 경이며, 고르의 우리아스 왕의 아들이요, 내 어머니는 레 페이라는 별명을 가진 모르가나 공주니라."

이때 처녀는 에웨인 경의 이름과 신분을 듣자 크게 놀라 외쳐 이르되, "당신과 같이 천하에 명망 높은 기사, 기마술과 일반 역사 모두에서 널리 알려진 분이 어찌 이같이 포로가 되셨나이까?" 하고 성문의 틈을 통해 에웨인 경을 바라보며 매우 놀랍게 여기더니, 이내 더욱 큰 불쌍히 여김을 나타내었더라.

그리고 잠시 후 그녀가 이르되, "에웨인 경이시여, 당신과 같이 고결한 기사가 해를 입으셨음을 나는 크게 슬퍼하노라. 이제 내가 명하는 바를 당신께서 모두 행하시려거든, 내가 당신을 도우려 하나니, 이는 내가 당신에게 명할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이라. 내가 당신을 감금에서 풀어주리니, 그대 나의 명령에 따라 행할 일들이 몇 가지 있노라."

"부인," 케이 경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 당신은 나를 위해 좋은 뜻을 품고 있사오며, 또한 당신이 내게 명하시는 것이 나의 기사적 명예나 정통 왕족으로서의 신념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믿나이다." 처녀가 이르되, "케이 경이여, 내가 당신을 위해 악의를 품지 않았음을 염려하지 말으소서. 오히려 당신이 나를 믿어주실진대, 이 일에 있어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려 하나이다."

이에 에와인 경이 이르되 "부인, 저는 전적으로 부인의 뜻에 따르나이다. 만일 부인이 저를 이 포로된 몸에서 풀어주신다면, 부인이 명하시는 바를 무엇이든 행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옵나니, 부인이 어떻

게 저를 이 위험에서 건져내시려 합니까? 문지기의 문 열쇠를 얻지 못한다면, 이 성문을 어떻게 나오시렵니까?"

〈각주: 낭자가 에웨인 경을 구원하다.〉

"경," 처녀가 이르되, "나는 그 열쇠들을 구할 수 없사오나, 당신을 해방시킬 다른 길이 있사오니, 명심하시오. 자물쇠와 빗장이 강하다 할지라도, 마법의 힘은 그것들보다 더욱 강하오."

이러자 처녀는 자신의 가슴에서 금 사슬에 매달린 작은 목걸이 주머니를 꺼내어 열었으며, 그 안에서 맑고 순수한 루비와도 같은 붉은 돌이 박힌 반지를 꺼내어 내보였노라. 그 돌은 밝고 빛나며 매우 찬란하였더라.

그녀가 이르되, "이 반지를 보시오?"

에웨인 경이 이르되, "보나이다."

"잘 들으시오, 신사여," 그녀가 이르되, "이것은 매우 기이한 반지라. 옛날 마법사 멀린이 이 반지에 많은 강력한 주문을 걸어 내 아버지, 레오그란스의 마그누스 왕에게 주었노라. 그러므로 내 아버지는 이를 내게 주었고, 이는 내 소유물 중 가장 귀중한 것이니라. 이 반지의 성질은 다음과 같으니, 네 손바닥 안에 그 돌을 숨기듯 안쪽으로 돌리면 당신은 보이지 않게 될 것이요, 다시 손바닥 밖으로 돌리면 이전과 같이 다시 보이게 되리라. 에웨인 경이여, 이 반지를 받으시오. 이를 사용하여 보이지 않게 된 후, 당신은 적들로부터 탈출할 것이오. 그렇게 탈출한 후, 이 성의 정원으로 오시오.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오. 당신이 오

면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그곳에 있음을 알 것이오. 그 후 내가 당신을 특정된 방으로 인도하여, 이 현재의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숨겨둘 것이오."

이렇게 말하며 낭자는 반지를 에웨인 경에게 건넸고, 그는 그것을 받아 그녀의 자신을 향한 지극한 은혜에 감사의 뜻을 표하더라. 곧이어 그는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돌이 그의 손바닥 안을 향하도록 돌려 숨기니라. 그리하여 보라, 그가 그 일을 마치자마자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시야에서 순식간에 사라졌노라.

그때 처녀 에로즈는 그 자리를 피하여 달아났노라. 이는 시어웨인 경을 죽이려 오는 자들이 그녀가 그와 담소하는 것을 발견할까 두려워함이었노라.

그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무장한 자들이 랜슬롯 경을 죽이려 달려왔으니, 그들 중 일부는 갑옷을 입고 있었고 모두 칼과 기스암을 지니고 있었더라. 그들이 성문으로 달려와 그것을 열자, 성문과 포트쿨리스 사이의 공간으로 소란을 피우며 들이닥쳤으니, 그들은 그곳에서 랜슬롯 경을 발견하여 그를 죽일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노라. 그러나 보라! 그는 이미 사라져 있었고, 그곳에는 그의 죽은 말의 절반과 안장, 그리고 그 말의 안장띠와 구슬과 장식들만이 보일 뿐이었노라. 그 어디에도 그의 모습이나 흔적은 보이지 않았더라.

그때 그들 모두는 그 포로가 사라진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노라. 그가 어찌하여 그 곳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지 그들 중 아무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노라. 그러므로 그들은 큰 소란을 피웠고, 어

떤 이들은 여기로 서둘러 오라고 외쳤으며, 다른 이들은 저쪽으로 서둘러 가라고 외쳤노라. 그 소란과 혼란 속에서 에웨인 경은 그들의 사이를 빠져나갔고, 그들 중 아무도 그의 떠남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노라.

〈각주: 에웨인 경은 성문에서 벗어났다.〉

그 후 에웨인 경은 그 곳을 떠나 성벽 안의 마을로 들어갔노라. 그는 마을의 성으로 향하여 갔으나, 그의 가는 길을 보는 자 없었노라. 성에 들어가니 성 안의 사람들이 그를 보지 못하였더라.

〈각주: 에웨인 경이 성채의 정원에 들어가는 법〉

이에 모든 이의 눈에 띄지 않게 에와인 경은 성의 은밀한 정원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들어가 보니 그곳은 매우 아름다운 곳이라. 그늘진 나무들이 무성하고 꽃밭이 펼쳐졌으며 분수가 흐르고, 곧고 긴 산책로가 이어져 있어 성의 부인이 야외를 즐기고자 할 때면 언제든지 거닐기에 안성맞춤이었더라.

에와인 경이 정원에 들어서니 여러 낭자들이 therein에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들은 모두 슬픔에 잠겨 얼굴이 굳어 있었으니, 그곳의 기사 챔피언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라. 그들 중에는 울음을 터뜨리는 자들도 있었으나, 그중에서도 에로즈라는 낭자가 있었으니, 그녀는 그곳에 있는 모든 이 중 유일하게 밝고 경쾌하여 미소를 띠고 있었더라.

그때 에와인 경이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가 명한 대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러자 그녀는 그를 볼 수는 없었으나 그가 그곳에 있음

을 알았다. 이에 그녀는 곧장 일어나 정원을 나와 나갔고, 에와인 경이 그녀를 뒤따랐다.

그 후 처녀는 에웨인 경을 성의 한 구석으로 인도하여 긴 계단을 올라갔고, 그리하여 성의 탑 중 한 부분의 처마 바로 아래에 위치한 한 방으로 그를 데려왔더라.

에워인 경은 여기가 크고 고귀한 방임을 보았으니, 벽에는 전쟁과 궁정의 모습을 그린 직물로 된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바닥에는 다채로운 직물로 정성껏 깔려 있었더라. 또한 그는 여러 개의 큰 창문이 있어 그 너머로 거리의 풍경과 그 너머의 아름다운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것을 보았더라. 부드러운 바람이 그 창문으로 들어와 매우 상쾌하게 불어왔고, 수많은 비둘기 떼가 시끄럽게 날개 짓하며 공중을 날아다녔으며, 또 다른 많은 비둘기들이 지붕의 기와 위에서 거만하게 걸으며, 해가 기울어가는 붉은 햇살 속에서 서로에게 비명 소리와 구구거림으로 말을 걸었더라. 그러므로 이는 거처하기에 매우 즐거운 곳이었더라. 처녀가 에워인 경에게 이르되, “여기서 당신은 머무르라. 나의 더 깊은 뜻이 성숙할 때까지.”

〈각주: 낭자가 에웨인 경을 섬기니라.〉

그때 에로즈라는 낭자가 미지근한 물로 가득 찬 은항아리를 가져와, 은으로 된 대야에 물을 부었다. 낭자가 대야를 받쳐 들고 에웨인 경은 손과 얼굴을 씻었으며, 이어서 그녀는 그에게 곱고 희고 잘 짜인 큰 수건을 주었으니, 그는 그 수건으로 손과 얼굴을 말렸다.

이와 같이 상쾌해진 그에게 낭자는 음식과 음료를 가져다주었고, 에웨인 경은 큰 식욕으로 먹고 마시며 정신이 크게 고양되었다. 이때쯤 되어 저녁이 찾아왔다.

이때 에커 경은 그 낭자가 자신에게 이토록 자비롭게 대하는 것을 보고 심히 놀라워하며 이르되, "낭자여, 어찌하여 나를 이처럼 아껴주시나이까?" 하니, 그녀가 대답하여 이르되, "영주여,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데는 목적이 있나이다. 때가 되어 마땅한 순간에 이를 당신께 자세히 밝히리이다."

이에 에웨인 경이 그녀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아름다운 낭자여, 그 샘과 그것을 호위하던 기사의 신비를 내게 일러주시오. 내가 샘 곁의 돌판에 물을 뿌렸을 때 땅이 진동하고 천둥과 비가 쏟아졌던 연유를 알기 위해 매우 궁금해하오."

"경," 엘로스가 이르되, "그 신비를 내가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그리하여 그녀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노라.

〈각주: 낭자가 샘물의 마법에 대해 에웨인 경에게 이야기하더라.〉

"너는 알지니라, 얼마 전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검술 시합이 정하여졌노라. 그리고 그 시합에는 이 성의 부인, 곧 레솔리 부인이라 불리는 자가 갔으며, 또 너는 그녀를 알거나 그 이름을 들어보았으리라, 바로 비비엔 부인이었노라. 그녀는 온 세상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사악한 마법사 중 한 사람이기 때문이니라."

그 기마전에는 다른 모든 기사들을 압도한 한 기사가 있었으니, 그는 철심(鐵心)이라 별명 붙은 사그론 경(Sir Sagron)이었노라. 그 고귀한 기사는 기마전의 승리를 거두어, 자신에게 도전하는 자들을 모두 쓰러뜨렸으나, 스스로 패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에게 전장의 상이 수여되었으니, 그 상은 금으로 된 머리띠였노라. 이 머리띠는 승자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중 가장 아름다운 부인이라 여긴 이에게 수여할 권리가 있었노라.

"이때에 비비엔 부인은 그 상을 차지한 자가 누구이든 자기를 선택하리라 여겼으니, 이는 그 날 그녀가 지닌 모든 미모의 마법을 다 갖추었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력에도 불구하고, 새그론 경은 미모의 상을 비비엔 부인에게 주지 않고, 바로 우리가 현재 머무는 이 성의 여주인인 레솔리 부인에게 수여하였더라."

이때 비비안 부인이 사그론 경에게 외면당함을 보고, 그녀를 선택한 레솔리 부인에게 큰 모욕을 느끼며 그녀를 향한 복수를 맹세하더라.

"그 후 그녀가 마법으로 그 돌판을 분수 곁에 놓게 하였고, 누구든지 분수의 물을 그 돌판 위에 쏟는다면 이 땅에 큰 홍수가 닥치리라고 명하였노라. 그 후 그녀는 이 분수 계곡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거처를 정하였고, 그녀 성을 지나가는 기사가 있을 때마다 그 기사를 분수의 모험에 나서게 하였노라."

〈각주: 샘의 기사 사그론에 대하여.〉

그사이 사그론 경은 분수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레솔리 부인이 그와 결혼하여 이 영지의 영주로 삼는다면 분수를 수호하겠노라 맹세하였다. 이에 부인은 어쩔 수 없이 승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언약이 맺어졌으니, 사그론 경이 일 년과 하루 동안 분수를 실패 없이 수호한다면, 그 시한이 끝나는 대로 부인은 자신과 모든 영지를 그에게 바쳐 그 영주의 주인이 되리라 정하여진 것이다.

그리하여 사그론 경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큰 영예로 분수를 수호해 왔거늘, 오직 오늘 당신에게 전장에서 패배하여 여기까지 쫓겨나 부상을 입고 죽게 되었도다. 만약 그가 이틀만 더 버텨냈더라면, 레솔리 부인과의 결혼과 이 땅의 영주 자리를 얻었을 것이나, 이제 그는 내일 아침에 낙원에서 깨어나리라.

"이것이요, 에웨인 경이여, 분수의 신비에 관한 이야기라. 이제 내가 말하노니, 이 분수를 방어할 자가 누구인지는 나도 알 수 없노라. 다만, 혹시 그대가 그 일을 맡으려 할지 모를 뿐이라."

"아름다운 낭자여," 에웨인 경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음을 알리게 되면 곧 죽임을 당하리니, 어떻게 이 분수를 지키려 하겠는가?"

이 처녀는 웃으며 이르되, "에와인 경이여, 내가 이제 시작하려 하는 이 일들에 있어 운명이 나를 도우시거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옵니다."

이때 어둠이 내리니 처녀는 향기로운 밀랍으로 만든 두 개의 촛불을 켜고, 이어 에웨인 경을 다른 방으로 인도하더라. 거기에 이르러 그는

매우 부드럽고 안락한 침상을 보았는데, 그 위에는 진홍색 새틴으로 만든 이불이 깔려 있더라. 처녀 에로즈가 이르되, "에웨인 경이시여, 필시 주께서 피곤하시리이다. 그러시다면 여기에서 편히 쉬시고 안식을 얻으소서." 하고는, 이에 그녀는 탁자 위에 밀랍 촛불을 내려놓고 방을 나가니, 에웨인 경은 홀로 남았더라.

이때 에워네 경은 지극히 피곤하여, 그 갑옷을 벗어 던지고 몸을 풀며, 그 아름답고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 큰 위안과 기쁨을 얻었더라. 곧이어 그는 마치 작은 아이가 피곤하여 잠든 듯, 순식간에 깊은 잠에 빠졌노라.

이제 밤의 열두 번째 시간이 되매, 에웨인 경이 이같이 잠들었을 때, 그는 큰 소동을 깨달으니, 이는 밤의 고요함을 가득 채우는 울음소리와 큰 애도의 외침이었더라.

〈각주: _에웨인 경은 밤에 장례식을 바라보았더라._〉

이때 에로즈라는 낭자가 달려와 이르되, "케이 경이시여, 어제 당신이 상처 입힌 기사 사그론 경이 죽었사오니, 이제 그들이 그를 교회로 모시고 가나이다.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케이 경이 곧 일어나 겉옷을 두르고 낭자와 함께 성곽의 한 창가로 나아갔더라. 그 창문 아래로 내려다보니, 마을의 한 거리 전체가 수많은 군중으로 가득 차 있더라. 그들 중 많은 자가 방패를 두른 갑옷을 입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횃불을 들고 있어 밤하늘이 그들의 빛으로 타오르고 있더라. 또한 많은 부인들이 무장한 기사들 곁을 말 위에 타고 따르고 있더라. 이 거대한 군중은 모두 애도하는 소리를 지르며, 마치 하늘 아래 모든 공허한 공간

이 그들의 슬픔으로 가득 찬 듯하더라. 이 많은 목소리의 애곡 사이로 트럼펫의 울림과, 죽은 이를 위한 예식을 낭독하는 제사장들과 보조 제자들의 찬송 소리가 섞여 들리더라. 그 군중 한가운데에는 관이 놓여 있었고, 관 위에는 흰 리넨 천으로 된 베일이 덮여 있었으며, 그 관 위에는 그 땅의 기사이자 챔피언이 손에 검을 교차시킨 채 누워 있더라. 관 주위에는 많은 이들이 긴 밀랍 촛불을 들고 서 있었고, 이들도 또한 다른 애도자들의 목소리에 자신의 애곡을 더하더라.

이에 에웨인 경이 이 광경을 바라보며 이르되 "슬프다, 에로스여, 이는 보기에 참으로 비참한 광경이로다. 내가 이 일의 원인이 되었노라. 내가 그 기사를 죽이려 한 것은 아니었노라. 그러나 전쟁의 격렬함 가운데 어찌 그 손길을 멈추어 적에게 내리는 일격의 세기를 재며 가늠할 수 있으랴?"

〈각주: 에웨인 경은 분수의 레솔리 부인을 바라보더라.〉

그때 에인 경이 그 장면을 여전히 응시하고 있자니, 관을 뒤따르는 한 부인이 보였노라.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이 풀어져 흐트러져 있고, 그녀가 심히 어수선한 차림임을 보았노라. 그러나 그 어수선함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의 눈이 본 바 그 어느 미녀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부인임이 그에게 드러났노라. 그때 에인 경이 곁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에로즈에게 이르되, "죽은 기사의 관을 뒤따르는 그 아름다운 부인은 누구뇨?" 하니, 그녀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이 성의 부인이라. 그녀는 전사로서 싸우다 죽은 자신의 기사의 슬픔을 애도하는 것이라."

이때 에와인 경은 그 부인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녀를 응시하더니, 그녀가 지나간 뒤 이렇게 말하였다.

"에로스여, 진실로 그 부인은 내 눈이 본 적 있는 어떤 여인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부인이로다. 이제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당신의 기사가 한 해 동안 그에게 충성하여 봉사하는 것을 나는 놀랍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나는 그녀의 호의를 얻기 위해 그보다 더 긴 세월을 기꺼이 봉사할 것이라."

이때 에로즈는 큰 기쁨으로 웃으며 이르되, "정녕 그러하오이까, 기사여? 당신의 마음이 이 부인을 향하고 있음을 아오이까?"

에웨인 경이 대답하되, "그렇사옵니다."

에로즈가 말하되, "만일 내가 이 성의 부인이 당신을 자비롭게 바라보도록 도모할 수 있다면, 에웨인 경이 기뻐하시겠소이까?"

에웨인 경이 다시 이르되, "그렇사옵니다."

그때 에로즈는 에웨인 경을 향해 매우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이르되, "좋소, 경. 내일까지는 잠시 기다리시되, 내일이 어떤 일을 가져올지 우리는 그때 보게 될 것이오."

〈각주: 낭자 엘로즈가 아침에 에웨인 경을 섬기니라.〉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에워네 경은 상쾌한 몸가짐으로 잠에서 깨어나었더라. 잠시 후, 에로즈가 와서 그의 금식을 풀 음식을 가져왔

노라. 그가 금식을 마친 뒤, 그녀는 미지근한 물을 담은 상아 그릇과, 상아 손잡이에 금이 박힌 면도날을 가져왔으며, 그녀의 어깨에는 고운 린넬 수건을 걸고 에워네 경의 얼굴을 면도하여, 그의 얼굴을 새롭고 깨끗하게 가꾸어 주었노라.

그 후 그녀는 그에게 고운 의복을 가져왔으니, 부드러운 캄브릭 린넬로 된 속옷과, 은으로 자수한 남색 실크의 서코트와 바지, 그리고 금버클이 달린 망토였노라. 그 망토의 네 모서리에는 은으로 만든 배 모양 장식이 매달려 있었노라. 그리고 그녀는 그의 머리에 왕의 아들이 마땅히 쓸 만한 금관을 가져왔노라. 이때 그녀가 에워네 경을 바라보니, 그는 매우 아름다워 보였노라.

이와 같이 모든 일이 치러지니라. 에로즈는 에웨인 경을 남겨두고 떠나 호수의 부인 레솔리에의 처소로 갔으니, 그 부인은 홀로 방에 앉아 자신의 기사가 죽었다는 슬픔에 잠겨 있더라. 그러나 에로즈는 매우 명랑한 표정으로 그 곳에 들어가 이르되, “부인, 어찌 지내십니까?”

〈각주: 레슬리 부인이 낭자를 꾸짖느니라.〉

그때 레솔리 부인은 에로의 밝고 경쾌한 태도를 보고 큰 분개심을 품으며 이르되, “낭자여, 내가 이처럼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네가 이처럼 경쾌하고 기쁜 심정으로 서 있는 것을 보니 나는 크게 불쾌하노라. 또한 너는 내 모든 처녀들 가운데 가장 총애받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랜 시간 동안 내 곁에 찾아와 나의 슬픔을 위로하거나 내 고통에 위로를 베풀지 않았으니, 이에 대해 너에 대해 매우 나쁜 생각을 하게 되었노라.”

이때 에로즈는 호수의 부인 레솔리에의 총애를 한몸에 입고 있었으므로 그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리하여 그녀는 여전히 매우 명랑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노라. 그리고 그녀가 이르되, "부인, 저는 서사그론 경이 당하신 그 슬픔이 어떠함을 보아도, 어찌하여 저와 같은 슬픔을 취해야 하는지 알 수 없나이다. 저는 그를 그리 사랑하지 아니하였사오니, 그가 전장에서 어찌어니 할 수 있는 비운을 당하였을 때 합당한 슬픔 이상을 취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에 레솔리에 부인의 눈이 분노로 빛나며 그녀가 이르되, "하! 낭자여! 너는 내가 허락한 말의 자유를 한층 넘었도다. 비록 내가 사그론 경을 그가 원하던 대로 사랑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나는 그를 지극히 존중하였노라. 이제 그가 떠난 후 누가 그의 자리를 대신하여 이 샘을 지키게 될지 나는 알 수 없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 시련의 때에 미소를 짓고 낙을 취하니, 이는 내게 불쾌한 바라. 그러므로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이에 에로스가 이르되 "소인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겠사오나, 부인께서는 저와 더 오래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내가 어찌하여 이토록 명랑한 태도를 취하는지 묻지 않으셨음을 후회하실 줄 아오."

이때 에로즈는 그 곳을 떠나려던 듯이 몸을 돌렸다. 그러나 그녀가 조금 거리를 둔 후, 레졸리 부인이 일어나 방 문까지 따라가며 매우 은은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에로즈가 몸을 돌리자, 부인이 그녀를 손짓하며 이르시되, "여기 오라!" 하니, 에로즈는 웃으며 달려갔다. 이때 부인이 이르시되, "너는 성품이 매우 거만하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마땅히 받을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노라. 이제 내게 말하라, 네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이에 에로스가 이르되 "내가 그대를 알려주마. 다만 아무도 듣지 못해야 하리라."

그 부인이 이르되 "그대여, 여기로 오라" 하거늘 이에 그녀가 에로스를 데리고 둘이서 서로 만날 만한 곳으로 인도하더라. 그들이 거기에 이르자 호수의 부인 레솔리가 이르되 "에로스여, 무슨 일인가?" 하니

〈각주: 그 처녀가 레슬리 부인을 부르니라.〉

이에 에로스라 이르는 자가 이르되 "부인, 이 성 안에는 부인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한 기사가 계시나이다. 그 기사는 지극히 고귀하고 무예에 매우 능하며, 왕의 아들이시요, 아서왕의 궁정에 속한 기사이며, 원탁의 기사라 하옵니다. 이 기사가 부인을 향한 사랑이 지극하여 부인이 무엇이든 청하시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니이다. 이제 우리 대장인 기사를 잃으셨으니, 이 기사를 불러 부인을 보호하게 하심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만일 적기에 그를 부인의 주군으로 삼으시거든, 이는 부인의 자존심을 높일 뿐 아니라 이 땅의 기쁨도 크게 할 것이니이다."

이때 그 부인은 엘로스를 매우 집요하게 바라보고 있더니, 처녀가 말을 마치자 그녀가 이르되, "이 기사는 누구며, 그의 이름과 신분은 무엇인가?" 하니, 엘로스가 이르되, "부인, 그분께서는 그분에 대해 많이 들으셨나이다. 그분은 고르의 왕 우리아누스와 모르가나 르 페이 왕비의 아들인, 유인 경이오." 하거늘, 부인은 매우 기이한 목소리로 이

르되, “엘로아, 그토록 유명한 기사가 우리 성에 있었으면서도 우리가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로다. 이제 내게 말하라, 그가 언제 이곳에 왔는가?” 이때 엘로스는 당황하여 이르되, “부인, 그분은 방금 잠시 전에야 여기 오셨나이다. 아침에야 비로소 도착하셨사오.” 하니라.

이때 레졸리 부인이 묘하게도 미소하며 이르시되, “저 기사를 이곳으로 데려오라. 내가 그를 보고 말도 나누리라.” 이에 에로스는 곧장 에웨인 경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이르되, “에웨인 경이시여, 일어나 함께 오소서. 제 부인이 말씀하시기를 저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더이다.”

이에 에커 경의 아들인 에웨인 경이 일어나 에로스와 함께 길을 떠났고, 에로스는 그를 레솔리 부인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였더라. 에로스가 에웨인 경을 레솔리 부인에게 소개하자, 에웨인 경은 그녀가 지극히 놀랍도록 아름다우심을 보시고 큰 경의를 표하였노라. 부인은 에웨인 경을 매우 단호히 응시하다가, 잠시 후 이르시되, “에로스, 이 기사는 먼 길을 마치고 새로 도착한 여행객의 기색이 아니라, 오히려 상쾌하고 잘 차려입은 자처럼 보일세.”

그때 처음에 에로즈는 당황하여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자 곧 그 부인이 이르되, “에로즈여, 나는 이것이 바로 사그론 경을 죽인 기사라 믿노라” 하니라.

그때 에로즈는 그 부인의 얼굴을 매우 진지하게 응시하더니, 곧 그녀가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입을 열었다.

"이여, 부인아, 그러면 어떠하뇨? 이 기사가 사그론 경을 물리쳤다면, 이는 당신에게 오히려 더 큰 영광이로다. 사그론 경은 이 땅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기사였음이니, 만일 이 기사가 그를 이겼다면, 그는 사그론 경보다 더 뛰어난 자요, 그러므로 샘의 수호자로 더 적합하리라."

그때 부인이 이르되 "더 말하지 말라. 너희 둘은 물러가라. 내가 이 일을 잠시 묵상하리라." 이에 에로스와 에인 경은 부인의 거처를 떠나 성의 다른 곳으로 물러가니라.

〈각주: 낭자가 에인 경을 분수의 부인에게 데려가니라.〉

그 후 그들은 성의 부인으로부터의 소식을 기다렸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러나 저녁이 이르자, 성의 여주인은 에워인 경에게 매우 정중한 전갈을 보냈다. 그녀가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에워인 경은 그 명령을 받들어 갔고, 부인은 그를 매우 온화하게 맞이하여 식탁에서 자신 곁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들은 함께 앉아 먹고 마시며, 궁정과 전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두고 수다를 떨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레슬리 여인은 에워인 경을 매우 날카롭게 주시하였다. 그녀는 그가 외모로 보아 매우 고귀하고 위엄 있는 자임을 깨달았으며, 자신이 지금까지 본 어떤 기사보다도 그가 더 위대한 전사임을 직감하였다.

그때 그녀가 갑자기 에웨인 경에게 이르되, “영주여, 당신이 우리들의 평화로움을 파괴하러 이리로 온 것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이까?”

〈각주: 에워인 경이 분수를 지키겠다고 맹세하더라.〉

이에 에워네 경이 매우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부인, 저로 하여금 폐하께 근심을 끼치게 함을 깊이 유감스럽게 여기나이다. 그러나 저는 다른 어떤 모험 기사라 할지라도 행하듯, 저의 전투와 죽음의 기회를 그와 함께 취하였사오니 이는 그가 저와 함께 그 기회를 취한 것과 다름없사옵나이다. 그러나 이제 전쟁의 기회가 저를 여기로 인도하였사오니,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후회할 바가 없나이다. 그 기회가 저를 폐하의 앞에 나아가게 하였고, 폐하를 알게 하였사오며.”

이에 부인이 이르되 “그렇다면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하리이까, 이곳의 기사 챔피언을 폐하께서 죽이셨사오니.”

에워네 경이 이에 답하여 이르되 “부인, 만일 폐하께서 저를 폐하의 챔피언으로 삼으시려거든, 저는 폐하께 매우 충성스럽게 봉사하겠사오며, 폐하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구하지 않겠나이다. 이는 저에게 임할 수 있는 더 큰 기쁨이 없기 때문이오니, 폐하의 선택받은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사오며.”

이에 레졸리 부인이 미소하며 이르되 “에워네 경, 폐하께서 매우 잘 말씀하셨사오며, 폐하의 행적이 말씀과 같이 신뢰할 만하다고 믿사오나이다. 그러므로 저는 폐하를 저의 챔피언으로 받아들이겠사오니, 저

를 대신하여 전투를 행하고 저의 분수대와 저 자신을 일 년과 하루 동안 보호하시리이다. 만약 그 기간의 끝에 폐하께서 완전히 충성스러우심을 증명하시거든, 그때는 폐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다른 모든 것을 고려하겠사오며."

* * * * *

그때 에웨인 경은 그 곳에 머물러 분수를 굳게 수호하였노라. 그가 분수를 지키는 법이 그러하여, 그 곳으로 달려와 공격하려는 자는 모두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으며, 에웨인 경은 이렇게 무너진 자들로부터 말과 방패를 빼앗아, 그들을 발로만 남긴 채 그 곳을 떠나게 하였노라.

이때 에와인 경은 분수의 계곡에서 거의 일 년 동안 거처하며, 그 세월 동안 그와 분수의 부인 레솔리는 일 년이 차면 혼인을 맺으려 약혼하였다. 에와인 경은 분수의 부인을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사랑하였고, 그녀 또한 그에게 날이 갈수록 더 깊은 사랑을 바쳤다.

그러나 에웨인 경은 종종 아서왕의 궁정과 그곳의 친구들을 생각하며, 그 순간마다 지극한 동경으로 그들을 그리워하더라. 어느 날, 에웨인 경과 레솔리 부인이 성의 정원에 있을 때, 에웨인 경은 그 친구들과 궁정에 관해 깊은 침묵 속의 사색에 잠겨 있더라. 그 사이 부인은 그를 비스듬히 바라보며 지켜보더니, 잠시 후 이르되, "경의 마음에 얽힌 바가 무엇이오니까, 그리도 스스로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각주: 에워인 경은 아서왕의 궁정을 사모하더라.〉

이에 에웨인 경이 몸을 일으켜 이르되 “부인, 이는 내가 아서왕의 궁정에 있는 친구들과 동료들을 깊이 생각함이라. 지금 거의 일 년이 지나갔거늘, 그 모든 기간 동안 그들 중 어느 누구로부터 단 한 마디의 소식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에 레솔리 부인이 이르시되, “에와인아, 너는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불쾌히 여기느냐?” 하니, 그가 아뢰되, “아니오, 부인이시여. 제가 이곳에서 영원히 부인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 매우 기쁘고, 그 이상으로 기쁘나이다. 그러나 적어도 제 동료들의 안부를 전해 들을 수만 있다면 하겠나이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지 못함이 근심스럽사오니. 그리고 또 하나, 제와 함께 랜슬롯 경을 찾아 나선 이들이 그 고결하고 뛰어난 기사의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는지 알고자 하나이다.”

이에 레슬리 부인이 이르되, “아, 유웨인, 너는 친구들을 너무 걱정하여 곧 우리와 함께 머무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게 될까 두렵구나.”

그러자 유웨인 경이 대답하되, “부인, 그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음을 부인은 잘 아시나이다.”

그녀가 물으되, “그것이 확실한가?”

“예,” 유웨인 경이 이르되, “나는 이에 대해 확신하노라.”

이에 분수의 부인이 이르되 “에와인, 네가 큰 왕의 궁정에 있는 친구들을 방문하러 갈 것이라 내가 마음에 두었노라. 네가 그들을 만나 보고 스스로 만족한 후라면, 내가 여기 머무르는 것이 더 기꺼울 것이라

믿노라. 그러므로 내가 명하노니, 너는 캐멀롯으로 가서 다시 한 번 친구들과 동지들과 교유하라. 그러나 네가 우리 곁을 너무 오랫동안 비우지 않도록 하라. 그러므로 내가 또 한 번 명하노니, 너는 가능한 한 빨리 이곳으로 돌아오라.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우리의 용사가 없이는 견딜 수 없노라."

[그림]

[일러스트: 분수의 부인:]

[일러스트레이션]

네 번째 장

에와인 경이 아서왕의 궁궐로 돌아온 일과, 그가 레솔리 부인을 잊고 샘물(파운틴)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일을 전하노라.

그리하여 이튿날, 에워 경은 레슬리 부인이 명하신 대로 분수의 계곡을 떠나 말을 타고 길을 나섰다. 그는 홀로 여행하며, 그곳에 이르렀을 때와 같은 길로 그 땅을 떠났다.

이제 그가 캐멀롯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를 때, 그는 반드시 그가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지나왔던 바로 그 길을 따라야만 했다. 그리하여 잠시 후, 그는 다시 그 거대한 목동 우를 마주 보았는데, 그는 앞서 언급된 대로 언덕 위에 앉아 그의 가축들을 지키고 있었다. 이 존재가 에웨인 경을 보고는 큰 목소리로 그를 향해 외쳤다. "야, 작은 자야! 어

디로 가는 것이냐?" 그러나 에웨인 경은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오직 그의 길을 꾸준히 나아가며 말을 몰았다.

그리고 정오가 다다를 무렵, 그는 그 놀라운 계곡의 시야 안에 들어섰으니, 그 계곡에는 비비엔 부인의 마법이 걸린 성채가 서 있었더라. 그리고 에웨인 경은 계곡으로 내려가 성채를 향해 달렸고, 그가 가까워질수록 성채의 사람들은 그의 다가옴을 멀리서부터 알아차렸더라.

이때 에워인 경이 성채에 가까이 다다르자, 수많은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와 그를 맞이하러 나아갔다. 그들은 노래하며 기뻐하고 큰 소리로 그를 환영하니, 끝없이 큰 소리로 외치기를, “환영하노라, 고결한 전사여! 환영하노라! 다시 또 환영하노라!” 하였더라.

〈각주: _에웨인 경이 비비엔의 성으로 오다._〉

그들이 그를 만나 승리의 행렬로 성까지 모셨더라. 그가 성에 가까이 다다르자, 비비안 부인께서 직접 나와 그의 도착을 환영하러 나왔노라. 그녀는 매우 미소 띤 즐거운 표정을 짓고, 다른 이들과 함께 외치되 “환영합니다, 유인 경! 환영합니다! 세 번이나 환영합니다!”라 하였으며, 이어서 이르시되 “영주여, 나는 당신이 우물 기사와 맞서 벌인 그 모험에서 승리하셨음을 잘 아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모습을 뵙게 되어 기쁘니이다. 이미 아시리라마는, 당신이 무너뜨린 그 기사에 대해 나는 그리 높은 존경을 품지 않았사오니”라 하셨노라.

이때 에워네 경은 자신이 찾은 그 곳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음에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에게 미소 짓던 비비엔 부인이 그에게 해를

끼치려 하는 마음을 품고 있음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을 모두 허용하여 승리의 행진으로 성채 안으로 그를 모셔들이고, 갑옷을 벗기며 목욕을 준비하게 하고, 아름다운 부드러운 의복을 입혀 비비엔 부인이 자신의 거처에 계실 때 좋은 모습으로 그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였더라.

그 후 에웨인 경은 그 부인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녀와 함께 앉아 큰 친교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노라. 그러나 그가 그녀와 이야기하는 내내, 그녀가 자신에게 해를 끼칠 꾀를 꾸미고 있음을 그는 알지 못했노라.

그리하여 얼마 후, 여전히 큰 친교 가운데 그들은 정성껏 준비된 한 고귀한 연회가 있는 곳으로 갔노라. 그곳에서 에웨인 경은 그 부인 비비안과 가까이 앉아 큰 기쁨을 누렸노라.

그리하여 잠시 후, 그는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에게 대해 그녀가 꾸며 놓았던 여러 해악을 생각하며 그녀에게 이르되,

"부인이여, 당신께서 나에게 이토록 자비롭고 고우시니, 나는 당신이 어찌하여 내 동료들, 곧 아서왕의 궁정에 속한 자들에게 해를 끼치려 하시는지 알 수 없나이다. 또한 당신께서 어떻게 그 샘의 부인 레올리를 해치려 하여 그 땅에 근심을 가져오시는지 알 수 없나이다. 그녀가 당신에게 어떤 악을 행한 바가 없거늘, 어찌하여 그처럼 그녀에게 악을 꾀하시나이까?"

그때 비비엔 부인은 지극한 온유함과 회개의 모습을 띠었으며, 이르되 "경이 말씀하신 바는 참되나이다. 내가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을 나는 회개하노라" 하더라. 이어 그녀가 말하되 "만일 그 연못의 모든 마법이 제거되고, 연못의 땅이 평화를 얻게 된다면 경은 기뻐하시겠나이까?" 하니, 에웨인 경이 이르되 "부인, 그것은 나를 이루 기쁘게 하리다" 하거늘, 비비엔 부인이 이르되 "그리하리니이다. 내가 경에게 굳게 약속하노니, 이 날로부터 영원히 그 땅의 마법은 완전히 제거되리이다" 하더라.

그때 그녀가 에웨인 경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데, 그의 미소는 경을 마법처럼 사로잡았더라. 그녀가 이르되 "에웨인 경이여, 이제부터 영원히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하니, 경이 이르되 "부인, 하나님께서 아시거니와 내가 경에게 악의를 품지 아니하였사오니,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사오리다" 하였더라.

이에 비비안 부인이 이르되, "경이여, 내가 경에게 평화의 증표로 무언가를 바치오니 받아주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그 증표가 무엇인가?" 하거늘, 그녀가 이르되, "내가 경에게 보여 드리리다."

〈각주: 비비안 부인이 에인 경에게 잊음의 반지를 건네니라.〉

이에 그녀가 손을 치며 명령하니, 곧 금색 천으로 옷을 입은 아름다운 젊은 시종이, 어깨까지 늘어뜨린 곱슬거리는 금발 머리를 달고 나타나 응답하였다. 이 청년에게 부인은 여러 가지 명을 내리자, 그는 곧 돌아와 손에 금박 쟁반을 들고 왔다. 그 쟁반 위에는 곱고 희고 가는 린넨

으로 만든 수건이 깔려 있었고, 그 수건 위에는 매우 정교하게 만든 금반지가 놓여 있었다. 그 반지에는 빛나는 노란 보석이 박혀 있었다.

이 아름다운 젊은 시종은 무릎을 꿇고 그 물건을 비비안 부인에게 가져다 바쳤다. 부인은 쟁반에서 반지를 들어 에웨인 경에게 건네며 이르되, "경이여, 이 반지를 보라! 나는 이를 너희에게 주어, 우리 사이에 맺어진 우정의 증표로 착용하게 하노라" 하였노라. 이에 에웨인 경은 그 반지를 받아 손가락에 끼웠더라.

이 반지에는 매우 강력한 주술이 걸려 있었노라. 이는 잊음의 반지였으니, 누구든 이를 착용하면 비비안 부인이 그로 하여금 잊게 하려는 모든 것을 잊게 되었노라.

〈각주: 에와인 경은 레솔리 부인을 잊었노라.〉

이때 에와인 경이 반지를 손가락에 끼는 순간, 그는 호수의 부인에 대해 모든 것을 잊어버렸노라. 그 부인과 나눈 모든 서약과, 그리고 그 여인이 그의 삶에 속했던 나머지 모든 일들을 그는 모두 잊어버렸노라. 그러나 그는 다른 모든 것들은 기억하고 있었으니, 즉 그가 그 분수의 모험을 수행하기로 서약했던 일과, 분수의 기사 챔피언을 비롯한 모든 적들을 물리쳤던 일, 그리고 그의 삶에 속했던 나머지 모든 일들을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노라.

그때 에웨인 경은 비비안 부인을 몹시 기이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으니,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자와 같았더라. 그가 이르되, "방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더냐?" 하니, 비비안 부인은 웃으며 이르되,

“경이여, 그것은 중요치 않소.” 에웨인 경이 이르되, “나에게는 꿈이든 것 같사오나,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나이다,” 하니, 이때 비비안 부인은 다시금 웃으며 이르되, “네 꿈이 무엇이었든, 또한 그것은 중요치 않소.” 그녀가 이르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친구라는 것과, 네 손에 나의 우정의 증표를 지니고 있다는 것뿐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그 반지를 손가락에서 결코 벗지 말라. 그 순간부터 우리가 나누는 이 우정은 단절될 것이기 때문이라.” 에웨인 경이 이르되, “이 반지는 내 손가락에 영원히 머무르리니, 단 한 순간이라도 그 반지를 벗어던지지 아니하리이다.”

이에 에와인 경은 비비엔 부인의 성에서 그 밤을 큰 기쁨으로 쉬었더라.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 이르자, 그는 성을 떠나 아서왕의 궁궐로 향하는 길을 재촉하였더라.

그가 스스로에게 이르되, “아마도 이쯤 되면 그들이 랜슬롯 경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지니, 나는 곧장 왕의 궁정으로 돌아가 그 사실이 과연 그러한지 알아내리라.”

〈각주: 에웨인 경이 왕의 궁정으로 돌아오니라.〉

이때 에웨인 경은 분수의 계곡에서 보냈던 시절을 모두 잊었으므로, 자신이 그 궁전을 떠나 온 지 사흘이 아닌 거의 일 년이 지났음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는 다시금 벗들 가운데로 돌아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없어 당황하더라.

"어찌 된 일인가," 그가 이르되,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분명히 꿈과도 같은 일이 있었으나, 나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노라.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나는 알 수 없노라."

에웨인 경은 지난 일 년 동안 자신의 일어난 일을 기억해 내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였으므로, 그 일과 관련하여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벗들에게 자신이 일 년이라는 세월을 잊어버렸음을 드러낼까 봐 늘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그는 스스로에게 이르되, "내가 잠시 이곳 아서왕의 궁전에서 쉰 뒤에는 다시 나서서 랜슬롯 경에 대한 소식을 구하리라.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잊어버린 이 일 년 동안의 일을 기억해 낼 수 있을지 모르노라."

〈각주: 아서왕이 광야를 달리시더라.〉

그러나 에워인 경은 곧바로 궁정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어느 날, 날씨가 매우 화창하므로 아서왕은 신하 일부와 함께 야외로 나가셨고, 에워인 경도 그 일행에 포함되었더라. 그 때쯤은 초여름의 계절이라, 바람은 부드럽고 포근하여 자라나는 모든 것들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더라. 그러므로 낮의 열기가 찾아오자, 아서왕은 자기 마음에 드는 한 지점에 천막을 치라고 명하셨고, 왕과 왕비, 그리고 그들의 신하들은 그 천막 안에 앉아 궁중 종자들이 준비한 아름다운 연회를 즐겼더라.

〈각주: _한 낭자가 왕의 천막으로 오더라._〉

그들이 이와 같이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외부에서 소동이 일어나며 여러 목소리가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한 낭자가 매우 아름다운 얼굴과 곱슬거리는 노란 머리를 하고 천막 안으로 들어왔노라. 그 낭자는 노란 실크 옷을 입고 있었으며, 머리에는 금으로 된 이마 장식을 하고 있었고, 발에는 금 끈이 달린 무늬 가죽 구두를 신고 있었노라. 또한 그녀는 금 목걸이와 금 팔찌로 더욱 단장하고 있었으므로,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낭자의 아름다움과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더라.

이제 너희는 알지니, 이 처녀는 에로스라는 처녀였노라. 그러나 그가 잊음의 반지를 차고 있었으므로, 케이 경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그때 아서왕이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르시되, "아름다운 낭자여, 너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엇을 구하러 여기 왔느냐? 내가 청하노니, 너는 누구인가 꿈에서 본 아름다운 형상과도 같이 여기로 온 자를 우리에게 알려다오."

그러나 그 낭자는 천막 문 안쪽에 서서, 자신이 들어온 해빛의 눈부심 때문에 처음에는 그늘진 천막 안을 잘 볼 수 없었다. 이에 그녀가 이르되, “청컨대 나에게 일러주시오. 에웨인 경이 이 곳에 있습니까?”

그때 아서왕이 크게 놀라며 이르시되 “그렇사오, 부인, 저기 앉아 있소이다” 하시기에, 낭자 일로즈는 그제야 케이 경이 앉아 있는 곳을 바라보았더라.

〈각주: 낭자 에로즈가 에인 경을 배반죄로 고발하더라.〉

그때 에로즈가 천막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케이 경이 앉아 있는 곳으로 다가가니, 그녀의 눈은 분노로 빛나며 이렇게 말하였다. “케이 경, 내가 당신을 거짓 기사요 배반자라고 고발하노라!”

이에 에와인 경은 그 낭자를 보고 심히 놀라 이르되, “너는 누구냐, 나의 불의함을 비난하는 이 여인이여?”라 하였노라.

그때 그 낭자가 매우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치니라. “너는 내가 누구인지 잘 알지!”

그러나 에웨인 경은 그녀를 매우 진지하게 바라보았으며, 거의 그녀를 기억해 내고자 하였으나, 그가 착용하고 있던 반지 때문에 완전히 기억해 내지 못하였더라. 이에 그가 이르되, "아니오,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하오."

그때 에로즈가 에웨인 경을 향하여 매우 냉소적으로 미소하며 이르되, “너는 분수의 성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때 나를 잊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이제 네 동료들과 함께 즐기고 있으니, 너의 생명을 구해준 나 같은 가련한 자를 잊는 것이 기쁜가 보구나. 비록 내가 용서할 마음이 있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네가 나의 주군인 그 사랑스러운 부인을 잊었다는 것이로다. 너는 그 부인에게 신의를 맹세하였고, 그에게 충성을 바쳐야 하노라. 경이여, 너의 기억은 매우 짧구나.”

그때 에웨인 경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자처럼 매우 격앙된 목소리로 외치니라. “부인여, 어찌하여 이같은 말씀을 하시오까?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하오.”

그때 에로즈가 아와인 경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며 이르되, “지금 나를 알지 못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오,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하오.” 이에 낭자는 장갑을 낀 오른손을 들어 올리고, 그 장갑으로 아와인 경의 얼굴을 치니 그의 뺨에 장갑 자국이 남더라. 아와인 경은 그녀의 공격에 대해 아무런 방어도 하지 않고, 다만 그녀를 매우 단호하게 응시하며 비통한 어조로 이르되, “부인, 당신이 만약 기사라면 그런 일을 저지르지 못했을 것이오. 당신이라면 그 일격의 대가로 목숨을 바치거나, 아니면 내 피로 그 수치스러운 일을 씻어냈을 것이오.”

그러나 에로즈는 웃으며 그 파빌리온을 나서 말에 올라타고 달려갔다. 랜슬롯이 아닌, 에웨인 경은 가슴에 머리를 깊이 숙인 채 그 자리에 남았는데, 마치 치명상을 입은 자처럼 보였다.

그 처녀가 떠난 뒤, 아서왕이 이르시되, “유언, 그 부인은 누구였는가?” 하시니, 이때 유언 경이 고개를 들고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폐하, 저는 그녀를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그녀를 전에 본 적이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오.”

이때 아서왕은 침묵하시니,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이 에워인 경을 흘겨보며 일어난 일들에 대해 속삭였더라. 에워인 경은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속삭이는지 알았으나,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부끄러

움과 굴욕으로 머리를 깊이 숙인 채 앉아 있을 뿐이었노라. 그는 그 처녀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려 애썼으나, 도무지 기억해내지 못하였더라.

〈각주: 아서왕의 궁정에서 에워인 경에 대한 의문〉

그 후로 궁정에서는 왕의 천막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많은 이들이 서로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명예와 명성을 지닌 기사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를 이토록 잊을 수 있는가? 설령 그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을 아는 자들 앞에서 그녀를 외면하는 자가 어찌 명예를 지킬 수 있겠는가?"

그때 궁중의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에웨인 경은 그들이 자신을 불쾌하게 여기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마음속 깊이 깊은 상처를 입었다.

어느 날, 그는 아서왕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 아뢰었다.

"폐하, 제가 이 궁중에서 불명예스럽게 여겨지고 있음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잠시 동안이라도 이곳을 떠나가고자 하오니, 폐하의 허락을 구하옵니다."

아서왕이 이르시되, "경이여, 경에 대해 나를 불쾌하게 하는 말들이 많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노라. 만약 경이 잠시 동안 우리 곁을 떠나, 경의 진실함과 명예를 증명하고, 경을 비방하는 자들이 말하는 그 일들을 모두 씻어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하였다면, 경의 요청에 따라 기꺼이 떠나가는 것을 허락하노라."

〈각주: 에웨인 경이 궁정을 떠남.〉

이에 에웨인 경은 궁정을 떠나니, 그의 마음은 예전 친구들이라 일컬었던 자들을 향하여 쓴맛과 노여움으로 가득 찼노라. 그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노라. "내가 잊어버린 것을 기억해 내지 못한다 하여, 어찌 그들이 나를 천하게 여기는가? 내가 그 처녀를 기억해 내지 못함은 어찌할 도리가 없노라."

이처럼 그는 영혼 깊은 곳의 쓴맛과 온 세상에 대한 분노를 안고 길을 떠났으니, 온 세상이 자신에게 적대시하는 듯 보였기 때문이라.

* * * * *

이때 에와인 경은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는 채 오랜 세월을 여행하느라 보내니, 그는 마치 꿈속을 걷는 자처럼 때로는 헤매며 길을 떠났더라.

〈각주: _에웨인 경이 외로운 오두막에 다다르니라._〉

그리하여 어느 날, 그가 광활한 울창한 숲에 이르렀을 때, 밤이 그를 덮쳤고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황야를 벗어나야 할지 알지 못하더라. 그가 이렇게 어둠과 혼란 속에서 길을 찾고 있을 때, 멀리서 빛이 비치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고, 그는 그 빛을 따라 숲 속의 초라한 오두막에 다다랐으니, 그 오두막은 그리 크지 않은 벌판 한가운데 서 있더라.

에이완 경이 이 숲의 거처에 이르러, 그의 창끝으로 문을 두드리자 곧 한 사람이 문을 열었으니, 그 사람은 외모가 가장 혐오스럽고 위압적인 노부인이었더라. 그녀가 오두막 문 앞에 선 에이완 경을 보자 다시 문을 닫으려 하였으나, 그는 그녀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창을 문틈에 끼워 넣었더라.

그때 그 노파가 그의 거절을 용납치 못함을 보고, 그를 향하여 거친 어조로 말하되 "무슨 일로 여기 왔나이까, 기사여?" 하니, 에웨인 경이 이르되 "저는 오늘 밤 묵을 곳을 구하옵니다."

그때 마녀는 매우 크고 날카롭게 웃으며 이르되, "좋도다, 네가 거절당하기를 원치 않거든, 네가 바라는 바를 얻으리라. 들어가라, 그리고 네 숙소가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이에 에와인 경은 말에서 내려 밤이 깊어 풀이 무성한 곳으로 말을 풀어놓았노라. 그사이 그는 스스로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곳에서 그는 거대한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으니, 굴뚝에서는 우렁찬 굉음이 울려 퍼졌고, 그 불 위에는 커다란 주철 솥이 놓여 있었더라. 그 솥 속에서는 사슴 고기 스튜가 거세게 끓어오르고 있었고, 그 향기는 오두막 전체를 진한 맛깔냄새로 가득 채우고 있었더라.

케이 경의 동생인 유웨인 경은 또한 커다란 식탁을 보았으니, 그 위에는 나무로 만든 접시들이 수없이 많이 놓여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잔치라도 벌일 듯 차려져 있음을 보며 그가 이르되, "어여쁜 부인, 청하노니 그대에게 함께 거하는 자가 누구인지 내게 알려 주시오."

노파가 이르되, “내 남편과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살아가오.”

유웨인 경이 이르되, “진실로 그대는 큰 가정을 이루었구려.”

그러자 노파는 매우 격렬하게 웃으며 이르되, “그 말이 옳소.”

그 후, 마녀는 스튜를 나무 그릇에 한 그릇 떠서 올렸고, 강렬한 에일 한 잔을 따라 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들을 식탁 위에, 검은 빵 한 덩어리와 함께 놓았다. 에웨인 경은 앉아서 큰 식욕으로 먹고 마셨더라.

그리하여 그가 이같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달래자, 그는 매우 졸려하였다. 이에 그는 갑옷을 벗어 던지고, 곁에 놓인 나무 벤치에 몸을 뉘이고, 투구를 머리 밑에 받쳐 곧 깊은 잠에 빠졌더라.

〈각주: 도적들이 오두막으로 돌아오니라.〉

그 오두막은 도적들의 소굴이었고, 그 늙은 마녀는 그들의 집주인이었으며, 도적들은 모두 스물일곱 명이나 되었다. 그러므로 밤의 중간 무렵에 그 도적 무리는 상당한 전리품을 안고 돌아왔으니, 이는 그들이 그 장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숲의 한 부분을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의 무리를 습격하여 노획한 것이었더라.

그들이 잠들어 있는 에웨인 경을 보고는, 조금 옆으로 물러서서 서로 속삭이며 수군거렸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 늙은 마녀에게 속삭이며 이르되, “저 남자는 누구이며, 그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녀가 이르되, “그는 방금 전 거처를 요구한 방랑 기사라. 그러므로 지금 그는 잠들어 누워 있으며, 너희가 마땅히 생각하듯 처분할 수 있도록 너희의 손아귀에 맡겨졌노라.”

그때 도적들의 대장이 살금살금 에웨인 경이 누운 곳으로 다가갔으며, 그는 그를 자세히 살펴보고는 그 목에 걸린 아름다운 금 사슬과, 그리고 호수의 부인 비비안이 그에게 선물한 반지를 보았노라. 그 후 그는 조금 물러서 동무에게 속삭였노라. "이 잠든 기사에게 큰 전리품이 있도다. 이제 밧줄을 가져오라. 우리가 그를 묶어두면, 그 후 우리는 편하게 그를 약탈할 수 있고, 그 후 다시는 그를 죽이거나 큰 몸값을 받고 그를 여기 두어도 좋으리라."

〈각주: _도둑들이 유인 경을 결박한다._〉

이에 도적 중 일부가 튼튼한 밧줄을 가져와 매듭을 짓고, 먼저 에인 경의 모든 무기를 몰래 빼앗아 간 다음, 그 매듭을 그의 팔에 걸쳐 순식간에, 그가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그의 몸을 여러 번 단단히 묶어 그의 손과 팔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버렸더라.

이때 에웨인 경은 거칠게 깨어나, 자기가 그곳에서 포로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더라.

그러나 그가 자신을 사로잡은 자가 누구인지 보자, 그는 자신의 높은 지위의 모든 위엄을 갖추며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행하는지 아느냐? 너희가 이처럼 결박한 자가 왕의 아들이요 원탁의 기사임을 아느냐? 그리하여 너희는 나를 통해 매우 중대한 죄를 범하였노라."

이때 그의 말과 그 위풍당당한 기품 앞에 몇몇 도적들은 당혹스러워 하였으나, 무리의 대장인 완고한 악당은 매우 담대하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누구이든 상관이 없노라. 오직 네가 진정으로 왕의 아들이요, 이와 같은 존귀함을 지닌 기사라면, 네 몸값은 더욱 클 뿐이리라.” 하고는 다시 이르되, “우선 네 목에 걸린 이 rich한 금 장신구를 빼앗고, 그 다음 네 손가락에서 아름다운 금 반지를 벗기리라.”

〈각주: 도적들이 에웨인 경을 습격하여 잊음의 반지를 훔치니라.〉

주모인 강도가 먼저 에워인 경의 목에서 사슬을 벗겨 내었으니, 그가 말하길 그것은 그의 뜻이요, 이어 그는 그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었더라. 에워인 경이 묶여 있었으므로, 그 강도들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보석을 빼앗는 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더라.

〈각주: 에웨인 경은 모든 것을 기억해 내더라.〉

그러나 보라! 강도가 에와인 경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앗아 떼어내자, 순식간에 망각의 마법이 그에게서 사라졌노라. 그는 그 순간, 분수의 계곡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기억해 내었노라. 그는 분수의 레졸리 부인을 기억해 내었고, 그녀에게 맹세했던 모든 신의의 서약을 기억해 내었노라. 그리고 그는 이제 왜 에로스가 왕의 궁정에서 그에게 찾아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의 얼굴을 때렸는지 알았노라. 그는 이 낭자가, 그가 자신의 여주인에게 불충실하고 거짓된 자임을 증명했으므로 그녀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노라. 그러므로 이는 마치 기억의 검이 에와인 경의 심장을 관통한 듯하여, 그가 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배신당했다! 배신당했다! 배신당했다!"라고 외쳤노라. 이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였노라. 그리고 도적들은 그가 그 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으나, 그가 노파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였노라. 그가 호수의 부인 비비엔에게 배신당했다고는 알지 못하였노라.

그때 갑자기, 자신의 치욕을 기억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열 사람의 힘이 에웨인 경에게 내려앉은 듯하였다. 이에 그는 모든 힘을 모아 결박을 당기니, 그 결박이 살을 파고들었다. 그는 더욱 격렬하게 결박을 당기기를 반복하던 중, 갑자기 결박이 끊어졌고, 곧이어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더라.

〈각주: _에웨인 경이 강도들과 싸우니라._〉

그때 에웨인 경이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손에 쥘 만한 무기는 보이지 않더라. 이에 그는 잠시 누워 있던 단단한 나무 벤치를 들어 올렸노라. 그는 그 벤치를 머리 위로 휘두르며 좌우로 내리쳤고, 강도들을 한쪽에서는 다른 한쪽에서는 쓰러뜨렸노라. 그의 분노가 그리도 컸기에, 그들은 그의 광기를 두려워하여 그의 앞을 물러났더라.

〈각주: 에웨인 경이 부상을 입다.〉

이때 에워인 경은 그 도적 무리, 모두 스물일곱 명을 모두 베어 죽일 수 있었으리라. 다만 무리의 대장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는 에워인 경의 맹렬한 기세를 보고는, 그 곳 구석에 꽂혀 있던 창 한 자루로 달려갔다. 대장은 그 창을 집어 들어 에워인 경에게 던졌노라. 창은 에워인 경의 어깨를 관통하여 그를 오두막의 벽에 단단히 고정시켰더라.

이에 에워인 경은 자기가 심히 중상을 입었음을 깨닫고 크게 비명지를 지르니라. 그는 창을 꺾으려 애쓰며 곧장 벽에 꽂힌 채로 붙잡혀 있던 몸에서 벗어나 풀려나왔더라. 그 후 그는 어깨에 꽂힌 창을 그대로 단 채 도적들에게 돌진하니, 그의 맹렬한 기세에 눌려 도적들은 길 옆으로 물러나길 바랐더라.

이때 강도들이 그의 돌진 앞에서 물러나자, 에워인 경은 문쪽으로 통로가 있음을 깨달았노라. 이에 그는 문에 몸을 던져 그것을 깨뜨려 열고, 어깨에 여전히 창이 박힌 채 숲속으로 도망쳤더라.

〈각주: 에워인 경이 탈출하더라.〉

이때 도적들은 포로가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에웨인 경을 뒤쫓아 큰 소리로 추격을 가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이미 열한 명의 자들을 죽이거나 뼈를 부러뜨린 바 있어,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격렬한지 알기에 그들은 본래의 열의만큼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를 쫓았노라. 이로 인해 에웨인 경은 그들로부터 탈출하여, 비록 심하게도 그리고 슬프게도 다친 몸이었으나, 밤의 어둠과 숲의 은신처로 무사히 피할 수 있었더라.

이와 같이 그 위난을 벗어난 후, 에워aine 경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더라. 그는 상처와 그 고통으로 인해 기운이 빠지고 어지러웠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는 반드시 그 창에서 벗어나야 함을 알았으므로, 그는 무기의 자루를 잡아 두 동강으로 부러뜨렸노라. 그 후 그는 자신의 어깨를 관통했던 끝부분을 잡고 창을 뽑아냈는데, 그로 인해 상처에서 많은 피가 분출하여 에워aine 경은 거의 기절할 뻔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기절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저지른 일로 인해 흐르는 피와 그 위에 덮친 고통의 격렬함 아래서 버텼노라. 그러므로 잠시 쉬고 난 후, 그는 숲 속을 나아가니, 술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때로는 넘어졌으나, 곧 다시 일어나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 길을 계속하였더라.

[그림]

[그림: 한 처녀가 에웨인 경에게 구원을 가져오니라:]

[일러스트레이션]

다섯 번째 장

에와인 경이 한 고귀한 부인의 도움으로 구원받아 다시 생명에 돌아온 일, 그리고 그 부인이 큰 고난에 처했을 때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간 일, 그리고 그가 다시 분수의 레슬리 부인 곁으로 돌아온 일에 대하여

이때 에웨인 경은 밤새도록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이 헤매었노라. 그는 자주 넘어지곤 하였으나, 곧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나아가기를 반복하였더라. 그러므로 새벽이 밝아오자, 그는 숲의 가장자리로 다가가기 시작하였노라. 이때 고통스럽게 길을 이어가던 그에게, 한 장작 패는이가 나타나니, 그는 수레를 끌고 있어 아침 일찍 숲으로 들어가 장작을 패러 가던 차였노라.

이 형제는 처참한 형상으로, 밀랍처럼 창백한 얼굴과 피투성이가 된 몸을 지닌 자를 보고, 자신이 보는 것이 귀신인지 인간인지 분간하지

못하여 두려움에 떨며 스스로에게 십자성을 긋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노라. 그러나 에웨인 경이 비록 매우 약하고 애절한 목소리로 말하되, 이르되, “슬프도다, 선한 동포여! 나는 하나님 자비를 빙자하여 당신께 간구하노니, 나를 불쌍히 여겨 당신의 수레에 나를 태워 그곳으로 데려가시오. 그곳에서 구원과 도움을 구할 수 있겠소. 그렇지 않으면 나는 확실히 이 숲에서 혼자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오.”

그때 나무꾼은 에워인 경이 밤이 남기고 간 귀신이나 영혼이 아니라 실재하는 유한한 인간임을 깨달았노라. 그가 그 슬프고 비참한 형상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은 큰 연민으로 가득 차며 이르되, “불쌍한 인간이여, 진실로 네 처지는 참으로 슬프도다. 그러나 내가 네 소원대로 너를 도우기를 기뻐하노라.”

〈각주: _나무꾼이 에웨인 경을 돕다._〉

이에 장작더미 만드는 자가 그의 수레 위에 부드럽고 두터운 나뭇잎 깔개를 펴고, 그 위에 부상을 입은 기사의 몸을 눕혔노라. 그리하여 그는 에웨인 경을 숲 밖으로 모셔 가니, 그의 뜻은 그를 어디론가 데려가 정성껏 돌보며 간호하게 함이었더라.

이와 같이 숲속의 가난한 땔나무꾼이 원탁의 기사 중 가장 고귀한 기사 중 한 명이자 아서왕의 조카를 돕게 되었으니라. 그 사내아이는 자신이 누구를 돕는 줄 알지 못하였노라. 다만 그가 강도들에게 습격당해 쓰러진 가련한 나그네라 생각할 뿐이었노라. 에워인 경은 자신의 신분이 얼마나 높음을 나타낼 만한 갑옷이나 무기를 하나도 지니지 않았으며, 숲속의 도적들이 그에게서 기사로서의 금사슬까지 빼앗아 갔기

때문이었노라. 그러므로 그가 평범한 나그네가 아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노라. 이에 땔나무꾼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그 선량한 기사를 숲 밖으로 모셔 갔노라. 에워인 경은 피투성이가 되어 죽게 된 채, 가난한 땔나무꾼의 수레 위에 나뭇잎을敷한 침대 위에 쓰러져 기절해 있었노라.

이제 장작더미 운반자가 상처 입은 기사를 숲속에서 끌어내어 넓은 들판으로 데려왔을 때, 그는 기사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돌아섰다. 그의 짐이 놀라울 정도로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장작더미 운반자가 소리쳤다. “친구여, 어찌 계시오?” 이에 에웨인 경은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계속 나아가는 사이 그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마치 죽어가는 자 혹은 이미 죽은 자처럼 누워 있었기 때문이라.

그때 나무꾼이 와서 에워인 경의 얼굴을 바라보았더라. 그는 그 얼굴이 죽음과 같이 희백함을 보았노라. 에워인 경이 숨을 쉬는 것을 보지 못하므로, 그는 상처 입은 자가 죽은 줄로 생각하였더라.

이에 그 가련한 소년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노라. 그는 속으로 생각하되, “만약 그들이 나를 이리와 함께 죽은 자가 실린 수레 안에 있는 채로 발견한다면,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여길 것이요, 나를 재판관 앞으로 끌고 가서 교수형에 처할 것이 분명하리라.” 그러므로 그는 이와 같이 추리하며, 자신이 수레 안에 실은 것을 제거하여 죽은 자와 함께 발견되지 않도록 할 방도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더라.

〈각주: _나무꾼이 호숫가에 에웨인 경을 눕혔더라._〉

그때 그 수레는 우연히 한 성채에 인접한 공원을 지나고 있었다. 성채의 탑들과 지붕들, 그리고 굴뚝들은 사이사이에 있는 나무들의 잎사귀 너머로 희미하게 보였다. 그곳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 가장자리에는 많은 갈대와 달콤한 부들이 자라고 있었다. 이는 매우 은밀하고 고요한 곳이었으니, 아직 이른 아침 시간이라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 그 나무꾼은 아무도 자기가 무엇을 하려는지 보지 못함을 깨닫고 수레를 멈추고 에와인 경을 그 안에서 끌어내었노라. 그는 여전히 상처 입은 자가 죽은 줄로 알았더라. 그 후 그 나무꾼은 에와인 경을 호숫가 모퉁이에 있는 참나무 그늘 아래, 부드러운 이끼 침대 위에 매우 부드럽게 내려놓았노라. 이와 같이 그의 짐을 그와 같이 처리한 후, 그는 상처 입은 기사가 그곳에 혼자 누워 있는 것을 두고 떠나갔더라.

〈각주: 성의 부인이 에인 경을 알아차리더라.〉

이때 성의 부인은 성벽의 정원에 있는 그 곳을 매우 즐겨 찾던 터라, 호숫가에서 그녀를 모시는 처녀들과 함께 산책하며 공기를 쐬곤 하였다. 그러므로 어느 날 아침, 날씨가 매우 화창하고 쾌적하였으므로 그녀가 그 처녀들을 거느리고 그곳으로 걸어가게 되었다. 그녀가 그 곳에 이르자 멀리서도 성 중앙의 참나무 아래 누워 있는 에워인 경을 보게 되었다. 그녀가 그를 보고는 이르되, “저 남자는 누구이며, 어찌하여 그곳에 누워 있느냐?”

그때 처녀 한 명이 에커 경이 누워 계신 곳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는 그를 자세히 살펴본 뒤 곧장 이렇게 말하였다. "부인, 이 남자

는 죽은 줄 압니다. 그가 온통 피에 젖어 있고, 움직이는 기색도 숨 쉬는 소리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부인이 이르되 "그가 과연 그런지 살펴보라" 하거늘, 그 낭자는 에웨인 경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노라. 그리하여 그녀의 손끝에서 그의 심장이 조금씩이나마 뛰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에게 생명이 있음을 뜻하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되 "아니로다, 그는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음을 닮은 실신에 빠진 것일 뿐이라" 하였노라.

그때 부인이 와서 에웨인 경을 바라보았으니, 그녀는 거대하고 고결한 그 남자가 그런 모습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므로 그녀가 이르되, "나는 이 남자를 구원하고자 하노라."

그 후 그녀와 그녀의 궁정이 성으로 물러났고, 그녀가 성에 도착하자 그녀는 찬장으로부터 매우 귀중한 연고 상자를 꺼내어 에워인 경을 만졌던 그 낭자에게 주었다. 그녀가 그 낭자에게 이르되, "이 연고를 가져가라, 낭자여. 그 남자가 기절하여 누워 있는 곳으로 가라. 알라, 이는 모든 병과 약함을 치유하는 매우 강력한 기름이니, 비록 그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러하도다. 이 연고를 그 남자의 가슴, 곧 그의 심장 위에 조금 붓고, 손으로 잘 문질러라. 그리하면 곧 그가 소생하리라. 또한 저기 있는 말과, 그런 잘 생긴 남자에게 어울리는 알맞은 옷가지를 가져가라. 그리고 그가 깨어날 때 그 말이 그의 곁에 있도록 하라. 그 후 너는 숨은 곳에서 그를 지켜보며, 그가 무엇을 하는지 나에게 보고하라."

〈각주: 성의 낭자가 에웨인 경에게 구원이라를 가져오니라.〉

그 처녀는 호수의 부인이 명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하되, 마마와 의복과 귀중한 연고를 가지고서 죽음과도 같은 실신 가운데 누워 계신 에워네 경이 계신 곳으로 향하였더라.

연고를 바르려 할 때에, 그녀는 조금만 붓거나 손으로 누워 계신 분의 가슴을 문지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연고를 온전히 에워네 경의 가슴 위에 붓고서, 그제야 물러나 작은 거리를 두고 숨어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 관찰하였더라.

이에 잠깐 동안 그 상처 입은 자가 몸을 일으키며 팔을 저편 저편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더라. 곧이어 그는 누웠던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사방을 두루 바라보았고, 이로써 정신을 차리자 이전에 잊었던 모든 것을 기억해 내었더라. 이때 그의 영혼은 큰 고뇌에 잠겼으니, 이는 자신의 치욕스러운 일이 기억났기 때문이요, 또한 그의 어깨 깊은 상처는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리하여 곧이어 그는 근처에 있는 말과 말 곁에 놓인 의복들을 보았더라. 그는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자신을 위해 마련된 것이리라 생각하였으나, 누가 그토록 자비롭게 그를 돌보았는지는 알 수 없었더라. 이에 그는 큰 고통을 참으며 일어나 말에서 옷을 벗겨 들고 호숫가로 가서 몸을 씻었더라. 그 후 그는 옷을 입은 채 말을 타고 그곳을 떠나려 하였더라.

그때 그 처녀는 그가 행한 모든 일을 지켜보았었노라. 그녀는 숨어 있던 수풀에서 나와 그에게로 나아갔으니, 그 수풀은 그녀가 그를 관찰하던 곳이었더라. 서던 에웨인 경이 그녀를 보자 이르되, “처녀여, 이

말과 이 의복을 내게 마련해 준 이는 너더냐?" 그녀가 이르되, "아니오, 이는 이 땅의 주인인 부인이 마련하신 것이옵니다." 서던 에웨인 경이 묻되, "그 부인은 누구인가?" 처녀가 대답하되, "그분은 매우 힘센 영주의 과부시나이다. 그리고 그녀가 오늘 당신의 목숨을 구해 주셨나이다. 그녀가 나더러 연고(ointment)를 가져오게 하여, 내가 그것으로 당신을 씻겨 주었사오니, 그 연고가 당신에게 힘을 주어 다시 일어나게 하였나이다. 또한 그녀가 당신에게 그 말과 의복을 보내셨으니,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것이 그것들이라." 서던 에웨인 경이 이르되, "정녕 그녀는 마음씨 지극히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도다. 언젠가 나도 그녀에게 그 은혜에 보답할 만한 봉사를 베풀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때 처녀는 자기가 누구와 말하고 있는지 짐작하지 못하였으니, 그의 얼굴은 우유처럼 희고, 고통과 허약함으로 인해 매우 창백하고 광기 어린 빛이 돌았기 때문이라. 그의 용모에는 그가 지녀야 할 고귀함이 조금도 드러나지 아니하였더라. 앞서 말하였거니와, 그는 갑옷을 지니지 아니하였으니, 강도들이 그의 갑옷을 빼앗아 갔고, 그는 탈출하였던 오두막 안에 그것을 두고 나왔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처녀는 그가 보는 자가 큰 존경을 받을 자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이르되, "선한 동지여, 내 주군께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나, 내가 보기에 당신은 그녀의 곤란을 도와줄 자는 아닌 것 같소."

"어찌하여 그같이 생각하느냐?" 에웨인 경이 이르되, "너는 내가 보이는 바를 가지고 내 능력을 판단하지 말라. 나는 보이는 바와 다를 수 있노라."

〈각주: 에웨인 경이 처녀에게 자신을 밝히니라.〉

이때 처녀는 그가 말하는 태도에 담긴 위엄에 크게 놀랐다. 그는 권위를 가진 자처럼, 그리고 매우 차분하며 거만하게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그가 처음 생각했던 이와는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청컨대 경, 경께서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니, 그에게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아서왕의 궁정과 그의 원탁의 기사인 에웨인 경이라. 고어의 왕 우리아נסס과 마법사라고 불린 모르가나 공녀의 아들이라."

이 선포를 듣자 처녀는 크게 놀라 크게 소리쳐 외쳤노라. "정녕 이것이 진실이며, 그토록 유명하고 기묘한 기사께서 당신이 발견되셨던 그 지경에 이르셨다는 말씀이 사실인가?" 그러자 처녀가 이르되, "이제 이 성의 부인이 당신이 스스로를 내세운 그 고결하고 거만한 시종과도 같은 기사를 구원해 주셨음을 알게 되시면 지극히 높은 존경을 받으시리라. 우리가 그녀께로 가오. 당신이 겪으신 불운의 이야기를 직접 드리게 하소서." 이에 에워인 경이 이르되, "그리하오며, 우리가 가오."

이에 두 사람은 그 곳을 떠나 길을 재촉하니, 가던 중 에웨인 경이 이르되, "이제 내게 말하라, 낭자여. 네 주군의 부인이 필요로 하는 도움이란 무엇이며, 방금 내가 말한 그 일에 관하여는 어떠하냐?"

〈각주: 그 처녀가 성의 부인에 관하여 에웨인 경에게 이야기하더라.〉

처녀가 이르되 “내가 그대에게 말하리니, 이 성의 부인은 과부라. 그 남편이 죽을 때에 그녀에게는 두 개의 매우 고귀한 성채와 그 성채에 속한 두 개의 큰 영지가 있었노라. 그 성들과 그 땅을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보유하도록 유언하였노라. 이제 그녀가 이렇게 과부가 된 후, 그녀의 이웃인 매우 자만하고 거만한 한 영주가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하였으나, 그녀는 죽은 그 가치 있는 기사인 남편을 깊이 사랑하였으므로 그의 청을 듣지 아니하였노라. 그리하여 그녀는 그녀와 결혼하고자 하는 기사를 거절하였고, 그는 이에 매우 분노하였노라. 그 후 그는 무장한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그녀의 영지 중 하나를 힘으로 빼앗았노라. 그리고 이제, 만약 그녀가 그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면, 그가 거주하며 이 세상에 그녀가 가진 유일한 재산인 다른 영지를 빼앗아 가겠다고 위협하노라.”

“내 여주인이 큰 시련에 처해 계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노라. 그녀를 보호할 기사가 없기 때문이니라. 그녀를 보호해야 할 자들 모두, 그녀를 구하려는 그 영주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여 이 시련의 때에 모두 그녀를 버렸기 때문이니라.”

“정녕 이는 슬픈 이야기라, 내가 듣기에,” 에워인 경이 이르되, “실로 나는 내 능력껏 너의 부인을 돕겠노라. 그분은 나에게 지극히 자비로우셨으니.”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며 두 사람은 성에 가까워졌고, 성의 부인은 멀리서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자신이 구원하라고 보낸 부상자와 그 처녀가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들이 그녀에게 다다르자, 부인은 처녀에게 물으시되 "내가 네게 말한 대로 그 연고를 사용하였느냐?" 하시니, 처녀가 대답하되 "그렇사옵니다." 부인이 다시 묻시되 "얼마나 사용하였느냐?" 하시니, 처녀가 대답하되 "모두 사용하였나이다."

〈각주: 성의 부인은 처녀에게 모욕감을 느끼셨다.〉

이때 그 낭자는 이 처녀가 그 연고를 단번에 모두 에인 경에게 부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하여 노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이를 쉽게 용서하지 못하노라. 네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낯선 자, 곧 존귀한 기사의 기색조차 보이지 않는 자에게 수 십 파운드나 되는 귀한 연고를 낭비하였음이니라."

그 처녀가 이에 대답하여 이르되 "부인, 이 일을 인하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이방인이 부인이 그 위에 붓을 수 있는 그 어떤 연고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아옵소서"

이 말을 들은 부인은 크게 놀라 이르되, "너의 말대로 그토록 큰 가치를 지닌 이는 누구인가?" 하니, 처녀가 대답하여 이르되, "부인, 그 분은 아서왕의 조카요 원탁의 기사인 에웨인 경이시라."

〈각주: 호수의 부인이 에인 경을 환영하시니라.〉

그때 성의 부인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듣는 말이 참인가?"

케이 경이 대답하되 "소인입니다, 부인."

그리하여 성의 부인이 케이 경에게로 나아가 그의 손을 잡고 이르되. “환영하노라, 케이 경! 이제 이 땅에 이르러 너와 같은 명성을 떨친 기사에게 구원과 원조를 베풀게 된 것은 우리게 큰 영예니라.”

“부인,” 에웨인 경이 이르되, “저를 저의 가치보다 훨씬 높게 존중하시니, 이는 저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지게 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저로서는 부인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를 어느 정도 갚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오니, 이 처녀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부인이 이 곳에서 마땅히 필요로 하시는 기사-투사가 있음을 알았사오니, 부인을 도울 수 있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기를 바라며, 저를 그 투사로 삼아 주시기를 청하노라.”

이때 그 부인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하며 이르되, “영주여, 저는 당신의 챔피언십 제안을 모든 감사와 많은 자부심으로 받아들이노라. 진실로 이 세상 어딘가에서 당신처럼 오만하고 강대한 챔피언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리라 믿노라.”

이리하여 에워인 경은 그 과부 영주의 성에서 오랜 세월을 지냈으며, 그의 상처가 완전히 낫기까지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였노라. 날이 갈수록 그의 몸은 더욱 단단해지고 외모는 더욱 고결해져, 성 안의 모든 이들이 그를 자신들의 수호자로 모심에 큰 자부심을 느꼈더라.

이때 그 성에, 낭자가 에웨인 경에게 말한 바 있는 그 악의적인 영주가 찾아왔으니, 그는 다른 여섯 명의 기사들을 거느리고 왔더라. 일곱 명의 기사들은 모두 성문 앞에 천막을 치고 장막을 쳤다. 그들은 성 안의 자들을 조롱하며, 그 누구든 성 밖으로 나오기를 감히 도전하였으

니, 그들은 에웨인 경이 성의 수호자로서 그곳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에 에워인 경이 성의 사람들이 그 기사에게 조롱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자 크게 노하여, 곧 준비를 갖추어 그 부인이 마련해 주신 화려한 갑주를 입었노라. 그리고 말에 올라 모든 준비를 갖추었으므로, 성문 빗장을 올리고 인도를 내리라고 명하였노라.

그리하여 그는 성을 떠나 나갔는데, 그의 말이 인도 판자를 밟을 때마다 우레와 같은 굉음을 울리며 달렸노라. 성의 모든 사람들은 성벽 위로 모여들었고, 그들이 그를 그와 같이 지나가는 것을 보자, 그들의 부인을 지키기 위해 such 한 기사가 나왔음을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니라.

〈각주: _에웨인 경이 성의 부인을 위해 싸우니라._〉

그러나 성의 여주인을 구원하기 위해 단 한 명의 기사가 출전하는 것을 본, 성을 공격하러 온 기사들과 그 동료들은 크게 놀랐고, 도대체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곧이어 그는 에웨인 경을 만나기 위해 말을 몰아 나갔으며, 그에게 물었다.

"기사여, 당신은 누구이신가?"

에웨인 경이 이르되, "나는 이 성의 여주인의 대리인이며, 그녀의 명을 받아 싸우기 위해 나섰노라."

그때 그 영주가 물으니, 에웨인 경은 큰 자만과 거만함을 담아 다음과 같이 대답하되, “내가 지금 내 신분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나니, 다만 당신보다 내 신분이 더 높고 더 큰 명성을 지녔음을 확신하시오.”

그 기사들이 이르되, “우리가 일곱 명인데, 그대 혼자 우리 모두와 싸우려 하는가?”

에웨인 경이 이르되, “그렇사오.”

그 기사들이 이르되, “그대는 매우 어리석도다. 그러나 그러하리라.”

이에 에웨인 경은 조금 물러나 모든 준비를 갖추어 싸움을 대비하더라. 그 사이 그와 대결을 약속한 기사는 자신의 편으로 물러가, 그 편을 대표하는 기사의 하나에게 이르되, “너는 저 자와 맞서라.” 그리하여 그 편을 대표하던 기사가 이에 나아갔더라.

이때 그 기사는 그가 거하던 그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힘센 기사였더라. 그는 몸집이 매우 장대하고 팔다리가 굵었으며, 전장에서 이룩한 공적이 지극히 컸기에 그는 상대를 쉽게 쓰러뜨릴 수 있으리라 확신하였노라. 이에 그는 매우 자부심 가득히 무장을 갖추며, 큰 자신감으로 그 자리에 섰더라. 모든 준비를 갖추었을 때, 그는 크게 외치며 그의 말을 에웨인 경의 말에 들이받았으니, 그는 적을 쓰러뜨리리라 기대하며 그렇게 하였노라.

그 두 사람은 천둥처럼 서로 돌진하여, 길의 정중앙에서 격렬하게 부딪쳤다. 그 충돌의 굉음에 귀기울이던 자들은 그 소리에 놀라 경악하

더라. 그 격돌에서 악한 영주의 편에 섰던 그 기사의 창은 산산조각 나 버렸으나, 에웨인 경의 창은 견고하게 버티며 상대를 거세게 땅바닥에 던져 넣었으니, 그는 기절하여 온전히 생기도 움직임도 잃고 누워 있었더라.

〈각주: 에웨인 경이 그 부인의 적들을 물리친 일.〉

그때 그 무리의 다른 기사들이 자기의 대장이 얼마나 격렬하게 땅에 쓰러졌는지를 보았을 때, 모두 그 충돌의 결과에 대해 크게 놀라움에 빠졌더라.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지역 전체에 그 대장만큼 강한 기사가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러자 그들은 분노로 가득 차었고, 창을 받침에 내려놓은 채 일제히 에웨인 경을 향해 돌진하여, 숫자의 힘과 금속의 위력으로 그를 쓰러뜨린 뒤, 기수에서 떨어뜨린 후에는 그를 죽이려 하였노라.

그러나 에웨인 경은 그들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큰 기교와 재주로 말의 방향을 급히 돌려, 일렬로 몰려오는 자들을 한 무리에서 분리해 내었노라. 그러자 그는 갑자기 다시 방향을 돌려, 그들이 공격에 대비하기도 전에 한 기사를 쓰러뜨리고 또 다른 기사를 쓰러뜨리며, 끝내 그들을 공격하던 자들 중 셋만 남게 하였노라. 이때 나머지 자들은 에웨인 경이 가하는 가혹한 타격에 대해 큰 공포에 사로잡혔으므로, 더 이상의 전투 없이 세 명 모두 돌아서서 도망쳤노라.

그러나 에웨인 경은 큰 분노로 그들을 계속 추격하여, 도망치는 자 중 한 명에 가까이 다가가 그를 말에서 쓰러뜨렸노라. 또 다른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또한 그를 쓰러뜨렸노라. 마지막으로 그는 그 부인의 원

수였던 그 영주를 따라잡았고, 그의 칼로 그를 심하게 타격하여, 에웨인 경이 그가 떨어지기 전에 그를 잡지 않았다면 그는 말에서 떨어졌을 것이었노라. 그러자 에웨인 경은 그 기사를 안장에서 끌어내어, 자신의 안장 앞에 있는 안장 고리에 걸쳐 놓았노라.

이와 같이 일곱 명의 기사를 모두 쓰러뜨린 후, 그는 그 악한 영주를 안장 고리에 눕힌 채 다시 성으로 돌아왔노라.

그때 성곽 위에 서 있던 자들은 그들의 시위가 놀라운 싸움을 벌이는 것을 보고, 그의 무용에 경외감을 금치 못하며 적들을 물리친 그들의 시위의 승리를 기뻐하여 큰 소리로 환호하였더라. 이에 에웨인 경은 그 환호성과 찬사 가운데로 성 안으로 들어왔노라.

그가 성의 안뜰을 내려다보는 발코니에 서 있던 부인에게 다다랐을 때, 그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이르되, "부인이여, 보소서! 저는 저의 생명을 되찾아 주신 그 축복의 연고에 대한 대가로, 부인의 적을 부인에게 돌려보내었나이다."

〈각주: 성의 부인이 에인 경에게 찬사를 보내니라.〉

그때 성의 부인은 기쁨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더라. 이에 그녀는 자신이 있던 곳으로부터 내려와 에웨인 경의 손을 잡고 그것을 여러 번 입맞추었노라. 그리고 그녀는 에웨인 경을 자신의 구원자라 부르며 칭송하였으나, 에웨인 경은 큰 당혹감 속에 그의 손을 빼앗으며 이르되, "부인, 그러지 마옵소서. 내가 불명예스러운 일을 저질렀음을 아옵소

서. 비록 내가 그 악행을 무심코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가 행한 일로 인해 나는 이미 죄인이 되었사오니이다."

그때 부인이 이르되, "경이 결코 불명예스러운 자가 되었으리라고는 믿지 않사오니, 경이 항상 이 성에 머무르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에워네 경은 미소 지으며 이르되, "그 소원을 들어주어 주셔서 감사하노라.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으니,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 봉사하고 당신의 적을 당신에게로 데려와 당신의 뜻대로 처리하게 하였으니, 내일 나는 다시 나의 길을 떠날지니라."

이에 에와인 경은 포로가 된 기사의 몸을 안장 고리에서 내려 호수의 부인의 손에 맡겼으며, 그 후 악한 기사는 선량한 행위를 다짐하는 여러 가지 보장과 인질에 묶여, 그 때부터 그의 생을 마치기까지 그 부인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아니하더라.

* * * * *

〈각주: _에웨인 경은 순례자로서 성채를 떠난다._〉

다음 날이 밝자 에웨인 경은 성의 부인 앞에 나타나,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을 다시 거두어 주시고, 그 대신 순례자의 복장을 갖추어 주시기를 간청하더라. 이에 그 부인은 그의 청을 들어주어 갑옷을 거두어 주었고, 에웨인 경은 순례자의 옷차림을 갖추어 성채를 떠나니라.

그리고 에웨인 경은 몇 주 동안 순례자처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노라. 많은 여정을 겪은 끝에 그는 마침내 호수의 부인이 거하던 그 계

곡에 다다랐노라. 그의 마음은 언제나 그곳을 향하여 그를 이끌었으며, 그 결과 마침내 그는 다시금 그 마을과 성을 목격하게 되었노라. 그리고 그가 그 곳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겪었던 선과 악의 모든 일을 회상할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모든 것이 물결치는 물결처럼 흐릿하게 보였노라.

〈각주: 에웨인 경이 분수의 성으로 돌아오니라.〉

그 후 랜슬롯 경은 조금씩 그 분수의 성으로 향하여 갔더라. 그가 성에 다다르자, 작은 문을 두드리며 성주에게서 그 성의 부인을 만나고자 하는 간청을 하였노라. 그러자 곧 그가 성의 부인이 있는 방으로 인도되니, 그곳에는 에로즈와 그녀의 궁중 처녀들 몇 명이 함께 있었더라.

이때 에커 경이 입었던 망토의 모자와 순례자의 모자가 그의 얼굴을 그토록 가렸으므로, 거기에 있던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더라. 이에 레솔리 부인은 그를 낯선 이라고 여기고 이르되, “경이여, 나를 원하는 바가 무엇이뇨?” 하니, 에커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인, 저는 경이 알지 못하게도 경에게 큰 상처를 입힌 자로부터의 전언을 전하러 왔나이다.”

이때 그 부인이 매우 격렬하게 외치니라. “경이여, 만약 경이 그 배반자 기사 에웨인 경에게서 왔다면, 경을 이리로 보낸 자에게 다시 돌아가라.” 이에 에웨인 경이 이르되, “부인이시여, 나는 그에게 돌아갈 수 없나이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을 들은 레솔리 부인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잠시 동안 그녀는 입을 열지 못하더라. 그러고 나서 잠시 후 그녀가 이르되, "그가 그에게서 불길한 소식을 전하는가?" 하고, 에웨인 경이 이르되, "그대가 그 소식에 대해 불길하다고 여기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노라. 하지만 얼마 전 그 불운한 기사가 호숫가에 있는 공원에서 죽어 누워 있는 것을 보았노라."

이에 분수의 부인이 손수건을 입술에 대고 비명이라도 지르려 함을 억누르더니, 잠시 후 이르되 "선한 경이여, 경이 아는 바를 내게 말하라" 하거늘, 에웨인 경이 이르되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하고는 이같이 말하더라.

"너희가 알지니, 에웨인 경이 이 궁정을 떠나 아서왕의 궁정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 마법사 비비엔을 만나 그녀가 주는 망각의 반지를 받았노라. 이로써 그는 이 궁정에서 겪었던 모든 일을 잊어버렸노라. 그 후 이 땅에서 온 한 젊은 낭자가 나타나, 그가 아서왕의 궁정에 있던 모든 동료들 앞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였노라. 이 낭자가 그와 같이 한 것은, 에웨인 경이 경에게 불충실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노라. 그러나 그는 불충실한 자가 아니었으니, 그로 인해 부당하게 치욕을 당하였노라. 이제 아서왕의 모든 궁정 앞에서 이와 같이 치욕을 당한 후, 이 슬픈 기사는 친구들로부터 떠나갔노라. 그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수치심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노라. 그리하여 그는 모든 친구들을 버리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노라. 그 여행 중 도적들에게 부딪혔고, 이들은 무장하지 않은 그를 발견하고 그가 잠든 사이 그를 결박하여 재산을 빼앗고 치명상을 입혔노라. 이로 인해 내가 그 길을 따라가던 중, 창에 관

통당하여 그 상처로 죽어가며 길가에 누워 있는 그를 보았노라. 그리하여 내가 이 곳에 와 이 이야기를 전하러 왔노라."

이때 물의 부인이 그 순례자의 말을 듣자, 큰 비명 소리와 함께 기절하여 곧장 땅에 쓰러지더라.

이에 그녀의 시녀 여러 명이 달려가 그녀를 돌보았고, 잠시 후 그녀는 기절했던 의식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기운을 차린 그녀가 곧바로 두 손을 치켜들며 영혼의 극심한 비통함 속에서 큰 소리로 통곡하더라. "불쌍한 내가여, 내가 그 고결하고 값진 기사의 명예를 의심했도다. 이제 내가 그를 믿지 못했던 탓에, 나는 그를 영원히 잃었음을 깨닫노라. 세상에 태어난 모든 기사 중 가장 훌륭하고 가장 충실한 기사가, 바로 이토록 죽었노라."

이렇게 말한 후 그녀는 크게 울부짖었고, 에로즈도 함께 울며 그녀를 위로하려 애썼으나 그 부인은 위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 이때 에웨인 경이 이르되, "부인, 당신은 아직 이 기사에 대해 이처럼 깊은 정을 품고 있나이까?"

그러자 레졸리 부인은 큰 열정을 담아 대답하되, "그렇도다, 진실로 그렇노라. 그리고 나는 항상 그러할 것이니, 생각건대 이 세상에 그와 같은 또 다른 기사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노라."

〈각주: _분수의 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에인 경._〉

이에 에와인 경이 이르되 "부인, 나의 말을 잘못 이해하셨나이다. 에와인 경은 죽지 아니하였으며, 원하신다면 그를 다시 여기로 모셔오기

쉬우리이다." 그녀가 이르되 "어찌 그대를 아느냐?" 하니, 에와인 경이 곧 모자를 벗어 던지고 모자를 내려놓으며 이르되 "부인, 바로 나요. 만일 내가 이 일에 있어 당신을 속였사온즉, 그것은 다시금 나의 귀한 얼굴을 뵈옵고자 함이니이다. 아, 그 얼굴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간절히 사모하는 바요."

이렇게 말하며 에와인 경은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무릎을 안았더라. 그녀도 몸을 굽혀 그의 머리를 안으며, 두 사람은 사랑과 기쁨의 깊은 정열로 함께 울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였더라.

그 화해에는 큰 기쁨이 따랐으니, 이는 성채의 모든 이가 분수를 지키는 용사의 귀환을 기뻐하여 낮에는 비단 스카프와 깃발로 성채를 치장하고 밤에는 등불로 밝게 비췄기 때문이라. 분수의 성에서는 연회가 열리고 술이 흐르며, 일곱 날 동안 날마다 투기가 열렸노라. 그 투기에서 분수의 궁정 기사들은 에웨인 경의 지휘 아래 자신들의 기사도를 지켰으니, 그들의 기량과 용감함이 지극하여 그들과 맞서 온 자들 중 그들을 막아낼 자가 없었노라. 오히려 모든 경쟁 기사단들은 패배하여, 분수의 부인 레솔리의 위대한 영광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쁨이 일곱 날 동안 계속되매, 에커 경은 그 모든 화려한 치장을 갖추어 분수의 부인과 결혼하였노라. 이러한 혼인의 일은 이 사연의 기록에 다음과 같이 남기되, 에커 경과 레졸리 부인이 흰 우유빛 말들을 타고 대성당으로 나아가셨더라. 그들은 모두 흰 사미트 천으로 만든 옷을 입었으며, 그 옷에는 은으로 자수가 놓이고 온갖 보석들이 박

혀 있어, 햇빛 아래서 두 분의 모습이 살아 있는 불꽃 두 상처럼 빛나고 빛나더라. 또한 기록되기를, 놀라운 미모를 지닌 수십 명의 처녀들이 모두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앞길을 나서서 길 위에 꽃을 뿌리며, 큰 기쁨의 노래를 부르더라.

이와 같이 에웨인 경은 분수의 성에서 혼인을 맺었고, 그 후로 그는 분수의 땅에서 큰 평안과 깊은 만족 가운데 거하였더라.

에워인 경은 그 분수를 수호하되, 예전과 다름없이 굳건히 지켰노라. 이로써 분수의 기사라는 명성은 온 나라 사방팔방에 퍼졌으며, 기사도의 모든 궁전과 법정에까지 그 이름이 울려 퍼졌더라.

많은 기사들이 분수의 모험에 뛰어들었으나, 그들 모두는 분수의 기사의 용맹과 기예 앞에 쓰러지고 말았노라. 그리고 그 모험의 기사가 이렇게 패배한 곳마다, 분수의 기사는 그에게서 말과 방패를 빼앗아, 무장 해제되고 부끄러움을 안은 채 발로 돌아가도록 내보냈더라.

이러므로 분수(Fountain)의 기사 그 분의 무용을 인하여, 세월이 흐르매 그 성곽에는 매우 고귀하고 장엄한 기사의 궁정이 정립되었노라. 그리하여 분수의 궁정은 기사도가 이 땅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는 오늘날까지도, 기사도의 사적(史蹟)에 전해 내려온 그 명성을 지니고 있더라.

* * * * *

이러한 것이 랜슬롯 경을 찾던 중, 샘물의 모험을 떠났던 에웨인 경의 이야기라. 이제 만약 당신이 더 읽기를 원한다면, 퍼시벌 경과 사그

모어 경이 어떻게 기쁨의 섬에서 랜슬롯 경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랜슬롯 경이 다시 한 번 자신의 친구들 곁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해 들을 수 있으리라.

[그림]

제육편

랜슬롯 경의 귀환

이제 호수의 랜슬롯 경의 그 이후 이야기, 곧 펠리노어 경과 에커 데 마리스 경이 어떻게 기쁨의 섬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내던(비록 완전한 만족은 없었으나) 랜슬롯 경을 찾아냈는지, 그리고 랜슬롯 경과 펠리노어 경 사이의 명백한 무술의 대결, 그리고 아름다운 엘레인과 함께 펠리노어 경과 에커 데 마리스 경을 따라 아서왕의 궁정으로 귀환하게 된 사연을 전하노라. 또한 너희는 앞서 언급된 분수의 계곡에서 그 고귀한 일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서 읽으리라.

이 모든 역사는 내가 이를 기록함에 있어 큰 기쁨을 느꼈던 바와 같으니, 만일 독자가 이를 읽음으로써 또한 이와 같은 기쁨을 얻는다면, 나는 앞서 말한 여러 사건들을 적절히 드러내려 기울인 나의 노력이 무척 만족스러우리라.

[일러스트레이션: 라모락 경과 퍼시벌 경이 어머니의 축복을 받는 모습:]

[일러스트레이션]

제1장

퍼시벌이 그의 형제를 만나고, 두 사람이 어머니가 거처하는 수도원으로 함께 여행하며 그 후에 일어난 일들

이제 우리는 에커 경이 남기고 간 펠리노어 경과 사그모어 경에게로 돌아가노라. 두 분은 우리가 새벽이 밝기 전, 곧 여명의 빛이 스며들기 전에 그 성을 떠나 분수의 모험을 떠났을 때, 여전히 그 성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더라.

〈각주: 퍼시벌 경과 사그모어 경이 함께 떠나다.〉

두 선량한 기사들이 눈을 뜨고 에커 경이 이미 떠난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퍼시벌 경의 침전 안에서 서로 의논하더라. 그리고 그들은 이후로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랜슬롯 경을 찾아 계속되는 여정에서도 서로 동료로서 함께 길을 떠나라고 결의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성주의 작별 인사를 받고 길을 떠났으니, 그들은 매우 쾌활하게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걸어가며, 밝고 경쾌한 날씨와 모든 달콤한 신선함과 봄날의 온기가 그들을 에워싸는 것을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무기의 동지로서 일 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여행하였노라.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여러 가지의 기이한 모험을 겪었는데, 그 중 일부는 기사도 서적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일부는 기록되지도 아니하였노라.

내가 그들에게 닥친 그 모든 모험들을 다시금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나는 그것을 다할 수 없노라. 그들의 여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록하려면 이 책과 맞먹는 또 다른 책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건대, 그들이 겪은 그 모험들 속에서 그들은 다양한 신분과 처지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었노라. 고귀한 자들이 있기도 하고 평범한 자들이 있기도 하였노라. 또한 여러 차례 그들은 원탁의 기사들 중 일부와 조우하였노라.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말하건대, 그들은 가웨인 경과 보르스 드 가니스 경을 만나었노라. 이 만남에 대해서는 곧 더 자세히 이야기하리라.

〈각주: 그들이 여행하는 방식에 대하여.〉

그들이 여행 중 그들을 어떻게 숙식하였는지 묻는다면, 나는 그들이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그들을 맞이하였다고 말하리라. 만약 어떤 때에는 그들이 케이 경과 퍼시벌 경이 사그모어 경을 만난 그와 같은 고귀한 성에서 그들을 머물게 하였더라면, 또 다른 때에는 그들이 황야의 외로운 목동의 초막에서 피난처를 찾았을 것이며, 또 다른 때에는 그들은 아예 피난처조차 얻지 못하여, 각각 자신의 망토로 몸을 감싸고 침대 대신 차가운 정직한 땅 위에 누우며, 이불 대신 고요히 그들을 지켜보는 하느님의 하늘과 그 위에 흩뿌려진 무수히 빛나는 별들만을 덮개로 삼았으리라.

그때의 선량한 기사들은 이렇게 방랑의 길을 걸었노라. 그들에게 닥친 모든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찾아온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니라.

만약 당신이 그들이 어떤 날씨에 여행했는지 묻는다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떠한 날씨에도 만족하였다고 말하리라. 날씨가 화창하여, 그들이 여행을 시작한 첫날과 같이, 그들의 발걸음은 매우 기쁘게 언덕을 오르내렸으니, 해가 비추든 그늘이 드리우든 그 때의 형편에 따라 그러하였노라. 그러나 날씨가 악하여지면, 그들은 하늘이 그들에게 피할 곳을 제공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머물렀으니, 폭풍이 지나가고 사라질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렸기 때문이니라.

이는 진실한 바, 혹독한 겨울 날씨라 할지라도 낙관적인 마음을 식힐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북풍이 거세게 울부짖고, 내리는 눈이 얼어붙은 흰 옷으로 대지를 덮을 때, 이 두 위대한 기사들은 길가의 여관에 묵기를 기뻐하더라.

그곳에서 그들은 격렬하게 타오르는 난로 곁에서 몸을 녹일 수 있었으니, 불꽃의 붉은 빛이 여러 곳에서 그들의 광택 나는 갑옷 판금에 반짝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난로의 열기 속에서 위로를 얻고, 폭풍이 창문을 두드리고 북치는 소리를 들으며, 집의 지붕과 처마를 가로지르는 바람이 포효하고 천둥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때, 그들은 또한 이웃 마을의 선량한 백성들과 함께 큰 즐거움을 누렸으니, 그들은 모두 따뜻한 향신주 양조병을 둘러싸고 모여 앉아 있었더라. 그 양조병 안에는 구운 작은 사과들이 떠다니고 있었고, 사람들은 즐거운 노래를 부르

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로 거침없이 농담을 던지며 웃음을 터뜨렸더라. 이러한 모습들은 귀를 기울여 듣는 두 명의 기사들에게 훌륭한 오락거리가 되었더라.

이와 같이 두 명의 훌륭한 기사들이 함께 여정을 떠났던 그 상당한 기간 동안, 그들이 어떤 여러 방면으로 여행했는지 이제 너는 알 수 있느니라.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데에 큰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이니라.

* * * * *

〈각주: 퍼시벌 경과 사그모어 경이 아름다운 계곡에 이르러라.〉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우정을 다지며 함께 지내온 지 일 년,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지난 어느 날, 우연히 한 곳에 이르렀더라. 그곳에서는 숲이 그치고, 매우 아름다운 계곡이 시작되었으니, 거기는 매끄럽고 빛나는 강이 리본처럼 길게 감겨 흐르고 있었더라. 그들은 그 계곡의 상류에 앉아 잠시 동안 그 아래를 내려다보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 계곡이 지극히 아름다우며 비옥하므로 큰 기쁨을 느끼며 바라보았더라.

그곳에는 여러 초원이 있어 푸른 빛으로 미소 짓고 있었고, 많은 곡식 밭이 자라고 있었더라. 그 밭들과 초원은 점점 높아져 하늘과 맞닿는 듯하였으니, 그 평탄함은 날카로운 예리한 칼날로 깎아낸 듯 비옥함이 가득하더라. 강가에는 갈대와 부들, 그리고 전지한 버들과 자작나무와 포플러의 덤불이 있었고, 넓은 고도가 그 강줄기를 따라 이어졌더

라. 또한 계곡에는 여러 방앗간이 있고, 나무가 무성한 넓은 연못들이 있어 그 강가에는 가옥들이 모여 있었더라.

바람은 언제나 부드럽고 일정하게 불어왔으며, 지극히 상쾌하고 따뜻하더라. 그리고 크고 동그란 흰 구름들이 밝은 푸른 하늘의 높은 아치 위를 천천히 이동하였더라.

이 모든 것을 퍼시벌 경과 사그모어 경이 목격하였으며, 그들은 이로 인해 큰 기쁨을 얻었노라. 나도 또한 그들이 보았던 것에서 큰 기쁨을 얻었으므로, 이를 말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서술하였을진대, 그 점을 용서하기를 청하노라. 나는 기사의 의리와 기사적 과감함에 관한 역사를 기록하는 자이므로.

이 두 위대한 이들이 숲 가장자리에 솟은 고지의 한가운데에 앉아, 그 아래로 펼쳐진 계곡을 끝없이 바라보았노라. 계곡은 마치 그들 앞의 탁자 위에 펼쳐진 듯이 한눈에 들어왔더라. 그들이 충분히 그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한 뒤, 그들은 즐거운 사색에서 벗어나 그 계곡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였으니, 그들은 빛나는 강가 옆을 따라 말을 몰고 내려갔더라.

그들이 대로(Highway)를 따라 나아가다가, 곧 높은 아치형의 돌다리가 강을 가로지르는 곳에 이르렀다. 그 곳에는 여러 채의 하얀 벽돌집이 서 있었는데, 큰 그늘진 나무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고, 집들의 벽은 매끄럽고 고요히 흐르는 강가의 끝자락에 닿아 있었다. 이 곳 근처에는 방앗간이 있었고, 넓은 면적의 밝은 물이 펼쳐져 있었는

데, 그 물 위를 swifts(제비)들이 수없이 오가며 날아다녔다. 그 swifts들은 마치 6월의 따뜻한 날 벌집 주위를 날아다니는 벌들처럼 보였다.

〈각주: _퍼시벌 경과 사그모어 경이 다리에서 한 기사와 조우하다._〉

이때 세이모어 경과 퍼시벌 경이 앞서 말한 다리에 다가가 그것을 건너려 할 때, 그들은 다리의 다른 끝에서 자신들을 향해 오는 또 다른 기사가 있음을 곧 깨달았노라.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자 그 또한 앞으로 나아왔으므로, 세 사람이 다리 한가운데서 마주칠 것이 분명하였더라.

그들이 바라보니 그 기사는 석탄처럼 검은 큰 플랑드르마를 타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매우 고결하고 거만하여, 두 명인 자신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두려움을 보이지 않더라. 비록 그가 한 명이고 자신들이 두 명이라 할지라도, 그는 언제나 매우 담대하게, 그리고 큰 기개로 앞으로 나아갔노라. 비록 그것이 그로 하여금 길 한가운데서 자신들을 마주치게 한다 할지라도 말이라.

그 기사의 방패나 갑옷에는 어떠한 문장도 새겨져 있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정체를 숨기고 여행하려 함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그의 용모를 바라봄에 그가 강인하고 거구이며 매우 건장함을 보았더라.

〈각주: 사그모어 경이 다리의 기사와 말을 교환한다.〉

그들이 서로 가까이 다가가자 사그모어 경은 그 기사에게 말하였다. "기사여, 어찌하여 이렇게 대담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느냐? 당신 한 사람이 우리 둘과 맞서 이 다리의 통행을 다투려 하느냐?"

이에 상대자가 이르되, "경, 감히 경과 논쟁을 벌이려 함은 아니로소이다. 그러나 경께서도 아시거니와, 참된 기사도의 용기를 지닌 자라면 피하거나 길을 비켜주는 것은 마땅치 않사오며, 경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은 둘이고 나는 하나이므로, 만일 내가 이 만남을 피한다면 경께서 나의 용기를 의심하시리이다. 그러므로 경께서 나를 위해 길을 비켜주시는 것이 더 나으리라. 경께서는 두려움의 오해를 받지 않을 것이나, 내가 경에게 길을 비켜준다면 나의 순수한 기사도의 고결함을 손상하게 될 것이오."

이에 사그모어 경이 이르되 "기사여, 우리 둘이 한 사람을 상대할 필요는 없노라. 내 동료가 다리의 저편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둘이 서로 겨루어 보자. 그리하여 진실로 이 다리를 먼저 건너갈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도록 하라."

"그렇구려," 낯선 기사께서 이르시되, "이 일은 나의 뜻과 부합하도다. 그러므로 네 말대로 하라."

이와 같이 결정되자, 퍼시벌 경은 그의 편에서 다리를 떠나 물러났고, 두 경쟁 기사들은 각각 전투를 준비하더라. 각자 자신의 위치를 선택하고, 모든 준비를 갖추었을 때, 그들은 말에 채찍을 가하며 공격을 외치며 다리의 공간을 가로질러 돌진하더라. 먼지 구름 속에서, 다리의 도로 위에서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며 서로 충돌하더라.

〈각주: 기이한 기사가 사그모어 경을 쓰러뜨리니라.〉

그들이 다리 한가운데서 마주쳤을 때, 그 충돌은 한 파롱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만한 굉음을 냈다. 그 격돌에서 사그모어 경의 창은 산산조각이 났으나, 다른 기사의 창은 견고하게 버텨내어 사그모어 경은 말의 안장 뒤쪽을 넘어 거세게 날아갔다. 그는 떨어지는 갑옷의 굉음과 함께 땅바닥에 부딪쳤고, 마치 죽은 자처럼 그곳에 누워 있었다.

이때 퍼시벌 경은 강대한 기사 사그모어 경이 이처럼 쓰러진 것을 보고 크게 놀라, 서둘러 자신의 동료가 땅에 누워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퍼시벌 경은 말에서 뛰어내려 친구의 곁으로 다가가 보니,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격렬한 낙하의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곧이어 사그모어 경이 몸을 움직이며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고, 잠시 후 퍼시벌 경은 그를 일으켜 세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였노라. 비록 사그모어 경의 머리는 깃털처럼 가볍고, 물이 흐르듯 어지러웠으나.

이때 다른 한 기사는 퍼시벌 경이 무엇을 하려는지 매우 단호하게 지켜보고 있었더라. 그러므로 그가 자신을 넘어뜨린 그 기사가 별다른 해를 입지 않았음을 보자, 그는 퍼시벌 경에게 이르되, "기사여,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이 다리의 통행권을 두고 저와 논쟁하려 하십니까?"

"경," 퍼시벌 경이 이르시되, "내가 경을 평안히 지나가게 하고자 하였노라. 그러나 경이 이미 전투를 원하든 원치 않든 내게 기회를 주었으니, 보라, 이제 내게 선택의 여지는 없노라. 나는 반드시 이 기사의

원수를 갚아야 하노라. 그러므로 경은 준비를 갖추라. 내가 그의 쓰러짐에 대한 보복을 경에게 행하리라."

이때 퍼시벌 경은 사그모어 경을 말에서 내려지게 하고 다리를 비웠다. 그 후 그는 자신의 말에 올라타 자신이 감행하려던 돌격을 준비하였더라.

그가 모든 준비를 갖추어 적 역시 태세를 갖춤을 깨닫자, 돌격을 외치며 곧장 돌진하였더라.

〈각주: 퍼시벌 경과 기묘한 기사가 함께 싸우니라.〉

이에 다시 그 두 기사는 다리 중앙에서 격렬하게 충돌하였으니, 각자의 창이 끝자루까지 산산조각 날 지경이었다. 서로의 돌격을 견디지 못해 곧장 땅에 떨어질 뻔하였으나, 각자는 발굽과 안장 고삐를 사용하여 기마를 다시 일어서게 하였노라.

이에 더 이상 싸울 창이 없게 된 두 기사는 안장에서 내려와 각각 검을 뽑아 다시 싸울 태세를 갖추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도보로 서로 돌격하여, 곧이어 서로에게 가하는 격렬한 타격이 먼 곳과 가까운 곳 모두에서 메아리칠 정도로 울려 퍼졌노라.

그리하여 그들은 오랫동안 격렬하게 싸웠으나, 그 동안 어느 쪽도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퍼시벌 경은 날이 갈수록 자신의 적수가 지닌 담력과 무용에 점점 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니, 이는 호수의 랜슬롯 경을 제외하고는 그 땅

에 있는 그 누구도 자신의 돌격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요, 오직 자신의 형제인 라모락 경만이 예외라 믿었기 때문이라.

이에 퍼시벌 경은 싸움을 멈추고 외쳤노라. "멈추시오, 기사여!" 이에 그도 그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격을 그치고, 자신의 검에 기대어 섰으니, 그가 치열하게 싸운 탓에 숨이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더라.

이에 퍼시벌 경이 이르되 “영주여, 실로 당신은 매우 놀라운 싸움을 벌이시나이다. 나는 이 땅의 어느 기사가 나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노라. 호수의 랜슬롯 경이나 내 형제인 웨일스의 라모락 경 외에는.”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크게 의아하오이다. 이제 청컨대 말씀하시오. 당신이 호수의 랜슬롯 경이시오며, 아니면 내 형제 라모락 경이시오며?”

〈각주: _라모락 경과 퍼시벌이 자신을 드러내다._〉

이때 퍼시벌 경이 이같이 말하매, 다른 한 기사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무슨 소리를 하는고! 무슨 소리를 하는고! 감히 감히 가iles의 랄로락 경과 형제라 주장하는 자는 누구냐? 나 스스로가 가iles의 랄로락 경이니, 만일 네가 나의 형제라면 너는 그 선량하고 존귀한 기사이자 퍼시벌 경 외에는 다른 이가 될 수 없노라.”

그때 퍼시벌 경이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바로 퍼시벌 경이로소이다!” 하고는 즉시 투구의 차양을 들어 올려 그의 얼굴을 드러내었더라. 또한 랄라머록 경 또한 그러하였으니, 그가 바로 그 다른 기사였기 때

문이라. 랄라머록 경 또한 투구의 차양을 들어 올려 그의 얼굴을 드러내었더라.

이때 퍼시벌 경은 형제의 얼굴을 보고, 자신이 싸워 온 상대가 바로 그 형제임을 깨닫고 크게 외쳤노라. “내 형제여! 내 형제여! 내가 싸워 온 자가 바로 당신인가!” 랄로랙 경 또한 “내 형제여! 내 형제여!”라고 외치며, 서로 달려가 품에 안겼노라. 두 형제는 큰 정성을 다해 서로의 뺨에 입을 맞추었더라.

이에 랜슬롯 경이 이르되, “형제여, 내가 방금 우연히 쓰러뜨린 그 기사는 누구였나이까?” 하니 퍼시벌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그모어 경이옵니다.”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내가 그를 습격하여 상해까지 입혔다니 이는 큰 한이로다. 이제 그가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하자.”

〈각주: 랄로락 경은 사그모어 경을 아는지라.〉

이때 두 사람은 사그모어 경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갔더라. 그들이 도착하였을 때, 사그모어 경은 그 낙마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노라.

사그모어 경이 자신이 격돌하였던 상대가 바로 라모락 경임을 듣자, 그는 큰 놀라움의 탄식을 터뜨리며 이르되,

“하! 내가 당한 그 낙마와 같은 불운을 겪은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도다. 내가 격돌하였던 상대가 바로 너, 라모락 경이었음을 알았으니 말이다.”

그 후 세 사람은 친교로운 대화를 나누었더라.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퍼시벌 경이 랄로락 경에게 이르되, “형제여, 당신은 어디로 가시오?” 랄로락 경이 대답하되, “나는 성 브리지트의 수도원을 찾아 우리 어머니를 뵈러 가노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 형제가 어머니를 뵙지 못한 지가 이미 삼 년이 되었노라.” 퍼시벌 경이 이르되, “형제여, 당신의 말씀이 옳소이다. 우리 어머니를 뵙지 못한 지가 이렇게나 길었음을 나는 크게 부끄러워하노라. 이제 나는 당신과 함께 이 일을 수행하고자 하오니, 나의 동료인 사그모어 경이 저와 함께 가지 않기로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소.” 랄로락 경이 이르되, “그렇게 하소서.”

이에 사그모어 경이 퍼시벌 경에게 이르되, “신하여, 나는 당신의 의무를 막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형제와 함께 가시오. 나를 생각지 마시오.” 이에 퍼시벌 경이 이르되, “그리하겠나이다.”

〈각주: 퍼시벌 경과 라모락 경이 함께 떠나다.〉

이윽고 친교의 담소가 잠시 이어지자, 퍼시벌 경과 라모락 경은 사그모어 경에게 작별을 고하였다. 그 후 두 형제는 앞서 말한 성 브리지트의 수도원으로 길을 재촉하였고, 사그모어 경은 홀로 제 갈 길을 향하였다.

〈각주: 펠리노어 경과 라모락 경이 그들의 어머니를 바라보더라.〉

이때 퍼시벌 경과 라모락 경은 그날 종일 길을 떠났고, 이튿날 오후에 그들은 세인트 브리지트의 수도원이 있는 곳에 이르렀더라. 그때 그

들의 어머니이신 그 고귀한 수도원장 부인이 두 아들인 기사들을 다시금 함께 앞모셔 뵈었을 때의 기쁨은 어떠했으리라고 상상해 보라.

기록에 의하면, 그녀가 두 고귀한 영주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가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뵈었을 때, 그녀는 매우 연민에 찬 눈물로 흐느끼며 이르시되, "아, 내 사랑스러운 아들들이여! 너희 아버지가 살해당하셨을 때, 그는 네 아들을 남기셨노라. 그 중 두 아들은 배신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 너희 둘만이 살아남았구나."

그리고 그녀가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노니, 그분께서 너희를 보호하사 너희의 선을 위한 모든 길에서 너희를 보살펴 주시기를. 그리하여 너희가 너희 아버지와 두 형제들이 폭력적으로 죽임을 당하였던 것처럼, 너희는 목숨을 잃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기를."

그 후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서로를 향한 깊은 정을 나누며 담소하였다. 그들이 밤새도록 함께 있다가 자정을 넘겨서야 비로소 각자의 안식처를 찾아 헤어졌으니, 그들 모두 피곤함을 이기지 못한 채였다.

그들이 어머니에게 밤인사를 드리려 할 때, 퍼시벌 경이 이르되, "모친이시여,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저는 다시금 여정을 떠나야 하옵니다."

라모락 경이 이르되, "그렇다면 나도 형님, 함께 떠나리니 형님을 모시겠노라."

이 말을 들은 수녀원장은 다시금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모두 입맞추고, 하나님이 그들을 죄와 슬픔으로부터 보호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밤을 보내기 위해 헤어졌으니.

이와 같이 되어, 새벽이 밝아오자 그 두 사람은 말을 타고 그 곳을 떠나 길을 떠났노라. 숙녀 원장님이 깨어나셨을 때, 그들은 이미 먼 길을 가신 뒤였더라. 이에 그들의 어머니이신 숙녀가 그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는 탄식하시되, "슬프다! 어찌하여 어머니가 이와 같은 이별을 견뎌야 하리오!"라고 외치시더라.

〈각주: _퍼시벌 경과 라모락 경이 수도원을 떠나다._〉

이때 성 브리지트 수도원을 떠난 랜슬롯 경과 펠리노어 경은 새벽빛이 스며드는 들판을 나란히 달렸노라. 이때는 은빛 베일과도 같은 얇고 차가운 안개가 초원 곳곳을 감싸고 있었고, 새들은 기쁨에 넘쳐 아름다운 아침 노래를 불렀으며, 나무 잎사귀들은 다가오는 하루의 첫 숨결에 살랑거렸노라.

그리하여 하늘은 빛나는 은처럼 밝아져 매우 맑고 멀리 있는 듯하더니, 곧 영광스러운 태양이 떠올라 초원과 숲을 향해 그 광선을 보내었더라.

이때 퍼시벌 경과 라모락 경은 안장을 풀고 말에서 내렸다. 각자 자신의 말을 풀밭으로 돌려보낸 뒤, 지갑을 열어 아침 식사를 시작하고 근처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숲의 샘물에서 목을 축였다. 그 물은 수정처럼 맑고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들이 이같이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말에 올라 앞선 길처럼 다시금 여행을 계속하더라.

〈각주: 퍼시벌 경과 라모락 경이 애도하는 목소리를 듣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그들은 잎사귀 무성한 숲속을 여행하고 있었다. 이때 숲의 한 편에서 애도의 소리가 들려왔고, 그들은 그곳에 고난에 처한 자가 있음을 직감했다. 이에 그들은 한마음으로 그 애도의 소리를 따라 길에서 조금 벗어난 곳으로 향했고, 잠시 후 숲속의 한 광야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그들은 땅 위에 누운 한 기사의 모습을 보았다.

그 기사는 온몸에 피를 뒤집어쓰고 있었고, 그의 갑옷은 전투를 치른 듯 갈라지고 깨져 있었다. 기사 옆에는 빨강과 흰색이 섞인 옷을 입은 한 소경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소경은 기사 옆에 무릎을 꿇은 채, 손수건으로 기사의 얼굴을 끊임없이 닦아냈고, 멀리서 들었던 그 두 사람이 내던지는 슬픔의 비명을 계속 지르고 있었다.

이때 퍼시벌 경과 라모락 경이 그 숲속으로 나아가니, 시종은 두 기이한 기사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섰으나, 도망쳐야 할지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할지 알지 못해 당황한 듯 서 있었다. 라모락 경은 이를 간파하고 소리쳐 부르며 이르되, “아름다운 청년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머물러 우리 앞에 서서, 우리가 보는 이 슬픈 광경이 무엇인지 말하라. 우리는 방랑 기사로서 너희에게 해를 끼치려 함이 아니라 선의를 품고 있노라.”

이때 그 시종은 그들의 의도가 우호적임을 깨닫고 제자리에 머물렀으며, 두 사람은 그에게로 그리고 땅 위에 자신의 피를 흘리며 누운 그 불운한 형상 곁으로 다가가니라. 이때 라모락 경이 이르되, “이 고귀한 기사는 살아있사오며, 아니면 죽었사오며?” 하니, 시종이 이르되, “슬프도다, 경이시여! 그는 죽지 아니하였사오나, 죽어가고 있음을 두려워하오이다.”

〈각주: _퍼시벌 경과 라모락 경이 부상을 입은 한 기사를 구원하다._〉

이에 랄로락 경과 퍼시벌 경은 말에서 내려 앞서 말한 불운한 기사의 곁으로 갔더라. 그들은 그 기사가 살아 있는지 살피려 그를 살폈고, 잠시 동안은 그가 죽은 줄 알았으나, 잠시 후 그는 아직 죽지 않았으나 중상을 입고 죽기 직전임을 깨달았노라. 그때 랄로락 경이 그의 얼굴을 들어 그 시종에게 바라보며 이르되, “이 기사는 누구며, 어찌하여 여기 있게 되었는가?” 하니, 시종이 이르되, “폐하, 제가 모든 일을 말씀드리리이다. 이는 매우 고결한 기사인 타른 경이시니이다. 그분과 그분의 부인, 그리고 저 한 사람만 수행하여 오늘 아침 이 숲의 이 일대를 지나 타른 경의 형제가 거하는 성으로 가려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리던 때, 이 국경지대의 매우 잔인하고 야만스러운 기사인 고드윈 경이 우리를 만났나이다. 이 고드윈 경은 여러 무장한 자들을 데리고 왔고, 그들은 나의 주군과 그분의 부인에게 달려들었나이다. 그들은 주군을 많은 고통스러운 타격으로 쓰러뜨리고 죽은 줄 알고 남겨두었으며, 부인은 납치하여 데려갔나이다. 저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두꺼

운 숲속으로 도망쳤고, 그들이 간 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비록 미약하나마 슬프고 불운한 주군을 돕고자 하였나이다."

"하!" 랄로랙 경이 외쳤다.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이야기로다. 이렇듯 너의 주군을 대하는 자는 참으로 사악하고 인정이 없는 기사라. 나는 이 가드윈 경을 잘 알노라. 내가 그의 형제 고델린 경을 죽였기 때문이니, 그 역시 너의 호소하는 바와 같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

그리고 랄로랙 경이 퍼시벌 경에게 이르되, "형제여, 우리가 이 선한 기사가 안위와 위로를 받도록 하라. 그 후 가드윈 경의 성으로 가서, 그가 납치해 간 타른 경의 부인을 구원하자."

퍼시벌 경도 또한 말하되, "그렇게 합시다."

그때 두 사람은 말에서 내려, 그 기사보조자의 도움으로 타른 경의 갑옷을 벗겨 내었다. 그 후 그들은 그의 상처를 살피고, 숲 근처 샘물의 물로 씻어 주었노라. 그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준비한 붕대로 상처를 감싸고, 그 상처 입은 자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안위와 위로를 베풀었더라. 그리하여 곧 타른 경이 눈을 뜨고 한숨을 쉬더니, 곧이어 몸을 움직이며 팔꿈치에 기대어 몸을 일으켰노라.

이에 랜슬롯이 아닌, 라모락 경이 이르되 "타른 경이여, 잠자리에 누르시오. 당신이 지금보다 나은 상태가 될 때까지는 조금도 움직이지 마시오. 마음을 편히 가지시오. 나는 가iles의 라모락 경이며, 이는 나의 아우인 가iles의 퍼시벌 경이오. 곧 우리는 고드윈 경의 성으로 가서 당신의 부인을 구원하고, 다시 당신께 모셔다 드리리다. 진실로 나는

하느님께서 이 일을 함께하시리라고 믿노라. 우리가 당신의 몸에 위로를 가져다준 것과 같이, 당신의 영혼에게도 평화를 가져다주리라."

이때 랜슬롯 경은 타른 경을 위로하였고, 그 후 잠시 동안 그 상처 입은 자와 작별을 고한 뒤 그를 남겨둔 채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그들은 고드윈 경의 성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하였더라.

〈각주: 펠리노어 경과 라모락 경이 고드윈 경의 성에 도착하더라.〉

그때가 되어 그들이 우림 한가운데에 자리한 고드윈 경의 성을 발견하였더라. 그들이 성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매우 가까워지자 그들은 말에서 내려 각각의 안장을 어린 나무에 매달아 두었더라. 그 후 두 사람은 성의 문으로 올라가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였더라.

그때 곧 문지기가 문에 이르러 작은 창문을 통해 그들을 내다보며 말하되, "너희는 누구냐, 입성을 요구하는 자들이여, 그리고 너희의 소원은 무엇이냐?" 하니, 랄로락 경이 이르되, "우리는 두 기사로서, 갓윈 경에게서 타른 경의 상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며, 또한 타른 경의 부인을 감금에서 풀어줄 것을 요구하러 왔노라."

이때 랜모락 경이 이같이 말하매, 문지기는 웃으며 이르되 "정녕 너희는 미쳤거나, 아니면 두 분 모두 두려움을 모르는 용감한 자들이로다. 이러한 임무로써 여기까지 왔으니"라 하고, 이에 문짝을 닫고 물러가니라.

그는 곧 가웨인 경이 있는 곳으로 가서, 두 기사가 어떻게 그곳에 도착하였으며 그들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를 고하더라.

고드윈 경이 그 소식을 듣자 또한 웃으며 문지기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이 두 기사를 들이게 하라. 그들이 안뜰로 들어오거든 문지기는 문 뒤에서 닫아라. 그리하면 우리는 그들을 함정에 빠뜨린 것과 같으리라. 그 후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다룰 수 있으리라" 하고 말하더라.

〈각주: 펠리노어 경과 랄로맥 경이 고드윈 경의 성에 들어감.〉

이에 포터는 갓윈 경의 명을 따랐으니, 그는 가서 랄로락 경과 퍼시벌 경에게 성문을 열어 주며 이르되 "들어오라" 하였고,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선 뒤에는 다시 성문을 닫아 성 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주기를 원치 않는 한,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 때에 퍼시벌 경과 랄로락 경은 성 안의 한 마당에 서 있었는데, 사방으로 도망칠 길이 없었으니, 모든 문과 길목이 그들을 향해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이라.

이때 성의 영주인 고드윈 경이 온전히 갑옷을 두른 채로 나타나니라. 그는 안뜰을 내려다보는 발코니에 서서 이르되, "너희는 누구뇨? 너희의 일이 아닌 일에 간섭하느냐?"

이에 랄로랙 경이 매우 담대히 대답하되, "네가 악하고 불쌍한 기사라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알라. 나는 웨일스의 랄로랙 경이니라. 네가 오늘 아침에 범한 이 죄악으로 인해 네 형제인 고델린 경을 내가 죽

였노라. 나인 나와 내 형제 퍼시벌 경은 네가 오늘 아침에 행한 악행을 징벌하러 여기 왔노라. 우리는 네가 행하는 것과 같은 일이 행하여지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네 형제가 행한 행위와 같고, 그로 인해 그가 죽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행한 해악을 즉시로 갚지 아니하면, 그의 운명이 곧 네 운명이 되리라."

이때 랄로락 경이 이같이 말하매, 그 말에 갓윈 경은 분노로 가득 차서 마치 하늘의 모든 빛이 그의 눈앞에서 붉게 변한 듯하였노라. 잠시 동안 그는 분노로 인해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크게 외쳐 이르되, "하! 하! 너야말로 정말 내 형을 죽인 랄로락 경이로구나. 이제 나는 크게 기뻐하노라. 네 기도를 드리라, 이 밤에 너는 반드시 낙원에서 네 형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리라."

〈각주: 고드윈 경이 펠리노어 경과 라모락 경을 강공격한다.〉

이와 함께 그는 자리를 뜨고 사라졌으며, 퍼시벌 경과 라모라크 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였다. 잠시 후, 성의 한쪽 문이 갑자기 안뜰 쪽으로 열리며, 무장한 사십 명 이상의 남자들이 거세게 안뜰로 돌진해 들어왔는데, 그곳은 라모라크 경과 퍼시벌 경이 서 있던 곳이었다. 같은 시각, 안뜰 반대편의 또 다른 문도 열리며, 가웨인 경과 다른 무장한 병사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 모든 이들이 앞으로 달려가, 수적 우위를 이용해 그들을 쓰러뜨릴 의도로 라모라크 경과 퍼시벌 경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펠리노어 경과 랄로락 경이 그들의 접근을 알아차리자, 그들은 곧장 등 뒤에 등을 기대고 서서 각자 손에 쥔 빛나는 검을 머리 위로 휘둘렀으니, 그 칼날이 번개처럼 번뜩이는지라. 이때 그 좁은 안뜰에서는 많은 자가 두 명을 상대하는 거대한 격전이 벌어졌노라. 그러나 이 두 기사는 언제나 매우 용감하게 싸워, 잠시 후면 여섯이나 열 명의 병사들이 바닥에서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고, 안뜰의 돌바닥은 피로 미끄러워졌노라. 진실로, 이 두 사람이 퍼뜨린 공포가 지대하여, 잠시 후면 그들을 습격하던 자들조차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죽음을 피해 물러섰노라.

〈각주: 라모락 경이 고드윈 경을 죽이다.〉

그리하여 잠시 동안 그 전투는 멈추었노라. 그 고요함 사이에서 랄로락 경은 성채 무리 한가운데 서서 그들을 공격으로 재촉하는 고드윈 경의 모습을 보았노라. 이에 갑자기 랄로락 경의 마음속에 전투의 광기가 내려앉았으니, 그는 또 다른 공격을 기다리지 않고 큰 소리를 지르며 적을 향해 돌진하되, 그의 검을 머리 위로 휘둘러 돌렸노라.

그 맹렬한 공격에 성채 무리는 바람 앞의 짚단처럼 그의 앞에서 흩어졌고, 그리하여 랄로락 경과 고드윈 경은 서로 마주 서되 랄로락 경의 공격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노라. 그때 랄로락 경이 검을 휘두르며 일격을 가하니, 그 타격은 강렬하여 고드윈 경이 그 검을 방패로 막았으나, 그 충격으로 그의 정신은 흐려져 버렸노라.

그리하여 그의 방어는 무너지고, 머리는 가슴에 기울어지며, 그는 비틀거리고 허벅지는 힘없이 떨렸노라. 이때 그가 외쳤노라. "자비여!

자비여!"라 하며 이 말을 두 번 되풀이하였노라. 그러나 랄로락 경은 그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검을 들어 올리어 고드윈 경을 다시 치니, 그 두 번째 일격으로 고드윈 경은 무릎을 꿇고 땅에 쓰러졌노라.

그리하여 랄로락 경은 고드윈 경의 투구를 벗겨내고,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 목을 앞으로 당겼노라. 그리고 검을 높이 들어 올려 고드윈 경의 머리를 몸통에서 베어내니, 그 머리는 안뜰의 돌바닥 위로 굴러떨어졌노라.

이때 서 거드윈의 부하들은 주군이 죽임을 당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죽음에 대한 지극한 공포에 사로잡혔으니, 마치 우물에 갇힌 쥐들처럼 안뜰 끝자락으로 몰려들었더라. 그들은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치며 호소하였노라. "자비여! 자비여!"

이에 랜슬롯 경은 싸움으로 숨이 가쁘게 차올라 검에 의지하며 이르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다시 묻기를, “이 성의 장로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우리가 그를 모셔오리이다,” 하고 곧 몇 사람이 그 임무를 띠고 달아났더라. 곧 그들이 돌아와서, 두려움에 몸이 떨리고 전전긍긍하는 한 뚱뚱한 노인을 데리고 왔더라. 그 뚱뚱한 노인은 랜슬롯 경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고, 랜슬롯 경이 이르되, “너는 이 곳의 장로냐?” 하니, 그가 이르되, “예, 주여,” 하더라. 랜슬롯 경이 이르되, “너희는 여기 어떤 포로들을 거두고 있느냐?” 하니, 장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포로가 일곱 명 있사오며, 그 일곱 명 중 네 명은 부인들이다,” 하더라. 랜슬롯 경이 이르되, “우리를 그들에게 데려가라,” 하더라.

이에 랜모락 경의 명을 받자 그 장로는 무릎을 꿇고 있던 자리에서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노라. 그는 랜모락 경과 퍼시벌 경을 성채의 본관으로, 그리고 그 본관 깊숙이 자리한 비밀 감옥으로 인도하였더라. 그곳에서 그들은 그 곳에 감금되어 있던 일곱의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들을 발견하여 해방시켰노라.

〈각주: _라모락 경이 성채의 포로들을 해방시키니라._〉

그 포로 된 여인들 중에는 터른 경의 부인이 있었고, 포로 된 기사들 중에는 힌드의 퍼시번트 경이 있었다. 이 일곱 포로 모두를 랄로락 경과 퍼시벌 경이 해방시켰으며, 그들은 이 두 가장 존귀한 용사들이 자신들을 비참하고 불쌍한 감금에서 구해내었음에 대해 큰 찬사와 큰 환호를 보냈다.

이에 랄로락 경이 이르되 "이 성의 보물은 어디에 있느냐" 하니, 그 명령을 받든 대위가 랄로락 경과 퍼시벌 경을 보물고로 인도하여 데려가니라. 거기서 그들은 열두 개의 큰 궤를 보았는데, 그 궤들은 모두 보물로 가득 차 있었더라. 바로 그 보물들은 경건한 신하인 고드윈이 살인과 약탈, 그리고 강포로 모은 것이었더라.

이에 랄로락 경이 이르되 "이 보물은 이 포로들 가운데 고르게 나누어 주어라. 그들이 겪은 모든 고난에 대한 보상이 되게 하라" 하니라.

그가 명한 대로 행하여지니, 이에 포로로서 깊은 슬픔에 잠겼던 자들이 해방의 기쁨을 얻었노라. 또한 라모락 경은 그 보물 중 단 하나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아니하였노라. 오히려 그는 그 모든 것을 시어 고드윈의 손에 의해 많은 고난을 겪었던 자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노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매, 해가 저물어 저녁이 되니라. 이때에 라모락 경이 이르되 "모든 생명은 이 곳을 떠나라. 이는 도적들의 소굴이요, 더 이상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쌓이지 못하게 하리라"

〈각주: _라모락 경이 성에 불을 지르다._〉

이에 성채의 모든 이들이 모여 성벽 바깥에 서니, 젊은이도 노인도, 강건한 자도 약한 자도, 남자도 여자도,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모두 그곳에 모였더라. 모든 이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온 때, 랄로락 경은 성채 곳곳에 횃불을 밝히라 명하시니라. 이에 그의 명을 따라 행하여, 잠시 후 그 성채는 온통 불길에 휩싸여, 지는 해의 어스름한 밤을 그 빛으로 밝히었더라.

그 빛의 감동 가운데서 랄로락 경과 퍼시벌 경은 타른 경의 부인을 데리고 떠났더라. 그들은 그 부인을 부상당한 자가 누워 있는 곳으로 데려갔는데, 그 때에 그 남자는 이미 힘을 크게 회복하여, 다시금 생명과 건강을 되찾는 길에 있었더라.

이때에 토른 경을 위한 천막이 차려졌고, 그가 모든 면에서 편안하게 차려지자, 퍼시벌 경과 라모라크 경은 그 곳을 떠나 길을 떠났노라. 그들은 밤을 통해 말을 몰았으며, 밤의 어둠과 숲의 어둠에 둘러싸인 채로 말이지.

* * * * *

이와 같이 랄로락 경과 퍼시벌은 계곡의 그 다리가에서 서로 마주쳤으며, 이와 같이 그들은 성 브리지트의 수도원장인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가 뵈었고, 이와 같이 그들은 도적들의 소굴을 소탕하였으며, 이와 같이 그들은 다시금 여정을 떠났더라.

이제부터 서술하노니, 펠리벌 경이 에커 드 마리 경을 만난 일과, 두 사람이 함께 길을 함께한 일과, 맑은 물이 고인 호수 가운데서 지극히 신비로운 섬 하나를 발견한 일, 그리고 에커 경이 그 섬의 수호자라 일컬어지는 한 기사와 맞서 싸웠던 일을 전하리라.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기쁨의 섬을 바라보는 퍼시벌 경과 에커 경:]

[그림]

제2장

어찌하여 퍼시벌 경과 에커 드 마리스 경이 매우 기이한 곳, 즉 호수 한가운데에 성이 있는 곳에 이르렀는지의 이야기

그 밤, 랄로락 경과 퍼시벌 경은 숲속에서 밤을 새웠노라. 각자 자신의 망토를 두르고, 하루의 고단한 여정 끝에 깊은 잠에 빠졌더라.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퍼시벌 경은 해가 뜨기 조금 전에 눈을 떴으나, 랄로락 경은 아직 잠들었더라.

〈각주: 퍼시벌 경이 라모락 경을 잠들게 하고 떠난다.〉

그때 퍼시벌 경은 다시 랜슬롯 경을 찾아 나서야 하며, 자신의 아우인 라모락 경은 그 길에 함께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노라. 이에 그는 매우 조용히 일어나 곁으로 물러나, 아우의 잠을 깨우지 않을 만큼 고요히 갑옷을 갖춰 입었더라. 갑옷을 입은 후, 그는 말을 타고 홀로 숲속으로 달려가, 라모락 경이 누워 있던 자리에서 여전히 깊은 잠에 빠진 채로 남게 하였노라.

그때 퍼시벌 경은 그 숲속을 한참 동안 헤매었노라. 그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때가 되면 반드시 그곳을 벗어나게 되리라 믿었노라.

그가 여정을 계속하여 낮이 저물 무렵에 이르러, 한 곳의 넓은 터에 다다랐노라. 그곳에는 사거리가 있고 길가의 제단이 있으며 작은 예배당이 서 있더라. 퍼시벌 경이 그 곳에 가까이 다가가니, 빛나는 갑주를 입은 한 기사가 길가의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보았노라.

〈각주: 펠리벌 경이 에커 데 마리스 경을 만나다.〉

무릎을 꿇은 기사 옆에는 고운 얼룩말 무늬를 지닌 위대한 전마가 서 있었고, 기사의 창은 가까운 상수리나무 기둥에 기대어 있었으며, 기사의 방패는 그 창에 매달려 있었다. 기사는 투구나 바시네트(반투구)를 쓰지 않았으므로, 퍼시벌 경은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따라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퍼시벌 경은 무릎을 꿇고 있는 그 기사가 호수의 랜슬롯 경의 형제인 에커 데 마리 경임을 알고 있었다.

이때 에커 경은 펠리벌 경이 말발굽 소리를 내며 가까이 오는 것을 들었으나, 그의 기도를 멈추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아니하였다. 그는 오직 매우 굳건히 그의 기도를 계속 낭송할 뿐이었노라. 이에 펠리벌 경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말을 멈추고, 에커 경이 기도를 마치기를 기다렸노라. 그가 스스로에게 십자성을 긋고 일어서기 전까지, 펠리벌 경은 무릎 꿇은 그 기사의 방해가 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퍼시벌 경이 이르되, “에커 경, 잘 만나셨구려.” 하니 퍼시벌 경의 투구 그늘개가 들려 있어 에커 경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하며 이르되, “정녕 잘 만나셨소이다, 퍼시벌 경.”

이때 퍼시벌 경은 말에서 내리러 에커 경에게 다가가 안아주며 서로 뺨에 입을 맞추었으니, 마치 형제들인 양 정을 나누었더라.

그 후 그들은 길가 한쪽으로 조금 벗어나, 넓은 가지가 뻗은 나무 그늘 아래, 길가 풀밭의 부드럽고 긴 풀잎 위에 앉았더라.

이때 퍼시벌 경이 에커 경에게 이르되, “형제, 랜슬롯 경에 대한 소식이 없으십니까?” 하거늘, 에커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에게는 그의 소식이 없노라. 다만, 당신께서 혹시 소식을 아실 줄로 바랐을 뿐이오.”

퍼시벌 경이 이르되, “나에게는 전할 소식 없나이다. 그러나 아직도 그 고결하고 온유한 기사, 곧 당신의 형님을 찾아 나서고 계신가?”

에커 경이 이르되, “그렇도다.”

퍼시벌 경이 이르되, “나 또한 그분을 찾아 나서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동행의 정을 위해 잠시 함께 길을 삼가기를 바라고 싶사옵니다.”

에커 경이 이르되, “나 또한 또한 그와 같이 바라노라.”

이때 그 예배당의 은수자가 그들 앉은 곳으로 나아와 이르되 “영주들이여, 떠나시기 전에 나와 함께 빵을 나누시겠습니까?” 이에 그들이 이르되 “그렇사오니 기꺼이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함께 은수자의 오솔집으로 향하더라. 이에 그는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음식으로 그들을 대접하였으니, 곧 달콤한 갈색 빵과 숲의 꿀, 그리고 수풀에서 갓 딴 열매들이라. 이 두 고결한 기사들은 크게 식욕을 돋우어 먹었고, 완전히 기운을 차리며 배고픔을 달랠 수 있었노라.

〈각주: 퍼시벌 경과 에커 경이 함께 말을 타고 가더라.〉

이에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뒤, 이들을 쉬게 해 준 선한 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는 그 즐거운 곳을 떠났다. 두 사람은 나란히 말을 몰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함께 노래를 흥얼거렸다. 한편 따스한 해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때때로 나뭇잎 사이로 빛이 비쳐들더니, 그들의 광택 나는 갑옷에 부딪히면 순식간에 놀라울 정도로 찬란한 빛으로 타올랐다.

〈각주: _퍼시벌 경과 에커 경은 아름다운 계곡을 바라보더라._〉

이와 같이 펠리노어 경과 에커 경이 길을 떠나며, 마침내 그 숲을 벗어나니라. 여러 날을 여행한 끝에, 어느 날 그들은 골짜기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한곳에 이르렀더라. 그곳에서 그들은 말의 고삐를 거두어 높은 지대에 멈추고, 그 골짜기 아래를 내려다보았으니, 그곳이 매우 아름다운 곳임이 보였더라.

그들 눈앞에 펼쳐진 곳 한가운데에는 호수가 있었으니, 그 물결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매우 푸르며 고요하여, 마치 밝게 빛나는 하늘의 일부가 그 골짜기라는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듯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호수 한가운데에 섬이 있음을 보았고, 그 섬 위에는 매우 높고 장엄한 성이 서 있음을 보았더라. 그 성에는 수많은 기와지붕이 있었는데, 그 붉은 빛이 부드러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하여 마치 여러 개의 별개 불꽃이 타오르는 듯하였더라.

또 그들은 그 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돌과 벽돌로 지어진 작은 마을이 있음을 보았고, 섬의 나머지 부분은 매우 비옥하고 푸르러 마치 밝은 비옥함의 순수한 에메랄드와 같음을 보았더라. 또한 그들은 섬 여러 곳에 수목과 과수수가 심어진 작은 숲과 과수원이 있음을 보았으니, 이로써 그 곳은 마치 낙원의 단편이 그곳에 심겨진 것 같았더라.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듯 선명하게 바라보았더라. 잠시 동안 그 경치를 응시하던 끝에 에커 경이 이르되, “내 생각에 그곳은 내 생애에 보아온 어느 곳보다도 아름다운 곳이라. 이제 우리는 그곳으로 내려가, 그 섬 성채가 어느 고귀한 영주의 소유인지 탐구해보

자.” 이에 퍼시벌 경이 대답하되, “그것은 나의 소원과는 완전히 일치하옵니다.”

이에 두 사람은 그 계곡으로 내려가 호숫가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보니 호수의 물은 수정처럼 맑았고, 호수 주변에는 황금빛 자갈이 깔려 있어 햇살 아래서는 마치 금덩이처럼 빛나고 있더라. 이로 인해 호수는 마치 금빛 고리로 둘려싸인 듯하게 보였노라. 그 자갈가닥 너머에는 긴 풀과 꽃이 무성한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그중 특히 수선화가 많았더라.

〈각주: _퍼시벌 경과 에커 경이 호숫가 옆을 타고 간다._〉

그때 두 명의 기사가 그 황금빛 해안가를 따라 나아갔노라. 찬란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는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호수 중에서도 성채에 가장 가까운 곳에 다다랐더라. 그곳의 섬은 물가로 매우 완만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두 기사가 물을 건너 바라보니, 성채와 호수 사이에는 넓고 매끄러운 초원이 펼쳐져 있었더라. 그 초원은 저편의 자갈 해안가 초원과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노란 수선화로 흩뿌려져 빛나고 있었더라.

그들이 주시하는 사이, 그들은 초원 한가운데 긴 풀숲과 꽃들 사이에 한 부인이 서 있는 것을 보았노라. 그녀는 보석이 박힌 금 장신구를 다수 착용하고 있었고, 손목에는 참매를 올려 잡고 있었더라.

〈각주: _펠리노어 경이 기쁨의 섬의 한 부인을 청하더라._〉

〈각주: 기쁨의 섬의 챔피언에 대하여.〉

그때 퍼시벌 경이 물 건너편 그 부인에게 소리쳐 부르며 이르되, “부인, 이 성은 무엇이라 하며 그 성주의는 누구인가?” 이에 그 부인도 또한 대답하며 소리쳐 이르되(그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높고 맑았노라), “이곳은 기쁨의 섬이라 일컬어지며, 저기 보이는 성은 기쁨의 성이오. 그 성주는 지극히 고결한 기사로, 말파테르 기사라 일컬어지나이다. 우리들은 그 기사로 인해 지극히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를 온 세상의 가장 고결한 전사라 여기나이다. 이는 이 경계 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너먼트와 기마 창시합이 열렸으나, 그 어느 때에도 우리 기사의 적수가 된 자가 없었기 때문이오. 또한 여러 기사들이 다른 시기에 이르러 우리 기사와 모험을 겨루려 하였으나, 그는 놀라운 기량과 힘으로 그들을 모두 무너뜨렸나이다.”

이렇게 그 부인이 말하거늘, 퍼시벌 경이 그녀에게 이르되, “진실로 부인이시여, 당신의 말씀대로라면 그분은 지극히 고결한 기사이시로다. 이제 내가 청하노니, 어찌하여 그토록 힘센 기사가 이 외딴 곳에 이르게 되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시오.”

그녀가 이르되, “그에 관하여는 마땅히 다 아뢰올 수 없사오나, 다만 그가 한때 미친 자로서 이곳에 왔다가 그 미친 병이 나으셨으며, 이 나라 왕의 딸, 곧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인 중 한 분과 결혼하셨음을 아오며, 그 이후로 그는 이 기쁨의 섬에서 살고 계심을 아오나이다” 하더라.

이때 퍼시벌 경이 이르되, “부인, 우리가 여기로 온 것은 당신의 기사가 가진 기량을 시험해 보자는 그런 모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에게 관해 알려주신 말씀이 그의 진가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나의 간절한 욕구를 불러일으켰사옵니다. 이제 청하오니, 제가 어떻게 그 기사에게 다가가 자신의 모험을 걸고 그와 맞서게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때 그 부인은 웃으며 이르되, "영주여, 만약 당신의 뜻이 그러하다면, 당신은 이 곳에서 매우 환영받을 것이오. 당신이 이 모험을 행하고자 한다면, 당신이 가는 길 따라 호수 가장자리를 조금 더 나아가야 하오. 그리고 호수의 성 뒤쪽이 되는 그 곳에 이르기까지 말이오. 거기서 당신은 한 명의 나그네와 그의 두 아들을 만나게 될 것이오. 이 나그네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시오. 그가 당신을 그의 배에 태워 호수를 건너, 당신과 두 마리의 말을 모두 다른 쪽으로 건너가게 할 것이오."

이렇게 말한 부인이라. 이에 퍼시벌 경은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에커 경과 함께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부인, 즉 참매를 거느린 여인이 지시한 대로 그들은 호수 가장자리를 따라 얼마간 길을 갔더니, 이내 호수의 성 뒤쪽 부분에 이르렀더라.

거기서 그들은 부인이 묘사했던 배를 보았고, 호수 가장자리에는 오두막이 하나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들이 부르면 오두막에서 건선인(船夫)과 그의 두 아들이 나와서 맞이하였더라. 퍼시벌 경은 그들에게 호수를 건너 섬으로 자신을 실어 달라고 청하매, 건선인은 즉시 그것을 준비하였더라.

이때 퍼시벌 경이 에커 경에게 이르되 "경, 감히 한 가지 청원하오니 자비로우시옵소서." 에커 경이 이르되 "무슨 말이냐?" 퍼시벌 경이 이

르되 “저는 이 모험을 혼자서 감당하기를 청하오니, 경께서는 여기 머물러 계소서. 두 사람이 함께 한 기사의 맞서 나가는 것은 마땅치 않사옵니다. 실로 저는 혼자서 나아가더라도 이 일에 성공하리라 크게 믿사오니, 그러므로 경의 자비를 빌어 여기 머물러 계시며 저의 귀환을 인내심 있게 기다려 주시옵소서.”

이때 퍼시벌 경이 이같이 말하거늘, 에커 경이 이르되 “경이여, 경의 말씀대로 하오리다. 나는 이 자리에서 머물며 경의 귀환을 기다리겠노라. 만일 경이 감행하고자 하는 바에서 실패하거든, 나도 또한 이 모험에 나서 보리니, 혹시 더 나은 행운을 만날는지 보겠노라.”

〈각주: 퍼시벌 경은 기쁨의 섬으로 가니라.〉

이에 퍼시벌 경은 보트에 올라타고, 나그네와 그의 두 아들 또한 함께 탑승하니, 그들은 노를 저어 잠시 후 퍼시벌 경을 건너편에 있는 섬으로 건너가더라.

이때 퍼시벌 경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무사히 섬에 도착하매, 그는 앞서 말한 그 매우 아름다운 초원을 지나 성으로 향하여 말을 몰아갔다. 그리하여 성의 대문 앞에 이르렀더라.

거기서 그는 사슬에 매달린 나팔을 보았으니, 퍼시벌 경은 그 나팔을 손에 들어 성벽이 그 소리에 울리도록 힘껏 불었더라. 곧 그 나팔 소리에 답하여 성의 문지기가 나타나 성문의 작은 창문을 통해 퍼시벌 경을 바라보며 이르되,

“영주여, 당신께서 우리 성에서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퍼시벌 경이 이르되, “선한 자여, 나는 이 성의 기사 champion의 위대한 무공에 대한 소식을 들었사오니, 그러므로 나는 그 무공을 더 잘 알기 위해 이곳에 왔노라. 이제 내가 청하노니, 그에게 가서 이 성 밖으로 나와 성 아래 있는 초원에서 나를 만나주기를 원한다면, 우호적인 기마 창 시합을 하고자 하는 유랑 기사가 왔다고 전하시오. 그 초원은 평평하고 매끄러운 즐거운 곳이라, 두 기사가 우호적인 경쟁으로 기마 창 시합을 하며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사오니.”

“영주님,” 문지기가 이르되, “이 성의 기사가 성 밖으로 나와서 영주님을 맞으실 필요가 없사옵니다. 성 안에는 매우 쾌적한 투기장이 있사오니, 그 투기장 주변으로는 둘러싼 발코니가 있어, 이곳의 영주들과 부인들께서 영주님과 우리 기사 간의 시합을 구경하실 수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저의 청을 들어 성 안으로 들어가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곳에서는 영주님을 매우 잘 맞이할 것이니이다.”

“감사를 드리노라,” 퍼시벌 경이 이르되, “내가 여기는 실로 매우 온유하고 자비로운 곳임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길을 내주시오. 내가 당신의 뜻대로 들어가겠사오니.”

〈각주: 퍼시벌 경이 기쁨의 섬 성에 들어오니라.〉

이에 곧 성문의 철문장이 들려지고 다리가 내려지니, 퍼시벌 경이 그 다리를 건너 성 안으로, 그리고 그 안뜰로 들어가시니, 그의 말의 쇠발굽이 석판 위에서 매우 크게 요란한 소리를 내더라.

그때 곧바로 여러 시종들이 달려와 그에게 무언가 소원이 있느냐, 어찌하여 그 곳에 이르렀느냐 물으니, 퍼시벌 경은 자신의 바램과 그 땅의 기사가 될 자와 우호적인 검술 시합을 벌이고자 함을 일렀다. 이에 시종들이 이르되, "그대의 소원대로 하겠노라" 하였더라.

이때 성의 기사들을 모셔온 두 시종은 성의 기사가 찾아와, 그를 향해 도전자가 나타나 경기를 벌이려 한다고 알렸다. 그사이 다른 시종들은 퍼시벌 경의 말을 거느리고 성의 투기장으로 이끌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를 위해 향긋한 포도주를 한 잔 가져와 기운을 돋워 주었다.

곧 성의 사람들이 발코니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발코니는 투기장을 내려다보던 곳이었으니, 퍼시벌 경이 그들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보니, 그야말로 그토록 아름다운 기사도의 광경이 그의 생애 동안 그가 싸웠던 어느 전투 위에서도 본 적이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성의 기사 챔피언이 말에 올라 타서 투기장의 끝자락으로 들어왔다. 퍼시벌 경이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 성의 챔피언이 지닌 고결하고 위엄 있는 모습은 퍼시벌이 지금까지 본 어떤 모습보다도 더 놀랍게 보였다.

〈각주: 퍼시벌 경이 기쁨의 섬의 챔피언과 결투하다.〉

그때 두 기사는 곧장 대결을 위해 각자 몸을 가다듬었더라.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자, 경마장의 마샬이 앞으로 나서서 전투의 조건을 선포하였으니, 기사가 원하는 대로 기마전이나 보병전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더라. 그 선포가 있은 뒤 마샬은 약간 한쪽 옆으로 물러

났더라. 이어 그는 두 기사가 준비되기를 호소하였더라. 잠시 후, 그들이 모두 완벽하게 준비되었음을 확인한 마샬은 나팔을 크게 불었더라. 그 소리에 즉시 두 기사는 각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두 수퇘지처럼 한꺼번에 서로를 향해 돌진하였더라.

이리하여 그들은 경기장 한가운데서 격렬하게 부딪쳤으니, 그 충돌의 굉음에 가까이 서 있던 이들의 귀는 먹먹해질 지경이었더라.

그 격돌에서 각기 기사는 창을 끝까지 부러뜨렸고, 서로가 가한 타격의 격렬함으로 인해 각자의 말은 뒷발로 서서 뒤로 물러서며 넘어질 뻔하였으나, 기사의 숙련됨으로 인해 간신히 막혔다. 기사는 채찍과 목소리, 그리고 고삐로 재빨리 말을 다시 일으켰노라.

이에 각기 기사들은 안장에서 내려 발을 땅에 디디고, 발로 싸우려 검을 낱낱이 칼집에서 뽑았더라. 그러자 그들의 검들은 햇빛 아래 번개처럼 빛나며, 격렬한 정성과 우호적인 마음가짐으로 한 방이 다른 방을 따랐으니, 발코니 위에서 그 대결을 내려다보는 자들의 귀를 울려 메우기에 족하였다. 이 두 기사는 서로를 향해 맹렬히 휘두르는 타격이 과연 어떤 기예와 손재주라야 그러한 친선전에서의 강타들을 피할 수 있었을지 놀라울 지경이었더라.

이 두 사람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싸웠으므로,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 두 기사의 힘과 용기, 그리고 인내심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노라. 그 동안 어느 기사도 상해를 입지 않았고, 어느 쪽도 다른 쪽에게 우위를 점하지 못하였더라.

〈각주: 퍼시벌 경과 그 챔피언이 격투를 이어가더라.〉

그때 마침 성의 챔피언이 외쳤다. “기사 각하, 손을 멈추시오!” 이에 퍼시벌 경은 싸움을 멈추고, 그 격렬한 전투를 치르며 소모한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숨을 헐떡이며 검의 손잡이에 기대어 섰더라. 그러자 성의 기사 챔피언이 이르되, “영주여, 내 생애에 수많은 기사들을 만나보았노라. 그 중에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기사로 여겨지는 자들도 있었노라. 그러나 내가 맹세컨대, 지금까지 내가 만난 어떤 기사도 이 전투에서 당신께서 보여주신 그 강인함과 위력을 지닌 자는 없었노라. 이제 내가 간청하노니, 영주여, 당신의 자비로써 당신의 이름과 신분을 밝히소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큰 영광을 안겨주실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사오니.”

〈각주: 퍼시벌 경이 자기를 드러내니라.〉

이에 펠리노어 경이 이르되 “형제여, 당신의 말씨 지극히 온유하오며 그 무예 또한 그에 못지않도다. 나는 기꺼이 내 이름과 신분을 밝히리니, 그것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기를 바라노라. 실로 나는 당신을 이보다 더 훌륭한 기사로 본 적이 없노라. 내가 가iles의 펠리노어 경이며, 가iles의 라모락 경의 형제요, 왕 펠리노어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니, 이제 당신 또한 당신의 이름과 칭호를 나에게 밝히소서.”

그러나 성의 챔피언은 이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그가 퍼시벌 경의 말과 이름과 신분을 들을 때에, 그는 기쁨이든 혹은 기쁨이 아닌 다른 것이든, 큰 비명을 지르니라. 이에 그는 외치며

그의 검과 방패를 던져버리고, 퍼시벌 경에게 달려가 그의 무릎 앞에 엎드려 그의 허벅지를 안고 부르짖었노라.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내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너와 싸웠는가!"

이때 퍼시벌 경은 크게 놀라 이르되, “영주여, 어찌하여 나를 향해 무릎을 꿇으시오? 내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당신은 누구이신고? 이제 내가 청하노니, 즉시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시오!”

〈각주: 랜슬롯 경이 자신을 드러내니라.〉

그때 그 기사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말하더라. “퍼시벌 경, 저를 한때 호수의 랜슬롯 경이라 부르던 자라 하옵니다.” 이 말을 끝내자, 성채의 그 기사는 투구의 덮개를 들어 올렸고, 퍼시벌은 그가 과연 랜슬롯 경임을 보았노라.

이에 퍼시벌 경도 또한 랜슬롯 경이 그랬던 바와 같이 크게 외치며 이르되, “마침내, 마침내 내가 너를 찾았노라!” 하고는, 이어서 그는 랜슬롯 경을 안아 들어 품에 안았으며, 랜슬롯 경을 꼭 안아 뺨에 입 맞추고, 서로 마주 보며 큰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더라. 발코니에 있던 모든 이들도 그 광경을 목격하며, 그 사연이 무엇인지 심히 놀라워하였더라.

〈각주: 퍼시벌 경은 아리따운 엘레인을 바라보더라.〉

이때 랜슬롯 경이 펠리노어 경에게 이르되, “경, 내가 경을 내 부인에게 모시리다.” 하고는 즉시 펠리노어 경의 손을 잡고 그를 데리고 올라가, 궁녀들이 둘러선 가운데에 앉아 있는 엘레인 부인 앞에 이르렀더

라. 펠리노어 경이 그 부인을 매우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매, 그는 이전에 그토록 달콤하고 온순하며 아름다운 얼굴을 본 적이 없었더라. 이에 펠리노어 경이 이르되, "부인, 이제 비로소 경을 뵈오니 신이 놀라지 아니하노라. 랜슬롯 경이 지난 두 해 동안 우리 모두의 시야에서 숨어 지냈던 연유를. 만일 경이 거처하는 이 섬이 아름다운 낙원이라면, 경은 필시 그 거처에 어울리는 참된 여왕이시니라."

이때 퍼시벌 경이 이같이 말하매, 엘레인 공녀는 그를 향하여 매우 자비로운 미소를 띠우고 이르시되, "영주여, 당신의 말씀은 매우 아름답고, 나의 덕을 훨씬 초월하여 나를 기쁘게 하노라. 당신에 대한 명성은 우리 가운데서 크니, 나는 당신이 이 곳으로 오심을 기꺼이 환영하노라. 이제 청하노니, 당신의 갑옷을 벗고 목욕하여 몸을 정결히 하고 쉬어 가시오. 그 후라면 우리 모두 함께 고요한 유희를 즐기리다."

퍼시벌 경이 이르되, "부인, 지금 당장 이곳에서 저와 함께 머물기를 기꺼이 원하오나, 이 곳과 가깝지 않은 다른 곳에서는 저를 만나시게 될 때보다도 랜슬롯 경이 더 기뻐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사오이다. 그러므로 청하건대, 먼저 저를 보내 그 분을 이곳으로 모셔오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우리 둘이 함께 부인의 친절한 환대를 더욱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겠사오니이다."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펄시벌 경이여, 당신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을 누가 또 있으리이까?"

"경," 퍼시벌 경이 이르되, "그분께서는 경의 친형제, 에커 경이로소이다. 내가 이곳에 홀로 찾아와 경과 운명을 시험하려 할 때, 나는 그를

이 호수의 다른 편에 남겨두었노라. 이제 내가 그에게로 가서 그를 이곳으로 모셔오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리이다."

이에 랜슬롯 경이 소리 높여 외쳤노라. "이야말로 기쁨 위에 기쁨이로다. 이제 내가 청하노니, 퍼시벌이여, 가서 그를 데려오라!" 이에 퍼시벌은 그 말에 따라 에커 경을 그곳으로 모셔오기 위해 떠났더라.

이때 퍼시벌 경은 섬의 초원을 내려가 호숫가에 이르렀고, 그가 도착하자 나그네는 그를 다시 건너주었으니, 이는 그가 이전에 건너왔던 길과 같았더라. 퍼시벌 경이 도착하였을 때 에커 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에커 경은 퍼시벌 경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시여, 당신의 모험에서 어떤 행운을 거두셨나이까?" 하니 퍼시벌 경이 이르되, "오, 친구여! 내가 거둔 그 행운은 당신이나 나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나이다."

이 말을 들은 에커 경은 크게 놀라 이르되, "네가 말하는 그 큰 행운이 무엇인가?" 하니, 퍼시벌 경이 이르되, "내가 말씀하리다. 내가 이 모험에서 누구를 만나셨는지 생각해보라. 그분은 이 성의 주인이시니, 바로 당신의 형제인 랜슬롯 경이시니라."

이에 에커 경이 놀라움을 이기지 못해 외치며 이르되, "이 일이 진실로 그러하단 말이오?" 하더라. 이어 그가 말하되, "서둘러 바람의 날개 달린 듯 그에게로 달려가자" 하였노라.

〈각주: 펠리노어 경이 에커 경을 기쁨의 섬으로 모시니라.〉

이에 다시 그들은 배에 올라 강을 건너, 강변의 꽃밭을 지나 성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성채에 가까워지자, 성의 사람들이 무리 지어 나와 그들을 맞이하며 큰 환호와 기쁨의 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았더라. 그들을 맞이하는 무리 맨 앞에는 랜슬롯 경과 엘레인 부인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랜슬롯 경은 거대한 검은 말 위에, 엘레인은 흰 발프리 위에 올라타 서로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하고 은사로 자수한 흰 사르산트 천으로 된 의복을 두른 채, 빛나는 금 장신구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왕의 딸이 마땅히 쓸 만한 금관도 쓰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금실로 엮은 그물망에 감싸여 있어, 이로 인해 그녀의 아름다움은 멀리서도 놀라운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에커 경이 그녀를 전에 본 적이 있었으나, 이날까지 그녀를 본 적이 없는 듯하였다. 이는 그녀가 랜슬롯 경을 만나고 에커 경과 퍼시벌 경을 다시 만난 기쁨과 자부심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기 때문이라, 그녀의 아름다움이 안으로부터 특별한 밝기로 빛나는 듯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녀의 영혼이 육신의 몸을 세속의 아름다움과는 다른 순수하고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비추는 듯하였다.

〈각주: 에커 경과 랜슬롯 경이 서로 마주치다.〉

그때 랜슬롯 경과 에커 경은 서로 마주 보고는 말에서 뛰어내려 함께 달려가 안고 입맞추며 서로의 어깨에 눈물을 흘렸으니, 그 기쁨이 지극하여 이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도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더라. 그

후 에커 경은 부인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그 손을 입맞추고, 다시 입맞추며, 또 다시 입맞추었더라.

그 후 그들은 모두 함께 기쁨의 섬 성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환호와 큰 박수 소리와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소리가 너무도 크고 기쁨에 넘쳐 성의 벽조차도 마치 기쁨의 비명을 지르는 듯하였다.

그들이 이와 같이 성 안으로 들어간 후, 여러 시종들이 퍼시벌 경과 에커 경을 맞이하여 모든 면에서 그를 편안하게 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왕실의 수작으로 지어진 비단 옷을 선물로 받아 입고, 그 후에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연회와 기쁨이 이어졌다.

그 후 날이 거듭될수록 기쁨과 환호가 가득하였고, 이 두 분 왕실 기사들이 그곳에 도착하신 것을 기념하여 수많은 기마 시합과 토너먼트가 열렸더라.

* * * * *

〈각주: 에커 경이 랜슬롯 경을 부르다.〉

어느 날 랜슬롯 경과 에커 경이 그 아름다운 성의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그때에는 그들 둘 외에는 어떤 수행원도 함께 있지 않았다. 곧 에커 경이 랜슬롯 경에게 이르되, “형제여, 내가 한 가지 수수께끼를 묻노니 풀어보시오.” 랜슬롯 경이 이르되, “무슨 수수께끼인가?” “이것이니이다,” 하고 에커 경이 말하되, “한 사내가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한 여왕으로부터의 명령을 전하는 사신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 명령이란 그가 궁정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사

내가 여왕이 전한 그 명령을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그 명령에 복종할 것인가?"

이때 랜슬롯 경은 에커 경이 자신의 눈빛을 읽지 못하도록 고개를 돌렸고, 잠시 후 이르되 "나는 궁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어찌 그리하지 아니하겠는가?" 에커 경이 묻거늘, 랜슬롯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임금님의 명보다 더 큰 의무가 있사오니, 이 부인과 함께 머물러 있나이다. 이 부인에게 나의 모든 진심과 신의를 맹세하였사오니, 그 약속을 저버릴 수 없나이다."

이후 에커 경은 잠시 침묵하더니, 잠시 뒤 이렇게 이르되, "경은 내가 경이 마땅히 마땅히 할 바라고 믿는 일에 반대할 것을 권하지 않음을 잘 아나니이다. 그러나 경은 자기를 너무 의심하여, 한 가지 의무를 다하지 못할까 두려워 다른 의무를 다하기를 꺼리는 것이오이까? 이제 경이 섬기기로 맹세한 그 여왕, 즉 구이니비어 여왕께서 경을 찾아내어 경에게 명하시니, 이는 대왕의 궁정으로 돌아가 여왕과 화해하라는 명이라. 경은 엘리네 부인 terhadap의 충성을 너무 의심하여 여왕의 명을 거스릴까 두려워하는 것이오이까?"

이에 랜슬롯 경이 소리쳐 이르되, "이 일로는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말라!" 하니 에커 경도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잠시 후 그들은 서로 헤어졌노라.

그 후 이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랜슬롯 경은 성의 한 방으로 가서 혼자 남았더라.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영혼과 교유했으며, 그 교유는 매우 쓰리고 슬픈 것이었노라. 곧이어 엘레인 부인이 그 곳으로 와서 문을 두드리며 출입을 요구하였으나, 잠시 동안 랜슬롯 경은 그녀를 거절하였노라. 그러나 그녀는 끝없이 문을 두드렸고, 이에 잠시 후 그는 문을 조금 열어 그녀를 자신의 있는 곳으로 들여보내었노라.

그때 호수의 부인 엘레인이 랜슬롯 경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잠시 후 물었다. "랜슬롯, 어찌된 일이시오?"

그가 대답하였다. "내 형제가 나에게 어떤 일들에 관해 말하였노라."

그녀가 물었다. "그대가 그에게 무엇을 말하였는가?"

랜슬롯 경이 대답하였다. "나는 그대를 그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각주: 엘레인 공녀가 랜슬롯 경을 부르다.〉

이때 호수의 부인 엘레인이 랜슬롯 경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이르되, "형제가 무엇을 말하였는지 너에게 묻게 하라 하지 말라. 내가 그 말이 무엇이었을지 매우 잘 짐작하노라." 하고는 랜슬롯 경의 머리를 자신의 품에 안으며 이르되, "랜슬롯이여, 랜슬롯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엘레인이여, 엘레인이여!" 하더라.

호수의 부인 엘레인이 이르되, "슬프도다, 나의 사랑이여. 너는 이 선량한 기사들과 함께 왕의 궁정으로 돌아가야 하노라. 이는 너의 마땅

한 의무이니라. 그 후 너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내가 하나님께 빌노니, 너의 이 곳에서의 머무름이 길지 않기를 바라노라."

이에 랜슬롯 경이 이르되 "엘레인, 네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만일 네가 나를 아서왕의 궁정으로 보내고자 한다면, 너도 함께 가라.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왕비의 명을 거역하고 영원히 이곳에 머물러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 호수의 부인 엘레인은 비록 슬픈 미소를 띠고 있었으나 다시금 웃으며 이르되, "아, 랜슬롯 경이여. 내가 경을 불쌍히 여기고 경의 의심스러움을 아노라. 그러나 경이 그와 같이 원하시니 그대로 하오리다. 내가 경과 함께 아서왕의 궁정으로 가겠나이다."

이러자 그녀가 랜슬롯 경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니, 랜슬롯 경도 또한 큰 열정으로 그녀에게 입맞추었더라.

〈각주: _그들은 모두 기쁨의 섬을 떠난다._〉

그때로부터 사흘 후, 모든 이들이 기쁨의 섬을 떠났으니, 곧 랜슬롯 경과 퍼시벌 경, 그리고 에커 경과 엘레인 부인이었더라. 그들과 함께 가는 궁중에는 엘레인 부인의 오라버니인 라베인 경도 동행하였으니, 그는 앞서 아스토라트에서 열린 대회 때 랜슬롯 경의 동료 기사였더라. 이들을 비롯한 기사들과 시종, 그리고 처녀들과 낭자들은 그 곳을 떠날 때 높은 신분에 어울리는 모든 영화와 장엄함을 갖추고, 위엄 있는 행렬로 길을 향하였더라.

* * * * *

이와 같이 랜슬롯 경이 발견되니라. 이제 이 역사를 더 읽기를 원하면, 아서왕의 성채로 향하는 길에서 그들에게 닥친 매우 즐거운 모험과, 에인 경과 분수의 부인이 그들과 합류하여 왕의 궁정으로 함께 간 사연을 듣게 되리라.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펠레스의 아들 라베인 경:]

[그림]

제삼장

어찌 랜슬롯 경과 퍼시벌 경과 에커 경과 엘레인 공녀가 아서왕의 궁궐로 향하여 진군하였으며, 그 길에서 매우 훌륭한 모험이 그들에게 닥쳤던가.

이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랜슬롯 경과 엘레인 부인은 캐멀롯으로 향하여 퍼시벌 경과 에커 경, 그리고 라베인 경과 함께 길을 떠났으니, 그들의 뜻은 아서왕의 궁정으로 돌아가는 데 있었다. 그들과 함께 매우 고귀한 기사들과 부인들, 그리고 그들을 모시는 모든 계급의 수행원들로 이루어진 한 무리의 귀중한 궁정이 함께 갔더라.

그리하여 그들의 행렬이 잠시 멈추는 곳이면 어디나, 그들이 머무는 그 장소는 마치 그들의 내림을 기리기라도 하듯 영광스럽게 꽃피어나더라. 왜냐하면 행렬이 멈추는 곳에는 곧바로 그 귀인들과 부인들을 위한 각종 색상의 천막들이 여러 개 설치되었기 때문이라. 이로 인해 푸

른 들판과 초원지는 순식간에 온통 갖가지 화려한 색들로 뒤덮여, 그 밝기와 다양함으로 눈을 부시게 하더라.

그때면 공중은 실크 깃발과 휘장들로 가득 차 요동쳤고, 갑옷의 빛남과 화려한 옷차림을 한 인물들의 움직임으로 모든 것이 빛나며, 수많은 목소리의 수다와 음악소리로 모든 것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더라. 또한 여기저기서 달리는 자들과 여기저기서 달리는 자들로 인해 모든 것이 움직임과 분주함으로 살아 숨 쉬었으니, 사방에서 시종들과 기사수들은 갑옷을 닦느라 바쁘고, 처녀들은 부인을 섬기느라 분주하였더라.

〈각주: 그들이 숲 안에서 쉬는 법.〉

이와 같이 그들은 기운차고 당당하게 행진을 계속하던 중, 어느 날 오후가 기울 무렵, 매우 아늑한 숲속에서 행군을 멈추었노라. 그 숲속에는 수정처럼 맑고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이끼 낀 바위에서 솟구쳐 오르는 아름다운 분수가 있었노라.

그곳은 푸르른 잔디가 무성하게 우거진 매우 쾌적한 초원이었으며, 여기저기에 예쁜 꽃들이 흩뿌려져 있었노라.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숲의 나무들이 서 있어, 부드럽고 포근한 바람에 잎사귀를 살랑거리며 속삭이듯 소리를 내고 있었노라. 그 고목들은 천천히 이쪽저쪽으로 머리를 흔들며, 마치 앞서 거닐던 그 즐거운 여행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속삭이는 듯하였노라.

이때 그날 종일 길을 걸었던 기사들과 부인들은 여정의 피로와 배고픔을 달래고자, 야외에 연회를 차려 놓았더라. 그들의 머리 위에는 푸

른 하늘과 밝게 떠다니는 구름이 천막이 되었고, 발 아래에는 부드러운 푸른 잔디와 예쁜 꽃들이 카펫이 되어 주었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시종들과 하인들은 은과 금으로 된 접시와 쟁반을 들고 여기저기를 바쁘게 오갔다. 그릇들에는 갖가지 요리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은과 금으로 만든 잔과 부항에는 여러 종류의 포도주로 가득 찼다. 시종들은 이 음식들을 가지고 식탁에 앉아 있는 그 고귀한 손님들을 접대하였더라.

그림 같은 숲의 고요함은 수많은 목소리의 노래와 웃음소리, 그리고 끊어지는 노래 소리로 가득 찼다. 그 식탁 근처에는 여러 명의 악사들이 서서 하프를 연주하며 식사하는 이들을 즐겁게 하였더라.

〈각주: 숲에 기이한 낭자가 나타나니라.〉

그들이 앉아 즐기며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갑자기 숲에서 한 아름다운 낭자가 나타나니, 그녀는 젖빛 흰 말 위에 타고 있었고 두 명의 시종이 호위하고 있었더라. 시종 한 명은 말의 한쪽 옆을 걷고, 다른 한 명은 다른 쪽 옆을 걷고 있었노라. 이 낭자와 시종들은 모두 화염색의 새틴으로 된 의복을 입고 있었고, 모두 많은 금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노라. 낭자는 목에 여러 개의 빛나는 금 목걸이를 두르고 있었는데, 그 목걸이에는 다양한 보석이 박혀 있었고, 팔에는 금 팔찌를 차고 있었으니, 그 팔찌에도 보석이 박혀 있었노라. 그녀의 머리카락은 금으로 된 그물에 담겨 있었노라. 그러므로 그 화염색 의복과 여러 금 장식의 빛남이 어우러져, 그녀가 그곳에 나타난 것은 마치 살아 있는 불꽃의 화염과 같았노라.

그때 그녀가 식탁에 앉아 있는 자들 곁으로 다가오니, 그들은 그 처녀의 얼굴이 매우 기이할 정도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음을 보았노라. 그녀의 얼굴빛은 상아처럼 희고, 입술은 산호처럼 붉었으며, 두 눈은 매우 밝고 빛나는 두 보석과 같았더라. 또한 그들의 눈에는 그녀의 손이 길고 가늘었으며, 세공이 잘 된 많은 금반지로 장식되어 있음을 보았노라. 각 손가락은 그들을 둘러싼 여러 고리의 금 때문에 순백의 광채로 빛나는 듯하였더라.

이와 같은 자태를 지닌 그 낭자를 보자, 잔치 자리에 앉아 있던 모든 이들이 놀람과 경외감에 휩싸였으니,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가 요정임을 알았기 때문이라.

〈각주: _처녀가 그들에게 말을 걸다._〉

그때 그 낭자가 그들이 연회를 즐기던 곳에 거의 다다르자, 그녀는 말을 멈추고 외쳐 이르되, “하느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여기 모인 기사들 중, 반드시 그에게 매우 기쁜 일이 될 모험을 감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있느냐?”

이에 랜슬롯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름다운 낭자여, 여기에는 당신과 같은 미모의 처녀가 부탁하는 모험을 기꺼이 수행할 만한 기사들이 여럿 있을 것이라 믿노라. 그러나 나 자신에 관하여 말하건대, 나는 그러한 모험을 맡는 것을 기쁘게 여기노니, 그러므로 나는 당신께 간구하노니, 그 모험이 무엇인지 내게 말씀하시오.”

"내가 말하리라," 처녀가 이르되, "네가 감당하고자 하는 이 모험은 '분수의 모험'이라 일컫노라. 네가 이를 떠안고자 하거든, 저쪽 숲속을 지나 이르는 그 길을 취하라. 그리하면 곧장 그곳에 이를 것이니라.

그 길로 나아가면, 잠시 후 높은 언덕 하나에 이를 것인데, 거기서 네가 거대한 흑인 한 사나이를 보게 되리니, 그는 소 떼를 지키며 앉아 있느니라. 그에게 네가 '분수의 모험'을 감당하러 왔음을 일러라. 그리하면 그가 네게 더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리라."

이에 랜슬롯 경이 이르되, "이것은 내가 감당하라고 맡기신 매우 기이한 일이라. 이제 청하노니 이 모험에 관하여 더 자세히 말씀하시고, 내가 그대가 말한 그 검은 목동과 약속을 맺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다오." 그러나 이 처녀는 다만 웃으며 이르되, "더미 위에 앉아 있는 그 검은 자가 당신에게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주리이다." 하고는 곧장 그 말을 되풀이하지도 않았다. 이에 그녀는 자신의 말을 돌려 바로 그 두 시종들과 함께 떠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숲의 가장자리에 도착하여, 얼마 전 그녀가 나왔던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기사들과 부인들로 이루어진 모든 궁정은 그녀의 등장과 소멸에 모두 놀라움에 잠겼다.

그리하여 그녀가 이같이 말하고 떠난 뒤,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나는 이 낭자가 내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였듯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물러야 하리라. 내일이 되면 우리 모두 함께 떠나, 그녀가 '분수의 모험'이라 부르는 그 모험을 좇으리라. 나는

그것이 지극히 훌륭한 일이요, 우리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안겨줄 것임에 의심치 아니하노라."

〈각주: 그들은 분수의 모험을 떠나니라.〉

이에 그 밤을 그들이 머무르던 곳에서 지냈고, 새벽 빛이 비쳐 올 때에 이르러 그들은 처녀가 가리킨 길로 떠나니라.

그들이 이같이 떠난 뒤, 그들은 그 방향으로 숲 속을 꽤 먼 거리를 여행하다가, 마침내 그 낭자가 말하던 그 언덕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그들이 보니, 그 언덕은 숲의 넓은 벌판 한가운데 서 있더라. 또한 그들이 보니, 그 언덕 주변과 꼭대기에는 많은 가축들이 풀을 뜯고 있더라. 그리고 그들이 보니, 그 언덕 위에는 거대한 존재가 앉아 있었는데, 그의 외모는 너무나도 흉측하여 그들이 그의 용모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더라. 그의 피부는 거의 검은빛이었고, 반쯤 벗겨진 몸체는 원숭이의 털과 같은 털로 온통 덮여 있었더라.

그 때에 이 괴물이 그들이 오는 곳을 보고 큰 소리로 그들을 향해 포효하며 이르되, "너희 작은 자들은 어디로 가며 무슨 일이냐?"

이에 랜슬롯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동지여, 내가 이곳에 이른 것은 분수의 모험을 시험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들은 나와 함께 온 내 동료들이라. 이제 그 모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게 말하라."

그 거대한 우둔한 자는 큰 소리로 웃으며 외쳤다. "그대를 기다리는 그 모험을 구하는가? 이제 내가 장담하노니, 그대가 그것을 찾았을 때

만족할 것이니라. 그 길을 지나온 자들 모두 그러하였노라. 그대는 저 편의 길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곧 매우 아름답고 고운 계곡에 이를 것이니, 그 계곡에는 호수가 있고 호수 근처에는 샘물이 흐르노라. 그 샘물은 그 곁에 우뚝 선 큰 나무가 그 물을 가리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노라. 샘물 옆에는 돌판이 있고, 그 돌판 위에는 은사슬로 고정된 은쟁반이 놓여 있노라. 그대의 손으로 샘물에서 물을 떠서 은쟁반에 담고, 그 물을 돌판 위에 부어라. 그리하면 곧 그대를 기다리는 모험이 나타날 것이니, 나는 그것이 그대의 모든 갈망을 오랫동안 만족시킬 것이라 의심치 아니하노라."

이 거대한 존재가 천둥소리 같은 목소리로 이같이 말하더라. 그가 말한 후, 그들은 곧 그 모험을 향한 더 깊은 탐구를 위해 모두 떠났노라.

〈각주: 그들이 분수의 계곡을 바라보더라.〉

그들이 장구한 길을 떠난 지 오래, 마침내 이 이야기에서 예언되었던 그 가파른 언덕에 다다르니라. 이어 그들은 그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가니, 숲이 그치는 곳에 이르러 아래로 내려다보니 한 폭의 그림 같은 아름다운 계곡이 펼쳐졌더라. 멀리서 그들은 그들에게 이야기되었던 호수와 분수를 목격하였고, 이후 그들은 모두 그 계곡을 내려가 분수가 있는 곳으로 향하였더라.

그들이 아름다운 평야의 초원을 발견하고, 분수대 주변에 천막을 쳤을 때, 랜슬롯 경과 퍼시벌 경, 그리고 에커 경과 그들의 기사들은 닥쳐올지 모르는 어떤 모험이든 대비하여 온갖 무장을 갖추었더라.

〈각주: _랜슬롯 경이 슬랩 위에 물을 붓는다._〉

이와 같이 모든 준비를 갖추신 랜슬롯 경은 분수(噴水)에 다가가시니, 거인 목동이 말한 대로 은잔이 돌판에 사슬로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셨노라. 이에 은잔을 손에 잡으시고 분수의 물을 그 잔에 떠서 돌판 위에 부으시더라.

그때에 일이 다시금 일어나니, 이는 이전에 서 사그모어와 서 에인이가 그 곳에 이르렀을 때와 같았더라. 땅이 크게 떨리고 요동하여,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 지진에 큰 공포에 사로잡혔더라. 그 후 거친 바람이 일어, 세워져 있던 모든 천막이 쓰러져 바람에 날려 갔더라. 하늘에서는 천둥이 울리고, 짙고 어두운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비록 아직 한낮의 정점에 이르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은 곧 완전히 가려졌더라. 그 후 비가 홍수처럼 쏟아져 내려, 그 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 잠시 동안 이 비에 빠져 죽을 것이라 두려워하였더라. 비가 내리는 동안, 그들은 멀리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마치 애도하는 듯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더라. 이는 모두 서 사그모어와 서 에인이가 그 곳에 이르렀을 때와 같았더라.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는 그치고 구름은 하늘에서 걷혀, 해가 다시금 놀라울 정도로 찬란한 빛을 발하였다. 그리고 곧 이 역사가 전한 바와 같이 수많은 새떼가 날아와, 분수 옆의 나무에 내려앉자마자 곧장 노래를 시작하였다. 그들의 선율은 날카롭고도 황홀한 아름다움이어서, 그 노래를 듣는 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그 매력에 사로잡혔더라.

그때에 그 곳에 서서 새들의 노래를 듣고 있던 자들은 멀리서 한 기사의 모습을 보았으니, 그 기사가 매우 빠른 속도로 그 곳으로 달려오고 있었더라. 그 기사는 온몸을 검은 갑주로 두르고 있었고, 검은 큰 말 위에 앉아 있었으며, 그 말의 모든 장구와 구비들은 그 기사에게 속한 다른 모든 물건들처럼 모두 검었더라. 그 기사가 거칠게 달려와 그들 있는 곳으로 이르러, 비에 흠뻑 젖어 서 있던 수많은 기사들과 부인들을 보고는,傲慢하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외쳤노라.

"너희는 누구이며, 그 우물을 건드리고 간 자가 누구냐?"

이에 랜슬롯 경이 이르되, "신하여, 바로 나니라."

그때 흑기사, 매우 격분한 어조로 이르되, “너희가 지극히 슬픈 재앙을 초래하였음을 알라. 너희가 이 샘을 범하였으므로, 이 땅에 홍수가 내려 그 안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노라. 이제 곧바로 전투를 준비하라. 내가 너희가 이 샘을 범함으로써 이 땅에 입힌 해악을 갚아주리라 믿노라.”

이때 랜슬롯 경이 대답하되, 그 말씀에는 큰 자부심이 담겨 있었고 태도 또한 위엄이 서려 있더라. “영주여,” 그가 이르되, “나는 지금까지 어느 전투의 부름을 거절한 적이 없으며, 지금도 그러치 아니하리라. 당신이 말한 그 해악에 관하여는, 내가 행한 일에 해악이 있음을 나는 알지 못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해악이 이루어졌으니, 당신이 나를 그것을 방어하라 부르신 이상, 나는 나의 행위를 변호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랜슬롯 경은 앞서 언급된 대로 분수 근처의 그 초원에서 한쪽으로 물러났노라. 또한 분수의 기사 역시 같은 곳으로 물러나, 두 사람이 그곳에 이르러 각각의 처지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지점을 선택하더라. 그 사이, 그곳에 모여 있던 모든 이들은 그 격투를 지켜보고 이 모험의 결말을 목격하기에 좋은 곳에 모여들었더라.

이때 모든 준비가 갖춰지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각기 기사가 큰 소리를 지르며 말에 채찍을 가했고, 두 마리 사나운 황소처럼 모든 분노를 다하여 서로를 향해 돌진하더라.

〈각주: _랜슬롯 경이 분수의 기사와 싸우다._〉

그리하여 두 기사는 길목 한가운데서 마주쳤으니, 창과 갑옷이 부딪치는 굉음이 그토록 장대하여 이를 듣는 자들의 귀는 소리에 멍들었더라. 그 충돌에서 각 기사들의 창은 손이 쥐고 있는 부분까지 쪼개져 흩어졌고, 각 기사의 말들은 마치 돌벽에 부딪힌 듯 뒷발로 주저앉으며 뒤로 물러섰노라. 그러나 각기 기사는 발채와 목소리, 그리고 놀라운 기예와 손재주로 말을 바로 세웠으므로, 그 충돌로 인해 말이나 기사의 낙마는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마다 각기 기사들은 말에서 내리자마자 땅으로 뛰쳐나와 곧장 빛나는 검을 뽑아 들었으니, 햇살 아래 그 검들이 모두 빛나더라. 그리고 그들은 격분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돌진하여 검으로 치고 베며, 보는 자들을 놀라게 할 만큼 무서운 타격을 가하였더라. 그 두 기사가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는지, 그 광경을 지켜본 자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노라.

이렇게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격투를 벌였으나, 그 동안 어느 쪽도 상대방의 타격으로 큰 상해를 입지는 않았더라. 마침내, 랜슬롯 경과 싸우던 그 기사가 외쳤노라.

"잠시 손길을 멈추시오, 기사여. 내가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오!"

이에 랜슬롯 경은 전투를 멈추었고, 각기 기사들은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검에 기대어 서 있더라. 이때 분수의 기사라 일컫는 자가 이르되, "부인, 기사여, 만일 내게 그 은혜를 베푸시어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신다면, 내가 당신에게 간청하노라. 내가 진실로 선언하노니, 오늘 이전에는 이처럼 위대한 기사의 대결을 결코 만나지 못하였노라."

〈각주: 랜슬롯 경이 자기를 밝히니라.〉

이에 랜슬롯 경이 이르되, "영주여, 내가 호수의 랜슬롯 경임을 아시옵소서. 그러나 귀하는 누구신지 알지 못하오나, 오직 귀하가 지극히 강대한 무장임을 확신하나이다. 오늘 저와 맞서 싸운 자가 이토록 당당한 전사라니, 이는 저가 지금까지 마주한 어떤 전투보다도 더 값진 것이었사옵기 때문입니다."

이때 분수의 기사란 자가 랜슬롯 경이 밝힌 이름을 듣고, 자기가 싸우려던 상대가 누구인지 깨달으니, 그는 높고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치되 "무엇이라 하시오?"라 하였고, 다시 소리쳐 이르되 "정녕 호수의 랜슬롯 경이시오이까? 그렇다면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며, 오랫동안 멀리 찾아다녔던 자와 싸웠었구려." 하고 외치며, 그의 검과 방패를 던

져버리고 달려가 랜슬롯 경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랜슬롯 경의 몸을 안아 거대한 기쁨의 정열로 그를 포옹하였더라.

이때 랜슬롯 경은 그 기이한 기사가 자기에게 안겨드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이르되, "영주여, 당신은 누구시며 어찌하여 이와 같이 나를 안으시오?"라 하니라.

〈각주: 에워인 경이 자신을 드러내니라.〉

이때 분수의 기사(Knight of the Fountain)는 투구의 덮개를 들어 올리고 이르되, "보라! 나는 너희의 옛 동지라. 나는 고어(Gore)의 왕 우리아스의 아들 유웨인(Ewaine)이니라."

이 말을 듣고 랜슬롯 경은 유웨인 경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더니 그를 알아보고는, 그를 안 즉시 놀라움을 이기지 못해 외치되, 유웨인이 외친 것과 같이 말하되, "유웨인이여, 내가 그대와 싸웠단 말이오? 슬프도다, 내가 어찌하여 그대와 이같이 싸웠던고!"

이와 함께 그는 곧 검과 방패를 내려놓고 유웨인 경을 품에 안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를 포옹하였으니, 이는 유웨인이 그를 포옹한 것과 같았더라. 그 후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고, 그 뒤 유웨인 경의 옛 동지들이라 칭했던 나머지 기사들이 모두 나아와 그에게 인사를 드리며, 다시 그를 뵙게 되어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더라.

그때 랜슬롯 경은 에웨인 경을 데리고 에일레인 부인이 계신 곳으로 가, 두 사람을 서로 알게 해 주었노라. 에웨인 경은 에일레인 부인의 손

을 자신의 손에 꼭 쥐고, 뜨거운 사랑으로 그 손을 입맞추었더라. 그 후 그들은 모두 서로 우애를 다지며 함께 앉아 담화를 나누었더라.

이에 랜슬롯 경이 에웨인 경에게 이르되, "형제여, 내가 청하노니 내게 말하라. 어찌하여 당신이 여기까지 오셨으며, 이제 이 분수의 시위자가 되어 거처하고 있는지. 진실로 이는 매우 기이한 일이라 당신이 이와 같이 종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노라."

〈각주: 에워인 경이 그의 이야기를 전하더라.〉

이때 에웨인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말하리이다" 하고는, 자기가 펠리노어 경을 떠나 그 분수의 모험을 떠난 때로부터 자기에게 닥친 모든 일을 그들에게 다 이야기하였노라. 이때에 그들 모두는 큰 경각심으로 그의 말을 경청하며 주의 깊게 들었더라. 그가 말하기를 마치자, 모두 이르되 이것이야말로 우리 일생 동안 들어본 모험 가운데 가장 기이한 것이라 하였노라.

그때 에와인 경이 이르되, "모든 고귀한诸位여러분, 제게 자비를 베푸시어 제 아름다운 사랑의 부인이 머무시는 성으로 함께 가시기를 청하노라. 진실로 여러분이 그분과 친교를 맺으시는 것은 그녀와 나 모두에게 지극히 큰 영광이 되리라."

〈각주: 그들은 분수의 성에 이른다.〉

이에 에웨인 경이 이르고, 모든 이들이 크게 기뻐하며 그의 말에 동의하더라.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그 곳을 떠나 에웨인 경이 청

한 대로 분수의 계곡을 따라 내려가 분수의 성으로 향하였노라. 그들이 그 곳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한참 지나 정오를 넘긴 때였더라.

그들이 그곳에 이르자 큰 기쁨과 환호를 받으니, 그 후 여러 날 동안 분수의 성에서는 잔치와 유희, 그리고 갖가지 즐거운 놀음이 벌어졌더라.

* * * * *

이와 같이 물의 성에서 여러 날을 기쁨으로 보내고 있노라. 어느 날, 물의 성의 정원에 시어 에웨인 경과 그의 부인, 시어 랜슬롯과 엘레인 공녀가 함께 있었는데, 그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시어 랜슬롯이 시어 에웨인 경에게 이르되, "영주여, 우리가 왕의 궁궐로 가려 하오니, 아름다운 물의 부인을 데리고 저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렵니까? 진실로, 만일 우리가 모두 함께 그러한 방식으로 돌아가리라면 궁궐에서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니이다."

이에 에웨인 경이 이르되 "폐하, 이는 실로 우리 모두에게 매우 좋은 일이니, 폐하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함께 가겠사옵나이다" 하더라.

〈각주: _그들은 모두 분수의 성을 떠난다._〉

그때 그 연못의 땅에 있는 자들이 곧장 여행을 준비하더라. 사흘 후, 랜슬롯 경과 그의 부인, 그리고 에웨인 경과 그의 부인의 모든 궁중 사람들이 연못의 계곡을 떠나 캐멀롯으로 향하는 길을 떠났더라.

그들이 선택한 길은 그 거대한 흑인이 소 떼를 몰고 있던 언덕을 향해 이어졌다. 이 괴물이 그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는, 그 자리에 앉아 천둥이 울리는 듯 크게 웃었다. 비록 그들이 왜 웃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으니, 그들의 행차에는 그 어떤 웃음거리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거대한 흑인은 그들이 지나가고 떠날 때까지도, 여전히 그렇게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각주: 비비엔 부인이 사라지니라.〉

그들이 그 길로 더욱 멀리 나아가자, 마침내 호수의 부인 비비엔의 계곡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에웨인 경이 두 번이나 찾았던 호수의 부인 비비엔의 성을 찾았으나, 보라! 그 성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없었노라. 실로 그 곳에는 막대기 하나, 돌멩이 하나, 혹은 그 흔적조차 어딘가에서 볼 수 없었더라. 이에 그들 모두 크게 놀라, 그 마법 같은 곳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심히 의아해하며 탄식하였더라.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혹은 그 마녀가 자신의 사악한 짓을 그만두었는지, 아니면 이제 자신에게 대항하여 일어난 많은 이들의 분노를 두려워했는지, 그 어느 것도 결코 알려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한 가지 사실만이 분명하였으니, 그녀가 자신의 궁정과 성을 모두 거처하여 그곳을 완전히 떠났다는 것이요, 이후 다시는 그곳에서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없었노라.

이때에 이 일 이후로는 분수의 마법이 풀렸노라. 잔과 석판은 그들이 놓여 있던 곳에서 사라졌고, 그 후로 계곡의 사람들은 평화를 누렸노라. 이로써 분수에 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이 끝이 났노라.

〈각주: 그들이 다시 캐멀롯을 바라보더라.〉

이때 아서왕의 궁궐이 있는 캐멀롯의 근처에 이르렀을 때, 곧 호수의 부인 비비엔의 계곡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노라. 이때 랜슬롯 경은 그들보다 앞서 전령을 보내어 그들의 도착을 알리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성내를 바라볼 수 있는 거리에 다다르자, 왕궁의 기사들과 시종들이 대거 나와 그들을 맞이하는 광경을 보았노라. 이들은 큰 함성으로 랜슬롯 경과 그의 동료들을 환영하며 외쳤노라.

"환영하노라,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 영광스러운 전사들이여!"

이들은 아서왕의 명을 받아 그들을 맞으러 온 자들이었으니, 아서왕은 자신의 마음속에 지극히 사랑하던 그 기사들이 다시금 돌아옴을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더라. 이에 그들을 맞으러 나간 자들이 이렇게 외치니라. "영광스러운 기사들이여, 환영하노라."

이처럼 기쁨과 환대를 담아 그들은 모두 아서왕의 성읍을 향해 나아가니라. 랜슬롯 경과 그 부인, 그리고 유인 경과 그 부인,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과 그들 일행 모두는, 아서왕의 궁정에서 그들을 맞으러 파견된 기사들과 시종들로부터 큰 영예와 화려함으로 둘러싸인 채로 행진하였더라.

그리하여 성 밖으로 나와 있던 모든 이들이 큰 호기심으로 에일레인 부인과 레슬리 부인을 바라보았으며, 이 두 고귀한 부인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에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더라. 그러나 특히 그들은 에일레인 부인의 아름다움에 더욱 놀랐으니, 그녀의 미모는 궁중 한가운데 빛나는 별과도 같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녀를 바라보던 자들이 서로에게 이르되, "진실로 구이니비어 여왕조차도 저 부인만큼 아름답지는 않도다" 하였더라.

〈각주: _그들이 왕과 왕비 앞에 무릎을 꿇더라._〉

이에 그들이 왕의 고을에 이르러 성으로 들어가니, 왕과 구이니비어 왕비가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 장엄한 위용을 갖추어 앉아 계셨더라. 왕과 왕비 모두 금관으로 관을 쓰시고, 마땅한 장엄과 예식을 갖추어 찾아온 자들을 받들기 위해 각각 옥좌에 앉아 계셨더라.

이때 랜슬롯 경과 엘레인 부인,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모든 이들이 왕과 왕비 앞에 나아가, 높은 옥좌에 장엄히 앉아 계신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 그러자 왕께서 일어나시어 옥좌에서 내려오시며 그들 모두를 크게 환대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을 뵙고 심중에 기쁨과 희열이 가득 차셨기 때문이라.

그 동안 여왕의 얼굴은 아름다운 가면처럼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엘레인 부인을 매우 단호하게 응시하며, 그 부인의 얼굴이 지극히 아름답고, 매우 고귀하며 온화함을 지켜보았노라. 여왕이 이같이 엘레인 부인을 응시할 때, 그녀는 그녀를 깊은 악의로 미워하였으나, 그 미움을 항상 미소 짓는 얼굴 아래 숨겨 두었노라.

그 날 왕의 궁정에서는 랜슬롯 경과 에웨인 경, 그리고 퍼시벌 경과 에커 경의 귀환을 기뻐하며 큰 잔치가 열리고 환호가 끊이지 않았노라. 구이니비어 부인도 그 기쁨에 함께하였으나, 실상 그녀의 마음은 깊은 쓴맛과 일종의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더라.

* * * * *

〈각주: 왕비께서 랜슬롯 경으로부터 엘레인 부인을 물러나게 하시니라.〉

그 이튿날, 구이니비어 부인은 엘레인 부인을 불러들였다. 부인이 나아오자 왕비는 그녀에게 이르시되, “부인이여, 내가 당신에게 특별한 존경을 베풀려 하노라. 이는 당신이 내 곁에서 친히 시중들게 함이라. 이를 위해 성의 한쪽 구획에 내 방과 인접한 방을 마련해 두었으니, 당신과 당신의 수행원들은 그곳에서 묵으며 항상 내 곁에 머물 수 있으리라. 당신이 이 성에 머무는 동안, 당신은 항상 내 곁을 떠나지 말고 밀접하게 시중들어야 하노라.”

이에 구이니비어 부인이 이같이 이르시되, 이는 친구의 체면을 빌려 엘레인 공녀를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랜슬롯 경을 그의 부인으로부터 분리하고, 이후에도 두 사람이 서로 떨어지도록 하려 함이었노라. 그녀가 이를 행한 연유는, 비록 그 스스로의 마음속으로조차 정당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노라.

* * * * *

이와 같이 랜슬롯 경은 왕의 궁정으로 돌아왔노라. 이와 같이 그들은 캐멀롯에서 영접을 받았고, 이와 같이 나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아름다운 엘레인 부인은 랜슬롯 경과 헤어졌노라.

[그림]

결론

이때 호수의 부인 엘레인은 매우 연약한 몸이 되었으므로, 이틀 혹은 사흘이 지나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랜슬롯 경과 이별한 것을 한탄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녀는 낯선 곳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많이 울고, 적게 먹고, 적게 잤노라.

이때 호수의 부인과 함께 브라이센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랜슬롯 경이 코르빈 성에서 죽음의 문턱에 누워 있을 때 호수의 부인과 함께 그를 찾았던 이였다. 이 여인은 호수의 부인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리고 그녀가 랜슬롯 경을 그리워하며 어떻게 쇠약해져가는지를 보았다. 또한 그녀가 자신의 주군을 보지 못하면 병들고 말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브라이센 여사는 어느 날 랜슬롯 경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군, 만약 주군께서 당신의 부인을 뵐 기회를 찾지 못하신다면, 그녀는 병들고 아마도 주군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쇠약해져 죽게 될 것입니다.”

랜슬롯 경이 물었다. “어떻게 하면 그녀를 뵐 수 있겠는가?”

브라이센 여사가 대답하였다. “오늘 밤 한밤중의 중간 시각에 성의 한 통로로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군을 그녀에게 모셔다 드리리다. 주군께서 잠시 동안 그녀를 품에 안고 위로해 드리시면, 그녀는 다시 기운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각주: 랜슬롯 경이 엘레인 공녀를 방문함.〉

그 밤, 랜슬롯 경은 데임 브라이슨이 정한 곳으로 나아가니, 데임 브라이슨이 그를 레이디 엘레인의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레이디 엘레인이 랜슬롯 경을 보았을 때, 다시금 그와 함께 있게 된 기쁨에 마음이 격동되어 거의 이를 제어하지 못하였으니,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깊은 물에 빠진 자가 구원하러 오는 자를 붙잡듯 그를 꼭 붙들었더라. 그녀는 격동 가운데서 끝없이 외쳤노라. "네가 여기 있구나! 네가 여기 있구나!" 그러자 랜슬롯 경은 그녀를 달래며 위로의 말을 건네었더라. 마침내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예전처럼 미소와 웃음을 짓는 것이었더라.

이때 랜슬롯 경은 에일레인 부인과 함께 오랜 세월을 함께하였노라. 브리센 부인도 또한 그 동안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에일레인 부인의 궁궐 처녀들도 그들과 함께하였으니, 이는 랜슬롯 경이 새벽의 첫 번째 물이 차오르기 전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 때 에일레인 부인은 어린아이가 잠들듯 깊이 잠들었더라.

그때 아직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랜슬롯 경은 떠날 채비를 갖추었고, 브리센 부인은 그가 왔던 길로 그를 안내하여 그곳을 떠나게 하였더라.

〈각주: 여왕이 분노하시니라.〉

그때 왕실에는 구이니비어 왕비의 명을 받아 랜슬롯 경을 감시하는 사신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젊은 낭자가 한 명 있었다. 이튿날 아침이 밝자, 그 낭자는 왕비에게 나아가 전날 밤 데임 브라이센이 랜슬롯 경을 엘레인 부인의 거처로 인도해 왔다는 사실을 고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비는 미친 듯이 격분하였다. 그러나 그녀가 행한 일과 말한 말, 그리고 그 태도가 어떠하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 그녀의 분노에 찬 광기 속에서 그녀를 목격한 자는 오직 그 사신 낭자와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잠시 후 왕비가 매우 거칠고도 큰 소리로 외쳤다는 사실뿐이다.

"그 거짓된 배반자 기사, 랜슬롯 경은 어디 있느냐! 그를 여기로 데려오라!"

그리고 왕비는 다시 이르되, "그 외에는 아무도 내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가 올 때면 우리 둘만 남게 되리라!"

〈각주: _랜슬롯 경이 여왕 앞에 서니라._〉

그때 곧 랜슬롯 경이 인도되어 그 여왕 계신 곳으로 나아가니라. 그리하여 그 곳에 있던 이들이 모두 물러가고, 그 방에는 랜슬롯 경과 여왕 자신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랜슬롯 경이 여왕 앞에 서서 이르되, "여기 있나이다."

이때 구이니비어 부인이 오랫동안 랜슬롯 경과 그를 응시하였으니, 그의 눈은 크게 부풀어 오르고 그의 얼굴은 밀랍처럼 희었더라. 곧이어 그가 말하되, 목소리는 거칠되 크지 아니하여 이르되, "마침내 네가 성채의 이 일각에 지난밤에 왔다는 말이 참인가?" 하니, 랜슬롯 경이 이르되, "그렇사옵니다, 부인." 하더라. 이에 여왕은 희디흰 이를 갈며 또다시 그와 같은 낮고 거친 목소리로 이르되, "배신자여! 배신자여! 어찌하여 나의 허락 없이 이곳에 침입하였는가?" 하니라.

이때 랜슬롯 경은 왕비의 얼굴을 오랫동안 깊이 응시한 뒤, 마침내 입을 열었노라.

"배신당하였나 보오."

"그렇소," 왕비가 이르되, "정녕 당신은 배신당하였소.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배신한 이는 바로 당신 자신이라오."

랜슬롯 경이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여 스스로를 배반하였으며, 또 어떻게 하여 너나 그 밖의 누구에게나 배신자가 되었는가? 내 의무는 우선 나의 의무를 맹세한 그 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네가 그 부인을 감금한 이 곳에서, 병들고 약하며 슬픔에 잠겨 무력한 그녀를 돌보는 것이 어찌 배신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랜슬롯 경이 말하더라. 그 후 두 사람, 곧 왕비와 기사 champion은 잠시 동안 서로를 매우 격렬하게 응시하더니, 이내 왕비의 눈빛이 그의 눈앞에서 물러나고 곧이어 그녀는 떨기 시작하더라. 그러자 갑자기 그녀는 매우 쓴 목소리로 외치니라. "아, 랜슬롯, 랜슬롯!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빕니다. 나는 가장 불행한 자이오!" 이에 그녀는 손수건을 들어 눈가에 대고 그로써 얼굴을 가렸노라. 그리고 그 동안 그녀의 얼굴은 입술 외에는 완전히 가려졌는데, 그 입술은 그녀의 격정에 의해 뒤틀리고 비틀리고 있었노라.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으나, 그녀의 가슴은 경련이라도 하듯 매우 격렬하게 오르내렸노라.

〈각주: 랜슬롯 경이 왕비를 불쌍히 여기더라.〉

이에 랜슬롯 경은 어찌할 바를 몰라 서성였으나, 그의 마음은 사랑과 연민으로 찢어지고 있었더라. 이때 그가 가까이 다가가 이르되, "부인, 부인이여! 어찌하신 소이냐! 하느님께서 우리 둘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빕니다. 당신의 슬픔이 나의 심장을 찢어내나이다."

이때 두 사람은 홀로 남았더라. 그가 무릎을 꿇고 앉으며 그녀의 손을 잡아 얼굴에서 떼어내려 애썼노라. 잠시 동안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으나, 이내 내어주었더라. 그는 그 손을 단단히 붙잡았노라.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얼굴을 돌린 채로 있어, 그가 그녀의 얼굴을 거의 볼 수 없었더라.

얼굴을 돌린 채 그녀는 잠시 후 이르되, "랜슬롯이여!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나이까?"

그가 이르되, "그리하나이다, 부인. 내가 당신을 불쌍히 여기고, 또한 나를 불쌍히 여기나이다. 그중 어느 쪽을 더 불쌍히 여기는지 나는 알 수 없나이다. 하느님께서 아시거니와, 나는 나의 의무와 신의를 지

키려 하나이다. 그러나 당신께서 나를 다른 길로 이끌려 하시는 것 같아 두렵나이다."

이에 왕후가 이르되, "랜슬롯이여, 행복과 불행이라는 저울로 이를 잴 때, 의무란 무엇이며 신의란 무엇인가?"

랜슬롯 경이 이르되, "부인, 하느님의 이름으로 금하소서."

〈각주: 엘레인 공주가 그 곳에 나타나니라.〉

이때 랜슬롯 경이 이 말씀을 마치자, 문득 그 방에 누군가 있는 것을 깨달았더라. 그러므로 그가 고개를 들어 보니, 보라! 그들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에일레인 부인이 서서 그들을 모두 바라보고 있었노라. 그녀의 얼굴은 죽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으니, 이는 그녀가 그들의 눈치를 채지 못한 채 이 곳에 들어와 이미 일어난 일의 대부분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때 랜슬롯 경은 그가 왕비에게 한 말이 이 엘레인 부인에게 들켰음을 깨달았고, 그 순간 그는 당혹감과 연민으로 가득 찼노라. 그러므로 그는 무릎을 꿇었던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두 팔을 가슴에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응시하며 엘레인 부인 앞에 서 있더라. 이때 왕비 또한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더니, 그 또한 엘레인 부인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와 동시에 그녀의 얼굴은 불꽃처럼 붉게 타올랐노라.

그때 왕비께서 매우 거만하게 일어나 이르시되, "낭자여, 이는 뜻밖의 만남이라 하리라. 내가 너를 부르려 하던 차였노라. 이제 내게 말하

라, 이 밤에 이 기사들이 성의 이 쪽으로 온 것은 네 뜻이었느냐?" 하니 엘레인 낭자가 이르되, "소인입니다, 여주인님. 소인의 뜻으로 그가 왔사오니, 소인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를 제외하고는 위로를 줄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왕비의 눈에는 분노가 타올랐고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너는 왕실의 규율을 어긴 것이로다. 너는 잘 알고 있거니와 그러한 일은 허락되지 않는 바니라. 내가 원한다면 너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노라. 그러나 나는 너를 그렇게 벌하지 않고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생명을 구원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가능한 한 신속히 이곳을 떠나라고 명하노라."

〈각주: 엘레인 공주가 왕비를 책망하더라.〉

이렇게 노여워하는 왕후의 말이었노라. 그러나 엘레인 낭자는 언제나 자존심에 가득 차 그녀를 바라보았더라. 왕후가 그 말을 마치자 그녀가 이르되, "부인, 당신의 뜻대로 하리이다. 내일 아침 나는 이 곳을 떠나기를 기뻐하리니, 이는 내게 큰 불행의 장소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나 가기 전에 이것을 물어보리이다, 부인이시여. 만약 한 여인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다른 여인의 삶에서 모든 행복과 기쁨을 빼앗는 자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말하겠나이까? 그리고 만약 그 여인을 빼앗는 자가 바로 이 세상 그 어느 기사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주군을 가진 자라면 당신은 무엇을 말하겠나이까?"

이 말에 왕후의 눈은 매의 눈처럼 매우 야위게 빛나니라. 처음에 그녀는 말하려 애썼으나 할 수 없었고, 이어 말을 내뱉었으나 그 말은 마

치 그녀를 질식시키는 듯하였노라. 그녀가 이르되, "가라! 나를 떠나라!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라 하였으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노라. 다만 그녀는 목구멍에서 아무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게 하며 말하려 애쓸 뿐이었노라.

이에 엘레인 낭자는 위엄을 갖추고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났노라. 두 사람은 홀로 남게 되었으나, 그녀가 돌아보거나 걸음을 멈추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더라.

이때 여왕은 랜슬롯 경을 돌아보며 이르되, "경이여, 내가 경에게 이 명령을 내리노니, 비록 경의 여인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경에게 떠나라는 허락을 줄 때까지 경은 이 궁정에 머물러야 하노라."

그리하여 그녀도 돌아서서 자리를 떴고, 잠시 동안 랜슬롯 경은 홀로 서서 마치 돌로 만든 조각상과도 같이 움직이지 않았다.

〈각주: 엘레인 공주가 궁정을 떠나다.〉

그리하여 이튿날 엘레인 낭자는 왕의 궁정을 떠났으나, 랜슬롯 경은 남았노라.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구니비어 여왕이 그에게 머물러 있으라 명하셨음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녀를 배신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왕의 궁정에 있던 모든 이들은 그가 자기의 뜻으로 머물러 있다고 여겼더라.

그러나 엘레인의 부인이 이끄는 궁중이 그 곳을 떠나기 전, 엘레인의 부인의 오라버니인 라바인 경이 랜슬롯 경에게 다가가 이르렀으니, 그 자리에는 그들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더라. 라바인 경이 랜슬

롯 경에게 이르되, “경하신 부인께서도 함께 떠나시지 않나이까?” 하니,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아니로다. 그러나 내가 곧 그녀를 따르리라.”

〈각주: 라베인 경이 랜슬롯 경을 배반죄로 고발하더라.〉

이에 랜슬롯 경의 동생 라베인 경이 이르되 “폐하, 보시옵니까? 폐하의 부인인 제 자매가 극도로 위독한 몸이시라는 것을” 하니, 랜슬롯 경이 이르시되 “보노라” 하거늘, 라베인 경이 매우 격분한 어조로 다시 이르되 “어떤 남자가 다른 여자의 미소를 얻기 위해 자신의 부인을 버린다면, 그에게 무슨 명예가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그런 짓을 한다면 그대는 기사로서 치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대가 맺은 맹세를 저버린 배신자가 되리라” 하더라.

그때 랜슬롯 경은 라베인 경을 매우 단호하게 응시하더라. 그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창백해졌고, 그의 눈은 불타는 석탄과 같았노라. 곧이어 그가 이르되, “영주여, 당신이 쓴 말은 쓰나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분노에서 안전하오.”

그때 라베인 경은 웃었노라. 그러나 그것은 기쁨에서 우러난 웃음이 아니었더라. 그는 즉시 랜슬롯 경을 떠나 그 자리에 그를 남겨두고 물러갔노라.

그때 바로 그 시각, 엘레인 낭자는 아서왕의 궁정을 떠났다. 그녀는 폐쇄된 수레를 타고 가니, 그녀의 곁을 호위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하는지 알 수 없었더라.

그러나 온 세상이 그녀의 얼굴을 보았으리라. 그 얼굴은 매우 평온하고 단호하여, 어떤 정열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온 세상이 그녀의 말을 들었으리라. 그녀의 말 또한 어떤 종류의 정열도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실로, 나는 믿노라. 그 때 그녀의 영혼은 완전히 기쁘고 만족스러웠으며, 슬픔의 그림자 하나도 없었다고.

한번은, 랜슬롯 경이 큰 노여움과 분개함으로 말했을 때, 그녀는 그의 격앙을 나무라 이르되, "내 형제여, 가라사대.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네가 마치 내가 바라보듯 장래를 볼 수 있더면, 이 눈물의 짧은 골짜기에서 가난한 행인이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은 실로 매우 작은 일임을 알리라."

또한 어느 때에 그녀가 이르되, "내 가련한 주군, 랜슬롯 경이여! 진실로 나는 그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나님께서 곧 그를 징계하시어, 마치 꺾이고 짓눌려 다시는 완전히 서 있을 수 없는 갈대처럼 그를 굽히고 짓눌러 버리실 것임이라. 그러나 이러한 일도 크게 상관할 바 못 되노라. 생명의 날은 매우 짧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노라."

이와 같이 엘레인 낭자는 매우 차분히, 어떠한 열정이나 슬픔도 없이 말하더라.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나는 그녀가 그 때에도 미래를 꿰뚫어 보았으며, 그 속에서 그들 모두에게 닥칠 일을 목격하였다고 믿노라.

이렇게 그들은 이틀 동안 천천히 여행을 계속하여, 마침내 숲의 미로를 벗어나 넓은 평원으로 나왔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곡식과 호밀로 가득한 비옥한 들판 한가운데에 숲속의 아름다운 수도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수도원의 벽은 햇살 아래 눈처럼 하얗게 빛났고, 붉은 지붕들은 우뚝 서 있는 짙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불꽃처럼 타오르는 듯했다. 그들이 지나던 길은 반질반질하고 고요한 강가 옆으로 이어졌는데, 강물은 다듬은 은처럼 매우 밝고 빛나고 있었다. 강가 한쪽에는 버드나무와 포플러가 자라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익어가는 곡식들의 매끄러운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그때 엘레인 부인은 심한 병고로 괴로워하며, 자신을 모시는 이들에게 이르되, "사랑하는朋友们여, 우리가 이 곳으로 온 것은 옳은 일이라. 이는 평안의 집이니이다. 나는 매우 아파하오니, 주께서 내 산고에 대해 보시기에 마땅하신 대로 처치하시기를 원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쉬게 하소서."

이렇게 말한 에일레인 낭자는, 그 지시에 따라 수녀원 문까지 모셔졌노라. 그들은 그녀를 수녀원 안으로 모셔가 부드러운 침상에 눕혔고, 그때 그들이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위안을 베풀어 주었노라.

*****

그사이 랜슬롯 경은 왕의 궁전에 머물렀으나, 그 마음은 무겁고 영혼은 슬픔으로 가득 찼노라. 그의 영혼은 이리저리 끌려다녔기 때문이니라. 그가 궁전을 떠나갔든, 혹은 그가 머물렀던 대로 남아 있었든, 어느 쪽이든 그는 가장 불행할 것이었노라. 그러나 그의 현재의 불행에는 회개하는 자의 고통과도 같은 많은 시련이 더해졌노라. 그는 왕의 궁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옳은 일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엘레인 공녀를 따라갔으며,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내가 이 곳을 여왕께 예의를 갖추어 떠나갈 수 있는 순간이 오면, 나는 반드시 그녀를 뒤쫓으리라.” 그러므로 만약 그가 그 때 이미 그녀가 숲 속의 수도원에서 병석에 누워 있음을 알았더라면, 그는 단 한 순간도 더 머무르지 않았으리라. 오히려 바람의 날개를 달고 그녀에게로 날아갔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랜슬롯 경은 자기 부인의 사정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였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큰 벌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이라. 그 벌은 그가 사는 동안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노라.

제칠편

갤러해드의 탄생

이제부터 성배의 성취에 관한 기적적인 예언을 가웨인이 들은 일과, 랜슬롯 경의 아들인 갤러해드 경의 탄생을 서술하노라. 또한 갤러해드 경이 그 거룩한 잔을 성취할 것임이 예언되었음을 밝히고자 하노라. 아울러 갓난아기 갤러해드가 누구에게 맡겨졌는지, 오직 보르스 드 가니스 경만이 그의 행방을 알았으나, 때가 되어 그가 살아있는 자 중 가장 위대하고 힘센 기사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연유를 전하리라.

[일러스트레이션: 구름 안개 속에서 예언하는 멀린:]

[그림]

제1장

어찌하여 보르스 드 가니스 경과 가웨인 경이 랜슬롯 경을 찾아 나섰으며, 그들이 어떻게 헤어졌고 그 후 가웨인 경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금까지 아서왕의 기사들 중 랜슬롯 경이 전언에 따라 미쳐버린 후 그를 찾아 나선 여러 기사들의 이야기, 즉 퍼시벌 경과 에웨인 경, 사그모어 경, 그리고 에커 데 마리 경의 행적에 대해 서술하였노라. 이제부터는 가웨인 경의 이야기를 전하노니, 그는 보르스 데 가니스 경과 함께 랜슬롯 경을 찾아 나섰더라.

그들이 아서왕의 궁전을 떠나자, 두 사람은 잠시 동안 함께 길을 걸었다. 무기의 동지로서 함께 여행하며, 그들은 여러 가지 모험을 겪었는데, 그 중 일부는 기사도 사기에 기록되어 있고, 일부는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한 동행 가운데 봄과 여름이 지나가고, 이내 가을이 찾아왔다.

〈각주: 가웨인 경과 보르스 경이 함께 출정함.〉

여기에는 여름을 가장 사랑하시는 이들도 있고, 봄을 가장 사랑하시는 이들도 있거니와, 또 다른 이들에게는 가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사랑스러운 때가 되느니라. 진실로 각 계절마다 그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사오니, 가을의 아름다움이 다른 모든 계절의 아름다움보다 더 사랑받는 이가 있음을 이상하게 여길 바는 못 되리라.

연중 그 시기에 견과를 따는 계절이 이르니, 이때에 시골 사람들은 자작나무 덤불 밖으로 나가 밝은 갈색의 열매를 수확하며 즐거워하느

니라. 이때 아침 일찍이 날은 맑고 서리가 내리니, 마치 하늘의 모든 궁륭이 맑은 수정으로 만들어진 듯하도다. 이때 길가 언덕의 차가운 푸른 그림자를 바라보면, 얇은 서리가 아직 기울어진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는 곳에 수많은 밝은 빛의 점들이 반짝이는 것을 여기저기서 보게 되느니라. 이때 새들은 혹독한 겨울의 도래를 알리는 자처럼 더 거친 소리로 울부짖느니라. 이때 다람쥐들은 겨울을 위한 양식을 찾아 마른 죽은 나뭇잎 사이에서 장난치며 뛰노느니라. 이때 온 세상은 붉은빛과 황금빛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옷을 입으니, 밝고 쾌활한 태양이 숲속의 얇은 노란 잎사귀들을 통해 내려쬐일 때, 온 땅은 놀라운 황금빛 광채로 밝혀진 듯하여, 천국의 영광이 그보다 더 놀랍지 않을 것 같은 그 이례적인 광채를 띠느니라.

이러한 가을의 세상 속에서, 그 두 고결한 기사들은 함께한 여정의 후반부를 함께하며 나아갔으니라.

때로는 그들은 가지의 잎은 드문드문하지만 붉고 보랏빛 열매로 가득히 빛나는 울타리가 늘어서 있는, 매끄럽고 먼지 많은 대로를 따라 달렸고, 때로는 건조하고 떨어진 낙엽이 발底下에서 수많은 속삭임 같은 빽빽한 소리를 내며 흔들리는, 얇은 숲속을 지나갔으며, 때로는 강하고 자유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크고 하얀 구름들이 그들의 머리 위 하늘을 매우 부드럽고 엄숙하게 지나가는 넓은 평원을 따라 여정을 계속하였더라.

〈각주: 그들이 펠리노어 경과 사그모어 경을 만나다.〉

이와 같이 때로는 이곳을, 때로는 저곳을 지나며 여행하던 그들은, 어느 날 새벽녘에 한적하고 윤기 나는 호숫가에 다다랐더라. 새로 떠오르는 해의 온화한 따뜻함 속에서 호수의 차가운 물결은 안개처럼 피어올랐고, 갈대와 부들은 누렇게 시들었으며, 어딘가에서는 그들의 발길에 놀란 야생 조들이 소란스러운 물소리를 내며 물가에서 솟아오르더라.

그들이 호숫가 옆을 지나가던 차에, 두 명의 기사가 햇살 아래 나란히 말을 몰며 다가오는 것을 보았더라. 네 사람이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고 말을 섞자, 그 두 기사가 퍼시벌 경과 사그모어 경임이 드러났노라. 또한 이 역사가에서 예고된 바와 같이, 그들도 또한 무장을 갖춘 동행자로서 길을 가고 있었더라.

그들이 네 명은 조금 더 나아가, 길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지붕이 짚으로 얹힌 정감 있는 농가까지 이르렀다. 그곳에서 그들은 빵과 우유, 그리고 방금 낳은 신선한 계란과 꿀을 대접받으며 아침 식사를 나누었으니, 이 모든 것을 농부의 부인이 정성껏 차려낸 것이었더라.

〈각주: 사그모어 경이 분수의 모험에 대하여 말하더라.〉

이에 가웨인 경과 보르스 경은 펠리노어 경과 사그모어 경에게 소식을 묻고, 또한 자신들이 에웨인 경과 어떻게 헤어졌으며 그가 그 샘의 모험을 떠났음을 알렸다. 이때 사그모어 경은 그와 같은 모험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여 주었으니, 가웨인 경과 보르스 경은 이를 매우 경청하더라.

그리고 사그모어 경이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자, 보르스 경과 가웨인 경은 그 일들에 관해 많은 질문을 던졌고, 그는 묻는 모든 것에 대답하였더라.

그때 가웨인 경이 이르되, "잘 들었노라, 영주여. 내가 알기에 네가 말한 이 모든 악행은 마녀 비비엔 부인이 꾸민 것이로다. 나는 그녀를 잘 알고 있노라. 과거에 그녀는 무고한 백성들을 해치려 끊임없이 꾀를 꾸민 바 있어, 나는 자주 그녀를 책망할 이유가 있었노라. 이제 나는 현재의 사색을 잠시 접고 그 부인을 찾아내어 회개하게 하려노라. 만약 내가 그녀를 회개하게 할 수 없다면, 나는 그녀로 하여금 그 샘의 일에서 저지른 모든 악행을 무효화하게 하리라."

이에 사그모어 경이 이르되, "영주여, 내 말을 경청하고 손을 놓으소서. 그렇지 않으면 당신 또한 그 악행들에 얽히게 될 것이오."

〈각주: 가웨인 경이 비비엔 부인을 찾아가노라.〉

이때 사그모어 경이 지혜롭게 말하되, 가웨인 경은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그는 선언하고 단언하되, 자신이 비비안 부인을 찾아 그와 담화할 것이며, 설득하든가 아니면 강제로라도 그녀를 더 나은 행실로 이끌리라 하였노라.

이에 퍼시벌 경과 사그모어 경이 그 농가에서 떠나기 전, 가웨인 경은 비비안 부인을 만날 만한 길을 정성스레 묻고 나서, 사그모어 경과 퍼시벌 경에게 작별을 고하고, 보르스 경에게도 작별을 고하더니, 말에 올라타 비비안 부인을 구하는 길로 떠나갔노라.

이때 가웨인 경은 다른 기사들과 작별한 후, 온 종일 홀로 길을 재촉하더니 그 밤을 숲속에서 묵게 되니라. 그곳은 맑고 순수한 물이 솟아나는 샘터 근처였노라. 다른 피난처가 없었으므로 그는 외투를 두르고 투구를 베개 삼아 머리를 기댄 채, 큰 안위와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더라.

또한 그도 새벽 빛이 스며들 때 매우 상쾌하게 깨어났고, 갑옷을 벗어던진 뒤 그가 쉬었던 곳 근처의 샘물로 가서 몸을 씻음으로써 상쾌함을 되찾았더라.

〈각주: 가웨인 경이 비비엔 부인을 만나다.〉

그 후, 가웨인 경이 아직 무장을 갖추지 못한 채 서 있을 때, 그는 황금빛 숲속을 지나 자신 쪽으로 향하는 여러 사람의 발소리를 문득 감지하였다. 그들이 가까이 다다르자, 그는 그 무리가 한 부인을 호위하는 일행임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 무리와 그 무리 한가운데를 달리던 부인이 모두 형광색 새틴으로 된 의복을 입고 있어, 마치 거대한 빛나는 불꽃이 숲 전체를 밝히는 듯하였음을 보았다. 그 부인이 가웨인 경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녀가 바로 비비안 부인임을 알았노라.

그때 가웨인 경이 그 부인을 만나러 나아가, 그녀의 팰프리(갈색 말)의 안장 고삐에 손을 얹고 이르되, “부인이시여, 내가 잘못 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비비안 부인이시니이다.”

그녀가 이르되, “옳소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그리고 너, 내가 보기에 가웨인 경이로다.” 이에 가웨인 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옳소이다. 내가 바로 그라오. 내가 여기 온 것은 특별히 너와 담소를 나누고자 함이라.”

이때 비비안 부인은 가웨인 경을 매우 묘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잠시 있다가 이르되,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경?”

〈각주: 가웨인 경이 비비엔 부인을 책망함.〉

가웨인 경이 이르되, “부인, 내가 들은 바로는 당신께서 분수의 계곡이라 불리는 한 골짜기에 큰 해악을 끼쳤사오니, 그로 인해 많은 선량하고 값진 기사들이 불운을 겪었사옵니다. 이제 내가 당신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렇나이다. 당신의 자비로우심에 간구하오니, 그 분수의 계곡에서 모든 저주와 마법을 걷어내어 그 골짜기를 그 동안 닥쳐온 재앙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소서. 내가 당신의 너그러움에 기대어 이 일을 청하거니와, 만일 내가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시거든, 이제 여기에서 나는 당신을 강제로 그 마법을 풀게 하리이다.”

이에 비비엔 부인의 눈썹이 일그러지며 찌푸려지고, 그 뺨은 매우 붉어졌으며, 그녀의 눈은 불꽃의 빛처럼 타올랐다. 그리고 그녀가 이르되, “하하, 경이여, 당신의 말씀은 매우 무례하도다. 내가 남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하느니 그것이 어찌 당신의 상관인가. 보라, 내가 당신에게 어떠한 해악도 가하지 않거늘, 그러므로 이는 당신의 간섭할 바가 아니니라. 이제 내가 명하노니, 즉시 당신의 손을 나의 고[illegible]리에서

거두어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악재보다 더한 재앙이 당신에게 곧 닥치리라."

가웨인 경이 이르되 "내가 네게 요구한 일을 행하고 분수 계곡의 마법을 풀겠다고 약속하기 전까지는 내 손을 떼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비비안 부인이 이르되, "손을 거두소서, 경이시여!" 하니, 가웨인이 이르되, "내가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에 비비안 여인이 소리 높여 외쳤노라. "어리석은 자여! 장차 네가 당할 고난을 스스로 탓할지어다."

이때 비비안 부인은 손에 길고 희고 가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으니, 그녀가 말하며 그 지팡이를 들어 가웨인 경의 어깨를 치더라. 그녀가 그를 치며 외쳐 이르되, "네가 지금 가진 형상을 버리고 대신 형편없는 왜구의 형상을 취하라."

〈각주: 비비안 부인이 가웨인 경을 마법에 빠뜨리니라.〉

그녀가 그 날카롭고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즉시 그녀의 명령대로 사건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라. 가웨인 경은 즉시 수축하고 주름들기 시작하여, 다섯을 셀 사이도 되기 전에 그는 더 이상 그가 아니었으며, 대신 기형적이고 작은 난쟁이가 되어버렸노라.

그때 비비안 부인의 일당들은 크게 웃고 또 웃었으니, 온 숲이 그들의 웃음소리로 울려 퍼졌노라. 이렇게 웃음을 멈추지 않은 채 그들은

그곳을 떠났고, 말들을 몰아 그 곳을 벗어나 가니, 가웨인 경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혼란스럽고 놀라움과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더라.

그는 잠시 동안 미로에 갇힌 자처럼 그 자리에 섰으나, 다른 이들이 모두 사라진 뒤야 비로소 그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 눈이 떠졌노라. 그 즉시 그는 미친 자처럼 여기저기로 달리기 시작하였으니, 그가 어느 방향으로든 달려가며 비비안 공주를 찾았으나 그녀의 흔적이나 그와 함께한 무리들의 자취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노라.

그가 달릴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한 고통으로 가득 차 외쳤노라.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나 앞서 말했듯 그 공주와 그녀를 따르던 자들은 사라졌고, 그를 둘러싼 것은 고요한 숲뿐이었노라. 그럼에도 그는 숲을 울리는 조소하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으나, 그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그의 상념이 그를 속인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노라.

이윽고 가웨인 경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에 젖어 울었다. 잠시 후 그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눈물을 닦았다. 그 후 그는 이제 위축되고 변형된 몸에는 맞지 않게 된 갑옷의 파편들을 주워 모아, 그 근처에서 이미 눈여겨본 동굴 속에 숨겨 두었다. 그 후 그는 말에 올라타, 어디로 향해야 할지, 혹은 그 처참한 재앙에 직면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말을 몰아 떠났다.

이렇게 하여 잠시 동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즉 작은 말라비틀린 원숭이처럼 말 위에 높이 올라타고서 숲속을 달리던 때라, 그는 다가오는

목소리와 말굽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어 반쯤 벌거벗은 숲 너머로 한 무리가 멀리서 다가오는 것을 또렷이 깨달았더라.

〈각주: 숲의 동료들은 가웨인 경을 난쟁이로 바라보았더라.〉

그때 가웨인 경은 큰 수치심의 공포에 사로잡혔고, 다가오는 자들로부터 자신의 기형적인 몸을 숨길 방도만 생각하더라. 그러나 그가 몸을 숨기기 전에, 다른 이들이 이미 그를 발견하였더라. 그들은 그의 형체가 유난히 작고 기형적이며 위축되어 있음을 보았고, 이에 크게 소리 지르며 그를 마치 야수라도 쫓듯 추격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그를 장거리까지 쫓다가 마침내 그를 따라잡아 그를 에워쌌더라.

그가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은 가웨인 경은 말에서 뛰어내려 땅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노라. 그는 자신의 얼굴을 마치 땅속에 묻어버리듯 감추어, 자신을 붙잡은 자들이 그 기형적인 얼굴의 치욕을 보지 못하도록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손을 얼굴에서 떼어내어, 그가 지닌 얼굴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었노라. 이때에 그들이 그의 얼굴이 원숭이의 얼굴과 같음을 보자, 그들은 다시금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며 크게 환호하였노라.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이르되 "너는 누구며, 어찌하여 너와 같은 기형의 난쟁이가 여기 숲속에서 고결한 기사의 전마를 타고 다니느냐?" 하거늘, 가웨인 경이 이르되 "경, 큰 재앙이 내게 닥쳤사오니, 나는 잠시 전의 내가 아니니이다."

가웨인 경이 이같이 말하매, 그들이 그의 말을 듣고 장난하는 줄로 여겨 다시금 크게 웃으며 소란을 피우니라.

〈각주: 그들이 가웨인 경을 조롱하더라.〉

그때 가웨인 경에게 말하던 자가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이르되, "이 가련한 자는 미쳤노라" 하니, 가웨인 경이 소리쳐 외치되, "아니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오직 매우 불쌍하고 불행할 뿐이니이다. 아침에는 왕족의 혈통을 이은 고귀한 기사였건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모양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이 말을 들은 자들은 이전보다 더 크게 웃었으니, 그들은 이 가난한 난쟁이가 미쳤으며 자신들을 장난감 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이에 앞서 가웨인 경에게 말하던 자가 다시 입을 열어 이르되, "너는 알라, 우리가 거처하는 성의 부인이 기르던 작은 난쟁이가 불과 며칠 전에 죽었노라. 이제 너는 우리와 함께 그 부인에게 가 그 죽은 자를 대신하여 봉사하게 되리라. 진실로 너는 내 생애에 본 적 있는 그 어떤 요정보다도 가장 작고 가장 기형이로다. 이를 어찌 여기느냐? 만약 우리가 함께 하거든 너는 음식과 음료를 넉넉히 얻고 좋은 옷과 숙소, 그리고 일 년에 오십 개의 빛나는 은화를 임금으로 받으리라."

그때 가웨인 경은 깊은 비통한 목소리로 외쳤노라. "나는 그런 임무에 동행하지 않겠노라.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다면, 나 같은 자가 그런 임무를 맡을 자는 아니며,

한때 높은 지위에 있던 자가 지금과 같은 비참한 처지로 떨어진 모습을 보여 부인의 웃음거리가 될 자는 결코 아님을 알았을 것이라."

이때 가웨인 경은 영혼의 깊은 고통 가운데 이렇게 이르되, 그러나 그를 듣는 자들은 다만 웃을 뿐이었더라. 그가 함께 가기를 원치 않음을 보고, 그들은 그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의 손과 발을 서로 묶고,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강제로 그를 데려가니라.

그 후 그들이 그 숲을 떠나 멀리 나아갈 때에, 곧 가웨인 경은 그들이 한 성채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았노라. 그 성채는 지극히 고귀하고 장엄하며 위엄 있는 거처라 하더라.

〈각주: _그들은 가웨인 경을 한 부인의 성으로 모셔간다._〉

그들이 성에 다다라 안뜰로 들어섰을 때, 그 무리의 지도자가 가웨인 경을 데리고 성의 부인이 계신 곳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가 부인에게 이르되, "부인이시여, 보소서. 이 난쟁이를. 우리가 숲에서 그를 사로잡아, 얼마 전 죽은 그 하인을 대신하여 부인을 모시게 하려고 데려왔나이다. 이런 기이한 난쟁이를 보셨나이까?"

그때 성의 부인이 가웨인 경을 바라보매, 그가 얼마나 위용이 없고 형체가 얼마나 기이한지 보았더라. 그녀는 그의 용모에 놀라 그에게 물었노라. "너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녀가 말하기를 매우 자비롭고 온유하게 하였으므로, 가웨인 경은 자신의 불행을 고백할 담력을 얻어 외쳤노라. "부인아, 내가 당신에게 말하더라도 당신은 믿지 않으시리이다. 나는 겉으로 보이는 바와 같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

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나는 고귀한 기사였사오나, 마법에 걸려 이제 당신께서 보시는 이 형상이 되었나이다."

〈각주: 그 부인은 가웨인 경을 불쌍히 여기더라.〉

이때 성의 여주인도 가웨인 경이 정녕 미쳤다고 여겨 이르되, "이 가련한 자는 정신을 잃었노라. 그를 데려가서 극진히 대접하라. 그를 먹이고 입힌 후, 은으로 만든 아주 가벼운 사슬로 묶되, 그가 이 곳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도망치지 못하게 하되, 동시에 이 사슬로 인해 무거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

이때 그 부인은 매우 자비롭고 온화한 어조로 말하더라. 그러나 가웨인 경은 그녀의 말에 완전히 절망에 빠졌노라. 이에 그는 마치 애완동물처럼 거두어져 양식을 공급받았고, 부인이 말한 대로 사슬에 묶였노라. 그는 순수한 절망으로 인해 끊임없이 울었더라.

그 성의 부인은 마음이 지극히 연약하여, 외모가 기형적이고 못생겨 보이는 가웨인 경을 불쌍히 여겼다. 그러므로 그녀는 항상 그에게 자비롭고 온순하게 말하며, 성 안의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지 못하게 막았노라.

이로써 가웨인 경은 처음에는 성을 탈출하려 했으나, 나중에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노라.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노라. "내가 어찌하여 이 곳을 떠나려 하는가? 불쌍한 내가 이토록 불행한 중에, 이 성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좋고 자비로운 피난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그는 온순하고 순종적인 자가 되었고, 설령 탈출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곳을 떠나려 하지 않았노라.

〈각주: 가웨인 경이 성에서 지내던 일._〉

그리고 가웨인 경은 그 성에서 일 년 이상 머물렀으며, 언제나 그 부인은 그에게 자비롭고 온유한 정성으로 대했고, 언제나 그는 왕실 기사로서 부인에게 마땅히 베풀 수 있는 그런 예의 바름으로 그녀에게 대하였다. 그의 태도에 담긴 그 예의 바름이 지극히 컸기에, 그 부인은 이에 대해 크게 놀라워하되, 실로 그처럼 이르되, "실로 이 가련한 자는 고귀한 궁정에서 양육되었거나, 아니면 그러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른 바가 있나니, 그가 드러내는 그러한 예절과 풍채를 익히기 위함이니라."

때때로 성의 주인은 가웨인 경에게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물어보곤 하였으나, 가웨인 경은 그 점에 있어 스스로 지혜를 터득한 터라 이제 그녀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자기가 자신과 그에게 닥친 일들에 대해 말하게 될 때마다, 그것을 듣는 자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그를 비웃고 조롱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자신이 미쳤다고 선언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기로 하였노라. 이에 그는 늘 침묵을 지키며 지냈고, 성의 여인은 그가 어찌하여 그토록 많은 온유함과 단정한 태도를 지니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였더라.

이러므로 겨울이 지나고 또 한 해의 겨울이 흘러, 그 모든 시간 동안 가웨인 경은 앞서 말한 고귀한 부인의 성에 머물렀더라. 그러매 다시

봄이 찾아오고 여름이 왔으며, 모든 나무가 푸르르고 무성하며 날씨가 다시 따뜻하고 포근해지는 계절이 이르렀더라.

이 여름 한창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무렵, 가웨인 경이 이제 소년으로 모셔 성의 영주와 영주가 부인이 사냥을 나갔다. 성의 신하들과 하인들 중 매우 화려한 무리가 그들을 따라 나섰다. 부인은 그 무리 가운데서 자신의 소년, 즉 가웨인을 데리고 갔으니, 이제 그녀가 그와 조금도 떨어져 있지 못함을 견디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낮의 뜨거운 햇살이 강렬해지자, 성의 영주는 쾌적하고 그늘진 곳에 천막을 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주와 부인은 한낮의 식사를 하고, 해가 덜 맹렬한 열기를 뿜어낼 때까지 휴식을 취하였다.

〈각주: 가웨인 경이 금빛 새를 바라보더라.〉

그때 가웨인 경은 숲 가장자리에서 매우 슬픈 마음으로 배회하며, 자신에게 내려진 그 마법에 대해 크게 탄식하더라. 그가 이렇게 배회하고 있을 때, 그는 갑자기 멀리 떨어진 땅 위에 앉아 자신을 매우 밝고 빛나는 눈으로 응시하는 금빛 깃털을 가진 새를 발견하더라. 이제 가웨인 경이 그 새를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가슴 안에서 매우 기이하게 뛰었으니, 이는 그가 바로 호수의 부인 님유가 이전에 그를 위해 보냈던 바로 그 금빛 새임을 기억하였기 때문이라. 그 금빛 새가 가웨인 경과 유웨인 경, 그리고 아일랜드의 마하우스 경을 숲을 통해 지나가 펠리아스 경이 있을 때 큰 곤경과 영혼의 불안 속에 있던 곳으로 인도했던 일은, 이 책 이전에 기록된 『아서왕의 책』에서 이미 서술되었노라. 그

러므로 가웨인 경이 숲 속에 있는 그 새를 보았을 때, 그는 그것이 호수의 부인의 새임을 알았고, 만약 그가 지금 그것을 따라간다면 아마도 그가 호수의 부인에게로 인도될 것이며, 그녀가 그의 기형에서 그를 해방시켜 줄 것이리라 생각하였더라.

이때 가웨인 경은 자신이 왔던 그 천막으로 되돌아갔다. 그는 그곳에서 한 필의 팔프레이를 타게 되었는데,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하였으니, 이는 난쟁이가 이제 마음 가는 대로 어디든 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이라. 가웨인 경은 그 팔프레이에 올라타고, 아무에게도 단 한 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은 채 떠나갔으며, 그의 가는 길을 막는 자는 아무도 없었더라.

이때 가웨인 경이 다시 그 새를 보았던 곳으로 돌아갔으나, 새는 여전히 처음 보았던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

〈각주: 가웨인 경이 숲 속으로 황금새를 쫓아 가더라.〉

그때 가웨인 경이 그 새에게 다가가자, 새는 날개를 펴고 날카로운 지저귐을 울리며 잠시 떨어진 곳으로 날아가 다시 땅에 내려앉았노라. 가웨인 경이 다시 다가가자, 새는 또다시 날개를 펴고 지저귀며 잠시 떨어진 곳으로 날아가니라. 이로써 새는 계속 날고 가웨인 경은 계속 뒤를 따랐으며, 이로써 새는 그를 숲 속으로, 그리고 그 영주와 부인의 천막이 있던 곳으로부터 멀리 이끌어 내었노라.

이리하여 황금새는 앞장서서 날아갔고, 가웨인 경은 언제나 그 뒤를 따랐노라. 드디어 새는 가웨인 경을 숲 밖으로 이끌어내어,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곳으로 데려갔더라.

수풀 가장자리 너머로 그는 황량한 계곡을 바라보았노라. 그곳은 드러난 채로 맨몸이며, 온통 수많은 돌들과 바위들로 뒤덮여 있었더라. 그 계곡 안에는 어떤 식물이나 풀의 기미라곤 찾아볼 수 없었노라. 오직 맨몸의 외로운 돌들과 바위들만이, 마치 불꽃이 타오르는 용광로 속에서 빛나는 뼈대들처럼, 태양의 열기 아래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더라.

〈각주: 가웨인 경이 안개 낀 구름을 바라보더라.〉

가웨인 경이 보니, 계곡 한가운데에는 짙은 안개가 마치 단단한 연기 기둥과도 같은 모양으로 서 있더라. 그는 그 안개 구름이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마치 돌기둥인 양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노라.

그때 가웨인 경은 그 황금새를 찾았고, 그가 보기에 새는 근처 나무의 높은 가지 위에 앉아 있더라. 그리고 가웨인 경은 새가 쉬려는 듯 날개를 접고 있음을 보았으니, 이로써 그에게 여기서 수행할 일이 있음을 알았고, 새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그를 이 곳으로 인도하였음을 깨달았노라.

이때 가웨인 경은 난쟁이로 변한 그 기이한 모습으로 계곡으로 내려가 안개 기둥 곁으로 다가가니, 그는 구름 가까이 다가가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더라. 그러자 그가 그렇게 서 있자마자, 구름 한가운데서 갑자기 소리가 나며 이르되, “가웨인! 가웨인! 그곳에 있는 이는 너냐?” 하니라.

가웨인 경은 안개 기둥 한가운데서 이와 같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있음에 있어 그 놀라움이 지극하더라. 이는 비비안 부인이 저주하여 그에게 변하게 한 모습에서는 어떤 생물, 유한한 자이든 무한한 자이든 그를 알아볼 수 있으리라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는 심히 놀랐으나, 난쟁이의 목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누구냐? 오르니의 롯 왕의 아들인 가웨인을 부르느냐?"

〈각주: 가웨인 경이 멀린의 음성을 듣다.〉

그때 그 목소리가 대답하되, “너에게 말거리를 건네는 자는 멀린이라. 나는 여덟 해 동안 돌로 만든 상자에 갇혀 잠들어 있었노라. 그러나 매 여섯 해마다 한 시간 동안 깨어나 살아 숨쉬며, 그 시간이 다하면 다시 잠들고 말리라. 지금이 내가 깨어난 때이니, 내가 전해야 할 예언을 네가 듣게 하려고 이렇게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였노라.”

“그리고 이것이 나의 예언이니라.”

〈각주: 멀린의 예언에 관하여.〉

"땅에서 장구토록 사라져 있던 거룩한 성배가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진실로 그 때가 가까왔노라. 이제 그 거룩한 잔의 모험을 성취할 자가 세상에 태어나려 하느니라."

그리고 구름 속에서 나온 목소리가 계속하여 이르되,

"그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그를 다룰 가장 값진 그 기사가 데려가리라. 그리고 그가 데려간 후, 그의 때가 이르기까지 그 기사는 그 아기를 인간의 눈에서 숨기리라."

"너는 죄인인 고로 이 아이를 네 손에 맡길 수 없노라. 그러나 죄가 적으신 분이 있으니 그분께서 맡으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명령의 뜻에 따라 행하라."

"너를 여기로 인도한 그 황금 날개를 가진 자를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대가 마법에서 정화될 곳에 이를 것이라. 그 후에도 그 황금 새를 더욱 멀리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대는 랜슬롯 경의 동생인 보르 드 가니스 경을 만나게 되리라. 그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아기를 돌볼 자격이 가장 뛰어난 자이니, 그가 아기를 돌보며 그 때가 다할 때까지 안전한 곳에 숨겨두리라."

"너는 보르 경에게 그 황금새를 따라오라 명하라. 그 새가 너희 둘을 앞서 간 그 곳, 곧 앞서 말한 그 기이한 유아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리라."

"그후에 그 아기가 서 보르스 경에게 데려갈 때, 너는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여덟 해가 지나면 원탁의 기사들이 성배를 구하여 떠날

것이라고 선포하라. 그리고 이 예언을 선포하라. 그 성배가 회복된 후에는 곧 원탁의 끝이 올 것이며, 이로써 이 모든 기사도의 날들은 영원히 세상에 기억될 것이니 끝이 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성배에 대한 예언이니라. 너희는 이를 듣기 위해 여기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나아가 이를 널리 선포하라. 모든 선량하고 가치 있는 기사들이 이 예언이 선포되었음을 알게 하라."

이와 같이 그 목소리가 말하더니, 이내 잠잠해지니라. 케이 경이 잠시 귀를 기울여 들었으나, 그 목소리는 다시는 말하지 않더라. 이에 케이 경이 큰 소리로 외치니라. "멀린아, 너를 덮은 마법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고 기다렸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노라. 그가 다시 외치니라. "멀린아, 네가 누워 있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러나 여전히 그에게 대답이 주어지지 않더라.

〈각주: 가웨인 경은 안개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자 애쓰니라.〉

이때 가웨인 경은 그 안개 구름 속으로 들어가려 결심하고 앞으로 나아갔으나, 보라! 그것은 강철과 같은 단단한 벽과 같아 어찌할 곳 없이 들어갈 수 없었노라. 그는 여러 곳을 힘껏 밀어보았으나, 어찌해 봐야 그 안을 뚫고 들어갈 틈은 어디에도 없었더라. 그 안개 기둥에 내려진 마법이 지극히 강렬하여, 오직 그 구름을 자신의 강력한 주문으로 만들어낸 마녀 비비엔 외에는 그 안에 들어갈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노라.

그때 가웨인 경은 멀린의 이름을 부르기 바빴으나, 멀린은 어느 때에도 그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노라. 이에 잠시 후 가웨인 경은 자신을 그 곳으로 인도하던 황금새가 근처를 오가며 날아다니는 것을 깨달으니, 그 새가 떠나기를 매우 조급히 여기는 듯하였더라. 이에 가웨인 경은 이제 이 곳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았노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임을 깨달았음이러라. 이에 다시 한번 크게 외쳐 멀린을 부르며 이르되, "멀린여, 안녕이로소이다." 하니, 그에게 꿈이 사라져감처럼 희미하고 먼 곳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였노라. 그 소리가 이르되, "안녕하노라." 하더라.

그 후 가웨인 경은 자신의 팔프레이를 타고 몸을 돌려 그 곳을 떠났노라. 그는 여전히 난쟁이의 복장을 한 채로 떠났고, 이로써 멀린의 예언이 성취되었더라.

*****

〈각주: 멀린의 잠에 대하여.〉

그 후로 멀린의 목소리가 다시 들린 일은 없었으니,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그 계곡을 찾은 이는 가웨인 경 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멀린은 단지 잠들었을 뿐일지도 모른다. 세상이 끝나는 때에 그는 다시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 예언되었기 때문이니, 그가 영혼으로 나타날지 육신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노라.

사실 오늘날에도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 멀린의 영혼이 다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그가 다시 살아 있다고 믿으니, 비록 그 영혼으로 살아 있는 것일지라도 말이라.

* * * * *

이제 갤러해드의 탄생을 들으라. 그는 세상에 태어난 기사 중 가장 유명한 자요, 멀린이 예언한 바와 같이 성배의 기적을 성취한 자이니라.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주리니, 귀를 기울여 들으라.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선량한 간니스의 보르스 경:]

[그림]

제2장

어찌하여 보르 경과 가웨인 경이 숲속의 수도원에 이르렀으며, 어찌하여 그 곳에서 갤러해드가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때에 보르 경과 가웨인 경은 숲속의 한 수도원을 찾아갔노라. 그 수도원은 깊은 숲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어, 외로운 나그네들이 쉬어 가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고요하고 신성한 곳이었노라. 두 경은 말에서 내려 수도원의 문턱을 밟았을 때, 그곳의 평온함이 그들의 마음을 적셨노라.

그곳에서 그들은 놀라운 일을 목격하였노라. 한 노승이 수도원의 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천국의 빛이 비추는

듯하였노라. 그리고 그 때, 한 아이가 태어났노라. 그 아이는 바로 갤러해드였노라. 그의 탄생은 그 수도원의 고요함을 깨뜨리지 않았으나, 오히려 그 곳의 신성함을 더 깊게 하였노라.

보르 경과 가웨인 경은 그 아이의 탄생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노라. 그들은 그 아이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 믿었노라. 그리고 그들은 그 아이를 위해 기도를 올렸노라. 그 기도는 숲속의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 나갔노라.

이렇게 해서 보르 경과 가웨인 경은 숲속의 수도원에서 갤러해드의 탄생을 목격하였노라. 그리고 그 날 이후로, 갤러해드는 원탁의 기사들 중 가장 빛나는 존재로 자리 잡았노라.

〈각주: 가웨인 경이 마법의 호수로 나아가니라.〉

이에 가웨인 경은 마법이 걸린 그 골짜기, 곧 멀린이 돌 관 속에 묶여 잠들어 있던 곳(그 돌 관과 멀린의 마법에 관해서는 『아서왕의 책』에 길게 기록되었노라)을 떠나, 황금새를 뒤쫓아 길을 계속하더라. 그 날개 달린 황금 생물을 가웨인 경은 오랫동안, 멀리까지 쫓았으나, 새는 결코 멈추지 않고 그 앞을 날아다니며 그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었노라.

이리하여 그 날 저녁 무렵, 가웨인 경은 여전히 황금새를 뒤쫓아 숲을 벗어나 놀라운 곳으로 나아갔으니, 그곳은 달빛도, 해빛도, 세속의 어느 빛과도 닮지 않은 기묘한 황금빛으로 비추어지고 있었노라. 비록

가웨인 경이 그 곳에 이르렀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으나, 땅 위나 하늘이나 모든 곳에 그 황금 광채가 가득 차 있었노라.

그 빛 속에서 가웨인 경은 넓고 둥근 호수를 보았으니, 물결 하나 없이 고요하고 빛나며, 수면에는 잔물결조차 없었으므로, 이는 물의 호수라기보다는 수정의 호수 같았노라. 호수 가장자리에는 놀라울 만큼 많은 키 큰 꽃들이 피어 있었으니, 백합과 아스포델스라 불리는 꽃들이라.

이때 가웨인 경이 그 꽃들 사이를 가로질러 말을 몰고 나아가자, 그는 이 곳이 바로 호수의 부인 님유가 거처하는 마법의 호수이며, 그녀의 영주이자 호수의 기사 챔피언인 펠리아스 경이 함께 머무는 곳임을 깨달았다. 이는 그가 이전에 펠리아스 경을 따라 이 곳으로 갔을 때, 달빛 아래서 이 호수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가웨인 경이 꽃들 사이로 나아가니, 얼마 떨어진 곳에 푸른 새틴으로 만든 천막이 서 있어 그 위에는 금빛의 천사 형상이 수놓아져 있더라. 금빛 새가 그를 그곳으로 이끄는지라, 그는 그 천막을 향해 나아가니라.

그가 그 천막으로 다가가자, 그곳에서 한 부인이 나와 그를 맞이하러 나섰다. 그 부인은 빛나는 초록빛 옷을 두루 입었으며, 목에는 보석이 박힌 빛나는 금 장신구를 여러 개 걸치고 있었다. 손목과 팔에는 금으로 된 장식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온통 검고, 얼굴은 상아처럼 희었으며, 눈은 상아에 박힌 보석처럼 두 개가 빛나고 있었다. 가웨인 경은 즉시 그 부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가 바로 호수

의 부인임을 알았다. 그녀가 아서왕에게 그리고 다른 몇몇 이들에게 어떻게 보였는지, 이 역사가 더 이전에 기록된 다른 권들을 읽고자 한다면 거기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호수의 부인이 나아와 가웨인 경을 맞으매, 그녀가 보기에 가웨인 경은 전에 예언되었던 대로 난쟁이의 모습으로 마법에 걸려 있더라. 부인이 이르되, "진실로 경이시여, 이는 경에게 닥친 큰 불운이로소이다. 이제 청하오니 저와 함께 가시어 저가 경의 마법을 풀도록 하소서."

호수의 부인은 가웨인 경의 말의 고삐를 잡으시고, 그 말을 꽃들 사이로 잠시 이끌고 가 호수 물가의 끝자락으로 데려오셨더라. 그들이 그곳에 이르자 호수의 부인은 몸을 굽혀 손으로 호수의 물을 한 움큼 떠올렸고, 그 물을 가웨인 경에게 뿌리며 높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노라.

"네 현재의 형상을 버리고, 네 본래의 모습을 지니라!"

〈각주: 호수의 부인이 케이 경을 마법에서 고치시니라.〉

그와 동시에, 가웨인 경 위에 내려앉았던 마법이 풀리며 그는 다시 자신의 모습을 되찾았노라. 호수의 부인 비비안이 저주하여 왜소하고 기괴한 난쟁이의 형상으로 변모하게 했던 그 가식적인 모습 대신, 그는 본래의 기사다운 풍채를 회복하였더라.

그때 가웨인 경이 자신이 타고 있던 그 불쌍한 말에서 뛰어내려, 호수의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그녀가 자신에게서 마법을

풀어주신 데 대해 끝없는 감사의 말을 드리니라. 호수의 부인은 가웨인 경을 내려다보시며 매우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그녀가 이르시되, "영주여, 저기 있는 천막에서 오늘 밤을 보내시오. 그곳은 당신이 쉬도록 준비되었나이다. 내일, 당신이 이렇게 쉬고 힘을 회복한 뒤에는 다시 당신의 길을 나아가게 되리이다."

〈각주: 호수의 부인이 떠남.〉

이에 호수의 부인이 케이 경에게 손을 내밀매, 그가 그 손을 받아 입맞추니라. 그 후 그녀가 돌아서 호수를 향해 다가가니, 이때 하늘은 해질 무렵의 영광과, 앞서 예언되었듯 그 놀라운 호수를 감싸는 기묘한 마법의 빛, 두 가지 영광으로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더라. 호숫가에서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던 케이 경은 호수의 부인이 물가에 닿자, 그 발을 내밀어 호수 표면에 올리는데, 마치 물이 맑은 유리판인 양이었더라. 그 부인이 이처럼 호수의 물에 닿는 순간, 그녀는 즉시 시야에서 사라졌고, 이후 그 때에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 후 가웨인 경은 무릎을 꿇었던 자리에서 일어나 장막 쪽으로 향하니, 그를 맞이하기 위해 두 명의 시종이 나아왔다. 이 시종들은 호수의 사람들이라 일컬어졌으니, 호수의 부인이 입은 옷과 마찬가지로 녹색 의복을 두루마고 있었기 때문이요, 그들의 옷도 또한 부인의 옷처럼 기이한 광채를 띠었더라. 그들의 머리카락은 온통 검정색이었고, 각자 머리에는 금 띠를 두르고 있었더라.

〈각주: _가웨인 경은 호수 백성들의 환대를 받더라._〉

이들이 가웨인 경에게 나아가 그를 안내하여 천막 안으로 들이었고, 천막 안에는 안락한 침상이 놓여 있었노라. 가웨인 경은 그 침상에 착석하시니, 그제야 두 명의 시종이 금으로 된 상을 가져와 그의 앞에 놓았노라.

그들이 흰 리넨 천을 상 위에 펴고 나니, 곧이어 가웨인 경 앞에 각양각색의 고기와 흰 밀가루로 만든 빵, 그리고 붉은 포도주와 흰 포도주가 가득한 풍성한 잔치가 차려졌노라. 이에 가웨인 경은 드시고 마시며 몸을 쉬셨고, 그 사이 호수의 두 시종은 모든 면에서 그를 섬기며 봉사하였노라.

그 후 가웨인 경은 누워 잠들었으니, 그가 자는 동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고요하며, 그 어떤 근심도 없었더라.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자 그는 몸을 일으키려 하였고, 곧장 두 시종이 와서 그를 도와 일어났다. 그들은 그에게 입으라고 새롭고 화려한 옷가지를 가져왔고, 또한 그가 기운을 차릴 수 있는 음식을 가져왔으며, 그 후에 그들은 거울처럼 빛나는, 그리고 금으로 수놓아진 여러 가지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훌륭한 갑옷 한 벌을 가져왔더라.

그때 호수의 기사단원들이 가웨인 경을 무장시키고 그를 천막 밖으로 이끌어 내니, 가웨인 경은 고귀하고 위엄 있는 전마를 보았더라. 그 말은 온갖 장식으로 치장되어 있었고, 왕족의 기사로서 타기에 더없이 어울리는 모습이었더라. 그러자 한 기사가 그에게 이르되, “영주여, 이 말이 당신의 말이라.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것이니이다.”

이때 가웨인 경은 전쟁용 마호를 바라보며 그 고귀함을 깨달았고, 소유의 기쁨에 넘쳐 그 위에 올랐다. 그리고 자신을 섬긴 두 시종에게 끝없는 감사를 드리니라. 그 후 그는 그곳을 떠났는데, 그의 마음은 가볍고 영혼은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 이는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에게도 흔치 않은 일이었더라.

〈각주: 가웨인 경이 다시금 황금새를 좇아나서라.〉

그때 곧 그 황금새가 다시 나타나 가웨인 경 앞에서 날아다녔으니, 이는 전과 다름없었더라. 새는 매우 날카로운 소리로 지저귀며 그를 인도하였고, 가웨인 경은 다시금 그 뒤를 따랐으니, 이는 전과 같았더라. 새는 예전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그를 이끌고 갔으므로, 이로써 그는 한창 낮이 기울어갈 무렵까지 그 길을 따라 나아가다가, 마침내 숲의 한 넓은 벌판으로 나왔더라. 거기서 그는 이 이야기들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숲 속의 은수자의 초막을 눈앞에 바라보았더라.

가웨인 경은 그 숲의 성역 곁에 고귀한 검은 전마가 서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수녀원 곁 나무에 큰 창이 기대어 있으며 그 창에 방패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더라. 가웨인 경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그 방패에 새겨진 문양으로 보아 그 수녀원에 있는 자가 바로 보르스 드 가니스 경임을 알았노라.

이때 가웨인 경이 숲 속 은자의 오두막에 다가가자, 보스 경의 말이 크게 울부짖었고, 이에 가웨인 경의 말도 화답하여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마치 한 소환인 양, 오두막의 문이 열리며 은자가 문턱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손으로 이마를 가리고 강한 햇살을 가리며 밖을 내다보

았다. 그러고 보니 그가 멀리서 다가오는 자가 바로 가웨인 경임을 알아보고는 크게 소리쳐 외쳤다.

"환영하노라, 가웨인 경! 이 곳으로 오심을 환영하노라! 보스 경이 이미 여기 계시며, 그대 오심을 기다리고 있노라. 그에게 꿈속에서 그대가 오늘 이 때에 이곳에서 그와 만나리라는 말이 전해졌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그대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노라."

〈각주: 가웨인 경이 보스 경과 다시 만나니라.〉

이에 가웨인 경은 말에서 내려 선지자의 굴로 들어가 보니, 작은 제단 앞에서 펠리아스 경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 가웨인 경은 펠리아스 경이 기도를 마칠 때까지 서서 기다렸노라. 펠리아스 경이 삼위일체의 표시를 하고 일어서자, 그는 큰 기쁨으로 돌아와 가웨인 경을 품에 안고 서로를 껴안으며 뺨에 입을 맞추었더라.

그 후 그들이 앉자 은수사는 그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그들은 은수사의 소박한 식탁에서 먹었다. 그 사이 가웨인 경은 그들과 헤어져서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보스 경에게 이야기했다. 보스 경은 말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 들었는데, 가웨인 경에게 일어난 일과 비비안 부인이 저지른 마법에 대해 매우 놀랐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정말로 놀라운 모험이었다. 누구나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가웨인 경이 멀린의 예언에 관하여 보스 경에게 이야기할 때, 보스 경은 마치 영적인 고취에 휩싸인 듯 온몸이 떨렸다. 이에 가웨

인 경이 그 이야기의 일부를 마쳤을 때, 보스 경은 외쳤다. “네가 내게 들려주는 이 기적이 어찌 그리 놀라운고! 내가 최근 여러 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목격하였노라. 보라, 이제 그것이 너에게는 현실로 드러났도다.”

그가 이르되, “우리는 즉시 일어나 여기서 떠나자. 내가 생각하건대, 우리는 이미 이 예언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지나치게 오래 머무르고 있도다.”

이에 두 사람은 일어나 그 선한 노 은수자에게 감사의 뜻을 다하며 작별을 고하였다. 그 후 그들은 나가 말에 올라타고 방패와 창을 손에 쥐고 그곳을 떠났다. 그들이 떠난 뒤, 곧장 금빛 새가 다시 나타나 그들 앞에서 지저귀며 날아갔다.

그때 케이 경이 새를 바라보며 이르되 “보라, 저것이 우리를 길로 인도하라고 보내진 새가 아니냐?” 하니 가웨인이 이르되 “그렇도다, 바로 그것이라.” 하므로 케이 경이 이르되 “그리하여 우리를 재촉하여 따르자.” 하더라

〈각주: 가웨인 경과 보르스가 황금새를 쫓아 뒤를 따른다.〉

〈각주: 그들이 계곡의 수도원에 이르렀다.〉

그들이 새를 따라가니, 새는 항상 그들 앞에 날며 길을 인도하더라. 이에 그들은 장구한 세월을 여행하다가, 마침내 오후의 해가 기울어갈 무렵, 그들이 타고 가던 숲이 점차 희미해짐을 깨달았노라. 그리고 곧이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듣게 되었

더라. 새는 그 종소리가 나는 곳으로 그들을 이끌었고, 작은 골짜기를 지나他们는 숲을 벗어나 매우 비옥한 계곡으로 들어왔노라.

그곳에는 넓지 않으나 매끄러운 강이 계곡을 따라 흐르고 있었고, 강가에는 크지는 않으나 매우 아름다운 수도원이 서 있었노라. 하얀 벽과 붉은 지붕, 그리고 수많은 빛나는 창문으로 이루어진 그 수도원은 햇빛 아래서 매우 밝게 빛나고 있었노라. 수도원 주변에는 아름다운 들판과 과수원, 그리고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모두 기울어가는 해의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노라. 해는 이제 황금빛으로 세상을 물들이며, 밝고 황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노라.

이에 케이 경과 가웨인 경이 이 아름다운 평야에 들어섰을 때, 그들을 이 곳으로 인도하던 금빛 새가 갑자기 매우 크고 날카로운 소리로 지저귀더니 곧장 높은 공중으로 날아올라 나무 꼭대기 너머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노라. 이에 두 기사는 자기가들 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을 확신하며, 멀린의 예언에 언급되었던 그 어린 아이를 이곳에서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임을 알았노라. 그러므로 그들은 다음에 어떤 신비로운 일이 자신들에게 닥칠지 알 수 없어 경외심을 가지고 수도원 쪽으로 나아갔노라.

〈각주: 그들이 랜바인 경을 만나다.〉

그들이 그 거룩한 곳, 곧 수녀원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대문은 갑자기 열리며 매우 고귀하고 위엄 있는 용모를 지닌 한 젊은 기사가 나타났다. 가웨인 경과 보르스는 그 인물을 즉시 알아보았는데, 그는 바로 엘레인 공녀의 오라버니이자, 옛적 호수의 랜슬롯 경과 함께 무기를 잡

던 동지였던 라베인 경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더 가까이 다가가자, 라베인 경의 얼굴이 매우 슬픔에 잠겨 있음을 보았고, 그가 그들을 맞이하며 웃음을 띠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가 이르되, "환영하노라, 경들이시여. 경들이 늦게 오지 않았으니 다행이로다. 우리는 아침부터 경들을 기다려 왔노라." 하고 말하였다. 이어 그는 "내리시어 나와 함께 하시오."라고 이르니라.

이에 랜슬롯의 동료들이라 일컬어지는 보스 경과 가웨인 경은 말에서 내려리니, 곧 여러 하인들이 달려와 말들을 받아 말구유로 인도하더라. 이때 라베인 경이 돌아서서 손짓으로 부르고, 보스 경과 가웨인 경은 그의 명을 따라 뒤를 따르니라. 라베인 경은 여러 복도를 지나 여러 곳을 거쳐 마침내 수도원의 작은 방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는데, 그 방은 매우 춥고 허술하며 눈처럼 희었더라.

〈각주: _그들이 호수의 부인 엘레인을 바라보더라._〉

그 방 한가운데에는 한 개의 침상이 놓여 있었고, 그 침상 위에는 죽음처럼 고요한 한 인물이 누워 있었더라. 케이 경과 가웨인 경이 바라보니, 그곳에 누워 있는 이는 엘레인 공녀임이 드러났노라. 그녀의 머리카락은 침상의 베개 위에 온전히 펼쳐져 있어 순금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머리카락 한가운데에 그녀의 얼굴은 순백의 맑은 밀랍처럼 희게 빛나고 있었노라. 그녀의 눈은 희미한 그림자 너머에서 바라보는 듯했으며, 항상 정면만을 응시하고 있었더라. 케이 경과 가웨인 경, 그리고 라베인 경이 그녀의 방으로 들어올 때도 그녀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

며 시선을 옮기지 않았노라. 마치 그녀가 시선을 아주 먼 곳의 매우 기이한 무언가에 고정하고 있는 듯하였기 때문이었노라.

〈각주: _그들이 어린 아이를 바라보더라._〉

그때 라베인 경이 속삭이며 이르되, "가까이 오시어 보소서," 하니, 이에 보스 경과 가웨인 경이 엘리네 부인이 누워 있는 침상 곁으로 다가가니라. 그들이 가까이 다다르자, 라베인 경이 이불을 매우 부드럽게 들어 올리니, 침상 위에 엘리네 부인 곁에 신생아가 누워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노라.

그때 그들이 깨달으니, 이 아기가 호수의 랜슬롯 경과 엘리네 부인의 자손이요, 멀린이 그의 예언에서 말한 바로 그 아기임을 알았노라. 그 아이는 지극히 놀랍도록 아름다웠으며, 마치 얼굴에서 맑은 빛의 광채가 비치는 듯하였더라. 또한 아이가 지극히 고요히 누워 있어, 마치 살아 있지 않은 듯하였으니라.

이에 보스 경과 가웨인 경은 이러한 일들과 여러 가지 다른 징표들로 인해, 그들이 찾던 바로 그 아이임이 틀림없음을 알았노라. 진실로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인 양 들리더라. "보라! 이것이 바로 멀린의 예언에 따라 성배의 기도를 성취할 자라."

이때 에커 경의 딸 엘레인 부인이 눈을 감고 숨을 거두려 할 때, 랜슬롯 경은 그 부인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를 안아 올렸다. 그리고 부인의 머리를 그의 무릎 위에 얹어 주었다.

〈각주: 엘레인 공녀가 보르 경에게 말을 걸다.〉

그때 그녀가 이르되, “보라 이 아이를 바라보라. 이는 성배의 기도를 성취하여 그것을 다시 땅으로 가져올 자니라. 그리하여 그는 세상에 나타난 어떤 기사보다도 더 위대한 기사가 되리라. 비록 그가 살아온 모든 이들 중 가장 위대한 무사의 Champion이 되리라 할지라도,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며 죄가 없으리니,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리라. 그가 기사의 도에서 지극히 높고 생의 순결함이 크므로, 그의 이름은 갈라해드라 불리리라.” 하고 그녀가 다시 이르되, “케이 경, 당신 여기 있소?” 하니 그가 이르되, “네, 부인.”

그가 이르되, “나의 때가 가까웠노라. 지금 내가 이미 낙원의 빛나는 문들을 보노라. 비록 아직은 안개 낀 증기 너머로 희미하게 볼 뿐이로되, 곧 그 안개가 사라지고 나는 그 문들을 매우 가까이서, 그리고 영광 가운데 빛나는 것을 보리라. 곧 나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떠나 그 밝고 아름다운 곳으로 떠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내 곁에 누운 이 아이를 남겨두리니, 그의 삶은 내가 떠나가는 그 세상을 밝히 비추리라.”

그리하여 그가 세 번째로 이르되, “보르스 경, 그대가 있느냐?”

보르스 경이 울며 이르되, “예, 부인,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이에 호수의 부인 엘레인이 이르되, “너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가라. 너는 반드시 찾아야 할 한 곳으로 그를 데려가라. 그 곳을 너는 알리라. 금빛 깃털을 가진 한 새가 너의 앞서 날아갈 것인데, 그 새가 너로 하여금 이 아이를 어디에 내려놓아야 할 것인지를 보이리라. 그 새가 인도하는 그 곳에 아이를 남겨두고, 그 곳이 어디인지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아이는 세상에 드러날 그 때가 올 때까지 비밀 속에 숨어 있어야 하노라."

그리고 그녀가 이르되, "보르스 경이여, 내 말을 듣느냐?" 하니, 여전히 눈물을 흘리던 보르스 경이 이르되, "네, 부인이여." 하더라.

그때 그녀가 이르되, "가라, 가다가 머무르지 말라. 그 끝이 매우 가까웠노라. 그 끝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가서 내가 네게 청한 바를 행하라."

〈각주: 보스 경이 어린 아이와 함께 떠나다.〉

이에 눈물을 머금고 서 있던 보르 경이 무릎을 꿇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어린 아이를 안아 자신의 겉옷으로 감싸고서는 그곳을 떠나 그 아기를 데리고 사라졌더라.

이때 가웨인 경과 라베인 경도 함께 눈물을 흘렸노라. 가웨인 경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고, 라베인 경은 그 곁에 서 있었더라.

이러한 것이 성배의 사냥을 성취한 가레스 경의 탄생 이야기라. 이는 멀린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바였다.

* * * * *

〈각주: 아름다운 엘레인의 죽음.〉

그 날 밤, 한밤중의 초경에 엘레인 부인은 이 세상을 떠나시니, 그분은 큰 평안과 깊은 만족 가운데 안식하셨노라. 그분께서 영혼을 떠나실 때, 가웨인 경과 라베인 경이 그 곁에 있었더라.

이에 가웨인 경은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가 가서 호수의 랜슬롯 경을 이곳으로 모셔오리다." 하거늘, 란바인 경은 매우 엄숙한 어조로 말하되, "멈추라. 그를 데려오지 말라. 그는 이곳에 모셔올 만한 자질이 없노라. 오직 너는 물러가라. 내가 혼자서 행하고자 하는 일이 남아 있노라. 그러므로 즉시 떠나 아서왕의 궁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왕의 궁정에 이르거든, 갈라해드라는 아이의 출생에 관하여나, 이 고운 공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일에 관하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이러한 일들이 드러나기 전에 반드시 성취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 있노라. 그러므로 궁정에 이르거든 내가 말한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는 침묵하라." 이에 가웨인 경이 이르되, "영주여, 모든 일에 있어 당신의 뜻대로 하겠사옵나이다."

〈각주: 가웨인 경이 수도원을 떠남.〉

이에 가웨인 경이 곧장 나가 그의 말을 부르매, 사람들이 그의 말을 가져오는지라 그는 말에 올라 그 곳을 떠나가며, 펠리아스 경을 그의 죽은 자들과 함께 남겨두었더라.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 말하노니, 가웨인 경은 그곳을 떠나 곧장 왕의 궁정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거기에 이르러서 그는 비비안 부인이 그를 마법으로 홀렸을 때 일어난 그 사건들만 말하였노라. 그러나 그 밖의 다른 일들, 즉 갤러해드의 탄생과 엘레인 부인의 죽음에 관하여는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잠시 동안 자신의 마음 속에 감추었노라.

그러나 그는 밤이 깊어 고요한 감시 시간 동안에도 그 일들을 묵상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 일들에 대한 생각은 그에게 기쁨과 일종의 공포를 동시에 안겨주었으며, 희망과 절망 같은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목격한 일들로 인해 마음이 혼란스러웠으니, 그 징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러스트레이션: 사자의 배]

[일러스트레이션]

결론

이제 보르스 경이 떠나고,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가웨인 경이 떠난 뒤, 수도원의 여러 사람들이 그 죽음의 작은 방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고요하고 평온한 그 영체를 들어 올리고, 수도원의 예배당으로 모셔갔다. 예배당 안에서 그들은 그 영체를 관 위에 안치하고, 관 주위에 촛불을 밝혔으며, 떠난 고요한 영혼의 안식을 위해 밤새도록 예배당에서 레퀴엠을 올렸다.

새벽의 칠흑 같은 어둠이 가시지 않은 아침, 촛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채 남아 있을 때, 라베인 경이 예배당에 찾아와 관 곁에서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하여 그가 기도를 마친 뒤 일어나 그 곳을 떠나 수녀원의 사람들에게로 가 이르되, “이 강이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 그들이 이르되, “이곳을 지나 캐멀롯이라는 왕의 도시를 거쳐 흐르며, 이어서 남쪽 바다로 흘러듭니다.”

〈각주: _라베인 경이 한 척의 배를 발견하더라._〉

라바인 경이 이르되, “이곳에 강물을 떠다닐 배가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있사옵니다, 영주여. 한 척의 바지가 있고 그 바지를 몰아가는 사내가 있는데, 그 사내는 태어날 때부터 귀먹고 말더듬이로 되었나이다.” 이에 라바인 경이 이르되, “내가 그 귀먹고 말더듬이 바지꾼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줄 것을 청하노라.”

이에 그들 중 한 사람이 그를 데리고 배가 정박한 곳으로 향하니, 그곳에는 그 배와 귀먹고 말못하는 뱃사람이 있더라. 뱃사람은 눈이 부시도록 하얀 긴 수염을 가진 매우 노인이었으며, 랜라인 경이 다가오자 그를 매우 집요하게 응시하였더라. 이에 랜라인 경이 뱃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짓으로 물으니, 강물을 따라 왕의 도시로 건너가게 해달라는 것이었더라. 말못하는 뱃사람은 랜라인 경의 뜻을 이해하고, 그의 소원대로 하겠노라 손짓으로 답하더라.

〈각주: _데인 경이 죽은 부인과 함께 바지에서 떠난다._〉

그 후 랜슬롯 경은 백색 사미트 천으로 배를 둘러싸고 은색 자수로 수놓으라 명하였으며, 배 위에는 또 백색 사미트 천으로 된 안석을 마련하라 명하니, 그 안석의 덮개 역시 은색 자수로 수놓아지니라.

이리하여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자, 예배당에서 한 행렬이 나와 고요하고 침묵하는 그 형상을 안고 나왔으니, 그들은 그것을 배로 가져다가 미리 준비해 둔 백색 사미트 안석 위에 안치하였더라.

그리하여 랜슬롯 경이 배에 올라 배의 선미에 자리 잡았고, 귀먹고 말못하는 사내는 배의 선미에 자리를 잡았더라.

이때 뱃사람이 돛을 다듬고, 그 결과 배는 그 곳을 천천히 떠났다. 많은 이들이 상선대 위에 서서 그 배의 떠남을 지켜보았더라.

〈각주: _그들이 강물을 따라 내려가더라._〉

그 후 배는 강물의 고요한 수면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귀도 못 듣고 말도 못하는 사내는 언제나 그 길을 인도하였더라. 곧이어 그들은 부들꽃이 무성한 강둑 사이로 흘러가며, 여기저기 가지치기 된 버드나무 줄과 알더나무 덤불이 줄지어 서 있는 곳을 지나갔더라. 그들의 주변에는 여름날의 상쾌한 기운이 가득했고, 모든 것이 은혜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피어났더라.

그때 그들이 갈대와 버들가지, 그리고 자작나무가 우거진 습지를 떠나자, 곧 그들은 고요하고 뜨거운 햇살 아래서 모든 들판과 구릉이 떨리는 듯한 열린 초원지대를 지나쳤다. 그리고 이어 그들은 여러 작은 마을과 촌락이 있는, 더 많은 인구가 사는 땅에 이르렀는데, 그 곳에는 강을 건너는 석조 다리가 여기저기에 놓여 있었다.

그들 거주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강을 지나가는 그들의 배 아래에서 서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강가의 매끄럽고 푸른 풀밭 언덕에

서서, 그 놀라운 배가 물결을 타고 흘러가는 것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바라보던 자들은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속삭이며 놀라워했고, 경외와 공포로 인해 스스로에게 십자성을 그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계속 흘러가다 마침내 캐멀롯 성읍이 시야에 들어오는 곳에 이르렀더라.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마을에 다다랐다. 성벽을 지나가시던 차에, 보라, 많은 백성들이 몰려와 성벽 위에 서서 하얀 천으로 덮인 배와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내려다보며 바라보더라. 모든 백성들은 경외심에 찬 목소리로 서로 수군거렸노라. “이것이 무엇이요? 이것이 무슨 징조인가? 우리가 보는 이것이 실체인가, 아니면 환상인가?”

〈각주: _그들이 캐멀롯에 이르니라._〉

그러나 그 배는 끊임없이 밀려가 성벽을 지나, 그 위에 서 있던 자들을 스쳐 지나갔고, 마침내 성왕의 성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돌계단의 정박지에 닿았더라. 그곳에서 말 없는 뱃사공은 배를 정박대의 쇠고리에 단단히 매어 매고, 그 기이한 여정은 막을 내렸노라.

그때 아서왕과 그의 궁정 귀족들과 여인들이 성의 대청에서 연회를 즐기며 앉아 있었으니, 그 가운데에는 랜슬롯 경과 구이니비어 왕비도 함께하셨더라. 그들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갑자기 한 사내가 놀란 듯이 대청으로 뛰어들어 왔으므로 모두 그를 바라보며 어찌하여 그가 그런 모습으로 들어왔는지 의아해하였더라. 이에 아서왕이 이르시되, "무슨 일로 너는 이리 놀라 우리 앞에 왔느냐?"

〈각주: 아서왕이 배의 소식을 듣다.〉

그때 그 사람이 아서왕 앞에 무릎을 꿇고 아뢰었노라.

"폐하, 여기 놀라운 일이 있사옵니다. 강가 성곽의 계단 아래로 한 척의 배가 도착하였사오니, 그 배는 은으로 수놓은 흰 사미트 천으로 온전히 덮여 있사옵니다. 그리고 그 배 안, 흰 사미트 천으로 덮인 안락좌 위에는 죽은 여인이 누워 있사오니, 그 아름다움은 이 땅 어디에서도 그와 닮은 이를 찾기 어려울 지경이옵니다.

또한 배의 뒤쪽에는 말 없는 사내가 앉아 있고, 배의 앞쪽에는 한 분의 고귀한 젊은 기사가 앉아 있사옵니다. 그 기사는 슬픔에 잠겨 있는 양, 망토로 얼굴을 가린 채로 있사옵니다. 그 기사님은 죽은 여인처럼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으시며, 말 없는 사내 또한 살과 피로 된 인간이라기보다는 한 점의 조각상과도 같사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폐하께 알리기 위하여 제가 이리 왔사옵니다."

이에 아서왕이 이르시되 "이것은 실로 참으로 기이한 이야기라. 이제 우리 모두 곧장 가서 이것이 무슨 징조인지 보자." 하시니라

이에 왕께서 앉으셨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내려가시며 홀을 나서시니, 거기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그를 따랐더라.

〈각주: 아서왕과 그의 궁정이 배가 머무는 곳으로 향하더라.〉

우선 아서왕이 거닐어가시니, 마지막 무리 가운데 호수의 랜슬롯 경도 함께 가니라. 그가 그 죽은 부인의 소식을 듣고서는 호수 에일레인을 떠올렸노라. 그녀는 이미 몸이 여위고 병약한 상태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는 당시 궁정에 머물러 있었을 뿐, 그녀 곁에 있지 못했던 것을 심히 후회하며 마음이 쓰라려하더라.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노라. "만약 그녀가 저 배 안의 그 죽은 부인처럼 죽어 버린다면, 내가 만약 그 일을 당했다면 어찌하였을까?" 그로 인해 그의 발걸음은 무거운 생각 때문에 무거워졌고, 앞서 말한 그 배가 있는 강가에는 그가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더라.

그때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으나, 아서왕이 오시자 모두 그 길을 비켜드렸노라. 이에 왕께서 상륙 계단의 윗단에 서시어 배 안을 내려다보시니, 거기에 누워 있는 형상을 보시고 그것이 죽은 엘레인 공녀임을 아셨더라.

이때 왕은 잠시 동안 그 죽은 자의 형상을 바라보며 일종의 공포에 사로잡힌 듯 하더니, 이윽고 물으시되 "랜슬롯 경은 어디 있느냐?" 하시니라.

〈각주: _랜슬롯 경은 죽은 자를 바라보라._〉

이때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그 곳에 서 있던 이들이 길을 터 주었고, 랜슬롯 경은 군중을 헤치고 나아가 계단 맨 위에 서서 아래로 내려다보았더라. 그러자 갑자기, 마치 한 순간의 시간처럼, 그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생각하던 그 대상을 보았노라. 바로

그 앞에, 그리고 그 아래에, 그가 잠시 전까지만 해도 생각하던 그 사랑스러운 부인의 죽은 모습이 진실로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때 랜슬롯 경은 마치 죽음의 화살에 갑자기 맞은 듯이 움직이지도, 꿈틀거리지도 않았다. 아니, 그는 숨조차 쉬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배를 내려다보며 서 있을 뿐, 이 순간 세상에는 자신과 그 죽은 부인 외에는 아무도 없는 줄로 알았는지라. 그곳에 있던 많은 이들이 랜슬롯 경의 얼굴을 바라보았으나, 그의 얼굴빛은 그들 아래 배에 누운 그 죽은 자의 얼굴빛과 다름없이 하얗게 질려 있음을 보았더라.

〈각주: _라베인 경이 랜슬롯 경을 고발하더라._〉

그때 모든 곳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고 모든 목소리는 잠잠해졌으며, 그 고요함 가운데서 라베인 경은 자신의 얼굴에서 후드를 벗어 던지고, 죽은 부인의 발치에 앉아 있던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일어서니, 그제야 서 있는 랜슬롯 경의 모습을 보게 되었더라.

즉시 라베인 경은 바지선을 일어나 큰 목소리로 날카롭게 외쳤노라.

"하! 너라, 그 배신자 기사여! 보라, 네가 저지른 일을! 이 모습은 곧 네 손이 행한 짓이니라. 너는 이 부인의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이를 사랑했으니, 이로 인하여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도다!"

이때 랜슬롯 경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 앞에서 이렇게 이르렀으나, 랜슬롯 경은 그 말을 듣지 못한 양 그대로 서 있더라. 그는 살아

서 피와 살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 죽은 자와도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이라.

그러던 차에 그는 갑자기 삶으로 깨어난 듯 하였고, 두 손의 뒷등을 눈앞에 대며 목이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니라.

"회개여! 회개여! 회개여!"

그는 이 말을 세 번이나 그와 같이 외쳤더라.

그리하여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듯 입술을 꽉 다물었으며, 이에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가더라.

〈각주: 랜슬롯 경이 떠남.〉

그는 우측으로도 좌측으로도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고, 곧장 왕의 성으로 향하여 거기서 즉시 자신의 말을 가져오라 명하였노라. 그의 말이 끌려 나오자 그는 곧장 말에 올라타서 달아났으니, 그가 떠나갈 때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또한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본 자는 아무도 없었더라.

이때 랜슬롯 경은 어디로 나아가는지 알 수 없이 오랫동안 말을 몰았으나, 얼마 뒤 그는 숲속 한복판에 이르렀고, 그곳은 숲의 은수자가 거처하는 소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랜슬롯 경이 바라보니, 숲의 은수자는 그의 소굴 앞 잔디밭 한가운데 서서 숲속의 들새들을 먹이고 있더라. 작은 날개 달린 새들이 무리 지어 그 주위에 모여들었는데, 어떤 새는 그의 머리에 앉고, 어떤 새는 어깨에 머무르며, 또 어떤 새는

그의 손 위에 머물렀더라. 숲의 암사슴 한 마리와 새끼 사슴도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었고, 온갖 평화와 깊은 안식이 가득한 곳이었더라.

그러나 랜슬롯 경이 다가오자, 그 모든 들짐승들은 놀라 도망쳤더라. 새들은 지저귀며 날아갔고, 암사슴과 새끼 사슴은 숲의 밀림 속으로 달아났노라. 이는 그들이 본능에 의해, 죄와 슬픔을 안고 오는 한 사내가 그곳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두려워하여 그와 같이 도망쳤노라.

그러나 랜슬롯 경은 이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말에서 뛰어내려 수염을 기른 은수자에게 달려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발을 안고 울부짖으며 이르되, "슬프도다! 슬프도다! 내가 지극히 중한 죄를 지었사오며 지극히 무거운 벌을 받았사오니, 이제 내 마음이 찢어졌나이다!"

이에 그 은수사는 랜슬롯 경에게 큰 재앙이 닥쳤음을 깨달았으므로, 그를 일으켜 세우고는 자신의 은신처로 모셔들였노라. 두 사람이 은신처 안에 함께 있게 되자, 은수사가 이르되, "이제 내게 네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말하라, 랜슬롯 경이여. 내가 믿거니와, 내게 말함으로 너는 큰 위안을 얻게 되리라."

이에 랜슬롯 경은 모든 것을 그 은수자에게 고백하였노라.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도 숨김없이 털어놓으니, 선하고 거룩한 그 노인이 그의 말을 경청하였더라.

이때 랜슬롯 경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토해내자, 은수사는 잠시 동안 침묵하며 자신의 영혼과 교감하더라. 그리고 잠시 후 그가 이르되,

"영주여, 하나님께서 내게 일러주시니, 만약 당신의 죄가 중대하였다면, 당신의 형벌 또한 심히 혹독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되, 비록 당신이나 그 어떤 자도 이미 행한 일을 되돌릴 수는 없고, 저지른 죄를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당신이나 그 어떤 자도 행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노라. 당신은 회개라는 맑은 물로 영혼을 목욕시킬 수 있노라.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후회와는 사뭇 다른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목욕한 후에는 새로운 결의로 된 새 옷을 입는 듯이 자신을 가눌 수 있노라. 이렇게 목욕하고 옷을 입은 당신은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 저는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입니다. 저는 죄를 지어 큰 악을 행하였사오나, 저는 여전히 주님이 저를 어떤 존재로 만드신 그 주님의 손길로 지으신 바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제가 이미 행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사오나, 주님의 도움으로 앞으로는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일을 행할 수 있사오리다'라고 할 수 있노라."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으며, 다시금 죄를 지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자를 가까이서 도우사, 의로움 향하는 새로운 결단을 끊임없이 이루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비록 네가 죄를 지었으나, 여전히 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이 세상에 너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때 랜슬롯 경은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당신의 말씀에는 큰 위안이 있나이다."

그 후 그는 수도자의 동굴에서 사흘을 머무르니라. 그 때를 다하여 그가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에, 그는 상심한 자요 겸손한 자였으며, 이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뜻하신 삶을 잘 수행하리라 굳게 결심한 자였더라.

그리하여 그에게 닥친 또 다른 모험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 듣게 되리라. 그러나 그것은 이곳에서가 아니었노라.

이와 같이 랜슬롯 경의 일도 끝났으니, 이제 그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왕의 궁정을 떠난 뒤의 일을 말하리라. 그들은 엘레인 부인의 시신을 캐멀롯의 대성당으로 가져가 그곳에서 그녀의 순수하고 온화한 영혼의 평안을 위해 높은 미사를 올렸노라. 그러므로 이틀 동안, 즉 랜슬롯 경이 앞서 말한 대로 회개의 물에서 몸을 씻고 있던 그 기간 동안, 그 시신은 대성당에 안치되어 수많은 촛불이 그 주위에 타올랐으며, 이후 대성당에 매장되었고, 그 떠난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영혼의 기억을 위해 대리석 기념비가 세워졌더라.

* * * * *

이로써 갤러해드의 탄생에 관한 역사가 끝나고, 이와 함께 이 책도 또한 그 막을 내리노라.

그러나 잠시 후, 하느님께서 내가 이 역사들을 기록하며 시작한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하시거든(내가 그 일과 여러 다른 일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노라), 나는 이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내가 어떻게 랜슬롯 경이 다시금 세상에 돌아왔는지, 그리고 성배의 모험에 대한 역사를, 그리고 아서왕의 궁정을 이전보다 더욱 찬란하게 만든 후세의 다른 기사들에 관하여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리라.

이미 이 일들에 관하여 두 편의 사적이 쓰여졌고, 이것이 세 번째가 되며, 또 다른 한 편이 쓰이리라 믿노라. 이는 내가 스스로에게 맡긴 그 사업을 완성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하여 네 번째 책을 끝내고, 여기서 맡은 나의 일을 마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끝

* * * * *

변역자 주:

구두부호가 표준화되었습니다.

이 텍스트 전반에 철자 불일치가 나타난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렇지라도, 나는 그것을 찾을 수 없노라

그 방패를 드러내라.

78쪽, “Lynnette”를 “Lynette”로 수정함 (Lynette가 경에게 말하되)

84쪽, "Grandregarde"를 "Grandregard"로 고치고, 이를 "Granderegard"라 칭하더라

98페이지, "Axaltalese"를 "Axatalese"로 수정함(그링amoore가 Axatalese에게 말함)

98쪽, ‘Layonesse’를 ‘Layonnesse’로 수정함 (레이오네스와 처녀)

99쪽, ‘Layonesse’를 ‘Layonnesse’로 수정함 (내 누이, 레이오네스의 부인)

그때 비로소 그녀는 자신의 길을 떠났노라

페이지 102, “Geharis”를 “Gaheris”로 수정함 (가레스 경이 의아해하며)

139쪽, “Palamedes”가 “Palamydes”로 변경됨 (Sir Palamydes와의 만남)

그가 그의 가슴에 그것을 찔러넣었더라

153페이지, "Chavelier"를 "Chevalier"(즉, 르 셰발리에)로 수정함

그 부인은 두려워하더라

다른 한 분은 ~하시지 않았노라

“어찌하여 너는 알겠느냐”

다양한 곳을 가로지르니라

275쪽, ‘Percivant’를 ‘Percevant’로 수정함 (포로가 된 이는 퍼시벌 경이었노라)

282쪽, "Le"를 "le"로 변경함 (hight, le Chevalier)

그러나